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2-01
협동연구 2019-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정해식

권지성 · 정선욱 · 김성아

전영섭 · 권석만 · 김석호 · 신혜란 · 이봉주 · 채수홍 · 홍석철

구서정 · 진예린 · 유지수

【책임연구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선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협동기관연구진】

전영섭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석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수홍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구서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연구생

진예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유지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2-01

협동연구 2019-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19년 12월

저 자 정 해 식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68-2 933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52-0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 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총괄책임자)	권지성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정선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성아 전문연구원
협력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전영섭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권석만 심리학과 교수 김석호 사회학과 교수 신혜란 지리학과 교수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 채수홍 인류학과 교수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 구서정 연구원 진예린 연구원 유지수 연구원

우리나라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전 세계 국가 중 28위에 해당한다. 소득, 교육, 건강의 세 요소로 측정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22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길목에서 작성되었던 비전 2030의 삶의 질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생활수준이 개선된 만큼 약속했던 우리 국민의 행복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묻은 결과를 이용하는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2019년 5.895점으로 54위였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9, pp. 24-26). 우리의 낮은 행복도는 단편적인 사실들로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개발지수와 불평등으로 조정한 인간 개발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빠르게 진행된 발전 과정에서 격차를 줄이는 데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세계행복보고서는 각국의 행복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과 부패 인식이 좋지 않다. 거시적·경제적 측면의 이면에 놓인 개인의 자율성, 정치 거버넌스 측면의 발전이 더뎠던 것이다. 그간 놓쳐 왔던 성장의 이면이 점차 부정적 영향을 키우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서로 연관된 두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서 단편적인 사실 확인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로부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도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를 3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 5020명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행복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대별 대표를 표집한 후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행복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높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북유럽 2개 국가의 청년 및 노인 19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이들의 행복 인식을 우리 행복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축된 연구 자료는 향후 우리나라의 행복 연구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팀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한국인의 행복을 진단하기 위한 해외 질적 연구의 필요는 명확하다. 여러 매체에서 간간히 소개되었던 외국의 행복한 삶의 모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구를 함께해 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7
제1절 행복, 삶의 질의 정의와 측정	29
제2절 행복과 삶의 질 학술연구 동향	39
제3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3
제3장 한국인의 행복 지형	55
제1절 문제 제기	57
제2절 한국인의 행복 지형 분석	58
제3절 한국인의 행복 인식	69
제4절 소결	78
제4장 행복의 구조방정식: 연령대별 접근	81
제1절 문제 제기	8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4
제3절 연령대와 행복 방정식	86
제4절 연령대와 행복의 구조방정식	92
제5절 소결	102

제5장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103
제1절 문제 제기	105
제2절 연구 방법	107
제3절 개별 사례의 맥락-패턴 분석 결과	113
제4절 소결	145
제6장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151
제1절 문제 제기	153
제2절 북유럽 국가 행복 연구 동향: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154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160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163
제5절 소결	213
제7장 결 론	217
제1절 요약	219
제2절 정책 제언	221
참고문헌	225
부 록	237
부록 1.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가중치 산출 보고서	237
부록 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250
부록 3.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기초 분석	272
부록 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질문지	469
부록 5.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동의서	473
부록 6. 한국인이 경험한 행복의 맥락과 패턴: FGI 범주화 분석 결과	479

부록 7.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질문지	510
부록 8.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동의서	514

표 목차

〈표 1-1〉 연구 방법 체계도	21
〈표 1-2〉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안)	22
〈표 1-3〉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24
〈표 1-4〉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 분포	25
〈표 2-1〉 복지 상황(welfare positions)의 구분	32
〈표 2-2〉 삶의 질 접근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의 기준	33
〈표 2-3〉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측정의 핵심 질문	36
〈표 2-4〉 OECD '더 나은 삶 지수'의 영역과 지표	37
〈표 2-5〉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
〈표 3-1〉 연령대별 유효표본과 행복	60
〈표 3-2〉 거주 지역별 유효표본과 행복	62
〈표 3-3〉 응답 요일별 유효표본과 행복	63
〈표 3-4〉 삶의 만족 점수별 물질주의와 비교성향	69
〈표 3-5〉 행복의 조건	71
〈표 3-6〉 삶의 만족 점수권별 누리고 있는 행복의 조건 평가	72
〈표 3-7〉 타인의 행복	73
〈표 3-8〉 성별 행복 동시출현 주요 단어 중심성	75
〈표 3-9〉 연령대별 행복 동시출현 주요 단어 중심성	77
〈표 3-10〉 소득분위별 행복의 희망: 어제 행복, 기대하는 행복, 5년 후 행복	78
〈표 4-1〉 한국인의 행복 방정식	89
〈표 4-2〉 청년(19~34세)의 행복 방정식	90
〈표 4-3〉 중년(35~49세)의 행복 방정식	90
〈표 4-4〉 장년(50~64세)의 행복 방정식	91
〈표 4-5〉 노인(65세 이상)의 행복 방정식	92
〈표 4-6〉 생활여건과 삶의 만족의 인과모형	95
〈표 4-7〉 생활여건과 성격의 인과모형	97
〈표 4-8〉 성격과 삶의 만족의 인과모형	99
〈표 4-9〉 완전경로모형	101
〈표 6-1〉 국가 및 지역에 따른 합계출산율	158
〈표 6-2〉 면접 대상자 요약	161

부표 목차

〈부표 1-1〉 지역별 집계구 분포	238
〈부표 1-2〉 지역별 성별 연령별 추계 인구(2019년) 분포	239
〈부표 1-3〉 2019년 추계 인구 분포	240
〈부표 1-4〉 2019년 추계 1인가구 분포	241
〈부표 1-5〉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결과	242
〈부표 1-6〉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의 분포	243
〈부표 1-7〉 할당 방법별 지역별 상대표준오차	244
〈부표 1-8〉 지역별 표본의 크기 및 집계구의 크기	245
〈부표 1-9〉 지역별 거처별 집계구 분포	246
〈부표 1-10〉 지역별 응답 현황	247
〈부표 1-11〉 최종 응답자 분포	248
〈부표 1-12〉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249
〈부표 3-1〉 응답자 분포	272
〈부표 3-2〉 캔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	273
〈부표 3-3〉 종교 유무	274
〈부표 3-4〉 종교 믿음 정도	275
〈부표 3-5〉 어제 경험 정도	276
〈부표 3-6〉 삶의 만족	277
〈부표 3-7〉 어제 행복 정도	278
〈부표 3-8〉 어제 우울 정도	279
〈부표 3-9〉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280
〈부표 3-10〉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선택 가능 정도	281
〈부표 3-11〉 생활영역 만족: 생활수준	282
〈부표 3-12〉 생활영역 만족: 건강	283
〈부표 3-13〉 생활영역 만족: 삶에서 성취한 것	284
〈부표 3-14〉 생활영역 만족: 가족관계	285
〈부표 3-15〉 생활영역 만족: 사회적 친분 관계	286
〈부표 3-16〉 생활영역 만족: 안전	287
〈부표 3-17〉 생활영역 만족: 사회 전반적 안전	288
〈부표 3-18〉 생활영역 만족: 미래 안정성	289

〈부표 3-19〉 생활영역 만족: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290
〈부표 3-20〉 생활영역 만족: 지역사회 환경 질	291
〈부표 3-21〉 생활영역 만족: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	292
〈부표 3-22〉 생활영역 만족: 하는 일	293
〈부표 3-23〉 생활영역 만족: 경제적 수준	294
〈부표 3-24〉 타인의 행복: 가족	295
〈부표 3-25〉 타인의 행복: 친구	296
〈부표 3-26〉 타인의 행복: 동네 이웃	297
〈부표 3-27〉 타인의 행복: 대한민국 국민	298
〈부표 3-28〉 타인의 행복: 전 세계인	299
〈부표 3-29〉 5년 후 행복 여부	300
〈부표 3-30〉 바라는 행복 정도	301
〈부표 3-31〉 행복한 삶의 중요 요소 점수	302
〈부표 3-32〉 행복 조건 충족 정도	303
〈부표 3-33〉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1순위	304
〈부표 3-34〉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2순위	305
〈부표 3-35〉 성격 5요인 척도: (1)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306
〈부표 3-36〉 성격 5요인 척도: (2)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	307
〈부표 3-37〉 성격 5요인 척도: (3)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308
〈부표 3-38〉 성격 5요인 척도: (4)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309
〈부표 3-39〉 성격 5요인 척도: (5)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310
〈부표 3-40〉 성격 5요인 척도: (6)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311
〈부표 3-41〉 성격 5요인 척도: (7)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312
〈부표 3-42〉 성격 5요인 척도: (8) 화를 잘 내는 편이다.	313
〈부표 3-43〉 성격 5요인 척도: (9) 쉽게 짜증을 낸다.	314
〈부표 3-44〉 성격 5요인 척도: (10) 자주 우울해진다.	315
〈부표 3-45〉 성격 5요인 척도: (11) 마음이 자주 심란해진다.	316
〈부표 3-46〉 성격 5요인 척도: (12) 기분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317
〈부표 3-47〉 성격 5요인 척도: (13)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318
〈부표 3-48〉 성격 5요인 척도: (14)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319
〈부표 3-49〉 성격 5요인 척도: (15)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	320
〈부표 3-50〉 성격 5요인 척도: (16)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321

〈부표 3-51〉 성격 5요인 척도: (17)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이다.	322
〈부표 3-52〉 성격 5요인 척도: (18)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긴다.	323
〈부표 3-53〉 성격 5요인 척도: (19) 어질러지면 즉각 청소를 한다.	324
〈부표 3-54〉 성격 5요인 척도: (20)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325
〈부표 3-55〉 성격 5요인 척도: (21)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326
〈부표 3-56〉 성격 5요인 척도: (22)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327
〈부표 3-57〉 성격 5요인 척도: (23) 항상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328
〈부표 3-58〉 성격 5요인 척도: (24)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329
〈부표 3-59〉 성격 5요인 척도: (25)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330
〈부표 3-60〉 성격 5요인 척도: (26) 상상력이 풍부하다.	331
〈부표 3-61〉 성격 5요인 척도: (27)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332
〈부표 3-62〉 성격 5요인 척도: (28)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333
〈부표 3-63〉 성격 5요인 척도: (29)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334
〈부표 3-64〉 성격 5요인 척도: (30) 이해가 빠른 편이다.	335
〈부표 3-65〉 지각된 스트레스: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336
〈부표 3-66〉 지각된 스트레스: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337
〈부표 3-67〉 지각된 스트레스: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338
〈부표 3-68〉 지각된 스트레스: (4) 짜증 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339
〈부표 3-69〉 지각된 스트레스: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340
〈부표 3-70〉 지각된 스트레스: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341
〈부표 3-71〉 지각된 스트레스: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342
〈부표 3-72〉 지각된 스트레스: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343
〈부표 3-73〉 지각된 스트레스: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344
〈부표 3-74〉 지각된 스트레스: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345
〈부표 3-75〉 물질주의: (1) 나는 비싼 집과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346
〈부표 3-76〉 물질주의: (2) 삶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	347
〈부표 3-77〉 물질주의: (3) 나는 사람들이 성공의 증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348
〈부표 3-78〉 물질주의: (4)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349
〈부표 3-79〉 물질주의: (5)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350
〈부표 3-80〉 물질주의: (6)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351

〈부표 3-81〉 물질주의: (7)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매한다.	352
〈부표 3-82〉 물질주의: (8) 나는 물건들을 포함해서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353
〈부표 3-83〉 물질주의: (9)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 중요한 전부는 아니다.	354
〈부표 3-84〉 물질주의: (10)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에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	355
〈부표 3-85〉 물질주의: (11)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이 즐겁다.	356
〈부표 3-86〉 물질주의: (12) 고가의 사치품을 좋아한다.	357
〈부표 3-87〉 물질주의: (13)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나는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358
〈부표 3-88〉 물질주의: (14) 나는 내 삶을 즐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359
〈부표 3-89〉 물질주의: (15)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360
〈부표 3-90〉 물질주의: (16) 더 좋은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361
〈부표 3-91〉 물질주의: (17)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362
〈부표 3-92〉 물질주의: (1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살 여력이 없을 때 힘들다.	363
〈부표 3-93〉 비교성향: (1) 내가 살면서 이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	364
〈부표 3-94〉 비교성향: (2)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365
〈부표 3-95〉 비교성향: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	366
〈부표 3-96〉 비교성향: (4) 나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367
〈부표 3-97〉 비교성향: (5)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	368
〈부표 3-98〉 비교성향: (6) 내가 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369
〈부표 3-99〉 사회 신뢰	370
〈부표 3-100〉 대인 신뢰	371
〈부표 3-101〉 단체 신뢰: (1) 언론	372
〈부표 3-102〉 단체 신뢰: (2) 인터넷	373
〈부표 3-103〉 단체 신뢰: (3) 노동조합	374
〈부표 3-104〉 단체 신뢰: (4) 경찰·검찰	375
〈부표 3-105〉 단체 신뢰: (5) 사법부(법원)	376
〈부표 3-106〉 단체 신뢰: (6) 행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377
〈부표 3-107〉 단체 신뢰: (7) 입법부(정당, 국회)	378
〈부표 3-108〉 단체 신뢰: (8) 대기업	379
〈부표 3-109〉 단체 신뢰: (9) 시민운동단체(환경 단체, 여성 단체 등)	380
〈부표 3-110〉 단체 신뢰: (10) 자선단체	381
〈부표 3-111〉 단체 신뢰: (11) 국제청	382

〈부표 3-112〉 정치 영역 부패 인식 수준	383
〈부표 3-113〉 경제 영역 부패 인식 수준	384
〈부표 3-114〉 나에 대한 공정: (1) 능력(두뇌)	385
〈부표 3-115〉 나에 대한 공정: (2) 일과 관련 기술	386
〈부표 3-116〉 나에 대한 공정: (3) 노력	387
〈부표 3-117〉 나에 대한 공정: (4) 학력	388
〈부표 3-118〉 나에 대한 공정: (5) 경력	389
〈부표 3-119〉 타인에 대한 공정: (1) 능력(두뇌)	390
〈부표 3-120〉 타인에 대한 공정: (2) 일과 관련 기술	391
〈부표 3-121〉 타인에 대한 공정: (3) 노력	392
〈부표 3-122〉 타인에 대한 공정: (4) 학력	393
〈부표 3-123〉 타인에 대한 공정: (5) 경력	394
〈부표 3-124〉 사회인식: (1)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395
〈부표 3-125〉 사회인식: (2) 우리나라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396
〈부표 3-126〉 사회인식: (3)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	397
〈부표 3-127〉 사회인식: (4)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398
〈부표 3-128〉 사회인식: (5)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399
〈부표 3-129〉 사회인식: (6)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하다	400
〈부표 3-130〉 정부의 역할: (1) 소득 격차 줄이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401
〈부표 3-131〉 정부의 역할: (2)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402
〈부표 3-132〉 정부의 역할: (3)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403
〈부표 3-133〉 건강 불안: (1) 전염병	404
〈부표 3-134〉 건강 불안: (2) 먹거리 문제	405
〈부표 3-135〉 건강 불안: (3) 정신건강 문제	406
〈부표 3-136〉 건강 불안: (4) 성인병	407
〈부표 3-137〉 건강 불안: (5) 대기오염	408
〈부표 3-138〉 생애주기 불안: (1) 노후	409
〈부표 3-139〉 생애주기 불안: (2) 가족 해체 및 약화	410
〈부표 3-140〉 생애주기 불안: (3) 저출산	411
〈부표 3-141〉 생애주기 불안: (4) 고령화	412
〈부표 3-142〉 사회생활 불안: (1) 범죄	413
〈부표 3-143〉 사회생활 불안: (2) 산업재해	414

〈부표 3-144〉 경제생활 불안: (1) 실업 및 빈곤	415
〈부표 3-145〉 경제생활 불안: (2) 주택 및 전세 가격	416
〈부표 3-146〉 경제생활 불안: (3) 금융 불안	417
〈부표 3-147〉 경제생활 불안: (4) 경기침체 및 저성장	418
〈부표 3-148〉 희망 시간 사용: (1) 하루에 2~3시간	419
〈부표 3-149〉 희망 시간 사용: (2) 일주일에 하루	420
〈부표 3-150〉 희망 시간 사용: (3) 한 달에 일주일	421
〈부표 3-151〉 희망 시간 사용: (4) 일 년에 한 달	422
〈부표 3-152〉 또래 대비 사회활동 참여 정도	423
〈부표 3-153〉 단체 참여: (1) 정당	424
〈부표 3-154〉 단체 참여: (2) 시민운동단체	425
〈부표 3-155〉 단체 참여: (3)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426
〈부표 3-156〉 단체 참여: (4) 종교단체	427
〈부표 3-157〉 단체 참여: (5) 문화단체	428
〈부표 3-158〉 단체 참여: (6) 동창모임	429
〈부표 3-159〉 단체 참여: (7) 향우회	430
〈부표 3-160〉 단체 참여: (8) 친목단체	431
〈부표 3-161〉 단체 참여: (9) 인터넷 커뮤니티	432
〈부표 3-162〉 단체 참여: (10) 기타 모임 및 단체	433
〈부표 3-163〉 사회적 지지: (1) 감기에 심하게 걸려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434
〈부표 3-164〉 사회적 지지: (2) 큰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435
〈부표 3-165〉 사회적 지지: (3) 우울, 스트레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	436
〈부표 3-166〉 사회적 자본: (1) 우리 지역주민은 서로 돕고 산다	437
〈부표 3-167〉 사회적 자본: (2) 우리 지역사회 이웃을 신뢰한다	438
〈부표 3-168〉 사회적 자본: (3)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	439
〈부표 3-169〉 사회적 자본: (4) 지역사회 문제 공동 대처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표현한다	440
〈부표 3-170〉 사회적 자본: (5)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사회단체는 상호 협력한다	441
〈부표 3-171〉 사회적 자본: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442
〈부표 3-172〉 사회적 자본: (7) 지역 갈등 및 문제를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443
〈부표 3-173〉 사회적 자본: (8)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444
〈부표 3-174〉 사회적 자본: (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진다	445
〈부표 3-175〉 사회적 자본: (10)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잘 대응하고 있다	446

〈부표 3-176〉 소속감: (1) 자립적인 개인	447
〈부표 3-177〉 소속감: (2) 소속 읍·면·동	448
〈부표 3-178〉 소속감: (3) 소속 시·군·구	449
〈부표 3-179〉 소속감: (4) 소속 시·도	450
〈부표 3-180〉 소속감: (5) 대한민국	451
〈부표 3-181〉 소속감: (6) 전 지구	452
〈부표 3-182〉 자원봉사 횟수	453
〈부표 3-183〉 사회단체 및 기관에 기부 횟수	454
〈부표 3-184〉 정치 참여: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455
〈부표 3-185〉 정치 참여: (2) SNS 등에 의견 올리기	456
〈부표 3-186〉 정치 참여: (3) 정부와 언론에 의견 제시	457
〈부표 3-187〉 정치 참여: (4) 불매 운동 참여	458
〈부표 3-188〉 투표 경험: (1) 2016년 총선거	459
〈부표 3-189〉 투표 경험: (2)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460
〈부표 3-190〉 투표 경험: (3) 2018년 지방선거	461
〈부표 3-191〉 주관적 소득계층	462
〈부표 3-192〉 사회 이동: 15세 무렵에 비해 계층 변화	463
〈부표 3-193〉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464
〈부표 3-194〉 향후 10년 이내 생활수준 변화 기대	465
〈부표 3-195〉 우리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466
〈부표 3-196〉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467
〈부표 3-197〉 이념적 성향	468
〈부표 6-1〉 남성 집단 범주화 분석 결과	479
〈부표 6-2〉 여성 집단 범주화 분석 결과	492

그림 목차

[그림 1-1]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삶의 질 분포(2017년)	17
[그림 1-2] 한국과 스웨덴의 삶의 만족 점수 분포	18
[그림 2-1]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모델	31
[그림 2-2] 복지 개념과 각각의 목표 차원	34
[그림 2-3] 행복 영향요인의 위계적 구조도	38
[그림 2-4] 경제학 분야 행복과 삶의 질 학술논문 초록의 워드 클라우드	41
[그림 2-5] 사회복지학 분야 행복과 삶의 질 학술논문 초록의 워드 클라우드	42
[그림 2-6] 심리학 분야 행복과 삶의 질 학술논문 초록의 워드 클라우드	42
[그림 2-7] 통계청 사회조사의 연령대별 주관적 만족감	46
[그림 2-8] 성격(부정적-긍정적)별 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도	51
[그림 3-1] 한국인의 행복 측정 결과	59
[그림 3-2] 연령대별 삶의 만족: 사회통합실태조사와의 비교	60
[그림 3-3] 연령대별 행복지표 히스토그램	61
[그림 3-4] 경제활동상태별 응답 요일별 삶의 만족	64
[그림 3-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활영역 만족	65
[그림 3-6] 거주 지역 특성별 생활영역 만족	65
[그림 3-7] 성격 5요인 척도를 활용한 성격 유형 구분	66
[그림 3-8] 성격 유형과 행복	67
[그림 3-9] 삶의 만족 점수별 물질주의와 비교성향	69
[그림 3-10] 타인의 행복	72
[그림 3-11] 성별 행복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75
[그림 3-12] 연령대별 행복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76
[그림 4-1] 행복 영향요인의 구조	85
[그림 4-2] 외향성과 신경증 점수 분포	87
[그림 4-3] 행복의 구조방정식 기본 모형	93
[그림 5-1]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	110
[그림 5-2] 사례 1. 1945년생 75세 남성의 행복	114
[그림 5-3] 사례 2. 1945년생 75세 여성의 행복	118
[그림 5-4] 사례 3. 1958년생 62세 남성의 행복	120
[그림 5-5] 사례 4. 1958년생 62세 여성의 행복	125

[그림 5-6] 사례 5. 1971년생 49세 남성의 행복	127
[그림 5-7] 사례 6. 1971년생 49세 여성의 행복	131
[그림 5-8] 사례 7. 1984년생 36세 남성의 행복	133
[그림 5-9] 사례 8. 1984년생 36세 여성의 행복	138
[그림 5-10] 사례 9. 1997년생 23세 남성의 행복	140
[그림 5-11] 사례 10. 1997년생 23세 여성의 행복	144
[그림 5-12]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과 패턴	146
[그림 7-1] 한국의 웰빙 수준: 강점과 약점	222

Abstract <<

A Comprehensive Study of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Project Head: Jung, Hae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diagnose Korean'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2019, the first year of the study, which was planned as a three-year study, we tried to grasp the detailed perception of Korean happiness.

In the past, many governments felt that people's well-being should be at the center of policy. Several initiatives aimed at improving quality of life generally point out that Korea has successfully achieved improvements in material conditions, but not at the subjective well-being. In order to overcome the gap between the objective quality of lif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empirical evidence on how Koreans are happy and why not happy.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elements of happiness to through theoretical studies 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and reviews of previous studies(in chapter 2). Based on theoretical review,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happiness of Korean. 「Korean'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8 to June 13, 2019 by a face-to-face interview. In addition to reviewing theories, chapter 2 presents research trends 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which outlines different academic approaches to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Co-Researchers: Kwon, Jisung · Jeong, Sunwook · Kim, Seonga

Co-Research Team: Chun, Youngsub · Kwon, Seok-man · Hong · Kim, Seok-ho · Shin, Haeran · Lee, Bong-joo · Chae, Suhong · Sok-Chul · Gu, Seojeong · Jin, Yerin · Yu, Jisu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chapters 3 and chapter 4 present the results of a quantitative analysis of Korea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using the original data on the Korean'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Survey.

In order to measure happiness as a complex concept, we identified the topography of Koreans happiness using various questions such as cantril ladder, life satisfacti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on, and the value of Eudaimonia(in chapter 3). The results show that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differ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life covering various living conditions was not independen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analysis of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s identified in chapter 3 will be the basis for discovering the specificity and meaning of Korean happiness.

Multidimensional living conditions such as the economic resource of households and the conditions of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on happiness. A fluent standard of living conditions contributes to increased happiness. On the other hand, however,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capacity can interven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conditions and happiness. Chapter 4 analyzes how the psychological capacities of extroversion and neurosis affect the path of living conditions and happiness perception by age group.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cademic and policy attention to psychological competencies in pursuing an individual's happy life.

In addition to the findings from the quantitati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Koreans' perception of happiness from various angles. In order to confirm Koreans' perception of happines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context-pattern analysis(in chapter 5). The analysis shows that Korean happiness is a complex construct that cannot be measured or understood in a single dimension. This means that Koreans understand happiness in different dimension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Also, in the context of happiness, there are views that act as prisms in the process of connecting the conditions and elements of happiness. A representative point of view was to compare others with others, and culture, values, and ideologies appeared.

How different is the viewpoint that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condition of life and the state of happiness for Koreans? In order to confirm this difference, 19 citizen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well-known welfare states, Denmark and Finland. First of all, we tried to understand the macroscopic characteristics as a condition of happiness. We have confirmed that they have a culture in their daily lives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or at least satisfy with their material conditions. Next,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personal characteristics. They placed autonomy and freedom of choice at the source of subjective happiness.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their lives have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the low happiness of Koreans who tend to be comparable.

This study is the first year of the third year study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concrete situation in order to enable improv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of Koreans. Therefore, although the specificity of policy alternatives is low, some of the facts identified in this process can be found. First of all, since the element of promoting happiness is multidimensional, efforts to focus on one part need to be improved. Second, change should be focused on a group rather than an individual in

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a policy orientation that promotes happiness. We must consider the tendency to emphasize groups over individuals in our people's perceptions of happiness. Third,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data on Korean happiness need to be continued. Fourth, since the problem of low happiness of the elderly among the population is continuously confirm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pond to it.

*Keywords: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Quality of Lif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는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에서부터 2018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등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여러 계획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물질적 삶의 질 수준의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 냈지만 정신적·정서적 차원에서는 개선이 크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물질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인 삶의 질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한국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왜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맞춰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3개년에 걸쳐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그중 1년 차에 해당하는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3개년의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년 차(2019):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위계적, 결합적 특성을 집단(성별, 연령집단, 지역, 소득계층 등)별로 파악하여, 대상별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함.

2년 차(2020): 생애주기별 위험 경험과 이에 대응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복지제도의 체계적 대응 필요를 확인함.

3년 차(2021): 객관적 삶의 질(미시적, 거시적)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여 비교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함.

이 중 1년 차에는 행복, 특히 주관적 안녕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2년 차의 연구는 생애주기별 위험과 이에 대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을 고려하는데, 이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가깝다.

2.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행복과 삶의 질은 국내에서 자주 다뤄졌던 주제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개념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행복(happiness)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고, 주관적 삶의 질과 객관적 삶의 질을 종합하여 삶의 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행복과 삶의 질을 다룬 국내 연구의 초록을 살펴보면 특징적 연구 동향이 확인된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행복, 경제, 소비, 소비자의 용어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행복감, 영향, 관계, 요인의 용어가, 심리학 분야에서는 행복, 집단, 척도 등이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서는 효용으로서의 행복,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주관적 안녕으로서의 행복, 사회복지학에서는 정책적 개입의 결과로서의 행복에 주목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리한 주요 요인은 이 연구에서 수행한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세대, 성별에 따른 행복과 삶의 질의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인의 행복 지형

이 장에서는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²⁾ 실태조사는 19세 이상 80세 미만 성인 50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복합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캔트릴 사다리,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행복감과 우울감의 정서적 경험, 그리고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적 삶의 가치 등 다양한 질문을 활용하여 한국인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2) 실태조사 주요 문항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삶에 대한 평가와 만족, 가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7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 최고점을 보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우하향의 양상이 확인되었다. 응답 요일과 거주 지역 등 시공간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연령대와 가구 경제 지위,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활영역 만족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성격 요소가 안정적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과 낮은 우울감을 보였다.

경제적 풍요로움의 수준에 따라 생활영역별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행복의 조건이 돈과 명성에 그치지 않는다.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 건강, 원하는 일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의미한 타인은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에 대해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기대하는 행복 수준에 비해 최근 경험한 행복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5년 후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횡단면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지형의 구조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과 삶의 질은 개인의 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여건을 포괄하는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과 독립적이지 않다. 이 장에서 확인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한국인의 행복의 특이성을 발견하고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4. 행복의 구조방정식: 연령대별 접근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구의 경제력, 거주지의 지역적 여건 등 다차원적인 생활여건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풍요로운 생활수준은 행복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지만, 삶의 질을 행복과 연관시키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개인의 행복에 생활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 혹은 매개효과의 존재와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연령에 따라 우하향하는 행복의 추이를 고려해 청년, 중년, 장년, 노인으로 구분하여 연령집단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을 포함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생활여건은 우울감을 제외한 주관적 행복 요소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심리적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외향성과 신경증의 조절효과는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35~49세의 중년과 65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외향성은 생활여건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데, 주로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에 작동했다.

여러 행복 요소 중에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여건의 효과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매개효과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심리적 역량은 긍정적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주요한 특성으로 객관적 삶의 조건 발달 수준을 주관적 인식이 따르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OECD, 2017, p. 31). 이는 객관적 생활여건의 개선이 행복의 경험과 연결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혹은 행복한 삶을 위해 객관적 생활여건과 함께 고려해야 할 더 많은 요소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 행복의 경로를 고려하는 이 장의 분석에서 확인되는 바는, 심리적 역량은 행복에 대한 경제적 생활여건의 영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즉, 행복을 추구하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생활여건의 집중도를 축소하고 다른 요소들에 주목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심리적 역량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객관적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 국민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살아가는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정책 등이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양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다. 즉, 개개인, 성·연령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살면서 겪는 중요한 사건들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들이 개인의 행복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45년생, 1958년생, 1971년생, 1984년생, 1997년생을 성별에 따라 총 10개 집단으로 나눠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 이 중에서 10명을 임의표집하여 심층면접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맥락-패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살펴보면서, 한국인

이 구성한 행복의 조건, 관점, 의미로서의 행복의 맥락과 이를 구성하는 경험들의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 새롭게 구성된 행복의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본 연구 결과의 핵심은 ‘행복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복합 구성체’라는 점이다. 복합 구성체로서 행복은 불행과 행복이라는 단일 차원, 행복 요소의 충족/미충족과 불행 요소의 많음/적음과 같은 이요인(二要因) 척도 차원,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이나 요소, 조건 등을 모두 행복의 요소로 포함하는 다차원, 그리고 행복을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총량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혼합되어 있다.

행복이라는 복합적 구성체는 긍정적 차원의 요소와 부정적 차원의 요소, 그리고 이 두 요소보다는 낮은 추상적 수준을 가지는 의미로 구성된다. 특히 이 의미는 행복의 조건과 선순환한다. 나 자신과 가족, 관계망의 상태가 행복의 조건인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서 ‘보람’, ‘살아 있음’, ‘품위’가 높아졌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행복의 미래를 시간 흐름에 따라 구성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경험한 시간이 많은 노인들은 어릴 때의 행복, 젊은 시절의 행복, 지금의 행복을 관조하고, 청년들은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비해 1984년생은 현재에 집중하고, 1971년생은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생애 과정 전반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6.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과 행복의 상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한국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선진 복지국가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총 19명의 일반 시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국내 질적 연구에서 행복을 구성하는 패턴에서 차이를 보였던, 삶의 단계의 차이를 보일 청년 세

대와 노인 세대이다.

인터뷰는 거시적 측면에서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익히고 실천하는 광의의 문화가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경제적 조건의 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년 중산층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생애를 떠올린 이후 가족이나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행복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자신의 물질적 조건에 만족하거나 적어도 만족감을 가지려 하는 것이 이들의 행복감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선진성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이 이와 연계되어 있다는 믿음을 표출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체제와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자긍심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이 만족스럽거나 행복하다는 주관적 평가를 하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청년층 또한 국가가 사회구성원에게 자유 혹은 자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복지사회에서의 의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러한 자율적 결정을 통해 자유에서 오는 행복감을 느끼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구체적인 권리로서 자율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그 배경에서 개인의 행복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국가의 시민들도 주거 비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으나, 그와 함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제도의 보조도 언급하였다. 이는 사회제도가 특정한 어려움이 개인의 불행으로 연결되지 않게 할 것이며, 참여자들도 이를 일상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높은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7. 결론 및 정책 함의

우리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정작 주관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었다. 객관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이에 따라서 주관적 안녕, 만족도도 개선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의 두 측면, 즉 물질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불일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면 주관적 삶의 질 그 자

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모두 3년으로 기획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의 1년 차 연구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구체적 정책 제안은 개인과 사회제도의 영향을 살펴보는 2년 차 연구에서 집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확인한 바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먼저, 행복 증진 요소가 다차원적이므로 부족한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어떤 요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행복과 삶의 질의 요소에서 부족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행복을 촉진하는 정책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관점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구집단 중 낮은 행복을 보이는 노인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행복, 주관적 안녕, 삶의 질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는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에서부터 2018년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과 안녕을 다루고 있다. 국민복지기획단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 안정 및 질적 개선에 대한 각 계층의 복지 욕구 표출이 예상되므로 복지정책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복지 모형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국민복지기획단, 1995, p. 2). 또한 국민 최저 생활수준 보장, 사회 안전망의 구축, 사회복지 관리 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해 국제 비교상 32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2000년대 초에는 15위 이내로 끌어올려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수반하겠다고 밝혔다(국민복지기획단, 1995, p. 8).³⁾ 2006년 「비전 2030」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민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최하위권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복지를 지향하여 2005년 세계 41위인 삶의 질 순위를 2020년 20위, 2030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⁴⁾ 다시 10년 이상 지난 2018년 정부는 효율과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크기는 커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3) 이때 삶의 질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이용하였다. 1990년 0.728점을 기록하였던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2000년에는 0.817점으로 상승하였으나 목표 하였던 15위 이내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며, 2018년에는 0.906점으로 22위를 보였다(UNDP, 2019, p. 304).

4) 비전 2030에서 삶의 질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지표 중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표 값을 이용한 것이다. 이 지표는 조사 자료에서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우리나라의 2014년 삶의 질 지표 값은 5.23점으로 조사 대상 60개 국가 중에서 41위에 해당하였다(IMD WCC, 2014, p. 459).

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 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할 필요를 제시하였다(행정안전부, 2018). 이를 통해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로 측정되는 삶의 질을 2018년 29위에서 2022년까지 10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행정안전부, 2018, p. 44).

여러 계획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 냈지만 정신적·정서적 차원에서는 발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물질적 성취 수준에서 집단 간 격차의 문제가 있다. 국가 주도의 성장 도모 과정을 거쳐 전체 평균치에서는 성장하였지만 내부 집단 간의 발전 격차가 크게 남아 있다. 그래서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는 22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불평등조정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DI)에서는 순위가 9 계단 하락한 31위를 보이며, 지수의 하락 값은 상위 3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19, p. 30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국민행복도를 국가가 추구해야 주요 가치로 설정했지만 주관적 행복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156개국 중에서 57위에 올랐으며, 2019년에는 5.895점으로 54위를 보였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8, 2019). 통상적인 사회발전의 지표로 사용되는 1인당 GDP로 측정되는 경제 발전 수준이 세계 29위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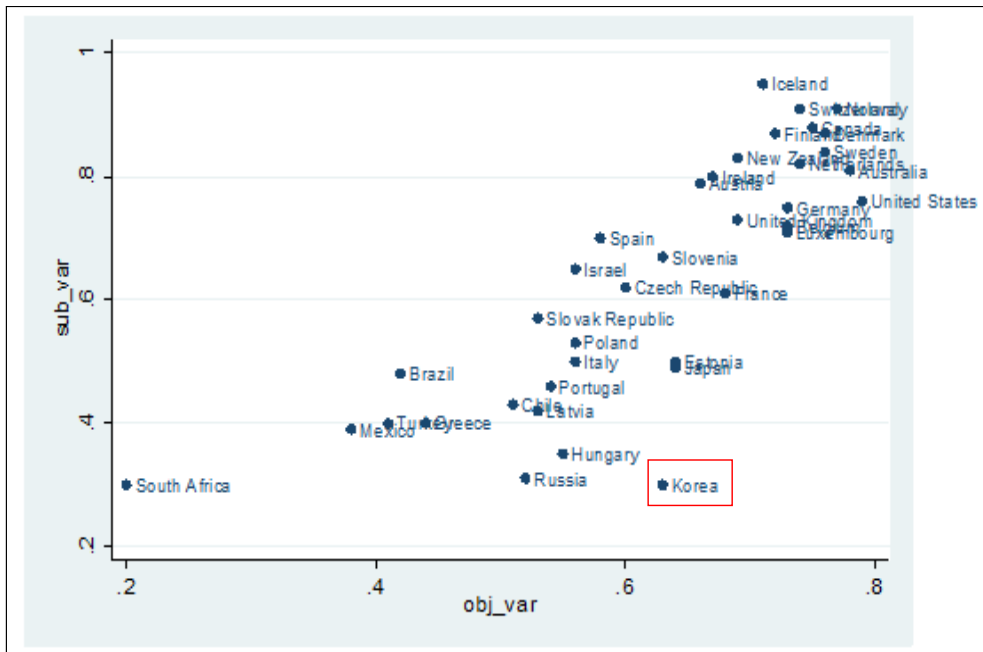
지금까지 언급한 인간개발지수(HDI), 더 나은 삶 지수(BLI), 국가경쟁력 지수의 삶의 질 지표, 「세계행복보고서」의 주관적 행복 수준은 측정의 범위와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 그럼에도 간단히 결과를 비교해 보면 물질적 조건 차원이 반영되는 인간개발지수, 더 나은 삶 지수에서는 순위가 양호하고, 주관적 인식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는 삶의 질 지표, 주관적 행복 수준은 순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물질적 조건 차원과 주관적 인식 차원의 괴리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주관

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모두 사용하는 BLI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 [그림 1-1]은 OECD BLI의 여러 지표를 객관적 삶의 조건 지표와 주관적 삶의 질 지표로 크게 구분하여 재계산한 후 각국의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관적 지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최하위 수준을 보이지만 객관적 지표에서는 OECD 38개국 중 22위를 보이고 있다(정해식 외, 2018, p. 124). 이러한 낮은 만족도의 원인에는 조사 방식의 특징, 문화적인 특징 등이 있을 수 있지만(정해식 외, 2018, pp. 261-263), 그 근저에 놓인 불만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한국인의 ‘안녕’(well being) 개선에 필수적이다.

[그림 1-1]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삶의 질 분포(2017년)

(단위: 점)



주: x축은 객관적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한 값이며, y축은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한 값임.
 자료: 정해식, 강신욱, 김동진, 김성아, 강미나, 김지혜, ... 김종호. (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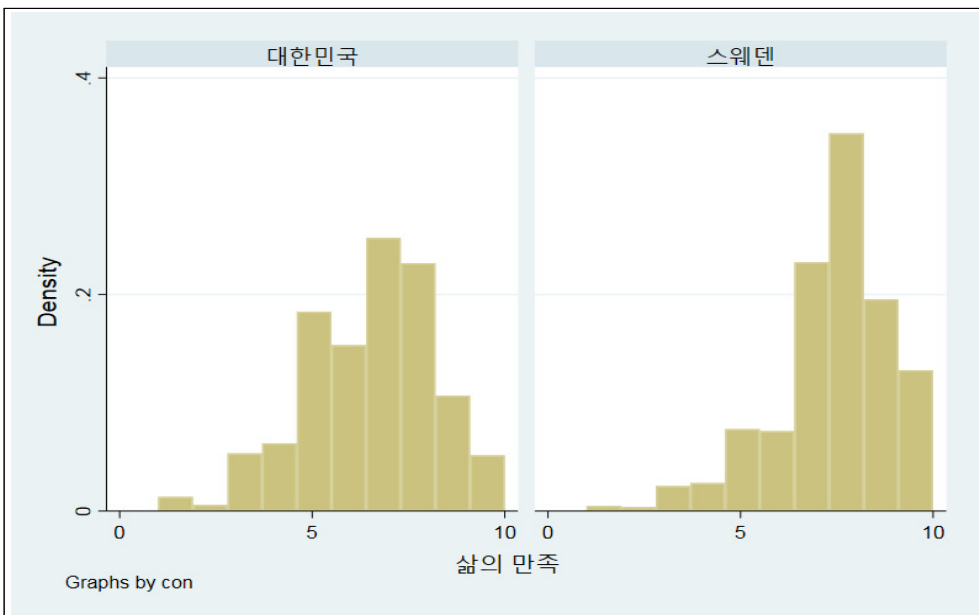
물질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정서적인 삶의 질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한국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왜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쌓아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다수 연구는 특정

한 학문적 관점에서 특정한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적 성향과 가치관, 남북 대립, 다층적인 갈등 지점(이념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치열한 경쟁 사회(입시 경쟁, 취업 경쟁)와 급격한 사회 변화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지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심리·문화적 성향만 짚어 본다. 다음 [그림 1-2]는 2011~2014년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웨이브 원자료를 이용해 스웨덴 사람과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8점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7점, 9점, 10점의 높은 응답률도 확인된다. 한국은 스웨덴의 최빈 응답에 비해 1점 낮은 7점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와 크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8점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0~10점 범위의 중앙값인 5점에 대한 응답률이 세 번째로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문화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한국과 스웨덴의 삶의 만족 점수 분포

(단위: 점, 밀도)



자료: Inglehart, R., Haerpfer, C., Moreno, A., Welzel, C., Kizilova, K., Diez-Medrano, J., ... , Puranen, B.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All Rounds - Country-Pooled Datafile(2019. 2. 25. 인출)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렇듯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심리적 경험인 동시에 삶의 환경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므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경험적 근거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그중 1년 차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년간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년 차(2019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위계적, 결합적 특성을 집단(연령집단, 지역)별로 파악하여, 대상별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함.

2년 차(2020년): 생애주기별 위험 경험과 이에 대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복지제도의 체계적 대응 필요를 확인함.

3년 차(2021년): 객관적 삶의 질(미시적, 거시적)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하여, 비교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함.

이 연구는 3년 동안 수행될 과제로 1년 차에는 행복, 특히 주관적 안녕에 주목하여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생애주기별 경험과 이에 대응하는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을 고려하는데, 이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한편 1년 차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므로 2년 차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삶의 질에 주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년 차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상태의 관계를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내용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살펴보는 이 보고서는 모두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의 개략적인 소개와 국내외 질적 연구의 개요를 소개한다.

2장은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도출한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행복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살펴본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한 상태와 행복한 감정을 구분할 필요를 제시한다. 이어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를 탐색한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인은 조사 설계에 반영하였다.

3장은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탐색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행복을 인구집단 특성별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 외에도 조사 설계에서 계획된 응답 요일별 행복의 특성, 생활영역별 만족, 성격과 행복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또 행복의 조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평가, 행복을 떠올리는 단어, 과거의 본인 행복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기대치와 같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4장은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서 생활여건의 영향과 이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조건 외에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심리적 역량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장은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을 생태체계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인식이 그 자체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또 수많은 요인이나 조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구성체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 사회, 국가의 개념과 수준, 의미 등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질적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초점집단면접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다.

6장은 삶의 질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의 사회제도적 특징과 국민의 일상적 삶의 영위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북유럽 2개 국가-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에 집중하여 19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행복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행복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개인 수준의 행복 결정 요인과 국가-사회문화적 수준의 행복 결정 요인

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7장은 이 연구의 결론 부분이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로부터 확인한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2020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표 1-1>과 같이 국내 양적 연구와 국내외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1> 연구 방법 체계도

구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국내	해외
방법	실태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질적 연구	
내용	한국인의 행복 지형과 행복의 구조방정식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와 조건에 대한 질적 연구	국제 비교를 위한 해외 질적 연구
방법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만 80세 미만 5000명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와 조건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범사회과학적 관점에서 2개 선진 복지국가 각 5명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질적 연구 전문가 2명	협동연구기관(서울대학교)
일정	2~3월: 조사표 확정 3~4월: 조사업체 확정 4월: 조사 시작 5~6월: 조사 실시 7월: 원자료 수령 8~10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	4월: 질적 연구 전문가 연구진 섭외 5월: 조사업체 계약 5~6월: 반구조화된 설문지 개발 6~8월: 국내외 질적 연구 10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보고서	제3장 한국인의 행복 지형 제4장 행복의 구조방정식 : 연령대별 접근	제5장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제6장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양적 조사이다. 행복에 대한 국내 기존 조사들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조사 방법 측면에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전화조사라는 제한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행복 결정 요인 도출을 검증할 수 있는 문항 확보에 한계를 보였다. 면접조사라 할지라도 각각의 고유한 조사 목적을 기본으로 하고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을 하나의 결과 변수로만 제시하는 조사가 다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행복에 대한 설문 문항을 다각도로 배치한 보다 큰 규모의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크게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첫째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여기서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를 통해 양적 연구로 확인된 바를 보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 양적 연구로는 확인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상은 삶의 질 및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국민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제도적 특징과 일상적 삶의 영위 과정에서 판단하는 행복의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행복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⁵⁾ 이러한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질적 연구는 ‘왜 한국인이 행복하지 못한가’를 이해할 실마리를 제시해 줄 것이다. 해외 질적 연구는 학문 범위 측면에서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사회복지학·지리학·심리학 등의 범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수행은 정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 및 복지제도를 통한 욕구 충족 모형을 반영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실증 모델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가.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행복에 대한 조건과 의미, 각 개인의 심리적 역량과 인식,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생활여건을 확인하는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⁶⁾ 조사표의 주요 변수와 이들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 관련한 참고 자료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안)

구분	영역		내용	참고 자료
종속 변수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	삶의 가치	“__님께서서는 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ntril(1965); Gallup(2014);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전반적인 삶	“__님께서서는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Helliwell, Layard, & Sachs(2019);
		칸트릴 사다리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	Kahneman et al., (2004); OECD(2013);

5) 이때 국내 질적 연구는 행복에 대한 개념, 조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내의 질적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

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는 표집 및 조사표를 포함한 연구 방법과 연구 자료의 활용에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제2019-17호(2019. 4. 18.)]의 승인을 받았다.

구분	영역		내용	참고 자료
		(삶의 평가)	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곤 외(2017)
		삶의 영역	“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생활수준, ② 건강, ③ 삶에서 성취한 것, ④ 개인적인 관계, ⑤ 안전, ⑥ 미래 안정성, ⑦ 시간적 여유, ⑧ 지역 사회 전반, ⑨ 직업 등”	
	정서적 행복 (Affective happiness)	긍정적 정서	“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부정적 정서	(우울) “__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Cohen, Kamarck, & Mermelstein(1983)
	행복의 기대 수준과 희망		5년 후 기대 행복 수준, 희망 행복 수준	일본 삶의 질 조사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2012)
종속 변수	타인 행복		가족, 친구, 이웃,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인	
	행복의 조건		행복할 조건 충족 여부, 더 행복할 조건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행복의 의미		(주관식) 행복의 의미	
	영역별 중요도		(주관식) 삶의 가치와 목표, 관계, 주거, 환경의 질, 일, 생활의 질, 경제적 안정, 건강, 안전, 거버넌스의 질	김미곤 외(2017)
매개 변수	심리적 역량 (Competence) / 인식	성격	성격 5요인 척도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물질주의	물질주의 척도	Richins & Dawson(1992)
		비교성향	능력 및 의견 비교성향	아이오와-네덜란드 비교성향척도(Gibbons, Buunk, 1999; 최인철 외, (2019), p. 140에서 재인용)
		계층 인식	주관적 소득계층, 계층 이동 경험과 기대 등	여유진, 정해식 외(2015)
		신뢰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부패 인식, 정부의 역할, 조세제도 신뢰 등	Inglehart, Haerpfer, Moreno, Welzel, Kizilova, Diez-Medrano, ...Puranen et al. (eds.). (2014).;
		사회인식	정부 역할, 공정성 인식, 계층 인식, 갈등 인식, 사회인식, 사회적 불안 등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독립 변수	생활여건	경제적 특성	경제활동, 실업 경험, 주거 점유 형태,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박탈 등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2014)
		개인적 특성	어제 경험, 선택의 자유, 현재 및 희망 시간 사용	Gallup(2018);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6)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소속감 등	Inglehart, Haerpfer, Moreno, Welzel, Kizilova, Diez-Medrano, ...Puranen et al. (eds.). (2014).

2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구분	영역	내용	참고 자료
	사회 참여	소속 모임이나 단체, 종교, 이타적 사회 참여, 정치 참여 등	
	제도적 조건	거버넌스,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가입 및 수급 경험 등	
통제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 건강, 가구 특성, 형제자매 등	
표지정보		응답자 특성, 가구주와의 관계, 주소(시도, 시·군·구), 응답 일자, 응답 요일, 유치 조사 여부, 응답 방법, 주거 형태 등	

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총표본의 크기는 5000명으로 설계하였다. 표본 추출은 집계구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집계구 추출은 전국을 대표하도록 지역 단위 할당을 거쳐 총 502개를 추출하였고, 각 집계구에서 10가구를 추출하고 각 추출된 가구에서 조사 대상 연령대 가구원 중 무작위로 1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1-3〉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80세 미만 성인 남녀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2000년 4월 1일 이전 출생) ~ 만 80세 미만(1939년 3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 단위	가구 내 개인 1인(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선정된 응답 가구원)
표본 크기	전국 502개 집계구 내 5000명(완료 5020명)
표본 추출	집계구 활용 조사 - 표본 집계구 502개에서 10가구를 계통 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기간	2019년 5월 8일~6월 13일
조사 내용	가구 구성 및 경제상태, 응답자 일반 사항, 행복과 심리적 정서, 심리적 역량, 사회인식, 사회적 관계와 참여, 사회계층 인식
조사 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자료: 저자 작성.

최종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계산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결과는 모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다. 가중치를 반영한 사례 수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전체		5020	100.00
성별	남성	2538	50.56
	여성	2482	49.44
연령대	20대 이하	918	18.29
	30대	889	17.72
	40대	1010	20.13
	50대	1043	20.77
	60대	738	14.70
	70대	421	8.40
지역	수도권	2505	49.91
	비수도권	2515	50.09
	대도시	429	8.55
	중소도시	2154	42.91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2437	48.54
	하층	393	7.82
	중하층	1755	34.96
	중간층	2539	50.5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334	6.65
	200만 원 미만	1325	26.39
	200만 원대	1853	36.91
	300만 원대	1061	21.13
	400만 원대	438	8.72
학력	500만 원 이상	344	6.85
	중졸 이하	569	11.34
	고졸	1924	38.34
	대졸 이상	2526	50.3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22	44.2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9	10.33
	고용주·자영자	899	17.90
	무급가족종사자	87	1.72
	실업자	71	1.41
	비경제활동인구	1223	24.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61	75.99
	비정규직	620	24.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59	27.08
	중도적	2114	42.12
	진보적	1546	30.81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집단별로 산출한 값임. 직업안정성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나. 질적 연구 개요

이 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와 행복도에서 주요한 특징을 보이는 북유럽 2개국-덴마크와 노르웨이- 국민을 대상

으로 한 질적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질적 연구⁷⁾는 주요 동년배 집단 5개 그룹을 성별에 따라 5~6명씩 나눈 10개 그룹을 대상으로 행복의 의미·조건을 맥락-패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 각 그룹에서 대표적인 1인을 심층면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었고, 초점집단면접자 중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면접은 2019년 7월 9일에서 7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초점집단은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또 수많은 요인이나 조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구성체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가의 개념과 수준, 의미 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 그리고 다양한 연령 집단을 포괄하여 구성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로 각 연령집단 및 성별로 구분하여 행복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과 패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질적 연구의 자세한 개요는 5장 2절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외 질적 연구⁸⁾는 2019년에는 행복할 객관적 조건과 그에 맞는 수준으로 행복 수준을 보이는 북유럽 2개 국가에서 자신을 평범하다고 인식하는 청년 세대 및 노년 세대 1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일반화에 목적을 두지 않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척도, 행복과 불행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으며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심층인터뷰를 핵심적인 연구 방법으로 채택했다. 심층인터뷰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일대일 면담과 포커스 그룹 면담 방식이 동원되었다. 피면담자의 섭외는 사전에 각 도시 소재 대학을 통해 이뤄졌으며, 심층인터뷰는 영어로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으로서 청년 세대는 막 사회에 진입하였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 세대들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행복에 대한 인지 구조를 알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를 직전 또는 은퇴 이후의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년세대를 포함하였다. 노년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행복하지 않은 집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요한 심층인터뷰 대상이었다. 국외 질적 연구의 자세한 개요는 6장 3절에서 제시하고 있다.

7) 국내 질적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이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제2019-27호(2019. 5. 27.)에 의해 표집을 포함한 면접 방법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다. 면접 참여자들은 면접 이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질문지와 동의서는 <부록 4>와 <부록 5>에 수록되어 있다.

8) 국내 질적 연구와 동일하게 인간 대상 연구이므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1908/002-008(유효기간 2020. 7. 29.)에 의해 질적 연구 설계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의서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질문지와 동의서는 <부록 7>과 <부록 8>에 수록되어 있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행복, 삶의 질의 정의와 측정

제2절 행복과 삶의 질 학술연구 동향

제3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절 행복, 삶의 질의 정의와 측정

1. 행복, 삶의 질의 개념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다룬다. 하나는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질이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전에 각각의 개념을 따라가 보도록 한다.

먼저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2008)은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행복의 정의를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행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첫째는 “복된 좋은 운수”로서 “행복을 빌다”와 같은 용례가 있고, 둘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서 “행복을 느끼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국립국어원, 2019a). 이 연구는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히는 후자의 정의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때 행복을 어근으로 하는 다른 단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행복하다’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로,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또는 그런 느낌’으로 뜻을 풀이를 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9b, 2019c). 이렇게 표준국어대사전은 마음으로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안심(安心)’ 또는 ‘안락(安樂)’이라는 용어를 우리 조상들이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주경철, 2009;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p. 149 재인용). 이 연구에서 주로 살펴볼 단어 중의 하나는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안녕’이다.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으로 뜻을 풀이를 한다(국립국어원, 2019d).

행복 개념 정의 안에 만족, 기쁨, 흐뭇함, 안녕과 같은 다의적인 표상이 존재하므로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그 연구에서 활용하는 행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연구 방법론을 따라 유추해 보면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승권 외(2008, p. 242)는 가장 행복한 수준을 100 점으로 할 때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67.8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심리적 안정,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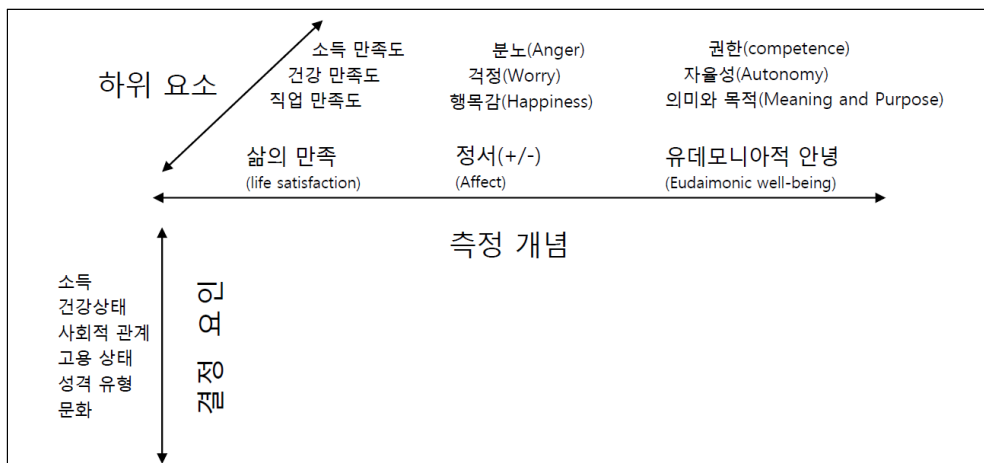
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의 9개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 정도부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까지 모두 21개의 행복지표가 있으며, 각각의 행복지표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다(김승권 외, 2008). 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표가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김승권 외(2008)의 연구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의 중요 요소와 그 각각에 대한 만족도의 가중된 총합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에서 확인되는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보다 다각도로 측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유사하게 김미곤 외(2017)는 삶의 가치와 목표, 관계, 주거와 환경의 질, 일,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건강, 거버넌스의 질의 7개 영역에서 삶에 대한 가치 평가부터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의 시민 보호까지 모두 36개 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족한 삶의 상태로 행복을 정의할 때의 한계는 물질적 조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면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주목하는 심리학적 경향이 있다. 서은국, 구재선(2011)은 행복(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단축형 행복 척도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행복을 측정하고 이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행복 점수에는 성별, 소득과 같은 외적,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때 단축형 행복 척도는 삶의 만족(개인적 삶의 만족, 관계적 삶의 만족,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 긍정적 정서(즐거움, 행복, 편안함), 부정적 정서(짜증, 부정적인, 무기력함)의 9개 지표로 구성되므로(서은국, 구재선, 2011), 보다 심리적인 측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인지적, 인식적 차원으로서 만족감이 포함되므로 물질적 조건 자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족감은 개인적(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 그리고 집단적(자신의 학교, 직장, 동우회 등) 측면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개념이다(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이렇게 주관적 안녕이란 개념이 행복감(happiness),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Ed Diener(1984)가 주관적 안녕은 인식적인 삶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래 여러 연구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

인되는 사실이다(서은국, 구재선, 2011, p. 95). Diener(2009)에 따르면 안녕(well being)과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는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안녕을 “선(virtue)이나 신성함(holiness)과 같은 외부적 기준에 의해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때 “이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하는 것은 주관적 상태가 아니라 어떤 기대하는 바에 대한 것을 따르므로, 이때의 정의는 규범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행복을 한 개인이 바라는 바, 목표와 조화되는 만족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바로서 행복이라고 하면, 이때의 행복은 주관적 안녕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며, 만족감(satisfaction)과 관련”된다. 셋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바와 같은 개념으로서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보다 앞서는 상황을 말하는 바로서 행복에 가깝게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때의 주관적 안녕은 기쁜 정서적 경험에 더 가깝다”(Diener, 2009, pp. 12-13).

[그림 2-1]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모델



자료: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p. 33.

이와 같은 프레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는 주관적 안녕의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에서 주관적 안녕의 간단한 모델을 앞의 [그림 2-1]과 같이 제시하였다. 주관적 안녕의 측정을 위한 세 가지 차원은 측정 개념(삶의 만족, 정서, 에우다이모니아적 안녕), 각 측정 개념의 하위 요소, 그리고 결정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결정 요인은 소득,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고용상태, 성격 유형과 같은 개인 특성과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문화적인 특질도 포함한다.

그런데 행복을 주관적인 경험에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몇 가지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적·객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해석할 때의 상황이다.⁹⁾ Zapf(1984)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다음 <표 2-1>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좋은 삶의 조건과 높은 주관적 안녕의 조화가 진정으로 안녕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Berger-Schmitt, Noll, 2000, p. 11) 반대로 객관적 삶의 조건은 나쁜데도 주관적 안녕의 상태가 좋은 것을 ‘수용’의 상태에 있다고 해석한다.

<표 2-1> 복지 상황(welfare positions)의 구분

객관적 삶의 조건 (Objective Living Conditions)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좋은(Good)	나쁜(Bad)
좋은(Good)	안녕(Well-being)	부조화(Dissonance)
나쁜(Bad)	수용(Adaptation)	박탈(Deprivation)

자료: Zapf.(1984, p. 25); Berger-Schmitt, Noll(2000, p. 11);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p. 49에서 재인용.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주관적 안녕의 특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때 일부분 극복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은 각 개인이 경험한 바의 주관성에 따르며, 이러한 주관성의 평가 기준에는 건강, 만족, 가치 및 부와 같이 객관적 조건이 필요하다(Diener, 2009, p. 13). 앞서 [그림 2-1]에서 삶의 만족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조건이 명확히 양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양호한 객관적인 조건은 높은 주관적 안녕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객관적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의 높은 주관적 안녕을 안녕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행복(happiness)으로 시작해서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으로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을 소개하였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객관적 요인을 인식하는 개인과 관련된다. 즉, 주관적 요소로서 정서는 그 자체로 주관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삶의 만족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열악함과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불일치할 수 있다.

9) 대표적인 것이 국내에서 부탄의 사례를 소개할 때 발생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접근에서는 하위 개념을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삶의 질 접근에서는 소득 분배 수준과 같은 사회의 질적 측면과 각 개인이 인식하는 부자와 빈자 간 갈등의 정도와 같은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 두 가지를 사회적 수준에서 삶의 질의 기준으로, 그리고 소득 수준과 같은 객관적이며 개인적인 수준을 객관적 삶의 조건과 소득 만족과 같은 주관적 안녕의 두 가지를 개인적 수준에서 삶의 질의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기준이 삶의 질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본다(정해식, 2012, p. 60). 이때 국가 수준의 삶의 질 비교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질적인 측면까지를 삶의 질에 포함하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조병구 외(2018)의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지니계수, 십분위배율, 임시직 근로자 비율을 물질적 격차로, 성별 교육 격차, 고용격차, 임금 격차, 노인 빈곤 등을 사회적 격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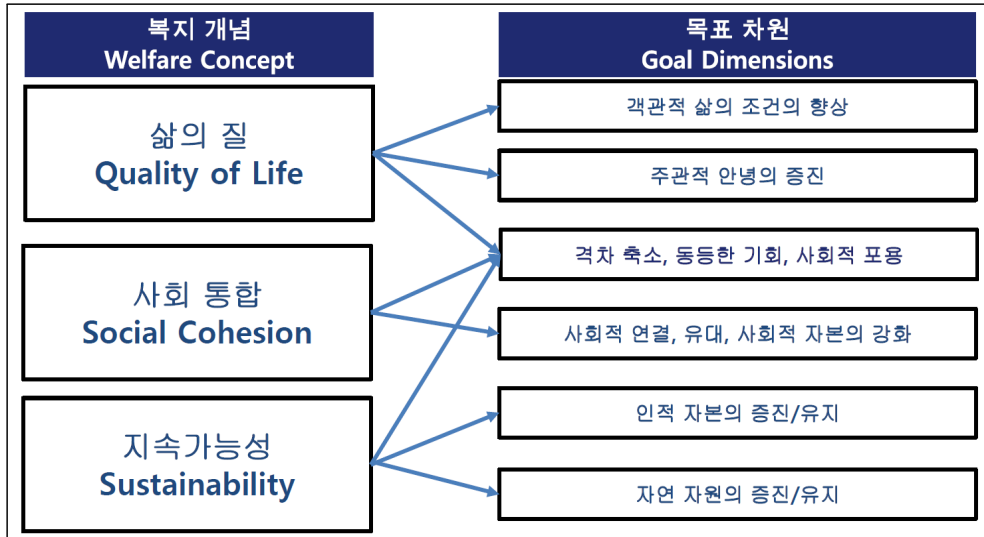
〈표 2-2〉 삶의 질 접근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의 기준

구분	객관적(objective)	주관적(subjective)
사회적 수준 (societal level)	사회의 질적 측면 (Quality of Society) (예: 소득 분배)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 (perceived quality of society) (예: 부자와 빈자 간 갈등의 정도)
개인 수준 (individual level)	객관적 삶의 조건 (objective living conditions) (예: 소득)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 (예: 소득 만족)

자료: Beck et al.(2001, p. 15);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p. 60에서 재인용.

삶의 질 접근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확인된다. 하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는 삶의 수준에 주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인식이라 할 주관적 안녕에 주목하는 방법이다(정해식, 2012, p. 48). 그렇지만 최근의 삶의 질 접근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결과를 두루 사용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만족도 등의 지표가 두루 섞여 있다. 또한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더 나은 삶 지수’에도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혼합돼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지 개념으로서 삶의 질에는 다음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삶의 조건, 주관적 안녕 외에도 격차의 축소, 동등한 기회의 보장, 사회적 포용의 차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림 2-2] 복지 개념과 각각의 목표 차원



자료: Berger-Schmitt, Noll. (2000), Conceptual Framework and Structure of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p. 41.

2. 행복, 삶의 질의 측정

행복을 주관적 안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측정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된다. 먼저 삶의 만족과 정서의 측정과 관련한 주요 논의를 살펴본다.

경제학의 전통적인 가치로서 효용(utility)을 측정할 때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카너먼(Kahneman, D.)의 인간의 선택이 언제나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과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 대표적이다. 카너먼의 경험한 효용(experienced utility)은 즐거움(pleasure)과 고통(pain, distress) 사이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중간점을 기준으로 바람직한 상태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고, 또한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현재 부정적인 조건을 통제하여 지금 경험하는 효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Kahneman, Wakker, & Sarin, 1997, pp. 380-381). 이들은 벤담(Bentham)의 행복론에 철학적인 근거를 두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관적 안녕을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나

오는 인식으로 보고 주관적 안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Kahneman & Krueger(2006)가 제안한 U-index는 불편한(unpleasant)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상황을 경험한 시간을 계산한다. U-index는 한 개인의 일상을 재구성하여 그중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던 사건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던 사건의 시간 비율을 고려한다. 응답자가 느끼기에 “행복한, 즐기는, 따뜻한, 우호적인” 감정을 경험한 시간과 “좌절하고, 걱정되고, 우울하고, 분노하며, 귀찮고, 비난받는” 감정을 경험한 시간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인데, U-index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Kahneman & Krueger, 2006). 이렇듯 경제학에서 행복, 주관적 안녕에 대한 접근은 정확한 감정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인 접근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행복과 삶의 만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인 정서가 높고 부정적인 정서가 낮은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Myers, Diener, 1995; Diener, Lucas, & Oishi, 2002).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왔다. 예를 들어,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ITAS(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 SPANE(Scale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 등이 있다(서은국, 구재선, 2011, p. 96).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안녕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자와 어떤 삶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제안을 실시하면서, 더 나은 삶의 한 요소로서 주관적 안녕을 측정할 필요를 가지고 표준적인 문항을 제시하였다. OECD(2013, pp. 253-265)가 제안한 정형화된 핵심 문항은 다음 <표 2-3>과 같다. 이때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5개의 질문에 대해서 90초 내에 응답해야 하며, “요즘(these days)”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각각 길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답하라는 의미이며, 응답자의 현재 감정 상태가 아니라 삶의 만족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표 2-3〉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측정의 핵심 질문

요소	질문 내용
삶에 대한 만족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에우다이모니아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 경험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자료: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 253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다른 한 축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다.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과 객관적 조건의 조합이다. 이 중에서 후자의 영역은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에 대응해 철학자 누스바움(Nussbaum) 등에 의해 발전한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과 함께 발전하였으며(Robeyns, 2005),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과 동의어로 쓰인다(Bliss, 1993, p. 417). 이는 또한 다차원적 생활여건에 의해 실현된다(Sen, 1999). 주요 예시는 유엔개발계획에 의한 인간개발지수이고, 1인당 국내총소득(GDI), 기대 및 평균 교육 수준, 그리고 출생 시 기대수명의 지표로 구성되며, 경제, 교육, 건강의 차원을 포괄한다(UNDP, 2011, p. 167).

삶의 질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공표하고 있는 ‘더 나은 삶 지수’ 등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객관적 생활여건과 주관적 인식을 포괄하고 있다(OECD, 2017). 국제 비교 자료에서 이러한 주관적 인식 문항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음 〈표 2-4〉에서 주관적 응답을 이용한 값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받는 친척,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수질에 대한 만족은 사는 도시 또는 지역의 수질에 만족한다는 사람의 비율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삶의 만족은 캔트릴 사다리로 평가한 삶의 평균 점수를 이용한다. 이 중에서 사회적 지지, 수질에 대한 만족, 삶의 만족은 갤럽월드폴 데이터를 이용하고,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각국의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한 OECD 건강데이터(OECD Health Data)를 원용한다(OECD, 2015; 정해식 외, 2018에서 재인용).

〈표 2-4〉 OECD ‘더 나은 삶 지수’의 영역과 지표

측정 영역	측정 지표(단위)
1. 주거	기본 시설이 없는 거처에 사는 인구 비율(%) 주거 관련 지출(%) 개인당 방 수(개)
2. 소득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미국 달러) 가구금융순자산(미국 달러)
3. 노동	고용률(%) 노동시장 불안정(%) 장기실업률(%) 개인 근로소득(미국 달러)
4. 공동체	사회적 지지(%)
5. 교육	교육 이수(%) 학생의 인지적 역량(점) 기대 교육 기간(년)
6. 환경	대기오염($\mu\text{g}/\text{m}^3$) 수질에 대한 만족(%)
7. 시민참여	규제정책 제정 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점) 투표율(%)
8. 건강	출생 시 기대여명(년) 주관적 건강 인지율(%)
9. 삶의 만족	삶의 만족(점)
10. 안전	살인율(10만 명당 건수) 야간 보행 안전감(%)
11. 일과 삶의 조화	장시간 근로자(%) 여가와 개인 유지에 쓴 시간(시간)

자료: OECD. (2015): 정해식, 강신옥, 김동진, 김성아, 강미나, 김지혜, ... , 김종호. (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24에서 재인용.

삶의 질 측정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영역을 측정하는 데 어떤 지표를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은 ‘왜 어떤 지표를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지만 하나의 정책 목표 및 지향점을 제시하는 도구로 삶의 질 지수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미 달성된 목표를 다시 제시하는 것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UNDP의 인간개발지수에서 활용하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뤄냈는데, 교육 기간, 기대수명의 큰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간개발지수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해당 지수의 효용이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삶의 질 측정에서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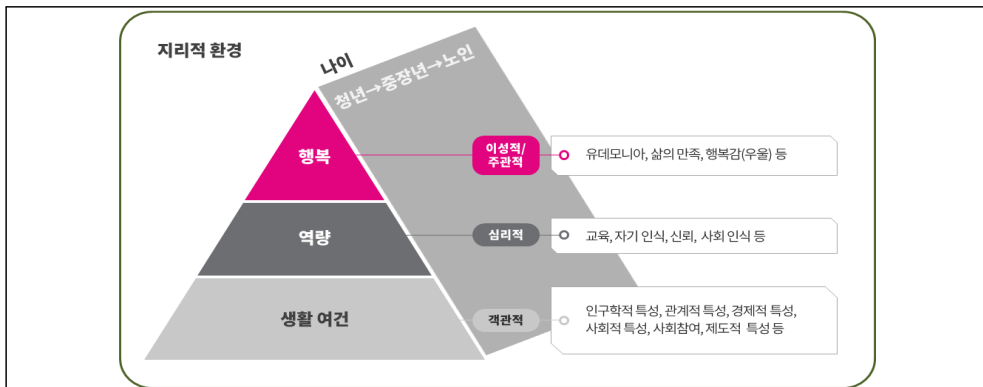
우리나라 통계청도 2011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 발표한다. 2018년에 개편되어 11개 영역(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건강, 교육, 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을 통해 지표를 측정하고 있는데(통계청, 2019a), 이들 11개 영역은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을 두루 포함한다. 이 연구는 3년 동안 수행될 과제로 1년 차에는 행복, 특히 주관적 안녕에 주목하여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생애주기별 경험과 이에 대응하는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을 고려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개념으로서 ‘삶의 질’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한편 1년 차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므로 2년 차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삶의 질에 주목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에 대한 검토는 2년 차 연구에서 보다 세밀하게 다루고자 한다.

3.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위계적 구조

이 연구의 양적 연구 설계에서는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행복을 설명하는 객관적 생활여건과 개인의 심리 사회적 역량을 다음 [그림 2-3]과 같이 설정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관계적 특성으로서 한 개인이 가지는 생활여건은 객관적 삶의 질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를 행복과 삶의 질의 위계적 구조라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19년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복 영향요인에 대한 위계적 구조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도를 바탕으로 하여 3장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주관적 안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할 것이며, 4장에서는 연령대별로 심리적 역량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2-3] 행복 영향요인의 위계적 구조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행복과 삶의 질 학술연구 동향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음에도 학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시도보다는 그 수준, 실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개념 정의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학술연구 동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2절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복’과 ‘삶의 질’을 키워드로 하는 국내 학술연구논문 초록을 텍스트분석하여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확인해 본다. 개별 학문 분야에서 가지는 고유한 관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초록을 추출하는 학술지를 경제학, 사회복지학, 심리학으로 분류하였다.

‘행복’과 ‘삶의 질’을 다루는 학문 분야별 접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경제학 문헌에서는 주로 소득 등의 경제력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문적 대응 방법과 체계를 발견하기 위해 인구집단별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왔을 수 있다. 긍정심리학을 발전시켜 온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기질이나 자기 조절 등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발견해 왔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상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학술논문의 초록을 ‘행복과 삶의 질 학술연구 초록 DB’로 만들어 텍스트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 대상 초록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학술논문을 추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연구 전자자료 사이트를 스콜라, DBPIA, E-Article, KISS, RISS, KCI의 6개로 제한했다. 둘째, ‘행복(감)’, ‘삶의 질’, ‘주관적 안녕(웰빙)’, ‘웰빙’, ‘삶의 만족’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학술논문의 국문초록을 모두 수집했다. 셋째, 이 중에서 2019년 9월 기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인한 국내 등재학술지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목록에서 대분야를 ‘사회과학’으로, 중분야를 ‘경제학’, ‘사회복지학’, ‘심리과학’으로 하는 등재학술지에 등재된 학술논문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최종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에서는 50개 학술지가 대상이었으며,¹⁰⁾ 최종 추출된 학술논문은 47개이다. 사회복지학에서는 27개 학술지가 선택

10) 「경제사학」, 「국제지역연구」, 「예산정책연구」, 「금융지식연구」, 「시장경제연구」, 「Seoul Journal of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에너지경제연구」,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Global Economic Review」,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통계연구」, 「EU학 연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경제교육연구」, 「경제발전연구」, 「Korea and the World

되었으며,¹¹⁾ 최종 195개 학술논문이 추출되었다. 심리학에서는 21개 학술지가 선택되었으며,¹²⁾ 최종 추출된 학술논문은 71개이다. 학술논문집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논문이 어떠한 학문적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는 별도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 여기서는 대략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논외로 하겠다.

국내 학술논문 초록은 한글로 작성된 텍스트이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고 등장 빈도를 고려하여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학문 분야별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글 텍스트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 통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R를 활용했으며, R에서 한글 자연언어를 처리하는 패키지인 KoNLP(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사용하였다. 단어와 조사가 결합되어 쓰이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해 텍스트에서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KoNLP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세종사전을 사용하였다. ‘연구’와 ‘결과’라는 단어는 학술논문에서 쓰이는 관용어구라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단어는 의미 단위를 확인하기 위해 2글자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다음 3개의 그림은 통계패키지 R를 활용한 학문 분야별 텍스트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도식화한 것이다.

첫째, 경제학 분야 행복과 삶의 질 학술논문 초록의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소비’, ‘행복’, ‘경제’, ‘소비자’ 등이 주요 단어로 확인된다. ‘사회’, ‘가치’, ‘관계’, ‘경험’, ‘선택’, ‘기반’, ‘지수’ 등의 단어도 확인된다. 선호를 반영하는 선택의 결과 소비로 나타나는

Economy,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경제연구」, 「The Korean Economic Review」, 「경제학연구」, 「계량경제학보」, 「국제경제연구」, 「국제금융연구」, 「금융연구」, 「노동경제논집」, 「동북아경제연구」, 「부동산학연구」, 「비교경제연구」, 「사회경제평론」, 「산업경제연구」, 「산업조직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학연구」, 「여성경제연구」,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산경연구논집」, 「유통과학연구」, 「응용경제」, 「재정정책논집」, 「재정학연구」, 「제도와 경제」, 「주택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역경제연구」, 「질서경제저널」, 「자원환경경제연구」, 「경상논총」, 「Journal of Economic Research(JER)」

- 11) 「사회복지법제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군사회복지학」, 「한국노년학」, 「노인복지연구」, 「한국보육학회지」,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미래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질적 연구」,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장애와 고용」, 「한국장애인복지학」,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학교사회복지」
- 12) 「인간이해」, 「인지발달중재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미술치료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놀이치료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인지행동치료」,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재활심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경제력과 관련된 단어의 등장 빈도가 높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달리 다양한 단어가 소수 등장하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2-4] 경제학 분야 행복과 삶의 질 학술논문 초록의 워드 클라우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b). 「행복과 삶의 질 학술연구 초록 DB」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둘째, 사회복지학 분야 행복과 삶의 질 학술논문 초록의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행복감’, ‘행복’, ‘영향’과 함께 ‘사회’, ‘관계’, ‘아동’, ‘대상’, ‘자녀’, ‘학교’, ‘건강’, ‘기부’ 등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학 학술논문 초록의 텍스트분석 결과와는 달리, ‘아동’, ‘학교’ 등 대상과 ‘관계’, ‘건강’, ‘기부’ 등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단어의 등장 빈도가 높다. 그리고 47개 경제학 학술논문의 텍스트분석 결과와 달리, 195개 사회복지학 논문의 개수가 많은 반면, 등장하는 단어의 다양성은 낮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주목하는 키워드가 경제학에 비해 집중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심리학 분야 행복과 삶의 질 학술논문 초록의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행복’과 함께 ‘집단’, ‘프로그램’, ‘척도’의 등장 빈도가 높다.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교사’ 등의 대상과 함께 ‘불안’, ‘정서’, ‘우울’ 등 심리적 경험에 대한 단어의 등장 빈도 또한 낮지 않다. 심리학에서는 대상 집단에 따라 심리적 경험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문 분야에 따른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점과 접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복,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개념어를 사용할 때, 학문 분야별로 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개념 정의와 측정 시도에 대한 간략한 검토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를 행복지수와 삶의 질 지수처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렵다. 행복지수는 앞서 Kahneman과 Krueger(2006)의 U-index와 같이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의 종합적인 결과로 계산되며, 이를 다시 우리 국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김승권 외(2008), 김미곤 외(2017)의 행복지수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에 가깝다. OECD의 BLI와 통계청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에 가까운데, BLI는 OECD 각국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횡단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어떤 특정한 시점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3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종합 연구는 다년간의 연구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 중 2019년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행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3절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여러 선행연구들은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Frey, Stutzer, 2002, pp. 10-11; 정해식, 2012, pp. 52-53에서 재인용). 한편 1990년대 이래 경제학 저널을 이용하여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요약한 Dolan, Peasgood, & White(2008, pp. 98-111)는 모두 7개의 요인으로 이를 정리하고 있다.

4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표 2-5〉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요인	요소
Frey, Stutzer (2002)	개인적 요인	자존감, 자기통제, 낙관주의, 외향성, 신경과민 등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교육 등
	경제적 요인	개인소득, 총소득, 실업, 물가상승 등
	맥락적·상황적 요인	특정 고용 조건 및 근로 조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직장동료·친척·친구·배우자와의 인간관계, 생활환경과 건강 등
	제도적 요인	정치의 탈집중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정도 등
Dolan, Peasgood, & White (2008)	소득	소득
	개인적 특성(우리는 누구인가?)	연령, 성별, 인종, 성격
	사회적으로 개발되는 특성	교육, 건강, 근로형태, 실업
	시간 사용	근로시간, 통근시간, 타인을 돌보는 시간, 지역 소속과 자원봉사, 운동, 종교 활동
	(자신, 타인, 삶에 대한) 태도와 신념	태도, 신뢰, 정치적 신념, 종교
	관계	결혼과 친밀한 관계, 자녀를 가지는 것, 가족·친구와 만나는 것
	보다 넓은 경제, 사회 및 정치적 환경(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소득불평등, 실업률, 물가상승률, 복지체제와 공적 보험, 민주주의의 정도, 기후와 자연환경, 지역의 안전성과 박탈 정도, 도시화 정도

자료: 1) Frey & Stutzer, 2002, pp. 10-11;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pp. 52-53에서 재인용.

2) Dolan, Peasgood, & White.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pp. 98-111의 내용을 저자가 표로 구성함.

이 중에서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교육과 그 외 요인들을 살펴보고, 경제적 요인으로 소득 및 직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

1.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들

가. 연령

연령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차이는 ‘U-shape(U자형)’로 설명되는데, 이 개념은 주요 선진국에서 삶의 만족 수준이 40~50세 사이에 최저점을 보인 후 60세 이상까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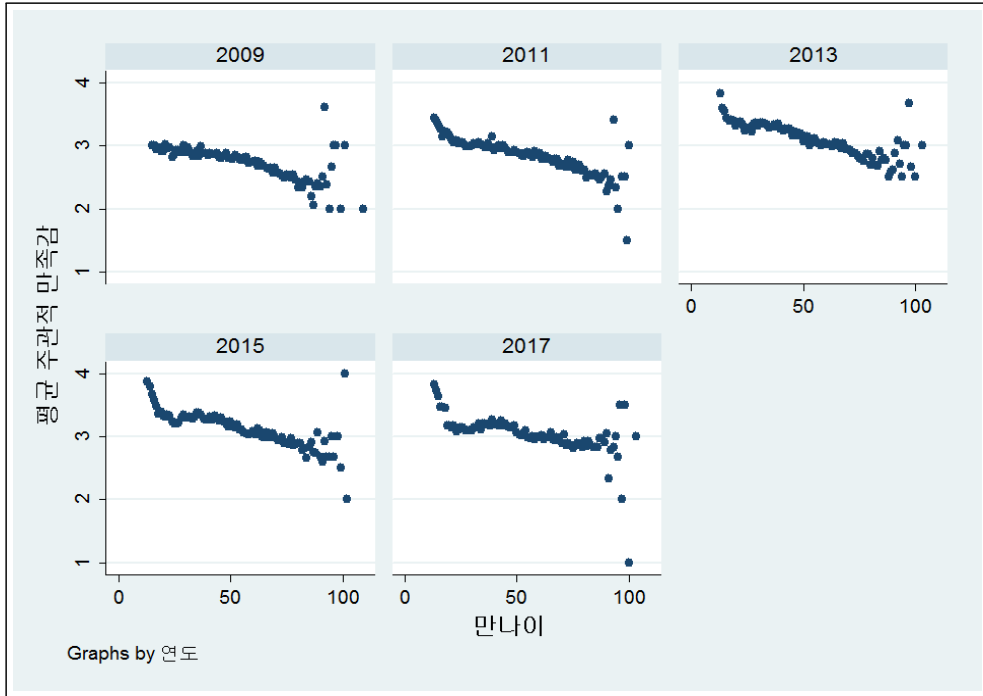
차 상승하다가 75세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전반적인 U자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Blanchflower, Oswald, 2008; Frijters, Beaton, 2012; 김성아, 정해식, 2019, p. 96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 중 특히 신체적인 요소들이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행복의 요인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연령대 이후에 다시 행복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Frey와 Stutzer(2002, p. 53)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노인들이 젊은 세대보다 더 행복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노인들의 기대(expectations)와 열망(aspirations)이 낮다”(Frey, Stutzer, 2002, p. 53). “노인들은 그들이 일을 그만 두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젊은 사람보다 적다”는 것이다(Stroebe, Stroebe, 1987; Frey, Stutzer, 2002, p. 53에서 재인용). 둘째, “목표와 성취한 것 사이의 차이가 적다”(Frey, Stutzer, 2002, p. 53).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서 목표와 성취한 바의 차이가 줄어든다”(Campbell, Converse, Rodgers, 1976; Frey, Stutzer, 2002, p. 53에서 재인용). 셋째, “노인들은 그들의 조건에 적응할 시간을 가져 왔다”. “고령 노동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일의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일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노동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Argyle, 1989; Frey, Stutzer, 2002, p. 53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부정적 삶의 경험들을 줄이는 방법과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법을 안다”(Frey, Stutzer, 2002, p. 53).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그림 2-7]은 거의 대부분의 조사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우하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아, 정해식(2019)은 2017년 실시한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이렇게 낮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가구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2-7] 통계청 사회조사의 연령대별 주관적 만족감

(단위: 세, 점)



주: 통계청 사회조사는 '주관적 만족감'의 소제목하에 조사하고 있으며,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함.

자료: 정해식, 강신욱, 김동진, 김성아, 감미나, 김지혜, ...김종호. (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213.

나. 성별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Frey, Stutzer, 2002, p. 54).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안주엽 외(2015, p. 32)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고령층에서 행복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면서 연령 계층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남성에게서는 적은 편이지만 여성에게서는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김미곤 외(2014, p. 206)는 주관적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별이 유의한 행복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성아, 정해식(2019)은 성별의 영향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나이, 교

육 수준, 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 수준 및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 차이는 노인(65세 이상)에게서는 유의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행복(주관적 안녕)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을 때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감성의 차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문항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복합적이고 인식적인 차원에서 확인하는 행복지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행복지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성의 행복지수 평균이 더 높았다(김미곤 외, 2017, p. 109).

다. 교육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에서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는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득 등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확보되어 높은 주관적 안녕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교육 수준은 그 자체로 행복을 증진하는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둘째는 높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만큼 성취 목표가 높아져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수준과 행복의 관계는 그 당사자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Frey, Stutzer, 2002, pp. 58-59). 후자의 설명으로는 실직 상태에 처했을 때 더 교육받은 사람이 더 정신적으로 괴로워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기대 수준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Clark, Oswald, 1994; Frey, Stutzer, 2002, p. 59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경제활동상태, 가구소득 및 자산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교육 수준이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정해식, 김성아, 2019).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 자산 등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투입할 경우에, 대학 이상 학력의 교육 수준의 영향력이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미곤 외, 2014, p. 206).

라. 그 외 요인들: 혼인 여부, 종교

행복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방대하게 정리하고 있는 Dolan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혼인 여부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행복도의 저하가 확인된다. 특히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서 단순히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대부분 배우자가 있는 경우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하계 김미곤 외(2014)의 연구에서는 가구 내에 취약 계층이 있는 경우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노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있는 경우, 만성 질환자가 있는 경우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동이 있는 경우는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olan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태도와 신념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념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행복하며, 신에 대한 믿음과 삶의 만족 간에는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는데 어떤 종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Dolan et al., 2008, p. 106).

국내 연구에서는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2003)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유의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미곤 외(2014, p. 168)는 종교가 있고 신앙심이 강한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약한 경우보다 행복도와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2.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

가. 소득

소득은 행복 혹은 주관적 안녕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행복에 대한 소득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평가의 준거가 소득 그 자체에 있어서 소득 증가에 따라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절대적 효용이론(Absolute utility theory)과 평가의 준거가 비교 대상에 있어 소득이 늘더라도 상대적인 비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적 효용이론(Relative utility theory)이 그것이다(Diener, Oishi, 2000). 상대적 효용이론에서 평가의 준거는 내 주변 사람일 수도, 과거의 나 자신일 수도 있다.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두 사실, 즉 한 개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행복해한다는 사

실과 한 나라의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그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병립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효용함수에서 상대 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두 개념의 병립이 가능한데, 이때 상대소득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한 개인의 과거와 비교하는 상대소득 개념으로, 핵심은 소득과 행복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그 체득효과가 점차 낮아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Clark, Frijters, & Shields, 2008). 그러므로 한 개인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높아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득도 높아지면 소득의 체득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Dolan et al., 2008, p. 98). 이는 왜 부유한 국가에서 부자들이 더 행복해하지만 그 나라의 행복 수준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왜 가난한 국가에서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행복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안주엽 외(2015, p. 82)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1억 800만 원 이상에서 1억 2천만 원 구간에서 정점에 이른 후 오히려 감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곤 외(2014, p. 200)는 ‘행복해지기 위한 이상적인 소득·재산 수준과 현재의 소득·재산 수준 간의 격차’를 통해 계층간 경제적 기대 수준 격차가 클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고 밝히고, 객관적 생활수준보다 주관적 생활수준이 행복을 위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해식, 김성아(2019)도 한 개인이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준거 집단의 높은 경제력 수준이 행복도를 높이지만, 그 준거집단과의 경제력 격차는 개인의 행복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 직업

행복에 대한 경제적 요인 중 하나는 고용상태 및 고용의 질과 관련된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낮은 주관적 안녕 상태를 보인다(Clark, Oswald, 1994). 하고 있는 일의 내재적 성격-예를 들어, 개인적 통제 기회, 개인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업무의 다양성 등-과 외재적 성격-급여, 근로 조건, 직업안정성, 작업장의 신체적 안전, 직업 위계 등-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Frey, Stutzer, 2002, pp. 103-104).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데 이는 정규직과 비교한 파트타임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Schoon, Hansson, & Salmela-Aro, 2005; Dolan et al., 2008, p. 102에서 재인용), 근로시간과 행복의 관계도 U자형을

떠는, 즉 일정한 수준까지 근로시간이 늘 때는 행복도가 늘어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기도 한다(Meier, Stutzer, 2005; Dolan et al., 2008, p. 102에서 재인용).

안주엽 외(2015)는 「일과 행복」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먼저, 총근로시간과 행복도의 관계이다. 주당 총근로시간이 40~48시간이 행복도가 가장 높고, 단시간에서 낮고, 장시간에서도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안주엽 외, 2015, p. 150). 한편 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을 때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행복도가 높고, 이보다 길 때는 남성이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주엽 외, 2015, p. 150). 둘째, 정규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 근로자가 행복도가 현격하게 낮으며, 이러한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에서도 일일근로가 행복도가 가장 낮고,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순으로 나타나며,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시간제와 기간제는 다소 높은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안주엽 외, 2015, p. 157). 셋째, 고용안정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이들의 행복도는 고용안정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이러한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난다(안주엽 외, 2015, p. 162). 그리고 실제로 근속 기간이 긴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다(안주엽 외, 2015, p.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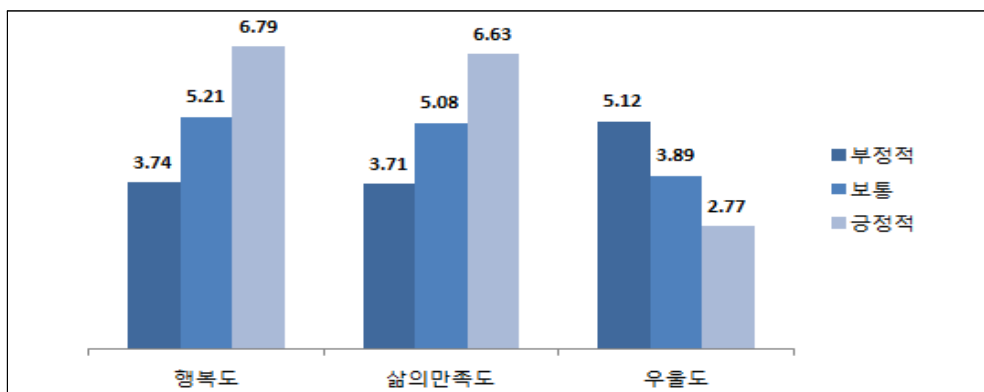
3.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크게 다루지 않는다. 이미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선택, 영향과 같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연구에서 다뤘던 주요한 국내 선행연구도 유사한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Dolan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성격은 매우 짧게 다루지는데, ‘성격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는 사회적 신뢰나 종교적 신념과 같은 다른 요소에 의해 조절된다(Helliwell, 2006; Dolan et al., 2008, p. 99에서 재인용)’,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사람은 우울의 고통이 덜하다(Dolan et al., 2008, p. 99)”는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김미곤 외(2014)가 ‘나는 매사에 부정/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문항을 이용한 성격과 행복도의 관계를 간단히 제시한 바 있다. 다음 [그림 2-8]에 서와 같이 성격이 긍정적인 사람은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도는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2-8] 성격(부정적-긍정적)별 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도

(단위: 점)



자료: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p. 169.

인간의 성격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연구자는 태생적 특성이 행복도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생애주기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유전적 속성이 가지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이 속한 환경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할지, 불행해할지와 같은 근본적인 주관적 안녕의 수준은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높은 소득과 같은 특정한 사건은 이 주관적 안녕의 기준을 넘나들게 하지만, 다시 때가 되면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Frey, Stutzer, 2002, pp. 51-52).

가. 낙관성

낙관성(optimism)은 행복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성격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2011). 낙관성이 행복에 미치는 경로는 낙천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긍정적 기대에 따른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 기대에 따른 목표 달성 노력

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Scheier, Caver, 1985; Frey, Stutzer, 2002, p. 5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에 따라 낙관주의자가 더 행복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낙관주의자들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면서 비관주의자들보다 더 강한 끈기를 나타내고, 불쾌한 생활 사건에 대해서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며, 비관주의자보다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양호하여 더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Dweck, 1975; Seligman, Reivich, Jaycox, & Gillham, 1995; 권석만, 2011에서 재인용).

나. 통제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할 두 번째는 통제감(perceived control)이다. 통제감은 삶의 사건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 Lachman, Weaver(1998)에 따르면 “저소득 개인이라도 강력한 통제감을 가지는 경우 덜 불행해한다는 것이 확인”된다(Frey, Stutzer, 2002, p. 51에서 재인용). 저소득이라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있어서 저소득에 따른 불행의 정도를 완화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상태에 있는 저소득 수급자라도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 덜 불행해할 수 있다”(Frey, Stutzer, 2002, p. 51).

다. 외향성

외향성(extroversion)은 행복에 기여하고, 신경증적 성질(neuroticism)은 불행을 이끌어 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Frey, Stutzer, 2002, p. 52). Lucas 등(2001)에 따르면, “외향성인 사람은 보상에 보다 잘 반응하고, 그래서 보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Frey, Stutzer, 2002, p. 52에서 재인용). 이 경우도 낙관성과 마찬가지로 외향성 자체가 행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이 보여 주는 일반적인 행태와 그 결과가 행복을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으로 알려진다(Frey, Stutzer, 2002, p. 52).

라. 자존감

마지막으로 자존감(self-esteem)을 제시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인식적 전략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확인되는 증거를 무시하는 것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Dunning, Leuenberger, & Sherman, 1995; Frey, Stutzer, 2002, p. 52에서 재인용).

윤홍균(2016)은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쓸모 있다고 느끼는 ‘자기 효능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으로서 ‘자기 조절감’,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성격으로서의 ‘자기 안전감’의 세 가지 축이 자존감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때 자기 조절감은 앞서 다뤘던 통제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자기 안전감은 외향성과 관련된다.

이상에서 다룬 심리적 요인들은 성격으로서 한 개인의 우울, 걱정, 분노와 같은 행복 경험과 성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리적 요소는 외부적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오고, 그 방식 차이에 따른 행동과 결과의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행복할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3 장

한국인의 행복 지형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한국인의 행복 지형 분석

제3절 한국인의 행복 인식

제4절 소결

제1절 문제 제기

이 장은 한국인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살펴보는 양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모든 개인은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행복과 주어진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각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있고, 생활여건에 대해서 충분과 부족을 느끼는 등 인식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양적 접근을 취할 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행복의 수준과 그 편차의 계량적인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평균을 이용한 조망 속에서 특징적인 개인, 집단의 개별적 경험의 특이성을 발견하고 의미를 해석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합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정의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 행복은 인지적인 가치평가일 수 있고, 정서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 정서적 경험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적 조건이 행복의 경험과 관련될 수도 있다. 행복은 정서적 경험에 국한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과 연관될 수도 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행복을 경험하는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은 독립적인 경험이라기보다 다양한 경험과 관련되는 조건부일 수도 있다. 나의 행복에 국한될 수 있고 유의미한 타인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다. 행복은 지금의 경험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다. 하지만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행복의 수준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경험은 많지 않다.

이 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절에서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 지형을, 3절에서 행복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¹³⁾

13) 실태조사의 개요는 1장 연구 방법에서 제시하였다.

제2절 한국인의 행복 지형 분석

1. 2019년 한국인의 행복

한국인의 행복은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에서 질문하고 있는 총 5개 지표로 측정한다.

첫 번째 지표는 삶에 대해 평가(life evaluation)하는 캔트릴 사다리이다. 질문은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OECD, 2013, p. 253; Gallup, 2014, p. 42;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변재관, 김성아, 조하나, 2017, p. 114에서 재인용). 두 번째 지표는 삶에 대한 만족이고, “__님께서요 요즘 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한다(OECD, 2013, p. 256). 세 번째 지표는 정서적 행복감으로 어제 느낀 행복이고, “__님께서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의 질문을 이용한다(OECD, 2013, p. 258). 네 번째 지표 또한 정서적 행복감으로 어제 느낀 우울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__님께서요 어제 얼마만큼 우울하셨습니다?”이다(OECD, 2013, p. 258). 마지막 지표는 에우다이모니아적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__님께서요 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활용한다(OECD, 2013, p. 260). 모든 지표는 0~10점 범위의 리커트척도로 측정하는데, 응답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문항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별도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다섯 가지 지표 및 응답 가이드라인은 OECD의 주관적 안녕 측정의 가이드라인(OECD, 2013)을 준용한 것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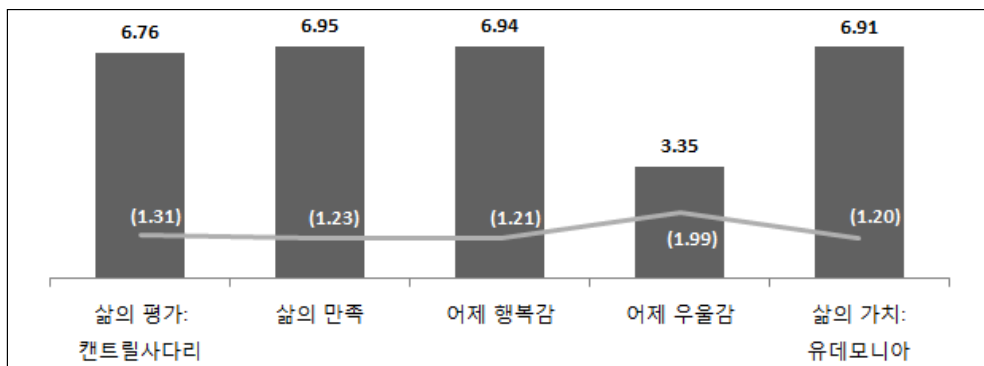
측정 지표 가운데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 삶의 가치는 긍정적인 지표이고, 어제 우울감은 부정적인 지표이다.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의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삶의 평가(캔트릴 사다리 값)와 삶의 만족과의 상관계수는 0.6846($p=0.000$), 어제 행복감과는 0.5818($p=0.000$), 삶의 가치와는 0.4934($p=0.000$)이고, 어제 우울감과는 -0.0899 ($p=0.000$)이다.

14) OECD(2013)의 응답 가이드라인은 5개의 질문에 대해 90초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라고 하고 있다.

삶에 대한 평가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사용하는 지표로,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현재 6.76점이다.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2016~2018년 3개년 평균 5.895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Helliwell, Layard, & Sachs, 2019, pp. 24-26), 조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면 두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의 원자료를 분석한 2019년 현재 삶의 만족은 6.95점, 어제 행복감은 6.94점, 에우다이모니아적 삶의 가치는 6.91점으로 유사하게 높은 수준이고 표준편차는 1.2~1.3 정도이다. 부정적 지표인 어제 우울감은 3.35점으로 낮지만 표준편차가 2 정도로 다른 지표에 비해 큰 편이다.

[그림 3-1] 한국인의 행복 측정 결과

(단위: 점)



주: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임.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2. 연령대별 행복

다음은 연령대별 행복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19~34세는 청년, 35~49세는 중년, 50~64세는 장년,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년은 전체 표본의 15.5%이고, 중년은 31.4%, 장년은 38.5%, 그리고 노인은 14.6%이다. 연령대별로 청년에 비해 중년과 장년의 삶의 평가 수준이 높고, 노인으로 이동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이러한 패턴은 삶의 만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어제 행복감은 청년과 중년이 각각 7.1점 정도로 높고, 장년과 노인으로 이동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삶의 가치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삶의 평가와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 삶의 가치의 4개 지표 모두 노인의 점수가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크다. 즉, 노인의 행복이 취약하다. 반면, 어제 우울감은 청년 3.33점, 중년 3.32점, 장년 3.39점, 노인 3.35점으로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다.

〈표 3-1〉 연령대별 유효표본과 행복

(단위: 명, %)

구분	빈도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	어제 우울감	삶의 가치
청년	776 (15.5)	6.81 (1.22)	7.03 (1.13)	7.07 (1.09)	3.33 (2.04)	7.06 (1.11)
중년	1577 (31.4)	6.94 (1.18)	7.12 (1.10)	7.06 (1.18)	3.32 (2.03)	7.07 (1.13)
장년	1,933 (38.5)	6.80 (1.27)	6.95 (1.22)	6.89 (1.23)	3.39 (1.95)	6.92 (1.19)
노인	734 (14.6)	6.11 (1.64)	6.40 (1.51)	6.49 (1.35)	3.35 (1.93)	6.25 (1.34)
전체	5020 (100.0)	6.76 (1.31)	6.95 (1.23)	6.94 (1.21)	3.35 (1.99)	6.91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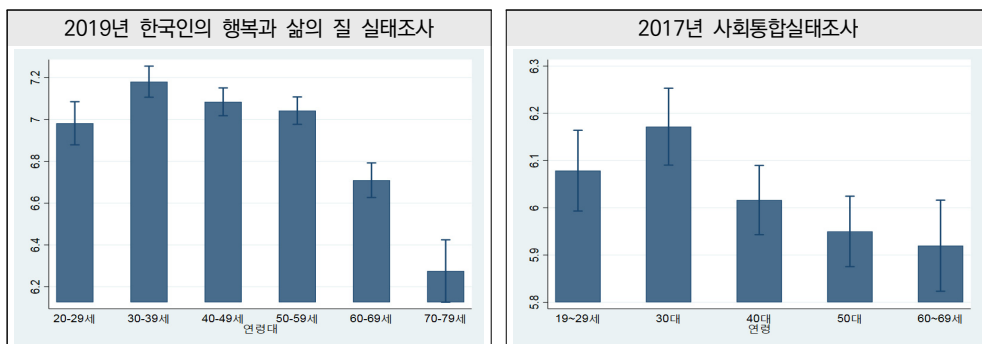
주: 청년은 19~34세, 중년은 35~49세, 장년은 50~64세, 노인은 65세 이상임. 유효표본의 괄호 안 값은 비율이고 행복의 괄호 안 값은 표준편차임. 유효표본의 빈도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임. 행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 [그림 3-2]는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에서 나타난 10세 단위 연령대별 삶의 만족을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19~69세로 연령대를 제한하는 반면,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는 79세까지 확대하였다. 연령대를 확대하는 것은 노인의 낮은 삶의 만족 수준을 고려했을 때(김성아, 정해식, 2019), 노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용이할 수 있다.

[그림 3-2] 연령대별 삶의 만족: 사회통합실태조사와의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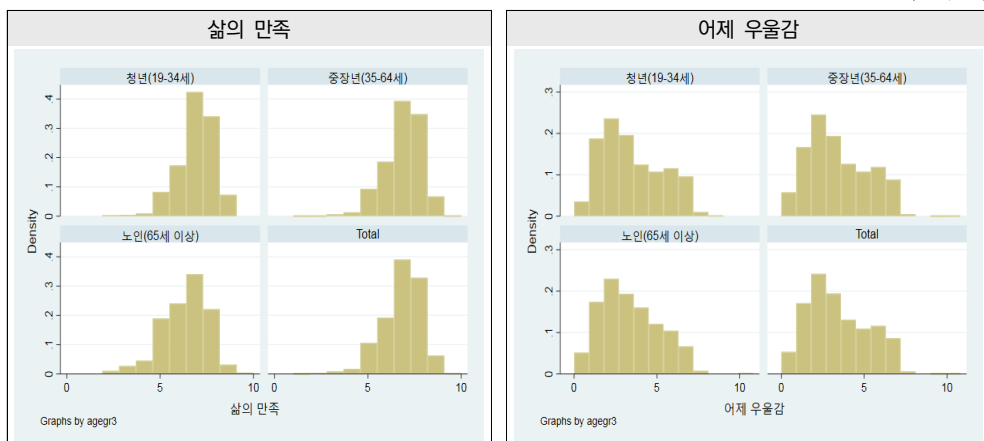
주: 청년은 19~34세, 중년은 35~49세, 장년은 50~64세, 노인은 65세 이상임. 막대그래프 위 선그래프는 표준편차를 고려한 신뢰구간임. 행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17).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분석 결과, 20대에 비해 30대의 삶의 만족 수준이 높고, 40대, 50대, 60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이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두 조사에서 유사하다.¹⁵⁾ 반면,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에서 확인할 수 있는 70대의 삶의 만족 수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표준편차를 고려한 신뢰구간이 커져, 노인 집단에서 동일 연령대 내 편차가 크다. 즉, 노인 집단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매우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행복하지 않다.

다음 [그림 3-3]은 삶의 만족, 어제 우울감의 연령대별 히스토그램이다. 전체 표본은 삶의 만족의 0~10점 범위 중에서 7점의 빈도가 가장 높다. 다음은 8점, 6점, 5점의 순이다. 이러한 패턴은 청년, 중·장년 집단에서 일관적이다. 4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선택한 비율은 크지 않다. 단, 노인은 다른 연령대 집단에 비해 7점의 빈도가 가장 많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6점이 다음 순이다. 8점과 5점과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그리고 4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선택한 빈도도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하면 작지 않다. 반면, 어제 우울감의 점수별 빈도 차이는 삶의 만족에 비해 크지 않다.

[그림 3-3] 연령대별 행복지표 히스토그램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15) 단,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분석 결과, 30~40대의 행복 수준이 20대의 행복 수준에 비해 높지만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30~40대의 행복 수준이 20대의 행복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에서 두 조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거주 지역별 행복

다음은 거주 지역에 따른 행복 수준이다. 거주 지역은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했다. 지역별 유효표본 크기와 지표별 행복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캔트릴 사다리 척도로 측정하는 삶에 대한 평가는 충북이 8.2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7.5점, 대전 7.1점으로 높다. 반면, 울산은 6.1점으로 매우 낮고, 제주가 6.2점 정도이다. 삶의 만족 수준은 충청북도에서 8.2점으로 가장 높다. 그리고 세종이 7.5점, 대전이 7.4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제주와 강원도의 삶의 만족이 6.3점 정도로 낮은 편이다. 어제 행복감도 충북이 8점으로 가장 높고, 대전이 7.3점, 세종과 인천이 7.2점 정도로 높다. 그리고 제주는 6.3점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행복을 측정하는 부정적 지표인 어제 우울감은 대전에서 2.7점으로 가장 낮고, 강원과 제주도 2.8점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광주가 4.1점, 세종이 3.9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에우다이모니아적 삶의 가치는 충북이 8.1점으로 가장 높고, 세종과 대전이 7.4점 정도로 높다. 반면, 제주와 울산이 6.4점 정도로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충북, 세종, 대전의 행복 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제주, 울산의 행복 점수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지역별 행복 수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효표본 크기에 따른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3-2〉 거주 지역별 유효표본과 행복

(단위: 명, %, 점)

구분	유효표본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	어제 우울감	삶의 가치
서울	590 (11.8)	6.96 (1.17)	7.00 (1.17)	6.96 (1.14)	3.68 (1.81)	7.00 (1.09)
부산	350 (7.0)	6.55 (1.26)	6.91 (1.06)	6.98 (1.10)	3.30 (2.08)	6.76 (1.31)
대구	300 (6.0)	6.68 (1.24)	7.10 (1.03)	6.98 (1.18)	2.90 (1.90)	6.96 (1.24)
인천	320 (6.4)	6.98 (1.23)	7.09 (0.94)	7.16 (1.02)	3.37 (2.21)	7.07 (1.06)
광주	230 (4.6)	6.88 (1.02)	7.10 (0.94)	7.02 (0.98)	4.05 (2.03)	6.77 (1.02)
대전	230 (4.6)	7.12 (1.16)	7.41 (0.99)	7.28 (1.03)	2.68 (2.09)	7.35 (1.12)
울산	200 (4.0)	6.10 (1.17)	6.37 (1.22)	6.30 (1.19)	3.20 (2.01)	6.38 (1.21)
세종	100 (2.0)	7.54 (0.55)	7.51 (0.59)	7.23 (0.51)	3.93 (2.16)	7.43 (0.71)
경기	660 (13.2)	6.71 (1.38)	6.92 (1.34)	6.99 (1.25)	3.30 (1.94)	6.93 (1.16)
강원	230 (4.6)	6.25 (1.38)	6.34 (1.45)	6.35 (1.57)	2.77 (2.11)	6.70 (1.37)
충북	240 (4.8)	8.19 (0.86)	8.20 (0.86)	8.00 (0.83)	3.61 (1.94)	8.07 (0.92)
충남	270 (5.4)	6.83 (1.29)	6.99 (1.17)	6.98 (1.18)	3.00 (2.01)	7.26 (1.07)
전북	250 (5.0)	6.41 (1.07)	6.94 (0.83)	6.86 (0.93)	3.80 (1.71)	6.57 (0.95)
전남	250 (5.0)	6.67 (1.34)	6.99 (1.20)	6.92 (1.21)	3.65 (2.14)	6.84 (1.27)
경북	310 (6.2)	6.54 (1.21)	6.60 (1.15)	6.65 (1.12)	3.01 (2.04)	6.59 (1.13)
경남	340 (6.8)	6.32 (1.46)	6.61 (1.32)	6.53 (1.38)	3.22 (2.02)	6.49 (1.37)
제주	150 (3.0)	6.19 (1.64)	6.28 (1.59)	6.25 (1.66)	2.83 (2.21)	6.37 (1.63)
전체	5,020 (100.0)	6.76 (1.31)	6.95 (1.23)	6.94 (1.21)	3.35 (1.99)	6.91 (1.20)

주: 유효표본의 괄호 안 값은 비율이고 행복의 괄호 안 값은 표준편차임. 유효표본의 빈도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임. 행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4. 요일별 행복

다음은 응답 요일별 행복 수준이다. Helliwell & Wang(2013)은 갤럽-헬스웨이 자료를 이용해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에 대한 평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일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행복감은 주중에 비해 금요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는 2019년 5월 상순부터 6월 상순까지 실시되어, 조사 마지막 시기 현충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은 없다. 그래서 요일별 수준을 파악하여 주중과 주말의 행복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캔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는 수요일이 6.9점으로 가장 높고, 다른 요일 간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삶의 만족, 삶의 가치로 측정하는 행복과 다르지 않고, Helliwell & Wang(2013)의 결과와 일관적이다. 반면, 어제 행복감은 수요일과 함께 토요일과 일요일의 점수도 높은데, 이 또한 Helliwell & Wang(2013)의 결과와 일관적인 것이다.

〈표 3-3〉 응답 요일별 유효표본과 행복

(단위: 명, %)

구분	유효표본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	어제 우울감	삶의 가치
월	660 (13.2)	6.68 (1.41)	6.86 (1.37)	6.83 (1.26)	3.46 (1.93)	6.83 (1.23)
화	648 (12.9)	6.71 (1.30)	6.94 (1.24)	6.89 (1.27)	3.54 (2.01)	6.91 (1.26)
수	586 (11.7)	6.93 (1.27)	7.09 (1.24)	7.06 (1.28)	3.26 (2.00)	7.04 (1.28)
목	536 (10.7)	6.73 (1.39)	6.90 (1.24)	6.86 (1.20)	3.21 (2.11)	6.92 (1.17)
금	579 (11.5)	6.75 (1.25)	6.89 (1.17)	6.84 (1.19)	3.36 (1.98)	6.93 (1.15)
토	912 (18.2)	6.75 (1.28)	6.98 (1.13)	7.03 (1.14)	3.21 (2.02)	6.87 (1.19)
일	1,099 (21.9)	6.75 (1.31)	6.97 (1.22)	6.97 (1.19)	3.41 (1.93)	6.92 (1.15)
전체	5,020 (100.0)	6.76 (1.31)	6.95 (1.23)	6.94 (1.21)	3.35 (1.99)	6.91 (1.20)

주: 유효표본의 괄호 안 값은 비율이고 행복의 괄호 안 값은 표준편차임. 유효표본의 빈도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임. 행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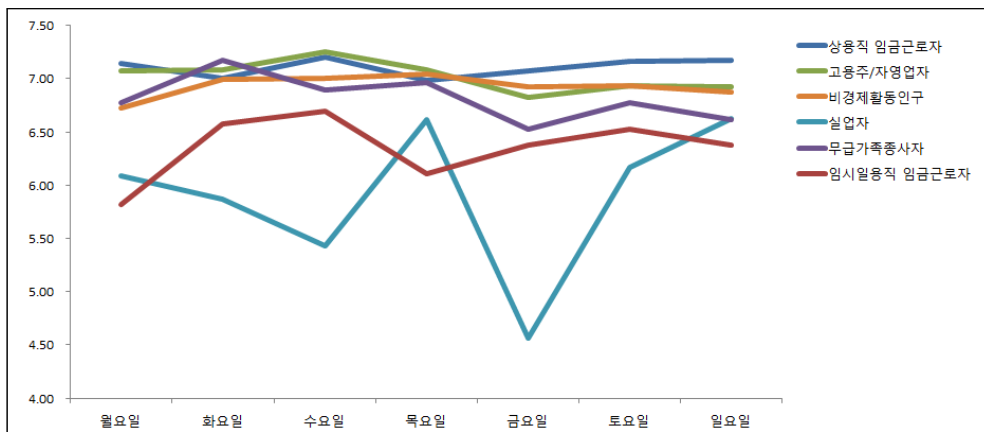
다음 [그림 3-4]는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한 응답 요일별 삶의 만족 수준이다. 경제활동상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였다. 응답 요일에 따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무급가족종사자의 삶의 만족이 6.5~7.5점에서 등락을 공유하지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편차가 나타난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주중에 비해 삶의 만족 수준이 높지

만,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7점 이하로 주중에 비해 약간 낮아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6.5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실업자의 삶의 만족은 다른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 낮다. 특히 실업자는 금요일에 삶의 만족 수준이 4.5점 정도로 현저히 낮아지고, 다른 집단들의 삶의 만족 점수가 토요일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일요일에는 오히려 6.5점 정도로 높아진다. 이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요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4] 경제활동상태별 응답 요일별 삶의 만족

(단위: 점)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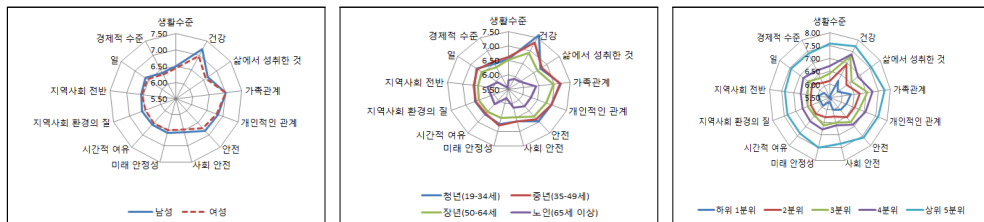
5. 생활영역별 만족

여기에서는 생활수준, 건강, 삶에서 성취한 것, 가족관계, 개인적인 관계, 안전, 사회 안전, 미래 안정성, 시간적 여유, 지역사회 환경의 질, 지역사회 전반, 일, 그리고 경제적 수준의 생활영역별 만족 수준을 확인한다. 다음 그림은 성별과 연령대, 소득분위별 생활영역의 만족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생활영역별 만족 수준이 높다. 특히 건강, 안전, 지역사회 환경의 질, 일, 미래 안정성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에 비해 중년이 약간, 그리고 중년에 비해 장년

이, 장년에 비해 노인의 만족 수준이 낮다. 특히 노인의 경제적 수준과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 수준이 현저히 낮다. 소득분위에 따라 분위가 높을수록 생활영역 전반에서 만족 수준이 높다. 특히 1분위는 경제적 수준과 미래 안정성의 만족 수준이 낮다.

[그림 3-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활영역 만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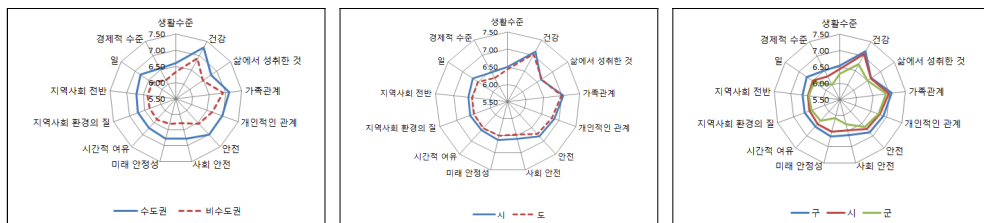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 거주 지역 특성별 생활영역 만족

(단위: 점)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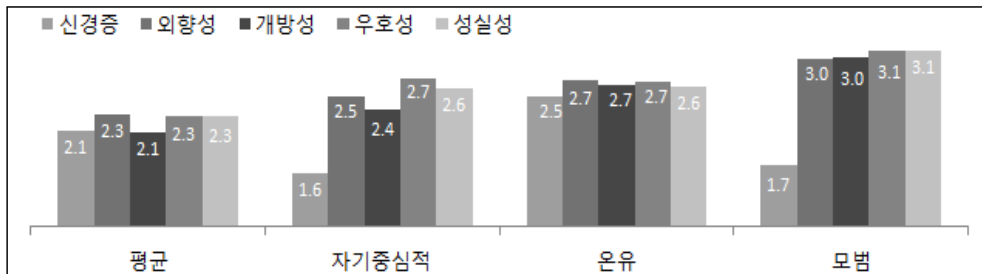
[그림 3-6]은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생활영역 만족 수준이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생활영역별 만족 수준이 높다. 특히 차이가 큰 영역은 안전과 사회 전반적인 안전이다. 그리고 미래 안정성, 일,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또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하면, 삶에서 성취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영역에서 도 지역에 비해 시 지역 거주자의 만족 수준이 높다. 경제적 수준과 일의 영역에서 그 차이가 비교적 크다. 시·군·구로 거주 지역을 구분하면, 구 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영역별 만족 수준이 낮다. 특히 군 지역 거주자는 미래 안정성과 경제적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다.

6. 성격과 행복

다음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의 다섯 가지 특성으로 성격을 측정하는 성격 5요인 척도를 이용해 군집분석하여 성격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여기에서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이 강하고 신경증, 개방성이 약한 집단은 ‘평균’적인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외향성이 강하지만 신경증, 개방성이 낮은 집단은 ‘자기중심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개방적이지는 않은 집단은 ‘온유’한 집단으로, 신경증이 낮고 외향성, 개방성, 조화성, 근면성이 대체로 높은 집단은 ‘모범’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Gerlach, Farb, Revelle, & Amaral, 2018). 집단별 성격 요소의 특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7] 성격 5요인 척도를 활용한 성격 유형 구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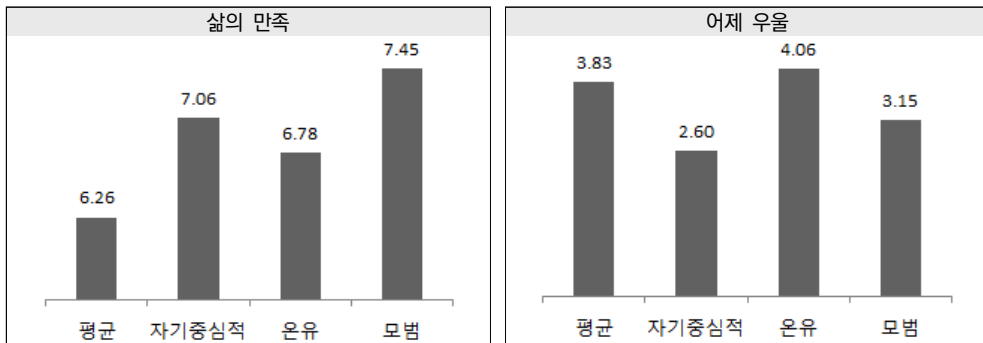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1~5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3-8]은 성격 유형별 삶의 만족과 어제 우울로 측정한 행복 수준이다. 삶의 만족은 모범적인 집단에서 7.5점으로 가장 높다. 다음은 자기중심적인 집단이 7.1점으로 높고, 온유한 집단도 6.8점 정도이다. 반면, 평균적인 집단은 6.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울은 삶의 만족과 반대의 패턴을 보이는데 세부적인 차이는 있다. 자기중심적인 집단의 우울 점수가 2.6점으로 가장 낮고, 모범적인 집단은 3.2점으로 다음 수준이다. 평균적인 집단이 3.8점으로 높은 수준이고, 온유한 집단의 우울 점수가 4.1점으로 가장 높다. 삶의 만족과 어제 우울감은 각각 행복을 측정하는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로 반대의 특성이긴 하지만 거울처럼 대칭적이지는 않다.

[그림 3-8] 성격 유형과 행복

(단위: 점)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7. 물질주의와 비교성향

정해식, 김성아(2019)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삶의 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비교 집단과의 경제력의 차이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물질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와 타인과의 비교성향이 행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구조화된 지표로 측정된 물질주의, 비교성향과 삶의 만족 점수를 비교한다. 물질주의는 Richins, Dawson(1992)의 지표를 활용하고, 비교성향은 아이오와-네덜란드 비교성향척도(Gibbons, Buunk, 1999; 최인철 외, 2019, p. 140)를 활용한다.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는 총 18개의 하위지표를 가지고, 각각에 대해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⑥ 매우 동의한다’까지 6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한다. 구체적인 문항은 (1) 나는 비싼 집과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2) 삶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 (3) 나는 사람들이 성공의 증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4)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5)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6)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7)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매한다, (8) 나는 물건들을 포함해서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9)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 중요한 전부는 아니다, (10)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에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 (11)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이 즐겁다, (12) 고가의 사치품을 좋아한다, (13) 내가 아는 대부분

의 사람들에 비해 나는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4) 나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15)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16) 더 좋은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17)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1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살 여력이 없을 때 힘들다이다. 이 중에서 (3), (6), (7), (8), (9), (13), (14)번 문항은 역코딩한다(Richins, Dawson, 1992, p. 310).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8개 하위지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613이고, 평균은 3.38점이다.

아이오와-네덜란드 비교성향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지표는 총 6개이다. 각각에 대해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⑥ 매우 동의한다'까지 6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한다. 구체적인 문항은 (1) 내가 살면서 이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 (2)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 (4) 나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5)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 (6) 내가 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이다. 이 중에서 (3)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한다(Gibbons, Buunk, 1999; 최인철 외, 2019, p. 140).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하위지표의 신뢰도는 0.7225이고, 평균은 3.49점이다.

삶의 만족 점수에 따라 물질주의나 비교성향 점수가 일괄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패턴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삶의 만족 점수가 가장 낮은 1점 집단에서 물질주의와 비교성향 점수가 낮고, 가장 높은 10점 집단에서는 가장 높다는 점은 특이하다. 단, 이 두 집단의 유효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삶의 만족 2~4점까지는 3.55점에서 3.22점으로 물질주의 점수가 낮아지다가 7~8점까지 다시 3.4점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9점에서 다시 3.13점으로 낮아진다. 비교성향 점수는 삶의 만족 1점 집단 1.5점에서 2점 집단 3.3점, 3점 집단 3.5점으로 증가하다가 4점 집단 3.3점으로 약간 낮아지고 5~8점 집단에서 3.5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9점에서 다시 3.2점으로 낮아진다. 삶의 만족 점수에 따른 물질주의와 비교성향 점수가 일관적인 증가 혹은 하락 패턴을 보이기보다 점수에 따른 등락을 보이는 경향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표 3-4〉 삶의 만족 점수별 물질주의와 비교성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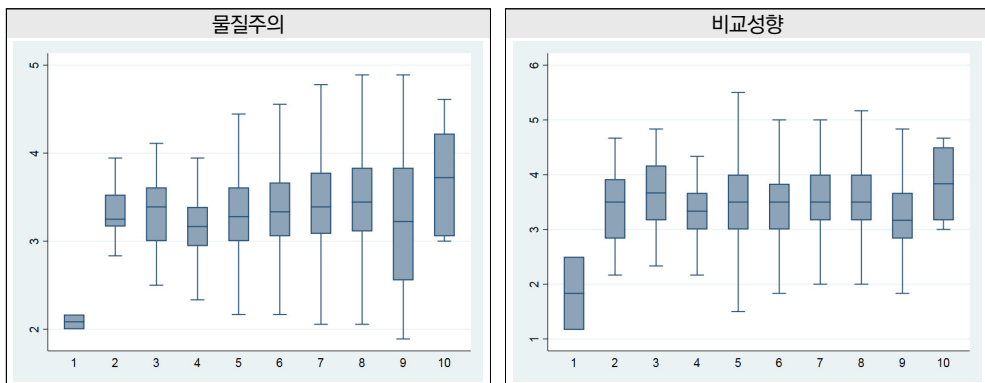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전체
물질주의	2.13 (0.102)	3.55 (0.270)	3.34 (0.470)	3.22 (0.318)	3.35 (0.458)	3.40 (0.499)	3.41 (0.499)	3.38 (0.633)	3.13 (0.690)	3.59 (0.591)	3.38 (0.553)
비교성향	1.50 (0.812)	3.26 (0.521)	3.53 (0.668)	3.34 (0.468)	3.52 (0.583)	3.49 (0.538)	3.53 (0.550)	3.50 (0.693)	3.20 (0.587)	3.97 (0.716)	3.49 (0.605)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평균임. 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임. 물질주의의 F값은 9.98($p=0.000$)이고, 비교성향은 12.55($p=0.000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그림 3-9] 삶의 만족 점수별 물질주의와 비교성향

(단위: 점)



주: 막대그래프는 100분위 중 25~75분위, 막대그래프 내 선은 중위값, 위아래 선은 유효값의 범위임.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제3절 한국인의 행복 인식

이 절에서는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의 원자료를 이용해 행복과 관련된 인식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지금 누리고 있는 조건에 대한 평가,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평가, 행복과 연관되는 단어, 그리고 행복에 대한 기대 수준이다.

1. 행복의 조건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 <표 3-5>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균등화 가구총소득을 이용하여 행복의 조건을 가구 분위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1순위를 기준으로 전체 집단에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의 응답률이 31%로 가장 높다. 다음은 ‘건강하게 사는 것(26.3%)’, ‘돈과 명성을 얻는 것(12.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10.4%)’,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행복의 1순위 조건에 대해 하위 1분위는 ‘건강하게 사는 것(40.8%)’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의 응답률이 점차 높아져 상위 5분위에서는 42.7%에 이른다. 그러나 2분위부터 상위 5분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의 응답률이 20% 내외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이타적인 행위, 즉,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의 응답률은 1%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행복의 경험이 개인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2순위에서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의 응답률이 22.5%로 가장 높다. 다음은 ‘건강하게 사는 것(21.2%)’, ‘돈과 명성을 얻는 것(13.4%)’,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11.9%)’,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10.9%)의 순이다. 1순위의 응답이 비교적 일부 선택지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2순위의 전반적인 응답은 행복의 다양한 조건 간 응답률의 차이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행복의 조건으로 본인의 건강과 사회적·경제적 성취,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시간 사용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위에 따른 행복의 2순위 조건에 대해서 하위 1분위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24.3%)’과 ‘건강하게 사는 것(23.9%)’을 비교적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경향은 2분위도 유사한데, ‘건강하게 사는 것(22.0%)’,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21.3%)’의 순이다. 여가생활을 우선시하는 순위는 다르지만 3분위와 4분위 집단에서도 두 선택지의 응답률이 20%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반면, 상위 5분위에서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20.0%)’, ‘건강하게 사는 것(19.9%)’의 응답률 차이가 거의 없으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의 응답률이 19.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건강, 시간 사용 등

일상생활의 조건과 더불어 일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표 3-5〉 행복의 조건

(단위: %)

구분	(1순위)					
	전체	소득분위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상위 5분위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31.0	25.2	26.9	29.0	31.9	42.7
건강하게 사는 것	26.3	40.8	25.7	23.1	20.3	19.5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2.7	13.6	15.1	13.3	11.6	9.7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0.4	6.1	11.3	11.0	13.1	11.2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7.6	5.2	8.3	8.3	9.6	7.0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6.5	5.1	8.3	7.8	4.9	6.2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3.7	1.8	2.8	5.6	6.5	1.9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0.9	0.8	1.1	0.8	1.0	1.0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	0.9	1.0	0.5	0.9	1.2	0.8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0.1	0.4	0.0	0.1	0.1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순위)					
	전체	소득분위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상위 5분위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22.5	24.3	21.3	23.4	22.7	20.0
건강하게 사는 것	21.2	23.9	22.0	19.7	20.4	19.9
돈과 명성을 얻는 것	13.4	12.6	13.8	15.3	13.4	12.0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1.9	7.2	9.9	11.3	12.3	19.5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10.9	13.2	12.8	11.0	9.7	7.4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8.8	9.5	10.6	9.7	8.1	5.9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6.0	3.2	4.9	5.4	8.1	8.8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2.0	1.1	2.1	2.2	1.8	2.7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	1.9	2.2	1.8	0.8	2.0	2.7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1.5	2.6	0.9	1.3	1.5	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순위와 2순위는 전체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음은 삶의 만족 점수군에 따른 지금 누리고 있는 조건에 대한 평가이다. 행복의 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데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4명 중 3명 정도가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삶의 만족 점수에 따른 집단별 인식을 보면, 삶의 만족 점수가 1~4점으로 낮은 집단에서 누리고 있는 조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삶의 만족 점수가 8~10점으로 높은 집단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약 90%로 매우 높다.

〈표 3-6〉 삶의 만족 점수권별 누리고 있는 행복의 조건 평가

(단위: 명, %)

구분		유효표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삶의 만족	하위권(1~4점)	134 (2.7)	27.6	64.9	7.5	0.0	100.0
	중위권(5~7점)	3110 (62.0)	1.2	30.0	65.6	3.2	100.0
	상위권(8~10점)	1776 (35.4)	0.0	10.2	81.4	8.5	100.0
	전체	5020 (100.0)	1.5	23.9	69.6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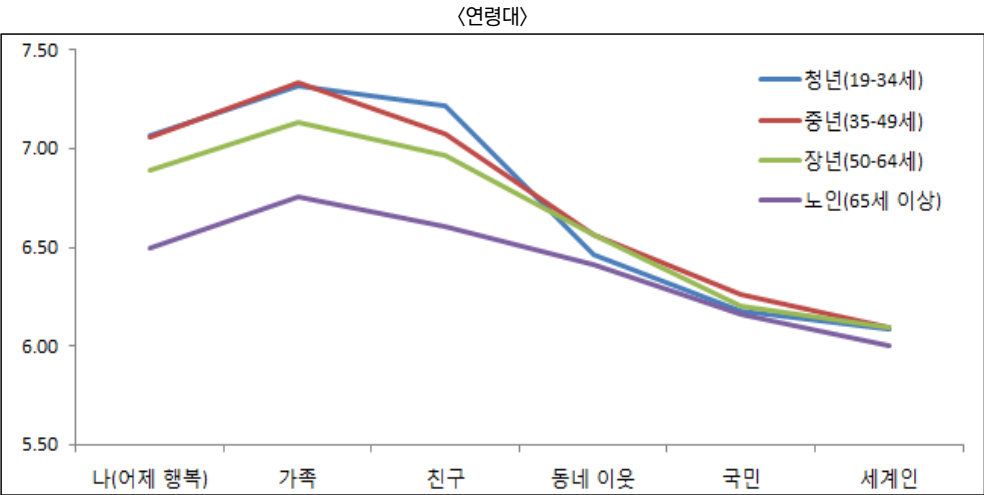
주: 유효표본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값이고, 행복할 조건에 대한 평가는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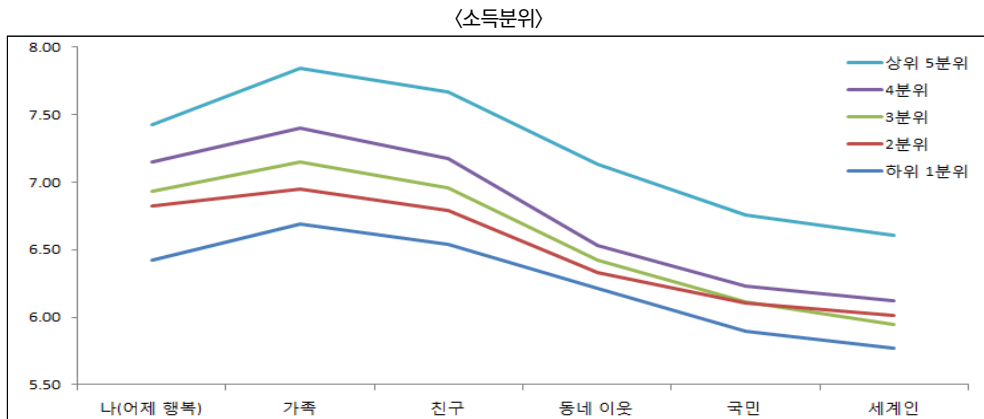
2. 주변 사람의 행복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는 나의 행복감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평가를 연령대별로 비교한다. 연령대에 따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어제 행복감에 비해 가족의 행복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친구, 동네 이웃, 국민, 그리고 세계인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늘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수준이 점차 감소한다. 반면, 청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친구의 행복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동네 이웃에 대한 평가 수준은 노인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림 3-10] 타인의 행복

(단위: 점)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경향은 가구 소득분위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도 유사하다. 나 자신의 어제 행복감에 비해 가족이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행복감이 높고, 친구, 동네 이웃, 국민, 세계인으로 범위를 확장할수록 기대하는 타인의 행복감이 점차 낮아진다. 그리고 직관과 다르지 않게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나의 어제 행복감과 주변인의 행복감에 대한 평가가 낮은 소득분위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상위 5분위 집단이 평가하는 타인의 행복이 1~4분위 집단 간 차이에 비해 4분위 집단의 타인 행복에 대한 평가와의 차이가 다소 크다.

〈표 3-7〉 타인의 행복

(단위: 점)

〈연령대〉					
구분	청년 (19~34세)	중년 (35~49세)	장년 (50~64세)	노인 (65세 이상)	전체
나(어제 행복)	7.07 (1.091)	7.06 (1.176)	6.89 (1.231)	6.49 (1.349)	6.94 (1.212)
가족	7.32 (1.085)	7.34 (1.157)	7.13 (1.243)	6.76 (1.403)	7.19 (1.217)
친구	7.22 (1.098)	7.08 (1.251)	6.97 (1.229)	6.60 (1.311)	7.01 (1.230)
동네 이웃	6.46 (1.336)	6.56 (1.376)	6.57 (1.280)	6.41 (1.304)	6.52 (1.329)
국민	6.18 (1.347)	6.26 (1.498)	6.20 (1.397)	6.16 (1.352)	6.21 (1.412)
세계인	6.09 (1.456)	6.09 (1.591)	6.09 (1.394)	6.00 (1.337)	6.08 (1.466)

〈소득분위〉					
구분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상위 5분위
나(어제 행복)	6.42 (1.279)	6.83 (1.122)	6.93 (1.123)	7.15 (1.174)	7.43 (1.093)
가족	6.69 (1.283)	6.95 (1.119)	7.15 (1.114)	7.40 (1.100)	7.85 (1.104)
친구	6.54 (1.268)	6.79 (1.085)	6.96 (1.094)	7.18 (1.162)	7.67 (1.214)
동네 이웃	6.22 (1.341)	6.33 (1.243)	6.42 (1.283)	6.53 (1.294)	7.13 (1.279)
국민	5.90 (1.415)	6.10 (1.322)	6.11 (1.380)	6.23 (1.404)	6.76 (1.379)
세계인	5.77 (1.469)	6.02 (1.437)	5.95 (1.461)	6.12 (1.469)	6.60 (1.354)

주: 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임.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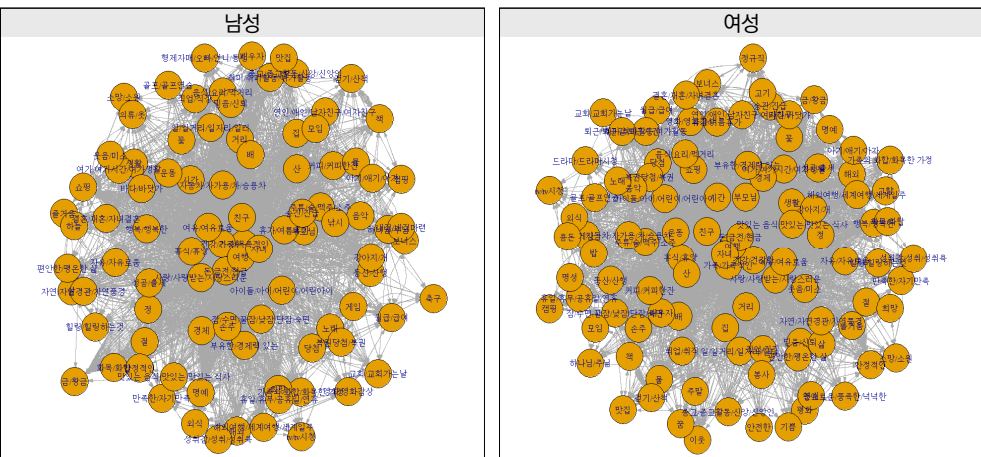
3. 행복을 떠올리는 단어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에서는 떠올릴 때 행복한 단어를 2~3개 정도 질문하였다. 응답자에게 출현하는 단어의 관계를 찾기 위해 R의 sns패키지와 igraph패키지를 이용해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시출현단어를 성별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상을 확인하였다. 행복과 일반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일정 빈도 이상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10회 미만 출현 단어는 제외하였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어 간 출현 관계와 함께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의 주요 중심성 지표를 함께 확인하였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단어의 수를 반영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한 단어와 동시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특정 단어가 다른 특정 단어로 연결되는 거리를 반영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한 단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중개하는 정도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밀집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허명회, 2012, pp. 13-22).

성별에 따라 남성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92개이다. 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건강과 가족, 자녀, 친구, 사랑 등 유의미한 관계, 돈의 경제력, 여행, 여유, 휴식 등 일과 생활의 양립에 대한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에서 건강, 가족, 자녀, 돈, 여행의 5개 단어가 순서를 바꾸며 등장하는 경향과 동일하다. 특히, 건강, 가족, 돈의 연결중심성이 높아 3개 특성이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행 등의 시간 사용으로 행복의 조건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104개로 남성의 92개에 비해 좀 더 다양하다. 남성과 유사하게 돈, 자녀, 가족, 사랑, 건강, 친구, 여유로움의 단어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나타나고 있다. 중심성 지표를 보면, 연결중심성에서 건강, 가족, 여행이 상위에 등장한다. 돈의 연결중심성의 순위가 남성의 3위에 비해 4위로 나타나 약간 낮다. 반면, 가족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행복의 조건을 실현하는 요소가 남성과 다르다.

[그림 3-11] 성별 행복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주: 응답 횟수가 10 이상인 단어로 제한함. 남성 집단에서 유효 단어는 92개, 여성 집단은 104개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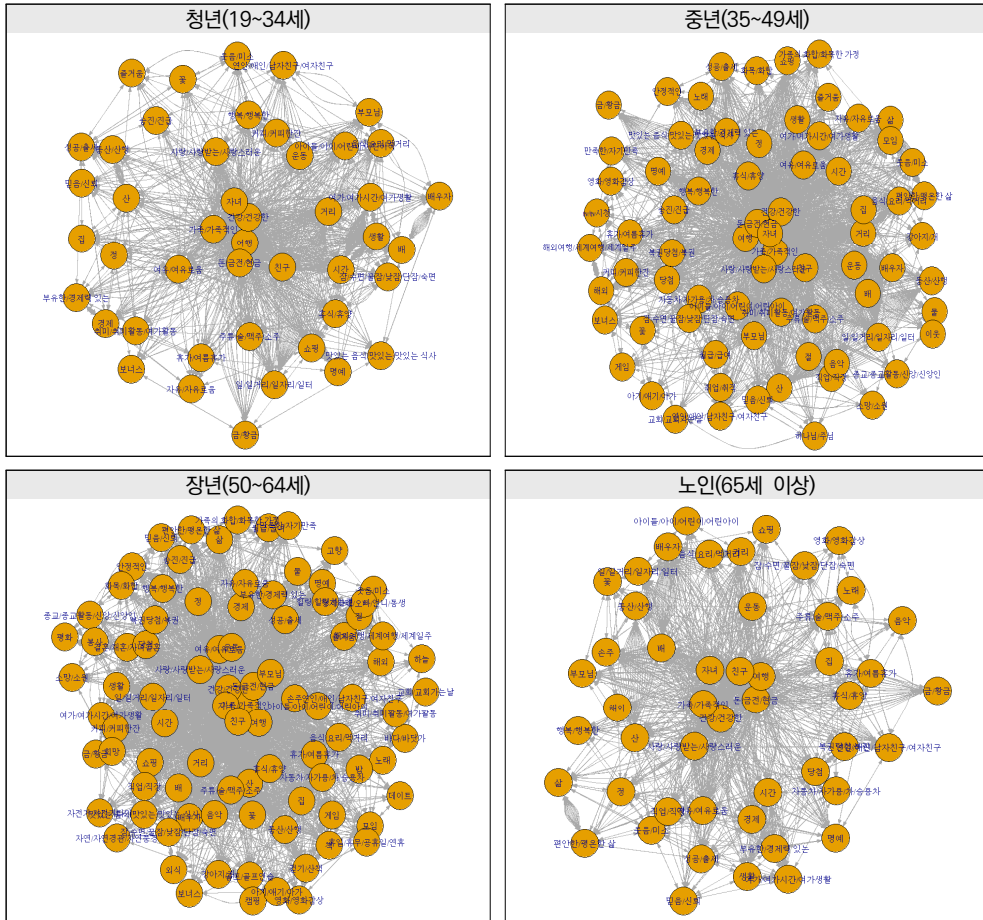
<표 3-8> 성별 행복 동시출현 주요 단어 중심성

구분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남성	1	건강/건강한	(1804)	여행	(0.010417)	여행	(1353.0)
	2	가족/가족적인	(1766)	가족/가족적인	(0.010204)	가족/가족적인	(1144.5)
	3	돈/금전/현금	(1670)	건강/건강한	(0.009615)	건강/건강한	(947.4)
	4	여행	(1646)	자녀	(0.009434)	돈/금전/현금	(759.1)
	5	자녀	(1132)	돈/금전/현금	(0.009346)	자녀	(758.5)
여성	1	건강/건강한	(2472)	가족/가족적인	(0.009346)	가족/가족적인	(1848.6)
	2	가족/가족적인	(2456)	여행	(0.008547)	여행	(1409.9)
	3	여행	(2258)	돈/금전/현금	(0.008475)	건강/건강한	(1192.4)
	4	돈/금전/현금	(2118)	자녀	(0.008475)	돈/금전/현금	(835.8)
	5	자녀	(1624)	건강/건강한	(0.008333)	자녀	(73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청년, 중년, 장년과 노인의 연령대별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심성 지표는 이어지는 표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청년 집단에서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45개이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여행, 돈, 건강, 가족, 자녀, 친구 등이 위치하고 있다. 청년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가족, 건강, 여행, 돈, 그리고 친구이다. 이 중에서 연결중심성의 패턴과 상이하게 여행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데, 여행을 통해 청년의 행복이 실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2] 연령대별 행복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주: 응답 횟수가 10 이상인 단어로 제한함. 청년 집단에서 유효 단어는 45개, 중년은 75개, 장년은 90개, 노인은 49개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중년 집단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75개이다. 자녀, 가족, 사랑, 친구, 그리고 여행, 돈, 건강의 단어가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가족, 건강, 돈, 여행, 그리고 자녀이다. 청년 집단과 달리,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 중에서 가족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년 집단의 행복을 제고하는 데에 가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장년 집단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90개이다. 가족, 자녀, 친구, 여행, 그리고 건강, 금전, 부모님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이 중에서 가족, 건강, 여행, 돈, 자녀가 연결중심성이 높은 5개 단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청년에 이어

다시 여행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에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한 이후 여행을 통한 일·생활 양립의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9〉 연령대별 행복 동시출현 주요 단어 중심성

구분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청년	1	가족/가족적인	(628)	여행	(0.021739)	여행	(304.5)
	2	건강/건강한	(566)	가족/가족적인	(0.021277)	가족/가족적인	(256.4)
	3	여행	(558)	건강/건강한	(0.021277)	건강/건강한	(256.0)
	4	돈/금전/현금	(544)	돈/금전/현금	(0.019608)	돈/금전/현금	(206.0)
	5	친구	(326)	자녀	(0.018519)	자녀	(72.0)
중년	1	가족/가족적인	(1376)	가족/가족적인	(0.012821)	가족/가족적인	(1003.8)
	2	건강/건강한	(1360)	여행	(0.012500)	여행	(690.8)
	3	돈/금전/현금	(1170)	돈/금전/현금	(0.012048)	건강/건강한	(622.3)
	4	여행	(1162)	자녀	(0.011765)	돈/금전/현금	(473.6)
	5	자녀	(836)	건강/건강한	(0.011628)	자녀	(374.3)
장년	1	가족/가족적인	(1530)	여행	(0.010526)	여행	(1375.4)
	2	건강/건강한	(1520)	가족/가족적인	(0.010417)	가족/가족적인	(1185.9)
	3	여행	(1460)	자녀	(0.009901)	건강/건강한	(831.7)
	4	돈/금전/현금	(1418)	건강/건강한	(0.009434)	자녀	(681.2)
	5	자녀	(1148)	돈/금전/현금	(0.009434)	돈/금전/현금	(555.3)
노인	1	건강/건강한	(636)	돈/금전/현금	(0.019231)	건강/건강한	(379.2)
	2	돈/금전/현금	(514)	건강/건강한	(0.018182)	돈/금전/현금	(314.7)
	3	여행	(490)	가족/가족적인	(0.018182)	여행	(314.2)
	4	가족/가족적인	(474)	여행	(0.018182)	가족/가족적인	(199.7)
	5	자녀	(358)	자녀	(0.015625)	자녀	(11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노인 집단의 분석 대상 행복 연관 동시출현단어는 49개이다. 네트워크의 중앙에 가족과 건강, 자녀가, 그리고 돈과 여행, 친구가 있다. 건강의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고, 돈, 여행, 가족, 자녀가 뒤를 잇는다. 돈의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반면, 매개중심성은 건강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행복하기 위해 행복의 조건을 누리기 위한 기반으로 건강에 주목하는 노인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의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3~5위를 유지하는 청년, 중년, 장년기에 이어 노인기에 모두 2순위로 높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을 종료한 이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행복의 희망

여기에서는 어제 느낀 행복감과 함께 어느 정도 행복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현재 기대 행복 수준, 그리고 5년 후에 얼마만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5년 후 행복을 소득분위에 따라 비교한다. 어제 행복과 기대 행복의 상관계수는 0.4071($p=0.0000$), 어제 행복과 5년 후 행복의 상관계수는 0.5780($p=0.0000$), 기대 행복과 5년 후 행복의 상관계수는 0.5667($p=0.0000$)이다.

〈표 3-10〉 소득분위별 행복의 희망: 어제 행복, 기대하는 행복, 5년 후 행복

(단위: 점)

구분	1분위 (차이)	2분위 (차이)	3분위 (차이)	4분위 (차이)	5분위 (차이)	전체
어제 행복(A)	6.42	6.83	6.93	7.15	7.43	6.94
기대 행복(B)	7.23 (0.81)	7.59 (0.76)	7.74 (0.81)	7.95 (0.80)	8.02 (0.59)	7.69 (0.75)
5년 후 행복(C)	6.59 (0.16)	7.04 (0.21)	7.28 (0.35)	7.50 (0.35)	7.76 (0.33)	7.22 (0.28)

주: 소득분위는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루트값으로 나눈 균등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괄호 안 수치인 분위별 차이는 어제 행복(A) 대비 기대 행복(B)과 5년 후 행복(C)의 차이임.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0~10점 범위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전체 집단의 어제 행복 6.9점 대비 현재 기대 행복은 7.7점으로 0.8점 정도 차이를 보인다. 반면, 5년 후 행복의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어제 행복과의 차이는 0.3점 정도로 줄어든다. 분위별로 어제 행복에 비해 5년 후 행복이, 5년 후 행복에 비해 현재 기대 행복이 높은 경향은 일관된다. 현재 기대 행복 수준과 어제 행복감의 차이는 대부분 분위에서 0.8점 정도이지만 5분위에서 그 차이는 0.6점 정도로 줄어든다. 그리고 5년 후 행복과 어제 행복감과의 차이, 즉 미래 행복에 대한 기대는 1분위부터 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3분위부터는 0.35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양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인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복합적 경험으로서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삶에 대한 평가, 삶의 만족,

행복감과 우울감의 정서적 경험, 그리고 에우다이모니아적 삶의 가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현시점 한국인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행복한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령대, 거주 지역, 응답 요일, 성격 유형에 따른 행복과 생활영역별 만족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요소로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 조건에 대한 평가, 나 이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행복, 행복한 단어, 그리고 미래 행복에 대한 희망 등의 지형을 확인했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평가와 만족, 가치, 행복감은 7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30대에 최고점을 보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우하향 양상을 확인하였다. 거주 지역과 응답 요일 등 시공간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연령대와 가구의 경제 지위,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활영역 만족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개인의 성격 요소가 안정적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과 낮은 우울감을 보인다.

경제적 풍요로움의 수준에 따라 생활영역별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행복의 조건이 돈과 명성에 그치지 않는다.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 건강, 원하는 일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의미한 타인은 규범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친구에 대해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기대하는 행복 수준에 비해 최근 경험한 행복 수준이 높지 않지만, 5년 후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현시점 전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화된 설문지로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지형의 구조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과 삶의 질은 개인의 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여건을 포괄하는 삶의 질은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행복과 독립적이지 않다. 이 장에서 양적 접근으로 확인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기술적인 지형은 행복의 개별적 경험이 가지는 특이성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제 4 장

행복의 구조방정식: 연령대별 접근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령대와 행복 방정식

제4절 연령대와 행복의 구조방정식

제5절 소결

4

행복의 구조방정식: << 연령대별 접근

제1절 문제 제기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간 구조적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3장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와 같이, 가구의 경제력, 거주 지역의 지역적 여건 등 다차원적인 생활여건은 개인의 행복에 대해 독립적이지 않다.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수준은 행복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하지만 삶의 질을 행복과 연관시키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행복에 생활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 혹은 매개효과의 존재와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연령에 따라 40~50대에서 최저점을 가지는 U자형의 삶의 만족 추세와 달리, 한국에서 연령에 따라 우하향하는 행복의 추이를 고려해(김성아, 정해식, 2019)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의 연령대에 주목한다.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원자료를 이용하는 이 접근은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시계열 분석이라기보다 현시점 연령대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횡단면적 분석이다.

이 장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절에서는 연령대와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주요 연령대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의미와 영향요인 구성에서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여, 생활여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이 가지는 조절 혹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절에서는 행복 방정식을, 4절에서는 행복의 구조방정식을 검증한다. 각각 분석 자료의 전체 유효표본을 기본으로 하되, 연령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19~34세를 청년, 35~49세를 중년, 50~64세를 장년,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한다. 총유효표본 5020명 중에서 청년은 776명, 중년은 1577명, 장년은 1933명, 노인은 734명의 하위표본을 가지며, 이에 대한 행복 방정식과 구조방정식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2~4절을 요약하고 함의를 발견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한국인의 행복에서 특이한 점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행복의 U자형이 횡단면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장년기 이후 낮아지는 노인의 행복 수준은 한국에서 연령대와 행복에 대해 주목할 근거가 된다.

연령대는 정확하게 연계되지는 않지만 에릭슨이 주장한 생애주기 발달단계의 과업을 반영한다. 청소년기 이후 20~24세의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은 우정, 성, 경쟁, 협동 상대들과의 친밀감 혹은 고립감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적으로 독립할 중·장년기를 앞두고 자신의 삶의 형태를 선택할 자유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5~65세의 성인기에는 동료, 함께 사는 가구원, 일, 성취, 사회적 관계 등을 통해 생산성 혹은 침체성을 갖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인류와 동족, 사회적 지지체계, 사회적 관계 등 그간 이루어 온 성과를 통해 통합성 혹은 절망감을 얻는다. 그러나 에릭슨의 발달단계 구분은 성인초기 이후 발달단계를 세분화하지 못한다(이인정, 최해경, 1995, pp. 161-176).

이재완, 강혜진(2018), 김재우(2017)는 행복과 관련된 요인들이 세대에 따라 보이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바 있다. 이재완, 강혜진(2018)은 일과 삶의 균형이 특히 50대 이상 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고, 김재우(2017)는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청년에게는 교육 수준과 기혼의 상태가, 중년에게는 가계 소득과 경제 활동 유형이, 노인에게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이웃과의 관계가 행복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요인임을 보인다.

특히 노인의 낮은 행복 수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다수의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 혹은 행복에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2011)은 대학생 집단과 비교하여 노인의 삶의 의미를 증진하기 위해 수면의 질, 규칙적 식사와 운동 등 건강 행위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나 행복의 주요 요인인 경제력을 통제하지 못했다. 강성경(2012)은 한국복지패널 1차 연도 원자료를 이용해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하면서, 주관적 건강과 장애, 외래 서비스 등 중년 이후 집단의 행복에 건강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광인숙(2013)은 2010년 가족실태조사를 분석해 65세 이상 노인과 50~64세 장년층의 주관적 행복감에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보이는 유의미한 양적 효과를 검증했으나, 주관적 설명변수와 주관적 종속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양재진, 이호연, 이정주(2016)는 60세 이상 인구를 노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에 대한 소득과 건강상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나 교차분석에 그쳐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3절과 4절에서는 청소년기 이후 성인을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의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¹⁶⁾로서의 행복 방정식과 행복의 구조방정식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생활여건에 개인의 심리적 역량이 작용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심리적 역량은 생활여건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고, 생활여건의 영향이 심리적 역량을 매개하여 작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 4-1]은 심리적 역량의 작용에 대한 가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1] 행복 영향요인의 구조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가설에서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는 행복 방정식에서 생활여건과 심리적 역량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매개효과는 행복의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복 방정식은 3절에서, 행복의 구조방정식은 4절에서 검증한다. 또한 청년, 중년, 장년, 노인으로 세분화하여 연령대별 행복 방정식과 행복의 구조방정식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에 대한 연령대별 영향요인 세트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수준의 노인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한국인 행복의 총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를 생산한다.

16)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 만족이 높고, 40~50대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이 낮아지다가 높아지고, 미혼에 비해 이혼, 별거, 사별한 경우에,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고, 경제활동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김성아, 정해식, 2019).

제3절 연령대와 행복 방정식

1. 행복 방정식 모형

이 절에서 검증하려는 연령대별 행복 방정식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H_{ij} = \beta_0 + \beta_1 LC_{ij} + \beta_2 PC_{ij} + \beta_3 LC_{ij} * PC_{ij} + \beta_4 X_{ij} + \epsilon_{ij}$$

여기에서 H_{ij} 는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의 연령대 j 에 속한 개인 i 의 행복 수준이다.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는 삶의 평가를 반영하는 캔트릴 사다리,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 어제 우울감, 그리고 에우다이모니아적 삶의 가치의 다섯 가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혹은 우울 수준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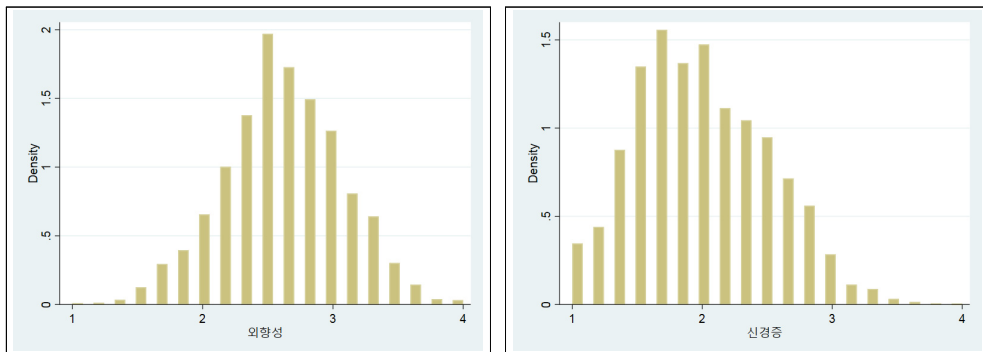
LC_{ij} 는 개인 i 의 경제적 생활여건이고,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많을수록 행복하다(Deaton, 2008; Stevenson, Wolfers, 2008, Stevenson, Wolfers, 2013). 경제적 수단으로서 소득은 충분한 선택의 폭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평균 행복 수준에 대한 평균 소득 증가분의 양적 효과는 감소한다(Easterlin, 1974).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 증진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PC_{ij} 는 개인 i 의 심리적 역량으로, 성격 5요인 척도로 측정하는 외향성과 신경증 수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과 신경증이 높다. 성격 5요인 척도에서 이 두 특성을 구성하는 지표는 각각 여섯 가지이다. 외향성의 하위지표는 첫째,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둘째,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 셋째,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넷째,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이다. 신경증을 구성하는 하위지표는 첫째,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둘째,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셋째, ‘쉽게 짜증을 낸다’, 넷째, ‘자주 우울해진다’, 다섯째, ‘마음이 자주 심란해진다’, 그리고 ‘기분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이다. 각각의 하위지표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④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과 신경증이 높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다음 그림은 6

개 하위지표의 평균값으로 측정한 외향성과 신경증의 평균 점수 분포이다.

[그림 4-2] 외향성과 신경증 점수 분포

(단위: 점)



주: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및 신경증 하위 6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X_{ij} 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더미, 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더미, 교육 수준 더미, 그리고 경제활동상태 더미 변수를 포함한다. 성별은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여성의 특성을, 혼인상태는 유배우자를 기준으로 별거, 사별, 이혼, 미혼한 집단의 특성을,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고졸과 대졸 이상 집단의 특성을, 경제활동상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연령제곱값은 100으로 나누어 계수의 크기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연령에 따른 U자형의 존재를 확인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3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ϵ_{ij} 는 개인의 오차항이다.

이 모형에서 생활여건과 심리적 역량 간 상호작용항의 효과인 β_3 는 행복에 미치는 생활여건의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 방정식을 전체 표본과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의 하위표본에 대해 적용하여 연령대별 행복 방정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2. 분석 결과

가. 한국인의 행복 방정식

〈표 4-1〉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의 행복 방정식의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추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남성에 비해 여성의 행복 수준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연령에 따른 행복은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된 삶의 평가를 제외한 행복 측정 지표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유배우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는 혼인상태에서 별거, 사별, 이혼, 미혼 집단의 행복 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이 높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이혼과 미혼 집단에서 나타난다. 중졸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제활동상태에서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과 실업자의 삶의 가치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

이 절에서 주목하는 생활여건, 즉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과 외향성 및 신경증의 심리적 역량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은 행복에 양적 효과를 미친다. 그중에서 칸트릴 사다리로 측정하는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 그리고 에우다이모니아적 삶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계수는 삶의 평가에서 1.383으로 가장 크고($p<0.001$) 삶의 가치에서 0.551로 가장 작다($p<0.05$). 하지만 어제 느낀 우울감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삶에 대한 만족과 어제 행복감도 높아지고,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심리적 역량으로서의 외향성은 행복에 양적 효과를 미친다. 특히,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p<0.001$). 즉, 외향적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이 높다. 반면, 신경증은 행복에 부적 효과를 미친다.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p<0.1$). 어제 우울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0.001$) 양적 효과를 미치며 계수도 2.426으로 작지 않다. 즉, 신경증적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으며 그 영향력이 크다.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측정하는 생활여건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는 상호작용항의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한다. 외향성과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간 상호작용의 외향성은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에 대한 가구소득의 양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p<0.01$) 조절하여, 그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한다. 반면, 신

경증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1〉 한국인의 행복 방정식

변수	(1) 삶의 평가: 칸트릴 사다리	(2) 삶의 만족	(3) 어제 행복감	(4) 어제 우울감	(5)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1.383*** (0.326)	1.023*** (0.279)	1.003*** (0.274)	0.454 (0.459)	0.551* (0.268)
외향성	1.002+ (0.537)	1.436*** (0.422)	1.577*** (0.439)	-0.425 (0.726)	0.500 (0.425)
외향성*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158 (0.096)	-0.231** (0.077)	-0.240** (0.081)	0.043 (0.132)	-0.036 (0.077)
신경증	0.537 (0.547)	-0.907+ (0.547)	-0.758+ (0.460)	2.426*** (0.696)	-0.303 (0.435)
신경증*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171+ (0.097)	0.069 (0.097)	0.048 (0.082)	-0.196 (0.127)	-0.017 (0.078)
여성 더미	0.072 (0.050)	0.036 (0.047)	0.064 (0.043)	0.008 (0.074)	0.016 (0.043)
만 나이	0.005 (0.016)	-0.006 (0.014)	-0.024+ (0.014)	-0.024 (0.022)	-0.007 (0.013)
만 나이 제곱	-0.006 (0.017)	0.004 (0.015)	0.021 (0.015)	0.022 (0.023)	0.002 (0.014)
혼인상태(준거집단=유배우)					
별거	-0.442 (0.301)	-0.430+ (0.255)	-0.414 (0.253)	0.215 (0.394)	-0.549+ (0.290)
사별	-0.175 (0.114)	-0.108 (0.108)	-0.002 (0.089)	0.170 (0.145)	0.053 (0.090)
이혼	-0.521*** (0.093)	-0.329*** (0.094)	-0.265** (0.091)	0.429** (0.130)	-0.206* (0.083)
미혼	-0.406*** (0.087)	-0.383*** (0.075)	-0.411*** (0.072)	-0.037 (0.132)	-0.299*** (0.075)
교육 수준(준거집단=중졸 이하)					
고졸	0.424*** (0.106)	0.312*** (0.093)	0.246** (0.088)	-0.341* (0.140)	0.390*** (0.090)
대졸 이상	0.644*** (0.112)	0.565*** (0.099)	0.494*** (0.096)	-0.297+ (0.162)	0.659*** (0.099)
경제활동상태(준거집단=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49 (0.105)	-0.238* (0.102)	-0.128 (0.085)	-0.012 (0.130)	-0.163+ (0.084)
고용주/자영업자	0.070 (0.062)	0.082 (0.059)	0.003 (0.060)	-0.036 (0.096)	0.064 (0.055)
무급가족종사자	0.096 (0.115)	0.053 (0.107)	-0.109 (0.106)	0.102 (0.191)	0.020 (0.108)
실업자	-0.264 (0.191)	-0.350+ (0.197)	-0.356* (0.171)	0.250 (0.419)	-0.961*** (0.291)
비경제활동인구	0.043 (0.067)	0.064 (0.065)	0.056 (0.058)	-0.105 (0.093)	-0.106+ (0.056)
상수	-0.873 (1.739)	1.820 (1.501)	2.091 (1.458)	-0.472 (2.529)	3.737* (1.463)
N	5020	5020	5020	5020	5020
adj. R-sq	0.196	0.225	0.185	0.126	0.204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나. 연령대별 행복 방정식

〈표 4-2〉는 19~34세 청년의 하위표본에 대한 행복 방정식의 OLS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집단에서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측정하는 생활여건, 외향성과 신경증의 심리적 역량, 그리고 생활여건의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 \geq 0.05$).

〈표 4-2〉 청년(19~34세)의 행복 방정식

변수	(1) 삶의 평가: 칸트릴 사다리	(2) 삶의 만족	(3) 어제 행복감	(4) 어제 우울감	(5)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1.629 (0.998)	0.514 (0.890)	-0.256 (0.833)	1.191 (1.351)	-0.126 (0.992)
외향성	2.164 (1.778)	0.184 (1.560)	-1.548 (1.461)	1.723 (2.260)	-0.271 (1.499)
외향성*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377 (0.311)	-0.020 (0.273)	0.312 (0.260)	-0.302 (0.397)	0.113 (0.264)
신경증	0.133 (1.407)	-0.848 (1.215)	0.081 (1.181)	1.350 (2.238)	-0.838 (1.481)
신경증*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109 (0.248)	0.065 (0.216)	-0.097 (0.211)	0.013 (0.399)	0.071 (0.262)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O	O	O	O	O
N	776	776	776	776	776
adj. R-sq	0.096	0.164	0.154	0.149	0.135

주: 성별, 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음.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4-3〉 중년(35~49세)의 행복 방정식

변수	(1) 삶의 평가: 칸트릴 사다리	(2) 삶의 만족	(3) 어제 행복감	(4) 어제 우울감	(5)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2.219*** (0.496)	2.467*** (0.460)	2.884*** (0.530)	1.489+ (0.898)	1.182* (0.502)
외향성	1.734+ (0.968)	2.835** (1.001)	3.878*** (1.019)	0.129 (1.631)	1.384 (1.042)
외향성*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285+ (0.172)	-0.487** (0.179)	-0.649*** (0.183)	-0.070 (0.295)	-0.198 (0.184)
신경증	1.596+ (0.825)	0.788 (0.788)	1.131 (0.768)	3.696** (1.370)	0.085 (0.831)
신경증*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352* (0.144)	-0.217 (0.138)	-0.272* (0.135)	-0.425+ (0.245)	-0.071 (0.144)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O	O	O	O	O
N	1577	1577	1577	1577	1577
adj. R-sq	0.170	0.199	0.170	0.120	0.152

주: 성별, 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음.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4-3〉은 35~49세 중년의 하위표본에 대한 행복 방정식의 OLS 추정치이다. 중년 집단에서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측정하는 생활여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p<0.001$), 계수의 크기도 2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다. 에우다이모니아적 삶의 가치는 유의 수준 0.05에서 증가한다.

심리적 역량으로서 외향성은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시킨다($p<0.01$, $p<0.001$). 반면, 신경증은 어제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고($p<0.01$), 이러한 경향은 전체 표본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일관적이다.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측정하는 생활여건에 대한 외향성의 조절효과는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에 대해서 부적으로 나타난다($p<0.01$, $p<0.001$). 전체 표본에서와 같이, 외향성이 높을수록 소득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신경증은 삶의 평가와 어제 행복감에 대한 생활여건의 영향에 대해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진다($p<0.05$). 외향성과 동일하게 신경증적일수록 소득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표 4-4〉는 50~64세 장년의 하위표본에 대한 행복 방정식의 OLS 추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장년 집단에서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은 어제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p<0.05$). 하지만 외향성과 신경증의 심리적 역량의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생활여건의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4〉 장년(50~64세)의 행복 방정식

변수	(1) 삶의 평가: 칸트릴 사다리	(2) 삶의 만족	(3) 어제 행복감	(4) 어제 우울감	(5)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495 (0.432)	0.648 (0.436)	1.200* (0.488)	0.833 (0.749)	0.182 (0.454)
외향성	-0.920 (0.733)	-0.177 (0.728)	1.476+ (0.844)	1.230 (1.198)	-0.952 (0.754)
외향성*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189 (0.131)	0.072 (0.130)	-0.216 (0.154)	-0.288 (0.215)	0.222 (0.137)
신경증	0.601 (0.711)	0.515 (0.777)	0.063 (0.677)	1.509 (1.150)	0.785 (0.697)
신경증*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172 (0.126)	-0.190 (0.138)	-0.104 (0.122)	-0.037 (0.209)	-0.206 (0.126)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O	O	O	O	O
N	1933	1933	1933	1933	1933
adj. R-sq	0.160	0.190	0.156	0.142	0.150

주: 성별, 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음.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4-5〉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표본에 대한 행복 방정식의 OLS 추정치이다.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은 삶의 평가, 삶의 만족, 어제 행복감, 삶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크지 않다($p < 0.1$). 반면, 심리적 역량으로서 외향성은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시키고($p < 0.001$), 신경증은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킨다($p < 0.05$). 생활여건의 영향에 대한 외향성의 조절효과는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 삶의 가치에 대해서 부적이다. 외향적인 노인은 생활여건의 영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여건의 영향에 대한 신경증의 조절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없다.

〈표 4-5〉 노인(65세 이상)의 행복 방정식

변수	(1) 삶의 평가: 칸트릴 사다리	(2) 삶의 만족	(3) 어제 행복감	(4) 어제 우울감	(5)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1.488+ (0.759)	1.254+ (0.666)	1.103+ (0.591)	-0.306 (1.020)	1.117+ (0.617)
외향성	1.470 (1.159)	3.331*** (0.860)	2.779*** (0.798)	-1.351 (1.390)	2.047** (0.768)
외향성*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245 (0.232)	-0.630*** (0.181)	-0.520** (0.166)	0.253 (0.286)	-0.377* (0.159)
신경증	0.266 (1.164)	-2.752* (1.175)	-2.276* (1.026)	2.770 (1.718)	-1.082 (0.909)
신경증*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148 (0.227)	0.381+ (0.224)	0.300 (0.203)	-0.293 (0.359)	0.108 (0.179)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O	O	O	O	O
N	734	734	734	734	734
adj. R-sq	0.258	0.318	0.271	0.194	0.318

주: 성별, 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였음.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분산성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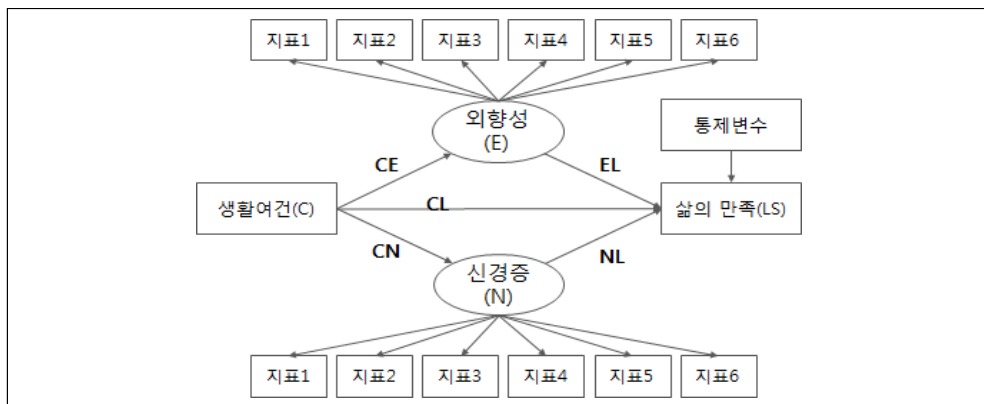
제4절 연령대와 행복의 구조방정식

1. 행복의 구조방정식 기본 모형

이 절에서는 행복에 미치는 생활여건의 영향과 개인의 심리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복의 구조방정식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모형은 [그림 4-3]과 같다. 이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적 역량은 외부적 조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외부적 조건을 만들어 가는 능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행복 측정 지표 중에서는 삶의 만족도 질문이 가장 의미 있는 분석 단위이다. Scitovsky(1992)는 행복감이라는 정서적인 반응보다 삶의 만족감이 주위 환경 변화에 강건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논의했다. Kahneman & Deaton(2010)은 미국에서 수행된 서베이 자료 분석 결과를 들어 소득이 증가하는 생활여건 변화에 대해 삶의 만족이 행복감에 비해 강건하게 반응하는 통계적 근거를 보여 주었다.

[그림 4-3] 행복의 구조방정식 기본 모형



자료: 저자 작성.

여기에서 주목하는 행복에 대한 생활여건, 즉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의 영향을 매개하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은 외향성과 신경증이다. 통제변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다. 3절에서 확인한 행복 방정식에 투입한 성별, 연령, 연령제곱,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가 포함된다.

다음 그림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주목하는 인과경로는 첫째, 생활여건(C)으로부터 삶의 만족(L), 둘째, 생활여건으로부터 외향성(E)과 신경증(N)으로 측정하는 개인의 심리적 역량, 셋째, 심리적 역량으로부터 삶의 만족(L), 그리고 이 세 가지 경로를 종합하는 완전경로모형이다. 여기에서 생활여건으로부터 삶의 만족의 경로(CL)에서 직접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경로에서 외향성과 신경증의 심리적 역량이 매

개변인으로 존재했을 때, 생활여건의 영향은 간접효과로 해석한다. 매개변인이 없어도 생활여건이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심리적 역량이 생활여건의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매개변인 없이 생활여건이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심리적 역량이 생활여건의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의 연령대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복의 구조방정식 기본 모형을 19~34세의 청년, 35~49세의 중년, 50~64세의 장년,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연령대를 구분해 적용한다. 연령대별 인과모형에서 개별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다면 행복에 대한 생활여건의 심리적 역량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를 확인하는 지표는 네 가지이다. 절대적합지수(RMSEA)는 0.05 이하여야 한다. 증분적합지수(CFI, TLI)는 0.9 이상이어야 한다. 표준화된 잔차평균제곱근(SRMR)은 0.08 이하여야 한다.

2. 분석 결과

가. 생활여건과 행복의 인과모형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으로 측정한 전체 표본과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에 대한 생활여건의 영향력은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높다.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 만족이 높지만 청년 집단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 비해 이혼, 별거, 사별한 집단이, 그리고 미혼 집단의 삶의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단, 65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는 혼인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종졸 이하 집단에 비해 고졸 집단이, 고졸 집단에 비해 대졸 이상 집단의 삶의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특히 노인 집단에서 영향력의 계수가 크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상태별로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실업자 집단의 삶의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실업자의 낮은 삶의 만족은 청년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다. 반면, 노인 집단에서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4-6〉 생활여건과 삶의 만족의 인과모형

구분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CI) 생활여건 (로그 균등화 기구소득)	0.234 (0.016) ***	0.237 (0.034) ***	0.242 (0.024) ***	0.162 (0.025) ***	0.227 (0.039) ***
여성더미	0.026 (0.014)	0.075 (0.035) *	-0.018 (0.026)	0.013 (0.024)	0.045 (0.037)
만 나이	-0.290 (0.114) *	-0.139 (0.496)	0.237 (0.533)	-0.452 (0.637)	3.298 (1.239) **
만 나이 제곱/100	0.267 (0.114) *	0.109 (0.492)	-0.319 (0.533)	0.465 (0.638)	-3.357 (1.236) **
유배우(=0)					
이혼/별거/사별	-0.071 (0.014) ***	0.007 (0.033)	-0.056 (0.024) *	-0.112 (0.022) ***	-0.010 (0.036)
미혼	-0.129 (0.018) ***	-0.184 (0.042) ***	-0.124 (0.024) ***	-0.076 (0.022) ***	0.001 (0.034)
종족 이하(=0)					
고졸	0.083 (0.025) **	-0.132 (0.187)	0.213 (0.129)	0.056 (0.035)	0.124 (0.038) **
대졸 이상	0.189 (0.029) ***	-0.064 (0.192)	0.297 (0.130) *	0.171 (0.038) ***	0.160 (0.036) ***
상용직 임금근로(=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0.072 (0.015) ***	-0.062 (0.035)	-0.056 (0.026) *	-0.070 (0.026) **	-0.075 (0.069)
자영업자	0.002 (0.016)	-0.069 (0.034) *	-0.009 (0.025)	0.000 (0.026)	0.087 (0.084)
실업자	-0.062 (0.014) ***	-0.164 (0.033) ***	-0.030 (0.024)	-0.037 (0.022)	-0.050 (0.050)
비경제활동인구	-0.009 (0.016)	-0.089 (0.040) *	0.030 (0.027)	0.026 (0.027)	-0.019 (0.088)
상수	3.729 (0.245) ***	3.882 (1.796) *	2.005 (2.588)	6.938 (4.477)	-25.800 (10.913) *
N	5,020	776	1,577	1,933	734

주: 불드체로 표시된 줄은 [그림 4-2]에서 가정하는 생활여건-심리적 역량-행복의 주요 경로임.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나. 생활여건과 성격의 인과모형

개인의 삶의 만족에 생활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인과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전체 표본과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의 연령대별 하위집단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RMSEA, CFI, TLI, SRMR는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인과모형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여건의 측정 변수인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은 심리적 역량으로서의 외향성에 대해 청년 집단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적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향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경증에 대해서는 전체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신경증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외향성이 강화되고 신경증이 완화되는 경향은 일상적인 직관과 다르지 않다.

〈표 4-7〉 생활여건과 성격의 인과모형

성격 ← 생활여건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CE) 외향성 ←로그 균등화 기구소득	0.222 (0.016) ***	0.057 (0.041)	0.151 (0.030) ***	0.196 (0.026) ***	0.217 (0.039) ***
(CN) 신경증 ←로그 균등화 기구소득	-0.083 (0.016) **	-0.147 (0.039) ***	-0.109 (0.028) ***	-0.107 (0.025) ***	-0.114 (0.041) **

구분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RMSEA	0.052	0.049	0.048	0.053	0.050
CFI	0.935	0.947	0.938	0.925	0.947
TLI	0.919	0.935	0.923	0.908	0.934
SRMR	0.042	0.050	0.047	0.043	0.044

주: 볼드체로 표시된 줄은 [그림 4-2]에서 가정하는 생활여건-심리적 역량-행복의 주요 경로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의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음.
개인기준치를 적용한 값임.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다. 성격과 행복의 인과모형

〈표 4-8〉은 개인의 심리적 역량인 외향성과 신경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확인한 것이다. 〈표 4-7〉의 분석 모형과 같이, RMSEA, CFI, TLI, SRMR가 대체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인과모형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단, 장년의 경우 TLI의 값이 0.897로 기준값인 0.9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외향성은 삶의 만족에 대해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고,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미친다. 두 심리적 역량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면, 외향성의 1단위에 비해 신경증 1단위의 영향력 계수가 크다. 연령대별로 청년, 중년, 장년, 노인의 순서로 연령이 높을수록 외향성의 영향력이 커지는 패턴을 보이는 데에 비해, 신경증의 영향력은 중년 집단에서 약간 낮아지지만 대부분 연령대 집단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표 4-8〉 성격과 삶의 민족의 인과모형

행복 ← 성격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EI) 삶의 민족←외향성	0.131 (0.016) ***	0.090 (0.038) *	0.105 (0.029) ***	0.120 (0.026) ***	0.184 (0.039) ***
(NI) 삶의 민족←신경증	-0.261 (0.014) ***	-0.289 (0.036) ***	-0.244 (0.027) ***	-0.268 (0.024) ***	-0.273 (0.038) ***
구분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RMSEA	0.034	0.031	0.032	0.035	0.032
CFI	0.929	0.946	0.927	0.919	0.945
TLI	0.909	0.931	0.906	0.897	0.930
SRMR	0.027	0.034	0.031	0.028	0.032

주: 볼드체로 표시된 줄은 [그림 4-2]에서 가정하는 생활여건-심리적 역량-행복의 주요 경로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의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음.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라. 완전경로모형

완전경로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에 생활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리적 역량이 가질 수 있는 매개효과이다.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면, 생활여건으로부터 삶의 만족으로의 경로(CL)와 생활여건으로부터 심리적 역량으로의 경로(CE, CN), 심리적 역량으로부터 삶의 만족으로의 경로(EL, CL)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생활여건으로부터 삶의 만족으로의 단독 경로(CL, <표 4-6>)와 완전경로모형(<표 4-9>)의 경로와 계수가 같지 않아야 한다. 심리적 역량이 삶의 만족에 대한 생활여건의 경로를 완전매개한다면 완전경로모형에서 생활여건으로부터 삶의 만족으로의 경로(CL)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부분매개한다면 이 경로(CL)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염두에 두고 <표 4-6>, <표 4-7>, <표 4-8>에서 확인한 세부 인과 경로를 종합한 [그림 4-2]의 완전경로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경로모형과 같이 RMSEA, CFI, TLI, SRMR가 대체로 모형적합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완전경로모형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단, 장년의 경우 TLI의 값이 0.894로 기준값인 0.9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완전경로모형에서 생활여건으로부터 삶의 만족으로의 경로(CL)와 생활여건으로부터 심리적 역량으로의 경로(CE, CN), 심리적 역량으로부터 삶의 만족으로의 경로(EL, CL)의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 청년 집단에서 생활여건으로부터 외향성으로의 경로(CE)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완전경로모형에서 생활여건으로부터 삶의 만족으로의 경로(CL)의 계수는 <표 4-6>의 생활여건과 삶의 만족의 인과모형에서 나타난 계수와 같지 않으므로, 심리적 역량이 삶의 만족에 대한 생활여건의 영향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완전경로모형에서 생활여건으로부터 삶의 만족으로의 경로(CL)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심리적 역량은 생활여건의 영향을 부분매개하며, 이 특징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다.

〈표 4-9〉 완전경로모형

행복 ← 생활여건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CL) 삶의 만족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194 (0.016) ***	0.197 (0.034) ***	0.213 (0.024) ***	0.125 (0.025) ***	0.181 (0.039) ***
행복 ← 성격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EL) 삶의 만족←외향성	0.107 (0.015) ***	0.076 (0.038) *	0.076 (0.029) **	0.101 (0.026) ***	0.159 (0.038) ***
(NL) 삶의 만족←신경증	-0.246 (0.014) ***	-0.262 (0.036) ***	-0.224 (0.026) ***	-0.258 (0.024) ***	-0.255 (0.037) ***
성격 ← 생활여건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OE) 외향성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222 (0.016) ***	0.057 (0.041)	0.151 (0.030) ***	0.196 (0.026) ***	0.216 (0.039) ***
(CN) 신경증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833 (0.016) ***	-0.147 (0.039) ***	-0.109 (0.028) ***	-0.107 (0.025) ***	-0.114 (0.041) **
구분	전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RMSEA	0.035	0.031	0.032	0.035	0.037
CFI	0.914	0.936	0.915	0.907	0.915
TLI	0.902	0.927	0.903	0.894	0.903
SRMR	0.033	0.039	0.037	0.033	0.049

주: 볼드체로 표시된 줄은 [그림 4-2]에서 가정하는 생활여건-심리적 역량-행복의 주요 경로임.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의 개인 특성을 통제하였음.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여건의 영향에 대한 심리적 역량의 조절 혹은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 연령에 따라 우하향하는 행복의 추이를 고려해(김성아, 정해식, 2019), 분석 모형을 연령대의 하위집단으로 확장하여 적용했다. 앞서 2장과 이 장의 2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행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생활여건의 영향력의 정형화된 사실과 심리적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절에서 행복 방정식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4절에서 행복의 구조방정식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생활여건은 개인의 행복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외향성과 신경증으로 측정된 심리적 역량이 가지는 조절효과는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35~49세의 중년 집단에서 외향성은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생활여건의 영향을 조절하지만, 주로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에 대해 작동한다. 이들 연령대에서는 신경증도 행복 수준을 조절하는데, 삶의 평가, 어제 행복감, 어제 우울감이 이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이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삶의 만족과 어제 행복감이 이에 해당한다. 심리적 역량으로서 성격은 긍정적 판단과 평가를 하도록 유도한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주요한 특성으로 객관적 삶의 조건 발달 수준을 주관적 인식이 따르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OECD, 2017, p. 31). 객관적 생활여건이 행복의 경험과 연결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혹은 행복한 삶을 위해 객관적 생활여건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이 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차원에서 심리적 역량은 행복에 대한 경제적 생활여건의 영향을 조절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생활여건의 집중도를 축소하고 다른 요소들에 주목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심리적 역량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개별 사례의 맥락-패턴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5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

제1절 문제 제기

이 장의 연구 질문은 ‘한국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은 어떠한가?’이다. 객관적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 국민과 행복 수준을 비교하는 접근을 통해,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살아가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한국의 사회정책 등이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질병, 장애,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실업, 사별 등과 같이 개개인이 살면서 겪는 중요한 사건들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들도 개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객관적인 행복 수준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는 그 속성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나,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 곧 사회성, 문화성, 역사성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조용환, 1999).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질적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소수의 질적 연구들은, 다양한 연령집단의 행복 인식을 살펴본 본 연구와 달리, 특정 연령집단(예: 대학생, 중년, 노인) 혹은 계층(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행복의 속성과 차원을 확인한 연구(이하나, 2018)에 의하면, 대학생은 행복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삶에 만족하는 것”, “성적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만족하는 것”, “목표 달성과 같이 꿈을 향해 가는 즐거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 만족감”, “나와 의미 있는 타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일상생활의 소소한 만족”, “대학생으로서 전공 및 대학 생활 만족” 등으로 인식하였다. 대학생의 행복 경험에 대한 또 다른 연구(김민경, 2011)에서는 “가족의 소중함”, “긍정성(긍정적 정서, 감사와 만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 인정과 칭찬” 등에서 대학생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게으름, 부정적 생각, 물질추구 등이었다.

서울, 경기, 충청권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 여성(30명)을 대상으로

행복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힌 연구(신희진, 김증임, 2019)에 의하면, 중년 여성들은 가족 구성원을 위한 헌신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었던 삶에서 자신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삶에서 실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의 행복의 구성 요인은 “안정을 위해 건강하게 살기”, “화목을 위해 마음을 조절하기”, “자존감을 위해 소망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의 3개의 주제 묶음과 13개의 주제로 나타났다(신희진, 김증임, 2019). 13개의 주제에는 “건강한 삶”, “긍정적 생각”, “경제적 안정”, “신체적 젊음”, “화목한 가정”, “마음 다스리기”, “관계 안에서 투명한 인간이 되어 버림”, “버림목이 되어 주는 소중한 관계”, “내 삶의 중심은 나”, “자기 계발”, “성취감”,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 “나를 위한 쉽표” 등이 있다(신희진, 김증임, 2019).

노인의 행복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라 행복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각하는 행복에 관한 한 연구(전성숙, 2017)는 12개의 질문¹⁷⁾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최근 가장 행복한 일은 “휴식 및 여가생활”이었고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가정 화목”을 “손주 출생 및 성장”보다 행복한 일로 느끼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는 “경제적 안정”, 70대는 “개인적 성취”, 80대 이상 집단에서는 “자녀가 효도함”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한편,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자녀”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와 “친구”에 높은 가치를 두고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보다 “배우자”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평생에 걸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은 “자녀 출생과 성장”, “가정 화목”, “건강함”, “자녀의 성취”였다. 반면, 최근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은 “건강 문제”였고 “경제적 어려움”이 다음으로 응답이 많았다. 최근 불행한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는 것이 고달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뜻대로 안 돼서”, “가정불화” 순이었다. 이들의 불행에 영향을 준 사람은 “나 자신”, “자녀”, “배우자”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한평생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 사망”, “건강 문제”였다.

17) 질문의 내용은 “요즘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왜 행복합니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한평생 살면서 가정에서 행복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직장 생활/사회생활에서 행복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왜 불행합니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한평생 살면서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직장 생활/사회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전성숙, 2017, pp. 32-33) 등이었다.

군 단위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 여성 노인의 행복감 경험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박선희, 김정, 2015)에 의하면, 독거 여성 노인의 행복감 경험의 주제는 “모든 것을 비운 홀로서기 한 삶 속의 행복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대인 관계적, 가족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행복감을 경험하였는데, 예를 들어 자식들을 어려움과 짐 같은 힘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도 자식들에게서 얻어지는 행복감을 최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삶보다는 지난날의 삶 속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더 높게 인식했고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희, 김정, 2015).

한편,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의미와 조건을 살펴본 질적 연구(권지성, 이현주, 2013)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 “건강한 몸”, “감사하는 마음”, “튼튼한 가족”, “여유 있는 삶”, “걱정거리가 없음”, “더불어 사는 사람”, “내게 닿아 있는 복지” 등이 있었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로는 “욕심”, “무기력함”, “돈 돈 돈”, “늘 아픈 몸”, “가족은 애물단지”, “홀로 버티기”, “나와 상관없는 복지” 등이 나타났다.

행복을 주제로 선정하여 수행된 기존의 질적 연구들과 다른 본 연구의 차별성은 남녀, 그리고 다양한 연령집단을 포괄하여 행복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행복에 관한 남녀, 연령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2절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접근: 맥락-패턴 분석

이 장에서 다루는 하위 주제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귀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권지성(2018)이 개발한 ‘맥락-패턴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맥락-패턴 분석 방법은 최근에 개발되고 소개된 질적 연구접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맥락-패턴 분석 방법은 현상을 공간과 시간의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현상을 공간 차원으로 파악한 것이 맥락이며, 시간 차원에서 파악한 것이 패턴이라고 정

의한다. 이는 이 질적 연구접근이 토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학의 생태체계 관점과 발달 관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생태학과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맥락이라면, 발달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 그 둘 사이의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맥락-패턴 분석 방법은 현상의 층위를 본질-사물-의미의 세 층위로 구분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즉 인간이 감각과 지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사물’과 인간이 그 사물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러한 사물과 의미를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로서 ‘본질’로 현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사물과 의미, 본질을 명료하게 구분하면서도 서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과 패턴, 본질-사물-의미는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맥락도 본질-사물-의미로 구성될 수 있으며, 패턴도 본질-사물-의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맥락-패턴 분석 방법은 이러한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되, 개별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의 절차와 방법에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즉, 현상을 맥락과 패턴 차원에서 파악하고, 사물과 의미를 구분하여 분석한 뒤 다시 연결한다는 발상만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연구자의 몫으로 맡겨 두는 것이다(권지성, 2018).

이 연구에서도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을 생태체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패턴을 발달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맥락-패턴 분석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행복은 그 자체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면서 수많은 요인이나 조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구성체라고 가정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가의 행복 개념과 수준, 의미 등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체계 관점과 발달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연구접근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맥락-패턴 분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모집되고 선정되었다. 첫째, 연령 기준으로 1945년생, 1958년생, 1971년생, 1984년생, 1997년생들이다. 연구진은 한국인의 행복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집단을 포함하고자 하였는데, 모든 출생 연도의 연령을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령집단으로 거론되고 자주 회자되는 연령집단을 선별하기로 하였다. 우선 거론된 집단은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면서 흔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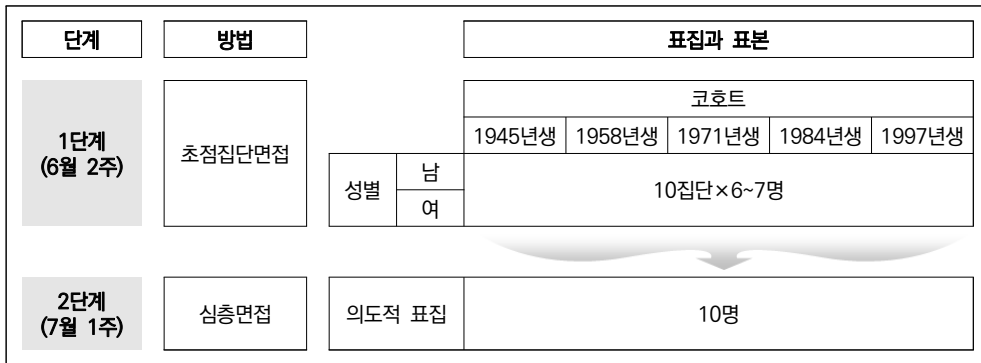
‘58년 개띠’라고 불리는 1958년생들과 현재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집단인 1971년생, 그리고 노인 세대를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1945년 해방기에 태어난 1945년생 ‘해방둥이’였다. 다음으로 청년전기 세대를 고려하였는데, 세월호 참사의 주요 희생자들과 동갑내기인 1997년생들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1945년, 1958년, 1971년, 1997년을 선정하고 보니 각 연령집단의 간격이 13년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1971년과 1997년 사이에 있는 1984년생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마침 이 연령집단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에 포함되고, “82년생 김지영” 세대와 인접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대표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결국 각각 13년의 간격을 둔 5개 연령집단을 선정하게 되었다. 둘째, 성별 기준으로 남녀 집단이다. 남녀 사이에는 신체심리사회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동일 성별 내에서도 시간 흐름에 따른 세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남녀를 모두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과정에서 두 성별집단을 비교하기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교차하여 10개의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별로 5명씩 모집하기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조사전문업체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주관하였으며, 이 업체가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연령별로 공지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접수하였다. 원래 계획된 연구 참여자 구성은 연령과 성별로 구분된 각 10개의 집단별로 5명씩이었으나, 집단면접이 진행되는 당일에 불참하는 인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2명씩 후보자를 준비시키고, 그중 1명은 당일에 와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공교롭게도 조사 당일 불참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없어서 10개 집단 모두 6명씩 집단면접에 참여하였으며, 1945년생 남성 집단은 미리 불참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당일 참석하는 바람에 7명이 참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연령과 성별이 조합된 10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61명이 되었다.

개별 면접의 경우, 각 초점집단 중에서 전형성을 보인 1명씩의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전형성이란 해당 연령집단과 성별집단의 전형적인 사회화를 거쳤고, 그 세대가 경험한 사회현상을 고스란히 겪어 왔음을 말한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에서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하여 표현하였지만, 시간제한 때문에 충분히 탐색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사례들이었다.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추후 개별 면접을 진행할 것이고, 당일 참석자들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연락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였다. 전체 초점집단면접이 끝난 뒤,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남녀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한 연구자들이 각각 개별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흔쾌

히 개별 면접 참여를 허락하고 동의하였고, 당일 개별 면접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개별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각 성별/연령 교차 집단을 대표하는 10명이다.

[그림 5-1]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



자료: 저자 작성.

3.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과 개별 면접을 활용했다. 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집단면접이다. 연령과 성별을 조합한 초점집단을 구성하기로 한 뒤에 질문지 초안을 구성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각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는 도입부에 연구 주제와 목적 등을 소개한 뒤,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만 모든 질문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지의 순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면접을 진행한 연구자가 유연하게 질문들 사이를 오가며 가능한 한 모든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듣고자 하였다. 모든 초점집단면접은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2시간 이내에 끝난 경우는 없었으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15분까지 진행된 것이 최장 시간이었다. 초점집단면접은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접에서 활용한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주요 질문들에는 가치관(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행복의 의미, 행복 수준(척도와 점수, 이유, 기간 등), 행복의 조건들, 행복의 맥락(육하원칙에 따른 상황과 행복의 차원 또는 요소), 행복을 위한 길

(나, 우리, 사회, 국가, 세계 차원), 연구 참여자 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 특성에는 원가족 분위기, 종교, 현재 가족, 주거 형태,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학력, 이념 성향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초점집단면접 장소는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자체 면접 공간을 활용하였다. 모든 공간에는 일면경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음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초점집단면접에 대해서 녹화와 녹음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면접 직후 녹화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전담 인력이 녹취록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면접 이후 1주일 이내에 녹취록을 받을 수 있었다. 본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모두에게 녹화와 녹음 파일, 녹취록 파일이 모두 전달되었으며,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둘째, 개별 면접이다. 초점집단면접이 끝난 뒤 개별 면접을 위한 질문지 초안을 구성하고 연구진의 연습과 사전 조사, 전체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개별 면접은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들은 피하고, 행복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하였으며, 더 사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활동지들을 포함하였다. 개별 면접은 연구자와 개별 연구 참여자의 일대일 대면면접으로 진행되었다. 개별 면접의 취지와 목적을 소개하고, 초점집단면접 이후 행복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 물어본 뒤,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성별로 5명씩을 면접하였으며, 모든 면접은 2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일부 여성 참여자의 경우 3시간 가까이 면접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개별 면접의 진행 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였다.

개별 면접에서 활용한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과 패턴을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인생 곡선과 일과표, 가계도와 생태도 등을 함께 작성하며 질문하였다. 또한 초점집단면접과 다른 방식으로 행복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적고 하나씩 버리기, 과거와 현재, 미래의 행복, 가족과 행복, 돈과 행복, 공동체와 행복, 행복한 또는 행복하지 않은 공간, 시간, 대상, 활동,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근에 한 행동 등을 주제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다시 한 번 행복의 정의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개별 면접도 ㈜마크로밀엠브레인의 면접 공간들을 주로 활용하였으나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작은 공간들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녹화는 일부 면접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녹음도 주로 공간에 설치된 녹음장치가 아닌 녹음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모든 면접은 녹음되었고, 면접 직후 녹취록 작성 작업이 진행되어 1주일 이내에 녹취록을 받았으며, 이후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제2019-27호(2019. 5. 27.)에 의해 표집을 포함한 면접 방법에 대한 IRB 승인을 받았다. 초점집단면접과 개별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면접 이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뒤 면접에 참여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권지성(2018)이 제안한 맥락-패턴 분석 방법의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맥락-패턴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수행한 분석 절차와 방법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성별을 교차하여 구성한 각 10개의 초점집단면접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범주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초점집단면접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남성과 여성 각 5개 집단을 통합하는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결과적으로는 남성 5개 집단에 대한 통합 범주화 분석 결과와 여성 5개 집단을 통합하는 범주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분량이 많아 부록에 제시하였다. 셋째,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종결한 뒤에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로 구성된 행복의 맥락-패턴 구조를 지속적으로 변형하면서, 통합적인 맥락-패턴의 구조를 재구성하였다. 넷째, 각 집단에서 선정된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면접 자료를 가지고 다시 개별적인 맥락-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구성된 맥락-패턴의 구조와 그것을 보여 주는 그림이 다시 변형되었다. 다섯째, 초점집단면접과 개별 면접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맥락-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권지성, 201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분석 절차는 10개 초점집단 각각에 대한 범주화 분석, 성별로 5개 집단을 통합하는 범주화 분석,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선행적 분석 틀을 기초로 초점집단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재구성한 통합 맥락-패턴 분석, 10명의 개별 면접 사례에 대한 개별 맥락-패턴 분석, 그리고 개별 맥락-패턴 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재구성한 최종 맥락-패턴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이 국내 질적 연구의 결과와 보고서 초안도 이 순서대로 작성하였으나 초점집단 분석 결과가 너무 방대하여 본문에 삽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초점집단 분석 결과는 보고서 뒷부분의 부록으로 넘기기로 하고,

보고서 본문에는 개별 면접 사례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뒤, 소결에 최종 통합된 맥락-패턴 그림을 제시하고 전체 구조와 흐름을 설명하였다.

제3절 개별 사례의 맥락-패턴 분석 결과

1. 사례 1: 1945년생 75세 남성

현재 75세인 1945년생 남성이 경험한 행복의 맥락과 패턴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시점에서 그가 부여한 행복 점수는 5~6점이다. 10점 만점에서 4~5점을 뺀 이유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배우자 사별,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행복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 또는 조건들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또는 부족한지로 측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재의 행복에 연결되는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과거에 경험한 행복으로는 “결혼생활”을 들 수 있다. 그가 운영하던 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거듭된 사업 실패와 정리, 그 뒤로 원단 장사를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온 생활방식에 대한 그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일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젊은 시절의 월남전 참전은 전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 경험이 현재 생활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중요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그는 미혼 상태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딸을 좋은 곳에 시집보내는 것과 남은 생애에서 동반자가 되어 소소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여성과의 만남을 미래의 바람으로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맥락 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경험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그는 현재 월남전 참전과 관련된 단체와 고교 동창회에서 총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원단 장사를 소일거리로 삼고 있다. 큰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매일 나가서 살펴보고 다음 일과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루 2~3시간 “세상 구경”을 하는 것이 그 일과다. 건강상태는 매우 안 좋은 편이고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산은 8년 동안 신용불량 상태였다가 얼마 전에 청산했으며, 유공자 후유증 진으로 수당과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관계망을 포함한 구조 내에서 보면, 그는 국가유공자로서 각종 표창을 받기도 했지만 생활 전반이 어렵기 때문에 창피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가족은 가끔 보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딸이 있는데, 손주를 보는 재미가 있다. 관계망 내에는 전우회와 동창회, 반창회, 사업을 통해 만난 지인, 사회 친구 등이 있다.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대체로 가볍고 즐겁지만, 그것이 “일이 될 때는 골치가 아프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서울이 여러모로 편리”함을 느끼고 있고, “국가가 행복하면 나라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형성해 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관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되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다. 돈이 있어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한다. 정치적 이념으로는 어느 쪽이든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 하는” 입장이다. 종교는 개신교지만 “교회도 넉넉해야 다닐 수 있다”며,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서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들 중 일부는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지만,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입장 같은 것이다.

그가 행복과 관련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로써는 부부 화목, 가진 것을 베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즐거움, 자신을 만나려는 사람이 많아 즐거움, 만날 때는 기분 좋음, 나갈 데가 있어서 좋음, 몸을 생각해서 일은 적당히, 집안일로 바쁨, 술을 안 마심, 딸이 생활비를 안 내서 서운함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들을 통합하여 행복의 요소를 종합하자면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주로 사람들과 만나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에 불행까지는 아니어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는 배우자 사별, 상실감, 외로움, 서러움, 몸이 아파 불편함 등이고, 관계망 내에서는 나가서 일하는 단체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보이는 추태, 못 볼 꼴들이며, 일반 사회에서 종종 터지는 각종 부조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과 패턴을 살펴볼 때, 그는 외로움, 질병과 장애, 불쌍사나운 일들 때문에 행복 수준이 많이 낮아졌지만, 시간을 보낼 일이 있고,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들과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있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2. 사례 2: 1945년생 75세 여성

“거의 나는 진짜 그냥 가족이었어요.”

그녀는 ‘전체’를 위해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 전체를 위해 나 하나 희생할 수 있으며, 그래야 전체, 즉 국가와 사회,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바보스럽게 희생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로 여기기도 하지만, 모순적으로 “자신이 좀 더 잘했으면”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굉장히 보수적인 남편을 더 잘 뒷받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한다. 희생만 한 인생에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억울하기도 하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도 많지만, 그녀의 헌신으로 가족을 유지하고 자식들을 잘 키워 낸 삶이 대견하고 고귀하다.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희생이나 헌신과는 거리가 먼 동생의 삶을 보면서, “복이 참 많다”, 그래서 부럽고 “복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며 체념하기도 한다. “타고난 성격 탓”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녀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힘들다. 최면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나는 그래도 행복해. 그렇게 살아야 해. 자기에 최면을 걸어서 걸어 주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느낀 적도 있다.

내려놓으니,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반항도 많았다. 그러다 10년 전부터 “체념”하게 되었다. 체념을 이야기하면서 연구자에게 되묻는다. “체념, 그거 모르시죠?”

다 놔 버려서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다. 돈을 쓸 줄만 알고 가족을 위한 경제력은제로인 남편,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남편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인정은커녕 존중도 해 주지 않는 남편도 내려놓고, 음악과 미술, 독서를 좋아하는 자기 모습대로 살지 못한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나니 조금 편안해졌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남편에 대한 것도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내려놓고” 이런 생각을 좀 더 일찍 했으면, 포기할 것을 일찍 포기했으면 더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을까? 좀 더 일찍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답은 이렇다. “고생해서 애들 다 길렀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자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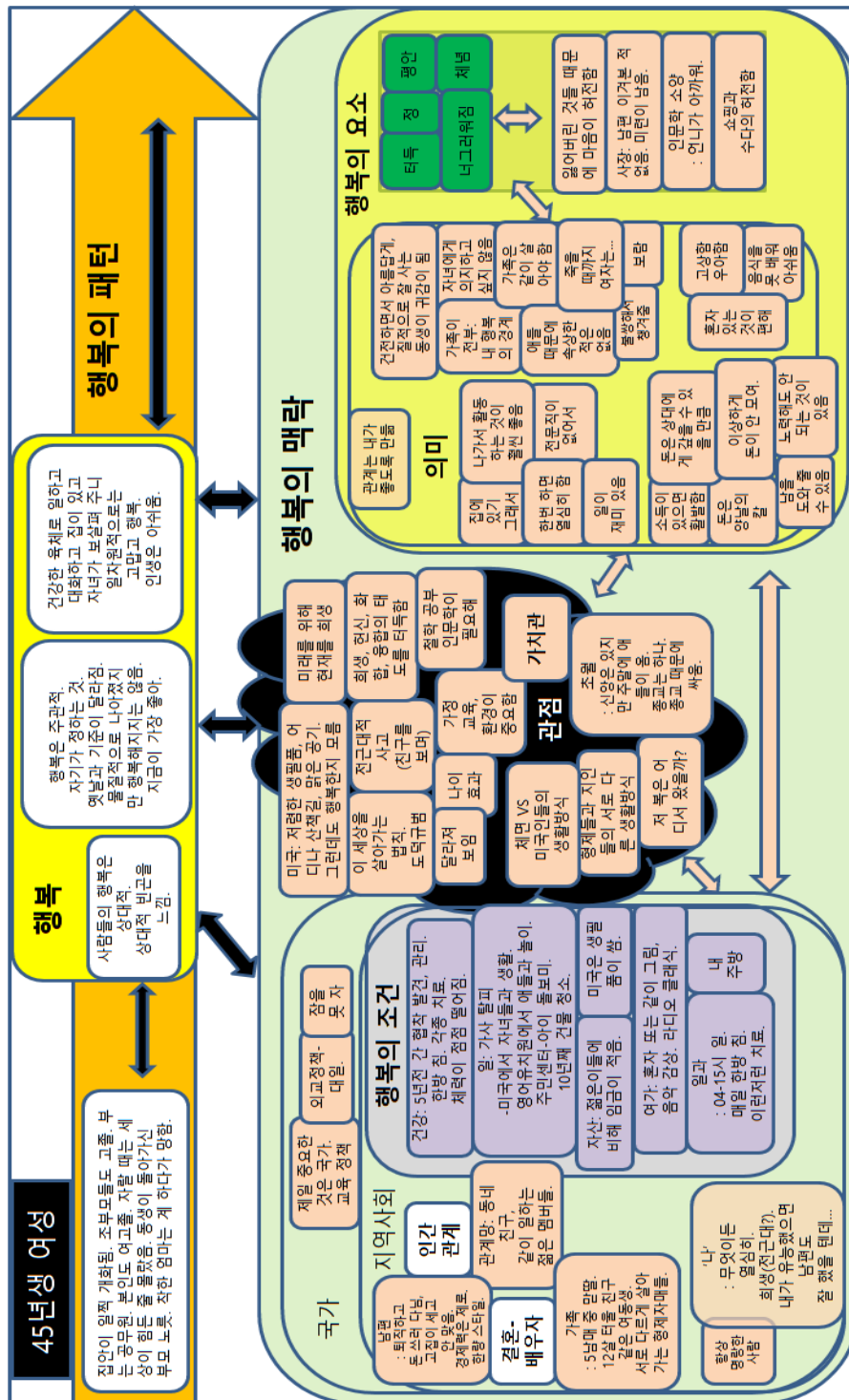
잡을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결국, 엄마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라는 인생의 숙제를 끝내고서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내려놓으니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표현대로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나”의 개인적 즐거움을 찾고, 못 했던 것도 하면서 노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이렇다. 겉으로 볼 때, 그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도 내 인생을 살지 못한, 어쩔 수 없었던, 아쉬운 미련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인생은 “지킬과 하이드 박사”이다.

“일차원적으로 이 복잡한 세상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육체로 일하고 대화하고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큰애가 보살펴 주니까 그걸로 고맙고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하고 숨기고 살았지만 내 인생을 제대로 그랬던 것들이 조금 아쉽고 그런 것들이에요. 일단 일차원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것만 해결된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림 5-3] 사례 2. 1945년생 75세 여성의 행복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사례 3: 1958년생 62세 남성

현재 62세인 1958년생 남성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과 패턴은 다음과 같다. 그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고, 지금도 불행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만 행복한 생활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행복은 “이 시간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이고, 만족감은 부족한 걸 채워 주는 것인데, 지금 물질적으로는 만족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세계 내에서는 물질적으로는 만족하지만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고 할 만큼 행복한 일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고려하면, 그의 행복은 다차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저 평안하거나 물질적으로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상태가 행복의 요소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복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가 경험한 행복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나쁜 일이 없었으며, 순간적으로 좋았던 때가 있었고, 아주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인생이었다”고 하였다. 30~40대 시기에는 “자신이 원하던 일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하였고, 50대부터는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을 못 느껴 봤다”고 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일을 할 정도로 자신의 일에 몰입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른 길을 간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자면, “퇴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시원섭섭했으며, 오히려 정년퇴직이 강제로 일을 그만하도록 자기를 끊어 줘서 좋다”고 하였다. 그는 지난 1년간 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놀든 봉사하든 배우든 남은 15년간 할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인생을 종합해 보자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난하지만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젊은 시절에는 일에 몰두하며 성취하는 데서 행복을 느꼈다. 지금은 미래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혼자서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행복으로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행복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가 표현한 행복의 요소에는 만족, 성취, 욕심이 없는 삶, 평등 등이 포함되었다.



행복을 저해하는 또는 불행을 느끼게 하는 요소에는 인정을 못 받음, 보상이 따르지 않음 등이 있었다. 이는 행복의 요소인 성취와 반대되는 측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상성을 가진 이러한 요소들의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계 구조를 보면, 그는 자신이 “잘살지도 어렵게 살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왔다”고 하였다. 그 때문인지 가족은 희생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는 자신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하는 활동도 없고, 40대부터 코골이 때문에 각방을 쓰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관계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지만 모임을 좋아하지는 않으며, “직장동료들은 일로 만난 사이일 뿐이고 퇴직한 동기들끼리는 잘 만나고 있지만 직급이 다른 옛 동료들의 모임은 좋아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이 시간 보낼 데가 많아서 좋다고 하였다. 국가는 그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이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은 없다고 하였고,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하였고, 35년간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15년간 용자를 갇고 나니 여유가 생겼다고 하였다. 자산의 경우 “남한테 손 벌릴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는데, 현재 강남 아파트와 7억~8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조건들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만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 온 일을 생각해 보면, 30년 이상 같은 일을 해 왔고, 앞으로 3~4년 쉬면서 할 일, 시간을 보낼 일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했던 일은 그 순간 행복을 느끼게 해 주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고, 빠른 승진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 교훈도 얻었다. 그리고 대학 진학 시기를 돌아보며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야 행복해진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요즘은 주로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고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면서 즐길 거리를 찾고 있다. 가끔 혼자 트레킹을 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한다. 최근에는 집에서 컴퓨터로 영화와 인터넷 강좌를 보고, 쇼핑하고, 유튜브 등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일들은 시간을 보내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지는 못한다.

그가 형성해 온 관점들을 보면, 자기만족(욕심을 버릴 것), 다 비슷하면 행복한데 비

교하면 불행해짐, 일찍 앞서가는 것보다 ‘끝에 가서 1등 하는 것’이 더 나은, 스스로는 만족하는데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사냐고 함,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과 지금의 상태는 다름, 돈 없이 행복하지는 않음 등이 있다. 결국 남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과 관점들이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은 “첫째, 자기만족, 둘째, 보상, 셋째, 남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들은 앞서 살펴본 행복의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밖에 지금까지 해 온 일들과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를 하나씩 끝낼 때마다 성취감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서 좋았고, 진급이나 돈에는 욕심이 없었던 것이 불행하게 느끼지 않도록 해 주었다고 하였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수입이 없어도 괜찮으며, 지루하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등을 들었다.

관계와 관련해서는 “편한 사람과 만나고 싶고, 동호회 등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며, 오히려 혼자 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혼자 사는 건 행복하지 않다고 하였다. 가족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 일만 열심히 하느라 가족과 멀어졌고,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신경을 못 쓴 것이 미안하며, 딸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가족관계를 고치고 싶지만 잘 안 된다고 하였다. 그에게 가족은 일에 밀려서 멀어졌고 이제 와서 다시 붙잡으려 하지만 너무 멀리 떠나 버린 존재다. 제한된 관계망 안에서 가벼운 관계를 맺으며, 일상의 대부분을 집에서 또는 밖에서 홀로 보내고 있는 그는, 현재 인생의 쉼표를 찍고, 남은 인생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열심히 찾고 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놓쳐 버린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4. 사례 4. 1958년생 62세 여성

그녀는 스스로를 “굉장한 세대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굉장한 세대는 바로, 1956년과 1957년(90만 명 정도)에 비해, 1958년에 태어난 인구가 101만 명으로, 출생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이며, 박지만 세대부터 ‘눈물의 비디오’까지, 유신 → 민주화 →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제 막 환갑을 보낸 세대(임영열, 2018)이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시험이 아닌

추첨제로 입시제도가 바뀐 덕에(평준화 세대), 공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운 좋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 공부까지 마쳤다. 그녀는 그 시대의 평균적인 여성보다 학력이 높다. 그래도 여자는 곱게 자라서 결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시기, 직장 생활은 결혼 전에 잠깐 경험 삼아 하는 것쯤으로 여기던 시기라, 졸업 후 바로 전업주부가 되었다. 대학 졸업 후에 기회가 주어졌던, 학교 교직원 일자리를 놓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이다.

FGI에 참여했던 또래 여성과 그녀가 다른 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 자신”을 이야기한 부분이다. 물론 공통점도 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남편보다 우선시한 점은 다른 또래 여성과 비슷하다. 남편은 사고 치지 않고 지금 상태로 있어 주는 것 정도로 여기고, 가족관계의 무게 중심이 부부가 아닌 자녀에 쏠려 있는 것 등은 또래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녀는 유독 “나 자신”을 강조했다. 그녀는 “내가 행복해야 주변이 행복하니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전업주부로서 살림을 마치고 온전히 혼자 갖는 시간(목욕, TV 드라마 보기)으로, 이때는 그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그녀는 “팔자 좋은 여편네”이고 싶지 않다. 사회, 정치 이슈에 관심 없고 가정만 아는 동생을 답답하게 생각한다. “팔자가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라고 말하며,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받은 혜택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네 나이에 신기하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신기한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최신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적용하며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점이다. 재력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혹은 흥)을 늘어놓는 친구들의 수다는 내용이 늘 뻘해서 의미 없다고 여기며, 그녀는 늘 새로운 정보를 찾아 나선다.

이런 그녀에게 자녀는 아픈 부분이다.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고 여기는 그녀지만, 자식이 잘된 사람, 엄마가 당장 죽어도 자식 걱정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그녀에게 자녀의 독립은 가장 큰 걱정이다. 자신은 60이 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 자녀가 앞가림 잘하고 자기 앞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만 있으면 다행일 것 같다고 말한다.

60 평생을 살아 보니, 깨달은 것은 100% 행복한 사람도 100% 불행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며,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렇게 말한다. “이래도 행복하게 보고 저래도 행복하게 보자. 그런 식으로 사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녀의 또 다른 행복관은 현재의 행복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 미래도 잘된다고 생각한다. 현재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기에 지금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녀의 좌우명은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기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니, 가장 슬플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니”가 아닌가 싶다.

한편, 행복과 관련된 한국인의 특징은 “남과의 비교”에 있다고 생각한다. 60 평생을 살아 보니 인생은 길게 봐야 하며, 친정 엄마의 말씀대로 사람 팔자는 관 뚜껑 달아 봐야 알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사는 게 행복해지는 길이라 여긴다.



5. 사례 5: 1971년생 49세 남성

현재 49세인 1971년생 남성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과 패턴은 다음과 같다. 그는 반복되는 질문에 한결같이 행복이 “자기만족”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는 평상시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하였고, 주말이 특히 행복하다고 하였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꼽은 것은 자기만족, 가족, 돈 순이었다.

그가 이러한 행복 개념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행복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중학교 시절을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고3 시절엔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때의 진로 결정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대학교 2학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고, 군대에서는 통제받는 느낌이 싫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 합격했지만 포기하고 공기업에 입사했다. 입사할 때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했으며, 회사에서도 늘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평범한 삶을 지향했다. 입사 6개월 뒤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이와 결혼했다. 입사 이후 열심히 재미있게 일을 했고, 30대 중반에는 입사 동기들과 진급 차이가 나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욕심이 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 대체로 굴곡 없고 평범하게 살아온 평탄한 삶이었다고 평가하게 된다. 승진했을 때,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취업했을 때 큰 행복을 느꼈다.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60세에 퇴직하게 되어 있지만 56세에 조기 퇴직을 고려하고 있고, 그 이후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다. 자동차로 세계 여행을 할 작정으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다. “돈에 구속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다가 죽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패턴을 살펴보면, 그가 느끼는 행복은 인생의 주요 단계에서 이루어진 자신과 가족의 성취와 현재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 경험하는 즐거움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자신에 대해서, 그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그냥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자기만족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셈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성당에 같이 가는 것으로 배우자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낀다. 대학교 3학년인 아들은 사춘기를 무난하게 보냈고, 이제 다 커서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원가족의 경우 4형제만 있던 집안에서 늘 싸우면서 지냈지만 지금은 무난한 관계이며, 아버지는 젊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신다. 회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현재 팀장으로서 19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치이면서 행복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승진할 때와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낀 것 외에 회사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먹고살아야 하니까 중요한 것이고 직장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입사 동기들과 같이 있을 때는 좋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는 수준이다. 이웃과 지역사회는 그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가는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국은 돈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나라”라는 평을 덧붙였다.

행복의 조건들을 따져 보면, 그가 처한 조건들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월급 받아 차곡 차곡 모든 돈이 5억 원이고 퇴직금을 포함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모을 수 있을 것이다. 15억 원 정도면 남은 인생을 여유 있게 사는 데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일 자체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직장은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일과에서는 술을 마실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였다. 해외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면서, 국내 여행을 혼자 하면서 또한 행복을 느끼고 있고, 화초를 가꾸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기분을 느낀다.

그가 가진 관점들을 살펴보면, 행복이 삶의 가치관에 따라 다름, 절대적인 것이 아님,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다면 불행의 씨앗이 됨, 먹고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 등이 눈에 띈다. 결국 이러한 관점도 “행복은 자기만족”이라는 명제로 귀결된다. 그가 정의하는 자기만족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현 상황에 대한 만족”이다.

그가 가진 행복의 의미는 현재에 충실하기,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일정 정도 희생해야 함, 배려와 역지사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정은 휴식을 취하는 곳, 금요일 오후, 미래를 위한 준비, 혼자 여행하면서 느낀 색다름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들을 여유, 소확행, 배려 등의 요소로 추상화하여 정리할 수 있겠다.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 나온 것처럼 “스트레스”이다.

6. 사례 6: 1971년생 49세 여성

50세를 목전에 둔 그녀는 참 열심히 살았다. 그녀 표현대로 “참 애쓰면서 살았다.”

그녀는 공부를 잘했다. 어려운 시골 살림에 서울로 대학을 왔고 그만큼 꿈과 포부가 컸다. 그런데 그 꿈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자포자기할 무렵, 마침 지금의 남편이 옆에 있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람, 고단한 내 삶을 리드해 줄 사람을 찾아 결혼하고 싶었는데, 힘들 때 옆에 있던 그 사람과 결혼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한 결혼이었다. 결혼생활은 생각과 달랐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지 강한 그녀가 남편(계획 없이 일을 만들고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는 사람)을 뒷바라지하면서, 그녀의 수입으로 자체 안정감을 만들며 살았다. 술 마시고 귀가해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는 남편이 측은하기도 하지만, 누구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나?”는 식의 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면 화가 치민다. “돈이나 많이 갖다주든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런 그녀가 달라졌다. “올해(2019)부터는 열심히 놀겠다”고 말한다. 이전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어 내면서 많이 적응했고 “내가 꾸릴 수도 있겠다”, “앞으로도 그냥 어떻게 잘 헤쳐 나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미래를 위해 감수하고 참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 미래도 없을 것 같고,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정확히 말하면 자녀이다. 그렇기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이다. 아들한테 사랑이 옮겨 갔는지, 아들이 엄마 음식을 칭찬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 한편, 교회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기분으로 기도할 때도 행복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이기에, 남편과 이혼 위기가 몇 차례 있었지만, (결혼) 선택에 대한 책임과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안 한다고 마음먹었다. 맘에 들지 않는 남편에게 애들을 맡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남편에 대한 마음은 양가적이다. 안쓰럽기도 하고 좀 고맙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다. 그래도 예전에는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무시했다면, 요즘은 격려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이렇게 된 것은 행복은 노력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것이 크게 생각하면

크지만 서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 가는 과정,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노력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율로족은 아니지만, 여유를 즐기면서 소소한 것이라도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 목표라고 말한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소확행이다. 하루 중에도 소확행을 찾는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 낼 힘이 생긴다고 말한다.

결국, 그녀는 50을 앞두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 “이제까지 애썼다. 좀 여유를 찾고 즐겨 보자. 행복은 거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소소하게 있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삶의 지혜인지,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의 선택에서 나온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아니면 어쩌면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꼭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만 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모범적으로만 살아온 그녀의 인생 경험이 주는 반작용일 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녀는 행복을 찾아 변화를 꿈꾼다.



7. 사례 7: 1984년생 36세 남성

현재 36세인 1984년생 남성이 경험한 행복의 맥락과 패턴은 다음과 같다. 그는 행복이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하였다. 불만족을 찾으려 그렇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길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하였다. 즉 특정한 사물이나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다 보면 계속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가 인생에서 경험한 행복의 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여행하면서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기에 부쩍 잦아진 부모의 싸움 때문에 매번 속앓이하면서 힘들었다고 하였다. 성인이 되면서 그러한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대학 생활은 무미건조했으며, 전공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27세에 첫 직장을 얻었는데,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가서 산 적이 있다.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하며, 자신이 성숙해짐을 느꼈다고 했다. 그 뒤로 한국에 돌아와서 여행 가이드 공부를 하였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포기하였다. 이후에는 취업 준비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프랜차이즈 주류 회사에 취업하였으며, 직장에서 만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본인만 퇴사하였다. 이러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 번의 속앓이도 있었지만 취업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인정받고 월급도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자신의 아내는 안정성을 추구하여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내 장사”를 하는 게 꿈이며, 그동안 그럴 기회를 한 번 놓친 적이 있다.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릴 작정이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행복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계망과 구조에는 배우자와 부모, 여동생, 처가, 친구들, 축구 동호회 등이 있다. 배우자는 첫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으며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자신과는 다른 성격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거리가 있는 부모와 가족을 한데 모아 주는 역할을 해 주려고 고맙게 느낀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신혼부부치고는 적다고 느껴지는 월 1회 정도다. 자신은 성관계에 대해 별생각이 없는데, 아내는 가끔 불멘소리를 하여 미안하다고 하였다. 부모는 어릴 때 늘 부부 싸움을 하였는데 지금은 살갑지 않아도 각자 삶을 꾸리며 그냥저냥 같이 살아가시는 것 같다고 하였다.



하나뿐인 형제인 여동생은 어릴 때는 서로 건드리지 않고 각자 살아왔으며 얼마 전에 조카가 태어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찌감치 결혼하여 분가한 것이 서로에게 다행스럽다고 하였다. 친가 가족들은 만나면 데면데면한데, 처가는 늘 화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같이 만나면 재미있다고 하였다. 그에게는 한 명의 매우 친한 친구와 가까이 살면서 종종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 중학교 때 만나 사귀고 있는 친구는 현재 천주교 신부가 되었는데, 늘 의지가 되고 자신을 위해 희생해 준 유일한 친구다. 여러 방면에서 자신과 통하는 면이 있어서 자주 만난다. 그리고 집으로부터 가까이 사는 고등학교 친구 7~8명이 있는데, 자주 만나고 만날 때마다 마냥 즐겁게 보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망을 살펴보면 그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신혼 생활 중인 배우자와 천주교 사제인 친구, 가끔 만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에 대한 질문에는 요새 마을이나 이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 반문하면서 오히려 이웃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국가 수준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정권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국가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고,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행복의 조건들을 따져 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은 대출이 절반 이상인 전세금과 현금이 있으며, 일은 맥주 회사 지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장이 답답하거나 탈출하고 싶거나 그렇지 않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한다고 하였다. 매장 관리를 하면서 고객들을 대할 때 행복을 느끼는 타입이다. 일과의 경우 회식을 정말 싫어하며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싫다고 하였다. 여가로는 TV 시청, 나가서 돌아다니기 등을 들었으며, 고정된 활동은 없다고 하였다. 주거의 경우 전세지만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집에서 아내와 둘이서 밥을 먹고 같이 볼 때가 좋다고 하였다. 그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부가 주는 행복이 있지만 행복이 돈에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특별한 행복의 조건들보다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행복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가 더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여지는 있다. “돈만 좇고 싶지는 않으며, 몰랐던 음식을 먹고, 못 봤던 곳을 보고 싶고, 안 가 봤던 곳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즉 새로움을 추구하며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는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써 먹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일이라면 하고 후회하자는 주의”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친구들과 비교하며 “내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첫째, 건강, 둘째, 가족, 셋째, 부”를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의미 있는 것들은 그것들과 차이가 있다. 일단 건강과 관련된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에게 의미 있는 것들은 가족과 직장에 대한 것들이었다. 즉 아이가 대화의 중심이 되고, 성관계 자체는 행복하지만 엄청난 행복감은 아님, 억지로 같이 자야 되는 순간들이 피곤함, 아내를 통해 가족이 모인 자리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함, 아내와 같이 밥 먹고 잠들 때 행복함을 느낌 등이었다. 신혼 생활 중인 아내와 집과 밖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소소한 행복을 준다는 것이다. 잠을 잘 때가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직장은 일하러 가는 곳이며 내 일을 다 하고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매장에서 일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하였으며, 남을 기분 좋게 했을 때 오는 쾌감이 있다고 하였다. 사소한 것에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며,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를 만난 것이 행복감을 준다고 하였다.

그가 경험하는 행복의 요소로는 만족, 쾌감, 좋은 친구 등을 들 수 있겠다. 인생 전반에 대한 그리고 주로 배우자와 친구, 일에서 느끼는 소소한 좋은 감정들이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 준비 스트레스와 부모 싸움에 속앓이했던 것이 불행하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이제는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다.

8. 사례 8: 1984년생 36세 여성

그녀는 36세 전업주부이다. 남편, 딸(5세)과 서울,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없다. 더구나 시댁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참 고마운 일이다. 남편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남편이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후 우울증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신뢰한다.

그녀 부부에게 “우리(부부) 인생”은 매우 소중하다. 딸을 어느 정도, 대략 10세까지 키운 후에는 부부의 인생을 살 생각을 하고 있다. 어린 딸에게는 가정환경, 특히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를 위해서, 아이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녀의 자유 선택이다.

그녀는 육아와 일이 순차적으로 양립 가능하며, 어느 정도 키운 후에 다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버는 친구를 보면 그들의 경제적 자유가 부럽기도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 엄마는 절대적 존재이기에 전업주부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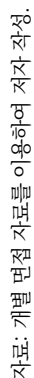
그녀는 아이를 위해 살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여긴다.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 보이고 집안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카페에 나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든다. 육아에 관심이 많아 육아 서적을 읽고, 집이 생기고 집값이 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재테크에도 관심이 생겨, 그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낸다.

그녀에게 친구는 “인생의 활력”이다. 요즘 그녀에게 친구는 비슷한 나이, 비슷한 또래의 자녀, 임신 후 퇴직, 전업주부 등에서 공통점이 있어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사람들이다. 사는 곳도 비슷해서 동네에서 오가며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들과의 대화와 모임이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육아 친구는 그녀에게 새로운 네트워크이며, 육아 스트레스의 돌파구인 셈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가 오가면서 만나는 동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하다. 또 한국인의 행복에는 “집”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니 “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시작해야지” 했던 어른들 말이 다 맞는 듯하

다. 집은 걱정을 덜어 주고 여유를 만들어 준다. 그녀는 집값이 오르는 경험(“돈을 버는데 부동산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고 지금의 경제적 기반을 알뜰하게 잘 지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아이가 크면 부동산 관련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녀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존재, 남편의 신뢰와 사랑이다. 1945년생, 1958년생, 1971년생의 그녀들과 1984년생 그녀가 다른 점 중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다(부록 6의 <부표 6-2> 참조). 부부관계의 평등성, 상호 신뢰와 공감, 친밀감(애정) 등은 84년생, 그녀의 행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9. 사례 9: 1997년생 23세 남성

현재 23세인 1997년생 남성이 경험한 행복의 맥락과 패턴은 다음과 같다. 일단 그가 정의한 행복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환경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느끼는 성취감”이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성취감”인 것이다. 그는 인생의 여러 장면과 현재 생활의 영역들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는 여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예비장교훈련단(ROTC)에 붙었을 때 행복했다고 하였고, 그 외에는 딱히 행복한 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가 경험한 행복의 패턴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성숙하지 않아서 대체로 행복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때 본인의 실수로 구설에 휘말리면서 힘들었고, 인생 최대의 좌절을 느꼈으며, 그 때문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가만히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나마 상승세를 탈 수 있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우울했고, 성적에 맞춰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를 가게 되어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 예비장교훈련단을 지원하면서 나아졌고,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자기 인생 최대의 불행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많이 우울했는데, “친구의 친구가 죽었고, 그 때문에 친구들도 우울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추모 분위기였다”고 했다. “정부 책임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겼으며, 언론이 원망스러웠다”고 하였다. 늘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 번씩 살아보는 게 목표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매일 만나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을 행복의 한 요소로 여기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

그가 경험한 행복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의 관계망 안에는 부모와 누나들을 포함한 가족과 여자친구, 절친들 등이 있다. 그를 행복하게, 최소한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로써 여자친구와 친한 친구들을 들 수 있겠다. 여자친구는 같은 아파트 두 층 사이로 살고 있으며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같이 가서 공부하고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행복을 느끼는 사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가족의 경우 세 살 터울씩인 누나 둘이 사이가 좋고 어릴 때부터 누나들이 자신과 놀아 줬으며 본인은 착한 동생이었다고 하였다. 가족은 화목하지만 의견을 피력할 때는 각자 크게 말하면서 고집을 피운다고 하였다. 부모님 사이도 좋을 때가 더 많고, 행복해 보인다고 했으며, 가족은 필연이고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창 시절에 큰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늘 붙어 다니던 4명의 친구가 있고, 그들은 늘 내 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지적이지는 않고, “나쁜 놈”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이 되면 늘 “제일 먼저 달려올 놈들”이라고 믿고 있다. 즉 서로 지지하며 즐겁게 노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울리는 끈끈한 사이인 것이다. 그 밖에 30여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그중에서 몇 명과 더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만날 때는 즐겁다고 하였다. 국가 단위에서는 국민 모두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이웃의 영향은 못 느낀다고 하였다. 국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정권에 대해 분노를 느꼈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중요한 영향으로 꼽았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돈과 행복은 필연적이지만 무조건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월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소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일과는 예비장교훈련단이라는 신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조건으로서 ‘가족’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그런 지원을 해 줬다고 하였다. 가족은 도전을 통해 행복을 영위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행복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는 가톨릭으로서 마음을 기대고 싶을 때 마음을 정리하러 성당에 간다. 고해성사와 기도가 도움이 되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그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돈 없이 행복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행복한 게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같은 기성세대의 희생을 존경하며, 자신은 그렇게 못 할 것 같다고 느낀다.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시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버텼으며 주위 친구가 그렇게 말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관계, 둘째, 사람, 셋째, 돈”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 주는 우선순위는 여자친구, 가족, 친한 친구 순이다. 지

금 상태에서는 여자친구가 행복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자친구를 사귀어 더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고 하였다. 성관계도 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사랑에 만족하며, 성관계는 행복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뭔가 하고 나서 얘기하는 시간, 도서관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성취감 등이 지금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들이다.

가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언제든 돌아가도 따뜻하게 맞아 주고 안아 주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과거의 아픈 순간에 가족들의 말이 미래를 가꾸는 영양분이 되었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도움과 위로가 되었다”고 하였다. 가족으로부터는 늘 따뜻함을 느낀다. 그리고 친구들과 옛날 얘기 하는 것이 재미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늘 바빠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밖에 “운동이 끝난 시간과 외국어로 대화하는 느낌, 좋은 호텔에서 편히 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시간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 주며,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입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가 진술한 관계와 조건, 관점, 의미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가 경험하는 행복의 요소는 성취감, 마음이 편안함, 즐거움, 함께하고 얘기하는 시간, 만족 등인 것으로 보인다.

10. 사례 10: 1997년생 23세 여성

스물셋. “시웃” 받침이 들어가면 20대 중반이란다. 그러니까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은 중반,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같이 “비읍” 받침이 들어가면 20대 후반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녀는 이제 스물셋. 2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20대 중반에 접어드니 나이 압박이 있지만 아직은 아이이고 싶다고 말한다. 아이에 비해 어른은 신경 쓸 게 더 많고 책임질 것도 많으며 무슨 제약, 어떤 이유 등으로 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할 수 없기에, 아이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행복이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는 긍정적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말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쉽게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중략) 그게 중요해요.”

이처럼 모든 세대의 그녀들이 말하는 ‘행복은 마음가짐’이라는 등식은, 23세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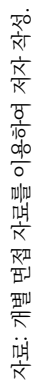
젊은 그녀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녀는 말한다. 그녀에게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걱정 없는 엄마”라고.

객관적인 조건이 걱정 없는 상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으로 걱정을 만들지 않았던 엄마의 영향인지, 20대 중반, 그녀도 긍정적 마음 태도를 지녔고 행복은 마음가짐에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녀를 보면, 가정환경의 영향은 정말 중요하다. 20대는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적어도 10대까지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그녀도 말한다.

그녀의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거짓말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등의 잘못이 아니라면 어떤 실수를 해도, 뺏겨졌다가 다시 돌아와도 있는 그대로 받아 줄 수 있는 편한 울타리로 가족을 묘사했다. 그녀가 보기에, 이런 가족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친구 관계와 마찬가지로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녀의 23세 인생을 돌아보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특히 많았다. 인생 곡선이 아래로 향했던 시기는 항상 친구 문제가 얽혀 있었다. 힘들고 어려웠던 친구 관계는 졸업, 학교 밖 대외 활동 참여 등으로 정리 혹은 희석(해소)되었다. 남자친구와도 처음에는 “서로 갑인 연애”를 하느라 많이 싸웠는데, 싸우면서 맞춰진 결과로 지금은 전셋집을 구해 독립을 계획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 23세 그녀에게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관계”인 듯하다.

관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성취감, 존재감으로 보인다. 지금 하는 일이 단기 아르바이트임에도 즐거운 이유는 그녀의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일을 통해 경력이 쌓이는 느낌,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성취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녀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같은 일이라도, 한국에서는 위치, 지위, 직업, 학력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 같다. 그냥 같은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졸업자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위를 갖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다. 학력은 특히 한국에서 중요하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돈보다도 학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녀를 보는 주변의 (차별적) 시선이 행복, 행복으로 가는 그녀의 여정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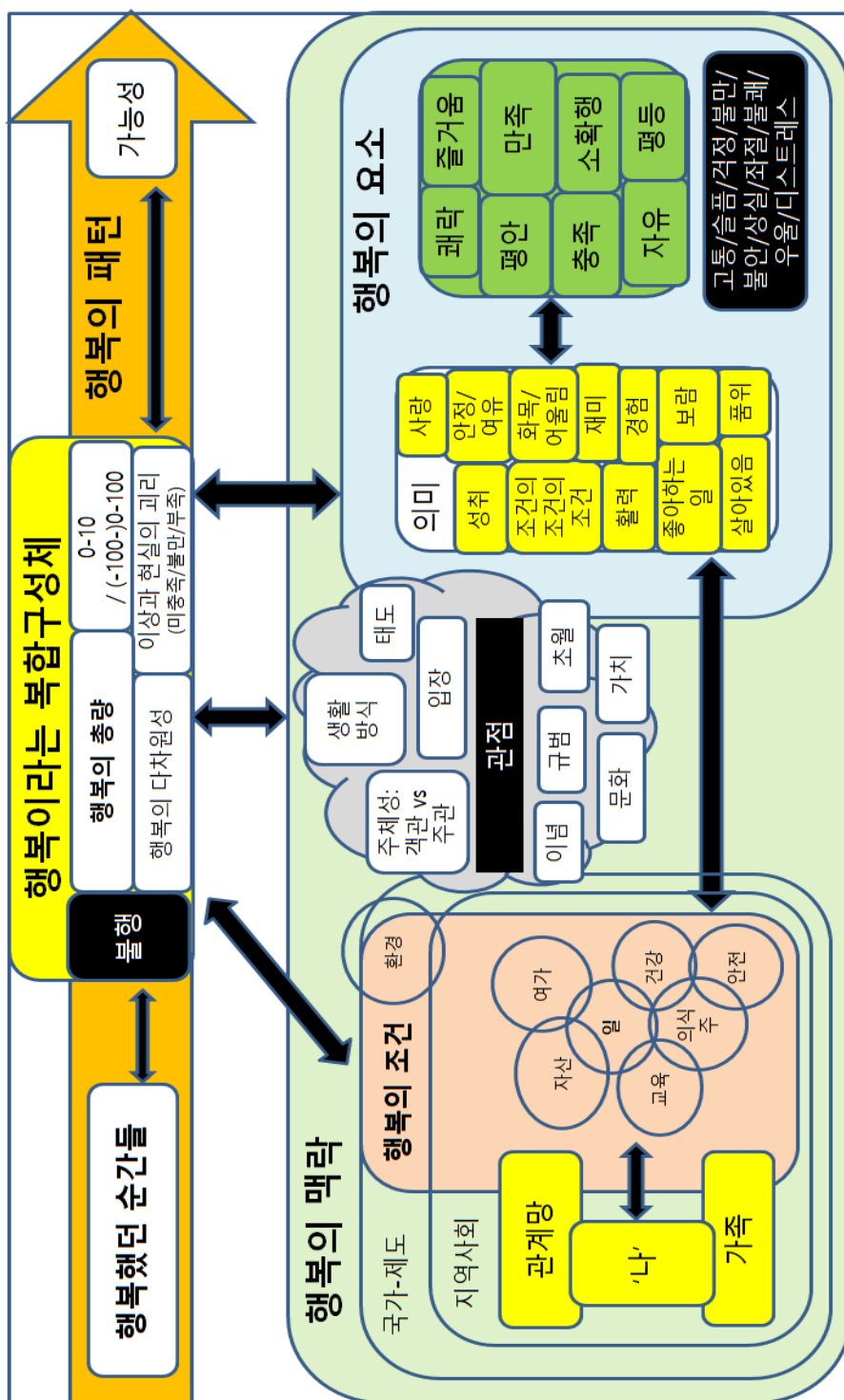
초점집단면접과 개별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은 행복의 맥락과 패턴이 드러났다. 전체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의 ‘맥락’은 행복이라는 복합 구성체를 중심으로 행복의 요소, 의미, 관점, 조건, 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는 연결 구조이다. 개인(여기에서는 개별 한국인)은 가족과 관계망, 지역사회, 국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자신의 생활 범위 안에 포함된 의식주, 자산, 일, 여가, 교육, 건강, 안전 등의 ‘조건’을 경험한다. 이러한 조건은 그들이 생애 과정에서 형성해 온 ‘관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미들은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다. 이보다 덜 자주 언급되면서 더 추상적인 것으로 행복의 ‘요소’들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행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행을 경험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들도 드러났다. 복합적인 구성체로서, 그리고 궁극의 추상적 개념으로서 ‘행복’은 각 개인이 관계/조건-관점-의미-요소들을 통합하거나 일부를 조합하거나 그중에서 선택하여 경험하고 표현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이 맥락을 설명하기 전에 언급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하거나 표현하거나 대화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비로소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행복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이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행복의 맥락 안에 포함된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리고 초점집단면접에서 흥미롭게 느껴진 것은 대체로 6명으로 구성된 각 집단에서 1명의 ‘철학자’와 1명의 ‘한량’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즉, 어떤 이는 자신의 인생과 행복 등의 추상적 개념에 대해 매우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진지함을 벗어 버리고 현실에 발을 디딘 채 하루하루 일상을 즐기는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은 이러한 양극단의 사이 어딘가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자신의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행복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림 5-12]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맥락과 패턴



자료: 개별 면접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맥락 구조와 현실적인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행복의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핵심은 **‘행복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복합 구성체’**라는 점이다. 즉, 행복은 동일한 국가와 문화 내에서도,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는 복합적인 구성체다.

이러한 복합 구성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차원 개념으로서 10점 또는 100점을 만점(상한선)으로, 0점을 최저점(하한선)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행복 수준을 평가하는 단일 척도 측정 방법이다. 이 척도에서는 0점이 가장 불행한 상태, 10점 또는 100점이 가장 행복한 상태로 이해된다.

둘째, 이요인 척도 차원의 개념으로서 행복과 불행을 별도의 척도로 구분하고, 행복 수준만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불행은 그와 관련된 사물이나 의미가 나타날 때만 경험되는 것으로 보고, 일상적으로는 행복 수준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할 때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행복 점수를 측정한 다음에 해당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물었을 때, ‘채워짐’으로 진술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모자람’으로 진술하는 이들이 있었다. 즉,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이 10점인데, 현실은 7점이고, 모자란 3점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식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할 수도 있고, 충족, 만족, 충만보다는 미충족, 불만, 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다차원 척도 개념이다. 이는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이나 요소, 조건 등을 행복의 요소로 포함하고, 행복 수준을 측정할 때 이러한 특정 요소들이 채워져 있다가 나 부족하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사고방식이다. 이 차원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것은 관계망과 조건들이었다.

넷째, 행복의 총량 개념이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과 공간의 일정 범위 내에서 행복한 시간과 공간의 총량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는 이 연구에 적용한 맥락-패턴 접근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차원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고 묻고 나서 ‘조금 전에 답한 질문에 대해 생각했을 때 염두에 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들은 지금이라고 답했고, 어떤 이는 지난 주, 지난 한 달, 지난 6개월, 지난 1년, 특정 시기 이후 지금까지 등 다양한 시간 범위를

언급했다. 이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염두에 두는 시간의 범위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행복하게 느끼는 공간에 대해 물었는데, 혼자 있을 때와 가족이나 친구, 연인, 원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있을 때, 직장이나 집에 있을 때, 서로 다른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공간의 범위 내에서 행복을 느끼는 공간의 총량에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때’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행복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일정한 시공간 내에서 관계와 활동을 통해 각 개인이 경험한 행복의 총량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복의 복합 구성체는 다시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긍정적인 차원의 요소들이고, 둘째는 부정적인 차원의 요소들이며, 셋째는 위 두 차원보다 낮은 수준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거나 논리적으로 선행되는 ‘의미’들이다.

첫째, 긍정적인 차원의 행복 요소에는 쾌락, 즐거움, 평안, 만족, 충족, 소확행, 자유, 평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주 언급한 것은 즐거움, 만족, 평안, 소확행 등이었으며, 쾌락, 자유, 평등 등은 직접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의미 수준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하위 요소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부정적인 차원의 행복 요소, 달리 표현하자면, 불행하게 느끼도록 하는 요소에는 고통, 슬픔, 걱정, 불만, 불안, 상실, 좌절, 불쾌, 우울, 디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긍정적 차원과 달리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직접, 자주 언급되었지만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요소군으로 구분하였다. ‘디스트레스’의 경우 이 표현을 직접 쓴 사람은 없고, 전부 ‘스트레스’라고 언급하였지만 이론적 구성체를 염두에 두고 ‘디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다.

셋째, ‘의미’는 연구 참여자들이 행복의 조건들을 나열한 뒤에 그와 관련된 행복의 요소들로 직접, 자주 언급한 개념들이다. 성취, 안정, 여유, 화목, 어울림, 재미, 경험, 활력, 좋아하는 일, 보람, 살아 있음, 품위, 사랑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조건과 이러한 의미들의 일부가 선순환되는 ‘조건의 조건의 조건’은 조건과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여가’를 통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람’과 ‘살아 있음’을 느끼며 삶의 ‘품위’가 높아졌다고 느낀다는 식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복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서로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공간 차원에서 서로 엮여져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요소군 내에서도 하위 요소들이 순환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가족은 일과 여가에 영향을 미치며,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도 재미 또는 슬픔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이것이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시 행복의 맥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과 요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프리즘 역할을 하는 ‘관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사회 일반이 공유하는 개념인 문화, 가치, 초월, 이념, 규범뿐 아니라 개인이 내재화하여 드러내는 입장, 태도, 생활방식, 주체성 등이 포함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고르게 언급되었는데, 가장 자주 언급된 관점을 고르라면 ‘비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화나 주체성, 입장 등과 관련된 차원이다. 비교하는 문화,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의 주체성, 내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내 상황을 분석하는 ‘비교’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비교가 행복 수준을 낮추거나 불행하게 만들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차원이라고도 하였다.

마지막 요소는 행복의 조건이다. 각 개인은 ‘나’ 자신과 가족, 관계망(원가족을 포함한 확대가족, 친구, 동료, 이웃)의 상태를 파악하여 행복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다. 또한 자산과 일, 여가, 교육, 의식주, 건강, 안전, 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조건들은 선행연구들에서도 행복의 조건들로 미리 구성되어 측정되거나 제시된 것들과 유사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행복은 하루, 일주일, 한 달, 분기, 1년, 특정 발달단계, 평생의 시간 차원에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즉, 하루 일과와 일주일을 구성하는 일상생활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행복 총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보다 큰 시간 범위 안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 관계, 활동들도 일관된 패턴으로 또는 비일상적인 사건의 형태로 행복 총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복의 ‘패턴’은 시간 범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 차원에서만 분석하였다. 즉 과거에 경험한 행복과 현재 경험

하는 행복, 미래에 기대하는 행복에 대해 묻고, 그 답변들을 분석한 것이다.

현재의 행복은 ‘요즘’의 시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위에서 기술한 행복의 맥락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행복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이나 시기들이 언급되었으며, 그 맥락은 현재의 행복과 다르지 않았다. 또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는 ‘가능성’이나 ‘기대’ 또는 ‘바람’, 계획하고 만들어 가야 할 어떤 것으로 진술되었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최고령자이자 75년의 인생을 살아온 1945년생들과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1958년생들의 경우,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에 헌신하면서 살아오느라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 이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1945년생들은 이제야 여유를 찾으면서 삶의 다른 요소들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이제 막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1958년생들은 지금 이 순간과 미래에 행복을 누릴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어릴 때의 행복과 젊은 시절의 행복, 지금의 행복이 그 수준과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23세로 최연소집단인 1997년생들은 가족의 상황과 학교생활, 불안한 진로 등으로 부침이 있지만 현재를 즐기며, 미래에 ‘가능성’을 두는 모습을 보였고, 안정된 직장을 갖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36세, 1984년생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중간 연령집단인 49세, 1971년생들은 과거의 부침을 반성하며 평가하고, 아직 멀게 느껴지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재 행복의 조건과 의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북유럽 국가 행복 연구 동향: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제5절 소결

6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에 대한 << 질적 연구

제1절 문제 제기

한국에서 행복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연구 주제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행복 연구에 대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한국인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된 개념이 없고 체계적인 측정법이 제시되지 못하였다(우창빈, 2013). 그렇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한국인의 행복은 객관적인 경제 상황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제 발전이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은 한국보다 앞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선진 국가들에서도 관찰되어 왔던 현상이다. 1974년 이스털린(Easterlin)에 의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 이론이 발표된 이후 이런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근래의 행복경제학 연구로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높은 경제 수준에 기대되는 바 이상의 행복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박아연 외, 2018; 정해식 외, 2018). 따라서 선진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 사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제도적 특징과 국민의 일상적 삶의 영위 방식, 행복의 의미를 파악하고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첫째 목적은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주요 선진국 중 북유럽 2개 국가의 사회제도적 특징과 국민의 일상적 삶의 영위 방식,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필요는 앞서 제기한 바와 같다. 둘째 목적은 한국인이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다학제적 관점의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학문적 관점에 따라 진행되면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본문 2장 2절 참조). 행복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경험이자, 삶의 환경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자 한다면,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범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3년간 진행될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은 초기에는 국외 사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이끌어 낼 것이지만 연구의 말미에는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리적 성향, 다층적인 갈등 지점, 치열한 경쟁 사회,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한국인, 한국 사회의 행복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2절 북유럽 국가 행복 연구 동향: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북유럽 국가는 한국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높다. 「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Layard, & Sachs, 2019)와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OECD, 2017)를 비교해 봤을 때, 활용하는 지표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한국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다. 우선 두 국가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물질적인 항목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한국 역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노르웨이와 덴마크보다 사회적 지원이나 선택에서의 자유도, 삶의 만족도와 같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9). 따라서 차이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위주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소득 향상 및 경제 발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인들이 원하는 주거, 교육, 다양한 식사, 의료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적인 번영을 목표로 해 왔다. 경제 수준이 다른 여러 국가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적인 소득의 수준과 주관적 웰빙에는 분명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 Oishi, 2000; Inglehart & Klingemann, 2000). 그러나 행복과 소득 간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소득이 넘으면 부의 수준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Inglehart & Klingemann, 2000).

이러한 현상은 지난 세기 말 노르웨이에서도 나타났다. Hellevik(2003)는 노르웨이 모니터(Norwegian Monitor)로부터 얻은 1985년부터 2001년 자료를 통해 경제 발

전과 통합적 행복도가 평행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여러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다. 개인의 실질적, 주관적 경제 상황이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데 있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가설과 경제 발전이 행복도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줌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가설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소득의 증가는 노르웨이 가구들의 번영을 가져왔으며 경제적인 긍정주의는 통합적인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으로의 변화와 요구 수준(level of aspiration)의 상승은 경제 발전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llevik, 2003). 2000년대 이후 현재 노르웨이가 높은 행복지수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경제 발전의 기여는 무시할 수 없으나 경제 발전의 부작용을 줄인 사회적인 변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유한 국가들 간에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Biswas-Diener, Vittersø, & Diener(2010)는 미국과 덴마크에서의 웰빙을 비교했다. 덴마크는 국제적으로 웰빙에 있어서 항상 높은 순위에 위치해 왔으며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행복을 살펴보는 데 있어 주요한 국가로 여겨졌다. 이들은 2005 갤럽 설문조사를 활용해 답변자가 느끼는 감정적, 인지적인 항목들을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설문만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했다. 미국과 덴마크의 개인들 모두 높은 수준의 웰빙을 느낀다고 대답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덴마크에서는 만족도와 즐거움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보다 덴마크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iswas-Diener et al., 2010).

2.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도

한국과 노르웨이를 포함해 68개국에 대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1981~2008)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았다(Bavetta, Maimone, Miller & Navarra, 2017).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모두 성숙한 민주주의로 주목받는 국가들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2018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1위였던 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각각 1위와 5위로 10위권 이상은 북유럽 국가들이 주

로 차지했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에 대해 점수를 매겨 계산된다. 한국은 8.00점대의 점수를 받고 있으며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들로 2006년부터 1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2018년에도 9.8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EIU, 2018).

특히 노르웨이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많은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덴마크 왕자를 국왕으로 세운 뒤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이다. 독립 이전 덴마크령이던 1814년에도 귀족제를 금지하는 헌법을 제정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해 왔으며 독립 이후 나치 치하를 겪으며 이와 같은 정신은 더욱 강조되었다. 강한 평등주의가 정치에도 평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이어졌다(이현근, 2016).

또한, 토양이 척박한 노르웨이의 특성상 한 개인이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산업화 역시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후 대규모 이민과 더불어 1968년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 1975년부터 석유수출국이 되면서 소득 수준이 빠르게 높아졌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노르웨이는 계급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고 급격히 늘어난 국가 예산을 교육이나 가족 지원 등에 사용하며 복지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 발전 이전부터 평등주의가 강조되고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상의 유지를 도왔을 뿐 지금의 민주주의는 노르웨이의 역사적인 배경과 유산을 통해 형성되었다(Ringen, 2010).

3. 가족관계: 결혼 및 출산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항목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계산되는 수치다(Helliwell, Layard, & Sachs, 2019).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는가를 추정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나 그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가족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나 자녀의 존재 유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기준점이론(Setpoint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도는 만족-불만족의 연속체 위에 놓여 있어 항상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체로 일정한 수준의 행복도를 보이는데(Cummins, Eckersley, Pallant, Van Vugt, & Misajon, 2003), 이 경우에는 특정한 이벤트들이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Easterlin(2003)은 결혼, 이혼, 심각한 장애 등은 행복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비물질적인 이벤트는 물질적인 사건에 비해서 수용이나 사회적 비교의 영향이 적다고 밝힌다. 또한 Vanassche 외(2013)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유무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성별이나 사회적으로 부모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녀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했다.

덴마크의 쌍둥이 등록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의 특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결혼과 출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002년 자료를 활용해 25~45세와 50~70세의 연령대인 쌍둥이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파트너가 존재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45세 여성의 경우 첫아이의 존재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ohler, Behrman, & Skytthe, 2005). 50~70세에는 자녀의 존재 자체보다는 자녀가 주는 표현 등이 주요했으며, 과거의 맺었던 관계보다는 현재 파트너가 존재하는지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행복보고서」의 주저자인 헬리웰(Helliwell)은 그로버(Grover)와의 공저에서 주관적인 안녕은 결혼을 할 때 더 높아짐을 보였다. 결혼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결혼 이후의 행복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rover & Helliwell, 2019). 따라서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의 유무가 행복도를 높이는 데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조혼인율은 5.0건으로 2011년 6.6건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으며 7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노르웨이 역시 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OECD, 2016, p. 85). 그러나 다른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25세부터 34세의 경우 동거 비율이 2002년 기준 22.7%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OECD, 2011, p. 25). 노르웨이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동거에 대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인정되어 옴에 따라 결혼과 동거가 주관적인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astekaasa, 1994). 한편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혼인율만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덴마크를 포함하는 24개

국에 대하여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02년 데이터)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대안적 가족 형태에 대해 인정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덴마크가 상당히 포용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도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력을 통제한 이후에는 대안적 가족 형태가 인정되는 국가일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Vanassche, Swicegood, & Matthijs, 2013).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은 혼인율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유배우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이철희, 2018).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2017년 기준 가임기 여성 한 명당 1.0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OECD, 2019). 이는 과거 2000년 이전에 1.5명대에 비해서도 현저히 감소한 수치다. 초저출산국인 한국에 비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선진국 중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1990년대부터 유럽 평균보다도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많은 사회인지,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6-1〉 국가 및 지역에 따른 합계출산율

구분	합계출산율							
	1970~ 1975	1980~ 1985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10	2010~ 2015
전세계	4.46	3.6	3.44	3.02	2.75	2.63	2.57	2.52
아프리카	6.71	6.48	6.18	5.72	5.34	5.08	4.89	4.72
아시아	5.03	3.70	3.50	2.92	2.56	2.41	2.30	2.20
한국	4.00	2.23	1.57	1.68	1.50	1.21	1.17	1.23
유럽	2.17	1.88	1.81	1.57	1.43	1.43	1.55	1.60
덴마크	1.90	1.43	1.54	1.75	1.76	1.76	1.85	1.73
노르웨이	2.35	1.69	1.80	1.89	1.86	1.81	1.92	1.82
중남미	5.03	3.96	3.46	3.06	2.76	2.48	2.26	2.14
북미	2.02	1.79	1.88	2.00	1.95	1.99	2.01	1.85
오세아니아	3.21	2.60	2.51	2.49	2.46	2.44	2.53	2.41

자료: United Nations.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을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4. 일과 삶의 균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문제 역시 이러한 감소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고 해도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그 자체로 행복을 측정하는 주요한 항목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던 사람이 사라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설문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일과 삶의 충돌 정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과 가정의 충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노동 시간, 성별, 자녀 유무, 사회적 계급, 나이, 가사노동 분담, 국가 효과)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국가의 효과(societal effect)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Crompton & Lyonette, 2006).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높여 주기 위한 정책들이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남성의 육아와 가사노동 참여를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프랑스의 보육 지원 시스템은 일과 가정의 충돌을 줄이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런 경향이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Crompton, Lyonette, 2006). 따라서 국민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사노동 분담과 같은 사회적 성 개념의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 사회에 맞는 정책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특징과 국외 선진 복지국가의 사회적인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는 행복의 의미와 더불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반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현지에서의 조사를 통해 문헌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행복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와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국민의 행복 수준 감소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한 연구들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3절 질적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이 높은 북유럽 국가의 사회제도적 특징과 국민의 일상적 삶의 영위 방식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관찰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대상국으로 북유럽 국가 중 덴마크와 노르웨이¹⁸⁾를 선택하였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행복지표를 살펴보면 흔히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을 잘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의 제도적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당 국가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삶의 경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북유럽 2개 국가에서 19명을 대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개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복 연구에서 중요한 연령, 소득, 학력별 대표성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사람들(ordinary people)에 집중하였다. 여기서 보편적 사람들이라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중산층에 위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¹⁹⁾

그중에서도 특히 집중한 연구 대상자는 삶의 단계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1) 청년 세대와 2) 노인 세대이다. 먼저 청년 세대(20~30대)는 막 사회에 진입했거나,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행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되었다. 한편, 청년 세대의 부모 세대 격인 노인 세대의 은퇴를 앞둔 시기, 혹은 은퇴 이후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60대 이상 노인들을 연구 대상

18) ‘지속 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Layard, & Sachs, 2019)에 따르면 2019년 행복지수 1위 국가는 핀란드이고, 2위 덴마크, 3위 노르웨이,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 6위 스위스, 7위 스웨덴 순이다.

19) 이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영어 면접이 가능한 이들이 과연 이들 국가에서 평범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고자 하였고, 또한 실제 연구 수행에서는 면접 대상자로 섭외된 대학생, 은퇴한 교수가 평범한 사람들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영어’ 능력은 이들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라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밝힌다. 다음으로 섭외된 이들이 ‘평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들은 본인들을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으로 삼았다.

일반화에 목적을 두지 않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척도, 행복과 불행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으며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심층인터뷰를 핵심적인 연구 방법으로 채택했다. 한편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특별한 결여가 없음에도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의 행복감의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아주 부유하지도, 아주 빈곤하지도 않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피면담자로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들이 삶을 사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변수들, 소득(자산 포함), 가족 구성, 직업 유무, 직업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중산층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면접 대상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표 6-2>²⁰⁾에 제시하였다.

<표 6-2> 면접 대상자 요약

국가	나이	성별	가명	현재(과거) 직업
노르웨이	19	남	온(Jon)	대학 진학을 위한 모색기(gap year)
노르웨이	25	남	알프(Alf)	컨설팅 회사 근무
덴마크	25	남	미카엘(Michael)	석사과정 대학원생, 정부 부처에서 파트타임 근무
노르웨이	25	여	니나(Nina)	의학 전공 대학생
노르웨이	25	여	테아(Thea)	회사원
노르웨이	27	여	안나(Anna)	법학 전공 대학생
덴마크	28	남	빌리암(Williamm)	학사/석사 통합과정 진학 예정
덴마크	28	여	이다(Ida)	국제기구 근무
덴마크	29	여	마리아(Maria)	국제기구 근무 후 현재 구직 상태
노르웨이	33	여	앙네스(Agnes)	의사
노르웨이	60	여	헤다(Hedda)	노동조합 대표
덴마크	66	여	엠마(Emma)	초등학교 교사(은퇴)
덴마크	67	남	파블로(Pablo)	사업가
노르웨이	68	여	라켈(Rachel)	병원 파트타임 근무
노르웨이	69	남	한스(Hans)	대학교수(은퇴)
노르웨이	73	남	트리네(Trine)	대학교수(은퇴)
노르웨이	77	남	헨리크(Henrik)	대학교수(은퇴)
덴마크	82	여	한나(Hannah)	교사(은퇴)
노르웨이	80대	여	티나(Tina)	경찰(은퇴)

20)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에 제시된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방법은 주로 일대일 면담과 포커스 그룹 면담 방식이었다. 양 도시에서 총 1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은퇴 교수인 이바르 프뢰네스(Ivar Frønes) 교수와 덴마크 UNEP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명균 박사로부터 개별국의 제도적 특징 및 개인의 삶의 경로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덴마크 행복연구소를 방문하여 행복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면담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 면접 대상자 모두 영어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면접 질문 내용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잠재적인 동의를 밝힌 피면담자의 섭외는 사전에 각 도시 소재의 대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담당 연구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면접조사는 면접 대상자와 카페나 집에서 만나 약 2시간 정도 심층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필요에 따라 피면담자의 동의하에 현장에서 관찰지를 기록하는 연구진이 동석했다. 본 연구는 피면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908/002-008)을 받았다.

질문 내용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생애사를 간단하게나마 파악하고 경제생활, 특히 가구의 경제적 재생산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다음으로, 복지사회(국가)에 대한 시각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며, 복지사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개념과 논리를 동원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복을 어떻게 연관시켜 설명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직업, 세대, 젠더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진술을 하며 서로의 진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차 점검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접 대상자는 어떠한 삶의 경로를 거치고 있으며, 어떤 경제적 여건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사회와 연계시켜 해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어떤 개념들을 통해 자신이 속한 복지사회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모순과 논리적 역설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진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피면담자의 ‘말로써 표현된’ 삶의 모습을 분석했다. 피면담자가 말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얼마만큼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지, 자신의 체면을 신경 쓰느라 거짓을 포장한 것은 아닌지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달된 언어에 주목했다. 피면담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표현을 통해 묘사되었는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설명한다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구술했는지 등을 인터뷰 당시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했다.

덧붙여,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얻는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보조적인 수단으로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와 어떠한 연결을 맺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주말에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참관하고 예배가 끝난 이후의 네트워킹을 관찰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작성하였다.

제4절 질적 연구 결과

앞서 검토한 행복에 관한 연구들과 북유럽 국민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행복은 다차원적이다. 행복은 때로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현재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삶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로 이해되기도 한다. 각 개인은 단순히 개인의 현재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만을 토대로 본인의 행복 수준을 표현하지 않으며, 행복은 본인이 처한 상황과 사회구조적 상황 속에서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은, 반드시 행복을 구성하는 거시적(국가-사회구조적) 요인과 미시적(개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과 ‘개인적 수준에서 본 행복’으로 정리하였다.

1.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본 행복

가. 행복에 관한 물질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구성의 상호 관계

철학에서 객관적인 조건을 만드는 물질적인 것과 이를 이해하는 주관적인 관념의 관계는 영원한 논란거리이다(문영찬, 2016). 인간의 의식과 실천이 물질적, 특히 경제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한되는 것이라는 유물론적인 입장과 인간의 의식이 물질적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실천 양상이 달라진다는 관념론적 입장은 인간의 행위와 실천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두 축이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이해도 이런 두 축 사이를 오가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복지사회(국가)의 구성원들은 물질적 조건의 풍성함이나 안정 덕분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물질적 조건 자체보다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의 영향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이 높다고 느끼는 것일까? 본 절에서는 이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위의 두 질문을 모두 유효한 상태로 두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물질적 조건과 객관적/주관적 관념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을 탐색하였다.

인류학에서 행복은 매우 낮은 개념이다. 연구 대상자가 진술한 행복을 기술한 민족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행복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Thin, 2005; Leontiev, 2012). 그럼에도 인류학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 대상 집단의 물질적 조건과 문화의 관계를 다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간의 행위가 경제합리성을 추구하는 보편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형식론(formalism)과 특정 시대와 사회의 관념/이념/규범 등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실재론(substantivism)의 논쟁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논쟁은 경제사학자인 칼 폴라니가 신고전경제학의 가정과 이론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회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Polanyi, MacIver, 1944). 그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른 규범, 관념, 이념, 즉 문화가 인간의 경제적 제도, 의식, 행동을 규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논쟁을 촉발시켰다. 논쟁의 핵심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보편적인 경제법칙에 따르는지 아니면 특수한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지에 있다.

행복 연구와 관련하여 이 논쟁이 시사하는 바는 특정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틀 짓는 것이 보편성을 지니는 물질적, 경제적 조건인지 아니면 이것이 문화적인 것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구성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종족, 젠더, 인종과 같은 사회적 범주를 둘러싸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원형주의(primordialism) 사이에 형성된 대립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Barth, 1969; Chandra, 2012). 이러한 논리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온 사회과학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논쟁은 행복 연구가 인간집단의 의식과 실천이 어느 정도 실체적/물질적인 것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어느 정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인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양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이와 같은 물질적/경제적 조건과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설을 정돈해 볼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는 특정 집단의 저항의 정치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인간집단은 왜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국가, 사회체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어떤 때 저항을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농민운동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논쟁이 이와 관련한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인 페이지(Paige, 1983)와 팝킨과 팝킨(Popkin, Popkin, 1979)은 베트남 농민의 저항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페이지가 베트남 농민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다 강조하긴 했지만, 양자는 공히 체제에 대한 만족-순응과 불만족-저항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계산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설을 수용하면 덴마크나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국가)사회의 구성원들이 체제에 만족을 표시하거나 이에 불만을 가지고 담론적, 행위적 저항을 시도하는 이유는 경제적/물질적 조건의 손익계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생활의 실상과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물질-경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정치학자 스콧(Scott, 1976)은 농민 집단에 고유한 도덕적, 문화적 판단 기준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농민은 생계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에만 집단 저항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상적 저항을 한다는 나름의 행동 규범을 체화하고 있다. 이런 가설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인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엘리트 중산층이 국가와 사회를 판단하는 도덕적 준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들이 보는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와 연계하여 어떤 시각과 대응을 보여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류학자인 울프(Wolf, 1969)는 농민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화를 강조하면서 층화된 각 집단이 가진 경제적인 조건과 정치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빈농이 잠재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러한 의식을 표출하고 실천할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유하여 ‘전략적 자유(tactical freedom)’를 가진 중농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본 연구자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대상이 거의 대부분 중산층 지식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연구는 이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진보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이 이들의 경제적 여유로부터 나오는지, 그리고 이들의 이런 의식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개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절에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중산층 엘리트를 대상으로 이들의 만족-행복과 불만족-불행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관념, 규범,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 중산층 엘리트의 현실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이들이 향유하는 정치경제적 조건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현실 인식과 해석을 정치경제적 조건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할 것이다. 인간의 인식과 실천은 물질적인 것 못지않게 문화,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익히고 실천하는 광의의 문화가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는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문화적 해석을 끝이곧대로만 받아들여 이들의 만족과 행복이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면적일 것이다. 이들의 문화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경제적 조건의 작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물질-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구성을 양자택일하기보다 양자를 순차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호 관계를 행복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는 데 의의를 두었다.

나. 청년 대상 사례 연구

① 경제적 여건과 자족감

물질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청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 장만이다. 이는 적어도 코펜하겐과 오슬로에서 청년층이 고가인 집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월세로 사는 것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들 복지사회에서도 청년층에게 주거 비용은 경

제적인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가정을 이루려는 청년층에게 주택 구입은 핵심적인 고민거리이다. 20대 피면담자 빌리암과 30대 앙네스도 이러한 부분을 인터뷰 중에 다음과 같이 각각 언급했다.

“나는 내 아파트가 있어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덴마크에서 대니시 안텔스볼 리포레닝(Danish Andelsboligforening)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공유 주택을 가지고 있다. 안텔스(Andels)는 공유, 포레닝(Forening)은 공동체를 뜻한다. 일종의 주식회사처럼 아파트를 함께 사고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집이 있어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니 안정감을 느낀다.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월세 오를 걱정을 안 해도 되니 아침에 일어나 행복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다.”(덴마크, 20대, 남, 빌리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서 남편과 집을 장만하기로 했다. 매주 적당한 집을 찾느라 1년 동안 돌아다니며 입찰을 하고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에서 빨리 벗어나 넓은 주택에 살고 싶었다. 그러나 이 집을 계약하고 너무 행복했다. “이제 아이가 올 집이 생긴 거야”라고 외쳤다. 남편(실제로는 약혼자)은 이 집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나는 이 지역에 살고 싶었다. 돈을 지불하고 나서 정말 황홀하게 기뻐다. 일자리도 있고, 아이도 생기고, 집도 장만하니 모든(삶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10대에 오르락내리락했던 삶이 존재감을 찾은 듯했다. (집을 장만한) 이후로 계속 행복하다.”(노르웨이, 30대, 여, 앙네스)

청년층이 이처럼 집 장만의 기쁨을 누리려면 대부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물론 앙네스처럼 본인이 의사이고 남편이 경제학 박사라 회사에 다니면 수입으로 대출을 갚아 가며 집을 장만할 수 있다. 하지만 앙네스의 경우에도 대출의 부담 때문에 전기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내 수입이 세전에 연 85만 크로나(약 1억 1200만 원)이고 남편은 90만 크로나(약 1억 1900만 원)이다. 세율이 36%인데 긴급환자가 발생하여 잔업을 하여 수입이 늘면 최고 세율인 40%를 내기도 한다. 주택 가격이 1250만 크로나(약 16억 4000만 원)였는데 800만 크로나(약 10억 5000만 원)를 대출로 감당했다. 내가 300만 크로나(약 3억 9700만 원)에 산 아파트가 운 좋게 450만 크로나(약 5

억 9500만 원)로 올랐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아파트가 있었다. 최근 3년간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그 전에 사서 운이 좋았다. 거기다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다행히 장만할 수 있었다.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모든 대출과 돈을 쏟아부어 주택 장만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지역이 인기가 좋아 힘들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믿는다.”(노르웨이, 30대, 여, 앙네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빌리암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집 장만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일부를 지불하고 내가 대출을 받고 나머지를 지불했다. 아파트 가격이 100만 크로나(약 1억 7600만 원)였다. 이 정도면 코펜하겐에서 정말 싼 것이다. 하지만 시골로 가면 싼 것도 아니다. 이게 대도시에서 사는 비용이다. 은행에서 60만 크로나(약 7900만 원)를 대출받았고 매달 3500크로나(약 61만 원)를 갚고 있다. 30년을 갚아야 한다. 아버지가 나머지 35만 크로나(약 4600만 원)를 내주었다. 누나에게도 똑같이 해 주었다. (만약 월세를 낸다면?) 매달 8000크로나(약 140만 원)를 내야 한다. 지금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 한 명이 살면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대출금을 갚아 가고 있다.”(덴마크, 20대, 남, 빌리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높은 돈을 벌고 있는 알프에게도 집을 장만하는 일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역시 내년에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이제 막 입사한 회사가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설 컨설팅 회사이다. 월급이 세전 70만 크로나(약 9250만 원)이다. 기본급 60만 크로나(약 7930만 원)에 보험, 전화, 주식, 보너스 등을 합한 것이다. 신입으로서는 (전체 봉급 생활자의 상위) 1% 이내의 임금이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집세를 절약할 수 있어 월급의 3분의 2를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하고 있다. ... 주택부금은 2만 5000크로나(약 330만 원)밖에 부을 수 없고 이미 다 채웠다. 세금 감면을 위해 주택부금을 들었다. 내 친구 대부분은 오슬로로 이주해서 적어도 1만 크로나(약 130만 원)를 월세로 내고 있다. 내년에는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가 신시가지에 집을 샀는데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첫 집을 살 때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다.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에 가서 “나 엔지니어예요” 하면 돈을 많이 빌려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정액 이상 빌릴 수 없다. 금융위기로 매우 엄격해졌다. 기본급의 5배 이상을 빌릴 수 없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350만~400만 크로나(약 4억 6000만 원~5억 3000만 원)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일 것이다. 이 정도면 50 제곱미터이다. 투 룸 원 베드이다. 도시 밖으로 가면 저렴하지만 나는 작은 집이라도 도시를 원한다. 어머니가 도와줄 것이다.”(노르웨이, 20대, 남, 알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욘도 회사를 운영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버지에게 기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후 살펴볼 노년층이 넉넉지 않은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유산을 남겨 주려고 하는 이면에는 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령 부모의 도움을 일부 받아도 청년층은 장기간 대출을 갚아 나가야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거나 향후 주택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생활은 정부가 교육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의학과 같은 특수한 분야의 경우 거의 무이자로 대여를 해 줘도 조들리기 마련이다. 고임금을 받는 엔지니어인 알프의 경우에도 식사는 회사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며 가끔 친구들과 음료를 마시는 것과 매년 여행을 가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직 학업 중이라 취업을 하지 않은 빌리암과 욘도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육비에 더해 생활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하기 위하여 노동이 허가되는 나이인 13세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빌리암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외의 소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덴마크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13세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15세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고 17세부터 유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에 1년 유학을 갔다 와서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지금도 자폐증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주에 2~3 일씩 일을 한다. 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6000크로나(약 100만 원)로 생활할 수 있다. 갚을 필요가 없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대출금도 있고 가끔 휴가를 가기 위해서 용돈을 벌어야 한다.”(덴마크, 20대, 남, 빌리암)

그래도 아직 미혼인 위의 세 청년(빌리암, 앙네스, 욘)은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거나 파트너와 동거를 하는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훨씬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앙네스는 부모가 대학교수인 중산층 엘리트 가정에서 자라고, 남편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고임금을 받는 의사지만 세금을 내고 주택 대출금을 갚고 나면 딸을 양육하면서 가구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 노르웨이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부부의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나게 만든 것이 소위 ‘뽀 세금(Bum tax)’에 대한 논란이다. ‘뽀 세금’은 환경보호를 목표로 가스 차량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세금으로 여러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일종의 통행세를 내는 것이다. 자동차 차단기가 내려가며 내는 굉음을 빗대어 ‘뽀’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세금은 환경보호와 과세 부담을 두고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앙네스처럼 일과 자녀 양육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외곽에서 시내로 통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주름살을 더하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앙네스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도로사용료와 공공주차장 사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세금이다. 2019년 1월부터 40% 이상을 내야 한다. 환경보호가 목적이라 전기차는 면세이다. 노르웨이가 미국 다음으로 전기차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택세는 차등 과세하지만 도로세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부과된다. 나는 오슬로 외곽에 살고 있어 하루에 5회 세금을 내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되어 선거 쟁점이 되고 있다. 전에 쓰던 차는 한 달에 약 1500크로나(약 20만 원)를 세금으로 냈고 약 3000크로나(약 40만 원)를 연료비로 지출했다. 전기차를 사용하면 한 달에 1200크로나(약 16만 원)를 지출한다. 문제는 전기차가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나는 다행히 어머니가 전기차를 사 주고 주차장도 있어 지출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나?) 계층에 관계없이 외곽에 살면 차가 필요하다. 계층보다는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아이가 셋이면 일반 노동자도 차가 필요하다. 큰 전기차는 물론이고 작은 전기차도 비싸서 구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중고 가스차를 사용하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며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노르웨이, 30대, 여, 앙네스)

인터뷰 사례만을 놓고 볼 때 복지사회인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중산층 청년층도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다. 특히 청년층은 월세나 신규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금에 대한 부담으로 “검소한” 혹은 “빠듯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아무도 높은 세금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향후 기술할) 노년층이 보여 주었던 복지사회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모두가 체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표출했고 높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앙네스조차 ‘봄 세금’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묻자 “부담은 되지만 세금은 괜찮아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고 좋은 취지니까”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처럼 두 복지사회 청년층의 체제의 정당성과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어떤 개념과 논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일까? 이들은 어떤 사회문화적 구성 과정을 거쳐 체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거나 혹은 적어도 공적 담론을 통해 그런 느낌을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이 과정에서 이들은 노년층과 어떻게 다른 시각과 논리를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해석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공적으로 유통되는 행복 담론은 이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삶에 대하여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② 자족감의 사회문화적 구성

(1) 자유, 평등, 정의로움으로 구성되는 복지사회에 대한 믿음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회가 왜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청년층이 여러 개념과 사례를 거론했다. 이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생각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것은 국가가 사회구성원에게 자유 혹은 자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믿음이다. 교육과 의료의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런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보편적 복지가 실제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지 혹은 이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들의 공적 담론은 이러한 논리적 이해가 공고한 집단적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노년층이 복지

사회의 구축을 자국의 역사적인 결과물로 이해하고자 한 것과 비교되게 청년층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의로운 철학의 구현이라는 점을 더 강조했다라는 사실일 것이다. 아래 알프의 말에서 그러한 신뢰를 엿볼 수 있다.

“나는 (노르웨이의) 제도를 믿는다. 거리에 살거나 곤란할 정도로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누군가 나를 돌보아 줄 것이라는 느낌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체제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체제는 (구성원을) 보호하고 돈을 주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노르웨이, 20대, 남, 알프)

알프와 유사하게 빌리암도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느끼는 안정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삶에서 느끼는 안정감의 원천을 사회보장과 연결 지었다.

“덴마크에 사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튼튼한 사회보장이 있다. 우리가 무너지면 정부가 우리를 잡아 줄 것이다. 해고를 당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를 의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유를 위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서 기꺼이 세금을 낸다. 내 자유를 위해서.”(덴마크, 20대, 남, 빌리암)

대학에 아직 입학하지 않은 윤은 기회의 측면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느끼는 사회의 평등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1년 반의 시간(gap year)을 주고 생각할 기회도 제공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대학 진학 관련 수업도 듣게 해 준다. 기회가 있는 사회이다. …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공립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능력이 있다면 무상으로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이 평등하지는 않아도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노르웨이, 10대, 남, 윤)

연구자가 만난 4명의 청년층은 이처럼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복지사회에 사는 만큼 여러 의무가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금은 당연히 기꺼이 내야 하고 스스로 자율적 결정을 통해 자유에서 오는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 말한다.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 진보적인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덴마크의 복지사회에 대해서 자국민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빌리암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10년 후 우파, 보수, 민족주의자가 국가가치를 좌우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 이민자 문제로 우파인 덴마크 인민당이 이민자에 대한 공포를 바탕으로 활용하여 뜻을 달고 항해하기 시작했다. 노동당과 사회주의 정당이 ‘인종주의’를 감춘 자유주의 정당에 밀리다가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우경화를 뒷받침하는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이후 가짜뉴스 이야기를 계속하였음.) 내 여자친구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의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우리는 좋은 세계, 좋은 계급 체계에 살고 있다. 젊은이 가운데 “6%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거나 “왜 내 돈을 뺏어 가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극히 소수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이 복지사회이다.”(덴마크, 20대, 남, 빌리암)

이들에게 자신이 복지사회에서 누리는 혜택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 금지나 환경문제와 같은 진보적 의제에 참여함으로써 정의로움을 보여 줄 수 있는 책무와도 연계되어 사고되었다. 청년층의 세대에 따른 특성일 수도 있지만 인권과 환경에 대한 이들의 남다른 관심은 복지에 대한 믿음이 다른 진보적 이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복지사회가 정의롭다는 믿음이 청년층의 이념적 지평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윤 역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청년층은 ‘봄 세금’ 때문에 차를 몰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난 우리가 여러모로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사람을 돕고,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좋은 체제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보다 이미 가스를 배출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 빙하가 녹는다고 노르웨이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다. (학교에서 환경문제를 가르치나?) 조금 가르친다. 주로 티브이와 인터넷에서 뉴스로 보았다.”(노르웨이, 10대, 남, 윤)

흥미로운 점은, 청년층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로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부모 세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는 세계사의 격변 속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생각도 단순했지만 자신들의 복지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관념에 대한 이해는 훨씬 시야가 넓고 복잡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더 진보적이라는 믿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부모 세대보다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빌리암과 앙네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부모 세대는 우리와 같은 지식 속에서 자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시하는 환경문제가 그때는 부각되지 않았다. 냉전 속에서 생활했고, 그들이 만든 물질적인 것들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랐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히피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때는 그런 자유가 전투를 통해 획득된 것이지만 우리 세대는 규범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 … 부모 세대에는 또한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구분되었지만 우리 세대에는 그 경계가 흐려지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세대이다.”(덴마크, 20대, 남, 빌리암)

“세대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젠더의 평등에 관련해서는 더 그렇다. 젊은 세대는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세대는 길거리 시위는 많이 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의(남녀평등의) 필요성을 덜 느낀 것 같다. 우리 부모 세대는 가부장적이었고 여성이 고등교육을 적게 받는 것을 당연시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부모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노르웨이, 30대, 여, 앙네스)

연구자가 만난 엘리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청년층은 이처럼 매우 진보적이었다. 자율적 결정을 위한 자유, 평등, 그리고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복지사회가 이런 정의로움이 가능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지사회는 정치적 실천을 통하여 정의로움을 확장시키고 확고하게 할 사회문화적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을 표출하고 싶어 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부모 세대보다 진일보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들이 이와 같은 주요한 개념과 논리

를 통하여 복지사회에 대한 견해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이 너무 공식적이고 관념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들의 삶의 물질적 조건, 일과 경쟁, 그리고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자유가 만들어 내는 상황이 이보다는 복잡하고 역설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자유에 대한 자족감의 물질적 토대와 역설

피면담자들 중에서 청년층은 공히 자유에 대한 자족감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조언을 듣긴 했지만 주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 만족감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도 덧붙이곤 했다. 특히 부모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삶의 주체로서 자유를 확인하는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 의사인 양네스 역시 자신이 직업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모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만족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알프 역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자유를 허락해 준 부모의 양육 환경 덕분에 자율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내 성적이 좋아 아버지가 의사가 되길 원했다. 나는 고려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버지의 뜻과 달리 오슬로의 수의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그래서 오슬로대학 심리학과에 진학한 다음 몰래 (폴란드에 있고 노르웨이에서 인증한) 의대에 지원했다. 지금은 매우 행복하고 부분적으로 나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 물론 부모가 그건 미친 짓이야 말하면 (어떤 결정을) 감히 안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모나 다른 사람이 선택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상적인 선택에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노르웨이, 30대, 여, 양네스)

“대학을 선택할 때 어머니의 압력은 없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는 부모는 없나?) 여기에서는 의사나 엔지니어의 수입에 큰 차이가 없다. 사회적 지위도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노르웨이의 부모는 다른 곳보다 덜 엄격하다. 부모는 아이

들이 자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기른다. 숙제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을 뿐이다. 내가 다른 과목은 썩 잘하지 못했는데 수학과 과학을 잘해서 공대에 들어간 것이다.”(노르웨이, 20대, 남, 알프)

하지만 이들이 이처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에 대한 신념이나 이를 존중하는 문화 덕택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층의 이러한 결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물질적, 제도적 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학비를 부모에게 받지 않고 (정부와의) 재정적 협약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받기 때문에”(앙네스) 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진로를 결정할 때는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물질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청년층 피면담자가 공통적으로 진술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행복하다는 주장도 사실은 직업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규범적 언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극단적 개인주의와 평등의 관념이 강한 이들 복지사회에서 직업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위계가 현저하지 않고, 직업에 따라 경제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점이 자율적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사회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은 진학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높은 학점을 받아 “좋은” 학교에 가고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바람과 경쟁이 이들 사회에서도 목격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사인 앙네스와 최고의 평판을 가진 건설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알프의 경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성적이 우수하지 못해 진학이 늦어진 빌리암이나 욘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알프와 욘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알프는 자신의 학창 시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상했다. 알프는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환경의 학교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의 평판으로부터 조금씩 무뎠다고 이야기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내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엘리트 명문 고등학교였다. 많은 친구들이 공학에서는 톱(top) 대학에 진학했다. 우리 대학이 과학으로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하다.

내 친구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 문화에서 자랐다. 물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외부로부터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다. 그런 압력을 어느 정도 받았다. (질투나 경쟁이 많았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경쟁이 있었지만, 일부 집단에서는 경쟁이 있었지만, 난 상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물어보고 그랬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보통 학생들은 조금 불안함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 (여기서도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있는가?) 물론 의사나 법률가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서도 큰 빌딩은 금융산업이다. 좋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한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면 멋있어 (cool) 보인다.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양복을 입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노르웨이, 20대, 남, 알프)

반면, 빌리암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규범이나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10년 후의 삶을 그려 본다면?) 흥미로운 일을 찾고 싶다. 돈보다는 자극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솔직히 아직은 결정을 못 했지만 환경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여러 곳에 스터디 잡(study job)을 지원했지만 실패했다.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이 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하려는 분야는 졸업하면 10% 정도만 일자리를 못 찾는다고 한다. 쳇바퀴(Hamsterjul; guinea pig wheel) 안에서 돌듯이 생활 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울한 삶이 아니길 바란다. 일자리를 얻고,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집을 얻고, 차를 사고. 이런 것이 충족되면 더 큰 집과 더 큰 차를 위해 일하고. 그러다 60~70세가 되어 무엇이 행복인지 꿈을 잃은 채 쳇바퀴 돌듯이 살아야 하나?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물질적인 것을 보면 그들이 계속 일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운동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덴마크, 20대, 남, 빌리암)

위의 대조되는 두 진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청년층 내부에서도 자신의 성취 경험에 따라 교육과 일자리 경쟁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물론, 이들의 성취도가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처럼 성공과 낙오라는 이분법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자본주의 도래 이후 서구 사회에 형성된 일에 대한 관념이 청년층에서 서서히 변하

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 준다. 하지만 이들이 복지사회를 이상적인 개념을 통해 구성할 때의 진술과는 비교되게 청년층의 자율적 결정과 자유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과 연계되어 있으며 물질적 토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사회 청년층의 삶에서 관념적으로 구성한 자유, 평등, 정의감 못지않게 물질적 조건이 만든 제약, 경쟁, 불평등이 행복과 불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이 복지사회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하면서 강조하는 권위의 부정과 자율적 선택의 자유에는 물질적 토대가 존재할 뿐 아니라 역설적인 상황도 함께한다. 이들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좁은 범위의 가족과 친지에 기초하여 한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역설은, 이들이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고 주변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좁은 범위의 가족, 파트너, 친구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재단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협소한 관계에 균열이 생겼을 때 강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가까운 가족, 애인, 친구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겨나고 앙네스가 인터뷰 중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관계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앙그네스)가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행복과 불행에 관해 질문했을 때 빌리암과 알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행복과 불행을 느낀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그들을 존중할 때가 행복한 순간이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졌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가장 불행한 것 같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인가를 의심할 때가 가장 불행했다. 3년 전에 재즈 기타를 배우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다. 너무 외로웠고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 괴로웠다. 결국 외롭고 불행해서 코펜하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덴마크, 20대, 남, 빌리암)

“2년 전인 대학 4학년 때 팔이 부러진 적이 있다. 진통제 같은 것을 먹고 그랬는데 조금 힘이 들었다. 트론헤임(Trondheim, 대학이 있는 도시)은 겨울에는 하루 1시간 태양이 뜨는 것 같은 곳이다. 침대에 누워서 오직 나와 나의 생각만이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 불행하고 외로웠다. 침대에 갇혀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용병이를 자신이 파고 있는 느낌이었다. 내 신체는 퇴락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신체가 점점 약해지면서 거기 누워 있는 느낌! 그때 너무 슬펐다.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솔직히 비슷한 순간을 경험했다. (잠깐 헤어진 사이에) 여자친구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강렬한 슬픔이었다. 이런 관계가 깨지면 인생에서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다. 어딜 가야 할지 의미가 무엇인지 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때에는 엄마 생각이 난다.”(노르웨이, 20대, 남, 알프)

이처럼 복지사회에서 이상적으로 구성되는 자유, 평등, 정의감 등의 이념과 사회적 신뢰는 물질적 토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이면에 여러 역설적 상황을 동반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만난 중산층 출신 청년층은 복지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표현하고 이를 여러 개념을 통해 구성해 내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이 복지사회를 이상적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할 때와는 다르게, 개인의 성취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에 관한 언급을 할 때는 여전히 삶의 물질적인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복지국가의 청년층은 물질적인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유의 역설을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을 평가하고 있었다.

다. 노인 대상 사례 연구

① 경제적 여건과 자족감

연구자가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노르웨이의 오슬로 인근을 참여관찰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복지사회(국가)에 사는 중산층 은퇴자를 면담하면서 다소 놀란 것은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예상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비싼 물가로 인한 외식의 자제, 허름한 차량, 시내의 화려하지 않은 아파트와 근교의 주택,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여가활동 등이 부유한 복지사회의 노년 중산층의 생활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노년층 피면담자 4명은 모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였는데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부부가 함께 연금이나 저축한 돈을 아껴서 소비하고 있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이 끝나

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비 지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는 노르웨이에서 대학교수와 덴마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다 은퇴한 헨리크와 엠마의 말에서도 각각 잘 드러난다.

“세금을 내기 전 연금이 (1년에) 18만 5000크로나(약 3억 2000만 원)이다.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연금만으로는 빈곤선 바로 위다. 저축이 있고 대출이 없으니 살 수 있다. 세금이 46%에 가깝다. 덴마크의 평균 임금이 50만 크로나(약 8800만 원)라고 한다. 내 연금은 그보다 훨씬 아래이다. 물론 대부분이 평균 임금 아래의 돈을 받고 있다. 아내가 3살 연상이라 연금을 일찍부터 내서(즉 연금개혁 전에 내서) 세금이 훨씬 적다. ... (생활비는?) 한 달에 3000~4000크로나(약 53만~70만 원)가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칫솔, 음식, 커피, 와인 등을 사는 데 3500크로나(약 62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학교수 연금이 그 정도인가?) ... 내가 65~67세까지 일했다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병으로 60세에 은퇴하여) 연금을 덜 받지만 빚이 없이 집이 있다. 토지세를 내지만 월세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게 다 수입인 셈이다. 저축도 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번 돈을 결코 다 쓸 수 없다.”(노르웨이, 70대, 남, 헨리크)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나?) 약간 받는다. 은퇴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못했다.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다. 하지만 괜찮다. 은퇴한 교사로서 살 만하다. 부모가 남겨 준 돈도 있고. (연금은 어느 정도?) 세후에 받아 잘 모른다.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사학연금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 사학연금을 많이 받으면 국가연금을 덜 받는다. 세후에 매월 약 1만 2000크로나(약 210만 원)를 받는다. 남편이 1만 7000크로나(약 300만 원)를 받는다. 이 중 1만 5000크로나(약 260만 원)를 대출금으로 상환한다. (은퇴하고) 3년 전에 코펜하겐으로 이주하면서 350만 크로나(약 6억 1500만 원)에 집을 구입했다. 핀(Fyn)에 있는 크고 현대적인 건축에 정원을 갖춘 집을 250만 크로나(약 4억 3900만 원)에 팔았다. 차액인 100만 크로나(약 1억 7500만 원)를 대출받았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100만 크로나가 있어 대출이 가능했다. 저축한 돈으로 사는 것보다 대출을 받는 것이 (남편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덴마크, 60대, 여, 엠마)

헨리크와 엠마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평가하면서 “덴마크에서는 큰돈은 없지만 살 만하다”는 이야기를 흔히 한다고 덧붙였다. 엠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복지사회

의 중산층 은퇴자가 “경제와 물질적 생활이 편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여건에 만족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복지사회에는 소수의 부유층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한스는 노르웨이 사회의 평등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정도가 높을 뿐이지 절대적인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복지국가(사회)인 노르웨이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 다른 국가에 비해 평등하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것이지 평등한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분화와 평등이 함께 존재한다. 노르웨이에 가난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 (그런 부자를 보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 나는 그런 부자를 잘 모른다. (부자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노르웨이, 60대, 남, 한스)

헨리크도 빈부격차를 언급했다.

“덴마크에도 빈부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상위 10%가 40%를 가지고 있다. 하위 50%가 아마 (전체 부의) 10%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매우 불균등하다. 상위 10% 중에도 1%가 나머지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을 술이나 마약에 쓰는 사람도 있다. 일부는 이런 사람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들의 잘못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토론거리이다.”(노르웨이, 70대, 남, 헨리크)

엠마 역시 덴마크의 이야기를 하면서 빈부의 차이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적은 대신 중산층이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인 교수도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에는 부자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이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중산층이다. 코펜하겐 북쪽, 질랜드(Zealand) 북쪽은 비싸고 여기에 살기는 힘들다. 경찰, 간호사와 함께 교사나 교수도 중산층이다. 큰돈은 못 벌지만 아파트를 구입하고 살 수 있다. 이곳(코펜하겐 북쪽)에는 작은 별장도 200만~400만 크로나(약 3억 5000만~7억 원)를 호가한다.”(덴마크, 60대, 여, 엠마)

그렇다면 이들은 부유층의 존재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일까? 적어도 이 연구에서 면담한 노년층은 부유층을 비난하거나 높은 세율을 통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극도로 삼갔다. 전자에 대해서는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후자에 관해서는 트리네의 표현대로 “같이 잘 사는 것이 정의(justice)”라는 인식을 내면화(internalization)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두 명의 은퇴한 대학교수인 한스와 헨리크의 말에서 그러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적어도 노르웨이에서는 부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행위를 속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엄청난 상속을 받지만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화려한 차나 하인을 두지 않는다. … 영국에 가면 그냥 빈곤을 목격할 수 있다. … 아프리카의 내 친구들은 하인을 시키지 않고 그런 일을 직접 하나며 웃는다. … 여기서는 빈곤에 대하여 배워야 알 수 있다. 부와 가난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노르웨이, 60대, 남, 한스)

“어떤 곤경인가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 교육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는 당신에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복지국가(사회)가 모든 이를 완전하게 돌볼 수는 없지만 뒤에 기대어 도와 달라고 할 수 있으면 된다. 세금이 바로 걷히고 바로 쓰이면 행복하게 지출할 수 있다. … (사회주의적 방식인가?) 아니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라고 하고 싶다.”(노르웨이, 70대, 남, 헨리크)

이처럼 양국의 노년 중산층은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 헨리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번 것보다 많이 쓰지 않으면 된다”는 소비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시적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분수에 맞게 여가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취미활동을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것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게 행복에 관하여 물으면

자신의 생애를 떠올리며 어떤 것을 언급해야 할지 망설이고 이내 가족이나 자신의 성취와 관련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언급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물으면 거의 대부분 만족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곤 한다. 자신의 물질적 조건에 맞게 만족하거나 적어도 만족감을 가지려 하는 것이 이들의 행복감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엠마와 헨리크는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운동을 매개로 한 사교 생활을 은퇴 이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다.

“매주 화요일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Amager)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림을 그린다. 3명의 은퇴자 그리고 20대 여성과 함께 간다. 한 명은 이라크 출신이고 20대 여성은 신상을 모른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장소를 정해 간다. ... 프랑스인인 며느리와 소통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불어를 배우고 새로 사귄 친구와 카페에서 불어로 대화한다. ... 건강을 위해 체육관(gym)에 가고 요가를 배운다. 은퇴 후 삶에 만족한다.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만족한다. 남편은 요가를 싫어해서 배구, 테니스, 카드게임 브리지(bridge)를 즐긴다. 은퇴 후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덴마크, 60대, 여, 엠마)

“유럽연합(EU)의 경제 등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다. 토론하는 소모임 활동이다. 정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두 EU에 찬성하지만 개선점이 많다고 한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 틀렸다. ... 한 달에 한 번 40~50명이 모여 자전거를 20킬로미터씩 타고 있다. 신체 운동뿐 아니라 사교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정치나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여러 집단과 어울릴 수 있어 편하다. (술과 담배는?) 과용을 경계한다. 와인 두 박스를 여러 주 동안 조금씩 마신다. (10년 후의 목표는?) 건강이 유지되어 이런 취미를 계속하는 것이다.”(노르웨이, 70대, 남, 헨리크)

수입보다 적게 분수에 맞게 소비한다는 노년층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생활에는 적어도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자연을 즐기는 여가생활의 요체로 일종의 별장을 갖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여름 별장(Casa Spodsbjerg)’, 노르웨이에서는 ‘히테(Hytte)’라고 부르는 휴식용 별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행복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물질적 공간으로 간주된다. 특히 히테는 노르웨이인에게 부의 정도에 따라 규모는 다르지만 가족이 함께 소유해야 할 공간으로 간주되며 그 결과 부의 성취와 사회

적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지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노년층 은퇴자에게 섬이나 산에 좋은 여름 별장이나 히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 노르웨이의 한스와 덴마크의 엠마도 이런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히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그럼 노르웨이를 모르는 것이다. 히테는 노르웨이인에게 행복의 물질적 조건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거기 가서 자신을 즐기는 공간이다. 일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하이킹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위도식하는 것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소한 중산층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공간이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두 번째 집이다. … (값이 비싼가?) 간단한 오두막부터 천문학적 가격까지 천차만별이다. 사람들은 기꺼이 히테를 위한 돈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히테를 두 개 샀다. 내 세 아들과 손주들이 함께 사용하며 세금이나 비용을 분담한다.”(노르웨이, 60대, 남, 한스)

“남쪽 끝의 팔스테르(Falster)섬에 ‘여름 별장’을 사 두었다. 코펜하겐 북쪽은 비싸지만 여기는 싼 지역이다. 약 30만 크로나(약 5300만 원)으로 싼 편이다. 비싼 지역은 200만~400만 크로나(약 3억 5000만~7억 원)를 호가한다. 여름이 되면 한 달에 2회씩 1.5시간을 이동하여 팔스테르섬에 도착한다. 여기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덴마크, 60대, 여, 엠마)

노년층이 명시적으로 의무감을 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 주는 관행은 이들의 경제생활에서 분수에 맞는 적절한 소비를 넘어선 또 하나의 목표이다. 이들 노년층은 모두 자신이나 반려자가 부모에게 현금을 받거나 별장을 물려받았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징세로 유명한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 아주 큰 액수가 아니라면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산층이 가진 몇 가지 바람 중의 하나가 유산을 상속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히테와 함께 유산 상속은 양국의 노년 중산층이 풍족하지는 않은 가운데서도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하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만을 두고 볼 때도 이들에게도 경제적 축적의 동기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왜 이들은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의 핵심이 물질적인 것과 연계되어 있지만 이것이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부를 세금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이 정당하고 효율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스가 언급한 “집단 이데올로기로서 평등과 정의”가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거쳐 구성되어 왔는지를 적어도 피면담자의 해석을 통해서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자족감의 사회문화적 구성

(1) 복지사회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삶에 대한 자족감

연구자가 면담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노년 중산층은 예외 없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선진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이 이와 연계되어 있다는 믿음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에게 체제와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 혹은 행복하다는 주관적 평가의 가능성이 더욱 큰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던져 보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설이 한정된 대상에 대한 단기간의 질적 조사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설은 이들이 자신이 속한 체제, 국가, 사회에 대한 믿음을 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주요 개념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논리를 통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가에 대하여 주목하게 만든다. 엠마는 정부의 모든 행정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렴도에 대해서만은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나는 작은 소녀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두려워 마라. 여기는 덴마크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한 기억을 지금도 믿고 있다. ... 정부를 믿는다.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도 정부가 멍청하다고 비판을 자주하지만 부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나에게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 정부는 병원과 학교에 돈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 하여 더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 (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나?) 없다.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낀다. 내가 가서 그림을 그리는 빌딩도 공동체에서 소유하고 있어 무료다. 같은 건물에서 음악 하는 아이들도 무료로 사용한다.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바빠 개선될 필요가 있고 정부가 하는 일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는 사회에 만족하고 어머니의 말처럼 안전하다고 느낀다.”(덴마크, 60대, 여, 엠마)

대학교수로 일하다 현재는 은퇴한 트리네는 복지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삶의 안정감에 대한 만족을 표현했다.

“개인의 가능성을 국가나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무료 접근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주는 것이 복지국가(사회)이다. 노르웨이는 기회가 주어지고, 번덕스럽고 마구잡이인 세상에서 예측 가능성을 준다. 안전망이 있는 것이다. 나의 집, 자산, 가정을 아무도 빼앗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가 행복감의 토대가 된다.”(노르웨이, 70대, 남, 트리네)

흥미로운 사실은, 노년층에게 자신이 만족하는 이러한 복지사회가 가능한 이유를 물으면, 앞서 설명한 청년층과 비교되게, 역사적인 설명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다. 다만 덴마크에서 만난 2명과 노르웨이에서 만난 2명의 역사적 설명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전자는 근대사에서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 했던 투쟁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노르웨이라는 민족국가가 형성된 오랜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덴마크의 피면담자 2명이 초등학교 국어 교사와 연구소에서 일한 핵물리학자이고, 노르웨이의 경우 피면담자 2명이 인류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교수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인터뷰 중에 공통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재를 역사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관념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의 주목을 끌었다. 우선, 덴마크의 헨리크와 엠마는 노동 환경에서 투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에는 협정이 있다. 노동조합, 정부, 다양한 종류의 고용주가 협정을 맺었다. 1899년이였다. 당시 우리는 다양한 직장폐쇄와 파업을 경험했고 사회가 붕괴 직전이었다. ... 그래서 우리는 이 협정이 깨질 때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싸움은 있지만 이 협정이 깨질 때까지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기본 생각은 이 협정을 만든 것이 정부가 아니라 정당들이라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어머니는 7학년에 중퇴를 했지만 평생 독서를 좋아했다. 그녀의 오빠가 빵집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노조 일을 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그 시절에 모금함을 들고 우리 집에 온 기억이 난다. 1950년대에 파업 기금을 모은 것이다. 그가 더 잘할 수 있었지만 1956년에 러시아의 헝가리에서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공산당을 탈퇴했다.

그 시절은 그랬다. 당신의 연구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용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던 시절은 그랬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있는 것이다.”(노르웨이, 70대, 남, 헨리크)

“30년을 같은 사립학교에 근무했다. 7~12세 학생에게 덴마크어 독해와 작문을 가르쳤다. 8시에 출근해서 오후 2~3시면 일이 끝났다. 6시간을 근무해서 학습 준비도 하고,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가족을 돌볼 시간이 있었다. … 지난해에 정부가 (교사의 노동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 위해) 학교를 직장폐쇄했다. 정부에 정말 실망했다. 집권당이 노동당이였다. 그래도 지난 8년간 집권한 자유당보다는 낫다. … 사회적 제도와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 중요한 것 같다.”(덴마크, 60대, 여, 엠마)

이렇듯 두 사람은 현재의 덴마크 사회가 부단한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고 국가와 고용주와 협상하고 타협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 헨리크에 따르면 “현재의 복지사회와 평등의 이념은 국가가 시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에 의해 획득한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근대적인 계급투쟁의 산물이라는 진보적 관점을 견지했다.

이와 비교하여 노르웨이에서 만난 두 은퇴한 사회과학자는 노르웨이의 민족국가가 형성되기까지의 독특한 역사가 현재의 평등, 자유, 그리고 정의를 구성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했다.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개인주의와 평등에 기초하여 자유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고 해석했다. 한스와 트리네는 관련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노르웨이에서 지금의 평등의식이 가능했던 것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역사적 조건 때문이다. 노르웨이 사람이라는 의식은 약 1000년 전에 생겨났을 것이다. 700~800년 전인 1300년대에 국가가 나누어졌지만 노르웨이인이라는 사고는 남았다. 이후 스웨덴, 덴마크, 독일에 식민화되었지만 이 생각은 남았다. 노르웨이는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100년이 조금 넘은 어린 국가이다. 이것이 동질감과 평등이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에야 국가로 독립했기 때문에 하나의 종족이라는 생각이 노르웨이인에게는 중요하다. 독립 후

35년이 지나 다시 독일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함께 속해 있다는(종족)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마셜 플랜(Marshall Plan)으로 국가의 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때를 더 뉴 레이버 데이(the new labor day) 또는 더 뉴 워킹 데이(the new working day)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이 다른 유럽 국가와 다르다.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중이라는 생각이 있다. 너무 ‘앵글로색슨계 백인 청교도(wasp)’ 같은가?”(노르웨이, 60대, 남, 한스)

“노르웨이는 우리가 모두 삶의 조건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지배한다. 평등하고, 유사하고, 같다는 생각. 우리가 가족이고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사회가 구성되고 있다. 누군가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족이 이익을 나눈다는 생각. 이는 노르웨이가 아래로부터 만들어진(bottom up) 것이고 귀족제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덴마크, 독일, 영국은 모두 귀족제에 기초해 있었고 투쟁을 통해 복지를 쟁취해야 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1200년 전에 귀족제가 일소되었다.”(노르웨이, 70대, 남, 트리네)

노르웨이에서 만난 이 두 사회과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노르웨이인이 유럽은 물론이고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도 가장 개인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의 문화에서는 “누가 나보다 낫지 않으며”(한스)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않는다”(트리네)는 것이 당연시되는 규범적 관념이다. “평등에 대한 집착도 여기서 나온다.”(한스) 다시 말해, 노르웨이에는 누구도 자신보다 나은 것이 없고, 그래서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이는 이 사회가 “극단적 개인주의에서 행복을 느끼는 문화”(한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의 역사에 정통하지 못한 본 연구자가 이러한 역사적 해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귀족제와 계급투쟁의 역사가 보다 두드러진 덴마크에서도 평등의 토대가 되는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현지에서 듣고 느끼면서 이것이 노르웨이만의 특징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어쩌면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전형적인 특징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설명에서 부인할 수 없는 점은 복지사회의 토대가 되는 평등사상과 정의감이 개인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엘리트 중산층 노인들이, 앞서 설명한 청년층과는 비교되게, 현재의 복지

사회의 바탕이 되는 자유, 평등, 정의에 대한 관념을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 또한 양국의 엘리트 노년층이 현재 사회체제에 대하여 만족과 동의를 표시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구성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2) 개인주의 그리고 약한 사회적 관계와 권위의 역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한 만족에 기초한 행복 관념의 구성은 노년층의 특수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청년층의 사례와 다르지 않게 노년층도 공히 개인주의에 토대를 둔 평등과 자유의 관념에서 만족과 행복감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들도 개인 사이의 평등과 개인적 자유가 보장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며 만족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방해하는 권위에 대한 저항감을 표시했다. 예컨대 한스의 말에서 그러한 개인적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잘 드러난다.

“우리(노르웨이) 사회는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형태로 근대국가가 만들어졌다. 보건부도 알코올 중독자를 줄이기 위해 아래로부터 만들어졌다. 엘리트가 만든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사회)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원들이 만드는 것이다. … 복지는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어 낸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국가로부터의 선물이 아닌 것이다. …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평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상대적 평등이 가능하다. 극단적 개인주의는 평등의 사고와 가치를 전제로 한다. 국가나 지배집단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때에 행복을 가질 수 있다.”(노르웨이, 60대, 남, 한스)

젊은 세대가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로 두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헨리크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젊은이들에게는 결정할 자유가 중요하던데?) 덴마크에도 자녀를 위한 야망이 큰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정당하지 않은 압력을 만들어 낸다. 나에게도 그런 압력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고 느끼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것이 좋겠

다”고 어머니가 말하고 “가지 않겠다”고 내가 말하는 식의 대화가 없었다. 좋은 가족, 내가 좋아하는 가족을 가지고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해지는 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행복의 핵심이다. 좋은 가족을 만들려면 서로에게 강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노르웨이, 70대, 남, 헨리크)

하지만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이와 같은 개인주의와 약한 권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조하면서도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무엇보다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한 젊은 세대의 권위의 약화, 무질서, 외로움에 대하여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극단적 개인주의가 행복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불행을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헨리크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사례로 들며 개인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단면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손주들이) 11살과 14살이다. 매우 독립적이다. “이걸 해도 되나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이야기하지만. … 내가 어릴 적에도 자유로웠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모에게 보고해라”고 하지 않았다. (당시는 지금보다 부모의 권위가 있지 않았나?) 아니다. 난 대학도 집에서 다녔지만 (권위 행사로 인하여) 부모와 갈등이 없었다. … 요즘 세대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한다. 하지만 (처가 쪽 인척 중에) 술에 취해 택시에 치여 죽은 아이도 있다. 죽은 아이의 집에 청소를 해 주러 갔더니 엄청난 먼지와 맥주병이 흩어져 엉망이었다. 사회적 의무감 없이 술만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 9월에 대학이 개강하면 1주일 동안 (일종의 MT로) 어디를 가는데 맥주를 많이 마시고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권위가 없다 보니 질서가 없고 문제가 생긴다.”(노르웨이, 70대, 남, 헨리크)

한스 역시 위계성이 약한 사회구조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노르웨이인은 위계를 다루는 데 서툴다. 이 점에서는 바보에 가깝다. 권위가 강한 것에 반발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쩔 줄 모른다. 이런 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극단적 개인주의를 취하다 보면 외로움에 직면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

라 삶을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 역설(paradox)을 이해하는 것이 이 나라의 행복을 이해하는 길이다. 자유와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약한 관계의 강함도 있지만 여기에서 기인하는 위험도 공존한다. 우리는 밀실공포증(claustrophobia)이 있다. 자신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는 대가족을 가지면 노르웨이인은 행복하지 않다. 복지국가(사회)를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해서 보는데 이는 물질적 조건만 보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자유 그리고 개인주의에 기인하는 외로움이 있다. 개인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보호하는 아프리카 부족사회와 다르다. 약물 남용과 자살이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노르웨이, 60대, 남, 한스)

한스의 주장대로 복지사회를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일면적인 것 같다. 복지사회가 개인주의에 토대를 두고 평등과 자유를 이상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으로 구성되는 복지와 행복에 대한 이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복지사회의 사회문화적 구성은 구성원에게 행복과 불행에 대한 역설적 경험을 하게 만드는 동전의 양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노년층이 해석하는 개인주의와 약한 권위로 특징되는 스칸디나비아 복지사회에 대한 기억이 균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애 내내 강한 개인주의와 약한 권위를 경험한 것처럼 진술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면담 과정에서 이들의 기억에 재구성 과정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가족의 권위에 대한 진술은 앞서 기술한 청년층의 부모 세대에 대한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무엇보다 여성 노년층이 개인주의, 평등, 자유, 약한 권위 등을 언급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드러내는 과거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언급과 배치된다. 엠마는 젊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가부장적 분위기를 아래와 같이 회상했다.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두 아이를 가졌을 때이다. (불행을 느꼈던 순간은?)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을 비롯해서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다. …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싶어 했다. (일종의 가부장주의?) 정확히 그거였다. (덴마크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약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가부장의 권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이 변했다. 내 아버지는 정말 가부장이었다. 아버지는 (결혼한) 이후에도 집을 살 때 “그건

너에게 안 좋아. 이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간섭을 했다.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 있다. (남편은 어떨까?) 남편은 훨씬 민주적이다. 나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 다만 남편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정치에 대하여 물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덴마크, 60대, 여, 엠마)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자유와 약한 사회적 관계와 권위를 토대로 복지와 행복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근대사에서 목격되듯이, 최근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 그리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권위의 약화는 비교적 최근에 강화된 현상이다. 특히 가부장적 권위의 약화와 여성의 권리 신장은 세계적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진척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의 노년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가 역사적으로 자유, 평등, 불합리한 권위의 배제 등의 이념을 내재적 특성으로 가져 왔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권위의 부정을 논리적으로 연계시키며 복지와 행복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하는 역설적인 측면과 함께 기억의 균열이 목격된다.

2. 개인적 수준에서 본 행복

가. 행복에 관한 역량 이론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92; 1999)의 역량 이론(capability theory)은 인생에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역량으로 규정하고 삶의 질, 빈곤, 행복을 정의할 때, 인간 개인과 사회 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이러한 선택의 자유로서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센은 가정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경제적 자원이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선 개인을 가구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소득이 높은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전업주부는 빈곤하지 않다. 하지만 역량 접근은 그 전업주부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그 소득을 쓸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역량 접근을 취할 때 돈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것으로 이루려는 자유, 즉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유이다. 만약 이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 쓰는 것이 제한되고 가사일에 집중해야 하므로 돈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여성을 빈곤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역량 이론의 시각이다.

이 연구에서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이란 공간을 이용하고 생산/재생산할 수 있는 자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공간적 역량은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이론에서 간과한 공간적 측면을 발전시킨 것으로 주거와 이동의 자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Shin, 2011). 이때 공간적 역량은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동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선택에 자유로움이 제한된다면 공간적 역량은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보육과 가사노동을 떠맡고 있어서 직장, 어린이집, 반찬가게로 다녀야 한다면 이때 일어난 이동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역량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간적 역량 접근에서는 제한된 공간적 역량에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는가도 중요하게 바라본다(Shin, 2011). 공간적 역량 관점은 이동이 사회뿐 아니라 가정 내 권력관계와 밀접하게 관계있고, 또 이동이 권력관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방면의 공간적 요건들을 제어하는 실질적 자유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부터 실천적 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Shin, 2011).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역량을 주요하게 생각할 때, 흔히 적응기호(adaptive preference)(Elster, 1983)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공간적 역량을 비롯한 역량을 확대해 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협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참가자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타협점을 찾게 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비록 개인이 자발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이 진행되어도 약자의 위치는 계속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shin, 2010). 그렇지만 이러한 협상에서 문제 해결 접근은 갈등을 중재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귀담아듣기와 같은 협상 기술을 연마하고 시간의 여유를 두고 협상에 임하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본다(Shin, 2010). 구조적 접근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본질적으로 갈등 상황에서도 합동의 집합적 이해관계 때문에 약자가 협력을 하게 되는 '갈등적 협력(cooperative conflict)'의 핵심적 단면을 묘사한

다(Sen, 1990; Shin, 2010, p. 355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적응기호 접근도 의미가 있는데, 선호나 선택 또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으로서 기호(preference) 표출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shin, 2010, p. 340).

적응기호는 행복, 특히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행복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구조적 문제, 즉 불평등, 불공정 때문에 개인의 행복이 위협받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의 두 가지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 불평등과 부정의에 싸워 자신의 처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경우다. 이때 개인은 스스로의 삶과 사회에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빠른 시일에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싸움을 지속하는 동안 느끼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현실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는 경우, 즉 적응기호를 발전시키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적응기호를 발전시키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로부터 자신의 행복감을 찾아 나서기 위함이다. 그 행복감을 긍정적인 효과로 보기 때문에 엘스터(Elster), 누스바움(Nussbaum)은 적응기호를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남는 한편,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전무한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현실을 이겨 내는 메커니즘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나. 청년 대상 사례 연구

① 직업과 삶의 방향에 관한 역량과 행복

코펜하겐, 오슬로 청년 피면담자들은 직업, 주택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주로 표현했다.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코펜하겐이 아닌 다른 소도시에서 자란 미카엘은 다른 빈곤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부모님에 비해 무척 운이 좋으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인식은 남을 돕는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그는 대학에서 국제개발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학원 졸업 이후,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된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덴마크와 같이 좋은 사회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에요. 불우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내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내 부모님은 자신들은 가지지 못했던 인생의 자유를 저에게 주었어요. … 만약 실업자가 된다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오히려 더 잘살 수도 있겠지만 난 그걸 못 견딜 거예요.”(덴마크, 20대, 남, 미카엘)

이 죄책감, 고마움, 사명감은 부모님과 자신의 삶의 비교에서 오는 듯했다. 그의 어머니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학문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부인과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래서 미카엘 부모님은 그가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가지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양육 과정에서 늘 그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카엘에게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은 삶의 큰 의미였으며 이는 미래의 직업과 매우 크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갭이어(gap year)를 가진 후 진학한 대학교의 전공이 맞지 않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1년을 보냈던 기간에 무척 불행했다고 했다. 그의 부모님은 늘 격려해 주셨고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찾아보라고 조언했으나 소파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이 주변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그때가 무척 끔찍한 듯 미카엘은 눈살을 찌푸리는 등의 표정을 보였다.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그에게 적응기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는 비판적이었다. 그의 친구나 미래의 자녀가 인생에서 크게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타협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조언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실제로 최근에 자기 고향 친구 중 한 명이 코펜하겐에서 원하는 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고향에 돌아가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미카엘은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포기하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그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포기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저는 그러한 행복은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덴마크, 20대, 남, 미카엘)

그러나 그는 그의 친구에게 그런 식의 의견을 얘기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그의 아들이라면 조금은 더 강하게 격려했을 거라고 했다.

직업을 가지는 사명감과 직업 선택의 자유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것 중 하나이다. 오슬로에서 의대생인 니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고 수학, 과학 등과 같은 과목에서 성적이 좋아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다. 니나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의 학생들은 야망이 있었다고 했다.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에 대해 니나는 변한 시대와 복지국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의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패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쟁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점수를 매겨서 경쟁적인 환경이 되었어요. 전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할까 봐 겁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요양병원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을 잘 벌지 못해요. 저축도 해야 하고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학만 나오면 되었는데 지금은 석사과정을 해야 해요.”(노르웨이, 20대, 여, 니나)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해 있으니 그렇게까지 직업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니나의 대답은 사회에 짐이 되기 싫다는 거였다.

“국가가 도움 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건 사회에 짐이 되는 일이고 사회의 규범을 거스르는 거예요.”(노르웨이, 20대, 여, 니나)

니나는 자신이 겪는 남녀 차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남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다. 니나의 부모님 세대는 남녀 구별 없이 직업을 대부분 가지고 (전업주부인 친구 엄마를 단 한 명 보았다고 한다) 그녀의 할머니도 일을 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공부를 하기 위해 가정을 뒤로하고 집을 떠나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 나나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대가 여성으로서 겪는 불평등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으나 이러한 가정환경으로부터 체득한 남녀 차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나도 가족과 친구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가족은 늘 있는 사람들이고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성의를 더 쏟는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족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조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물음에 나나는 먼저 싸우고 그다음에 타협할 것이라고 했다. 이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 같다고 했다. 적응기호를 발전시키는 그녀는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날 아끼지 않을까 봐 겁나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이다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과 동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밖에서 보면 중요하게 보이지만 팀에서 자신의 일이 중요하게 인정받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다의 상관이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이 그녀에게 불만족한 감정을 준다고 했다. 매니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건 이다의 잘못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어떻게 반응했냐는 연구진의 물음에 자신은 대꾸를 하는 편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덴마크에서는 주로 의견을 소리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다른 덴마크 사람들 혹은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하기도 해요.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문화거든요. 이런 의견 개진의 자유가 장점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덴마크, 20대, 여, 이다)

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덴마크의 문화라고 이야기한 이후 덧붙여 덴마크인들은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다는 그러한 덴마크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하여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것에 조심스러워했는데 그녀는

스스로도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그녀가 직업생활에서 느끼는 갈증과도 유관해 보였다.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의 업무가 대체로 책상에서 하는 일들이라며 실질적인 업무에도 관심이 있으나 기회가 적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며 계약이 끝나면 그러한 일을 찾아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상주의자로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이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 거의 모든 인생의 결정이 나에게 달렸다고, 어떤 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다는 개인적인 삶, 취미활동, 커뮤니티 정원(community garden, urban garden)을 가꾸는 일 등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삶의 영역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5년 이상 도시 공공공간에 채소를 심어 자연을 도시로 다시 가져오는 일을 여러 사람들과 매달 모임을 하면서 추진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활동을 전개했으며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이야기했다. 현재는 도시정원을 만들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소 물색과 예산 등에 대해 조언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다는 덴마크에 온 난민들을 위해 난민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난민들의 환경이 정말 나빴어요.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했어요. 저는 여기서 아이들과 놀아 주는 활동을 했어요. 이런 활동은 내가 정말 무언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그런 것이 저에게 행복감을 줘요. 나는 피부색으로는 그들과 다르고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여기지만요.”(덴마크, 20대, 여, 이다)

그녀는 삶에서 안정감, 커뮤니티 정신, 소속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다에게 주요 친구 그룹은 초등학교-고등학교 친구들이다. 그들은 푸드클럽 같은 것을 만들어 매주 한 번 약 10명의 사람과 식사를 한다. 모임의 출발은 친구들과하고만 식사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규모가 커져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30명가량이라고 한다. 그

외에 이다는 외국 친구들과하고 교류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마리아는 이다와 유사하게 덴마크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리아는 매우 직설적으로 ‘너무 덴마크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표현했다. 표현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덴마크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고 국가 안의 대내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강해요. 지금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고 하잖아요. 덴마크는 이런 문제에 나서지 않아요. 우리는 난민을 수용하지도 않지요.”(덴마크, 20대, 여, 마리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마리아는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며 정치인들이 환경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마리아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도 현실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 내는 데 있어서 장벽에 부딪칠 때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마리아 역시 직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국제기구 소속으로 남미에서 일을 하다 덴마크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근무 조건이 맞는 직장과 직업을 찾는 중이었다. 환경문제, 빈곤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그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덴마크에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 협동조합 주택에서의 생활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덴마크로 돌아온 이후 몇 달간 그러한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20대 피면담자들이 자신의 미래와 직업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즉각적으로 불행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고민거리가 진로 설정, 취직 등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면담자가 그런 걱정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이들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불행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미카엘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 가정의 모습, 직업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학부를 졸업한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기대의 수준 역시 높아진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미카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오히려 걱정거리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느끼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웠다. 이후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희망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걱정 역시 늘었지만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 냈을 때를 상상하며 오히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마리아 역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인터뷰 중에 했다. 구직에 힘쓰고 있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② 공간적 역량과 행복

20대 피면담자들은 코펜하겐과 오슬로에서 집을 구하는 것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코펜하겐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중인 미카엘은 2년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특별히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 집을 사고, 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바람은 앞서 그가 얘기한 야망과 삶의 기대와 맞닿는 점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자신이 여자친구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카엘에 따르면 코펜하겐과 그 외의 지역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 코펜하겐이 아닌 다른 곳을 통칭하여 아웃스커트(outskirt)라고 부르는데, 코펜하겐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가지기 위해 코펜하겐으로 이주하는 것은 진취적이고 반대로 젊은이가 코펜하겐에 가지 않고 고향에 머물러 있다면 뒤쳐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얘기한 그의 첫 번째 대학 중퇴와 두 번째 대학 진학 사이의 공

백기 1년은 바로 그 뒤처짐의 상징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다 코펜하겐으로 가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은 고향의 부모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큰 공포로 다가왔다고 했다.

미카엘에게 코펜하겐과 코펜하겐이 아닌 곳의 차이는 큰 의미가 있는 듯했다. 미카엘에게는 코펜하겐 외부에서 코펜하겐으로 온 사람이라는 점이 정체성의 큰 부분이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났는데 그에게는 고향 친구들의 존재가 무척 중요했다. 그는 코펜하겐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이나 클럽에 속해 있기보다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이 일주일에 서너 번이나 될 정도로 자주 만났다. 그의 친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는 따분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전공 얘기를 부모님에게는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것들, 자신의 공적인 삶과 분리되는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그의 고향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지만 그의 고향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척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오슬로에서 외대생인 니나도 오슬로에 사는 것이 특별한 의미라고 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슬로로 온다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룸메이트를 구해서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부모님이 사 준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생일 때 아파트를 렌트했을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직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택 가격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니나의 경우, 남자친구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은 운이 좋다고 했다. 니나는 남자친구에게 매달 돈을 내서 공동명의자가 될 때까지 갚을 계획이다.

로스쿨에 다니는 안나는 노르웨이에서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따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화는 부모가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우 역시 부모님이 오슬로에 살고 있고 본인도 오슬로에서 대학을 다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슬로의 집값이 비싸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혹은 유사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안나는 집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졸업한 이후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답했다. 이는 부모

님으로부터 독립해 살기 위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장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보조로 인해 그녀가 느끼는 주거의 선택권의 제약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게 체감되는 듯했다.

공간역량과 관련된 적응기호를 보여 준 흥미로운 사례는 20대 여성인 이다에게서 발견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 국제적인 이주를 많이 해야 했던 이다에게 공간적 역량은 이동과 주거 두 가지 다 중요했다. 1990년대 덴마크에서 태어난 이다는 3년마다 비단 유럽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대륙으로의 국제 이주를 경험하며 여러 나라에 살았다. 그녀는 가족의 잦은 이사로 자신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뺏겼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다의 엄마는 자녀들이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싫어 크게 불평하자 남편과 떨어져 살더라도 이다가 12살부터 18살까지는 덴마크에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안정감이라고 대답한 것과도 무척 큰 관련이 있어 보였다.

“3년 만에 올 때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느꼈어요. 덴마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에서 지내요. 내가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이미 핵심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여기 덴마크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 지금은 감사해요. 그때는 울며불며 불평했어요. 또 지난 3년 동안은 몇 달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했어요. [코펜하겐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 저자 주] (중략)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동안 너무 변화가 심했어요. 엄마가 아일랜드 사람이어서 아일랜드에서도 지냈고, 아프리카에서도 지냈고. ... 늘 새로운 생활, 새 친구, 그래서 안정이 나에게 중요해요.”

재미있는 점은 이다의 직업상 매년 6~9주 정도는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질문에 이다는 웃으면서 자기 형제들도 다 자신처럼 이동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다는 자신이 최근에 안정적으로 오래 정착할 수 있는 집을 가지게 되었다며 이로부터 큰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의 거주 생활이 무척 불안정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펜하겐의 주택 가격이 비싸서 저렴한 주택을 찾아다니느라 이사를 자주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서명을 하면 18살이 될 때 주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어서, 사람들은 부모가 아파트를 얻고 그중 한 방을 자식의 친구에게 렌트를 줘요. 그래서 전 많은 친구들의 부모님 집에서 렌트를 얻으면서 계속 옮겨 다녔어요.”(덴마크, 20대, 여, 이다)

이다는 협동조합 주택-집단적으로 얻은 주택-에 정착했다.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며 정원 등에 대한 집단적 결정을 한다고 한다. 이다 언니 친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협동조합에 들어서 다행히 긴 대기 명단에 있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아무도 날 내쫓지 않을 거예요. (한숨) 집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의 큰 결심이었어요.”(덴마크, 20대, 여, 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준 테아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20대 여성이다. 노르웨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과 대학원을 영국에서 졸업한 그녀는 본국으로 돌아와 오슬로에서 약 1년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 유학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참여했던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후 꼭 노르웨이가 아닌 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영국에서 학부 생활을 지내고 스코틀랜드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그녀는 영국에서의 생활에 무척 만족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장을 가질 때가 되었을 때,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1년 동안 구직을 했지만 ‘아마 내가 영국 사람이 아니어서’ 원하는 직업을 얻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더군다나 자신이 노르웨이로 돌아간다면 영국에서 만난 자신의 남자친구와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큰 고민을 했다고 한다. 구직활동을 접고 노르웨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지만 돌아왔을 때 오슬로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며 현재 이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테아는 직업을 가지게 되자 돌아오기를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특히, 걱정하던 연인 관계의 문제도 남자친구가 노르웨이에서 직장을 구해 현재 함께 살고 있다며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다고 했다. 테아는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것에 관해 고민하고 걱정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중략) 옛날에는 굉장히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미래가 정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지난번에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노르웨이, 20대, 여, 테아)

이러한 변화는 인터뷰 당시 그녀가 마주하고 있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났다. 인터뷰를 하던 날, 그녀는 자신이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났으며 3일 뒤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6개월간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 2주 전에 회사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그녀는 아직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감이 오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그러한 변화에 궁극적으로는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다와 유사하게 협동조합 주택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약 10년 동안 협동조합 주택에서만 살아왔다고 한다. 마리아는 현재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8명과 한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부엌과 식사 공간, 거실, 정원 등을 공유하고 개별 침실을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 생활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흥미롭게도 마리아는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덴마크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가족 간에도 굉장히 독립적인 편이에요. 부모의 건강 혹은 부양에 대한 책임을 자식이 지고 있지 않아요, 사회가 다 알아서 해 주니까요. (중략) 그렇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돌보는 것은, 나에 대한 책임은 나 혼자 져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협동조합 주택에서는 가사일도 함께하고 한집에서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어요. 만약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더라도 협동조합 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대신 그때는 여러 가족이 한 주택에서 살게 되겠죠.”(덴마크, 20대, 여, 마리아)

다. 노인 대상 사례 연구

① 직업과 삶의 방향에 관한 역량과 행복

코펜하겐과 오슬로에서 만난 노인 피면담자들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세대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쉽게 일자리를 구했다고 회상했다. 오슬로 교외에 살고 있는 티나와 존 부부의 경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직업을 찾는 데 크게 작용했다. 티나는 말했다.

“이탈리아에 6개월간 여행을 갔다 와서 전화했어요. 나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보스가 내일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때는 [1960년대]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쉽게 가질 수 있었어요.”(노르웨이, 80대, 여, 티나)

하지만 티나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녀 차별이었다. 은퇴 전에 티나는 오슬로 경찰서에서 범죄 증거사진을 찍는 일을 했다. 그녀는 당시에 노르웨이에서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식의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꽤 들었다고 회상했다. 티나는 사진사가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여성인 자신이 사진사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여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자 사진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여자 피면담자들이 모두 지금과 달리 그 당시 직업 선택에 있어 남녀 차별이 존재했다고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젊은 시절에는 남자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던 반면 여자들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더 싸워야 했다고 회상했다. 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대응 전략과 방법은 다양했다. 남녀불평등이나 부정부패에 어떻게 대응했냐는 연구진의 물음에 티나는 매번 이에 싸웠다고 주저 없이 얘기했다. 적응기호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적은 없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었다고 했다. 누군가 남녀 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비판하고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난 뒤 집에 돌아와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불편

해지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후회한 적은 없냐고 물었다. 티나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얘기했고 그 옆에서 남편인 존은 아마 그녀가 후회를 했다면 그렇게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거나 더 세게 나가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 거라고 말했다. 적응기호에 대한 질문에 티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편견에 대해서는 난 늘 저항했어요. 경찰서의 몇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직장에 서 파티를 할 때 남편이 왔는데 다들 놀랐어요. 내가 인종차별주의에 맞섰기 때문에 다들 남편이 흑인일 줄 알았는데 백인이었으니까. 거의 매번 저항했어요. (중략) 편법, 불법, 그런 더러운 세상에 사는 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항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야 했어요.”(노르웨이, 80대, 여, 티나)

그녀의 이러한 태도가 특별히 진보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자신의 여자 친구들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였다고 했다. 그만큼 당시 오슬로에는 편견이 존재했고 동시에 그것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다는 뜻이다. 티나는 나중에 직장에서 인종차별주의자와 불합리한 세 명을 상사로 두게 되어 그들과 싸우면서 5년간 버티고 62살(노르웨이에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이 되었을 때 그만두었다.

노르웨이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헤다도 비슷한 경우였다. “We must all be feminists”란 문구가 쓰인 옷을 인터뷰에 입고 나온 그녀에게 행복이란 자유, 특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유, 같이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유였다. 헤다도 어린 시절 여자는 얌전하고 의견이 강하면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고 했다. 노르웨이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자유를 무척 중요시 여기고 꽤나 그런 자유가 보장되지만 1960~70년대에는 사뭇 달랐다고 했다. 자신의 아이들이 어릴 때 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했다고 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과는 이혼을 했다.

은퇴를 하고 수도를 떠나 교외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많았다. 코펜하겐에서 약 40 km 떨어진 해안가에 살고 있는 파블로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파블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을 하던 40대까지는 코펜하겐 시

내 중심에 살았지만 회사를 미국의 다른 기업에 판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그의 집은 마당 바로 앞에 바다를 두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자신의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시내 중심과 아주 멀지도 않고 자연과 가까이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며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교외지역 다소 외딴곳에 사는 티나와 존은 은퇴 전 1994년에 이곳을 발견하고 이 집 대부분을 직접 지었다고 한다. 오슬로의 집을 팔았더니 충분한 돈이 생겼다고 했다.

“오슬로에 25년 동안 살았는데, 난 그게 너무 지겨웠어요. 우리 집을 팔고 여기로 왔지요. … 은퇴 후에 우리는 조금씩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시간은 점점 더 많고 움직일 에너지가 줄어들어 별문제가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낡은 집에 살면서 고치면서 살았어요. 새로운 걸 만들면서요. 그 과정과 결과가 좋았어요.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게 좋았어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나이가 들어도 좋아요.”(노르웨이, 80대, 여, 티나)

노인 피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표출했다. 이 시니어 피면담자들은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강조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걱정해야 했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했고 많은 일을 집안 안팎에서 하면서 피곤했다고 했다. 반면 나이가 드니 치아 문제, 다리 문제와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 새로운 어려움으로 찾아왔다. 특히, 다른 치료와 달리 치과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피면담자들은 불행한 순간으로 주변 사람들이 점점 죽어서 사라지는 것을 꼽았다.

티나는 다리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그녀는 성치 않은 다리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죽음처럼 그저 익숙해진다고 했다. 아들이 사는 스페인으로 1년에 2~3번 가서 여름을 거기서 지내기도 했다.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사랑? 연령에 따라 달라요. 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어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좋은 순간들이 많아요. 행복보다는 ‘만족하는 거’-이게 더 장기적인 대답이라고 봐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이 중요해요.”(노르웨이, 80대, 여, 티나)

불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꼽았다.

“기후변화? 손주들의 삶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인류가 멸망할까 봐요. 트럼프, 보리스 존슨, 푸틴… (한숨) 젊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해요. 희망을 막을 수는 없어요. 희망과 공포를 동시에 가질 수 있지요.”(노르웨이, 80대, 여, 티나)

이런 티나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녀의 남편인 존은 미국에서 이주한 자로서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이주자들이 이주 후에 행복할까요?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서 왔더라도 우린 알 수 없어요.”(노르웨이, 80대, 남, 존)

사회적 구조와 조건에 자신의 일상의 행복을 연결시키는 것은 공통된 태도였다. 코펜하겐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 라켈은 잘 마련되어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태어나 사는 것을 무척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어떤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행복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출산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죠. 행복은 그 이상이에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그런 게 행복이에요. 여기에서 살기 시작하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복지 시스템이 삶을 아주 안전하게 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신뢰해요. 그게 중요해요.”(노르웨이, 60대, 여, 라켈)

한 사례로, 라켈의 아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모든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받는다고 한다. 라켈은 이러한 복지 혜택 덕분에 아들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주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아들이 자신의 병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은퇴 후 자신의 고향인 코펜하겐 교외지역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한나는 빈부격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주로 만족하거든요.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게 큰 이유예요. 빈부격차가 좀 더 커지긴 했어요. 여긴 세금을 많이 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안 걸리기 힘들어요. 스위스로 보내거나 하지만 정부는 누가 그러는지 다 알아요. 연금을 받으면 그런대로 넉넉히 살 수 있어요. 코펜하겐 집값이 비싸지만 오래 살면 집값이 싸요.”(덴마크, 80대, 여, 한나)

한나는 무척 사교적이었고 친구들과의 교류, 협회 활동에 의미를 많이 두었다. 협회 활동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운동, 카드게임 등을 위한 거예요. 멤버십을 위해 돈을 내고요…. 그들이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활동 위주예요. 자기가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고 시간이 되면 가서 활동을 하고 맘에 안 들면 탈퇴하면 되지요. 나간다고 붙잡거나 그러지는 않아요.”(덴마크, 80대, 여, 한나)

한나는 개인적인 친구 교류의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미국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전화가 비싸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편지를 교환한 사람이 30명에 달했다고 했다. 학교 친구들을 지금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본다고 했다. 교사를 67살 때 은퇴했는데 뭘 할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카드, 운동, 북클럽 등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었고, 은퇴하면 그것에 더 시간을 많이 들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제 행복하냐는 질문에 한나는 이렇게 답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건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때문이에요. 남편, 손자들과 있을 때도 행복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지금 은퇴하고 육아, 직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덴마크, 80대, 여, 한나)

한나는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서로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 신뢰는 다른 노인 피면담자 라켈과의 인터뷰 중에도 언급되었다. 그녀는 어떤 신뢰를 뜻하는 연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남이 나에게 공격적이라거나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는 거예요. 경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 며칠 전에 마트에 갔는데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내고 자기에겐 돈 부쳐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부쳐 줄 거라고 믿는 거죠.”(덴마크, 80대, 여, 한나)

연구진은 노인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지 직접 관찰할 목적으로 오슬로 시내 중심의 한 교회를 방문했다. 교회에는 노인들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예배를 온 이들이 많았다. 오전 11시경 시작한 예배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끝났다. 예배가 끝난 이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가족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교회 안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다. 교회 건물 1층에는 테이블과 편한 의자가 여럿 마련되어 있었는데 예배가 끝난 이후 사람들로 북적였다. 교회 식당에서 약 40년 전에 노르웨이로 이주해 살고 있다는 한인 교포를 만날 수 있었다. 현재 73세인 그녀로부터 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교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그룹에서 사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인근에 사는 사람들끼리 오후 산책 모임을 만들어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② 공간적 역량과 행복

한나는 피면담자 중 가장 직업에 대한 자의의지가 약했고 직업, 이동, 거주 측면에서 적응기호를 많이 발전시킨 사례였다. 그녀는 굳이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결혼 전 몇 년간 할 일을 찾았다. 남편 직업 때문에 미국에서 몇 년 살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었다. 막내를 위한 어린이집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50년 전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했다고 한다. 게다가 남편 출장이 잦았고 평소에도 남편이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유 시간이 많아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너무 외로웠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노인 여성 라켈은 자신이 다른 부모들에 비해 개방적이고 모험적인 부모 아

래에서 컸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양육 환경으로 인해 라켈은 무척 활동적이었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주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14살 때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녀는 부모님의 집과 떨어져 기숙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코펜하겐에서 다녔다. 자신과 비슷하게 모험을 좋아하는 남편과 결혼한 라켈은 혼인 직후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호텔에서 일을 했다.

라켈은 자신이 젊었을 때는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나이가 들면서 (적응을 하는 것이) 나아지고 있어요. 젊었을 때의 나는 무척 고집이 섰어요. (중략)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말고 문제와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맞서 싸울 만한 일인가?’ 하고요.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나는 맞서 싸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옳을 수 있다는 걸 일과 삶으로부터 배웠어요.”(노르웨이, 60대, 여, 라켈)

그녀가 언급한 이러한 삶의 태도의 변화는 라켈 부부가 아르헨티나에서 덴마크로 돌아왔을 때는 경제가 불황을 맞고 있어 떠나기 전에 비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회상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다. 여러 차례 구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부부는 학교로 돌아가 지식을 쌓고 선생님이 되었다. 이후 라켈의 이주는 전처럼 역동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현재까지도 어른들을 위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오슬로의 한 노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60세 여성 헤다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직장에서 무척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며 업무를 위한 출장이 매우 잦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체력적으로 출장이 힘들 때도 있지만 출장을 다녀오면 이동시간까지도 업무시간으로 쳐 주기 때문에 돌아와서 쉴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진이 오슬로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당시 노르웨이는 곧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붐 세금(혼잡세(congestion tax)라고 부르기도 함)을 높이느냐 마느냐였다. 세금을 높이는 것에 대해 헤다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저는 출퇴근할 때 자전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동차를 가지고는 있지만 시내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중략) 높은 혼잡세를 매기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오슬로에서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자동차말고의 대안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전차, 지하철, 버스요. 공공 자전거도 있어요.”(노르웨이, 60대, 여, 헤다)

헤다는 적응기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역경을 마주할 때 타협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조합의 대표로서 계약직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등과 같이 직업 환경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현실과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헤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사람들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불평등은 그러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파 정치인들은 직업의 불평등, 혹은 누가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반대에 있죠. 그렇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들을 이해해야 해요. 그들에게 강요할 순 없으니까요.”(노르웨이, 60대, 여, 헤다)

적응기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헤다와 라켈에게 만약 그들의 자녀가 현실의 문제와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였을 때 어떠한 조언을 할지 물어보자, 이들은 우선적으로는 적응기호를 발전시키지 않는 쪽으로 조언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두 피면담자는 자신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겪는 삶의 문제가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졌고 빈부격차 등이 심해진 것을 들면서 상황에 따라 적응기호를 발전시키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제5절 소결

행복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개인 수준의 행복 결정 요인’과 ‘국가-사회문화적 수준의 행복 결정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여기서는 북유럽 2개 국가에 대한 행복 연구 검토와 함께 북유럽 2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일반 국민 면접조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 평균적으로 더 행복한지에 대한 거시적(국가-사회문화적) 요인과 미시적(개인적) 요인을 모두 살펴보았다.

개인적 수준에서 주관적 안녕에는 각종 조건과 이러한 삶의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인간의 심리적 반응은 대부분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행복은 성격 특성과 삶의 여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개인의 행복 기준점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 그가 삶을 영위하는 사회·환경적 요인, 그리고 의도적 활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행복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여기서는 북유럽 국가에서 특징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유럽 국가는 우리에게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높는데, 한국 역시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노르웨이와 덴마크보다 사회적 지원이나 선택에서의 자유도, 삶의 만족도와 같은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행복 요인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북유럽 2개 국가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방문하여 사회의 정치 제도 및 문화를 포함하는 거시적 측면의 특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인적 수준의 특성들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수(총 19명)의 인원만을 면접조사하였기 때문에 인구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 집중한 연구 대상자는 삶의 단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였다. 인터뷰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익히고 실천하는 광의의 문화가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는지에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경제적 조건의 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년 중산층은 “번 것보다 많이 쓰지 않으면 된다”는 소비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그들은 자신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게 행복에 관하여 물으면 자신의 생애를 떠올리며 어떤 것을 언급해야 할지 망설이고 이내 가족이나 자신의 성취와 관련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물으면 거의 대부분 만족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곤 한다. 자신의 물질적 조건에 만족하거나 적어도 만족감을 가지려 하는 것이 이들의 행복감의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노년 중산층은 예외 없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선진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족감이 이와 연계되어 있다는 믿음을 표출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체제와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긍심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다거나 행복하다는 주관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또한 국가가 사회구성원에게 자유 혹은 자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교육과 의료의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런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다. 청년층은 이처럼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복지사회에 사는 만큼 여러 의무가 뒤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금은 당연히 기꺼이 내야 하고 스스로 자율적 결정을 통해 자유에서 오는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 진보적인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에게 자신이 복지사회에서 누리는 혜택은 이민자에 대한 차별 금지나 환경문제와 같은 진보적 의제에 참여함으로써 정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책무와도 연계되어 사고되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복지사회가 정의롭다는 믿음은 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이념적 지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족감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조언을 듣긴 했지만 주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 만족감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도 덧붙이곤 했다. 특히 부모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삶의 주체로서 자유를 확인하는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 위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것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의 근원에서 선택의 자유, 즉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세대에 따라 삶의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다수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지나왔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삶의 결정의 순간에 어떠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것에 큰 행복의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은 데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문화적 배경을 떠올리게끔 했다.

덴마크와 오슬로에서 모두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것이었고, 노년 세대는 은퇴를 앞둔, 혹은 이미 한 시점에 인생에서 어떠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에 관심이 많았다. 공간적 역량의 관점에서 면담의 주요 화두는 주거였다. 대체로 주거 비용이 높은 코펜하겐과 오슬로에서 여러 연구 참여자들이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흥미로웠던 점은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사회제도의 보조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거시장 환경의 높은 장벽이 개인적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도가 작동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일상의 삶에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 7 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이 연구는 사람들의 ‘안녕’을 공공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물질적인 삶의 질 발전을 주관적·정서적인 삶의 질이 따르지 못하는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왜 충분히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로서 이 연구는 모두 3년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이며, 이 보고서는 그중 1년 차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2019년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행복과 삶의 질은 최근 학술연구 동향에서 점차 구분되고 있는데, 특히 전자를 주관적 안녕으로 정의할 경우에 명확해진다. 즉, 주관적 안녕으로서 행복은 만족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국민의 주관적 안녕 수준을 다양한 척도로 확인하고, 이를 연령대별로, 거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복의 조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평가, 행복을 떠올리는 단어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3장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으로 인식으로서의 행복에 미치는 물질적 조건의 영향은 개인적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개인의 특질, 성격에 따라 인식하는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인 조건과의 괴리의 근원을 파악할 근거를 남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심리적인 경향이 물질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연령대에 일관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4장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인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단순하게 경제적 수준으로 측정하는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삶의 영위 조건으로서 객관적 조건을 측정할 필요를 제시한다. 2020년에는 이렇게 한국인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어려움, 위험 경험으로서 물질적 조건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5장에서 다루는 국내 질적 연구 결과, 한국인의 ‘행복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복합 구성체’임을 확인하였다. 즉, 행복은 동일한 국가와 문화 내에서도,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해된다. 한국인이 이해하고 있는 행복은 단일 차원으로서 0점과 100점 사이의 척도이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의 이요인이기도 하며,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 요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다차원이기도 하며, 행복을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여 경험한 하나의 총량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행복의 개념을 다차원으로 이해할수록 정책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요소는 보다 복합적이게 된다. 즉, 단순히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서의 행복 증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내용이 포함되면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 직장에서의 경험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영위 방식을 차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외 질적 연구를,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북유럽 2개 국가에서 보편적 사람들(ordinary people)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국외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화에 목적을 두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척도, 행복과 불행의 인식을 조사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익히고 실천하는 광의의 문화가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드는지에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경제적 조건의 작용’을 파악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노인들은 체제와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긍심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거나 행복하다는 주관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 또한 국가가 사회구성원에게 자유 혹은 자율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교육과 의료의 복지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이런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국외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의 근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세대에 따라 삶의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다수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지나왔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삶의 결정의 순간에 어떠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것에 큰 행복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국내 질적 연구에서 확인한 ‘조건의 조건의 조건’과 같이 행복을 위한 선순환의 조건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도 우리 국민이 행복을 떠올리는 단어로써 ‘가족/가족적인’과 ‘건강/건강한’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주변 사람의 행복에 대한 측정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나’ 자신 외에도 가족, 관계망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행복 증진의 경로는 개인의 발전보다는 집단의 발전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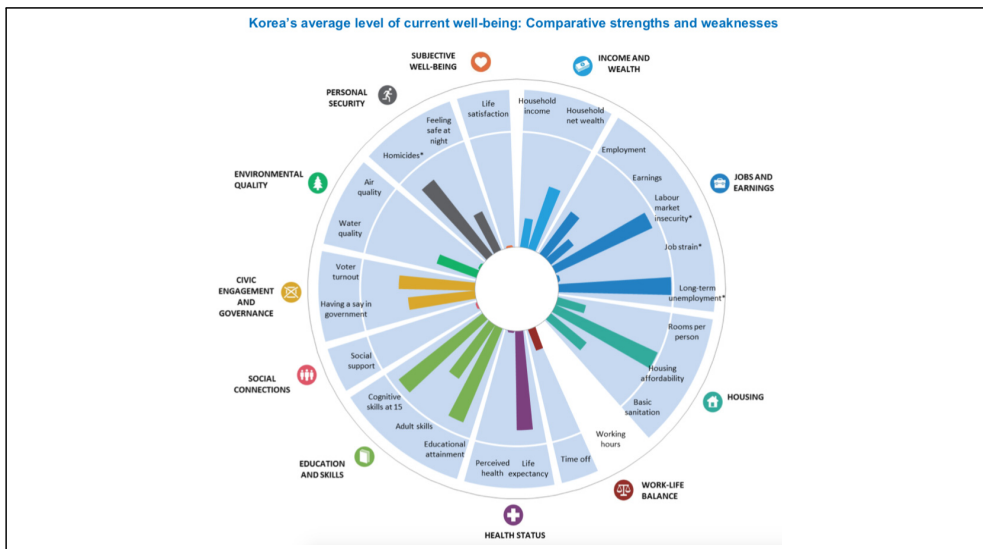
제2절 정책 제언

최근 정부는 여러 계획 또는 전망 제시에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18), 기획재정부(2018)의 ‘재정동향과 정책 방향’에서 삶의 질 지수를 정책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삶의 질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두 요소로 구성되는데, 정책 목표를 제시함에 있어 주관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이에 따라서 주관적 안녕, 만족도도 개선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질의 두 측면, 즉 물질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불일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보여 주는 특징이라면 주관적 삶의 질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몇 가지 사실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 증진의 요소는 다차원적이므로 부족한 요소에 집중하여 개선하고자 노력

해야 한다. 행복을 어떠한 단일의 요소로 접근한다면 더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은 국민에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그렇지만 행복을 평가하는 요소가 다차원적이므로 정책적으로는 보다 취약한 지점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지점에서 특히 취약한지 알고 있다. 예를 들어,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특히 취약한 객관적 측정 영역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의 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약 지점을 각 개인과 집단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1] 한국의 웰빙 수준: 강점과 약점



자료: OECD, (2017). How's life? 2017, OECD, p. 262.

둘째, 행복을 촉진하는 정책 지향에서의 변화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어야 한다. 그 간 복지적 측면에서 행복에 대한 접근은 개인이 어느 정도로 물질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을 갖지 못한 박탈 상태에 있는지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자원 동원 수준에 주목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이 개인, 가족, 집단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행복 인식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취약한 개인 외에도, 집단·지역별로 삶의 질 제고를 정책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광범위하게는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인구집단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지역 단위에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정책의 개입 지점은 ‘조건의 순환’,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어떤 요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삶의 질에서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년, 노인과 같은 인구집단 외에도 불안정 노동자, 자영자를 포함한 비정형 노동자의 삶의 질 실태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넷째, 이상의 실태 파악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자료 구축을 제안한다. 시계열적으로 광범위한 수준의 자료 구축은 한국인의 행복 인식 지형이 과연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횡단면적으로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중 전자의 자료 구축은 기존 수집된 연구자료의 수집과 재구성으로 해결될 것이지만, 후자의 자료 구축은 명확한 목표 의식을 세우고, 통용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실태조사의 측정 도구 중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부터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특정 인구집단 중 노인의 낮은 행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노인(70세 이상 노인)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모집단의 연령을 확대하였다. 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 노인의 행복 수준이 60~69세 노인의 행복 수준보다 더 낮았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에 대한 조사가 7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행복 수준은 실제로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고령 노인이 경험하는 낮은 주관적 안녕은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을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9년의 연구는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행복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체적 정책 대안의 제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은 생애주기별 위험 경험과 이에 대한 개인 및 제도의 대응 방식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2020년 연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행복, 주관적 안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이 연구의 의의도 명확하다. 한국인이 인식하는 행복의 체계, 개념이 단순하지 않으며,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 건강, 원하는 일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다차원적인 삶의 질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정책 대안 개발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문헌

- 곽인숙. (2013). 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1), 1-16.
- 국민복지기획단. (1995).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 서울: 국민복지기획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긍정 심리학의 관점. 서울: 학지사.
- 권지성, 이현주. (2013).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행복의 의미와 조건.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0, 57-98.
- 권지성. (2018).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 맥락-패턴 분석 방법: 은밀한 맥락을 찾아서. 서울: 학지사.
- 기획재정부. (2018). 재정 동향과 정책 방향. 세종: 기획재정부.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박이택, 김성아. (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경. (2011). 대학생의 행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0), 1-34.
- 김성아, 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70, 95-104.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재우. (2017). 한국인과 일본인의 주관적 행복: 생애주기별 결정요인 비교. *한국사회학*, 51(4), 1-46.
- 문영찬. (2016). 세계관과 변증법적 유물론 (13). *정세와노동*, (121), 17-34.
- 박선희, 김정. (2015). 독거여성노인의 행복감 경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4), 393-402.
- 박아연, 강민아, 김경희, 정해식, 최현수, 신지영, 안민영. (2018).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

- 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2003). 한국인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 경제, 사회적 요인인가? 사회 자본의 산물인가?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691-705.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213-232.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신희진, 김증임. (2019). ERG 이론에 근거한 한국 중년여성의 행복에 관한 구성요인 도출 연구. *Korean J Women Health Nursing*, 25(3), 315-328.
- 안주엽, 이경희, 길현종, 오선정, 김주영, 김종숙, 김난숙. (2015). 일과 행복(Ⅰ).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 양재진, 이호연, 이정주. (2016).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75-102.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윤홍균. (2016). 자존감 수업. 서울: 심플라이프.
- 이인정, 최해경. (199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 이재완, 강혜진. (2018). 위라벨과 삶의 만족: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 년~ 2016 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66(3), 5-42.
- 이하나. (2018). 한국 대학생의 행복감 개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1), 357-369.
- 이현근. (2016). 노르웨이 시민교육,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9(2), 115-139.
- 전성숙. (2017). 노인이 지각한 효도와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인천.
-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서울: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 정해식, 강신욱, 김동진, 김성아, 강미나, 김지혜, ... , 김종호. (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성아. (2019). 한국인의 행복: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영향 분석. *사회복지정책*, 46(1),

- 185-213.
-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복지국가와 국민 행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조병구, 이명균, 이용수, 김옥, 박명호, 박찬열, ... , 민인식. (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최인철, 최종안, 최은수, 이성하, 김남희, 이서진, ... , 권유리. (2019). About H 한국 행복보고서 2019. 경기: 21세기북스.
- 통계청. (2008). 공간통계정보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6). 2014 생활시간조사 이용자 가이드라인, 대전: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제11차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생 설문지.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행정안전부. (2018).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서울: 행정안전부.
- 허명희. (2012). R을 이용한 사회네트워크분석 입문 (개정판), 경기: 자유아카데미.

국외문헌

- Argyle, M. (1989). *The Social psychology of Work*, 2nd Ed. London: Penguin.
- Barth, F. (1969). *Pathan identity and its maintenance*. Bergen: Universitets Forlaget
- Bavetta, S., Maimone, D., Miller, P., & Navarra, P. (2017). More Choice for Better Choosers: Political Freedom, Autonomy, and Happiness. *Political Studies*, 65(2), 316-338.
- Beck, W., Keizer, M., van der Maesen, L. J. G., & Phillips, D. (2001). *General paper on behalf of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the network 'Indicators social quality'*. Amsterdam: 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 Berger-Schmitt, R., & Noll, H.-H. (2000). Conceptual Framework and Structure of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EuReporting Working Paper*, No.9.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
- Biswas-Diener, R., Vittersø, J., & Diener, E. (2010). The Danish effect: Beginning to explain high well-being in Denmark.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229-246.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 Bliss, C. (1993). Life-Style and the Standard of Living. *The Quality of Life*(pp.417-436). Oxford: Clarendon Press.
- Campell, Angus, Philip E. Converse, & Rodgers, Willard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ntril, H. (1965). *The Patterns of Human Concerns*.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Chandra, K. (Ed.). (2012). *Constructivist theories of ethnic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A. E., &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104(424), 648-659.
- 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 385-396.
- Crompton, R., & Lyonette, C. (2006). Work-life 'balance' in Europe. *Acta sociologica*, 49(4), 379-393.
- Cummins, R. A., Eckersley, R., Pallant, J., Van Vugt, J., & Misajon, R. (2003). Developing a national index of subjective wellbeing: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2), 159-190.
- Dea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doi:10.1257/jep.22.2.53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pp. 185-218). MA: The MIT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3), 542-57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doi: 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2009).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Well-Being*(pp.11-58). London: Springer.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 63-7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olan, P., Peasgood, T., & White, M.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94-122. doi: 10.1016/j.joep.2007.09.001
- Dunning, D., Leuenberger, A., & Sherman, D. A. (1995). A new look at motivated inference: Are self-serving theories of success a product of motivational fo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58-68.
- Dweck, C. S. (1975). The role of expectations and attributions in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674-685.
- Dweck, C. S. (1975). The role of expectations and attributions in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74-685.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pp. 89-125). NY: Academic Press.
- Easterlin, R. A.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0(19), 11176-11183.
-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2012). *Initial investigation on the data from the Quality of Life Survey FY2011*.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 EIU. (2018). *Democracy index 2018*.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Elster, J. (1983). *Sour grapes: Studies in the Subversion of Ra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y, B. S. &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jters, P., & Beat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2), 525-542. doi: <https://doi.org/10.1016/j.jebo.2012.03.008>
- Frijters, P., & Beatton, T. (2012). The mystery of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ag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2(2), 525-542. doi: <https://doi.org/10.1016/j.jebo.2012.03.008>
- Gallup. (2014). *State of Global Well-Being: Results of The Gallup-Healthways Global Well-Being Index*. New Mexico: Gallup.
- Gallup. (2018).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New Mexico: Gallup.
- Gerlach, M., Farb, B., Revelle, W. et al. (2018). A robust data-driven approach identifies four personality types across four large data sets. *Nature Human Behaviour*, 2, 735-742. <https://doi.org/10.1038/s41562-018-0419-z>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Grover, S. & Helliwell, J. F. (2019). How's Life at Home? New Evidence on Marriage and the Set Point for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2), 373-390. doi:10.1007/s10902-017-9941-3
- Hellevik, O. (2003). Economy, values and happiness in Norwa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3), 243-283.
- Helliwell, J. F. & Wang, S. (2013). Weekends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6(2), 389-407.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2018). *World Happiness Report 2018*.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WCC). (2014).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4*. Lausanne: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 Inglehart, R., & Klingemann, H. D.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pp. 165-183). MA: The MIT Press.
- Kahneman, D. & Deaton, A.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107(38), 16489-16493.
- Kahneman, D. &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doi:doi:10.1257/089533006776526030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DRM). *Science*, 306, 1776-1780.
- Kahneman, D., Wakker, P. P., & Sarin, R. (1997). Back to Bentham? Explorations of Experienced Ut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375-405.
- Kohler, H. P., Behrman, J. R., & Skyttke, A. (2005). Partner+children=happiness? The effects of partnerships and fertility on well-be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3), 407-445.
- Lachman, M. E., & Weaver, S. L. (1998). The sense of control as a moderator of social class differences i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63-773.
- Leontiev, D. (2012). Anthropology of happiness: The state of Weil-Being and the way of joy. *Social Sciences*, 43(2), 93-104.
- Lucas, Robert E. Jr. (1981). Discussion of: Stanley Fischer,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Costs of Inflation: II."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Choice*, 15, 43-52.
- Mastekaasa, A. (1994).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previously married: The importance of unmarried cohabitation and time since widowhood or divorce. *Social Forces*, 73(2), 665-692.
- Meier, S. & Stutzer, A. (2006). Is volunteering rewarding in itself? Center for Behavioral Economics and Decision-Making.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 Meier, S., & Stutzer, A. (2006). Is volunteering rewarding in itself? Center for Behavioral Economics and Decision-Making.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doi:10.1111/j.1467-9280.1995.tb00298.x
- Nussbaum, M. C. (2001).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A spotlight on youth*.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Paige, J. M. (1983). Social theory and peasant revolution in Vietnam and Guatemala. *Theory and Society*, 12(6), 699-737.
- Polanyi, K., & MacIver, R. M.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Vol. 2, p. 145). Boston: Beacon press.
- Popkin, S. L., & Popkin, S. L. (1979). *The rational peasant: The political economy of rural society in Vietnam*. Univ of California Press.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doi:10.1086/209304
- Ringen, S. (2010). Democracy in Norway. *Taiwan Journal of Democracy*, 6(2), 43-55.
-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 93-117.
- Scheier, Michael F., & Carver, Charles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 Schoon, I., Hansson, L., & Salmela-Aro, K. (2005). 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ed and divorced men and women in Estonia, Finland and the UK. *European Psychologist*, 10(4), 309-319.
- Schoon, I., Hansson, L., & Salmela-Aro, K. (2005). 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ed and divorced men and women in Estonia, Finland and the UK. *European Psychologist*, 10, 309-319.
- Scitovsky, T. (1992). *The Joyless Economy: The Psychology of Human Satisf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J.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Subsistence and rebellion in Southeast Asia*. Yale UP (New Haven).
- Seligman, M. E. P., Reivich, K., Jaycox, L., & Gillham, J. (1995). *The optimistic*

-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 Sen, A. (1987). *Gender and cooperative conflicts*. Helsinki: Wider.
- Sen, A. (1990). Gender and cooperative conflicts, In I. Tinker (Ed.) *Persistent Inequalities: Women and World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 (1999). *Freedom as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in, H. (2011). Spatial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Gendered Mobility for Korean Christi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48(11), 2355-2373.
- Stevenson, B., & Wolfers, J.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9(1), 1-102.
- Stevenson, B., & Wolfers, J.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598-604. doi:10.1257/aer.103.3.598
- Stoebe, Wolfgang, & Stoebe, Margaret S. (1987). *Bereavement and Health: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nsequence of Partner Lo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in, N. (2005). *Happiness and the sad topics of anthropology*. In WeD Working Paper 10 ESCR. Research Group on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 UNDP.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Sustainability and Equity: A Better Future for All*.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 (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Beyond income, beyond averages, beyond today: Inequalities in hum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Volume I: Comprehensive Tables (ST/ESA/SER.A/399)*.
- Vanassche, S., Swicegood, G., & Matthijs, K. (2013). Marriage and children as a key to happiness?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children on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2), 501-524.
- Wolf, E. (1969). *Peasant Wars of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Harper & Row.
- Zapf, W. (1984). Individuelle Wohlfahrt: Lebensbedingungen und wahrgenommene

Lebensqualität. In W. Glatzer & W. Zapf (Eds.), Lebensqualität in der Bundesrepublik (pp.13-26). Frankfurt: Campus.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2019a).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6%89%EB%B3%B5#none>에서 2019.12.31. 인출)

국립국어원. (2019b).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D%96%89%EB%B3%B5%ED%95%98%EB%8B%A4>에서 2019.12.31. 인출)

국립국어원. (2019c).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64068&searchKeywordTo=3에서 2019.12.31. 인출)

국립국어원. (2019d).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5%88%EB%85%95>에서 2019.12.31. 인출)

통계청. (2018). 인구동향조사- 월.분기.연간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통계)(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3에서 2019.3.20. 인출)

통계청. (2019a). 국민 삶의 질 지표(<https://www.index.go.kr/unify/idx-list.do?clasCd=8&pagenum=1>에서 2019.11.12. 인출)

통계청. (2019b).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주요 용어 설명(<https://sgis.kostat.go.kr/view/board/expAndNoticeStatsWord>에서 2019.4.12. 인출)

통계청. (2019c).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contents/shortcut/shortcut_05_02.jsp에서 2019. 04. 04. 인출)

통계청. (2019d). KOSIS 국가통계포털/인구·가구·장래가구추계(2015년 기준) (<http://kosis.kr/index/index.do> 에서 2019.04.13.인출)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year=>

2020에서 2019.11.11. 인출)

OECD. (2019). Family Database-Total fertility rate. (<https://stats.oecd.org/>에서 2019.11.25. 인출)

데이터베이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원자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b). 행복과 삶의 질 학술연구 초록 DB.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c).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인터뷰 스크립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nglehart, R., Haerpfer, C., Moreno, A., Welzel, C., Kizilova, K., Diez-Medrano, J., ... , Puranen, B.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All Rounds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L.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2019. 2.25. 인출]

신문기사

임영열. (2018.1.4.). 박지만부터 ‘눈물의 비디오’까지, 참 특별한 ‘58년 개띠’, <http://www.ohmynews.com>에서 인출.

주경철. (2009.7.10). 주경철의 히스토리(15): 행복(幸福). <https://news.chosun.com>에서 인출.

부록 1.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가중치 산출 보고서

가. 표본 설계

(1) 집계구 분석

“기초단위구(Basic unit district)”는 도로, 하천, 철도, 산능선 등의 준항구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도상에 구획한 최소 단위 구역으로(통계청, 2019b),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등 정보를 포함하는 센서스 통계를 추출함으로써 표시하는 지리정보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의 지리적 경계이다. 준항구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므로 변화가 적은 일상생활권에서 나타나는 현재까지의 추이를 통해 미래를 추정할 수 있다.

“집계구(Output Area)”는 기초단위구를 기반으로 인구 규모(최적 500여 명)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특성(주택 유형, 지가)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구축한 최소 집계 구역으로(통계청, 2019b), GIS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위이다. 집계구는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행정동 단위를 통계자료의 최소 공표 단위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구가 몇 만 명에 이르는 경우 동질적인 지역 구분 단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통계의 정밀 작성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통계 집계 공표 구역, 즉 집계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통계청, 2008, p. 76). 통계청에서는 「공간통계정보 데이터 모델 표준개발」 연구 등을 통해 집계구 획정의 근거를 마련했다(통계청, 2008). 즉, 집계구 획정 알고리즘을 구축하여 실제로 전국 단위의 집계구를 획정하였고, 이를 통해 작은 지역 단위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2017년 현재 전국을 아우르는 집계구는 총 10만 3990개에 이른다. 집계구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2만 5304개로 전체의 24.3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이 1만 9253개로 18.51%이다. 세종은 562개로 집계구가 가장 적으며, 다음은 제주도로 1382개의 집

계구를 가지고 있다.

〈부표 1-1〉 지역별 집계구 분포

(단위: 명, %)

지역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백분율
서울	19,253	18.51	19,253	18.51
부산	6,922	6.66	26,175	25.17
대구	5,001	4.81	31,176	29.98
인천	5,907	5.68	37,083	35.66
광주	3,046	2.93	40,129	38.59
대전	3,074	2.96	43,203	41.55
울산	2,336	2.25	45,539	43.79
세종	562	0.54	46,101	44.33
경기	25,304	24.33	71,405	68.67
강원	3,170	3.05	74,575	71.71
충북	3,236	3.11	77,811	74.83
충남	4,407	4.24	82,218	79.06
전북	3,763	3.62	85,981	82.68
전남	4,170	4.01	90,151	86.69
경북	5,499	5.29	95,650	91.98
경남	6,958	6.69	102,608	98.67
제주	1,382	1.33	103,990	100.00

자료: 통계청. (2019c).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contents/shortcut/shortcut_05_02.jsp)에서 2019. 4. 4.)를 이용하여 작성함.

(2) 추계 가구 및 인구 분석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79세 인구는 4138만 3433명이다. 이 중 남성은 2092만 1988명, 여성은 2046만 1445명이다. 지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에 800만 1324명이 거주하며 부산에 279만 4783명, 대구에 197만 1016명, 인천에 237만 3840명, 광주에 117만 8333명, 대전에 121만 4077명, 울산에 93만 2231명이 거주한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2019년 추계 인구 분포는 〈부표 1-2〉에 정리하였다. 2019년 추계 가구 분포는 〈부표 1-3〉과 같다.

2019년 현재 전국의 1인가구 수는 590만 7077가구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0만 9379명, 경기도가 121만 2586명, 부산 40만 5200명 순이다. 지역별 연령대별 2019년 1인가구 분포는 〈부표 1-4〉와 같다.

〈부표 1-2〉 지역별 성별 연령별 추계 인구(2019년) 분포

(단위: 명)

지역	남성								여성								합계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계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계	
서울	53,325	721,794	770,802	761,783	748,214	553,084	297,380	3,906,382	51,669	745,081	760,742	770,528	796,308	616,417	354,197	4,094,942	8,001,324
부산	19,764	243,416	232,147	256,246	276,221	230,289	121,881	1,379,964	18,157	217,802	216,789	254,509	300,477	256,753	150,332	1414,819	2,794,783
대구	16,659	182,026	163,769	195,705	209,935	142,916	72,133	983,143	14,931	152,402	151,467	200,335	218,933	155,654	94,151	987,873	1,971,016
인천	18,260	211,880	230,436	250,741	255,910	161,734	74,487	1,203,448	16,888	189,877	209,148	239,814	258,001	165,207	91,457	1,170,392	2,373,840
광주	11,023	114,185	105,831	124,953	119,704	73,870	39,614	589,180	10,293	104,665	100,483	124,915	120,052	79,446	49,299	589,153	1,178,333
대전	10,254	130,433	110,083	121,417	121,114	80,304	38,753	612,358	9,404	113,588	101,998	122,454	123,199	83,971	47,105	601,719	1,214,077
울산	8,051	87,925	93,845	99,554	109,180	65,666	25,432	489,653	6,825	63,047	79,429	95,650	104,301	64,080	29,246	442,578	932,231
세종	1,833	22,518	30,871	33,746	21,238	12,966	6,052	129,224	1,647	20,473	32,578	30,563	20,200	13,757	7,459	126,677	255,901
경기	83,166	923,544	1033,470	1,153,299	1,096,144	664,247	320,556	5,274,426	77,146	814,177	940,876	1,107,026	1,071,342	678,164	392,673	5,081,404	10,355,830
강원	10,093	111,624	90,652	115,947	134,641	103,765	59,257	625,979	8,957	81,335	81,520	108,816	130,010	105,394	74,322	590,354	1,216,333
충북	10,494	120,265	112,765	127,449	139,456	99,590	51,704	661,723	9,490	97,800	97,617	117,265	133,249	99,526	65,080	620,027	1,281,750
충남	13,571	155,850	166,529	179,370	178,010	125,841	72,172	891,343	11,999	127,878	136,063	153,708	162,316	127,458	90,067	809,489	1,700,832
전북	12,332	126,609	108,152	140,832	152,407	114,616	69,080	724,028	11,378	102,644	99,445	131,851	146,337	119,010	90,064	700,729	1,424,757
전남	11,875	103,951	105,647	138,315	159,333	119,062	78,775	716,968	10,417	79,225	92,794	121,047	144,474	120,610	104,984	673,551	1,390,519
경북	17,118	179,029	178,143	205,159	234,717	180,632	100,678	1,095,476	14,770	137,178	150,228	186,770	224,472	186,338	131,228	1,030,984	2,126,460
경남	22,243	221,887	251,166	285,640	293,557	203,526	99,275	1,377,294	19,396	166,604	208,271	262,336	283,243	207,316	131,639	1,278,805	2,656,099
제주	4,452	41,828	45,856	58,636	55,868	35,127	19,632	261,399	3,957	36,083	42,673	53,340	51,854	36,025	24,017	247,949	509,348
합계	324,513	3,698,774	3,830,164	4,248,792	4,305,649	2,967,235	1,546,861	20,921,988	297,324	3,249,859	3,502,121	4,080,927	4,288,768	3,115,126	1,927,320	2,0461,445	41,383,433

자료: 통계청. (2019d). KOSIS 국가통계포털/인구·가구/장래가구추계(2015년 기준) (<http://kosis.kr/index/index.do> 에서 2019. 4. 13. 인출)에서 발췌하여 저자 작성.

〈부표 1-3〉 2019년 추계 인구 분포

가구주 연령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위: 명)
합계	19,971,359	3,794,498	1,368,154	952,586	1,100,570	586,407	607,765	437,629	133,490	
19세	74,854	16,736	5,816	4,064	2,939	2,811	4,748	967	1,231	
20~24세	491,925	110,818	35,535	23,366	19,135	19,754	28,755	7,025	7,195	
25~29세	942,383	258,171	54,922	37,494	44,714	32,776	40,153	16,988	9,226	
30~34세	1,175,246	285,446	61,492	46,342	65,685	35,982	39,306	26,812	11,627	
35~39세	1,855,831	363,305	107,462	79,203	112,343	57,392	55,653	45,730	19,378	
40~44세	1,890,774	338,592	111,902	87,810	114,129	60,462	56,974	44,750	18,482	
45~49세	2,382,034	433,434	145,520	117,144	140,303	75,021	73,879	55,134	17,470	
50~54세	2,326,003	409,885	150,078	119,325	139,117	71,413	69,840	60,348	11,964	
55~59세	2,400,771	421,418	172,735	123,750	145,350	67,586	69,545	59,682	10,836	
60~64세	2,075,395	377,708	169,461	103,320	117,378	53,442	59,072	47,379	8,973	
65~69세	1,387,059	259,862	122,186	72,488	68,841	34,967	38,178	29,307	5,635	
70~74세	1,082,314	209,013	91,592	51,456	51,579	29,235	27,842	18,552	3,914	
75~79세	930,246	166,252	74,673	45,230	39,882	23,481	22,239	13,312	3,369	
가구주 연령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707,933	636,576	640,887	852,721	742,195	742,752	1,104,673	1,312,888	249,635	
19세	11,690	3,144	2,334	3,481	3,962	2,534	3,933	3,577	887	
20~24세	81,287	23,849	18,756	26,177	22,153	13,353	28,421	21,653	4,693	
25~29세	205,151	29,925	29,995	42,706	29,327	20,185	40,956	40,683	9,011	
30~34세	300,874	26,810	34,141	49,310	32,075	29,373	51,688	65,529	12,754	
35~39세	504,053	44,128	53,829	76,767	54,459	52,045	84,531	121,522	24,031	
40~44세	521,388	49,554	56,299	76,426	61,105	56,340	86,716	123,953	25,892	
45~49세	636,409	66,857	70,517	93,524	80,556	74,290	111,996	156,698	33,282	
50~54세	595,775	69,135	73,805	88,743	80,268	80,229	119,083	155,638	31,357	
55~59세	579,292	78,484	77,570	94,602	85,237	86,517	133,447	164,369	30,351	
60~64세	461,250	76,340	70,326	83,357	77,074	78,097	122,379	144,611	25,228	
65~69세	275,680	47,948	46,560	60,122	58,134	61,544	93,164	97,298	15,145	
70~74세	208,290	40,607	35,314	49,298	50,348	57,027	71,001	73,972	13,274	
75~79세	166,918	38,798	34,028	46,743	47,362	59,180	71,507	66,586	10,686	

자료: 통계청, (2019d), KOSIS 국가통계포털/인구·가구/장래가구추계(2015년 기준) (<http://kosis.kr/index/index.do> 에서 2019. 4. 13. 인출)에서 발췌하여 저자 작성.

〈부표 1-4〉 2019년 추계 1인 가구 분포

(단위: 가구)

가구주 연령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5,907,077	1,209,379	405,200	269,676	282,399	186,052	194,724	115,440	41,312
19세	70,239	16,209	5,647	3,847	2,720	2,524	4,627	885	1,216
20~24세	403,378	94,716	30,653	19,622	13,519	15,957	25,717	5,480	6,586
25~29세	633,835	193,742	37,252	25,036	24,311	22,801	28,935	10,962	6,842
30~34세	471,392	140,583	22,916	17,771	20,912	16,178	16,222	9,729	4,144
35~39세	484,807	116,436	25,930	19,435	25,685	16,742	14,506	11,443	3,802
40~44세	418,415	86,338	24,298	18,691	23,776	14,135	12,169	10,038	3,077
45~49세	478,870	92,140	29,382	22,179	26,748	15,672	14,085	10,411	3,414
50~54세	468,772	81,092	29,942	22,659	25,391	14,963	13,421	10,861	2,621
55~59세	522,987	84,316	38,895	26,018	29,082	15,895	15,169	12,307	2,664
60~64세	483,130	78,657	41,281	24,096	25,936	13,250	13,777	10,768	1,794
65~69세	356,147	59,837	32,441	18,641	17,089	9,214	9,776	7,015	1,181
70~74세	327,876	54,052	28,032	15,572	15,062	9,069	8,384	5,369	1,088
75~79세	350,632	53,428	28,892	17,291	14,770	9,326	8,140	4,889	1,131
가구주 연령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212,586	215,684	202,557	272,236	240,261	241,233	358,783	387,319	72,236
19세	10,569	2,893	2,194	3,290	3,674	2,182	3,700	3,267	795
20~24세	59,732	21,247	15,579	22,138	18,318	9,972	23,876	16,820	3,446
25~29세	125,157	20,738	19,919	28,654	18,867	11,758	27,821	25,779	5,261
30~34세	107,811	10,211	12,965	19,513	12,425	10,660	21,129	23,702	4,521
35~39세	119,135	11,230	13,773	19,681	14,210	13,320	23,053	30,125	6,301
40~44세	105,208	11,117	12,579	17,164	13,394	12,861	20,654	26,893	6,023
45~49세	116,573	15,462	14,746	20,217	16,963	16,291	24,770	32,060	7,757
50~54세	107,031	17,613	16,716	20,418	18,289	19,198	27,330	33,598	7,629
55~59세	113,353	21,290	19,083	23,592	21,079	21,820	32,504	38,275	7,645
60~64세	99,966	21,322	18,234	20,870	19,435	20,302	30,750	36,426	6,266
65~69세	67,210	15,025	13,026	16,156	16,276	17,421	25,374	26,819	3,646
70~74세	58,926	13,559	11,680	15,856	17,345	20,790	24,101	25,493	3,498
75~79세	57,187	14,875	13,799	17,634	20,248	26,466	30,374	28,672	3,510

자료: 통계청, (2019d), KOSIS 국가통계포털/인구·가구/장래가구추계(2015년 기준) (<http://kosis.kr/index/index.do> 에서 2019. 4. 13. 인출)에서 발췌하여 저자 작성.

나. 표본 추출

총표본의 크기는 5000명이다.

□ 비례할당 결과

19세 남, 여 셀에 할당된 표본의 크기가 1명 혹은 2명인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부표 1-5〉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결과

(단위: 명)

지역	성별*연령별														합계
	남성							여성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서울	6	87	93	92	90	67	36	6	90	92	93	96	74	43	965
부산	2	29	28	31	33	28	15	2	26	26	31	36	31	18	336
대구	2	22	20	24	25	17	9	2	18	18	24	26	19	11	237
인천	2	26	28	30	31	20	9	2	23	25	29	31	20	11	287
광주	1	14	13	15	14	9	5	1	13	12	15	15	10	6	143
대전	1	16	13	15	15	10	5	1	14	12	15	15	10	6	148
울산	1	11	11	12	13	8	3	1	8	10	12	13	8	4	115
세종	0	3	4	4	3	2	1	0	2	4	4	2	2	1	32
경기	10	112	125	139	132	80	39	9	98	114	134	129	82	47	1,250
강원	1	13	11	14	16	13	7	1	10	10	13	16	13	9	147
충북	1	15	14	15	17	12	6	1	12	12	14	16	12	8	155
충남	2	19	20	22	22	15	9	1	15	16	19	20	15	11	206
전북	1	15	13	17	18	14	8	1	12	12	16	18	14	11	170
전남	1	13	13	17	19	14	10	1	10	11	15	17	15	13	169
경북	2	22	22	25	28	22	12	2	17	18	23	27	23	16	259
경남	3	27	30	35	35	25	12	2	20	25	32	34	25	16	321
제주	1	5	6	7	7	4	2	0	4	5	6	6	4	3	60
합계	37	449	464	514	518	360	188	33	392	422	495	517	377	234	5,000

자료: 저자 작성.

□ 제곱근비례할당 결과

제곱근할당의 경우, 세종시의 일부 셀을 제외하고는 할당된 표본의 크기가 3명 이상이다.

〈부표 1-6〉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의 분포

(단위: 명)

지역	성별*연령별														합계
	남성							여성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서울	13	49	51	51	50	43	32	13	50	51	51	52	46	35	587
부산	8	29	28	29	31	28	20	8	27	27	29	32	29	23	348
대구	8	25	24	26	27	22	16	7	23	23	26	27	23	18	295
인천	8	27	28	29	29	23	16	8	25	27	28	30	24	18	320
광주	6	20	19	21	20	16	12	6	19	18	21	20	16	13	227
대전	6	21	19	20	20	16	11	6	20	19	20	20	17	13	228
울산	5	17	18	18	19	15	9	5	15	16	18	19	15	10	199
세종	2	9	10	11	8	7	5	2	8	11	10	8	7	5	103
경기	17	56	59	61	61	47	33	16	53	56	61	60	48	36	664
강원	6	19	18	20	21	19	14	6	17	17	19	21	19	16	232
충북	6	20	20	21	22	18	13	6	18	18	20	21	18	15	236
충남	7	23	24	25	25	21	16	6	21	21	23	23	21	17	273
전북	6	21	19	22	23	20	15	6	19	18	21	22	20	17	249
전남	6	19	19	22	23	20	16	6	16	18	20	22	20	19	246
경북	8	25	25	26	28	25	18	7	22	23	25	28	25	21	306
경남	9	27	29	31	32	26	18	8	24	27	30	31	26	21	339
제주	4	12	12	14	14	11	8	4	11	12	13	13	11	9	148
합계	125	419	422	447	453	377	272	120	388	402	435	449	385	306	5,000

자료: 저자 작성.

□ 할당 방법별 상대표준오차 비교

다음 <부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례할당의 경우, 세종과 제주의 상대표준오차가 17.7%와 12.9%로 매우 크다. 제곱근비례할당의 경우, 세종이 9.9% 제주가 8.2%로 비례할당에 비해 정도가 높다. 따라서 최종 할당은 제곱근비례할당으로 결정한다.

<부표 1-7> 할당 방법별 지역별 상대표준오차

(단위: 명, %)

지역	비례할당		제곱근비례할당	
	표본크기	상대표준오차	표본크기	상대표준오차
서울	965	3.2	587	4.1
부산	336	5.5	348	5.4
대구	237	6.5	295	5.8
인천	287	5.9	320	5.6
광주	143	8.4	227	6.6
대전	148	8.2	228	6.6
울산	115	9.3	199	7.1
세종	32	17.7	103	9.9
경기	1250	2.8	664	3.9
강원	147	8.2	232	6.6
충북	155	8.0	236	6.5
충남	206	7.0	273	6.1
전북	170	7.7	249	6.3
전남	169	7.7	246	6.4
경북	259	6.2	306	5.7
경남	321	5.6	339	5.4
제주	60	12.9	148	8.2
합계	5,000	1.4	5,000	1.4

자료: 저자 작성.

□ 집계구의 추출

전국에서 만 19세 이상 79세까지의 인구 중 5000명을 추출하기로 한다. 표본 추출 시 전국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를 이용한다. 각 집계구에서 10가구를 추출하며 각 추출된 가구에서 1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별 추출된 집계구의 크기 및 표본의 크기는 다음 〈부표 1-8〉과 같다.

〈부표 1-8〉 지역별 표본의 크기 및 집계구의 크기

(단위: 개, 명)

지역	집계구 수(개)	표본 크기(명)	1인가구 크기(명)	표본 집계구의 크기(개)
서울	19,253	587	187	59
부산	6,922	348	103	35
대구	5,001	295	84	30
인천	5,907	320	82	32
광주	3,046	227	72	23
대전	3,074	228	73	23
울산	2,336	199	52	20
세종	562	103	32	10
경기	25,304	664	171	66
강원	3,170	232	79	23
충북	3,236	236	75	24
충남	4,407	273	87	27
전북	3,763	249	81	25
전남	4,170	246	80	25
경북	5,499	306	99	31
경남	6,958	339	100	34
제주	1,382	148	43	15
합계	103,990	5000	1,500	502

주: 표본 크기(명)는 1인가구 크기(명)를 포함한 숫자임.
자료: 저자 작성.

지역별로 할당된 집계구를 거처별 분포를 이용하여 거처별로 할당한 결과는 다음 <부표 1-9>와 같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에는 각 집계구 내 거처의 유형이 제공되고 있다. 거처의 유형은 단독, 아파트, 다세대/연립, 기타(영업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 거처)가 있다.

<부표 1-9> 지역별 거처별 집계구 분포

(단위: 가구, 개)

지역	지역별 거처별 모집단 가구 분포				지역별 거처별 표본 집계구 분포				지역별 집계구 합계
	단독	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타	단독	아파 트	다세 대 /연립	기타	
서울	326,770	1,618,796	796,339	184,668	7	32	16	4	59
부산	201,139	728,604	162,406	56,753	6	22	5	2	35
대구	148,218	522,571	58,442	16,172	6	21	2	1	30
인천	94,664	573,322	235,702	60,146	3	19	8	2	32
광주	81,159	371,142	13,930	12,136	4	17	1	1	23
대전	78,101	328,937	40,093	10,622	4	16	2	1	23
울산	64,126	247,101	27,049	9,096	4	13	2	1	20
세종	14,921	72,642	1,854	2,900	2	8	0	0	10
경기	488,531	2,567,245	664,629	205,313	9	43	11	3	66
강원	215,391	274,497	24,183	13,584	9	12	1	1	23
충북	190,824	292,062	29,051	15,841	9	13	1	1	24
충남	283,520	372,679	47,097	26,989	10	14	2	1	27
전북	251,121	337,404	22,451	14,706	10	13	1	1	25
전남	346,505	278,575	19,754	20,835	13	10	1	1	25
경북	406,257	427,465	61,571	28,131	14	14	2	1	31
경남	372,555	631,556	53,123	38,597	12	19	2	1	34
제주	83,672	60,893	42,929	12,211	6	5	3	1	15
합계	3,647,474	9,705,491	2,300,603	728,700	128	291	60	23	502

자료: 저자 작성.

다. 조사 결과

□ 파라데이터

조사 관리를 위해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파라데이터를 준비하였다: 표본 설계 정보 (ID, 조사구 분류, 대체 가구 ID), 응답 분류, 방문 횟수, 1~5차 방문별 일자 및 조사결과분류의 사유

□ 응답 현황

집계구는 전국을 대표하도록 지역당 할당을 거쳐 총 502개를 추출하였다. 각 집계구에서 10가구를 추출하며 각 추출된 가구에서 1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중, 3개의 집계구는 같은 지역의 동일 거쳐 지역을 기준으로 대체하였다. 다음 표는 지역별 방문 횟수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2회 방문으로 나타났다.

〈부표 1-10〉 지역별 응답 현황

(단위: 명)

지역	방문 횟수					총합계
	1	2	3	4	5	
서울	257	167	152	14		590
부산	209	83	51	7		350
대구	112	101	76	10	1	300
인천	165	85	61	7	2	320
광주	114	84	31	1		230
대전	87	79	55	9		230
울산	125	51	18	6		200
세종	61	28	11			100
경기	302	243	106	8	1	660
강원	75	54	84	17		230
충북	165	46	29			240
충남	134	77	50	9		270
전북	141	67	42			250
전남	117	103	27	3		250
경북	113	144	42	11		310
경남	208	74	51	7		340
제주	102	30	18			150
합계	2,487	1,516	904	109	4	5,020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11〉 최종 응답자 분포

(단위: 명)

지역	남성						여성						합계
	19~29	30~39	40~49	50~59	60~69	70~79	19~29	30~39	40~49	50~59	60~69	70~79	
서울	19	48	52	72	42	14	36	63	87	85	63	9	590
부산	30	31	30	42	25	6	17	22	43	74	26	4	350
대구	15	24	28	35	31	8	17	23	27	50	25	17	300
인천	13	28	27	29	19	2	12	55	54	43	37	1	320
광주	13	10	9	27	20	9	8	32	31	35	19	17	230
대전	15	14	30	32	15	13	4	21	23	40	17	6	230
울산	16	18	18	18	10	15	14	22	21	24	15	9	200
세종	3	8	7	10	12	5	3	10	8	20	10	4	100
경기	23	43	64	46	39	9	28	95	114	116	79	4	660
강원	3	6	24	28	16	21	4	16	25	40	19	28	230
충북	12	19	21	45	18	2	14	30	17	40	21	1	240
충남	9	22	26	32	26	16	16	21	30	38	19	15	270
전북	13	9	15	26	24	15	11	29	29	33	32	14	250
전남	10	12	18	15	20	19	9	17	34	41	31	24	250
경북	14	13	24	30	36	28	8	13	29	41	38	36	310
경남	24	21	30	41	28	17	14	18	27	59	46	15	340
제주	9	10	15	18	19	12	6	12	19	10	7	13	150
합계	241	336	438	546	400	211	221	499	618	789	504	217	5,020

자료: 저자 작성.

라. 가중치 산출 및 추정

□ 가중치 산출 개요

○ 역별 추정

$$\hat{p}_{지역} = \sum_{s=1}^2 \sum_{a=19}^{70대} w_{sa} \hat{p}_{sa}$$

여기에서 s : 성별

a : 연령별 (19~20대, 30대, ... 70대)

$$w_{sa} : \text{성*연령 층의 가중치} = \frac{N_{지역sa}}{N_{지역}}$$

$N_{지역}$: 지역의 총인구

$N_{지역sa}$: 지역*성*연령층의 인구

$$- \text{var}(\hat{p}_{\text{지역}}) = \sum_{s=1}^2 \sum_{a=19}^{70\text{대}} w_{sa}^2 \text{var}(\hat{p}_{sa})$$

$$\text{여기에서 } \text{var}(\hat{p}_{sa}) = \left(\frac{N_{sa} - n_{sa}}{N_{sa}} \right) \frac{\hat{p}_{sa}(1 - \hat{p}_{sa})}{n_{sa} - 1}$$

$\hat{p}_{sa}$: 성*연령층의 비율 추정치

n_{sa} : 성*연령층의 표본의 크기

$$- \text{허용 오차: } \pm 1.96 \sqrt{\text{var}(\hat{p}_{\text{지역}})}$$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표 1-12〉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지역	남성						여성					
	19~29	30~39	40~49	50~59	60~69	70~79	19~29	30~39	40~49	50~59	60~69	70~79
서울	40,796	16,058	14,650	10,392	13,169	21,241	22,132	12,075	8,857	9,368	9,784	39,355
부산	8,773	7,489	8,542	6,577	9,212	20,314	13,880	9,854	5,919	4,061	9,875	37,583
대구	13,246	6,824	6,989	5,998	4,610	9,017	9,843	6,586	7,420	4,379	6,226	5,538
인천	17,703	8,230	9,287	8,824	8,512	37,244	17,230	3,803	4,441	6,000	4,465	91,457
광주	9,631	10,583	13,884	4,433	3,694	4,402	14,370	3,140	4,030	3,430	4,181	2,900
대전	9,379	7,863	4,047	3,785	5,354	2,981	30,748	4,857	5,324	3,080	4,939	7,851
울산	5,999	5,214	5,531	6,066	6,567	1,695	4,991	3,610	4,555	4,346	4,272	3,250
세종	8,117	3,859	4,821	2,124	1,081	1,210	7,373	3,258	3,820	1,010	1,376	1,865
경기	43,770	24,034	18,020	23,829	17,032	35,617	31,833	9,904	9,711	9,236	8,584	98,168
강원	40,572	15,109	4,831	4,809	6,485	2,822	22,573	5,095	4,353	3,250	5,547	2,654
충북	10,897	5,935	6,069	3,099	5,533	25,852	7,664	3,254	6,898	3,331	4,739	65,080
충남	18,825	7,570	6,899	5,563	4,840	4,511	8,742	6,479	5,124	4,271	6,708	6,004
전북	10,688	12,017	9,389	5,862	4,776	4,605	10,366	3,429	4,547	4,434	3,719	6,433
전남	11,584	8,804	7,684	10,622	5,953	4,146	9,960	5,458	3,560	3,524	3,891	4,374
경북	14,011	13,703	8,548	7,824	5,018	3,596	18,994	11,556	6,440	5,475	4,904	3,645
경남	10,172	11,960	9,521	7,160	7,269	5,840	13,286	11,571	9,716	4,801	4,507	8,776
제주	5,142	4,586	3,909	3,104	1,849	1,636	6,673	3,556	2,807	5,185	5,146	1,847

자료: 저자 작성.

부록 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	--	--	--	--

응답자 ID				
-----------	--	--	--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_____의 의뢰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댁에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나라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5월

• 주관기관 : _____

• 조사기관 : ㈜메트릭스코퍼레이션

• 문 의 처 : 하지영 차장 (02-6377-0744)

집계구 번호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응답가구원)	① 응답가구원 ② 대체가구원 ※ 가구원의 생일(실제 생년월일 기준)을 파악한 후, 시스템에 의해 조사관리부서에서 무작위 선정한 응답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응답자 이름 (응답가구원)		응답자 연락처 (응답가구원)	- -
응답자 성별 (응답가구원)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응답가구원)	만 _____세 → 만18세 이하, 만30세 이상 조사 중단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응답자 (응답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 가구주만?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주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주거형태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단독주택(다가구)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④ 기타(영업용 건물 내 거주, 오피스텔 등) ① 예 ② 아니오
1인 가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응답방법	① 자기응답 ② 대면조사 ③ 유치조사 ④ 온라인조사
1차 방문	____월 ____일(____요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2차 방문	____월 ____일(____요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3차 방문	____월 ____일(____요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4차 방문	____월 ____일(____요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2) 응답거절 ☐ 3) 부재중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____월 ____일(____요일)/ ____시 ____분	면접시간	_____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문 1.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닥 ← → 꼭대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 가구 구성

※ 가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201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A-1. ____님댁의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가구원수		
(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4년 3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명
(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수 ※ 만성질환: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질환 (경제적 사정으로 투약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만성질환자에 포함, 질병 범위 연결된 지침서 참조)			명
(5)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1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6) 가구원 중 실업자 수 ※ 2019년 3월 31일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문A-2. ____님댁의 가구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단독가구(1인 가구)
- ② 모자가구(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③ 부자가구(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 단 취학(휴학)시 만 22세 미만)
- ④ 조손가구(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 ⑤ 기타(일반가구)

B. 가구 경제상태

※ 가구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 가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응답해 주십시오.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B-1. ____님 덕의 총 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총 생활비	지난 3개월(2019.1.1.~2019.3.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총생활비는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로 구성됩니다. ※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합니다.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합니다.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 2019년 3월 1,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 →월 50만원 지출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물, 서비스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정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합니다.	천	백	십	단

문B-2. ____님 덕의 생활비 중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1) 교육비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9.1.1.~2019.3.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 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공교육비 : 등록금(초중고대학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분방구비, 보충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 사교육비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이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여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천	백	십	단
(2) 의료비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9.1.1.~2019.3.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의료비는 얼마입니까?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치료용바우처(비단아동바우처) 이용료 등이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천	백	십	단
(3) 월세액	총 생활비 중에서 지난 3개월(2019.1.1.~2019.3.31.) 동안 지출하신 월평균 월세액은 얼마입니까? ※ 자가 주택이나 전세인 경우에는 '0'을 기입 ※ 3개월 이내 이사 혹은 재계약한 경우, 이사 혹은 재계약한 주택의 월평균 월세액을 기입	천	백	십	단

문B-3. 지난 3개월(2019.1.1~2019.3.31.) 동안 ____님 님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공적이전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1) 사회보험 급여	①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①	②	③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또는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①	②	③
(2) 기초생활 보장급여	①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애급여, 해산급여 등	①	②	③
(3) 기타 정부 보조금	① 기초연금	①	②	③
	②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①	②	③
	③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①	②	③
	④ 기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농어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급식비 지원, 에너지 관련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①	②	③

문B-4. 지난 3개월(2019.1.1~2019.3.31.) 동안 ____님 님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사적이전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해당항목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모르겠다
(1) 가구원이 아닌 가족에게 받은 사적이전소득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물 포함) ※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포함 ※ 현금이나 현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와 비정기적이지만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받았다'에 응답함	①	②	③
(2) 기타 사적이전소득	친척, 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현물 포함)	①	②	③

문B-5. 지난 3개월(2019.1.1~2019.3.31.) 동안 ____님의 근로소득과 ____님 님 전체 가구 총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 없음 0)				
(1) '응답자' 근로소득	지난 3개월(2019.1.1~2019.3.31.)동안 ____님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 = 임금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는 순소득(총소득-경비)	일억	천	백	십	원
(2) '가구' 총소득	지난 3개월(2019.1.1~2019.3.31.)동안 ____님 님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 소득 =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으로 가계에 유입된 소득만 포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 현물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제외함	일억	천	백	십	원

문B-8.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은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① 하고 (갖고) 있다	② 못 하고 (갖고) 있다
※ 경제적 여력은 되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하고(갖고) 있지 않거나 대체소비를 하고 있는 경우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합니다. (예: (1) 채식주의자의 경우, 대체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 ※ 아래의 문항들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합니다. (예: (12) 이가 아프지 않았으나 아팠을 경우를 가정하고 치과에 갈 수 있었다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			
식생활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①	②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①	②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①	②
의생활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5) 예상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①	②
주택 및 주거 환경	(6) 흡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①	②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①	②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①	②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자상에 거주하고 있다.	①	②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①	②
의료 및 건강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 있다.	①	②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①	②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①	②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1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파서)을 다녀온다.	①	②
	(15)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①	②
	(16)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하고 있다(할 수 있다).	①	②
사회적 지지	(17)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①	②
저축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①	②
	(19) 노후를 위해 (국인,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①	②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중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①	②

문B-9.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① 있다	② 없다	③ 해당 없음
경제적 어려움	(21)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①	②	
	(22)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3)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24)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5)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26)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①	②	③
	(27)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학업,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단(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분납(대출) 포함) ※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자녀가 없는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①	②	③

C. 가구주 및 응답자 일반사항

문C-1. ___님과 ___님 닥의 가구주님과 ___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태어난 연도	(4) 교육수준	(5) 혼인상태
가구주	1			④~⑥응답의 경우 계열 기재	
응답자 (응답가인)				④~⑥응답의 경우 계열 기재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① 남 ② 여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 ⑪ 인문계 ⑫ 실업계 ⑬ 공업계 ⑭ 농업계 ⑮ 기타 특수 ⑤ 대학 졸 (전문대학 포함) ↳ ⑪ 인문계열 ⑫ 사회계열 ⑬ 이학계열 ⑭ 공학계열 ⑮ 의학계열 ⑯ 예체능계열 ⑰ 사범계열 ⑱ 기타 ⑥ 대학원 이상 ↳ ⑪ 인문계열 ⑫ 사회계열 ⑬ 이학계열 ⑭ 공학계열 ⑮ 의학계열 ⑯ 예체능계열 ⑰ 사범계열 ⑱ 기타 ※ 계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로 기재 ※ 계열 보기 중 '기타특수'는 겸정고시,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을 포함합니다	① 유배우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미혼 부모 포함)

※ 가구주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에 해당하는 문항만 작성하시고, 응답가구원에 해당하는 문항은 **문c-1**. 가구주와의 관계에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나머지 문항은 빈칸으로 두십시오.

문C-1. ____님과 ____님 닉의 가구주님과 ____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6) 경제활동 참여상태	(7) 직업	(8) 직업안정성	(9) 고용형태
가구주				
응답자 (응답가구원)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무 등) ※ 실업자는 2019. 3.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① 비해당 ② 관리자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동종사자 ⑪ 군인 ※ 문C-1-(6)의 ①-⑥응답자만 응답 ※ 문C-1-(6)의 ⑦-⑩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① 비해당 ② 정규직 ③ 비정규직 ※ 상용직 임금근로자 (문C-1-(6)의 ①응답자만 응답) ※ 문C-1-(6)의 ②-⑥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① 비해당 ② 전일제(풀타임) ③ 시간제(파트타임) ※ 문C-1-(6)의 ①-③응답자 (임금근로자)만 응답 ※ 문C-1-(6)의 ④-⑥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 전일제란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 시간제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가 해당

♣ 이하 문항은 '응답가구원'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C-2. 【문C-1-(6)에서 ①-③ 응답자만】 ____님께서 현재 직장 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함 ② 가입안함 ③ 가입대상이 아님 ④ 노동조합이 없음

문C-3. 【문C-1-(6)에서 ①-⑥ 응답자만】 ____님의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1주 평균 시간

※ 행동한 목적에 따라 시간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일 관련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일'로 근로시간에 합산해 주시고, 교제의 목적으로 한 경우는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분류해 제외하시면 됩니다.

문C-4.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5년(2014년~현재) 동안 원치 않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문C-5. ____님께서 현재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	연금을 받고 있다	모르겠다
(1)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2) 건강보험(과부양자 포함)	①	②		④
(3) 고용보험	①	②		④
(4) 산재보험	①	②		④

※ 특수직역연금은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문C-6. ____님께서 15세 무렵 형제·자매 중 몇 제였습니까? 남 녀 중 제

문C-7. ____님께서는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C-7-1. (문C-7에서 ① 응답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____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강하다 ② 다소 강하다 ③ 별로 강하지 않다 ④ 모르겠다

문C-8.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제(오늘) ____님의 경험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어제 이동(출퇴근, 통학 등) 시 힘들지 않았다.	①	②	
(2) 어제 일이 힘들지 않았다.	①	②	
(3) 어제 식사시간이 좋았다.	①	②	
(4) 어제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냈다.	①	②	
(5) 어제 가족이나 친족, 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①	②	
(6) 어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많이 이용했다.	①	②	③
(7)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났다.	①	②	

※ 귀하의 경제활동상태나 어제의 요일 등과 무관하게, '어제' 각각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D. 행복과 심리적 정서

※ 다음 문항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D-1. ____님께서는 요즘 _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2. ____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3. ____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4. ____님께서는 __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있지 않다					보통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5. ____님께서는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보통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행복과 심리적 정서

※ 다음 문항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D-1. ____님께서서는 요즘 _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2. ____님께서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3. ____님께서서는 어제 얼마만큼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4. ____님께서서는 __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있지 않다					보통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5. ____님께서서는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보통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6. 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1) __님의 생활수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__님의 건강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__님께서 삶에서 성취한 것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__님의 가족관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__님의 개인적인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__님의 안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__님의 미래 안정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__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__님의 지역사회 환경의 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__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__님께서 하시는 일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__님의 경제적인 수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7. __님께서는 아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행복하다										
(1) 가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친구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우리 동네 이웃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대한민국 국민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전 세계인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8. __님께서는 5년 후에 얼마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행복하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9. __님께서는 어느 정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행복하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0. __님께서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합계 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영역	내용	점수
(1) 삶의 가치와 목표	삶에 대한 가치 평가, 자기효능감,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 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 남을 도우며 사는 삶, 희망 교육 수준 달성 정도	점
(2) 관계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부부 생활(이정 교체) 만족도,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음	점
(3) 주거	주거의 질 만족도, 교통 편의성, 주거 관련 지출 부담, 주거의 안정성	점
(4) 환경의 질	거주지역의 자연환경 만족도, 공해 정도	점
(5) 일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급여와 업무 환경 만족도, 일에 대한 보람, 고용안정성	점
(6) 생활의 질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일과 삶의 조화	점
(7) 경제적 안정	소득 충족감, 구매(소비) 유능감, 재산 충족감	점
(8)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가족과 유의미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 적절한 자기 관리, 의료비 부담, 스트레스-불안-우울	점
(9) 안전	거주지역의 안전, 야간보행 안전감	점
(10) 거버넌스의 질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이민주성소수자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회,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 민주주의 수준, 범죄·재해사고 등으로부터의 시민 보호	점
합계 (TAPI 자동 계산)		100점

문D-11. __님께서서는 __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문D-12. __님께서서는 다음 중 어떤 게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 ② 소원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 ③ 돈과 명성을 얻는 것
- ④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 ⑤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 ⑥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 ⑦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 ⑧ 건강하게 사는 것
- ⑨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 ⑩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문D-13. 다음 질문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__님께서서는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행복하십니까? 2-3개 단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E. 심리적 역량

※ 다음 문항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E-1. __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①	②	③	④
(2)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9) 쉽게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10) 자주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11) 마음이 자주 심란해진다.	①	②	③	④
(12) 기분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4)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8)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긴다.	①	②	③	④
(19) 어긋나면 즉각 청소를 한다.	①	②	③	④
(20)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21)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22)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3) 항상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4)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25)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6)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27)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8)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29)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0) 이해가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문E-2.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메시지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E-3. 다음의 표현이 _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나는 비싼 집과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삶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사람들이 성공의 증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물건들을 포함해서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 중요한 전부는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에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고가의 사치품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나는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더 좋은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살 여력이 없을 때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E-4. 다음의 표현이 _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내가 살면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내가 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F. 사회 인식

문F-1. ___님께서서는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 보통 →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F-2. ___님께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 보통 →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F-3. 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1) 언론	①	②	③	④
(2) 인터넷	①	②	③	④
(3)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4) 경찰검찰	①	②	③	④
(5) 사법부(법원)	①	②	③	④
(6) 행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④
(7) 입법부(장당, 국회)	①	②	③	④
(8) 대기업	①	②	③	④
(9) 시민운동단체(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①	②	③	④
(10) 자선단체	①	②	③	④
(11) 국제정	①	②	③	④

문F-4.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 보통 →										부패가 매우 심하다
(1) 정치영역	①	①	②	③	④	⑤	⑥					
(2) 경제영역	①	①	②	③	④	⑤	⑥					

문F-5.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두뇌(능력)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3) 노력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4) 학력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5) 경력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문F-6.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두뇌(능력)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3) 노력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4) 학력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5) 경력에 비해	①	②	③	④	⑤

문F-7. __님께서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5)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F-8. __님께서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F-9. ____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 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A. 건강	(1) 산중플루, 결핵, 조류독감 등 전염병	①	②	③	④	⑤
	(2) 유전자변형식품, 식중독, 관류농약, 환경호르몬, 원산지 위조 등 먹거리 문제	①	②	③	④	⑤
	(3)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①	②	③	④	⑤
	(4) 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성인병	①	②	③	④	⑤
	(5)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	①	②	③	④	⑤
B. 생애 주기 관련	(6) 노후	①	②	③	④	⑤
	(7) 이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등 가족 해체 및 약화	①	②	③	④	⑤
	(8)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9)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①	②	③	④	⑤
C. 사회 생활 관련	(10)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강도, 살인 등과 같은 범죄	①	②	③	④	⑤
	(11) 교통사고, 가스폭발, 화학물질 유출 등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①	②	③	④	⑤
D. 경제 생활 관련	(12) 실업 및 빈곤	①	②	③	④	⑤
	(13) 주택 및 전세가격	①	②	③	④	⑤
	(14) 국가 및 가계부채, 주기폭락, 환율폭등 등 금융불안	①	②	③	④	⑤
	(15) 경기침체 및 저성장	①	②	③	④	⑤

G. 사회적 관계와 참여

문G-1. 귀하는 지난 3개월 간(2019.1.1.~2019.3.31.) 다음을 위해 일주일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쓰셨습니까?

구분	일주일 기준 며칠	하루 평균 소요 시간				일주일 평균 (TAPI 자동 계산)			
(1)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건강관리, 외도관리 등	일		시간		분		시간		분
(2) 학습 학교활동, 학교활동 외 학습	일		시간		분		시간		분
(3) 가정관리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	일		시간		분		시간		분
(4)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사는 아동·청소년,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돌보기 등	일		시간		분		시간		분
(5) 참여 및 봉사활동 의무적 참여활동, 자원봉사, 가족이 아닌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등	일		시간		분		시간		분
(6)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관혼상제 등	일		시간		분		시간		분
(7) 이동 개인유지 및 일 관련 이동 등	일		시간		분		시간		분

※ 일주일 평균 시간 = 0일(주당 평균) × 0시간(하루 평균)

※ 일주일 총 168시간 = 24시간 × 7일

※ 행동한 목적에 따라 시간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교제의 목적으로 한 경우는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합산해주시고, 일 관련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일'로 분류되어 제외하시되 문 C-9(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됩니다.

문G-2. __님께 다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으십니까?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1) 하루에 2~3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일주일에 하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한달에 일주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일년에 한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항목별 예시는 문G-1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문G-3. 귀하 또래와 비교할 때, 귀하는 사회활동(친목 모임, 취미 동호회, 각종 클럽 활동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또래보다 훨씬 적음
- ② 또래보다 다소 적음
- ③ 또래들과 비슷함
- ④ 또래보다 다소 많음
- ⑤ 또래보다 훨씬 많음

문G-4. _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1) 정당	①	②	③	④
(2) 시민운동단체	①	②	③	④
(3)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4)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5) 스포츠, 취미, 레저 모임 등 문화단체	①	②	③	④
(6) 동창모임	①	②	③	④
(7) 향우회	①	②	③	④
(8) 친목단체	①	②	③	④
(9) 인터넷 커뮤니티	①	②	③	④
(10) 기타 모임이나 단체	①	②	③	④

문G-5. __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 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큰 돈을 갑자기 벌릴 일이 생긴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G-6. __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지역주민은 서로 돕고 산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지역사회 이웃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지역사회 내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지역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각종 지역사회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6)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 지역 내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9)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잘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G-7. __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을 자립적인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____읍·면·동에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____사·군·구에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____사·도에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전 지구의 세계시민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G-8. ____님께서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두번	전혀 안했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⑤

문G-9. ____님께서서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다음 활동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한 적 있다	더 오래 전에 한 적 있다	한 적 없지만 향후 의향 있다	한 적 없고 향후 의향 없다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①	②	③	④
(2) 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 올리기	①	②	③	④
(3)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하기	①	②	③	④
(4) 불매 운동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문G-10. ____님께서서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1) 2016년 4월 13일 총선거	①	②	③	④
(2)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①	②	③	④
(3)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①	②	③	④

조사대상자 번호

응답자ID	
-------	--

조사원	_____ (인)
-----	-----------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안)

■ 본인은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_____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 파악 ②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등 설문문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_____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동의인: _____ (인) _____ (인) 조사원: _____ (인)

부록 3.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기초 분석

□ 이하 기초 분석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a)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저자가 작성함.

〈부표 3-1〉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체		5,020	100.00
성별	남성	2,538	50.56
	여성	2,482	49.44
연령대	20대 이하	918	18.29
	30대	889	17.72
	40대	1,010	20.13
	50대	1,043	20.77
	60대	738	14.70
	70대	421	8.40
지역	수도권	2,505	49.91
	비수도권	2,515	50.09
	대도시	429	8.55
	중소도시	2,154	42.91
	농어촌	2,437	48.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3	7.82
	중하층	1,755	34.96
	중간층	2,539	50.57
	중상층(상층)	334	6.6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25	26.39
	200만 원대	1,853	36.91
	300만 원대	1,061	21.13
	400만 원대	438	8.72
	500만 원 이상	344	6.85
학력	중졸 이하	569	11.34
	고졸	1,924	38.34
	대졸 이상	2,526	50.3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22	44.2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9	10.33
	고용주·자영자	899	17.90
	무급가족종사자	87	1.72
	실업자	71	1.41
	비경제활동인구	1,223	24.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61	75.99
	비정규직	620	24.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59	27.08
	중도적	2,114	42.12
	진보적	1,546	30.81

주: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직업안정성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표에는 가중평균된 빈도를 제시함.

〈부표 3-2〉 캔트릴 사다리: 삶의 평가

(단위: %)

구분		바닥										꼭대기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5	0.68	1.29	2.60	12.07	20.49	31.07	26.79	4.91	0.06	0.06	
성별	남성	0.10	0.68	1.34	2.52	12.35	19.02	32.76	25.92	5.24	0.05	0.05	131,438.430 ***
	여성	0.67	1.23	2.68	11.77	22.00	29.35	27.67	4.56	0.07	0.07		
연령대	20대 이하		0.54	1.49	0.90	10.18	22.20	36.27	24.37	4.05		0.00	3267,665 ***
	30대	0.16	0.19	1.04	1.87	8.14	17.80	34.52	31.61	4.68		0.00	
	40대	0.05		0.66	1.82	10.25	19.79	33.05	28.59	5.74	0.05	0.05	
	50대		0.12	0.92	2.02	11.66	20.56	27.57	31.81	5.22	0.12	0.12	
	60대		0.89	1.15	4.49	16.36	21.21	29.53	22.10	4.24	0.03	0.03	
	70대	0.17	4.68	3.99	7.83	22.27	22.75	19.10	13.31	5.65	0.25	0.25	
지역	수도권		0.86	1.29	2.06	10.52	18.85	31.27	31.07	4.08		0.00	592,156 ***
	비수도권	0.11	0.50	1.28	3.14	13.61	22.14	30.87	22.49	5.74	0.12	0.12	
	대도시		0.02	0.69	1.67	11.18	21.84	30.86	28.89	4.84		0.00	1,080,239 ***
	중소도시	0.02	0.77	1.63	3.12	12.51	20.20	30.76	25.76	5.15	0.08	0.08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50	3.43	2.30	4.30	13.97	15.41	33.95	22.02	3.86	0.25	0.25	
	하층	0.12	5.80	6.57	10.57	22.58	19.27	22.58	10.76	1.76		0.00	6,893,752 ***
	중하층	0.04	0.32	1.89	3.46	17.99	24.46	30.96	18.66	2.22		0.00	
	중간층		0.22	0.22	1.08	7.21	18.59	32.61	33.83	6.16	0.07	0.07	
	중상층(상층)	0.43			0.23	5.47	15.56	29.96	34.80	13.18	0.36	0.3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20	2.20	2.73	6.27	16.87	25.26	28.92	16.25	1.16	0.13	0.13	4,688,175 ***
	200만 원대			1.06	1.53	13.44	22.20	31.99	25.94	3.84		0.00	
	300만 원대		0.46	0.70	1.44	8.86	17.72	32.83	30.36	7.52	0.11	0.11	
	400만 원대				0.70	6.48	15.27	28.14	38.12	11.29		0.00	
	500만 원 이상			0.39	0.16	3.15	8.16	32.72	46.49	8.92		0.00	
학력	중졸 이하	0.21	4.61	3.31	8.50	21.92	28.15	19.76	11.80	1.55	0.19	0.19	4626,574 ***
	고졸		0.32	1.05	2.78	15.02	22.37	30.93	23.59	3.91	0.04	0.04	
	대졸 이상	0.06	0.07	1.01	1.13	7.59	17.34	33.73	32.60	6.42	0.05	0.0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7	0.87	2.15	9.62	19.14	33.27	28.94	5.92	0.02	0.02	2374,22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4.69	2.31	4.57	15.58	21.05	30.15	19.59	1.97		0.00	
	고용주·자영자		0.64	1.16	1.94	13.21	18.81	30.20	29.14	4.68	0.21	0.21	
	무급가족종사자		0.72	0.78	1.24	14.56	30.04	28.72	21.93	1.29	0.73	0.73	
	실업자	1.00	0.73	3.22	4.73	27.32	27.58	25.06	10.36			0.00	
	비경제활동인구	0.12	0.10	1.63	3.04	13.12	22.87	28.62	25.48	5.03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8	0.93	2.17	9.38	19.17	32.64	29.45	6.16	0.02	0.02	1,505,778 ***
	비정규직	0.07	3.70	1.82	3.98	15.07	20.54	32.83	19.97	2.04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9	0.36	1.46	2.59	13.65	21.69	29.14	26.32	4.59	0.11	0.12	976,257 ***
	중도적	0.03	1.75	1.70	3.59	14.43	23.08	30.78	19.25	5.26	0.12	0.06	
	진보적		0.39	1.29	2.31	11.96	19.77	29.05	29.67	5.51	0.06	0.00	

주 1) “(조사표 질문)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7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3〉 종교 유무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χ^2
전체		27.37	72.63	
성별	남성	20.93	79.07	883.018 ***
	여성	33.95	66.05	
연령대	20대 이하	19.05	80.95	1,550.432 ***
	30대	18.26	81.74	
	40대	25.05	74.95	
	50대	31.51	68.49	
	60대	34.83	65.17	
	70대	46.97	53.03	
지역	수도권	27.30	72.70	103 ***
	비수도권	27.44	72.56	
	대도시	28.66	71.34	88,714 ***
	중소도시	27.36	72.64	
	농어촌	20.93	79.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47	75.53	126,425 ***
	중하층	27.86	72.14	
	중간층	26.36	73.64	
	중상층(상층)	35.87	64.1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77	67.23	232,915 ***
	200만 원대	24.87	75.13	
	300만 원대	25.94	74.06	
	400만 원대	24.49	75.51	
	500만 원 이상	28.10	71.90	
학력	중졸 이하	41.39	58.61	645,499 ***
	고졸	28.51	71.49	
	대졸 이상	23.33	76.6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97	80.03	1,001,40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79	67.21	
	고용주·자영자	29.84	70.16	
	무급가족종사자	33.17	66.83	
	실업자	43.47	56.53	
	비경제활동인구	35.35	64.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74	80.26	872,132 ***
	비정규직	30.80	69.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35	66.65	379,138 ***
	중도적	34.20	65.80	
	진보적	23.90	76.10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서는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 종교 믿음 정도

(단위: %)

구분		강하다	다소 강하다	별로 강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전체		50.39	41.53	7.27	0.82	
성별	남성	57.83	35.90	5.02	1.26	199,063 ***
	여성	45.70	45.07	8.68	0.55	
연령대	20대 이하	61.02	33.04	5.93		364,086 ***
	30대	43.44	43.80	9.23	3.54	
	40대	49.74	43.02	6.38	0.86	
	50대	47.41	41.94	9.62	1.02	
	60대	48.81	42.69	8.50		
	70대	54.51	43.05	2.44		
지역	수도권	49.28	40.85	8.59	1.28	60,373 ***
	비수도권	51.50	42.20	5.95	0.36	
	대도시	52.91	40.05	6.62	0.42	43,520 ***
	중소도시	48.48	42.55	7.75	1.22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47.14	44.09	8.13	0.65	61,940 ***
	하층	50.11	40.53	8.87	0.48	
	중하층	53.39	39.28	6.50	0.83	
	중간층	47.45	44.47	7.19	0.9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54.75	35.05	9.54	0.66	536,346 ***
	200만 원 미만	53.73	40.88	5.25	0.13	
	200만 원대	54.34	39.77	5.68	0.22	
	300만 원대	43.33	46.00	9.81	0.86	
	400만 원대	40.10	45.31	13.55	1.04	
학력	500만 원 이상	48.01	35.91	9.64	6.44	119,740 ***
	중졸 이하	56.22	40.82	2.97		
	고졸	47.97	41.91	8.71	1.41	
	대졸 이상	50.30	41.45	7.64	0.6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1.47	40.47	6.96	1.10	160,14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8.08	43.75	5.53	2.64	
	고용주·자영자	52.80	40.60	6.60		
	무급가족종사자	49.79	36.00	14.22		
	실업자	33.35	53.02	13.63		
	비경제활동인구	49.94	41.85	7.76	0.4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0.87	40.53	7.41	1.19	88,492 ***
	비정규직	49.83	43.10	4.85	2.22	
이념적 성향	보수적	50.27	41.64	7.83	0.25	147,832 ***
	중도적	54.17	39.63	5.60	0.61	
	진보적	49.63	42.23	6.47	1.68	

주 1) “(조사표 질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___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7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5〉 어제 경험 정도

(단위: %)

구분		이동(출퇴근, 통학 등) 시 힘들지 않았다	일이 힘들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좋았다	개인적인 시간을 잘 보냈다	가족이나 친족, 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많이 이용했다	기분 좋게 일어났다
전체		76.05	68.32	85.98	75.32	71.08	60.64	81.89
성별	남성	75.18	66.28	86.67	74.54	69.45	61.80	82.48
	여성	76.94	70.41	85.27	76.13	72.74	59.41	81.28
연령대	20대 이하	80.21	71.43	88.02	79.22	75.5	78.73	84.11
	30대	75.18	68.00	85.78	74.00	73.06	71.75	85.08
	40대	74.77	66.63	86.56	73.60	72.71	62.73	83.26
	50대	77.78	67.49	86.69	72.94	71.62	54.89	86.27
	60대	74.75	67.75	81.46	74.74	65.94	37.15	77.98
	70대	69.90	69.32	86.66	80.68	61.00	20.21	62.98
지역	수도권	71.86	64.94	85.22	72.31	68.78	61.33	79.93
	비수도권	80.26	71.71	86.74	78.35	73.38	59.95	83.85
	대도시	74.60	69.65	84.98	74.28	69.24	57.47	81.27
	중소도시	76.14	66.63	86.72	75.38	72.23	64.00	81.90
	농어촌	82.80	71.21	86.72	80.22	73.75	57.74	84.9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41	66.60	83.21	77.49	65.59	44.76	72.75
	중하층	74.50	66.65	83.13	72.97	67.22	55.47	77.00
	중간층	77.29	69.00	88.45	75.95	74.20	66.30	86.26
	중상층(상층)	79.12	73.89	85.41	80.37	74.09	57.49	85.1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4.10	66.41	82.65	74.18	66.02	43.86	76.02
	200만 원대	79.51	71.18	86.04	76.20	73.41	61.69	85.17
	300만 원대	74.94	68.84	90.4	76.98	73.95	69.83	85.31
	400만 원대	76.58	66.48	89.18	71.74	71.47	68.65	82.37
	500만 원 이상	67.71	61.01	80.73	74.47	68.61	69.52	75.60
학력	중졸 이하	69.52	67.66	85.35	76.96	64.09	28.51	67.83
	고졸	75.30	68.63	83.39	73.83	68.94	53.1	80.45
	대졸 이상	78.10	68.23	88.09	76.1	74.28	70.23	86.1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6.12	67.05	88.28	74.59	71.50	67.82	84.3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5.04	64.57	82.17	72.74	66.37	45.12	82.14
	고용주·자영자	76.58	62.58	85.96	73.15	67.91	54.97	81.32
	무급가족종사자	78.58	67.42	74.73	77.02	70.49	40.47	78.21
	실업자	70.73	76.39	84.74	76.62	70.23	55.15	68.22
	비경제활동인구	76.11	76.03	84.28	79.15	74.72	58.17	78.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6.39	68.04	88.47	75.25	72.03	67.92	84.74
	비정규직	74.39	61.94	82.87	71.06	65.79	49.98	81.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76.22	70.41	84.59	76.62	71.74	56.16	79.41
	중도적	74.26	66.32	82.25	74.49	67.18	43.85	75.90
	진보적	73.76	66.96	86.85	76.05	73.31	66.04	84.98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제(오늘) ____님의 경험을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 삶의 만족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4	0.53	0.92	1.46	9.07	17.52	34.93	29.46	6.00	0.08		
성별	남성		0.08	0.40	1.14	1.33	9.01	16.99	34.64	29.70	6.67	0.04	102,271 ***	
	여성			0.67	0.70	1.58	9.12	18.07	35.22	29.23	5.31	0.11		
연령대	20대 이하			0.54	0.62	1.00	7.27	17.92	38.30	29.89	4.46		2,716,758 ***	
	30대		0.16	0.35		0.92	6.16	12.89	37.48	35.39	6.51	0.13		
	40대		0.05	0.05	0.33	0.76	7.41	18.00	34.84	31.72	6.84			
	50대			0.07	1.07	1.29	9.07	17.43	30.87	32.16	7.99	0.06		
	60대			0.51	1.36	3.22	12.14	17.92	38.03	22.89	3.86	0.06		
	70대			3.21	3.79	2.59	17.70	24.83	26.98	15.46	5.03	0.41		
지역	수도권			0.58	1.12	1.55	8.31	17.63	33.09	31.61	6.09		203,382 ***	
	비수도권		0.08	0.48	0.72	1.36	9.83	17.41	36.76	27.31	5.90	0.16		
	대도시			0.11	0.44	0.74	8.03	18.77	32.58	35.11	4.18	0.03	1,207,823 ***	
	중소도시		0.02	0.68	1.26	2.00	9.58	16.81	36.32	25.34	7.92	0.07		
	농어촌		0.34	1.81	1.37	1.97	11.35	15.32	38.80	24.50	4.19	0.3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2	4.97	6.83	8.01	23.52	18.47	24.62	12.12	1.35		8,108,992 ***	
	중하층			0.12	1.07	1.79	13.35	23.49	36.04	21.70	2.44			
	중간층			0.19	0.02	0.41	4.78	14.15	35.76	35.82	8.77	0.11		
	중상층(상층)		0.43				2.22	10.70	34.86	42.37	9.06	0.3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5	1.53	2.72	3.40	15.05	19.85	36.93	18.71	1.46	0.21	5,308,778 ***	
	200만 원대			0.08	0.38	0.99	8.97	20.69	37.72	27.28	3.86	0.03		
	300만 원대			0.46	0.17	0.81	5.75	15.00	34.40	34.56	8.80	0.05		
	400만 원대				0.15		5.01	10.98	26.73	42.56	14.56			
	500만 원 이상				0.18	0.35	1.94	7.59	24.20	50.29	15.44			
학력	중졸 이하		0.08	3.04	3.99	4.31	17.63	25.40	29.51	14.42	1.34	0.27	4,152,343 ***	
	고졸			0.32	0.93	1.93	11.20	18.89	37.95	24.79	3.93	0.05		
	대졸 이상		0.06	0.12	0.22	0.45	5.51	14.70	33.84	36.42	8.62	0.0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7	0.68	0.95	6.43	16.82	35.02	32.58	7.41	0.03	2,674,60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3.89	2.19	2.33	16.15	21.24	31.75	20.90	1.38	0.06		
	고용주·자영자				0.59	1.31	9.09	17.99	34.38	29.90	6.41	0.33		
	무급가족종사자				0.72	0.26	10.93	25.56	38.54	22.42	1.57			
	실업자			2.78	2.22	9.24	16.89	20.75	36.18	10.78	1.16			
	비경제활동인구		0.12	0.23	0.99	1.76	10.26	16.12	36.17	28.69	5.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8	0.69	0.91	5.94	16.78	34.92	33.22	7.43	0.03	1,435,475 ***	
	비정규직		0.07	3.07	1.84	2.15	15.66	20.45	32.77	21.36	2.59	0.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6	0.21	0.86	1.76	10.03	17.36	35.55	28.37	5.67	0.13	1,469,904 ***	
	중도적		0.03	1.22	1.77	1.54	13.08	20.79	37.23	19.19	5.02	0.12		
	진보적			0.34	0.71	1.74	8.27	16.18	32.03	33.01	7.64	0.09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요즘 ____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7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7〉 어제 행복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8	0.20	0.57	1.90	10.65	16.79	34.41	29.65	5.62	0.11		
성별	남성	0.02	0.13	0.31	0.66	1.69	10.44	16.56	34.79	29.93	5.26	0.20	102,124 ***	
	여성		0.04	0.08	0.47	2.11	10.86	17.03	34.03	29.36	5.98	0.03		
연령대	20대 이하	0.06	0.07		0.60	1.03	6.61	14.51	43.10	29.35	4.74		2,179,706 ***	
	30대		0.09	0.64		1.54	7.46	14.08	33.87	34.77	7.49	0.06		
	40대		0.05	0.19	0.17	1.06	9.73	17.51	33.90	30.33	6.90	0.10		
	50대		0.13	0.08	0.64	2.03	10.32	16.86	31.34	32.44	5.83	0.33		
	60대		0.06	0.10	0.80	2.14	15.91	18.63	33.60	25.27	3.50			
	70대		0.10	0.17	2.05	5.85	20.02	22.40	26.91	18.62	3.73	0.15		
지역	수도권				0.50	2.14	10.36	15.20	33.63	32.55	5.51	0.11	330,353 ***	
	비수도권	0.02	0.17	0.40	0.64	1.66	10.94	18.40	35.20	26.74	5.72	0.11		
	대도시		0.07	0.11	0.30	0.62	9.43	18.56	33.90	31.87	5.14		771,284 ***	
	중소도시		0.07	0.25	0.58	2.98	11.32	14.96	34.64	28.57	6.40	0.23		
	농어촌	0.14	0.21	0.34	1.80	2.24	12.97	18.35	35.70	24.65	3.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2	0.39	0.81	1.86	11.01	22.32	19.89	28.63	14.18	0.91		5,034,426 ***	
	중하층		0.03	0.15	0.49	2.17	14.68	21.23	36.92	21.83	2.50			
	중간층		0.06	0.11	0.47	0.49	6.52	13.87	33.72	36.14	8.47	0.14		
	중상층(상층)		0.22	0.43	0.17	0.49	7.12	12.06	33.29	39.63	5.91	0.6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3	0.10	0.34	1.43	4.08	16.89	20.72	35.07	19.59	1.72	0.05	4,143,921 ***	
	200만 원대		0.03	0.25	0.05	1.67	9.18	20.78	36.80	26.86	4.32	0.03		
	300만 원대		0.07		0.81	0.49	9.15	11.53	33.05	36.35	8.49	0.05		
	400만 원대		0.19	0.13		1.17	6.76	8.80	28.88	43.23	10.17	0.66		
	500만 원 이상		0.18	0.10			4.12	6.60	30.28	45.46	12.96	0.30		
학력	중졸 이하	0.02	0.24	0.43	1.47	5.82	21.35	24.36	29.21	15.11	2.01		3,141,188 ***	
	고졸		0.06	0.07	0.97	2.33	12.59	18.95	35.54	25.43	4.05	0.02		
	대졸 이상		0.06	0.24	0.06	0.69	6.76	13.45	34.73	36.14	7.63	0.2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7	0.04	0.03	0.25	1.12	8.58	15.29	35.62	32.29	6.66	0.13	1,948,04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0.75	2.15	5.55	14.18	18.24	36.56	20.53	1.89	0.06		
	고용주·자영자		0.27	0.12	0.37	1.87	11.00	19.27	31.28	29.55	5.93	0.28		
	무급가족종사자				0.26	2.58	15.22	20.10	44.53	16.68	0.63			
	실업자			3.27		4.47	25.59	20.71	32.92	12.43	0.61			
	비경제활동인구		0.04	0.18	0.67	1.60	11.47	16.64	32.99	30.71	5.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4	0.03	0.27	1.05	8.20	15.33	35.59	32.67	6.68	0.14	954,386 ***	
	비정규직		0.07	0.59	1.69	4.83	14.17	17.49	36.45	21.81	2.85	0.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12	0.24	0.52	1.83	11.87	17.93	32.75	29.15	5.44	0.11	1,316,387 ***	
	중도적	0.04	0.13	0.03	0.95	3.38	15.62	19.56	34.49	22.53	3.15	0.12		
	진보적		0.06	0.24	0.60	1.31	8.91	16.34	32.20	32.47	7.68	0.18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 어제 우울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매우 우울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4.43	14.75	21.27	17.84	12.48	10.55	10.33	7.64	0.64	0.03	0.05		
성별	남성	3.58	15.01	21.83	18.51	12.85	10.09	9.78	7.49	0.72	0.06	0.08	138,791 ***	
	여성	5.31	14.49	20.69	17.15	12.10	11.02	10.89	7.79	0.56		0.02		
연령대	20대 이하	4.07	17.19	21.87	17.48	10.38	8.22	10.82	8.66	1.23	0.07		876,665 ***	
	30대	3.73	14.97	23.56	16.19	13.25	10.02	10.25	7.08	0.70	0.09	0.16		
	40대	5.81	14.46	20.40	18.44	11.74	9.99	10.13	8.41	0.57		0.06		
	50대	3.63	12.15	21.53	19.95	12.24	11.78	11.00	7.37	0.35				
	60대	6.09	16.12	22.32	14.75	10.69	12.68	9.68	7.22	0.45				
	70대	2.49	13.72	14.69	20.80	20.92	11.31	9.36	6.17	0.43		0.10		
지역	수도권	3.48	13.11	20.54	18.04	13.84	12.53	10.54	7.58	0.34			481,074 ***	
	비수도권	5.39	16.40	21.99	17.64	11.12	8.55	10.11	7.70	0.94	0.06	0.10		
	대도시	3.92	13.77	21.24	18.42	11.72	11.28	10.59	8.63	0.39	0.04		494,692 ***	
	중소도시	4.94	15.68	20.66	17.31	13.24	10.11	10.38	7.01	0.64	0.03			
	농어촌	4.16	14.39	24.85	17.88	11.95	9.34	8.70	6.24	1.92		0.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5	13.83	25.11	16.65	11.67	15.64	6.74	6.44	0.90	0.16	0.11	942,534 ***	
	중하층	3.38	14.60	21.61	19.06	11.41	10.45	11.38	7.66	0.45				
	중간층	4.37	15.17	20.59	18.03	13.50	10.01	9.67	7.84	0.75	0.03	0.02		
	중상층(상층)	12.42	13.39	20.09	11.30	11.29	9.20	14.01	7.41	0.46		0.4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3	13.48	20.44	19.38	12.76	11.21	10.92	8.08	0.36		0.14	900,369 ***	
	200만 원대	5.22	15.17	22.69	17.82	10.52	8.79	10.27	8.76	0.74		0.03		
	300만 원대	4.74	17.50	21.45	17.21	12.92	9.84	10.08	5.18	1.07				
	400만 원대	4.01	15.34	14.77	15.25	17.30	13.73	10.98	8.44		0.19			
	500만 원 이상	4.47	8.12	24.49	17.20	14.51	15.64	8.28	6.51	0.62	0.18			
학력	중졸 이하	2.92	12.69	18.07	16.95	16.80	12.04	12.72	6.84	0.89		0.08	364,325 ***	
	고졸	5.18	13.46	20.73	19.66	11.47	10.81	9.69	8.26	0.71	0.03			
	대졸 이상	4.21	16.20	22.40	16.65	12.28	10.01	10.27	7.35	0.53	0.03	0.0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85	16.72	20.99	17.43	11.83	10.09	10.82	7.91	0.32	0.04		897,03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2	13.06	19.22	17.38	12.88	13.87	9.71	8.31	2.34				
	고용주·자영자	4.83	12.52	25.24	15.97	11.89	11.33	10.17	7.42	0.50	0.07	0.07		
	무급가족종사자	4.37	12.18	24.48	17.35	10.51	11.93	6.45	12.09	0.63				
	실업자	8.34	6.67	21.61	11.75	13.23	11.55	9.58	13.54	3.73				
	비경제활동인구	5.50	14.18	19.47	20.52	14.02	9.24	10.12	6.37	0.42		0.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99	16.47	20.82	17.25	12.06	9.87	11.06	8.09	0.34	0.04		231,397 ***	
	비정규직	2.91	14.62	20.12	17.97	11.92	13.77	9.19	7.65	1.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8	12.57	21.44	18.55	13.64	12.49	9.47	7.93	0.39	0.06	0.08	667,791 ***	
	중도적	4.04	14.31	19.12	17.15	13.88	11.50	10.83	8.41	0.73	0.03			
	진보적	5.91	17.27	24.04	18.15	9.55	7.54	10.40	6.33	0.72		0.09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 어제 얼마만큼 우울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 삶의 가치: 에우다이모니아

(단위: %)

구분		전혀 가치 있지 않았다										매우 가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3	0.06	0.14	0.53	1.81	10.68	18.09	35.25	27.40	5.84	0.17		
성별	남성	0.06	0.05	0.19	0.60	1.76	9.11	17.27	36.63	27.82	6.20	0.32	230,551 ***	
	여성		0.08	0.09	0.46	1.87	12.29	18.93	33.84	26.96	5.46	0.02		
연령대	20대 이하	0.16		0.36	0.18	1.09	7.88	14.57	42.21	27.78	5.95		3,514,954 ***	
	30대		0.09	0.38	1.18	7.07	13.50	36.22	35.14	6.21	0.05			
	40대		0.05	0.04	0.22	1.02	8.11	19.71	34.66	28.63	7.45	0.10		
	50대		0.09	0.08	0.24	1.89	9.89	18.14	32.96	30.46	5.90	0.33		
	60대			0.14	0.77	1.89	13.43	22.04	36.64	21.35	3.27	0.46		
	70대		0.24	0.31	2.68	6.27	27.71	24.51	22.71	10.26	5.26	0.05		
지역	수도권				0.39	1.15	10.56	16.90	35.77	30.57	4.42	0.24	557,264 ***	
	비수도권	0.06	0.13	0.28	0.68	2.48	10.80	19.28	34.73	24.21	7.26	0.10		
	대도시		0.04	0.16	0.29	1.48	9.79	18.89	34.51	29.21	5.48	0.15	309,656 ***	
	중소도시		0.09	0.13	0.69	2.17	11.40	17.88	35.68	25.91	5.86	0.20		
	농어촌	0.34		0.10	0.83	1.42	11.08	15.26	36.56	26.75	7.52	0.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2	0.71	2.75	5.81	23.71	18.21	30.28	14.71	3.71		3,992,453 ***	
	중하층		0.08	0.12	0.35	2.45	14.25	23.26	36.89	19.70	2.88			
	중간층		0.05	0.08	0.39	0.94	6.76	14.74	34.63	34.33	7.93	0.16		
	중상층(상층)	0.43				0.37	6.44	16.18	37.21	30.08	7.98	1.3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1	0.09	0.21	1.06	3.55	20.76	22.35	30.22	19.08	2.48	0.09	5,275,435 ***	
	200만 원대		0.08	0.19	0.69	1.10	8.31	20.84	39.53	23.93	5.31	0.01		
	300만 원대					1.41	8.04	14.55	38.62	29.81	7.57			
	400만 원대					0.50	4.11	12.31	28.44	43.03	11.62			
	500만 원 이상		0.15	0.18		1.84	1.13	5.12	29.87	50.73	8.91	2.07		
학력	중졸 이하		0.26	0.38	2.00	6.28	25.05	29.14	25.20	10.19	1.50		4,747,177 ***	
	고졸		0.02	0.09	0.48	2.29	12.74	20.75	36.40	23.49	3.70	0.04		
	대졸 이상	0.06	0.05	0.12	0.24	0.44	5.87	13.57	36.64	34.25	8.44	0.3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2			0.16	0.67	7.42	16.04	36.77	31.03	7.90	0.02	3,932,22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0		0.66	4.97	17.90	23.78	29.25	20.65	2.50			
	고용주·자영자		0.06	0.07	0.55	0.94	8.39	19.81	35.84	28.89	4.57	0.88		
	무급가족종사자				1.73	1.76	11.57	22.92	39.34	22.69				
	실업자		0.45	4.37	5.72	14.05	25.05	15.39	23.09	11.27	0.61			
	비경제활동인구		0.12	0.06	0.26	0.76	2.49	14.34	17.95	35.02	23.81	5.16		0.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7	0.44	6.81	15.91	36.89	31.42	8.34	0.02	1,601,249 ***	
	비정규직		0.23		0.52	4.77	17.59	22.53	30.45	21.64	2.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6	0.15	1.18	3.20	16.36	20.77	33.42	19.75	4.80	0.31	1,492,181 ***	
	중도적		0.04	0.07	0.38	1.52	9.04	18.01	32.40	31.76	6.58	0.20		
	진보적	0.09	0.10	0.23	0.17	0.99	7.93	15.84	40.76	28.15	5.73	0.01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는 ____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선택 가능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51	1.29	2.83	11.22	19.21	32.09	26.45	6.00	0.38	
성별	남성		0.02	0.76	1.42	2.75	12.21	18.30	31.20	26.44	6.58	0.32	155,745 ***
	여성			0.25	1.15	2.92	10.21	20.14	33.01	26.46	5.41	0.45	
연령대	20대 이하			0.72	0.85	2.63	10.89	17.87	35.49	23.43	7.57	0.55	987,556 ***
	30대			0.97	1.47	1.98	10.39	17.66	31.26	30.38	5.14	0.75	
	40대		0.05	0.34	1.98	3.02	9.87	18.67	30.60	28.90	6.42	0.16	
	50대			0.19	1.30	3.63	10.73	18.37	29.32	29.79	6.43	0.23	
	60대			0.38	1.10	2.19	10.98	23.28	35.58	22.70	3.63	0.16	
	70대			0.52	0.47	3.79	18.61	21.65	30.81	17.13	6.45	0.57	
지역	수도권			0.42	1.07	1.60	10.04	17.86	32.12	29.54	6.94	0.41	552,829 ***
	비수도권		0.02	0.60	1.51	4.07	12.41	20.57	32.07	23.34	5.05	0.35	
	대도시			0.22	1.35	2.01	13.64	19.24	33.16	25.28	4.85	0.25	453,878 ***
	중소도시 농어촌		0.02	0.73	1.31	3.18	9.22	19.18	31.54	27.57	6.82	0.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2	0.91	3.39	4.23	17.77	22.35	30.37	15.23	5.33	0.31	2,354,078 ***
	중하층			0.48	1.47	4.09	15.45	22.34	33.41	19.84	2.78	0.13	
	중간층			0.48	0.92	2.00	8.10	17.00	31.18	31.80	8.03	0.49	
	중상층(상층)			0.43	0.61	0.90	5.10	15.79	34.22	33.66	8.28	1.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4	0.62	1.78	4.37	14.03	23.68	32.80	19.20	3.26	0.23	3,677,917 ***
	200만 원대			0.33	1.27	2.93	11.71	20.74	34.49	24.75	3.67	0.11	
	300만 원대			0.97	1.25	2.48	10.82	17.69	31.75	27.48	7.36	0.20	
	400만 원대			0.10	0.59	0.63	7.82	11.34	26.69	42.11	8.90	1.81	
	500만 원 이상			0.20	0.45	0.31	3.37	8.45	24.38	40.42	21.22	1.21	
학력	중졸 이하		0.08	0.49	0.95	3.04	16.69	29.11	31.16	14.82	3.37	0.29	1,286,829 ***
	고졸			0.25	1.68	3.83	11.75	19.18	33.92	24.22	4.91	0.26	
	대졸 이상			0.71	1.06	2.03	9.59	17.00	30.92	30.77	7.42	0.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8	1.40	2.74	10.24	18.76	31.66	27.71	6.92	0.19	1,234,83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0.45	1.55	4.21	19.63	21.10	33.85	15.78	3.33		
	고용주·자영자			1.01	0.96	2.60	11.15	21.05	29.42	26.17	6.76	0.89	
	무급가족종사자				3.56	5.02	11.27	26.73	32.35	21.08			
	실업자			1.45	4.70	6.97	14.66	5.70	30.08	33.71	2.73		
	비경제활동인구			0.39	0.85	2.19	9.31	18.13	34.20	28.83	5.51	0.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1	1.40	2.68	10.27	18.52	31.58	27.80	7.16	0.18	497,296 ***
	비정규직		0.07	0.35	1.52	4.09	17.52	21.36	33.66	18.02	3.35	0.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34	1.58	3.66	14.58	20.58	32.93	21.26	4.72	0.31	797,584 ***
	중도적			0.44	1.29	2.37	10.56	18.99	28.48	30.06	7.61	0.20	
	진보적			0.75	1.01	2.74	9.19	18.30	36.31	26.07	4.93	0.70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8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1〉 생활영역 만족: 생활수준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9	0.65	2.30	4.86	16.88	23.26	29.52	14.96	6.92	0.57		
성별	남성		0.09	0.70	2.20	4.67	17.13	22.94	28.87	14.69	8.04	0.67	103,503 ***	
	여성		0.09	0.59	2.41	5.06	16.62	23.58	30.18	15.23	5.77	0.47		
연령대	20대 이하					4.20	12.35	30.06	34.79	15.09	3.22	0.29	3,330,007 ***	
	30대		0.19	0.71	1.97	2.14	15.51	23.85	32.18	13.71	8.87	0.88		
	40대		0.10	0.56	1.71	4.37	15.74	21.50	29.99	17.21	8.27	0.54		
	50대			0.38	1.53	5.00	15.31	21.75	28.48	17.09	9.69	0.77		
	60대		0.07	1.11	2.95	5.43	23.13	21.07	27.71	12.62	5.28	0.62		
	70대		0.34	1.98	10.20	11.90	25.32	18.95	16.98	10.68	3.65			
지역	수도권			0.28	2.71	4.44	17.09	21.17	27.04	14.70	11.54	1.02	1,763,860 ***	
	비수도권		0.19	1.01	1.89	5.28	16.67	25.35	32.00	15.21	2.28	0.12		
	대도시		0.02	0.48	1.53	3.79	17.97	21.96	30.40	17.05	6.38	0.41	795,157 ***	
	중소도시		0.04	0.50	3.02	5.73	16.19	24.15	28.71	12.91	7.98	0.77		
	농어촌		0.75	2.27	2.04	5.33	15.33	24.70	29.67	16.06	3.58	0.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4	3.76	12.72	18.01	26.21	16.09	14.25	6.82	1.08		10,018,313 ***	
	중하층		0.03	0.92	3.27	6.94	26.43	25.87	27.47	7.61	1.33	0.14		
	중간층			0.06	0.32	1.94	10.03	24.03	32.29	19.11	11.23	0.99		
	중상층(상층)					0.67	7.81	12.06	37.18	31.58	10.39	0.3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5	2.01	6.82	10.91	23.58	24.53	24.44	7.06	0.22	0.07	13,141,032 ***	
	200만 원대			0.26	1.07	3.98	19.10	28.21	32.09	12.95	2.30	0.04		
	300만 원대			0.08	0.35	1.84	13.24	23.22	35.12	18.98	6.64	0.53		
	400만 원대				0.36	1.29	6.61	10.99	25.93	25.83	25.99	3.00		
	500만 원 이상					0.18	3.42	7.38	22.45	29.92	34.23	2.42		
학력	중졸 이하		0.43	2.30	9.51	11.55	26.48	23.46	18.71	6.59	0.89	0.08	4,620,779 ***	
	고졸		0.03	0.65	2.33	6.22	20.27	23.59	29.85	12.80	3.79	0.47		
	대졸 이상		0.07	0.27	0.65	2.32	12.13	22.96	31.70	18.49	10.66	0.7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0	0.39	1.25	3.08	15.13	23.64	32.30	16.04	7.66	0.40	2,496,14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1.62	6.06	10.74	24.82	26.56	20.26	9.24	0.60			
	고용주·자영자			0.33	0.94	5.61	18.70	19.68	30.74	15.16	7.45	1.39		
	무급가족종사자			0.92	2.11	3.78	13.41	38.38	27.08	10.53	3.79			
	실업자		1.02	4.41	5.91	12.32	15.83	32.96	20.68	6.87				
	비경제활동인구		0.10	0.69	3.42	4.69	15.67	22.15	28.16	16.04	8.48	0.6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8	0.30	1.23	2.84	15.22	23.65	31.98	16.37	7.91	0.42	1,522,560 ***	
	비정규직		0.16	1.65	5.10	9.89	22.48	25.92	23.85	9.63	1.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0	1.12	3.88	6.20	19.02	23.57	29.02	13.05	3.69	0.23	1,719,870 ***	
	중도적		0.09	0.53	1.54	4.54	15.85	23.30	26.07	15.30	11.70	1.08		
	진보적			0.38	1.95	4.12	16.41	22.92	34.67	16.16	3.22	0.17		

주 1) “(조사표 질문) __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 생활영역 만족: 건강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3	0.10	0.48	1.50	2.97	8.58	17.60	24.92	27.52	15.48	0.83		
성별	남성	0.06	0.10	0.33	1.15	2.75	8.40	15.00	24.26	29.81	17.17	0.99	415,909 ***	
	여성		0.11	0.63	1.86	3.19	8.77	20.25	25.59	25.18	13.74	0.67		
연령대	20대 이하	0.16		0.07	0.07	1.13	4.80	10.10	23.74	35.56	23.15	1.38	7,634,560 ***	
	30대			0.29	0.36	1.06	3.69	13.31	26.39	31.30	22.24	1.19		
	40대		0.15	0.11	0.63	1.27	7.34	17.52	26.82	28.71	16.44	1.01		
	50대		0.04	0.18	1.17	2.80	9.49	20.26	25.73	25.75	13.94	0.64		
	60대		0.24	0.67	1.12	5.09	15.58	23.43	25.41	22.79	5.45	0.21		
	70대		0.33	3.08	10.59	11.77	15.62	26.34	16.94	11.80	3.54			
지역	수도권			0.11	1.47	2.37	6.54	15.87	24.22	30.15	18.37	0.90	834,931 ***	
	비수도권	0.06	0.20	0.85	1.53	3.57	10.63	19.33	25.61	24.88	12.57	0.76		
	대도시		0.14	0.67	0.51	2.88	6.27	19.02	24.30	30.27	15.37	0.57	913,582 ***	
	중소도시		0.05	0.23	2.06	2.88	9.93	16.16	25.24	26.21	16.32	0.93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34	0.22	0.90	3.31	3.92	12.52	18.57	26.18	21.15	11.28	1.62		
	하층		1.00	3.01	4.19	7.68	12.32	18.62	22.94	20.30	9.64	0.31	2,859,689 ***	
	중하층		0.04	0.29	2.57	3.88	11.08	20.47	24.80	24.48	11.57	0.82		
	중간층		0.02	0.28	0.52	1.80	6.29	15.62	25.13	29.79	19.64	0.91		
중상층(상층)	0.43			0.16	1.52	8.48	16.32	26.22	34.74	11.22	0.9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1	0.39	1.16	4.88	6.95	15.47	22.40	23.33	18.85	6.15	0.33	6,449,276 ***	
	200만 원대			0.19	0.40	1.55	7.19	19.11	28.79	28.72	13.60	0.43		
	300만 원대			0.43	0.21	1.86	6.45	14.80	24.06	30.01	20.55	1.62		
	400만 원대			0.12	0.14	0.94	3.65	13.09	24.51	32.14	25.40			
	500만 원 이상				0.11	1.25	2.38	5.29	13.28	40.90	33.25	3.55		
학력	중졸 이하		0.73	2.75	9.33	9.92	18.81	26.33	17.28	12.39	2.15	0.31	7,999,807 ***	
	고졸		0.03	0.29	0.61	3.70	10.93	21.78	27.06	23.44	11.44	0.73		
	대졸 이상	0.06	0.02	0.11	0.42	0.84	4.49	12.44	25.00	34.04	21.56	1.0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2		0.07	0.32	1.52	5.73	14.07	26.62	29.29	21.49	0.88	3,194,68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0.64	2.23	7.54	14.07	23.42	25.28	20.80	5.74	0.19		
	고용주·자영자		0.12	0.09	1.77	3.04	10.07	19.61	25.10	29.02	10.52	0.67		
	무급가족종사자			1.21	1.13	4.28	17.28	21.19	27.78	17.33	8.51	1.29		
	실업자		0.73	1.28	6.07	9.20	20.21	21.55	17.55	17.40	6.02			
	비경제활동인구		0.25	1.33	2.90	3.16	9.05	19.57	21.75	27.36	13.37	1.1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8	0.34	1.44	5.18	13.97	27.32	28.70	22.14	0.83	1,741,784 ***	
	비정규직		0.07	0.51	1.75	6.51	14.06	21.76	23.36	24.47	7.01	0.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8	1.23	2.25	5.87	12.01	24.20	26.17	20.69	7.03	0.37	2,705,270 ***	
	중도적		0.11	0.16	0.39	2.28	8.54	16.60	24.44	28.88	17.66	0.94		
	진보적	0.09	0.03	0.26	2.36	1.36	5.63	13.14	24.47	31.66	19.92	1.08		

주 1) “(조사표 질문) ____ 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8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3〉 생활영역 만족: 삶에서 성취한 것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3	0.06	0.23	1.41	4.66	13.32	24.58	28.86	19.45	6.65	0.76		
성별	남성	0.06	0.06	0.27	1.02	4.68	12.69	24.75	29.22	18.73	7.72	0.79	159,159 ***	
	여성		0.05	0.19	1.80	4.63	13.97	24.40	28.48	20.19	5.56	0.73		
연령대	20대 이하	0.16		0.32	1.41	3.20	9.69	24.62	35.24	19.68	5.41	0.42	3,035,196 ***	
	30대			0.30	1.31	1.53	11.10	23.17	30.82	23.43	7.60	0.57		
	40대		0.28	0.10	0.54	3.52	11.69	23.56	29.05	20.87	9.38	1.00		
	50대			0.04	0.63	4.94	13.16	24.31	27.98	20.64	7.36	0.94		
	60대			0.27	2.53	4.95	17.62	26.28	28.50	13.88	5.34	0.63		
	70대			0.59	3.64	15.89	22.73	27.59	13.14	13.98	1.33	1.10		
지역	수도권		0.05	0.05	1.02	4.27	11.29	23.32	29.90	20.37	8.67	1.04	617,714 ***	
	비수도권	0.06	0.07	0.41	1.79	5.04	15.36	25.84	27.81	18.53	4.62	0.47		
	대도시			0.14	1.15	3.41	13.39	26.56	28.62	20.75	5.64	0.34	601,947 ***	
	중소도시		0.07	0.33	1.48	5.85	12.97	22.75	29.28	18.40	7.87	1.01		
	농어촌	0.34	0.27	0.09	2.30	4.15	14.96	25.04	27.67	18.97	4.79	1.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2	1.98	6.15	16.04	21.26	29.40	15.86	6.16	3.04		6,170,011 ***	
	중하층		0.13	0.15	1.85	7.33	18.43	28.32	28.35	12.52	2.52	0.40		
	중간층			0.04	0.53	1.60	9.32	22.11	30.55	25.30	9.42	1.12		
	중상층(상층)	0.43			0.16	0.46	7.56	18.05	33.97	27.07	11.56	0.7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1	0.12	0.71	3.17	10.51	21.89	28.92	21.64	11.43	1.36	0.14	10,316,524 ***	
	200만 원대		0.06	0.08	1.04	3.02	13.77	28.51	35.40	14.85	3.01	0.27		
	300만 원대				0.74	2.89	8.68	22.12	31.94	24.76	8.59	0.29		
	400만 원대				0.36	1.61	4.86	12.44	23.48	37.72	18.26	1.27		
	500만 원 이상			0.18		0.25	3.00	9.71	18.74	35.61	25.93	6.58		
학력	중졸 이하		0.08	0.90	4.60	16.21	25.08	24.99	17.37	8.79	1.60	0.38	4,840,296 ***	
	고졸		0.06	0.17	1.37	4.83	15.94	28.25	28.77	15.31	4.45	0.85		
	대졸 이상	0.06	0.05	0.12	0.72	1.91	8.68	21.69	31.51	25.02	9.47	0.7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2		0.03	0.46	3.05	10.17	24.00	31.56	22.62	7.20	0.92	2,881,64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0.15	4.66	9.43	21.60	29.88	23.84	7.18	3.16			
	고용주·자영자		0.13	0.18	0.65	3.87	13.74	25.28	28.21	18.16	8.74	1.03		
	무급가족종사자				2.61	6.60	21.30	23.00	25.50	14.50	6.49			
	실업자		1.63	3.31	5.78	11.13	13.27	30.54	17.85	13.28	3.22			
	비경제활동인구			0.50	1.97	5.62	14.66	22.64	27.43	20.56	5.81	0.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3	0.40	2.87	10.32	24.20	30.84	22.86	7.52	0.96	1,572,249 ***	
	비정규직		0.07	0.12	3.96	8.63	18.73	27.99	27.76	9.69	2.97	0.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28	2.19	7.45	17.15	27.22	26.75	15.12	3.11	0.69	1,572,478 ***	
	중도적			0.21	0.66	3.50	12.81	23.84	26.56	21.40	10.00	1.02		
	진보적	0.09	0.15	0.21	1.74	3.78	10.65	23.26	33.86	20.60	5.19	0.46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 생활영역 만족: 가족관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3	0.09	0.75	2.88	10.46	18.23	28.30	26.54	11.98	0.74		
성별	남성		0.05	0.11	0.80	2.46	11.16	17.92	27.69	26.99	12.21	0.61	74,112 ***	
	여성		0.02	0.06	0.71	3.30	9.74	18.55	28.92	26.08	11.75	0.87		
연령대	20대 이하			0.07	0.41	0.93	8.66	15.12	30.86	32.15	11.68	0.13	2,516,989 ***	
	30대				0.12	1.19	7.45	15.79	29.54	30.22	14.15	1.53		
	40대		0.05	0.05	0.80	2.49	8.12	18.81	27.51	28.45	13.06	0.67		
	50대			0.04	0.71	2.59	11.67	16.85	28.05	26.50	12.49	1.10		
	60대		0.11	0.17	0.94	4.46	12.33	23.65	28.50	20.64	8.69	0.52		
	70대		0.10	0.38	2.50	9.57	20.04	22.71	22.29	12.38	9.97	0.05		
지역	수도권				0.41	3.54	10.22	15.73	25.20	30.77	13.49	0.63	829,358 ***	
	비수도권		0.07	0.17	1.10	2.22	10.69	20.74	31.42	22.29	10.46	0.84	604,670 ***	
	대도시		0.04	0.02	0.67	2.40	9.43	16.36	31.91	26.70	11.90	0.58		
	중소도시		0.04	0.11	0.81	3.38	11.41	18.58	25.12	28.06	11.81	0.68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29	0.84	2.45	10.20	25.62	28.28	17.10	13.38	1.84	3,933,825 ***	
	하층		0.44	0.51	2.91	9.13	21.40	20.90	26.32	15.15	3.13	0.11		
	중하층			0.06	1.11	4.22	15.07	20.69	29.24	22.05	7.44	0.14		
	중간층			0.05	0.21	1.30	5.91	16.77	28.02	30.31	16.20	1.2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0.49	0.54	7.93	13.30	27.85	34.87	14.14	0.88	6,742,734 ***	
	200만 원 미만		0.13	0.29	2.05	6.42	16.07	24.80	28.54	16.59	4.82	0.29		
	200만 원대			0.03	0.20	1.82	11.95	20.26	30.19	26.51	8.69	0.36		
	300만 원대				0.55	2.17	5.76	15.31	30.74	31.56	12.82	1.08		
	400만 원대				0.13	0.62	5.27	7.39	23.80	35.51	25.14	2.14		
학력	500만 원 이상				0.18		1.89	4.78	15.38	38.10	37.96	1.69	4,495,551 ***	
	중졸 이하		0.16	0.47	2.73	10.68	19.51	28.03	21.68	12.92	3.76	0.08		
	고졸		0.04	0.03	0.79	2.84	11.95	22.52	29.47	22.82	9.12	0.43		
	대졸 이상			0.04	0.28	1.15	7.28	12.76	28.91	32.44	16.01	1.1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2	0.45	2.29	8.69	17.62	27.72	29.01	13.58	0.63	1,353,08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5	0.23	1.58	5.67	16.38	22.76	28.28	17.69	7.04	0.15			
	고용주·자영자			0.04	0.72	2.27	12.81	20.10	26.78	25.12	10.91	1.26		
	무급가족종사자			0.78	0.67	2.60	13.29	22.91	31.06	17.12	10.56	1.02		
	실업자			1.53	1.36	1.97	14.68	20.65	32.31	25.39	1.50	0.6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0.04	0.04	0.95	3.30	8.98	15.58	30.05	27.58	12.67	0.80	56,382 ***		
	정규직			0.02	0.44	2.24	8.81	17.29	28.02	28.60	13.93		0.65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0.19	0.18	1.39	5.09	14.38	22.70	27.22	21.36	7.31	0.18	1,367,100 ***	
	보수적		0.13	0.03	1.33	4.38	15.12	22.54	28.46	20.42	7.20	0.40		
	중도적			0.06	0.46	2.52	8.72	17.64	26.84	28.00	14.75	1.01		
	진보적			0.17	0.65	2.05	8.75	15.25	30.16	29.93	12.39	0.66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5〉 생활영역 만족: 사회적 친분 관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7	0.09	0.82	3.94	11.00	19.86	31.96	23.97	7.75	0.56		
성별	남성		0.08	0.14	1.06	3.11	11.09	19.87	31.80	23.71	8.66	0.49	165,868 ***	
	여성		0.05	0.04	0.58	4.78	10.92	19.84	32.11	24.24	6.81	0.62		
연령대	20대 이하				1.02	1.15	8.17	15.01	41.10	29.98	3.57		3,298,447 ***	
	30대		0.16	0.16	0.87	2.27	8.02	18.72	31.65	27.92	9.58	0.64		
	40대		0.05	0.10	0.76	3.14	10.71	20.38	29.65	22.63	11.81	0.79		
	50대			0.04	0.25	4.02	10.69	21.16	30.77	21.88	10.65	0.55		
	60대			0.16	0.44	4.46	15.08	24.69	29.84	20.18	4.10	1.06		
	70대		0.32	0.14	2.52	14.30	17.82	19.90	24.85	17.57	2.41	0.17		
지역	수도권				0.76	3.99	9.98	15.38	31.84	26.69	10.64	0.72	1,125,159 ***	
	비수도권		0.13	0.18	0.88	3.88	12.03	24.36	32.07	21.23	4.84	0.39		
	대도시		0.04	0.05	0.69	2.96	10.57	18.34	32.56	27.42	6.88	0.49	494,681 ***	
	중소도시		0.02	0.13	0.94	4.86	11.65	20.29	31.29	21.61	8.69	0.52		
	농어촌		0.43	0.09	0.85	3.56	9.51	25.02	32.71	20.07	6.71	1.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6	0.41	4.49	7.93	19.05	24.19	29.61	11.64	2.09	0.11	3,542,890 ***	
	중하층			0.14	0.96	6.10	13.92	22.43	33.52	19.59	3.19	0.15		
	중간층				0.24	2.10	8.18	17.64	31.35	28.44	11.27	0.77		
	중상층(상층)		0.43	0.17	0.16	1.80	7.67	18.09	31.08	27.47	11.55	1.5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25	0.24	1.46	9.39	17.04	24.41	28.25	15.74	2.93	0.30	7,690,305 ***	
	200만 원대			0.08	0.52	2.86	11.84	22.48	37.05	21.61	3.51	0.06		
	300만 원대				1.04	1.45	7.45	18.20	34.10	28.23	8.77	0.75		
	400만 원대				0.17	0.90	4.34	10.69	26.68	34.96	20.64	1.62		
	500만 원 이상				0.18	0.25	2.64	4.94	18.90	41.27	29.54	2.28		
학력	중졸 이하		0.32	0.56	2.07	12.83	20.71	24.93	24.06	12.95	1.29	0.28	4,319,471 ***	
	고졸				1.03	4.60	13.34	23.75	32.13	19.97	4.70	0.49		
	대졸 이상		0.06	0.06	0.38	1.43	7.04	15.75	33.60	29.50	11.52	0.6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3	2.27	8.91	18.58	33.84	26.45	9.10	0.34	2,223,56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0.04	1.42	5.96	17.55	28.78	28.50	15.73	1.83	0.10		
	고용주·자영자			0.12	0.84	2.64	11.88	20.77	31.22	22.57	8.95	1.02		
	무급가족종사자			0.67	0.39	6.81	16.38	27.17	23.75	18.30	4.21	2.31		
	실업자			2.58	1.03	8.32	17.52	16.33	42.59	7.74	3.89			
	비경제활동인구		0.23	0.08	1.09	6.61	10.63	17.43	30.50	25.33	7.39	0.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9	2.18	8.58	18.94	33.58	26.66	9.24	0.34	939,210 ***	
	비정규직		0.07	0.03	1.39	5.45	16.75	25.46	30.47	17.33	2.91	0.1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3	0.12	1.40	5.65	16.53	21.72	30.11	19.46	4.27	0.60	1,907,562 ***	
	중도적			0.08	0.62	3.46	9.64	20.04	29.09	23.98	12.24	0.85		
	진보적		0.09	0.09	0.58	3.08	8.00	17.98	37.50	27.91	4.66	0.11		

주 1) “(조사표 질문) __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6〉 생활영역 만족: 안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4	0.34	1.13	3.41	11.20	23.55	28.80	23.18	7.72	0.54		
성별	남성		0.19	0.42	0.94	3.39	11.02	22.39	27.44	25.04	8.39	0.80	221,585 ***	
	여성		0.09	0.26	1.32	3.43	11.38	24.74	30.20	21.28	7.04	0.27		
연령대	20대 이하			0.20	0.70	0.78	6.93	22.03	35.63	27.95	5.35	0.45	2,325,357 ***	
	30대		0.35	0.07	1.66	1.84	10.52	22.47	27.30	25.13	9.79	0.87		
	40대		0.16	0.68	0.53	4.14	9.01	24.67	25.20	24.79	10.42	0.41		
	50대		0.06	0.19	0.72	3.50	12.11	22.78	27.29	23.47	9.56	0.32		
	60대		0.07	0.27	1.41	3.70	15.65	27.41	29.31	17.01	4.10	1.06		
	70대		0.28	0.84	2.88	9.91	17.15	21.61	28.60	14.89	3.85			
지역	수도권				0.56	2.93	9.57	19.30	29.93	26.49	10.73	0.49	1,466,280 ***	
	비수도권		0.28	0.68	1.70	3.89	12.84	27.81	27.67	19.85	4.70	0.59	663,976 ***	
	대도시			0.16	0.79	2.22	10.87	23.52	28.93	25.65	7.49	0.36		
	중소도시		0.15	0.37	1.28	4.40	11.55	23.15	29.00	21.63	8.05	0.42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78	1.04	1.95	3.68	10.89	25.96	27.06	19.56	6.97	2.11	3,140,237 ***	
	하층		0.74	1.75	2.54	8.26	22.22	23.73	31.06	8.04	1.54	0.11		
	중하층		0.20	0.50	1.66	4.53	13.70	26.39	29.74	19.26	3.92	0.11		
	중간층		0.02	0.05	0.63	2.09	8.00	22.05	27.66	27.63	11.00	0.8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0.43	1.78	9.42	19.82	29.90	27.72	10.03	0.90	6,531,690 ***	
	200만 원 미만		0.40	0.95	2.40	6.82	17.83	27.88	27.33	13.13	2.97	0.28		
	200만 원대		0.09	0.19	0.84	2.34	11.36	26.84	31.93	21.16	4.93	0.33		
	300만 원대			0.08	0.83	3.06	7.45	20.63	31.72	27.40	8.44	0.39		
	400만 원대				0.09	0.99	6.30	16.45	22.76	34.71	17.42	1.28		
학력	500만 원 이상					0.17	2.56	7.18	16.32	45.06	26.52	2.19	3,541,720 ***	
	중졸 이하		0.29	0.99	3.50	10.25	20.34	28.38	25.96	8.65	1.48	0.17		
	고졸		0.12	0.43	0.85	3.87	13.68	26.33	28.67	19.51	5.96	0.60		
	대졸 이상		0.12	0.12	0.80	1.51	7.25	20.34	29.55	29.25	10.47	0.58		
	경제활동 참여상태	중졸 이하												
상용직 임금근로자			0.14	0.19	0.65	2.71	8.43	23.44	28.42	26.46	8.91	0.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0.29	1.51	5.32	24.73	25.21	27.87	12.88	2.09			
고용주·자영자			0.13	0.40	0.81	3.59	12.00	23.10	26.85	24.00	8.40	0.72		
무급가족종사자				2.56	2.77	6.54	9.29	26.17	33.55	11.58	7.55			
실업자				2.66	3.03	7.19	12.14	25.69	28.45	16.94	3.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0.19	0.29	1.82	3.29	9.98	23.07	31.02	22.16	7.68	0.50	1,315,666 ***	
	정규직		0.15	0.09	0.48	2.66	8.45	23.31	28.07	27.26	8.89	0.64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0.07	0.59	1.89	4.92	21.22	25.24	29.07	13.22	3.60	0.19	1,052,237 ***	
	보수적		0.36	0.55	1.31	5.01	13.63	25.55	30.21	18.98	3.94	0.46		
	중도적		0.10	0.23	0.96	2.72	11.38	22.57	25.84	24.60	11.05	0.55		
	진보적			0.30	1.19	2.94	8.81	23.14	31.61	24.92	6.50	0.60		

주 1) “(조사표 질문) ____ 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8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7〉 생활영역 만족: 사회 전반적 안전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5	0.19	0.55	1.69	4.53	16.78	24.05	25.80	18.59	7.38	0.38		
성별	남성	0.09	0.26	0.61	1.65	4.13	16.60	23.09	25.65	19.82	7.66	0.43	106.848 ***	
	여성		0.11	0.50	1.74	4.94	16.97	25.03	25.96	17.33	7.09	0.33		
연령대	20대 이하	0.07		0.09	0.97	3.49	13.39	24.35	30.18	22.14	5.18	0.13	1,418,552 ***	
	30대	0.19	0.49	0.57	2.15	4.54	14.36	21.92	25.36	20.06	10.08	0.27		
	40대		0.22	0.64	2.11	2.59	16.22	23.71	25.36	20.02	8.43	0.70		
	50대		0.06	0.51	1.32	4.49	15.99	25.69	24.63	17.38	9.29	0.65		
	60대		0.14	0.58	2.14	6.19	21.03	25.15	24.63	14.76	5.13	0.24		
	70대		0.28	1.36	1.46	8.66	25.12	22.70	23.22	14.02	3.18			
지역	수도권				0.82	3.48	16.40	21.13	24.79	22.58	10.28	0.52	1,629,627 ***	
	비수도권	0.09	0.38	1.11	2.57	5.59	17.17	26.97	26.83	14.58	4.47	0.25		
	대도시			0.24	1.04	4.04	16.40	22.54	27.59	20.71	7.26	0.18	771,775 ***	
	중소도시	0.03	0.26	0.57	2.27	4.98	17.28	24.58	23.99	17.72	7.86	0.46		
	농어촌	0.39	0.73	2.04	1.70	4.42	15.88	28.60	27.13	12.89	5.25	0.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8	0.46	2.07	3.41	8.26	20.95	31.80	20.11	9.85	2.41	0.11	2,553,264 ***	
	중하층		0.32	0.85	2.41	5.45	20.38	25.04	27.02	15.43	3.06	0.04		
	중간층		0.02	0.16	1.03	3.44	13.80	22.58	25.72	21.72	10.84	0.68		
	중상층(상층)		0.43	0.14	0.96	3.61	15.61	20.89	26.75	21.68	9.65	0.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7	0.47	1.48	3.34	6.48	21.53	26.22	26.19	12.12	1.89	0.12	6,605,234 ***	
	200만 원대		0.17	0.29	1.10	4.36	18.03	27.34	28.17	16.69	3.50	0.35		
	300만 원대			0.21	1.12	3.75	15.84	24.35	26.58	19.53	8.30	0.32		
	400만 원대				1.94	3.10	8.90	15.80	18.54	27.08	23.71	0.93		
	500만 원 이상			0.13		2.22	4.71	7.52	18.42	40.10	25.83	1.06		
학력	중졸 이하		0.39	1.47	3.08	8.51	24.39	27.16	23.97	9.95	1.00	0.08	1,980,816 ***	
	고졸		0.12	0.70	1.16	5.20	19.20	26.69	24.96	15.49	6.05	0.42		
	대졸 이상	0.09	0.20	0.23	1.79	3.13	13.22	21.33	26.86	22.90	9.83	0.4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7	0.07	0.39	1.36	3.64	14.80	24.23	24.98	21.21	8.87	0.38	1,312,43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2	0.20	0.23	2.72	5.96	20.77	31.37	26.73	9.53	2.37			
	고용주·자영자		0.19	0.74	1.64	3.40	19.03	23.21	26.65	17.59	6.91	0.65		
	무급가족종사자			2.46	3.63	7.48	15.38	25.40	26.69	15.57	2.09	1.29		
	실업자		2.05	1.49	2.38	10.37	19.01	28.54	23.02	12.54	0.61			
	비경제활동인구		0.31	0.66	1.73	5.83	17.01	20.88	26.38	18.98	7.91	0.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8	0.07	0.19	1.33	3.65	14.73	24.01	24.92	21.39	9.22	0.41	737,032 ***	
	비정규직	0.09	0.16	0.90	2.51	5.44	19.71	30.54	26.57	11.43	2.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6	1.05	1.95	5.57	20.06	26.63	26.60	13.78	3.89	0.11	1,344,921 ***	
	중도적	0.08	0.08	0.24	1.39	3.93	16.19	21.67	23.05	21.57	11.25	0.55		
	진보적	0.04	0.19	0.55	1.88	4.45	14.71	25.03	28.87	18.74	5.16	0.39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 생활영역 만족: 미래 안정성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 ²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7	0.51	1.31	1.95	4.90	14.93	21.34	26.52	18.97	8.99	0.50		
성별	남성	0.10	0.60	1.46	1.98	4.62	13.41	21.43	26.84	18.99	10.08	0.50	153,321 ***	
	여성	0.03	0.42	1.15	1.93	5.19	16.49	21.25	26.21	18.95	7.88	0.51		
연령대	20대 이하			1.15	1.70	3.09	11.81	18.29	34.38	21.98	7.36	0.23	2,996,198 ***	
	30대	0.16	0.65	0.79	2.10	1.67	11.62	21.16	26.84	21.32	13.06	0.61		
	40대	0.11	0.76	1.04	1.00	3.79	13.49	20.04	28.55	20.59	9.75	0.85		
	50대		0.14	0.93	1.28	6.12	15.70	21.56	23.36	18.23	12.07	0.61		
	60대	0.09	0.92	1.86	2.58	6.38	17.69	26.43	24.47	15.89	3.32	0.36		
	70대		0.91	3.31	5.04	12.76	25.47	22.02	15.30	10.75	4.44			
지역	수도권		0.29	0.85	1.11	4.26	13.18	19.35	27.07	20.83	12.45	0.59	1,119,461 ***	
	비수도권	0.13	0.73	1.76	2.80	5.55	16.69	23.34	25.98	17.10	5.52	0.41		
	대도시		0.16	0.63	1.47	3.41	14.79	22.44	27.38	21.02	8.40	0.30	1,302,790 ***	
	중소도시	0.03	0.65	1.28	1.95	6.23	14.88	20.18	27.09	16.93	10.18	0.60		
	농어촌	0.61	1.46	4.87	4.40	4.86	15.98	22.41	19.03	20.26	5.18	0.9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7	2.71	5.35	9.21	10.55	21.21	20.33	20.28	7.22	2.67	0.29	5,292,597 ***	
	중하층	0.07	0.73	1.81	2.03	7.04	19.05	26.28	25.04	13.54	4.39	0.03		
	중간층		0.08	0.48	1.02	2.65	11.81	19.25	27.24	23.72	12.97	0.78		
	중상층(상층)	0.43		0.14	0.16	4.18	9.67	12.51	36.26	25.15	10.38	1.1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25	1.23	2.68	4.46	9.27	22.32	26.03	21.95	10.39	1.21	0.22	8,447,649 ***	
	200만 원대		0.46	0.38	1.62	4.08	15.47	24.31	29.29	19.14	5.04	0.20		
	300만 원대	0.08	1.91	0.36	3.33	11.70	18.56	30.13	21.93	11.38	0.63			
	400만 원대		0.52	0.83	1.83	8.16	13.36	25.09	24.85	24.31	1.05			
	500만 원 이상		0.13	0.45	1.29	2.21	6.03	19.94	34.46	33.39	2.10			
학력	중졸 이하	0.12	1.84	3.36	5.36	13.19	24.04	26.08	15.62	8.58	1.45	0.38	4,297,438 ***	
	고졸	0.06	0.50	1.63	1.80	5.28	18.23	24.12	26.72	15.68	5.75	0.23		
	대졸 이상	0.06	0.22	0.59	1.30	2.75	10.37	18.16	28.83	23.81	13.16	0.7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5	0.92	1.31	3.07	11.72	20.58	28.56	22.34	10.94	0.41	2,468,43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6	1.31	4.43	7.76	21.68	26.07	23.98	10.36	2.59	0.08		
	고용주·자영자		0.65	1.73	1.25	4.58	15.92	22.50	25.24	17.65	9.57	0.92		
	무급가족종사자		1.50	2.20	5.71	5.00	16.60	29.57	22.41	12.02	3.70	1.29		
	실업자	1.63	3.05	2.79	7.49	15.51	14.94	16.21	24.11	12.77	1.50			
	비경제활동인구	0.17	0.32	1.55	2.00	6.65	17.06	19.58	25.27	18.31	8.56	0.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0	0.69	1.34	3.04	11.83	20.09	29.30	21.76	11.40	0.43	1,274,435 ***	
	비정규직		1.57	1.93	3.66	6.86	19.23	26.46	22.61	14.73	2.89	0.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5	1.01	2.40	3.19	5.60	18.95	24.51	23.94	15.52	4.46	0.37	2,040,570 ***	
	중도적		0.29	0.65	1.31	4.91	14.03	21.91	22.94	19.40	13.76	0.80		
	진보적	0.17	0.38	1.24	1.75	4.28	12.64	17.78	33.69	21.41	6.46	0.20		

주 1) “(조사표 질문) ____ 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 생활영역 만족: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21	0.81	2.10	5.65	14.81	21.23	27.26	20.36	7.01	0.55		
성별	남성		0.29	0.62	1.85	5.11	15.39	22.29	25.71	20.40	7.70	0.64	174,720 ***	
	여성	0.02	0.12	1.01	2.35	6.20	14.22	20.15	28.84	20.31	6.31	0.46		
연령대	20대 이하		0.07	0.37	0.98	4.58	13.38	19.11	33.17	23.51	4.84		1518,211 ***	
	30대	0.05	0.16	0.80	2.17	5.78	12.69	22.24	25.76	22.27	7.66	0.41		
	40대		0.34	1.14	1.98	4.95	14.21	20.74	25.59	20.32	10.03	0.70		
	50대		0.06	0.85	1.77	5.31	14.13	20.20	28.71	20.52	7.39	1.06		
	60대		0.31	1.01	1.76	5.52	18.37	26.63	26.25	13.79	6.02	0.35		
	70대		0.46	0.64	6.05	10.45	19.30	17.98	19.76	20.66	3.91	0.79		
지역	수도권		0.04	0.61	1.34	5.38	13.58	18.74	27.63	23.12	8.97	0.60	751,527 ***	
	비수도권	0.02	0.37	1.02	2.86	5.92	16.05	23.73	26.89	17.59	5.04	0.50		
	대도시			0.44	1.51	4.61	14.45	21.78	29.09	22.19	5.61	0.33	620,310 ***	
	중소도시	0.02	0.29	0.98	2.42	6.80	15.07	20.27	25.40	19.78	8.25	0.71		
	농어촌		0.76	1.76	3.18	4.32	15.16	23.93	28.66	14.47	6.97	0.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8	3.88	4.97	7.33	24.74	26.59	18.63	10.96	2.00	0.11	3,308,318 ***	
	중하층	0.02	0.38	1.22	3.12	8.17	18.00	23.62	26.55	14.69	3.94	0.28		
	중간층		0.03	0.17	1.17	4.15	11.24	19.33	29.12	24.62	9.39	0.78		
	중상층(상층)				0.41	1.81	13.50	16.79	27.01	28.79	10.90	0.7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5	1.67	3.83	8.56	20.05	25.84	23.60	12.32	3.17	0.30	6,741,061 ***	
	200만 원대	0.02	0.06	0.48	1.70	5.71	15.63	25.01	31.38	16.61	3.12	0.27		
	300만 원대			0.93	1.20	4.36	13.05	17.50	29.25	24.47	8.68	0.56		
	400만 원대		0.15		1.60	2.67	9.31	11.55	24.19	34.58	14.60	1.34		
	500만 원 이상				0.93	1.88	2.67	6.93	16.92	40.73	27.98	1.97		
학력	중졸 이하		0.82	1.35	5.34	10.16	22.87	24.32	20.53	11.78	2.51	0.31	2,336,383 ***	
	고졸		0.16	1.03	2.02	6.46	16.79	24.61	26.35	16.70	5.22	0.68		
	대졸 이상	0.02	0.11	0.53	1.42	4.02	11.49	17.96	29.48	25.08	9.39	0.5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2	0.10	0.79	1.47	4.75	13.39	20.24	29.05	22.69	7.17	0.33	1,824,46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2	1.27	2.88	11.40	20.94	29.40	20.31	9.83	3.65			
	고용주·자영자		0.50	0.60	2.55	4.32	17.14	22.70	25.25	17.14	8.29	1.52		
	무급가족종사자		0.78	2.92	1.07	6.70	14.30	27.43	28.01	11.67	7.12			
	실업자		1.00	1.49	8.29	2.90	19.19	17.34	17.24	26.06	6.49			
	비경제활동인구		0.06	0.63	2.28	5.92	12.86	18.27	28.98	23.24	7.22	0.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2	0.10	0.69	1.57	4.50	13.53	19.92	29.25	22.79	7.28	0.35	939,248 ***	
	비정규직		0.25	1.51	2.27	10.77	18.89	28.48	21.53	12.25	4.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7	1.46	2.84	7.06	16.74	21.59	28.54	15.96	4.83	0.62	1,051,593 ***	
	중도적	0.02	0.08	0.38	1.39	5.31	14.62	20.24	24.38	22.64	10.27	0.67		
	진보적		0.25	0.84	2.41	4.88	13.38	22.27	30.07	21.10	4.47	0.32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0〉 생활영역 만족: 지역사회 환경 질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4	0.48	1.40	4.78	15.93	24.95	26.58	18.29	7.16	0.38		
성별	남성		0.01	0.51	1.25	4.06	16.45	25.23	24.46	19.22	8.42	0.39	262,742 ***	
	여성	0.02	0.08	0.45	1.56	5.52	15.40	24.66	28.74	17.34	5.88	0.37		
연령대	20대 이하			0.07	1.16	2.99	12.11	25.82	32.31	20.81	4.46	0.28	1852,711 ***	
	30대	0.05	0.05	0.67	2.17	3.58	14.63	22.47	27.28	19.16	9.49	0.45		
	40대			0.74	1.62	3.70	14.63	25.10	24.94	19.28	9.59	0.41		
	50대	0.06	0.32	1.08	4.39	16.48	24.21	24.50	21.01	7.78	0.18			
	60대	0.07	0.29	1.04	5.27	21.48	26.91	25.02	14.19	4.97	0.74			
	70대	0.14	1.09	1.23	13.94	19.02	26.33	24.38	9.06	4.63	0.17			
지역	수도권				0.84	5.02	14.50	22.37	25.69	20.75	10.45	0.39	1,261,268 ***	
	비수도권	0.02	0.09	0.96	1.97	4.54	17.37	27.54	27.47	15.83	3.86	0.36		
	대도시			0.11	0.63	4.40	15.94	22.34	29.59	19.91	6.94	0.14	59,520 ***	
	중소도시	0.02	0.06	0.59	2.05	5.18	16.12	26.57	23.52	18.03	7.40	0.46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14	1.71	1.58	4.46	14.82	28.83	28.82	11.65	6.91	1.07		
	하층	0.02	0.40	1.87	4.88	11.54	22.29	27.84	19.80	9.95	1.31	0.11	3,218,149 ***	
	중하층		0.03	0.87	1.81	7.10	20.10	26.01	26.26	13.78	3.86	0.15		
	중간층			0.06	0.71	2.39	12.76	24.12	27.79	21.92	9.76	0.50		
중상층(상층)				0.44	2.92	10.61	22.28	26.98	24.24	11.62	0.9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2	0.12	1.47	2.73	9.30	20.87	27.40	25.84	9.55	2.58	0.14	7,231,132 ***	
	200만 원대		0.03	0.20	1.05	3.80	18.09	28.40	28.58	15.71	3.99	0.12		
	300만 원대			0.08	1.16	3.18	12.54	24.92	29.50	19.88	8.10	0.65		
	400만 원대				0.15	1.70	8.46	18.52	19.86	34.93	15.83	0.55		
	500만 원 이상				0.54	1.56	5.23	5.13	18.12	39.81	28.02	1.59		
학력	중졸 이하		0.20	1.18	2.16	14.64	20.98	31.63	18.61	8.49	1.98	0.12	3,007,615 ***	
	고졸		0.05	0.47	1.45	4.87	18.76	25.93	28.14	14.75	5.06	0.52		
	대졸 이상	0.02		0.33	1.20	2.50	12.64	22.69	27.18	23.20	9.93	0.3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2		0.39	1.41	3.02	14.17	25.22	27.08	19.84	8.56	0.29	1,401,27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9	0.63	1.86	7.56	24.18	25.72	25.18	12.85	1.82			
	고용주·자영자				0.42	1.24	4.29	16.82	26.09	24.61	18.71	7.39		0.43
	무급가족종사자		0.67	1.91	3.25	8.12	15.65	19.44	27.98	12.57	8.10	2.31		
	실업자		0.29	0.74	4.06	2.67	33.00	22.34	23.05	9.73	3.12	1.00		
	비경제활동인구		0.03	0.51	1.03	7.06	14.01	23.83	27.80	18.38	6.87	0.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2		0.22	1.32	2.91	13.86	25.52	26.63	20.34	8.87	0.30	898,204 ***	
	비정규직			0.15	1.10	2.05	6.95	23.05	24.69	27.01	12.74	2.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2		0.04	0.93	1.43	6.92	18.72	27.68	24.94	14.48	4.48	0.37	1,018,041 ***
	중도적		0.05	0.33	1.26	3.46	15.90	22.78	25.33	20.27	10.01	0.59		
	진보적			0.03	0.29	1.58	4.72	13.52	25.52	29.71	18.94	5.62	0.08	

주 1) “(조사표 질문) ____ 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9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21〉 생활영역 만족: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반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12	0.46	1.43	4.40	16.34	24.70	27.57	17.58	6.76	0.65		
성별	남성		0.09	0.56	1.61	3.97	17.50	23.36	27.67	16.58	7.98	0.68	223,688 ***	
	여성		0.14	0.36	1.25	4.84	15.14	26.08	27.46	18.60	5.51	0.62		
연령대	20대 이하			0.16	1.14	3.23	11.42	25.21	36.28	18.17	4.00	0.39	1,447,057 ***	
	30대		0.21	0.35	2.09	4.14	14.19	22.25	27.68	20.39	7.78	0.92		
	40대		0.12	0.72	1.86	3.41	14.87	25.73	24.64	18.77	8.82	1.05		
	50대		0.06	0.46	0.65	4.55	17.58	24.41	24.96	17.62	8.96	0.74		
	60대		0.22	0.40	1.51	6.04	21.98	22.90	26.55	15.31	4.83	0.27		
	70대		0.14	0.85	1.44	6.63	22.12	30.18	23.58	11.30	3.60	0.17		
지역	수도권		0.04		1.14	3.94	15.62	22.63	26.64	19.52	9.59	0.87	967,497 ***	
	비수도권		0.19	0.93	1.72	4.86	17.05	26.78	28.50	15.62	3.92	0.43		
	대도시			0.20	0.88	3.52	16.37	22.41	30.69	19.29	6.34	0.31	896,173 ***	
	중소도시		0.17	0.49	1.77	5.47	17.08	25.64	24.28	16.94	7.41	0.74		
	농어촌		0.42	1.63	2.25	2.79	11.92	30.88	30.51	12.58	5.12	1.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6	1.73	5.34	7.62	25.31	23.49	25.50	8.82	1.26	0.38	2,934,897 ***	
	중하층		0.21	0.79	2.13	5.25	19.37	27.37	28.65	13.27	2.84	0.11		
	중간층			0.10	0.47	3.32	13.47	23.65	27.08	20.97	9.93	1.01		
	중상층(상층)				0.51	4.36	11.60	20.07	28.01	24.69	9.65	1.1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7	1.28	2.18	6.81	22.56	28.17	26.53	10.46	1.34	0.30	2,345,254 ***	
	200만 원대		0.05	0.24	1.38	4.05	18.04	28.07	30.15	14.82	2.93	0.25		
	300만 원대			0.16	1.00	3.86	12.60	23.85	28.47	20.62	8.54	0.90		
	400만 원대				1.30	2.09	7.56	17.68	26.16	26.44	17.71	1.06		
	500만 원 이상				0.33	1.62	5.84	4.71	16.61	39.16	28.83	2.91		
학력	중졸 이하		0.38	1.33	1.80	8.36	26.35	30.18	21.26	8.41	1.77	0.17	2,154,073 ***	
	고졸		0.06	0.49	1.56	5.80	18.47	26.00	26.51	15.19	5.38	0.55		
	대졸 이상		0.10	0.25	1.25	2.44	12.45	22.48	29.79	21.46	8.93	0.8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4	0.34	1.52	3.23	15.40	23.43	27.53	18.94	8.59	0.86	1,210,49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1	0.13	2.57	7.83	24.25	26.97	25.78	10.40	1.97			
	고용주·자영자		0.12	0.71	1.23	4.39	17.05	22.43	27.55	19.02	6.89	0.62		
	무급가족종사자		0.67	1.91	2.63	5.10	18.97	25.19	25.24	16.19	4.09			
	실업자		0.29	0.74	2.21	6.77	18.42	36.40	28.29	4.49	1.38	1.00		
	비경제활동인구		0.03	0.52	0.80	4.89	13.85	27.00	28.52	17.94	5.85	0.6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2	0.23	1.45	3.27	14.59	23.41	27.74	19.39	8.88	0.92	903,746 ***	
	비정규직		0.17	0.53	2.60	6.74	24.93	26.31	25.48	10.77	2.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9	0.73	2.14	5.60	20.46	25.59	27.38	13.76	3.77	0.37	1,355,021 ***	
	중도적		0.12	0.35	1.12	4.05	15.42	23.12	25.84	18.08	10.82	1.07		
	진보적		0.04	0.37	1.23	3.82	13.96	26.09	30.09	20.24	3.83	0.33		

주 1) “(조사표 질문) __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2〉 생활영역 만족: 하는 일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23	0.59	2.02	5.26	13.54	22.78	27.25	20.86	7.03	0.44		
성별	남성		0.35	0.62	1.48	4.97	13.98	22.30	26.33	21.53	7.89	0.55	188,657 ***	
	여성		0.10	0.56	2.58	5.55	13.10	23.27	28.19	20.18	6.15	0.32		
연령대	20대 이하			0.61	1.29	2.05	10.67	22.46	35.95	21.20	5.65	0.13	3,134,425 ***	
	30대		0.49	0.72	1.12	3.13	10.95	21.24	28.47	23.71	9.56	0.61		
	40대			0.72	1.29	5.85	12.38	21.90	26.01	23.27	7.69	0.88		
	50대		0.13	0.39	0.95	6.33	14.31	21.30	26.20	20.97	9.12	0.31		
	60대		0.26	0.32	1.83	6.89	18.17	25.85	25.52	16.55	4.18	0.43		
	70대		0.90	0.87	10.28	9.81	18.06	27.17	14.29	15.64	2.99			
지역	수도권		0.16	0.35	1.80	4.44	10.46	20.91	28.01	23.96	9.34	0.58	1,002,921	
	비수도권		0.30	0.83	2.25	6.07	16.64	24.66	26.48	17.76	4.72	0.29		
	대도시		0.13	0.25	0.93	3.62	13.17	22.55	29.48	23.83	5.69	0.37	812,970 ***	
	중소도시		0.25	0.78	2.96	6.86	13.45	22.44	25.62	19.06	8.14	0.44		
	농어촌		0.61	1.15	2.19	4.35	15.98	25.93	25.27	16.24	7.48	0.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0	3.27	7.47	10.98	15.72	28.13	22.92	8.15	1.84		4,182,837 ***	
	중하층		0.21	0.69	2.56	7.25	16.92	27.05	27.29	14.38	3.52	0.12		
	중간층		0.01	0.15	1.05	3.41	11.30	19.65	27.72	25.98	10.17	0.56		
	중상층(상층)		0.43	0.17	0.24	2.06	10.29	17.89	28.53	30.98	7.77	1.6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58	1.10	5.67	9.54	20.52	26.76	21.83	11.72	2.23	0.08	8,109,226 ***	
	200만 원대		0.05	0.73	0.91	4.05	13.83	27.06	32.26	16.53	4.46	0.13		
	300만 원대		0.27	0.13	0.69	4.36	9.57	19.23	30.62	26.87	7.42	0.84		
	400만 원대				0.24	2.70	8.52	13.04	22.56	36.45	15.79	0.69		
	500만 원 이상				0.39	1.30	3.81	7.74	16.68	41.07	27.12	1.89		
학력	중졸 이하		1.00	0.89	9.84	11.83	19.98	29.10	17.21	8.61	1.47	0.08	4,785,211 ***	
	고졸		0.22	0.72	1.59	6.41	16.48	26.04	26.04	17.07	5.23	0.20		
	대졸 이상		0.06	0.42	0.59	2.90	9.86	18.88	30.42	26.52	9.66	0.7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3	0.16	0.96	3.16	11.15	21.03	29.95	24.74	8.19	0.53	2,687,52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4	1.85	2.73	10.56	20.30	28.02	24.31	9.99	2.19			
	고용주·자영자		0.12	0.45	1.00	5.18	14.21	25.12	25.14	19.25	8.70	0.83		
	무급가족종사자		0.72	1.59	3.08	9.71	9.54	28.18	29.39	15.77	2.02			
	실업자		1.97	4.66	5.83	11.96	23.93	27.05	21.16	2.82		0.61		
	비경제활동인구		0.43	0.62	4.11	6.17	14.22	21.40	25.34	21.01	6.51	0.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4	0.06	0.90	2.99	11.28	21.11	29.85	24.59	8.51	0.57	1,413,558 ***	
	비정규직		0.03	1.78	2.54	9.52	17.95	26.28	25.81	13.62	2.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2	0.61	3.35	6.92	17.62	25.18	26.23	15.98	3.58	0.22	1,516,818 ***	
	중도적		0.06	0.45	1.14	4.97	13.27	20.77	24.88	23.16	10.62	0.69		
	진보적		0.37	0.76	2.07	4.20	10.34	23.43	31.38	22.02	5.16	0.28		

주 1) “(조사표 질문) ____ 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9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23〉 생활영역 만족: 경제적 수준

(단위: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37	1.54	2.95	5.31	16.76	23.51	25.14	18.57	5.66	0.19		
성별	남성		0.39	1.58	2.51	4.93	18.04	22.39	24.74	19.13	6.03	0.26	134,551 ***	
	여성		0.35	1.50	3.40	5.70	15.46	24.64	25.54	18.00	5.29	0.12		
연령대	20대 이하			0.25	1.87	4.21	13.03	27.03	31.56	19.73	2.33		3,882,084 ***	
	30대		0.70	1.35	1.81	3.78	12.51	25.60	26.96	19.04	8.25			
	40대		0.17	1.44	2.58	4.20	15.12	22.11	24.13	20.66	9.04	0.57		
	50대		0.24	0.30	2.37	5.97	16.99	21.96	25.05	20.18	6.57	0.36		
	60대		0.32	1.72	3.17	6.74	22.57	25.89	21.11	16.16	2.31			
	70대		1.34	7.78	9.68	9.44	27.08	14.42	16.98	10.28	3.00			
지역	수도권		0.12	1.28	3.08	4.04	15.48	20.22	25.45	22.31	7.79	0.23	1,100,852 ***	
	비수도권		0.62	1.81	2.82	6.58	18.05	26.81	24.82	14.81	3.53	0.15		
	대도시		0.26	0.41	1.52	4.49	16.65	24.08	26.95	20.96	4.61	0.08	1,150,535 ***	
	중소도시		0.27	2.06	4.37	5.94	16.26	22.47	24.10	17.73	6.56	0.24		
	농어촌		1.49	4.32	2.07	5.85	20.16	26.54	21.94	11.36	5.85	0.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1	8.14	14.97	10.55	26.48	16.47	14.22	5.37	1.80		7,750,134 ***	
	중하층		0.49	2.31	4.12	7.96	22.76	27.00	22.35	11.23	1.79			
	중간층		0.02	0.19	0.67	3.09	12.01	22.84	28.21	24.24	8.39	0.33		
	중상층(상층)		0.43			2.12	9.97	18.52	29.25	29.54	9.86	0.3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3	5.14	6.78	10.27	24.00	24.04	18.20	9.09	1.32	0.03	10,160,461 ***	
	200만 원대		0.03	0.42	2.57	4.32	19.21	28.06	28.27	14.60	2.48	0.05		
	300만 원대		0.27	0.16	0.79	3.86	12.05	24.14	29.81	20.26	8.45	0.21		
	400만 원대				0.56	1.14	6.63	14.39	24.84	35.45	16.33	0.66		
	500만 원 이상					1.32	3.13	6.56	20.93	49.78	17.35	0.92		
학력	중졸 이하		1.50	7.24	9.12	10.88	27.38	23.27	13.12	6.29	1.21		5,469,879 ***	
	고졸		0.33	1.06	2.91	6.86	20.32	26.23	25.04	13.74	3.35	0.15		
	대졸 이상		0.14	0.62	1.59	2.87	11.66	21.48	27.92	25.02	8.43	0.2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3	0.55	2.02	2.87	14.36	23.35	26.53	22.56	7.39	0.14	3,130,77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5	2.37	9.12	10.81	22.90	26.27	20.32	6.30	1.46			
	고용주·자영자		0.12	1.83	1.44	5.51	20.81	21.12	25.03	17.91	5.75	0.48		
	무급가족종사자			3.32	3.74	8.47	9.12	36.61	25.89	9.76	3.09			
	실업자			3.94	8.88	19.14	27.17	18.74	14.23	5.39	2.51			
	비경제활동인구		0.82	2.52	2.74	6.24	15.49	23.71	25.30	18.41	4.61	0.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4	0.34	2.04	2.77	14.69	22.89	26.00	23.19	7.70	0.15	1,903,445 ***	
	비정규직		0.36	2.65	7.53	9.45	20.05	27.13	23.33	7.75	1.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3	2.83	4.65	6.37	21.91	23.33	23.67	13.84	2.53	0.14	2,121,810 ***	
	중도적		0.12	0.51	2.12	5.00	16.77	22.70	21.87	21.07	9.51	0.32		
	진보적		0.39	1.82	2.59	4.80	12.23	24.76	30.89	19.31	3.15	0.06		

주 1) “(조사표 질문) ____ 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4〉 타인의 행복: 가족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10	0.43	1.50	6.95	16.46	31.87	29.31	13.07	0.32		
성별	남성		0.02	0.15	0.47	1.61	6.22	16.67	31.14	29.38	14.13	0.21	114,756 ***	
	여성			0.04	0.39	1.38	7.69	16.24	32.61	29.23	11.98	0.43		
연령대	20대 이하	0.05			0.15	0.72	3.84	16.60	34.90	33.70	10.09		2,456,472 ***	
	30대			0.16	0.16	1.22	3.43	11.92	32.84	32.18	16.77	1.31		
	40대				0.43	0.79	5.83	15.68	32.71	30.04	14.36	0.12		
	50대				0.38	0.94	8.04	17.80	29.57	27.12	16.05	0.10		
	60대				0.87	2.74	9.73	20.00	32.24	24.89	9.45	0.08		
	70대			0.81	0.98	4.66	16.28	18.09	26.20	25.02	7.59	0.38		
지역	수도권				0.19	1.51	7.21	15.20	28.38	31.06	16.18	0.27	654,645 ***	
	비수도권		0.02	0.19	0.67	1.49	6.69	17.72	35.36	27.54	9.94	0.37		
	대도시			0.16	0.46	1.36	6.13	16.02	32.46	31.28	11.81	0.31	255,506 ***	
	중소도시		0.02	0.06	0.27	1.73	7.34	16.61	31.53	28.43	13.71	0.31		
	농어촌				1.21	0.85	8.84	17.75	30.83	24.39	15.72	0.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2	0.87	2.98	7.51	14.00	21.42	27.89	22.63	2.48	0.11	5,028,141 ***	
	중하층			0.08	0.33	2.00	10.45	21.81	33.15	26.44	5.72	0.02		
	중간층				0.11	0.37	4.04	12.33	31.77	31.19	19.65	0.54		
	중상층(상층)				0.43	0.37	2.36	13.85	30.54	37.91	14.10	0.4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4	0.26	1.33	3.67	11.39	19.93	34.90	24.87	3.41	0.19	6,224,461 ***	
	200만 원대			0.08	0.17	1.09	6.53	19.67	35.49	28.35	8.27	0.36		
	300만 원대				0.07	0.46	4.66	13.53	30.80	33.08	17.01	0.39		
	400만 원대						4.37	9.86	21.38	30.99	33.13	0.27		
	500만 원 이상					0.43	2.49	3.15	17.32	37.75	38.38	0.47		
학력	중졸 이하		0.08	0.60	1.22	5.94	15.94	23.52	30.65	19.15	2.71	0.19	3,792,430 ***	
	고졸				0.55	1.38	8.86	19.32	34.13	25.93	9.71	0.12		
	대졸 이상			0.06	0.16	0.58	3.47	12.68	30.42	34.16	17.96	0.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9			0.18	1.11	5.51	14.52	32.79	30.19	15.34	0.35	1,803,68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4	4.27	10.47	23.96	32.70	24.20	3.47				
	고용주·자영자			0.55	0.41	7.42	17.72	32.21	26.93	14.61	0.15			
	무급가족종사자			0.67	1.16	5.62	19.60	33.93	34.90	3.63	0.50			
	실업자			2.05	1.03	4.68	12.30	21.42	39.77	18.75				
	비경제활동인구			0.28	0.58	1.66	7.51	15.36	28.98	31.82	13.30	0.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9	1.19	5.20	14.30	32.64	30.27	15.84	0.38	979,077 ***	
	비정규직		0.07		0.66	3.36	10.42	22.66	33.20	25.23	4.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25	0.74	2.59	9.70	21.37	33.81	24.46	6.88	0.16	1,652,859 ***	
	중도적				0.31	1.12	6.89	15.01	29.35	28.68	18.16	0.48		
	진보적			0.09	0.33	1.04	4.61	14.12	33.60	34.42	11.55	0.2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 아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5〉 타인의 행복: 친구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2	0.09	0.19	2.30	8.76	19.81	32.79	25.64	9.89	0.53		
성별	남성		0.02	0.08	0.13	2.47	8.99	19.17	31.77	26.54	10.41	0.43	70,218 ***	
	여성		0.02	0.10	0.24	2.13	8.52	20.46	33.83	24.72	9.35	0.64		
연령대	20대 이하		0.05	0.16	0.14	0.75	6.16	16.39	35.62	31.48	8.59	1.00	1,520,683 ***	
	30대	2.35				7.05	15.32	32.48	30.09	11.66	0.76			
	40대	1.98				9.24	20.10	32.12	24.40	11.76	0.35			
	50대	1.59				9.30	20.46	31.96	24.00	12.00	0.34			
	60대	4.02				10.69	24.93	31.86	20.99	6.86	0.28			
	70대	5.08				12.10	25.43	32.53	18.70	4.55	0.38			
지역	수도권				0.13	1.71	7.17	15.98	32.59	26.42	15.39	0.61	1,827,589 ***	
	비수도권		0.03	0.18	0.25	2.89	10.34	23.65	32.99	24.86	4.36	0.45		
	대도시			0.04	0.21	1.47	7.84	20.15	33.34	28.58	8.12	0.26	627,509 ***	
	중소도시		0.02	0.04	0.14	3.07	9.36	18.96	32.28	23.45	11.97	0.72		
	농어촌		0.09	0.60	0.36	2.10	9.92	22.94	32.90	23.32	6.94	0.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2	0.53	1.70	6.56	15.30	23.12	32.43	13.61	6.41	0.11	2,837,308 ***	
	중하층			0.05	0.12	3.07	11.14	23.00	35.05	22.21	4.88	0.48		
	중간층				0.02	1.30	6.13	17.30	31.13	29.51	13.95	0.65		
	중상층(상층)			0.43		0.89	8.48	18.17	33.92	28.39	9.34	0.3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7	0.34	0.67	3.76	13.54	25.73	34.27	17.17	3.94	0.54	6,911,623 ***	
	200만 원대				0.03	2.00	8.38	22.39	35.96	26.91	4.07	0.26		
	300만 원대					2.14	5.92	15.48	32.42	32.53	10.83	0.68		
	400만 원대					1.01	6.14	12.43	25.20	27.36	27.24	0.61		
	500만 원 이상					0.44	4.42	5.81	20.79	28.02	39.12	1.40		
학력	중졸 이하		0.15	0.43	0.92	6.87	16.47	27.48	30.47	11.73	5.29	0.19	3,187,602 ***	
	고졸			0.03	0.21	2.12	10.41	24.08	33.21	23.36	6.12	0.46		
	대졸 이상			0.06		1.41	5.75	14.82	32.98	30.51	13.79	0.6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9	0.11	0.51	1.75	6.30	18.70	32.73	28.61	11.22	0.68	1,324,65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9				11.51	25.08	34.21	19.45	4.75				
	고용주·자영자	1.56				10.09	22.34	31.41	23.33	11.07	0.20			
	무급가족종사자	1.94				15.20	17.60	43.18	16.38	3.19	1.79			
	실업자	4.68				19.57	20.57	29.26	23.57	1.24				
	비경제활동인구		0.03	0.27	0.48	2.88	9.98	17.83	32.76	25.34	9.74	0.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5	5.90	18.75	32.78	28.77	11.43	0.72	725,158 ***	
	비정규직		0.07	0.08	0.40	4.10	11.68	23.57	33.73	20.92	5.4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2	0.17	0.30	2.38	10.52	19.69	32.52	24.15	9.75	0.51	1,632,964 ***	
	중도적		0.06	0.13	0.44	2.94	11.30	24.98	33.69	19.85	6.26	0.35		
	진보적			0.06	0.06	2.51	8.39	18.11	30.02	25.27	14.85	0.7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아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6〉 타인의 행복: 동네 이웃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χ ²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2	0.18	1.46	4.62	16.03	24.35	30.17	17.76	5.03	0.36		
성별	남성		0.02	0.17	1.97	4.94	16.24	24.62	29.39	16.79	5.54	0.32	139,780 ***	
	여성		0.02	0.19	0.94	4.30	15.82	24.07	30.97	18.76	4.52	0.40		
연령대	20대 이하			0.18	2.05	4.15	16.00	24.53	35.70	13.67	3.62	0.10	889,699 ***	
	30대		0.05	0.58	1.59	5.30	14.42	23.57	26.57	20.15	6.83	0.94		
	40대		0.05	0.16	1.72	4.88	16.12	22.38	29.44	20.16	4.87	0.23		
	50대			0.06	0.50	3.77	15.54	23.64	30.24	20.32	5.50	0.43		
	60대				1.19	5.85	17.07	28.57	29.19	14.69	3.28	0.16		
	70대				2.14	3.59	18.72	24.71	29.01	14.97	6.66	0.20		
지역	수도권				1.16	4.79	14.72	21.30	30.76	20.88	6.07	0.32	635,040 ***	
	비수도권		0.04	0.36	1.77	4.45	17.35	27.41	29.58	14.64	4.00	0.40		
	대도시				1.13	3.45	18.35	23.17	32.98	17.20	3.43	0.30	770,980 ***	
	중소도시		0.04	0.27	1.82	5.75	15.34	25.05	26.70	18.38	6.21	0.44		
	농어촌			0.53	1.09	4.08	8.37	26.35	35.78	17.12	6.41	0.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2	0.54	5.93	9.93	22.44	20.55	27.62	9.83	2.77	0.26	2,224,519 ***	
	중하층		0.02	0.32	1.61	6.15	19.83	25.81	28.12	14.19	3.75	0.19		
	중간층			0.05	0.54	2.42	13.39	24.14	31.46	21.20	6.29	0.52		
	중상층(상층)				2.45	7.10	8.65	22.75	34.17	19.79	4.88	0.2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4	0.29	2.52	6.45	18.99	28.00	27.99	12.73	2.84	0.14	3,829,264 ***	
	200만 원대		0.02	0.27	1.25	4.75	17.09	27.13	31.50	13.94	3.90	0.15		
	300만 원대				1.01	4.56	16.09	23.60	31.65	17.51	4.90	0.68		
	400만 원대				0.24	1.60	10.48	15.78	30.92	32.45	8.10	0.42		
	500만 원 이상				1.44	0.98	5.86	8.52	25.92	39.87	16.13	1.29		
학력	중졸 이하		0.08		2.64	6.32	22.68	28.27	25.89	10.10	3.74	0.29	1,160,507 ***	
	고졸			0.09	1.31	5.98	16.90	27.14	28.84	15.69	3.85	0.20		
	대졸 이상		0.02	0.29	1.31	3.21	13.88	21.35	32.15	21.08	6.23	0.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2	0.24	1.54	4.35	16.29	22.14	30.28	18.27	6.45	0.41	863,77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0.27	2.32	5.52	20.49	28.74	27.98	12.03	2.21	0.33		
	고용주·자영자				0.60	3.34	16.29	24.94	30.61	19.56	4.32	0.33		
	무급가족종사자				3.46	5.42	12.89	24.54	34.17	13.89	5.12	0.50		
	실업자				0.28	13.61	20.24	34.99	27.85	1.79	1.24			
	비경제활동인구			0.18	1.52	5.10	13.46	25.43	30.43	19.15	4.40	0.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2	0.17	1.51	4.30	16.12	22.33	29.73	18.77	6.62	0.44	361,337 ***	
	비정규직		0.07	0.49	2.26	5.45	20.16	26.76	30.22	11.77	2.57	0.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28	1.55	5.42	18.91	27.24	29.54	14.02	2.80	0.20	777,049 ***	
	중도적		0.02	0.17	1.47	4.41	15.65	21.66	28.06	21.51	6.46	0.59		
	진보적			0.10	1.37	4.22	14.03	25.49	33.61	15.93	5.04	0.2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아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29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27〉 타인의 행복: 대한민국 국민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3	0.76	2.77	6.34	20.32	27.06	24.08	14.63	3.81	0.17		
성별	남성	0.02	0.06	0.52	3.00	6.54	20.93	27.39	22.90	14.98	3.53	0.12	110,571 ***	
	여성			1.01	2.54	6.14	19.71	26.72	25.29	14.28	4.10	0.21		
연령대	20대 이하	0.06	0.16	0.64	2.44	5.97	17.79	34.75	25.13	10.07	2.88	0.33	1,017,718 ***	
	30대			0.87	2.69	6.17	20.30	23.25	23.93	18.24	4.26	0.14		
	40대			0.92	3.34	6.99	20.77	23.73	21.74	17.17	5.16	0.13		
	50대			0.59	2.69	4.92	21.85	25.31	24.21	16.86	3.35	0.23		
	60대			0.70	2.39	7.83	24.00	26.49	24.06	10.88	3.59	0.06		
	70대			0.96	3.22	6.91	14.61	31.63	27.49	11.93	3.25			
지역	수도권			0.27	2.94	6.91	16.54	24.46	25.50	19.71	3.60	0.07	1,364,679 ***	
	비수도권	0.02	0.06	1.25	2.61	5.78	24.13	29.67	22.66	9.53	4.03	0.27		
	대도시			0.40	2.41	4.64	20.36	26.30	26.83	15.70	3.32	0.03	661,075 ***	
	중소도시	0.02	0.06	0.76	3.17	8.03	20.64	27.15	21.85	14.05	4.08	0.20		
	농어촌			2.60	2.36	5.32	18.38	30.33	22.95	12.56	4.80	0.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3	0.08	3.34	9.12	8.22	20.72	21.81	23.16	12.22	1.41		1,999,904 ***	
	중하층			0.84	2.99	6.70	23.13	29.67	23.91	9.48	3.14	0.03		
	중간층			0.35	1.90	5.67	17.90	25.85	24.00	19.17	4.85	0.31		
	중상층(상층)			0.51	0.82	7.43	23.50	28.69	26.69	10.04	2.3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4	0.08	1.60	4.61	7.18	20.53	30.73	24.09	9.16	2.03	0.04	3,213,967 ***	
	200만 원대			0.74	2.61	6.72	21.69	29.05	24.28	11.73	2.98	0.11		
	300만 원대			0.17	1.93	6.37	23.51	24.67	23.18	15.16	4.63	0.39		
	400만 원대				1.40	5.91	12.78	23.30	26.22	25.70	4.67			
	500만 원 이상				0.44	0.92	1.59	11.94	14.35	23.07	35.61	11.58		0.51
학력	중졸 이하	0.02	0.06	1.43	3.45	9.44	23.67	31.25	21.25	8.07	1.36	0.08	883,752 ***	
	고졸			0.66	2.81	7.03	21.43	28.82	23.21	11.84	4.11	0.09		
	대졸 이상			0.69	2.59	5.12	18.73	24.77	25.39	18.24	4.14	0.2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7	0.07	0.49	3.27	5.83	20.84	24.38	24.12	15.99	4.74	0.28	937,35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4	3.38	7.51	22.50	28.88	26.28	8.32	1.88		0.10
	고용주·자영자				0.77	2.32	4.27	22.06	29.53	22.07	14.80	4.07		0.05
	무급가족종사자					3.62	6.60	22.96	28.17	25.79	10.34	2.52		
	실업자				0.58	4.49	11.50	35.60	22.35	19.75	5.73			
	비경제활동인구				1.16	1.79	7.98	16.13	29.53	24.68	15.54	3.08		0.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7	0.27	3.14	5.40	21.08	24.66	24.02	16.25	4.83	0.30	445,631 ***	
	비정규직			1.68	3.78	8.54	21.39	27.05	26.14	9.13	2.21	0.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11	1.21	4.16	5.15	22.91	28.47	24.32	10.80	2.85	0.03	810,419 ***
	중도적				0.69	1.95	6.39	19.52	24.77	23.19	18.61	4.52	0.34	
	진보적				0.47	2.68	7.33	19.16	28.94	25.09	12.56	3.71	0.0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 아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8〉 타인의 행복: 전 세계인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χ ²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4	0.68	1.27	2.44	6.12	24.09	24.47	24.79	12.80	3.24	0.05		
성별	남성	0.01	0.98	1.33	2.85	6.53	23.39	24.50	25.76	11.41	3.15	0.08	205,919 ***	
	여성	0.08	0.37	1.21	2.02	5.71	24.80	24.43	23.79	14.22	3.34	0.03		
연령대	20대 이하		1.33	0.68	2.79	4.41	23.04	24.93	30.14	10.56	1.97	0.14	1,219,792 ***	
	30대	0.16	0.70	2.42	2.88	5.77	20.42	24.22	23.10	16.02	4.22	0.07		
	40대		1.14	1.72	3.32	6.36	21.26	24.30	25.28	12.41	4.15	0.07		
	50대		0.18	0.96	1.76	6.69	24.09	23.45	25.36	13.60	3.90			
	60대	0.07	0.18	0.46	1.54	6.81	31.67	25.56	21.94	9.10	2.67			
	70대	0.05	0.24	1.25	1.93	7.42	27.60	24.97	19.11	16.32	1.12			
지역	수도권		0.81	1.29	2.41	5.57	19.99	23.25	27.73	16.00	2.95		872,333 ***	
	비수도권	0.09	0.56	1.26	2.47	6.68	28.20	25.69	21.83	9.59	3.54	0.11		
	대도시			0.02	1.12	4.84	23.95	25.45	28.32	14.13	2.16		1,570,233 ***	
	중소도시	0.08	1.26	2.24	3.74	7.29	25.40	23.52	21.37	11.51	3.52	0.08		
	농어촌	0.05	0.85	2.08	1.68	5.96	17.31	24.94	26.47	13.43	7.09	0.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9	0.86	2.57	3.54	6.47	26.21	25.14	22.67	10.97	1.36		1,131,022 ***	
	중하층	0.08	0.60	1.24	2.59	7.36	29.28	22.96	23.55	9.93	2.34	0.08		
	중간층		0.80	1.16	2.46	4.78	20.31	24.32	26.54	15.32	4.26	0.06		
	중상층(상층)			0.79	0.26	9.41	23.01	32.67	20.51	10.86	2.4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6	0.75	2.16	2.96	7.37	27.50	24.83	22.43	10.29	1.61	0.05	2,214,386 ***	
	200만 원대	0.08	0.84	1.42	2.76	6.07	26.51	25.21	23.94	10.90	2.20	0.07		
	300만 원대		0.82	0.82	1.80	7.36	21.96	24.20	26.77	12.03	4.17	0.07		
	400만 원대				2.41	3.55	20.30	22.27	27.47	18.17	5.82			
	500만 원 이상			0.11	0.75	1.07	9.24	22.66	28.93	28.26	8.99			
학력	중졸 이하	0.13	0.41	1.36	2.71	8.66	31.67	27.56	16.91	9.59	1.00		987,717 ***	
	고졸		0.27	0.95	2.63	7.16	26.80	23.81	23.31	12.19	2.79	0.10		
	대졸 이상	0.06	1.06	1.50	2.24	4.76	20.31	24.27	27.69	13.99	4.09	0.0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3	1.28	2.69	5.06	22.83	23.27	25.71	13.42	4.39	0.12	1,254,89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8		0.61	2.55	6.83	28.96	22.51	27.86	9.11	1.18			
	고용주·자영자		0.28	0.79	1.30	7.09	24.43	26.76	22.28	14.10	2.98			
	무급가족종사자		1.98	1.53	2.71	8.78	21.57	23.95	26.74	9.64	3.10			
	실업자	0.29	0.29		9.34	19.31	30.00	15.89	20.59	2.63	1.65			
	비경제활동인구		0.20	1.95	2.37	6.09	23.88	26.31	23.77	13.09	2.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2	0.95	2.39	4.82	23.14	23.50	26.08	13.66	4.41	0.13	316,464 ***	
	비정규직	0.30	1.23	1.80	3.53	7.22	26.71	21.94	26.23	9.28	1.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5	1.37	2.53	7.66	26.02	23.83	24.78	11.38	1.88	0.10	664,834 ***	
	중도적	0.10	0.47	0.70	1.71	5.15	24.36	24.14	24.69	13.77	4.83	0.06		
	진보적		1.17	1.96	3.37	6.10	22.01	25.47	24.93	12.73	2.2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아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29〉 5년 후 행복 여부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2	0.11	0.74	1.25	7.01	13.09	31.95	36.01	9.27	0.54		
성별	남성		0.02	0.17	0.82	1.24	6.68	12.81	30.96	37.06	9.76	0.46	79,362 ***	
	여성	0.03	0.02	0.04	0.65	1.26	7.34	13.38	32.97	34.93	8.76	0.62		
연령대	20대 이하					0.47	2.11	8.05	34.82	43.18	10.46	0.91	5,002,072 ***	
	30대				0.33	0.49	2.93	9.05	30.76	42.51	13.06	0.86		
	40대		0.05	0.22	0.25	0.29	6.07	13.02	31.74	38.27	9.80	0.30		
	50대				0.57	0.99	7.32	14.62	30.55	36.64	8.81	0.49		
	60대		0.07	0.20	0.71	1.41	13.68	19.32	33.62	25.53	5.19	0.27		
	70대	0.15		0.40	4.81	7.28	16.09	18.09	29.27	18.00	5.67	0.24		
지역	수도권				0.56	1.25	5.90	11.29	31.45	39.68	9.28	0.59	412,416 ***	
	비수도권	0.03	0.04	0.21	0.92	1.25	8.12	14.90	32.46	32.32	9.26	0.50		
	대도시			0.06	1.02	1.21	6.32	13.27	33.40	36.08	8.54	0.11	425,360 ***	
	중소도시	0.03	0.02	0.05	0.38	1.26	7.34	12.70	31.35	36.49	9.51	0.86		
	농어촌		0.13	0.66	1.33	1.44	8.57	14.37	28.12	32.94	11.55	0.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2	0.70	5.07	7.30	18.54	14.69	32.47	17.97	2.67	0.46	6,014,761 ***	
	중하층			0.09	0.56	1.68	10.32	17.57	36.36	28.15	5.13	0.13		
	중간층		0.02	0.04	0.28	0.19	3.58	10.62	28.53	44.04	11.93	0.77		
	중상층(상층)	0.19			0.07		2.07	6.44	34.23	37.44	18.51	1.0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5	0.08	0.34	1.77	3.32	13.30	18.24	37.11	22.90	2.43	0.46	5,699,164 ***	
	200만 원대			0.04	0.30	0.52	6.42	14.22	35.58	35.66	7.15	0.11		
	300만 원대				0.70	0.73	3.69	9.25	26.94	43.35	15.15	0.19		
	400만 원대				0.05	0.40	1.73	8.46	21.07	46.76	18.89	2.65		
	500만 원 이상				0.10		2.89	4.93	21.83	52.06	16.62	1.57		
학력	중졸 이하		0.08	0.60	4.23	4.73	19.05	17.70	34.59	16.25	2.17	0.60	5,529,871 ***	
	고졸	0.02	0.03	0.10	0.59	1.57	8.68	16.28	35.38	30.66	6.40	0.30		
	대졸 이상	0.01			0.06	0.23	3.02	9.63	28.75	44.53	13.06	0.7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4	0.69	4.70	10.94	31.43	40.23	11.53	0.13	2,180,68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6	0.09	0.13	2.13	2.80	10.40	17.93	38.08	25.96	2.31	0.12		
	고용주·자영자	0.04		0.25	0.11	0.48	9.03	13.21	32.19	33.63	9.62	1.43		
	무급가족종사자				0.37	0.98	10.37	20.78	32.12	30.46	4.42	0.50		
	실업자			1.63	2.66	2.76	14.01	29.34	21.54	23.11	4.34	0.61		
	비경제활동인구		0.04	0.10	1.24	2.12	7.63	13.37	30.73	35.48	8.47	0.8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6	0.64	4.52	10.72	31.59	40.17	11.87	0.14	1,090,167 ***	
	비정규직	0.05	0.07	0.11	1.68	2.54	9.76	17.15	36.16	29.19	3.20	0.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18	2.05	3.17	11.98	17.33	34.35	25.23	5.46	0.22	2,543,766 ***	
	중도적	0.02	0.03	0.07	0.17	0.69	6.43	12.07	30.47	38.63	10.94	0.48		
	진보적	0.02		0.09	0.36	0.34	3.42	10.76	31.87	41.90	10.33	0.9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 5년 후에 얼마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0〉 바라는 행복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매우 행복하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36	3.48	9.81	26.61	36.18	19.64	3.90	
성별	남성					0.49	3.61	9.07	24.70	38.10	20.69	3.33	210,773 ***
	여성				0.03	0.24	3.33	10.58	28.56	34.21	18.57	4.48	
연령대	20대 이하						1.69	6.40	22.83	39.26	23.88	5.94	2,751,440 ***
	30대						1.70	6.37	21.05	39.90	26.67	4.31	
	40대						2.96	8.22	28.96	34.65	21.71	3.49	
	50대				0.13	3.07	11.40	27.66	36.43	17.41	3.90		
	60대				0.89	6.70	14.75	30.46	32.76	12.29	2.15		
	70대				0.15	2.46	7.72	15.77	31.58	30.65	9.03	2.63	
지역	수도권					0.18	4.09	9.52	24.76	36.86	22.50	2.09	673,440 ***
	비수도권				0.03	0.55	2.85	10.11	28.47	35.49	16.78	5.72	
	대도시					0.39	4.48	10.82	24.99	36.49	19.06	3.77	356,555 ***
	중소도시				0.03	0.41	2.95	9.02	27.66	35.38	21.04	3.52	
농어촌						1.39	9.31	28.72	39.19	14.67	6.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8	1.79	12.79	12.28	30.73	33.43	7.05	1.85	2,826,571 ***
	중하층				0.02	0.40	4.44	12.75	30.71	33.98	16.02	1.67	
	중간층					0.13	1.51	7.27	23.87	37.83	24.07	5.32	
	중상층(상층)					0.26	2.37	10.80	21.05	38.42	19.87	7.2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2	1.15	6.51	15.72	32.05	30.19	10.91	3.44	2,909,763 ***
	200만 원대				0.02	0.16	3.46	10.19	27.86	35.10	19.24	3.95	
	300만 원대						1.91	5.98	20.35	40.21	27.12	4.42	
	400만 원대						0.36	4.56	20.71	41.83	27.75	4.79	
	500만 원 이상						0.65	3.52	25.71	45.42	22.07	2.64	
학력	중졸 이하				0.11	2.16	8.52	18.39	35.73	25.32	7.05	2.71	3,654,009 ***
	고졸					0.31	4.56	11.56	30.63	35.66	14.65	2.62	
	대졸 이상						1.51	6.55	21.49	39.02	26.28	5.1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5	2.38	8.19	25.17	37.30	23.43	3.50	1,633,23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7	8.43	12.25	28.77	34.62	11.37	3.99	
	고용주·자영자					0.26	4.05	10.55	27.40	36.46	15.87	5.42	
	무급가족종사자				0.37	1.23	4.75	14.02	37.13	31.89	10.11	0.50	
	실업자				0.45	5.04	3.99	11.53	21.16	38.37	13.96	5.51	
	비경제활동인구					0.60	2.83	10.80	27.30	34.79	20.05	3.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5	2.32	7.96	25.13	37.44	23.57	3.53	639,042 ***
	비정규직					0.45	7.34	12.10	28.12	34.73	13.48	3.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2	0.90	6.81	12.51	30.83	33.12	13.73	2.08	1,582,409 ***
	중도적				0.02	0.26	2.97	9.54	25.12	37.15	21.78	3.16	
	진보적					0.04	1.24	7.83	24.93	37.54	21.92	6.5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 어느 정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0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31〉 행복한 삶의 중요 요소 점수

(단위: %)

구분		삶의 가치와 목표	관계	주거	환경의 질	일	생활의 질	경제적 안정	건강	안정	거버넌스 의 질
전체		10.56	10.94	10.65	7.90	11.63	10.20	13.63	13.18	6.33	4.97
성별	남성	10.68	10.85	10.56	7.80	12.49	10.06	13.47	13.11	6.10	4.89
	여성	10.45	11.03	10.74	8.00	10.76	10.34	13.80	13.26	6.56	5.05
연령대	20대 이하	11.70	11.19	9.73	8.00	12.39	10.30	13.03	11.11	6.83	5.72
	30대	10.75	11.21	10.81	7.77	11.93	10.33	13.22	12.78	6.26	4.94
	40대	10.45	10.98	11.08	7.89	12.32	10.48	13.67	12.47	6.08	4.59
	50대	10.38	10.46	10.86	7.98	11.44	10.17	14.09	13.95	6.04	4.63
	60대	9.57	10.55	10.86	7.54	11.16	10.05	14.16	14.98	6.33	4.8
	70대	10.17	11.58	10.40	8.42	9.02	9.37	13.66	15.26	6.68	5.43
지역	수도권	10.85	10.87	11.13	7.99	11.81	10.33	13.48	13.10	5.91	4.54
	비수도권	10.28	11.00	10.17	7.81	11.45	10.07	13.78	13.27	6.75	5.40
	대도시	10.54	10.89	10.51	7.59	12.08	10.25	13.84	13.16	6.29	4.84
	중소도시	10.63	10.89	10.87	7.99	11.39	10.28	13.63	13.24	6.25	4.83
	농어촌	10.31	11.44	10.09	8.95	10.79	9.49	12.58	12.95	6.98	6.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32	11.14	10.12	8.32	11.65	9.23	13.15	13.43	7.21	5.44
	중하층	10.42	11.49	10.26	7.78	11.73	9.69	13.75	13.31	6.42	5.17
	중간층	10.63	10.46	11.03	7.99	11.67	10.49	13.55	13.23	6.15	4.80
	중상층(상층)	11.14	11.39	10.41	7.41	10.87	11.85	14.24	11.84	6.18	4.6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15	11.06	10.72	8.03	10.39	9.56	13.92	14.13	6.56	5.48
	200만 원대	10.57	11.19	10.37	7.51	12.27	10.14	13.56	12.99	6.30	5.11
	300만 원대	10.64	11.21	10.72	7.83	12.15	10.64	13.21	12.32	6.46	4.82
	400만 원대	11.48	9.91	11.10	8.61	12.00	10.67	14.02	12.68	5.47	4.07
	500만 원 이상	10.73	9.57	11.12	8.84	10.96	11.02	13.76	13.90	6.29	3.82
학력	중졸 이하	9.37	10.79	10.93	8.43	9.30	9.89	13.86	14.70	7.07	5.66
	고졸	10.37	10.95	10.51	7.71	11.24	10.09	13.90	13.66	6.37	5.20
	대졸 이상	10.98	10.96	10.69	7.93	12.46	10.36	13.37	12.48	6.13	4.6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92	10.97	10.55	7.76	12.91	10.30	13.36	12.30	6.14	4.8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02	10.54	11.24	8.16	11.27	9.41	13.13	13.39	7.07	5.78
	고용주·자영자	10.15	10.65	10.76	7.77	12.28	9.68	13.67	14.27	6.03	4.75
	무급가족종사자	9.64	11.28	11.03	7.36	9.74	10.21	15.44	14.49	6.03	4.79
	실업자	11.30	12.96	10.72	7.46	10.49	9.78	12.55	12.92	6.85	4.96
	비경제활동인구	10.46	11.13	10.47	8.22	9.19	10.76	14.25	13.83	6.57	5.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93	10.83	10.53	7.77	13.00	10.30	13.39	12.22	6.20	4.83
	비정규직	10.19	11.06	11.16	8.02	11.34	9.59	13.08	13.42	6.68	5.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35	11.09	10.58	7.71	11.15	9.46	13.81	14.57	6.21	5.07
	중도적	10.67	10.47	10.93	8.19	11.95	10.40	13.63	12.95	6.22	4.59
	진보적	10.60	11.44	10.33	7.68	11.63	10.58	13.47	12.29	6.58	5.40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서는 귀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합계 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2〉 행복 조건 충족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5	23.26	69.72	5.67	
성별	남성	1.56	23.42	69.47	5.54	16,070 ***
	여성	1.13	23.09	69.97	5.80	
연령대	20대 이하	0.73	20.04	71.47	7.76	1,493,952 ***
	30대	0.38	18.87	73.57	7.19	
	40대	1.03	19.83	74.01	5.14	
	50대	0.72	23.22	70.12	5.94	
	60대	2.35	28.89	65.38	3.39	
	70대	5.34	38.03	54.12	2.50	
지역	수도권	1.47	21.67	69.95	6.90	161,665 ***
	비수도권	1.23	24.85	69.49	4.43	
	대도시	1.08	23.47	70.28	5.17	
	중소도시	1.55	21.82	71.07	5.56	
	농어촌	1.56	30.41	59.23	8.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58	50.68	36.48	2.26	8,085,159 ***
	중하층	1.38	34.56	61.44	2.62	
	중간층	0.02	13.50	80.41	6.08	
	중상층(상층)	0.43	5.88	71.10	22.5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72	37.27	56.90	2.10	3,763,568 ***
	200만 원대	0.83	23.56	71.36	4.24	
	300만 원대	0.29	16.64	75.87	7.20	
	400만 원대		9.01	79.14	11.85	
	500만 원 이상		6.19	79.32	14.48	
학력	중졸 이하	5.37	39.72	52.50	2.42	2,660,774 ***
	고졸	1.39	28.81	65.49	4.32	
	대졸 이상	0.42	15.32	76.83	7.4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0	19.57	74.06	5.28	1,162,95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9	39.22	55.43	2.16	
	고용주·자영자	0.93	23.07	69.78	6.22	
	무급가족종사자	0.72	35.77	58.09	5.42	
	실업자	2.34	34.82	57.81	5.04	
	비경제활동인구	1.33	21.78	69.37	7.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9	19.21	74.70	5.00	779,358 ***
	비정규직	2.76	36.20	57.34	3.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9	31.17	61.84	4.29	1,176,121 ***
	중도적	0.84	19.58	75.47	4.11	
	진보적	0.87	21.33	68.78	9.01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___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0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33〉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1순위

(단위: %)

구분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건강 하게 사는 것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χ^2
전체		30.96	26.32	12.71	10.37	7.57	6.45	3.67	0.94	0.87	0.14	
성별	남성	33.22	24.36	14.77	10.45	6.73	4.92	3.90	0.93	0.65	0.08	505,972
	여성	28.66	28.31	10.61	10.28	8.43	8.01	3.44	0.96	1.09	0.20	***
연령대	20대 이하	28.71	6.61	14.23	25.88	9.67	2.37	10.70	0.96	0.61	0.26	1,117,4863 ***
	30대	42.40	9.66	12.29	8.95	9.35	13.32	3.03	0.59	0.42		
	40대	33.38	20.52	13.33	8.74	6.37	13.54	3.08	0.75	0.28		
	50대	29.69	35.93	13.92	6.81	5.84	2.98	1.65	1.30	1.88		
	60대	21.98	49.69	10.49	5.17	7.34	1.65	1.21	0.84	1.27	0.36	
	70대	24.82	53.60	9.69	1.34	6.78	0.80	0.47	1.45	0.59	0.47	
지역	수도권	36.14	21.15	13.60	9.70	7.38	6.34	3.93	0.65	1.07	0.04	919,469
	비수도권	25.77	31.50	11.82	11.03	7.76	6.56	3.42	1.24	0.67	0.24	***
	대도시	32.44	26.22	12.01	10.99	7.43	5.83	3.45	0.91	0.57	0.15	329,550
	중소도시	29.17	25.36	13.64	10.43	7.59	7.36	4.14	1.09	1.08	0.14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33.74	32.23	10.97	6.90	8.14	4.36	2.09	0.25	1.19	0.12	
	하층	21.40	32.52	26.15	13.30	1.68	3.26	1.12	0.14	0.45		2,054,387 ***
	중하층	25.68	30.57	15.04	10.48	7.08	6.17	2.89	1.01	0.83	0.2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간층	36.55	22.71	9.00	9.94	8.54	7.05	4.27	1.08	0.74	0.11	
	중상층(상층)	27.49	24.04	12.82	9.53	9.66	7.07	6.26	0.54	2.59		
	200만 원 미만	25.26	38.64	14.03	6.52	6.12	5.57	1.85	0.67	1.05	0.29	2,79,069 ***
	200만 원대	28.39	23.71	13.72	11.74	8.06	7.89	4.64	1.12	0.65	0.06	
	300만 원대	33.63	21.04	11.26	12.30	8.74	5.28	5.65	1.01	1.01	0.07	
학력	400만 원대	40.05	19.49	8.40	12.66	8.32	6.86	1.39	1.39	1.17	0.27	
	500만 원 이상	46.99	17.86	12.11	8.87	5.94	5.16	2.24	0.28	0.54		
	중졸 이하	17.21	51.73	13.87	3.90	7.30	1.77	1.77	1.50	0.57	0.40	3,850,179 ***
	고졸	26.19	32.35	14.58	9.99	6.83	5.03	3.10	0.62	1.22	0.09	
경제활동 참여상태	대졸 이상	37.70	15.99	11.02	12.11	8.19	8.58	4.54	1.06	0.67	0.12	
	상용직 임금근로자	34.49	17.60	14.21	11.76	8.06	8.14	4.26	1.02	0.42	0.05	2,293,65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58	35.70	18.34	10.53	5.97	3.71	2.43	1.57	1.06	0.13	
	고용주·자영자	30.77	35.68	10.49	6.64	7.11	4.38	1.89	0.98	1.86	0.21	
	무급가족종사자	30.41	37.51	7.51	7.54	11.12	2.34	1.22	0.47	1.89		
	실업자	27.59	24.08	13.39	17.31	9.36	0.45	5.41	1.31	0.61	0.4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29.35	30.64	9.56	10.31	7.33	6.70	4.52	0.53	0.81	0.24	
	정규직	35.18	16.98	14.34	11.84	8.01	8.13	3.96	1.06	0.45	0.06	1,799,660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21.34	33.82	17.05	10.53	6.59	4.66	3.75	1.32	0.83	0.10	***
	보수적	23.06	41.01	14.37	6.52	6.46	3.81	2.22	1.16	1.05	0.34	2,627,503 ***
	중도적	37.03	20.36	12.58	10.91	7.73	6.29	3.03	1.19	0.78	0.10	
	진보적	29.61	21.54	11.44	13.01	8.32	8.98	5.83	0.41	0.83	0.02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게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해서 1순위에 답한 경우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4〉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2순위

(단위: %)

구분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건강 하게 사는 것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남을 위해 봉사 하는 것	χ^2
전체		10.89	11.92	13.44	1.86	1.95	5.97	8.79	21.20	22.45	1.52	
성별	남성	11.51	13.62	14.75	1.13	2.48	5.71	6.44	20.80	22.32	1.24	648,183 ***
	여성	10.27	10.17	12.10	2.61	1.42	6.24	11.19	21.61	22.58	1.80	
연령대	20대 이하	12.60	16.69	17.82	0.68	1.83	12.08	2.22	14.69	20.26	1.13	4,808,529 ***
	30대	9.59	15.37	14.03	1.24	1.76	7.25	15.00	18.15	17.52	0.09	
	40대	10.61	10.23	13.31	1.70	2.89	4.17	18.06	21.04	17.26	0.73	
	50대	9.77	11.26	11.66	2.91	2.16	4.33	6.44	25.49	24.16	1.84	
	60대	12.81	8.00	12.62	2.51	1.57	2.61	2.78	23.70	31.15	2.26	
	70대	10.01	6.73	8.88	2.43	0.56	4.25	4.09	27.23	30.63	5.18	
지역	수도권	9.95	13.19	13.11	2.25	2.16	6.81	8.21	21.12	21.37	1.84	251,761 ***
	비수도권	11.84	10.64	13.78	1.47	1.75	5.13	9.37	21.29	23.54	1.19	
	대도시	10.54	13.31	13.90	1.77	1.89	6.50	8.83	20.08	22.13	1.04	238,213 ***
	중소도시	11.31	10.55	13.50	1.99	2.02	5.69	8.77	21.37	22.73	2.06	
	농어촌	10.28	12.70	10.81	1.60	1.91	4.92	8.71	25.82	22.46	0.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80	8.65	16.70	1.52	0.97	4.12	7.62	25.85	20.69	1.07	493,767 ***
	중하층	11.97	10.09	14.80	1.83	2.21	5.00	9.35	19.78	23.60	1.37	
	중간층	9.47	13.62	12.11	2.07	2.04	6.94	8.64	21.41	22.08	1.64	
	중상층(상층)	13.86	12.42	12.64	0.89	1.15	5.90	8.34	21.63	21.26	1.9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82	8.04	12.66	2.24	1.00	3.56	10.36	23.46	23.56	2.31	1,697,634 ***
	200만 원대	12.09	10.45	14.70	1.07	2.30	5.24	9.54	20.49	22.99	1.13	
	300만 원대	9.14	12.75	13.76	2.06	1.81	8.44	7.59	20.06	23.07	1.32	
	400만 원대	8.44	19.00	12.28	1.73	3.07	9.05	6.04	17.89	20.98	1.51	
	500만 원 이상	5.57	23.20	10.17	4.26	2.79	7.67	5.88	24.08	15.21	1.17	
학력	중졸 이하	13.05	6.12	13.77	1.95	1.76	2.40	3.09	24.15	28.79	4.92	1,716,196 ***
	고졸	11.44	9.89	13.45	2.64	1.63	5.49	7.49	22.06	23.94	1.98	
	대졸 이상	9.99	14.76	13.36	1.25	2.25	7.15	11.06	19.88	19.89	0.4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76	13.76	13.25	1.14	2.18	6.18	9.09	20.52	22.51	0.60	1,268,17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17	7.65	16.12	2.72	1.61	5.29	7.13	22.11	21.51	1.71	
	고용주·자영자	9.46	10.47	12.80	1.75	2.26	4.27	7.61	24.53	25.45	1.39	
	무급가족종사자	12.48	13.50	12.38	1.91	0.52	2.91	8.13	27.13	20.60	0.46	
	실업자	13.59	6.06	21.87	3.69	7.49	6.72	5.10	14.46	11.91	9.11	
	비경제활동인구	10.52	11.66	12.73	2.79	1.25	7.31	10.07	19.57	21.27	2.8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87	13.89	12.83	1.13	2.21	6.03	9.08	21.03	22.37	0.56	508,199 ***
	비정규직	13.12	8.54	16.82	2.40	1.63	5.96	7.58	20.17	22.17	1.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81	8.53	13.12	2.24	1.79	3.63	6.15	24.55	25.24	2.93	906,850 ***
	중도적	9.85	13.56	13.79	1.91	2.32	6.39	10.23	20.85	20.38	0.72	
	진보적	11.51	12.65	13.26	1.47	1.59	7.46	9.13	18.73	22.83	1.37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게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해서 2순위에 응답한 경우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5〉 성격 5요인 척도: (1)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78	44.74	46.49	5.99	
성별	남성	2.45	41.89	49.29	6.37	175,150 ***
	여성	3.12	47.65	43.63	5.60	
연령대	20대 이하	0.90	42.24	50.35	6.51	1,227,625 ***
	30대	1.23	41.06	50.30	7.41	
	40대	2.60	42.04	50.92	4.43	
	50대	2.89	41.59	49.14	6.37	
	60대	5.31	51.92	37.15	5.63	
	70대	5.87	59.62	29.20	5.30	
지역	수도권	2.46	41.25	48.98	7.32	306,105 ***
	비수도권	3.11	48.24	43.99	4.66	
	대도시	2.62	46.42	46.55	4.42	759,052 ***
	중소도시	2.69	44.33	47.36	5.62	
	농어촌	4.10	38.62	41.29	15.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66	61.70	23.75	4.89	2,703,124 ***
	중하층	2.96	54.86	36.81	5.37	
	중간층	1.61	36.83	55.28	6.28	
	중상층(상층)	2.69	31.74	57.29	8.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53	51.66	39.21	4.61	1,058,805 ***
	200만 원대	1.98	46.71	46.26	5.05	
	300만 원대	1.72	41.49	50.12	6.67	
	400만 원대	1.97	31.71	55.65	10.66	
	500만 원 이상	4.69	34.01	52.95	8.35	
학력	중졸 이하	7.05	56.26	30.65	6.04	1,509,057 ***
	고졸	3.45	49.70	41.74	5.11	
	대졸 이상	1.31	38.36	53.68	6.6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1	40.40	51.79	6.10	1,065,14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0	58.00	33.99	2.91	
	고용주·자영자	2.09	41.70	47.48	8.72	
	무급가족종사자	5.58	57.91	32.83	3.68	
	실업자	5.58	49.46	38.86	6.10	
	비경제활동인구	3.89	48.02	42.84	5.2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5	40.22	51.85	6.28	606,973 ***
	비정규직	4.58	54.83	37.60	2.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4.96	53.32	36.82	4.90	1,006,305 ***
	중도적	2.16	41.52	51.31	5.01	
	진보적	1.72	41.59	48.40	8.2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6〉 성격 5요인 척도: (2)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25	25.88	56.25	15.62	
성별	남성	1.69	24.43	56.31	17.57	195,054 ***
	여성	2.82	27.36	56.19	13.63	
연령대	20대 이하	0.66	20.28	58.59	20.47	887,819 ***
	30대	1.48	23.41	58.13	16.98	
	40대	2.70	26.29	56.95	14.06	
	50대	1.91	27.26	55.14	15.69	
	60대	3.91	26.07	55.92	14.11	
	70대	4.16	38.58	48.86	8.40	
지역	수도권	1.89	24.72	55.78	17.62	53,090 ***
	비수도권	2.61	27.04	56.73	13.62	
	대도시	2.00	26.16	56.14	15.69	53,362 ***
	중소도시	2.49	26.38	55.90	15.22	
	농어촌	2.05	21.61	58.77	17.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98	34.81	47.79	11.42	947,303 ***
	중하층	3.21	29.37	51.35	16.07	
	중간층	1.29	22.59	60.88	15.25	
	중상층(상층)	0.12	22.04	56.79	21.0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78	34.35	48.80	12.08	1,793,961 ***
	200만 원대	1.78	28.04	55.57	14.61	
	300만 원대	0.98	20.72	57.98	20.32	
	400만 원대	1.24	14.67	66.17	17.92	
	500만 원 이상	0.19	11.77	70.72	17.32	
학력	중졸 이하	5.56	34.69	49.77	9.99	991,916 ***
	고졸	2.64	29.36	52.91	15.09	
	대졸 이상	1.20	21.25	60.26	17.2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9	24.54	57.66	16.21	532,26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79	34.66	49.05	12.49	
	고용주·자영자	2.08	22.51	57.43	17.98	
	무급가족종사자	2.69	29.14	58.47	9.70	
	실업자	7.11	39.18	37.33	16.38	
	비경제활동인구	2.59	26.06	56.82	14.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6	24.22	57.28	16.85	281,667 ***
	비정규직	3.11	33.54	52.09	11.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2	31.28	52.81	12.39	657,270 ***
	중도적	1.84	24.51	59.59	14.07	
	진보적	1.69	23.01	54.72	20.58	

주 1) “(조사표 질문) 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7〉 성격 5요인 척도: (3)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49	28.39	57.12	12.01	
성별	남성	1.99	27.69	57.11	13.21	100,966 ****
	여성	3.00	29.10	57.12	10.77	
연령대	20대 이하	0.68	28.10	59.55	11.67	383,506 ****
	30대	2.33	25.40	59.89	12.38	
	40대	2.31	27.89	57.10	12.69	
	50대	3.18	26.80	58.33	11.69	
	60대	3.23	30.57	54.26	11.94	
	70대	4.19	36.62	48.00	11.19	
지역	수도권	1.42	28.04	57.76	12.78	216,077 ****
	비수도권	3.56	28.74	56.48	11.23	
	대도시	2.32	28.21	57.07	12.40	222,882 ****
	중소도시 농어촌	2.39 3.91	29.60 22.36	57.38 55.90	10.63 17.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3	41.47	46.43	6.78	1,120,152 ****
	중하층	2.82	32.00	55.06	10.11	
	중간층	1.90	24.71	60.81	12.58	
	중상층(상층)	1.87	21.99	52.39	23.7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58	33.54	51.36	10.52	611,165 ****
	200만 원대	2.03	28.37	57.74	11.87	
	300만 원대	1.74	24.46	61.22	12.59	
	400만 원대	0.68	25.11	61.04	13.17	
	500만 원 이상	1.52	24.93	58.33	15.22	
학력	중졸 이하	5.37	36.30	46.26	12.07	503,481 ****
	고졸	2.90	28.47	57.47	11.17	
	대졸 이상	1.53	26.55	59.29	12.6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6	27.95	58.19	12.00	377,25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89	32.37	52.17	10.57	
	고용주·자영자	1.23	26.18	58.27	14.33	
	무급가족종사자	6.52	27.43	57.77	8.28	
	실업자	4.90	32.81	51.65	10.64	
	비경제활동인구	3.12	28.93	56.68	11.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6	28.00	57.88	12.26	137,132 ****
	비정규직	4.24	31.28	54.43	10.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8	33.86	52.61	10.35	506,418 ****
	중도적	2.15	28.07	59.44	10.35	
	진보적	2.35	24.02	57.90	15.7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38〉 성격 5요인 척도: (4)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75	39.86	45.06	10.33	
성별	남성	4.50	38.86	45.80	10.84	32,409 ***
	여성	5.02	40.88	44.30	9.80	
연령대	20대 이하	4.14	35.96	47.40	12.49	513,816 ***
	30대	3.63	38.50	47.50	10.37	
	40대	4.12	38.42	46.37	11.09	
	50대	3.88	42.28	45.53	8.31	
	60대	6.41	41.51	40.76	11.31	
	70대	9.22	45.82	38.00	6.97	
지역	수도권	3.22	39.74	45.10	11.94	311,123 ***
	비수도권	6.30	39.98	45.01	8.71	
	대도시	5.15	39.66	44.96	10.24	76,236 ***
	중소도시 농어촌	4.46 4.46	40.72 36.00	45.04 45.67	9.79 13.8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2	48.08	35.84	7.15	1,000,915 ***
	중하층	6.47	41.92	42.33	9.28	
	중간층	3.26	38.43	48.23	10.08	
	중상층(상층)	2.18	30.23	46.11	21.4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33	43.83	39.90	9.94	330,139 ***
	200만 원대	4.91	38.49	45.90	10.70	
	300만 원대	4.26	38.44	48.29	9.01	
	400만 원대	2.59	37.38	47.55	12.48	
	500만 원 이상	2.14	39.51	47.21	11.14	
학력	중졸 이하	8.79	43.75	41.19	6.27	467,447 ***
	고졸	5.34	41.29	43.86	9.51	
	대졸 이상	3.40	37.90	46.84	11.8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17	38.49	46.07	11.26	399,14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10	45.38	41.08	6.43	
	고용주·자영자	3.96	39.21	43.94	12.89	
	무급가족종사자	11.78	38.68	41.60	7.94	
	실업자	5.87	49.17	36.13	8.83	
	비경제활동인구	4.83	40.03	46.48	8.6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8	37.79	46.70	11.24	196,868 ***
	비정규직	6.16	46.15	40.15	7.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1	43.03	42.68	8.27	310,940 ***
	중도적	3.88	40.54	45.98	9.60	
	진보적	4.84	36.14	45.88	13.1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1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39〉 성격 5요인 척도: (5)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75	39.86	45.06	10.33	
성별	남성	4.50	38.86	45.80	10.84	121,382 ***
	여성	5.02	40.88	44.30	9.80	
연령대	20대 이하	4.14	35.96	47.40	12.49	513,816 ***
	30대	3.63	38.50	47.50	10.37	
	40대	4.12	38.42	46.37	11.09	
	50대	3.88	42.28	45.53	8.31	
	60대	6.41	41.51	40.76	11.31	
	70대	9.22	45.82	38.00	6.97	
지역	수도권	3.22	39.74	45.10	11.94	311,123 ***
	비수도권	6.30	39.98	45.01	8.71	
	대도시	5.15	39.66	44.96	10.24	76,236 ***
	중소도시 농어촌	4.46 4.46	40.72 36.00	45.04 45.67	9.79 13.8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2	48.08	35.84	7.15	1,000,915 ***
	중하층	6.47	41.92	42.33	9.28	
	중간층	3.26	38.43	48.23	10.08	
	중상층(상층)	2.18	30.23	46.11	21.4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33	43.83	39.90	9.94	330,139 ***
	200만 원대	4.91	38.49	45.90	10.70	
	300만 원대	4.26	38.44	48.29	9.01	
	400만 원대	2.59	37.38	47.55	12.48	
	500만 원 이상	2.14	39.51	47.21	11.14	
학력	중졸 이하	8.79	43.75	41.19	6.27	467,447 ***
	고졸	5.34	41.29	43.86	9.51	
	대졸 이상	3.40	37.90	46.84	11.8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17	38.49	46.07	11.26	399,14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10	45.38	41.08	6.43	
	고용주·자영자	3.96	39.21	43.94	12.89	
	무급가족종사자	11.78	38.68	41.60	7.94	
	실업자	5.87	49.17	36.13	8.83	
	비경제활동인구	4.83	40.03	46.48	8.6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8	37.79	46.70	11.24	196,868 ***
	비정규직	6.16	46.15	40.15	7.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1	43.03	42.68	8.27	310,940 ***
	중도적	3.88	40.54	45.98	9.60	
	진보적	4.84	36.14	45.88	13.1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0〉 성격 5요인 척도: (6)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8.88	47.31	37.47	6.33	
성별	남성	8.76	48.50	36.29	6.45	30.207 ***
	여성	9.01	46.09	38.69	6.21	
연령대	20대 이하	7.19	45.18	41.49	6.14	308.332 ***
	30대	9.15	43.12	41.32	6.41	
	40대	8.44	47.41	38.68	5.47	
	50대	9.55	48.15	34.58	7.73	
	60대	9.50	50.56	34.50	5.44	
	70대	10.37	52.77	30.07	6.78	
지역	수도권	8.80	45.39	39.25	6.57	71.164 ***
	비수도권	8.97	49.24	35.69	6.10	
	대도시	9.71	47.93	36.28	6.09	399.667 ***
	중소도시	7.46	47.70	39.31	5.53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2.86	41.96	33.04	12.14	439.596 ***
	하층	10.02	52.18	31.88	5.92	
	중하층	9.27	50.30	35.21	5.22	
	중간층	8.97	46.04	38.29	6.7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4.85	35.51	49.71	9.94	402.748 ***
	200만 원 미만	9.44	50.37	34.27	5.92	
	200만 원대	8.33	47.38	39.20	5.09	
	300만 원대	7.39	46.16	40.25	6.20	
	400만 원대	10.42	45.96	33.27	10.36	
학력	500만 원 이상	12.38	40.38	37.29	9.96	236.918 ***
	중졸 이하	11.92	48.76	34.14	5.18	
	고졸	8.82	50.25	34.39	6.54	
경제활동 참여상태	대졸 이상	8.25	44.74	40.57	6.44	144.629 ***
	상용직 임금근로자	8.47	46.25	38.66	6.6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06	48.31	34.56	5.07	
	고용주·자영자	8.56	47.63	36.49	7.32	
	무급가족종사자	9.32	52.20	34.61	3.88	
	실업자	7.29	50.76	40.68	1.2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8.58	48.02	37.30	6.10	74.254 ***
	정규직	8.44	46.11	38.75	6.70	
	비정규직	11.41	48.33	35.13	5.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8.90	51.60	33.72	5.78	237.416 ***
	중도적	8.88	47.79	37.76	5.57	
	진보적	8.88	42.88	40.37	7.8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1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41〉 성격 5요인 척도: (7)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8.86	46.74	30.06	4.35	
성별	남성	19.11	47.74	29.03	4.13	30,007 ***
	여성	18.61	45.71	31.11	4.57	
연령대	20대 이하	18.25	44.82	30.92	6.01	173,080 ***
	30대	18.54	50.34	26.76	4.36	
	40대	20.73	44.70	31.09	3.48	
	50대	18.22	46.34	31.11	4.32	
	60대	17.96	47.03	30.80	4.21	
	70대	19.57	48.64	28.73	3.06	
지역	수도권	18.21	47.16	30.17	4.46	12,269 ***
	비수도권	19.52	46.31	29.94	4.24	
	대도시	20.64	46.31	29.36	3.69	306,441 ***
	중소도시 농어촌	16.23 24.89	48.66 37.95	30.55 30.74	4.56 6.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34	43.02	36.95	7.68	606,899 ***
	중하층	15.15	47.43	32.54	4.88	
	중간층	21.49	47.19	27.67	3.65	
	중상층(상층)	26.11	44.01	26.99	2.8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6.12	44.91	33.44	5.53	482,023 ***
	200만 원대	17.39	47.18	30.60	4.84	
	300만 원대	21.99	45.57	29.35	3.08	
	400만 원대	23.47	53.34	21.55	1.64	
	500만 원 이상	21.89	46.57	27.08	4.45	
학력	중졸 이하	15.42	49.53	30.75	4.31	296,465
	고졸	16.47	45.26	33.48	4.79	
	대졸 이상	21.46	47.23	27.29	4.0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14	46.85	29.17	3.85	382,01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54	46.95	33.94	7.57	
	고용주·자영자	19.31	45.20	30.98	4.51	
	무급가족종사자	18.45	48.17	29.08	4.30	
	실업자	10.01	47.15	32.74	10.10	
	비경제활동인구	19.87	47.44	29.25	3.4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23	46.75	29.24	3.78	222,320 ***
	비정규직	13.09	47.24	32.70	6.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05	47.18	33.14	4.63	208,838 ***
	중도적	19.65	46.09	29.53	4.73	
	진보적	21.14	47.23	28.06	3.5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2〉 성격 5요인 척도: (8)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1.63	49.15	17.30	1.92	
성별	남성	30.39	50.84	17.02	1.76	52,524 ***
	여성	32.91	47.42	17.60	2.07	
연령대	20대 이하	33.89	47.27	17.98	0.86	343,790 ***
	30대	29.44	53.62	14.85	2.09	
	40대	30.86	47.57	18.75	2.82	
	50대	30.31	49.01	18.15	2.53	
	60대	30.37	51.19	16.53	1.91	
	70대	38.68	44.33	16.82	0.17	
지역	수도권	30.34	50.16	17.47	2.03	34,228 ***
	비수도권	32.94	48.13	17.13	1.80	
	대도시	31.38	49.20	16.84	2.58	235,431 ***
	중소도시 농어촌	30.44 39.66	49.94 44.39	18.37 13.57	1.25 2.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67	52.52	27.32	0.49	858,826 ***
	중하층	26.32	54.02	17.72	1.93	
	중간층	36.41	45.55	15.91	2.12	
	중상층(상층)	37.27	46.89	13.91	1.9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12	48.48	20.50	2.90	497,714 ***
	200만 원대	32.07	48.24	17.69	2.00	
	300만 원대	36.66	49.07	13.33	0.94	
	400만 원대	33.62	52.36	13.25	0.78	
	500만 원 이상	24.80	52.79	20.29	2.12	
학력	중졸 이하	33.56	48.09	16.98	1.37	131,835 ***
	고졸	29.41	49.04	19.58	1.96	
	대졸 이상	32.89	49.47	15.64	2.0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13	50.70	15.43	1.74	437,33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53	44.20	25.84	3.43	
	고용주·자영자	32.59	46.37	19.55	1.49	
	무급가족종사자	28.80	51.75	17.40	2.04	
	실업자	24.27	51.89	22.34	1.50	
	비경제활동인구	32.82	50.11	15.15	1.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2.11	50.65	15.41	1.83	226,077 ***
	비정규직	27.77	45.75	23.69	2.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56	52.40	19.90	2.14	639,291 ***
	중도적	29.68	50.35	18.20	1.78	
	진보적	39.65	44.64	13.80	1.9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화를 잘 내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1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43〉 성격 5요인 척도: (9) 쉽게 짜증을 낸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9.88	52.05	16.38	1.69	
성별	남성	28.97	52.81	16.55	1.67	17,301 ***
	여성	30.81	51.27	16.21	1.70	
연령대	20대 이하	30.03	52.78	15.75	1.45	156,675 ***
	30대	29.89	52.67	14.93	2.51	
	40대	28.87	52.84	16.75	1.55	
	50대	29.60	51.64	16.41	2.35	
	60대	30.66	52.10	16.52	0.72	
	70대	31.29	48.22	19.64	0.85	
지역	수도권	26.62	53.58	18.10	1.69	241,095 ***
	비수도권	33.15	50.51	14.66	1.68	
	대도시	28.38	52.54	17.09	2.00	256,084 ***
	중소도시 농어촌	29.28 40.82	52.76 45.59	16.54 11.93	1.42 1.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63	55.01	21.10	2.27	735,560 ***
	중하층	23.98	57.18	17.23	1.61	
	중간층	33.54	49.34	15.51	1.62	
	중상층(상층)	42.76	42.26	13.03	1.9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81	51.15	19.76	2.28	354,966 ***
	200만 원대	30.11	52.89	15.39	1.61	
	300만 원대	34.46	50.58	13.56	1.40	
	400만 원대	30.16	55.05	14.40	0.39	
	500만 원 이상	25.96	51.69	19.97	2.38	
학력	중졸 이하	29.17	51.67	17.96	1.21	88,124 ***
	고졸	29.55	50.66	18.04	1.75	
	대졸 이상	30.29	53.20	14.76	1.7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97	53.93	15.53	1.58	154,42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42	48.12	18.45	3.01	
	고용주·자영자	30.24	50.24	17.56	1.96	
	무급가족종사자	37.31	45.93	15.52	1.24	
	실업자	26.52	52.62	19.28	1.58	
	비경제활동인구	30.72	52.03	16.09	1.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94	54.19	15.33	1.55	87,614 ***
	비정규직	30.21	48.54	18.44	2.8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94	52.19	20.41	1.46	349,851 ***
	중도적	29.22	53.05	15.62	2.11	
	진보적	34.25	50.57	13.89	1.3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쉽게 짜증을 낸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4〉 성격 5요인 척도: (10) 자주 우울해진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1.70	50.28	16.22	1.79	
성별	남성	32.24	51.36	14.52	1.88	91,343 ***
	여성	31.14	49.18	17.97	1.71	
연령대	20대 이하	34.86	47.47	16.11	1.57	298,123 ***
	30대	32.64	52.50	13.40	1.46	
	40대	32.39	50.93	14.62	2.06	
	50대	28.82	50.60	18.80	1.78	
	60대	31.26	51.06	15.01	2.67	
	70대	29.09	48.02	22.05	0.83	
지역	수도권	28.97	52.80	16.68	1.55	169,283 ***
	비수도권	34.45	47.75	15.77	2.04	
	대도시	28.69	56.20	13.34	1.77	564,842 ***
	중소도시 농어촌	33.16 38.54	46.31 43.14	18.96 15.20	1.58 3.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62	49.71	26.67	4.00	1,038,679 ***
	중하층	27.29	51.91	18.93	1.87	
	중간층	34.92	50.54	13.14	1.40	
	중상층(상층)	44.59	40.46	13.17	1.7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14	47.85	21.53	2.48	798,249 ***
	200만 원대	31.53	51.44	15.04	1.99	
	300만 원대	37.92	47.48	13.67	0.93	
	400만 원대	36.31	53.58	9.74	0.37	
	500만 원 이상	21.32	57.82	18.30	2.56	
학력	중졸 이하	27.25	50.55	20.13	2.08	354,454 ***
	고졸	28.71	50.64	18.62	2.03	
	대졸 이상	34.98	49.95	13.52	1.5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27	50.55	13.86	1.32	640,48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28	44.01	24.85	3.86	
	고용주·자영자	31.74	50.13	16.43	1.70	
	무급가족종사자	30.03	51.74	14.61	3.62	
	실업자	24.24	42.84	27.40	5.52	
	비경제활동인구	29.42	52.89	16.18	1.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85	51.34	13.47	1.34	435,122 ***
	비정규직	30.09	42.90	23.74	3.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32	52.60	20.55	2.53	784,465 ***
	중도적	30.63	52.00	15.68	1.70	
	진보적	39.66	45.89	13.17	1.2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자주 우울해진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1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45〉 성격 5요인 척도: (11) 마음이 자주 심란해진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3.89	53.02	20.67	2.42	
성별	남성	24.21	53.82	19.58	2.39	31,652 ****
	여성	23.56	52.20	21.80	2.44	
연령대	20대 이하	26.57	51.30	19.39	2.74	295,479 ****
	30대	24.18	58.05	15.59	2.18	
	40대	24.84	51.47	21.38	2.30	
	50대	21.05	52.96	22.89	3.11	
	60대	22.54	52.42	22.88	2.17	
	70대	24.58	51.02	23.17	1.23	
지역	수도권	23.03	54.21	20.53	2.23	30,373 ****
	비수도권	24.76	51.82	20.82	2.60	
	대도시	21.84	56.54	19.63	1.99	239,737 ****
	중소도시 농어촌	25.33 26.03	50.40 50.20	21.86 19.15	2.41 4.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15	45.23	37.87	2.75	1,479,870 ****
	중하층	18.46	57.02	21.29	3.23	
	중간층	26.97	52.84	18.32	1.87	
	중상층(상층)	40.52	42.49	15.11	1.8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9.24	51.33	25.87	3.56	999,186 ****
	200만 원대	21.49	54.74	21.09	2.68	
	300만 원대	33.00	50.32	15.44	1.25	
	400만 원대	29.37	51.54	18.31	0.77	
	500만 원 이상	19.68	60.43	17.59	2.30	
학력	중졸 이하	21.72	51.79	25.02	1.47	398,583 ****
	고졸	21.27	51.96	23.54	3.23	
	대졸 이상	26.38	54.10	17.51	2.0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90	53.09	18.96	2.05	354,73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94	49.61	28.35	4.10	
	고용주·자영자	23.55	54.21	20.28	1.96	
	무급가족종사자	27.60	47.77	22.66	1.97	
	실업자	19.12	52.37	24.42	4.08	
	비경제활동인구	23.02	53.86	20.46	2.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07	52.94	18.89	2.10	235,355 ****
	비정규직	19.11	50.82	26.59	3.4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63	53.35	25.04	2.99	458,462 ****
	중도적	24.03	53.01	20.80	2.15	
	진보적	28.32	52.74	16.67	2.2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마음이 자주 심란해진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6〉 성격 5요인 척도: (12) 기분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3.51	53.93	19.84	2.72	
성별	남성	23.10	56.48	17.74	2.68	147,402 ***
	여성	23.93	51.33	21.98	2.76	
연령대	20대 이하	24.03	53.85	19.00	3.12	274,433 ***
	30대	22.77	56.20	19.13	1.91	
	40대	22.49	56.23	17.93	3.34	
	50대	22.70	51.67	22.53	3.10	
	60대	21.63	54.78	21.27	2.31	
	70대	31.65	47.94	18.53	1.88	
지역	수도권	23.36	55.86	18.24	2.54	87,475 ***
	비수도권	23.65	52.00	21.44	2.90	
	대도시	23.86	54.08	19.73	2.33	115,043 ***
	중소도시	23.80	54.08	19.45	2.67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20.06	52.38	22.53	5.02	428,453 ***
	하층	16.59	52.00	26.81	4.60	
	중하층	20.49	55.40	21.05	3.07	
	중간층	26.18	52.97	18.63	2.2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27.21	55.83	14.44	2.51	799,751 ***
	200만 원 미만	21.77	50.37	25.10	2.76	
	200만 원대	20.53	55.59	20.74	3.13	
	300만 원대	28.20	56.39	13.51	1.90	
	400만 원대	29.96	51.62	17.82	0.60	
학력	500만 원 이상	23.55	54.06	16.75	5.64	622,561 ***
	중졸 이하	27.94	47.40	23.19	1.47	
	고졸	18.89	54.08	23.47	3.55	
	대졸 이상	26.03	55.29	16.31	2.3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12	55.73	17.87	2.28	442,72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97	50.42	24.95	5.66	
	고용주·자영자	21.10	55.13	21.35	2.43	
	무급가족종사자	24.92	53.24	20.86	0.98	
	실업자	18.13	47.57	32.05	2.25	
	비경제활동인구	26.30	51.69	19.35	2.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09	55.82	17.83	2.26	221,881 ***
	비정규직	20.15	51.26	23.58	5.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44	53.97	22.93	3.65	329,37 ***
	중도적	23.05	54.74	19.77	2.45	
	진보적	27.71	52.80	17.21	2.2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기분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1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47〉 성격 5요인 척도: (13)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7.95	45.80	40.42	5.83	
성별	남성	8.55	45.78	40.22	5.46	29,598 ***
	여성	7.34	45.82	40.62	6.22	
연령대	20대 이하	5.55	45.95	42.61	5.89	261,781 ***
	30대	8.73	41.15	44.00	6.12	
	40대	8.24	46.83	38.98	5.95	
	50대	8.00	45.12	40.55	6.32	
	60대	7.45	49.58	37.81	5.16	
	70대	11.59	47.85	35.75	4.81	
지역	수도권	7.79	43.50	41.79	6.92	152,161 ***
	비수도권	8.11	48.11	39.04	4.75	
	대도시	7.15	46.65	40.28	5.92	382,818 ***
	중소도시 농어촌	8.50 8.89	46.71 36.30	40.12 42.84	4.67 11.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50	50.41	33.49	5.60	253,162 ***
	중하층	6.91	49.04	39.12	4.93	
	중간층	8.37	43.03	41.94	6.66	
	중상층(상층)	7.25	44.35	43.81	4.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23	49.25	35.40	6.12	576,984 ***
	200만 원대	6.59	45.76	42.44	5.21	
	300만 원대	6.05	44.54	45.19	4.22	
	400만 원대	10.80	42.24	38.00	8.97	
	500만 원 이상	12.63	41.06	37.21	9.10	
학력	중졸 이하	11.05	46.40	36.88	5.66	166,564 ***
	고졸	6.94	48.37	38.81	5.87	
	대졸 이상	8.02	43.70	42.44	5.8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71	45.16	42.47	4.66	265,66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7	48.71	37.06	5.36	
	고용주·자영자	6.70	43.78	41.32	8.20	
	무급가족종사자	8.80	48.64	36.62	5.94	
	실업자	4.28	49.12	44.25	2.34	
	비경제활동인구	9.07	46.81	37.49	6.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84	45.20	42.16	4.80	15,582 ***
	비정규직	8.21	47.82	39.20	4.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6.85	50.85	38.21	4.10	668,170 ***
	중도적	9.73	44.73	41.31	4.23	
	진보적	6.49	42.82	41.15	9.55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8〉 성격 5요인 척도: (14)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46	24.75	60.16	12.63	
성별	남성	2.47	25.23	59.31	12.99	13,590 ***
	여성	2.45	24.25	61.04	12.26	
연령대	20대 이하	1.36	20.62	63.45	14.57	500,697 ***
	30대	2.11	21.14	61.97	14.78	
	40대	3.16	22.90	62.22	11.72	
	50대	3.26	27.01	57.67	12.07	
	60대	2.85	29.00	57.81	10.34	
	70대	1.23	32.73	54.55	11.48	
지역	수도권	2.29	24.14	59.12	14.44	126,284 ***
	비수도권	2.62	25.36	61.21	10.81	
	대도시	2.13	25.09	59.40	13.37	82,800 ***
	중소도시	2.94	24.70	60.71	11.65	
	농어촌	1.36	23.30	60.88	14.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8	32.31	57.22	8.69	397,078 ***
	중하층	2.63	25.83	60.45	11.09	
	중간층	2.39	23.51	60.98	13.12	
	중상층(상층)	2.88	19.59	55.91	21.6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73	29.98	57.78	9.51	372,174 ***
	200만 원대	1.91	23.31	61.40	13.39	
	300만 원대	2.44	21.71	60.86	14.98	
	400만 원대	3.28	21.86	62.34	12.52	
	500만 원 이상	3.39	25.39	57.80	13.42	
학력	중졸 이하	2.80	33.01	56.14	8.05	609,381 ***
	고졸	2.67	28.01	58.41	10.92	
	대졸 이상	2.22	20.40	62.41	14.9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7	23.02	60.08	14.34	216,51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8	29.86	57.64	10.32	
	고용주·자영자	2.34	25.08	59.08	13.49	
	무급가족종사자	2.74	26.49	58.24	12.54	
	실업자	0.94	26.03	65.09	7.94	
	비경제활동인구	2.53	25.27	62.04	10.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7	22.45	59.96	14.91	206,545 ***
	비정규직	1.92	30.20	58.54	9.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9	31.28	56.19	10.64	687,141 ***
	중도적	2.83	24.50	61.94	10.73	
	진보적	2.44	19.34	61.24	16.9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49〉 성격 5요인 척도: (15)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19	23.12	60.09	14.60	
성별	남성	2.11	22.89	60.32	14.68	2,756 ***
	여성	2.27	23.36	59.85	14.52	
연령대	20대 이하	0.62	19.10	63.45	16.83	447,174 ***
	30대	2.05	20.53	64.08	13.34	
	40대	2.08	24.66	59.80	13.46	
	50대	2.43	25.02	58.32	14.23	
	60대	2.93	26.43	57.45	13.19	
	70대	4.21	23.23	54.01	18.55	
지역	수도권	2.17	20.21	59.27	18.35	556,032 ***
	비수도권	2.20	26.05	60.91	10.84	
	대도시	2.08	22.38	61.79	13.75	103,650 ***
	중소도시 농어촌	2.28 2.22	23.49 24.75	59.68 53.82	14.55 19.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8	33.14	53.24	11.54	524,911 ***
	중하층	2.35	24.20	61.00	12.44	
	중간층	1.99	21.29	61.47	15.26	
	중상층(상층)	2.99	19.62	52.82	24.5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7	26.22	57.10	13.41	483,522 ***
	200만 원대	1.29	23.49	61.81	13.41	
	300만 원대	1.55	18.39	63.40	16.67	
	400만 원대	2.22	22.34	58.68	16.76	
	500만 원 이상	4.79	24.85	53.86	16.50	
학력	중졸 이하	3.03	26.55	53.91	16.52	627,389 ***
	고졸	2.51	27.96	57.80	11.73	
	대졸 이상	1.75	18.67	63.22	16.3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6	21.27	61.47	15.30	207,06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2	26.87	59.85	11.26	
	고용주·자영자	1.88	25.25	58.29	14.58	
	무급가족종사자	2.34	30.46	54.51	12.69	
	실업자	0.94	23.23	67.81	8.02	
	비경제활동인구	2.96	22.82	58.94	15.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0	20.60	62.41	15.19	145,902 ***
	비정규직	2.51	27.81	57.23	12.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6	28.40	55.62	13.12	529,040 ***
	중도적	2.20	22.66	62.52	12.62	
	진보적	1.57	19.13	60.68	18.6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 에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0〉 성격 5요인 척도: (16)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31	25.82	59.77	12.10	
성별	남성	2.15	27.00	58.88	11.97	33,311 ***
	여성	2.47	24.62	60.67	12.23	
연령대	20대 이하	1.86	25.41	61.24	11.49	235,857 ***
	30대	2.29	20.49	63.61	13.61	
	40대	1.96	27.17	58.32	12.55	
	50대	2.80	25.48	59.56	12.16	
	60대	2.54	30.61	55.63	11.21	
	70대	2.53	27.23	59.67	10.56	
지역	수도권	2.12	23.81	59.39	14.68	300,411 ***
	비수도권	2.50	27.84	60.15	9.51	
	대도시	1.80	26.20	59.23	12.76	23,549 ***
	중소도시	2.72	26.34	59.92	11.01	
	농어촌	2.50	20.98	61.55	14.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9	33.19	58.21	6.71	513,234 ***
	중하층	2.11	29.28	57.82	10.78	
	중간층	2.40	22.92	61.84	12.84	
	중상층(상층)	3.11	21.08	56.06	19.7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9	30.45	56.74	9.92	411,469 ***
	200만 원대	1.83	26.17	60.70	11.30	
	300만 원대	1.85	23.79	60.71	13.65	
	400만 원대	3.51	20.29	60.42	15.78	
	500만 원 이상	2.54	19.50	62.64	15.32	
학력	중졸 이하	2.66	29.46	56.85	11.03	480,505 ***
	고졸	2.38	30.42	57.23	9.96	
	대졸 이상	2.17	21.50	62.36	13.9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2	25.53	59.99	12.36	275,84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9	29.57	59.16	8.87	
	고용주·자영자	1.99	27.70	55.91	14.41	
	무급가족종사자	5.98	27.83	49.99	16.21	
	실업자	2.26	15.03	67.80	14.91	
	비경제활동인구	2.60	23.88	62.68	10.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1	25.24	59.94	13.01	176,900 ***
	비정규직	3.30	29.63	59.50	7.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6	30.18	57.70	9.46	311,791 ***
	중도적	2.59	25.74	58.74	12.93	
	진보적	1.62	22.11	62.99	13.2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2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51〉 성격 5요인 척도: (17)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71	31.32	55.79	10.19	
성별	남성	2.57	30.41	56.10	10.92	36,336 ***
	여성	2.84	32.24	55.47	9.45	
연령대	20대 이하	1.50	28.94	59.95	9.61	505,618 ***
	30대	2.09	31.07	53.26	13.58	
	40대	2.17	33.61	52.27	11.95	
	50대	4.20	30.39	56.24	9.16	
	60대	3.15	34.86	53.62	8.38	
	70대	3.44	27.63	63.14	5.79	
지역	수도권	2.47	25.95	58.37	13.20	809,370 ***
	비수도권	2.94	36.70	53.19	7.17	
	대도시	2.49	30.50	56.88	10.13	93,657 ***
	중소도시 농어촌	2.80 3.25	32.18 30.55	55.49 52.01	9.54 14.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7	34.19	56.62	4.92	468,688 ***
	중하층	3.15	35.34	53.37	8.14	
	중간층	2.26	28.50	57.13	12.12	
	중상층(상층)	1.93	28.24	57.32	12.5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5	34.22	54.60	7.12	902,491 ***
	200만 원대	1.76	34.30	55.48	8.45	
	300만 원대	2.41	26.96	59.00	11.64	
	400만 원대	4.04	25.08	52.31	18.58	
	500만 원 이상	1.80	25.45	56.52	16.24	
학력	중졸 이하	5.29	30.45	55.80	8.46	541,752 ***
	고졸	2.80	34.67	55.31	7.21	
	대졸 이상	2.05	28.95	56.15	12.8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4	30.06	56.26	11.14	322,24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6	39.20	51.51	6.43	
	고용주·자영자	2.18	31.45	55.14	11.22	
	무급가족종사자	2.18	39.01	51.29	7.52	
	실업자	6.70	19.39	59.10	14.81	
	비경제활동인구	3.14	30.30	57.34	9.2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3	29.50	56.59	11.27	211,406 ***
	비정규직	2.49	39.04	51.48	6.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2	34.71	56.22	6.45	358,204 ***
	중도적	3.35	31.06	54.48	11.11	
	진보적	1.89	28.69	57.20	12.2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2〉 성격 5요인 척도: (18)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15	34.92	54.33	7.60	
성별	남성	3.12	36.44	53.17	7.27	44.179 ***
	여성	3.18	33.38	55.51	7.93	
연령대	20대 이하	2.49	33.79	57.95	5.77	421.586 ***
	30대	2.83	30.27	59.48	7.42	
	40대	2.89	33.28	54.75	9.07	
	50대	3.36	35.79	51.57	9.28	
	60대	3.42	41.87	47.86	6.85	
	70대	4.88	36.83	52.71	5.59	
지역	수도권	2.25	29.89	58.24	9.62	748.066 ***
	비수도권	4.06	39.97	50.40	5.57	
	대도시	3.07	34.90	54.30	7.73	113.388 ***
	중소도시	3.15	35.21	54.90	6.75	
	농어촌	3.57	33.42	51.24	11.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52	39.78	49.69	5.02	496.533 ***
	중하층	4.16	38.01	51.97	5.86	
	중간층	2.18	31.86	56.79	9.17	
	중상층(상층)	2.44	36.29	53.45	7.8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52	38.19	50.67	6.62	527.854 ***
	200만 원대	2.57	35.47	55.42	6.53	
	300만 원대	2.66	34.98	55.08	7.28	
	400만 원대	2.49	27.70	55.45	14.36	
	500만 원 이상	3.31	28.37	58.81	9.51	
학력	중졸 이하	3.52	39.83	51.02	5.63	268.286 ***
	고졸	3.65	37.72	51.20	7.43	
	대졸 이상	2.68	31.69	57.46	8.1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4	34.58	55.29	7.79	314.86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63	37.65	49.33	6.39	
	고용주·자영자	3.18	36.40	52.42	8.00	
	무급가족종사자	3.31	40.71	48.04	7.95	
	실업자	1.36	42.24	50.83	5.57	
	비경제활동인구	3.21	32.48	56.75	7.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7	34.23	55.81	7.59	192.142 ***
	비정규직	5.63	38.10	48.95	7.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3	39.14	52.28	5.66	190.681 ***
	중도적	3.46	33.63	55.09	7.82	
	진보적	2.91	32.99	55.10	9.0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2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53〉 성격 5요인 척도: (19) 어질러지면 즉각 청소를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00	36.73	46.16	13.11	
성별	남성	4.94	41.29	42.41	11.36	560,679 ****
	여성	3.04	32.07	50.00	14.89	
연령대	20대 이하	6.47	42.97	41.28	9.27	563,433 ****
	30대	2.61	37.24	48.59	11.56	
	40대	3.34	36.20	47.35	13.12	
	50대	3.33	34.54	46.52	15.62	
	60대	3.82	36.21	46.17	13.79	
	70대	5.15	29.69	47.89	17.27	
지역	수도권	3.73	35.87	45.52	14.87	118,153 ****
	비수도권	4.27	37.59	46.80	11.34	
	대도시	3.22	36.38	46.86	13.54	126,173 ****
	중소도시 농어촌	4.80 3.41	37.33 35.11	45.79 44.74	12.08 16.7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2	38.12	47.14	11.02	469,171 ****
	중하층	3.76	41.79	43.64	10.81	
	중간층	3.94	32.35	48.59	15.12	
	중상층(상층)	6.07	41.79	39.81	12.3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69	38.06	46.33	11.91	552,039 ****
	200만 원대	4.00	39.21	44.94	11.85	
	300만 원대	3.86	39.03	44.91	12.20	
	400만 원대	5.38	26.30	49.33	19.00	
	500만 원 이상	3.90	24.40	51.91	19.79	
학력	중졸 이하	4.71	34.68	46.63	13.98	41,013 ****
	고졸	4.28	37.93	45.21	12.58	
	대졸 이상	3.63	36.28	46.78	13.3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6	39.76	45.91	11.07	550,55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51	35.39	47.41	11.69	
	고용주·자영자	3.39	37.60	44.17	14.85	
	무급가족종사자	6.00	38.31	39.67	16.02	
	실업자	13.28	41.31	30.89	14.51	
	비경제활동인구	4.48	30.79	48.88	15.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48	39.60	45.58	11.33	23,761 ****
	비정규직	4.34	36.81	48.14	10.72	
이념적 성향	보수적	3.99	38.87	45.89	11.25	78,499 ****
	중도적	4.03	35.13	47.29	13.55	
	진보적	3.98	37.04	44.86	14.1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어질러지면 즉각 청소를 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4〉 성격 5요인 척도: (20)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60	32.18	54.87	10.35	
성별	남성	2.15	31.85	54.92	11.08	55.786 ***
	여성	3.05	32.51	54.83	9.61	
연령대	20대 이하	1.48	31.68	55.53	11.30	416.876 ***
	30대	1.66	28.89	56.95	12.50	
	40대	2.61	32.16	54.89	10.34	
	50대	3.51	31.07	54.22	11.19	
	60대	2.90	35.48	56.11	5.50	
	70대	4.15	37.16	48.47	10.22	
지역	수도권	2.19	29.75	54.88	13.18	423.496 ***
	비수도권	3.00	34.61	54.87	7.52	
	대도시	1.95	28.78	58.26	11.01	349.833 ***
	중소도시	3.37	35.53	51.72	9.38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40	30.20	55.78	12.62	520.778 ***
	하층	2.73	44.34	43.00	9.92	
	중하층	2.72	35.07	53.42	8.78	
	중간층	2.24	28.39	58.10	11.2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4.43	31.49	51.90	12.17	1,155.677 ***
	200만 원 미만	4.53	38.64	48.74	8.08	
	200만 원대	2.30	32.53	57.30	7.88	
	300만 원대	1.61	27.71	58.88	11.80	
	400만 원대	1.58	26.78	53.98	17.66	
학력	500만 원 이상	1.07	26.04	54.18	18.72	1,026.426 ***
	중졸 이하	6.52	41.49	43.85	8.14	
	고졸	2.52	35.75	53.63	8.10	
	대졸 이상	1.77	27.35	58.30	12.5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4	30.26	57.62	10.19	483.55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48	39.86	45.72	10.94	
	고용주·자영자	1.82	30.01	57.07	11.10	
	무급가족종사자	8.47	36.70	44.80	10.03	
	실업자	3.54	43.75	49.29	3.43	
	비경제활동인구	3.52	33.00	53.19	10.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3	29.90	57.55	10.61	200.069 ***
	비정규직	3.16	38.95	48.45	9.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2	35.92	52.98	8.37	157.877 ***
	중도적	2.88	30.75	55.62	10.75	
	진보적	2.10	30.83	55.51	11.55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5〉 성격 5요인 척도: (21)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9.18	38.42	44.18	8.21	
성별	남성	9.00	35.65	46.56	8.80	158,699 ****
	여성	9.37	41.27	41.75	7.61	
연령대	20대 이하	10.26	38.02	44.95	6.76	284,089 ****
	30대	7.12	38.17	45.78	8.93	
	40대	9.48	35.37	45.95	9.20	
	50대	8.17	37.15	45.30	9.39	
	60대	9.83	43.30	40.34	6.52	
	70대	11.86	41.77	38.86	7.51	
지역	수도권	10.31	34.45	45.84	9.41	326,325 ****
	비수도권	8.06	42.42	42.52	7.01	
	대도시	11.24	35.56	44.12	9.09	429,289 ****
	중소도시 농어촌	7.49 8.47	41.49 35.42	44.45 42.99	6.57 13.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58	46.89	37.64	4.89	544,760 ****
	중하층	8.99	42.91	41.46	6.64	
	중간층	8.86	34.01	47.71	9.42	
	중상층(상층)	11.02	38.45	39.37	11.1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03	43.31	39.86	6.80	689,089 ****
	200만 원대	9.57	40.61	43.65	6.17	
	300만 원대	9.49	33.05	46.56	10.89	
	400만 원대	6.25	33.92	49.42	10.41	
	500만 원 이상	6.62	30.12	49.70	13.55	
학력	중졸 이하	10.21	41.93	41.85	6.01	320,553 ****
	고졸	10.47	41.15	41.14	7.23	
	대졸 이상	7.97	35.56	47.02	9.4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00	36.47	47.09	8.44	432,42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29	40.75	40.92	7.04	
	고용주·자영자	7.91	36.67	44.65	10.78	
	무급가족종사자	7.51	46.23	35.59	10.68	
	실업자	5.65	51.19	38.18	4.98	
	비경제활동인구	11.70	40.99	40.90	6.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89	36.21	47.14	8.77	120,008 ****
	비정규직	10.95	40.65	42.09	6.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8.33	44.29	41.68	5.70	420,743 ****
	중도적	8.16	35.50	46.47	9.87	
	진보적	11.34	37.26	43.26	8.15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6〉 성격 5요인 척도: (22)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47	33.26	55.74	8.53	
성별	남성	2.34	34.55	54.71	8.40	33,024 ***
	여성	2.61	31.94	56.79	8.66	
연령대	20대 이하	1.20	32.57	58.34	7.89	481,775 ***
	30대	1.77	28.68	59.63	9.91	
	40대	2.19	33.20	54.78	9.83	
	50대	3.17	31.61	57.07	8.15	
	60대	3.57	37.70	52.85	5.88	
	70대	3.73	40.92	45.91	9.44	
지역	수도권	2.02	31.12	57.26	9.60	164,788 ***
	비수도권	2.92	35.41	54.21	7.45	
	대도시	2.01	30.86	57.43	9.70	208,014 ***
	중소도시	3.06	34.64	54.95	7.35	
	농어촌	1.40	37.55	51.71	9.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2	39.70	49.62	6.56	572,342 ***
	중하층	2.31	37.20	55.12	5.38	
	중간층	2.29	30.11	56.84	10.75	
	중상층(상층)	2.72	29.01	57.81	10.4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78	40.25	48.40	7.56	1,184,781 ***
	200만 원대	2.31	35.12	55.99	6.59	
	300만 원대	2.17	30.51	58.45	8.88	
	400만 원대	0.74	19.23	66.66	13.38	
	500만 원 이상	1.44	22.73	60.42	15.41	
학력	중졸 이하	5.42	42.14	44.70	7.74	981,575 ***
	고졸	3.04	36.97	53.79	6.19	
	대졸 이상	1.37	28.44	59.71	10.4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1	33.38	55.69	9.23	286,35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01	32.10	56.57	7.32	
	고용주·자영자	2.14	34.73	54.82	8.31	
	무급가족종사자	5.23	41.70	49.87	3.20	
	실업자	5.62	41.14	52.76	0.48	
	비경제활동인구	3.07	31.42	56.74	8.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0	32.42	56.27	9.61	124,011 ***
	비정규직	3.55	35.41	54.54	6.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4	36.58	52.59	7.90	120,008 ***
	중도적	2.61	31.48	57.23	8.69	
	진보적	1.87	32.79	56.48	8.8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7〉 성격 5요인 척도: (23) 항상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58	32.16	55.02	9.24	
성별	남성	2.81	31.68	55.90	9.61	84,819 ****
	여성	4.36	32.65	54.12	8.87	
연령대	20대 이하	2.82	33.21	54.82	9.15	1,048,804 ****
	30대	2.22	29.36	57.42	11.01	
	40대	2.27	31.34	56.00	10.39	
	50대	2.91	32.68	55.48	8.94	
	60대	3.76	34.68	53.47	8.09	
	70대	12.60	32.02	49.64	5.75	
지역	수도권	3.30	28.92	57.28	10.50	254,008 ****
	비수도권	3.86	35.40	52.76	7.98	
	대도시	2.72	29.94	56.76	10.58	290,469 ****
	중소도시 농어촌	4.47 2.79	33.65 34.83	54.32 50.25	7.55 12.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4	39.92	50.40	5.44	394,649 ****
	중하층	3.98	33.60	55.56	6.85	
	중간층	3.32	30.48	55.27	10.92	
	중상층(상층)	2.63	28.16	55.73	13.4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80	40.01	47.73	6.47	1,808,862 ****
	200만 원대	2.58	33.71	55.67	8.03	
	300만 원대	2.96	27.85	61.89	7.30	
	400만 원대	3.72	20.11	55.96	20.20	
	500만 원 이상	2.12	22.15	57.23	18.50	
학력	중졸 이하	9.12	35.93	47.88	7.07	1,053,625 ****
	고졸	3.78	36.64	52.31	7.27	
	대졸 이상	2.18	27.89	58.70	11.2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7	30.53	56.32	9.88	468,49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7	38.84	52.56	5.44	
	고용주·자영자	1.95	30.33	56.92	10.80	
	무급가족종사자	5.87	44.80	40.05	9.29	
	실업자	3.43	42.49	42.15	11.93	
	비경제활동인구	5.36	32.12	54.12	8.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4	29.13	57.53	10.30	380,694 ****
	비정규직	3.94	41.50	49.53	5.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5.35	36.66	52.01	5.98	502,561 ****
	중도적	2.23	31.27	56.39	10.10	
	진보적	3.87	29.40	55.80	10.9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항상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58〉 성격 5요인 척도: (24)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45	28.02	55.27	13.25	
성별	남성	4.07	30.09	53.12	12.72	156,313 ***
	여성	2.82	25.91	57.48	13.80	
연령대	20대 이하	4.12	29.00	55.16	11.71	186,463 ***
	30대	2.57	25.45	56.91	15.07	
	40대	3.12	28.86	53.95	14.07	
	50대	3.24	28.14	55.08	13.53	
	60대	3.95	30.26	52.38	13.40	
	70대	4.30	25.09	60.74	9.87	
지역	수도권	3.18	26.88	54.61	15.33	166,382 ***
	비수도권	3.72	29.18	55.93	11.17	
	대도시	2.37	29.74	52.99	14.90	260,162 ***
	중소도시	4.45	26.99	56.91	11.65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3.22	25.27	57.44	14.06	240,473 ***
	하층	3.67	28.58	56.10	11.65	
	중하층	3.13	31.42	52.65	12.80	
	중간층	3.52	24.92	57.50	14.0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4.36	33.11	51.14	11.39	431,804 ***
	200만 원 미만	4.40	29.05	56.27	10.29	
	200만 원대	3.09	30.59	53.90	12.41	
	300만 원대	3.12	25.81	55.97	15.11	
	400만 원대	4.39	20.95	58.39	16.27	
학력	500만 원 이상	1.56	26.09	52.70	19.64	349,080 ***
	중졸 이하	5.27	30.99	55.56	8.19	
	고졸	3.31	30.51	54.38	11.80	
	대졸 이상	3.15	25.46	55.89	15.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5	29.46	53.98	13.50	345,36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79	29.44	53.87	12.90	
	고용주·자영자	2.91	28.19	54.06	14.83	
	무급가족종사자	7.38	33.93	46.36	12.33	
	실업자	10.46	12.98	70.00	6.55	
	비경제활동인구	3.75	25.15	58.87	12.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0	29.46	54.11	13.34	2,282 ***
	비정규직	3.48	29.46	53.50	13.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5	33.01	53.70	9.94	299,048 ***
	중도적	3.71	26.31	56.31	13.67	
	진보적	3.19	25.98	55.24	15.5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3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59〉 성격 5요인 척도: (25)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75	41.50	45.69	8.06	
성별	남성	4.54	38.76	48.70	8.00	164,881 ****
	여성	4.97	44.30	42.61	8.12	
연령대	20대 이하	2.64	36.25	50.46	10.66	1,152.35 ****4
	30대	3.47	35.51	52.56	8.47	
	40대	3.88	40.29	47.50	8.33	
	50대	5.42	41.68	44.22	8.68	
	60대	7.12	48.97	38.96	4.95	
	70대	8.37	54.95	31.87	4.81	
지역	수도권	4.12	37.58	47.66	10.63	563,285 ****
	비수도권	5.38	45.43	43.70	5.48	
	대도시	5.64	41.35	44.63	8.38	201,310 ****
	중소도시 농어촌	4.01 4.55	40.94 45.39	47.86 38.65	7.19 11.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88	58.33	28.61	2.18	1,624,577 ****
	중하층	5.85	46.25	42.43	5.47	
	중간층	3.29	36.42	49.89	10.39	
	중상층(상층)	2.92	35.34	50.91	10.8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32	50.04	37.57	6.07	1,175,628 ****
	200만 원대	4.22	43.33	46.14	6.32	
	300만 원대	4.75	35.45	49.87	9.92	
	400만 원대	3.14	29.63	55.04	12.19	
	500만 원 이상	3.65	32.53	49.72	14.10	
학력	중졸 이하	8.97	55.61	32.03	3.39	1,793,721 ****
	고졸	5.09	47.81	41.13	5.97	
	대졸 이상	3.55	33.51	52.24	10.7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2	37.85	49.65	9.08	816,13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7	49.30	37.03	4.80	
	고용주·자영자	6.13	41.28	44.31	8.28	
	무급가족종사자	6.64	58.24	31.01	4.12	
	실업자	2.96	42.55	35.84	18.65	
	비경제활동인구	4.39	43.74	44.78	7.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43	37.07	50.20	9.30	543,814 ****
	비정규직	7.68	49.34	37.96	5.02	
이념적 성향	보수적	6.10	50.94	38.31	4.65	813,097 ****
	중도적	4.65	37.92	48.43	9.00	
	진보적	3.71	38.10	48.42	9.7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0〉 성격 5요인 척도: (26) 상상력이 풍부하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6.68	40.64	44.34	8.34	
성별	남성	6.32	39.32	44.97	9.39	85,991 ***
	여성	7.05	41.98	43.70	7.27	
연령대	20대 이하	4.63	31.85	52.43	11.09	1,774,656 ***
	30대	5.01	37.72	49.56	7.71	
	40대	4.19	38.76	48.18	8.87	
	50대	6.34	43.14	40.76	9.75	
	60대	9.87	50.95	32.86	6.32	
	70대	15.87	46.21	35.45	2.47	
지역	수도권	6.54	37.51	44.99	10.97	447,923 ***
	비수도권	6.82	43.77	43.69	5.71	
	대도시	5.93	41.75	43.64	8.68	121,606 ***
	중소도시	7.30	39.39	45.77	7.54	
	농어촌	6.97	42.14	39.73	11.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70	46.05	35.46	4.80	1,030,792 ***
	중하층	8.51	44.02	41.35	6.11	
	중간층	4.98	37.92	47.38	9.71	
	중상층(상층)	1.70	37.12	47.38	13.8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44	49.55	33.36	5.65	1,878,186 ***
	200만 원대	5.47	40.46	47.31	6.75	
	300만 원대	4.56	38.06	47.48	9.90	
	400만 원대	3.55	32.64	50.48	13.33	
	500만 원 이상	5.35	25.35	53.16	16.14	
학력	중졸 이하	14.89	50.86	30.71	3.54	1,841,983 ***
	고졸	7.55	45.66	39.72	7.07	
	대졸 이상	4.17	34.50	50.93	10.3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3	37.75	49.55	8.16	870,11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50	50.66	31.63	6.21	
	고용주·자영자	7.21	39.62	43.19	9.98	
	무급가족종사자	7.42	49.13	34.77	8.69	
	실업자	4.28	31.16	54.78	9.78	
	비경제활동인구	8.24	42.32	41.18	8.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56	37.51	49.65	8.27	541,657 ***
	비정규직	9.94	48.68	35.12	6.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17	48.15	35.98	6.71	706,027 ***
	중도적	5.69	39.65	46.16	8.50	
	진보적	5.84	35.38	49.21	9.5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상상력이 풍부하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3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61〉 성격 5요인 척도: (27)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6.70	40.96	45.36	6.98	
성별	남성	5.27	38.63	49.09	7.02	314,952 ***
	여성	8.16	43.35	41.55	6.94	
연령대	20대 이하	2.80	35.15	55.81	6.25	2,118,581 ***
	30대	5.08	37.04	48.72	9.16	
	40대	5.48	38.65	46.96	8.91	
	50대	5.81	44.54	42.97	6.68	
	60대	8.60	49.35	37.85	4.19	
	70대	20.37	43.96	30.71	4.96	
지역	수도권	5.80	36.27	49.16	8.78	599,120 ***
	비수도권	7.60	45.68	41.55	5.17	
	대도시	5.11	40.90	45.91	8.08	339,371 ***
	중소도시 농어촌	7.79 8.44	40.39 44.54	46.36 36.93	5.46 10.0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82	56.05	27.37	4.76	1,529,063 ***
	중하층	8.86	45.85	40.69	4.60	
	중간층	5.02	35.85	50.66	8.47	
	중상층(상층)	2.04	36.43	50.76	10.7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52	48.34	34.35	4.79	2,409,556 ***
	200만 원대	4.32	45.11	44.33	6.24	
	300만 원대	5.41	35.79	52.00	6.81	
	400만 원대	4.71	26.83	57.38	11.08	
	500만 원 이상	3.55	24.16	57.59	14.69	
학력	중졸 이하	20.16	48.21	27.26	4.37	2,522,723 ***
	고졸	6.55	45.58	41.74	6.13	
	대졸 이상	3.77	35.81	52.20	8.2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02	38.12	50.68	7.18	1,151,74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45	51.18	35.37	2.99	
	고용주·자영자	6.19	41.47	44.06	8.28	
	무급가족종사자	9.65	57.29	24.11	8.95	
	실업자	6.64	54.91	36.43	2.01	
	비경제활동인구	10.13	39.46	42.91	7.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01	38.09	50.55	7.36	536,664 ***
	비정규직	9.13	48.52	39.04	3.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8.39	49.36	37.11	5.14	638,954 ***
	중도적	5.91	37.96	48.27	7.85	
	진보적	6.27	37.69	48.63	7.4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2〉 성격 5요인 척도: (28)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5.18	40.91	46.41	7.50	
성별	남성	4.58	39.71	47.51	8.20	82.043 ***
	여성	5.79	42.13	45.28	6.80	
연령대	20대 이하	3.03	44.41	46.30	6.26	902.386 ***
	30대	2.52	35.20	52.03	10.26	
	40대	5.32	38.99	45.50	10.19	
	50대	5.58	39.38	49.01	6.03	
	60대	8.50	45.25	40.46	5.79	
	70대	8.34	46.10	40.96	4.60	
지역	수도권	4.63	37.88	47.48	10.01	475.501 ***
	비수도권	5.73	43.95	45.33	4.99	
	대도시	5.50	39.61	47.53	7.36	65.972 ***
	중소도시	4.59	41.77	45.97	7.67	
	농어촌	6.93	42.50	43.25	7.3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25	42.30	44.15	7.30	400.617 ***
	중하층	5.80	46.05	42.15	6.00	
	중간층	4.76	37.59	49.55	8.10	
	중상층(상층)	3.81	37.50	47.56	11.1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97	44.27	42.77	5.99	998.001 ***
	200만 원대	5.05	43.44	45.70	5.81	
	300만 원대	5.21	40.43	46.49	7.87	
	400만 원대	2.69	30.58	55.46	11.27	
	500만 원 이상	2.07	28.94	52.48	16.51	
학력	중졸 이하	11.52	47.11	36.35	5.02	913.125 ***
	고졸	4.99	42.81	46.80	5.40	
	대졸 이상	3.90	38.06	48.37	9.6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12	39.93	47.16	8.79	293.75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2	45.53	43.80	4.55	
	고용주·자영자	5.95	39.75	46.99	7.31	
	무급가족종사자	12.53	43.91	37.95	5.61	
	실업자	4.06	42.25	44.90	8.78	
	비경제활동인구	5.69	41.29	46.40	6.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31	39.94	46.61	9.13	140.597 ***
	비정규직	5.08	44.31	46.23	4.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5.55	44.46	44.61	5.38	354.296 ***
	중도적	4.34	36.92	49.92	8.83	
	진보적	6.01	43.24	43.19	7.5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3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63〉 성격 5요인 척도: (29)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7.67	51.26	36.35	4.71	
성별	남성	7.33	50.19	37.47	5.00	37,746 ***
	여성	8.02	52.35	35.21	4.42	
연령대	20대 이하	5.15	50.52	40.24	4.09	1,342,926 ***
	30대	4.98	46.40	41.57	7.05	
	40대	6.48	49.78	38.03	5.72	
	50대	7.02	51.38	36.00	5.60	
	60대	12.12	54.31	30.93	2.64	
	70대	15.56	61.05	23.22	0.17	
지역	수도권	5.79	45.53	41.63	7.05	1,257,086 ***
	비수도권	9.56	57.01	31.06	2.37	
	대도시	7.56	49.69	37.48	5.26	92,632 ***
	중소도시	7.77	51.55	36.32	4.35	
	농어촌	7.66	57.49	30.82	4.0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42	61.17	23.58	2.83	1,305,071 ***
	중하층	10.15	56.42	30.73	2.69	
	중간층	5.64	46.67	41.37	6.32	
	중상층(상층)	4.48	47.42	42.77	5.3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97	58.79	27.43	1.81	2,361,694 ***
	200만 원대	6.11	53.79	36.49	3.61	
	300만 원대	6.72	49.32	39.38	4.58	
	400만 원대	5.94	35.95	45.54	12.57	
	500만 원 이상	4.68	34.12	48.93	12.26	
학력	중졸 이하	17.99	55.10	25.54	1.37	1,670,355 ***
	고졸	7.91	56.06	32.67	3.36	
	대졸 이상	5.17	46.74	41.59	6.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40	49.55	38.51	5.53	315,60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94	52.31	34.65	3.10	
	고용주·자영자	9.49	50.76	34.66	5.09	
	무급가족종사자	6.20	64.53	28.52	0.75	
	실업자	6.07	61.30	32.63		
	비경제활동인구	7.88	52.77	35.16	4.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28	48.93	39.09	5.70	170,097 ***
	비정규직	9.58	53.70	33.63	3.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8.30	59.32	30.34	2.04	679,699 ***
	중도적	7.51	46.01	40.68	5.81	
	진보적	7.35	51.36	35.72	5.5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4〉 성격 5요인 척도: (30) 이해가 빠른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80	26.72	62.78	8.70	
성별	남성	1.39	25.15	63.46	10.00	165,372 ***
	여성	2.22	28.33	62.08	7.36	
연령대	20대 이하	0.43	17.57	69.51	12.50	2,739,770 ***
	30대	0.49	19.85	68.11	11.56	
	40대	1.29	23.81	65.78	9.12	
	50대	1.97	27.08	63.56	7.39	
	60대	2.65	38.51	54.47	4.37	
	70대	6.89	46.66	42.28	4.17	
지역	수도권	1.38	24.04	64.58	10.01	257,213 ***
	비수도권	2.23	29.42	60.97	7.38	
	대도시	1.09	25.32	65.11	8.48	198,033 ***
	중소도시	2.59	27.31	61.21	8.90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92	30.48	59.97	8.64	893,622 ***
	하층	4.01	36.96	56.18	2.84	
	중하층	1.49	31.29	59.71	7.51	
	중간층	1.82	22.33	66.25	9.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0.69	24.09	60.29	14.93	1,958,236 ***
	200만 원 미만	4.26	36.59	54.82	4.33	
	200만 원대	0.83	26.66	64.07	8.44	
	300만 원대	0.76	20.34	68.28	10.62	
	400만 원대	1.80	16.08	70.32	11.80	
학력	500만 원 이상	0.75	22.31	59.91	17.04	3,585,028 ***
	중졸 이하	7.03	49.43	40.14	3.40	
	고졸	1.48	32.04	60.14	6.34	
	대졸 이상	0.87	17.56	69.89	11.6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3	20.98	67.83	9.96	1,027,17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9	37.46	56.18	4.17	
	고용주·자영자	1.18	28.92	61.74	8.15	
	무급가족종사자	4.76	35.87	53.91	5.45	
	실업자	6.29	30.23	47.90	15.58	
	비경제활동인구	2.66	30.15	58.64	8.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1	20.19	68.26	10.24	683,629 ***
	비정규직	1.72	36.44	57.31	4.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4	39.27	51.53	5.47	1,991,527 ***
	중도적	1.25	23.70	67.33	7.72	
	진보적	0.85	19.83	66.44	12.8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이해가 빠른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3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65〉 지각된 스트레스: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3.44	34.10	51.38	10.77	0.31	
성별	남성	3.30	31.92	52.93	11.61	0.24	15.373 ***
	여성	3.58	36.34	49.80	9.90	0.38	
연령대	20대 이하	4.40	33.19	51.08	11.34		748,799 ***
	30대	4.36	34.62	49.49	10.84	0.69	
	40대	2.08	33.76	52.61	11.37	0.19	
	50대	1.48	30.49	56.00	11.41	0.61	
	60대	3.68	33.94	52.03	10.23	0.12	
	70대	7.11	45.05	40.53	7.26	0.05	
지역	수도권	4.69	37.16	48.71	9.25	0.18	471,534 ***
	비수도권	2.18	31.04	54.06	12.29	0.44	
	대도시	2.68	31.37	52.67	13.02	0.26	545,505 ***
	중소도시	4.03	37.65	50.06	8.01	0.26	
	농어촌	3.90	27.70	52.43	15.11	0.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51	37.96	47.34	6.81	0.39	661,609 ***
	중하층	4.45	34.99	49.58	10.82	0.16	
	중간층	2.17	31.59	54.13	11.80	0.31	
	중상층(상층)	3.00	44.02	44.69	7.29	1.0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77	34.14	48.52	11.90	0.67	653,205 ***
	200만 원대	2.42	33.36	51.00	13.11	0.12	
	300만 원대	4.13	36.76	50.59	8.27	0.26	
	400만 원대	2.54	37.46	52.83	6.89	0.28	
	500만 원 이상	2.83	25.53	65.08	6.43	0.13	
학력	중졸 이하	7.41	40.50	41.76	10.03	0.29	425,801 ***
	고졸	2.68	32.47	53.47	11.14	0.24	
	대졸 이상	3.12	33.91	51.96	10.65	0.3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2	34.51	50.50	11.54	0.23	396,59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82	37.14	47.09	11.39	0.57	
	고용주·자영자	4.04	27.12	56.62	12.00	0.22	
	무급가족종사자	1.76	29.26	58.15	9.66	1.16	
	실업자	3.85	25.44	56.72	13.46	0.53	
	비경제활동인구	3.33	38.05	50.16	8.12	0.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2	35.27	49.78	11.41	0.21	18,669 ***
	비정규직	3.36	34.19	50.08	11.81	0.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6	33.29	51.17	11.49	0.39	314,434 ***
	중도적	3.12	30.76	55.24	10.70	0.17	
	진보적	3.68	39.39	46.29	10.22	0.42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6〉 지각된 스트레스: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8.07	41.47	36.68	13.31	0.47	
성별	남성	7.46	41.81	37.58	12.61	0.54	50.646 ***
	여성	8.69	41.12	35.76	14.03	0.39	
연령대	20대 이하	10.71	43.26	30.72	14.79	0.53	454.412 ***
	30대	7.24	41.67	37.08	13.42	0.59	
	40대	6.40	40.77	38.19	14.10	0.54	
	50대	6.71	37.44	42.35	12.92	0.58	
	60대	9.18	42.97	34.43	13.24	0.18	
	70대	9.45	46.23	35.10	9.08	0.14	
지역	수도권	10.54	42.13	36.27	10.81	0.24	562.981 ***
	비수도권	5.58	40.81	37.09	15.83	0.70	
	대도시	7.22	40.19	36.84	15.19	0.57	278.631 ***
	중소도시	9.21	42.82	36.69	10.95	0.33	
	농어촌	5.87	40.28	35.80	17.33	0.7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6	46.80	28.88	14.63	0.73	299.884 ***
	중하층	8.45	42.33	34.97	13.87	0.38	
	중간층	7.32	39.55	39.58	13.16	0.39	
	중상층(상층)	10.65	45.28	32.80	9.99	1.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28	42.47	35.74	13.90	0.61	603.260 ***
	200만 원대	8.58	42.09	33.51	15.36	0.45	
	300만 원대	9.78	43.00	37.12	9.68	0.43	
	400만 원대	6.14	42.30	41.57	9.77	0.22	
	500만 원 이상	5.49	28.57	49.77	15.70	0.47	
학력	중졸 이하	9.22	44.18	36.37	9.84	0.40	147.373 ***
	고졸	8.46	41.21	35.13	14.92	0.28	
	대졸 이상	7.51	41.06	37.93	12.87	0.6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07	40.23	37.11	13.99	0.61	359.51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93	45.37	31.31	16.27	0.11	
	고용주·자영자	6.27	40.59	39.48	13.21	0.44	
	무급가족종사자	4.56	37.51	42.27	14.67	0.99	
	실업자	1.48	50.53	37.07	10.38	0.53	
	비경제활동인구	10.50	42.48	35.70	10.98	0.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76	40.17	37.29	14.15	0.62	71.398 ***
	비정규직	8.12	44.47	31.98	15.26	0.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6.37	41.33	37.45	14.41	0.44	263.283 ***
	중도적	8.13	38.84	39.20	13.43	0.40	
	진보적	9.48	45.19	32.55	12.19	0.60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7〉 지각된 스트레스: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7.14	35.79	42.86	13.41	0.80	
성별	남성	6.11	35.41	44.61	13.00	0.86	102.806 ***
	여성	8.20	36.17	41.07	13.82	0.74	
연령대	20대 이하	6.92	34.03	46.14	12.62	0.29	480.495 ***
	30대	5.91	33.86	45.42	13.70	1.11	
	40대	7.92	36.50	40.78	13.44	1.36	
	50대	5.61	35.32	43.77	14.64	0.66	
	60대	8.17	34.69	40.97	15.46	0.71	
	70대	10.36	45.03	36.40	7.79	0.42	
지역	수도권	7.42	38.71	43.41	9.96	0.50	521.026 ***
	비수도권	6.87	32.85	42.32	16.86	1.10	
	대도시	6.89	33.07	44.47	14.77	0.81	321.813 ***
	중소도시	6.69	38.42	42.54	11.70	0.66	
	농어촌	11.01	34.49	36.67	16.26	1.5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74	33.69	46.00	11.71	0.85	466.622 ***
	중하층	7.77	31.85	43.44	16.30	0.64	
	중간층	6.45	37.22	43.35	12.14	0.83	
	중상층(상층)	8.39	48.02	32.40	9.84	1.3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05	35.03	38.76	15.68	1.47	603.841 ***
	200만 원대	6.03	33.44	44.75	15.10	0.68	
	300만 원대	7.69	38.20	42.32	11.12	0.67	
	400만 원대	7.28	37.48	45.28	9.96		
	500만 원 이상	3.93	41.74	47.10	6.97	0.25	
학력	중졸 이하	10.57	38.24	37.13	13.34	0.71	204.232 ***
	고졸	7.41	34.53	42.65	14.67	0.73	
	대졸 이상	6.17	36.19	44.31	12.46	0.8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61	34.40	45.04	13.09	0.86	481.68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17	31.38	42.12	15.32	1.02	
	고용주·자영자	5.90	34.22	44.35	15.00	0.53	
	무급가족종사자	6.16	35.05	37.43	20.64	0.72	
	실업자	6.65	23.05	51.43	16.42	2.45	
	비경제활동인구	7.85	42.11	38.01	11.31	0.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71	34.51	44.65	13.26	0.86	5.537 ***
	비정규직	9.07	31.66	43.99	14.31	0.96	
이념적 성향	보수적	5.71	36.30	43.40	13.61	0.99	88.878 ***
	중도적	8.01	36.59	41.53	13.24	0.63	
	진보적	7.23	34.24	44.21	13.46	0.86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8〉 지각된 스트레스: (4) 짜증 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5.06	33.65	40.53	18.71	2.05	
성별	남성	5.02	32.22	39.76	20.71	2.29	134,011 ***
	여성	5.09	35.12	41.32	16.67	1.81	
연령대	20대 이하	4.09	27.14	44.74	21.81	2.22	623,761 ***
	30대	4.77	36.54	38.65	18.16	1.88	
	40대	3.79	33.25	42.25	18.53	2.19	
	50대	4.29	34.59	40.91	17.69	2.52	
	60대	6.15	36.34	35.95	19.90	1.67	
	70대	10.77	35.68	38.30	14.02	1.23	
지역	수도권	5.87	37.73	36.09	17.14	3.17	769,591 ***
	비수도권	4.24	29.56	44.99	20.28	0.93	
	대도시	4.73	30.91	40.56	21.24	2.57	53,124 ***
	중소도시	5.17	37.55	39.36	16.12	1.81	
	농어촌	6.07	25.31	47.05	20.73	0.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63	33.99	37.70	15.51	3.18	333,260 ***
	중하층	5.26	31.28	40.94	20.91	1.61	
	중간층	4.27	35.35	40.83	17.36	2.19	
	중상층(상층)	4.56	32.83	39.42	21.19	1.9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94	36.09	37.45	18.01	1.50	795,437 ***
	200만 원대	3.99	29.60	45.08	19.73	1.60	
	300만 원대	6.11	32.80	39.09	19.93	2.07	
	400만 원대	2.62	42.89	36.81	15.05	2.63	
	500만 원 이상	3.39	36.96	37.03	16.82	5.80	
학력	중졸 이하	10.28	39.78	32.82	16.28	0.84	705,475 ***
	고졸	4.95	31.22	44.87	17.49	1.46	
	대졸 이상	3.96	34.12	38.96	20.19	2.7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85	31.37	41.44	19.76	2.58	374,38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1	34.07	43.31	14.51	1.40	
	고용주·자영자	3.63	34.75	37.58	21.82	2.22	
	무급가족종사자	2.25	35.97	42.09	19.68		
	실업자	3.24	35.12	40.16	18.97	2.51	
	비경제활동인구	6.08	36.56	39.78	16.21	1.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68	31.80	41.52	19.35	2.65	78,478 ***
	비정규직	6.85	32.14	42.66	16.92	1.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5.58	31.99	42.20	18.56	1.67	277,629 ***
	중도적	4.69	37.31	38.93	17.48	1.59	
	진보적	5.09	30.11	41.25	20.53	3.02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짜증 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69〉 지각된 스트레스: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2.80	26.65	48.63	20.01	1.91	
성별	남성	2.81	26.58	46.16	22.52	1.93	186,967 ***
	여성	2.79	26.71	51.16	17.44	1.89	
연령대	20대 이하	2.00	25.30	50.29	20.19	2.23	528,505 ***
	30대	2.89	28.54	44.54	21.03	2.99	
	40대	1.93	24.81	49.99	21.22	2.05	
	50대	2.77	25.19	49.05	21.31	1.68	
	60대	4.14	25.91	48.53	20.20	1.22	
	70대	4.21	34.89	49.55	10.95	0.40	
지역	수도권	2.51	30.47	44.74	19.50	2.78	538,653 ***
	비수도권	3.10	22.81	52.54	20.51	1.04	
	대도시	2.29	25.03	50.33	19.84	2.51	366,114 ***
	중소도시	2.94	29.55	46.80	19.32	1.40	
	농어촌	4.59	18.26	50.55	24.78	1.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79	24.66	52.55	14.58	2.41	403,598 ***
	중하층	3.06	25.93	48.80	20.63	1.57	
	중간층	2.46	27.44	48.74	19.57	1.79	
	중상층(상층)	0.53	26.71	42.26	26.43	4.0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59	29.27	47.61	18.56	0.97	893,340 ***
	200만 원대	2.33	22.85	50.67	22.62	1.53	
	300만 원대	3.10	27.81	48.87	19.12	1.10	
	400만 원대	1.90	31.51	45.18	16.89	4.52	
	500만 원 이상	2.56	27.24	45.24	18.16	6.80	
학력	중졸 이하	4.56	31.17	51.44	12.28	0.56	417,476 ***
	고졸	2.88	24.30	50.46	20.73	1.63	
	대졸 이상	2.34	27.42	46.61	21.20	2.4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0	25.56	48.27	22.02	1.85	555,27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0	26.02	53.44	14.11	1.34	
	고용주·자영자	3.17	23.84	47.80	22.69	2.50	
	무급가족종사자	2.79	23.81	52.41	20.26	0.73	
	실업자	0.99	15.49	57.93	25.59		
	비경제활동인구	2.58	31.79	47.06	16.54	2.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0	25.74	47.68	22.53	1.95	324,132 ***
	비정규직	5.12	25.35	54.21	14.19	1.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7	25.52	51.32	19.08	1.11	226,518 ***
	중도적	2.92	28.07	47.87	19.63	1.51	
	진보적	2.50	25.70	47.30	21.33	3.17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0〉 지각된 스트레스: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2.87	26.12	46.30	22.42	2.30	
성별	남성	3.35	24.60	46.77	22.39	2.90	140,619 ***
	여성	2.38	27.67	45.82	22.46	1.68	
연령대	20대 이하	3.28	23.52	44.51	25.95	2.75	595,938 ***
	30대	3.60	23.81	46.12	23.23	3.24	
	40대	2.01	24.02	47.35	23.65	2.97	
	50대	2.31	26.79	47.15	21.96	1.79	
	60대	2.01	29.41	46.72	20.66	1.21	
	70대	5.36	34.26	45.16	14.33	0.90	
지역	수도권	3.15	25.92	46.22	21.60	3.11	144,105 ***
	비수도권	2.58	26.32	46.37	23.25	1.48	
	대도시	2.26	25.29	46.61	22.84	3.00	166,962 ***
	중소도시	3.18	27.40	46.01	21.77	1.64	
	농어촌	4.14	22.99	46.30	24.04	2.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54	25.49	46.63	19.88	1.45	583,962 ***
	중하층	3.39	26.18	46.63	21.36	2.43	
	중간층	1.76	26.62	47.26	22.42	1.94	
	중상층(상층)	4.22	22.70	36.81	30.96	5.3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28	29.08	45.02	19.92	1.70	708,801 ***
	200만 원대	2.47	23.32	48.20	24.67	1.35	
	300만 원대	3.18	24.46	46.35	22.85	3.17	
	400만 원대	0.72	34.52	41.59	18.87	4.30	
	500만 원 이상	1.37	24.21	46.77	23.15	4.50	
학력	중졸 이하	5.36	34.31	44.41	15.18	0.75	509,919 ***
	고졸	2.37	26.34	46.85	22.57	1.87	
	대졸 이상	2.69	24.10	46.30	23.94	2.9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4	25.15	45.98	23.56	2.48	394,98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8	28.43	46.35	20.01	1.22	
	고용주·자영자	2.49	23.32	46.30	25.47	2.42	
	무급가족종사자	2.71	27.70	46.11	21.02	2.47	
	실업자	0.99	11.84	44.94	39.41	2.82	
	비경제활동인구	2.85	29.66	46.94	18.26	2.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3	25.03	45.88	23.69	2.58	83,475 ***
	비정규직	3.78	28.10	46.59	20.34	1.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0	28.24	46.91	20.77	1.58	324,710 ***
	중도적	2.91	26.75	47.52	21.04	1.78	
	진보적	3.14	23.38	44.08	25.76	3.64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4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71〉 지각된 스트레스: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2.49	23.17	49.92	22.19	2.23	
성별	남성	1.80	22.15	49.73	23.87	2.45	161.694 ***
	여성	3.19	24.21	50.11	20.48	2.01	
연령대	20대 이하	2.54	18.54	52.01	25.01	1.90	982.681 ***
	30대	2.74	23.89	48.83	21.61	2.93	
	40대	1.37	23.02	48.41	24.08	3.11	
	50대	1.07	23.90	51.13	21.26	2.65	
	60대	2.26	24.35	51.72	20.75	0.92	
	70대	8.43	28.20	45.16	17.56	0.65	
지역	수도권	2.60	24.21	47.88	22.24	3.08	188,244 ***
	비수도권	2.38	22.12	51.97	22.14	1.39	
	대도시	2.24	20.64	52.33	22.05	2.74	194,051 ***
	중소도시	2.54	25.38	48.02	22.35	1.71	
	농어촌	3.44	23.29	48.64	21.94	2.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67	31.12	44.61	18.45	2.16	494,947 ***
	중하층	2.72	23.45	51.19	20.73	1.92	
	중간층	2.02	22.19	51.28	22.24	2.26	
	중상층(상층)	3.46	19.75	39.17	33.87	3.7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18	27.01	46.24	20.83	1.74	560,980 ***
	200만 원대	1.47	21.18	53.06	22.50	1.79	
	300만 원대	2.05	21.40	49.47	24.71	2.37	
	400만 원대	2.75	24.49	50.95	18.71	3.11	
	500만 원 이상	2.45	22.86	47.28	22.43	4.99	
학력	중졸 이하	7.24	29.41	45.97	16.47	0.90	805,447 ***
	고졸	2.18	23.10	50.96	22.11	1.64	
	대졸 이상	1.65	21.81	50.02	23.53	2.9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8	23.15	49.53	23.83	2.21	681,32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6	26.30	50.82	18.75	1.68	
	고용주·자영자	2.19	20.26	50.44	23.32	3.79	
	무급가족종사자	5.12	23.05	41.53	28.34	1.96	
	실업자		17.59	54.91	27.50		
	비경제활동인구	4.86	24.33	50.19	19.10	1.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2	23.38	49.62	23.48	2.30	68,197 ***
	비정규직	2.42	24.93	50.24	20.91	1.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59	24.41	50.37	20.12	1.50	454,400 ***
	중도적	1.86	24.44	50.80	21.40	1.50	
	진보적	2.38	20.33	48.33	25.08	3.88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2〉 지각된 스트레스: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1.87	23.72	48.37	23.65	2.38	
성별	남성	1.92	22.76	48.94	23.55	2.83	55,028 ***
	여성	1.83	24.70	47.79	23.75	1.93	
연령대	20대 이하	1.61	18.56	54.59	24.23	1.00	597,795 ***
	30대	2.37	22.06	44.35	28.00	3.22	
	40대	1.69	23.87	48.05	23.12	3.27	
	50대	1.33	25.40	48.63	22.21	2.44	
	60대	2.00	25.21	50.06	21.20	1.53	
	70대	2.99	31.35	40.48	22.31	2.87	
지역	수도권	1.87	25.87	45.11	23.60	3.55	410,487 ***
	비수도권	1.88	21.56	51.65	23.70	1.21	
	대도시	1.64	23.77	48.30	23.36	2.94	130,163 ***
	중소도시	2.03	24.31	48.16	23.85	1.65	
	농어촌	2.16	20.15	49.95	23.98	3.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3	21.78	51.16	21.19	2.73	306,523 ***
	중하층	2.19	23.00	48.13	24.40	2.27	
	중간층	1.66	24.86	48.87	22.55	2.06	
	중상층(상층)	0.35	21.06	42.56	30.99	5.0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3	24.74	46.22	23.81	2.59	633,766 ***
	200만 원대	1.35	20.80	50.26	25.94	1.66	
	300만 원대	2.71	25.10	48.04	22.59	1.55	
	400만 원대	0.83	25.62	52.03	16.66	4.86	
	500만 원 이상	0.52	28.83	42.85	22.90	4.91	
학력	중졸 이하	3.68	28.51	45.07	21.03	1.72	362,588 ***
	고졸	1.40	22.79	51.30	23.08	1.43	
	대졸 이상	1.83	23.35	46.89	24.68	3.2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3	22.44	48.90	24.49	2.24	316,38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0	22.78	54.27	20.27	1.38	
	고용주·자영자	1.55	24.80	46.82	23.49	3.34	
	무급가족종사자	1.27	32.02	46.97	16.76	2.98	
	실업자	2.82	19.36	44.93	24.29	8.60	
	비경제활동인구	2.24	25.31	46.35	24.13	1.9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7	22.49	48.98	24.19	2.37	58,201 ***
	비정규직	1.31	22.54	52.87	22.11	1.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7	25.00	47.31	23.24	2.47	228,315 ***
	중도적	1.53	25.06	49.37	22.44	1.60	
	진보적	2.25	20.76	47.94	25.66	3.38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4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73〉 지각된 스트레스: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7.34	39.81	40.10	12.17	0.58	
성별	남성	7.24	39.61	41.64	10.85	0.65	90.573 ***
	여성	7.45	40.01	38.53	13.52	0.50	
연령대	20대 이하	8.55	38.88	40.04	11.89	0.65	384.312 ***
	30대	7.89	42.17	37.54	11.91	0.48	
	40대	5.64	38.94	41.23	13.81	0.39	
	50대	5.31	38.26	43.20	12.65	0.58	
	60대	7.64	40.04	40.04	11.85	0.43	
	70대	12.16	42.36	35.42	8.76	1.30	
지역	수도권	7.60	43.38	38.28	10.06	0.69	331.689 ***
	비수도권	7.08	36.23	41.94	14.28	0.46	
	대도시	5.83	39.42	40.44	13.91	0.41	409.676 ***
	중소도시	8.16	40.17	40.83	10.39	0.45	
	농어촌	10.30	39.73	34.31	13.55	2.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40	37.95	42.24	10.38	2.03	372.246 ***
	중하층	9.23	37.81	40.94	11.64	0.37	
	중간층	6.48	41.57	38.45	12.97	0.53	
	중상층(상층)	3.91	39.11	45.75	10.91	0.3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32	36.87	38.75	13.85	1.20	740.176 ***
	200만 원대	6.17	38.24	41.46	13.78	0.35	
	300만 원대	9.67	42.88	37.38	9.75	0.32	
	400만 원대	5.25	46.88	40.45	7.11	0.31	
	500만 원 이상	1.50	41.08	46.01	10.89	0.52	
학력	중졸 이하	9.34	40.77	39.80	8.70	1.38	243.648 ***
	고졸	6.98	37.23	42.23	13.28	0.28	
	대졸 이상	7.17	41.56	38.55	12.10	0.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61	38.80	41.30	12.56	0.73	358.79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08	35.88	39.92	13.69	0.43	
	고용주·자영자	7.20	40.12	40.10	11.92	0.66	
	무급가족종사자	3.61	40.34	42.09	11.68	2.29	
	실업자	5.70	24.77	59.23	10.29		
	비경제활동인구	7.98	43.90	36.75	11.15	0.2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64	39.40	41.09	12.10	0.78	99.831 ***
	비정규직	9.24	34.63	40.90	14.89	0.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3.88	39.40	43.25	12.75	0.72	649.495 ***
	중도적	6.41	39.32	41.40	12.30	0.57	
	진보적	11.67	40.84	35.57	11.47	0.46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4〉 지각된 스트레스: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전체		7.01	37.62	43.46	11.59	0.33	
성별	남성	6.58	38.65	43.35	11.18	0.24	41,062 ***
	여성	7.44	36.55	43.56	12.01	0.43	
연령대	20대 이하	7.51	35.40	46.51	10.51	0.07	440,152 ***
	30대	6.90	39.85	42.03	10.73	0.49	
	40대	6.03	35.66	43.80	14.20	0.32	
	50대	4.52	41.15	42.40	11.51	0.42	
	60대	8.42	35.71	43.80	11.53	0.55	
	70대	12.15	37.05	40.98	9.78	0.05	
지역	수도권	5.93	41.68	41.69	10.42	0.28	334,018 ***
	비수도권	8.08	33.53	45.23	12.76	0.39	
	대도시	5.78	36.20	44.71	12.92	0.39	327,108 ***
	중소도시	7.15	39.42	43.10	10.02	0.30	
	농어촌	12.33	34.50	39.15	13.77	0.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69	37.94	42.05	9.57	0.75	182,823 ***
	중하층	8.27	35.91	44.22	11.43	0.18	
	중간층	5.78	38.58	43.38	11.91	0.34	
	중상층(상층)	6.51	38.86	41.69	12.34	0.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93	35.22	40.44	13.80	0.62	616,669 ***
	200만 원대	5.98	36.36	44.58	12.87	0.21	
	300만 원대	6.35	38.56	46.10	8.86	0.13	
	400만 원대	7.18	43.42	42.61	6.60	0.18	
	500만 원 이상	3.04	43.34	41.95	10.91	0.77	
학력	중졸 이하	11.43	37.69	38.66	11.79	0.42	277,155 ***
	고졸	5.97	35.61	47.01	11.08	0.34	
	대졸 이상	6.79	39.13	41.83	11.93	0.3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89	37.06	44.59	12.08	0.39	192,63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19	34.77	41.70	13.88	0.45	
	고용주·자영자	7.11	40.13	41.15	11.38	0.22	
	무급가족종사자	10.48	36.00	43.18	10.34		
	실업자	9.10	31.53	48.95	10.41		
	비경제활동인구	7.66	38.45	43.53	10.04	0.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88	37.27	44.81	11.68	0.36	96,111 ***
	비정규직	8.52	34.58	41.62	14.75	0.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4.75	37.61	44.62	12.59	0.42	162,121 ***
	중도적	7.39	37.70	42.97	11.54	0.40	
	진보적	8.46	37.50	43.10	10.77	0.16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4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75〉 물질주의: (1) 나는 비싼 집과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4.72	26.54	29.88	29.53	8.82	0.51	
성별	남성	4.53	27.50	29.84	29.05	8.72	0.36	38.396 ***
	여성	4.91	25.57	29.92	30.02	8.93	0.65	
연령대	20대 이하	3.30	25.02	23.68	39.49	8.18	0.33	1,060.104 ***
	30대	4.77	21.62	31.26	30.53	10.70	1.11	
	40대	4.65	25.42	32.23	26.06	11.09	0.56	
	50대	5.07	26.20	31.30	28.25	8.86	0.32	
	60대	5.66	30.68	30.09	26.26	6.97	0.34	
	70대	5.32	36.53	31.02	22.90	3.97	0.25	
지역	수도권	4.19	28.70	31.91	27.37	7.52	0.32	329.641 ***
	비수도권	5.25	24.38	27.85	31.69	10.13	0.69	
	대도시	4.79	28.62	27.36	29.66	9.37	0.19	646.942 ***
	중소도시	4.42	25.40	33.24	29.17	7.26	0.52	
	농어촌	6.10	22.55	23.50	30.91	14.93	2.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24	29.98	21.28	32.81	8.87	0.82	298.679 ***
	중하층	4.84	27.83	28.32	28.45	9.96	0.60	
	중간층	4.41	25.78	32.19	29.33	7.95	0.34	
	중상층(상층)	4.63	21.58	30.68	32.84	9.43	0.8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62	24.64	24.70	34.02	10.18	0.85	1,530.679 ***
	200만 원대	3.35	26.31	26.40	33.28	10.37	0.30	
	300만 원대	4.64	29.70	33.70	23.82	7.47	0.68	
	400만 원대	6.57	31.14	36.38	21.76	3.82	0.33	
	500만 원 이상	6.54	19.54	48.62	19.50	5.79		
학력	중졸 이하	5.30	33.54	30.58	25.08	5.29	0.20	326.062 ***
	고졸	5.05	25.29	27.98	30.65	10.27	0.77	
	대졸 이상	4.33	25.92	31.18	29.68	8.51	0.3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89	25.50	30.93	30.45	8.74	0.49	363.60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46	25.93	24.38	31.99	11.66	0.59	
	고용주·자영자	6.63	25.04	30.99	28.74	7.90	0.70	
	무급가족종사자	2.55	31.77	22.00	33.24	9.21	1.23	
	실업자	3.56	24.78	28.52	38.19	4.95		
	비경제활동인구	4.72	29.53	30.14	26.62	8.64	0.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86	25.38	31.39	30.18	8.77	0.42	129.106 ***
	비정규직	5.22	26.24	24.29	32.52	10.93	0.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5.36	31.13	27.50	26.56	9.01	0.44	549.994 ***
	중도적	3.93	22.65	34.52	29.75	8.82	0.33	
	진보적	5.23	27.83	25.64	31.84	8.66	0.80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나는 비싼 집과 차, 옷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6〉 물질주의: (2) 삶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4.21	20.83	36.08	26.12	12.08	0.68	
성별	남성	3.96	20.40	36.84	27.25	10.83	0.73	93.875
	여성	4.46	21.27	35.30	24.97	13.37	0.64	***
연령대	20대 이하	5.59	15.00	30.52	32.83	15.54	0.53	888.693
	30대	4.60	19.05	38.17	24.32	12.63	1.23	
	40대	4.13	23.69	36.42	24.64	10.64	0.50	
	50대	3.07	21.27	36.78	26.12	12.15	0.60	
	60대	5.21	21.61	41.07	21.76	9.50	0.84	
	70대	1.64	27.99	32.44	26.50	11.21	0.22	
지역	수도권	5.76	23.52	36.13	21.87	12.10	0.60	674.563
	비수도권	2.65	18.12	36.02	30.39	12.06	0.76	***
	대도시	4.96	19.29	38.35	24.12	12.48	0.79	314.830
	중소도시	3.78	22.78	34.80	26.53	11.60	0.51	
	농어촌	2.91	17.43	31.89	33.85	12.77	1.1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99	13.44	30.75	32.47	13.07	0.28	660.473
	중하층	4.59	20.55	33.54	27.47	13.21	0.63	
	중간층	3.27	22.07	38.39	24.59	10.99	0.70	
	중상층(상층)	2.57	21.55	38.10	23.26	13.27	1.2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3	19.58	34.27	28.61	12.49	1.01	584.701
	200만 원대	3.29	18.94	35.18	28.42	13.68	0.49	
	300만 원대	5.32	23.23	37.58	23.30	9.89	0.69	
	400만 원대	5.52	26.47	38.36	21.89	7.54	0.22	
	500만 원 이상	4.79	21.20	40.32	18.27	14.41	1.01	
학력	중졸 이하	3.26	27.20	28.82	29.99	9.98	0.75	283.997
	고졸	4.19	19.78	37.62	26.01	11.52	0.89	
	대졸 이상	4.44	20.19	36.54	25.34	12.99	0.5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34	20.48	36.72	26.37	11.30	0.79	557.65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4	16.65	30.97	29.37	16.27		
	고용주·자영자	3.36	19.05	35.61	29.25	11.78	0.96	
	무급가족종사자	2.51	19.84	35.40	29.52	12.73		
	실업자	4.22	12.72	49.42	18.43	15.22		
	비경제활동인구	3.66	25.08	36.68	22.20	11.72	0.6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0	20.58	36.23	26.84	11.22	0.73	123.851
	비정규직	6.01	17.14	33.73	27.27	15.48	0.37	***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2	22.71	34.16	27.27	12.49	0.44	305.920
	중도적	3.73	20.35	38.92	25.30	11.05	0.66	
	진보적	6.00	19.82	33.87	26.24	13.14	0.92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삶에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4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77〉 물질주의: (3) 나는 사람들이 성공의 증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88	18.27	35.48	32.46	11.82	1.08	
성별	남성	0.82	18.74	35.29	31.92	12.08	1.15	15,660 ***
	여성	0.95	17.79	35.68	33.00	11.55	1.02	
연령대	20대 이하	0.76	14.35	37.37	37.26	9.27	0.98	458,677 ***
	30대	0.63	20.89	32.48	31.69	12.66	1.65	
	40대	1.38	18.27	35.19	30.47	13.50	1.19	
	50대	0.97	18.87	34.02	32.71	12.35	1.08	
	60대	0.90	16.39	38.99	32.33	11.06	0.34	
	70대	0.28	23.10	35.88	27.96	11.61	1.16	
지역	수도권	0.51	21.74	34.93	30.96	10.40	1.46	498,364 ***
	비수도권	1.26	14.79	36.04	33.96	13.24	0.71	
	대도시	0.82	15.66	35.46	33.16	13.47	1.43	563,125 ***
	중소도시	1.07	21.62	34.78	32.26	9.56	0.70	
	농어촌	0.12	12.33	39.59	30.04	16.39	1.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3	15.47	30.38	39.46	11.72	2.34	467,162 ***
	중하층	0.51	16.51	33.10	35.24	13.58	1.06	
	중간층	1.16	20.02	37.27	30.09	10.51	0.96	
	중상층(상층)	1.06	17.56	40.43	27.63	12.70	0.6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8	16.91	36.28	32.36	12.48	1.29	814,117 ***
	200만 원대	0.75	15.74	33.12	36.15	13.46	0.77	
	300만 원대	1.13	17.54	39.46	31.42	9.09	1.36	
	400만 원대	1.73	26.45	36.99	23.85	9.90	1.08	
	500만 원 이상	0.52	28.98	31.01	27.07	11.30	1.12	
학력	중졸 이하	0.95	18.69	40.83	27.32	11.13	1.10	160,092 ***
	고졸	0.70	17.24	35.19	33.56	12.59	0.73	
	대졸 이상	1.01	18.96	34.50	32.78	11.39	1.3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8	19.35	33.75	33.61	11.22	1.29	329,40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6	17.52	34.61	32.65	12.89	1.28	
	고용주·자영자	0.99	16.92	35.48	30.47	15.10	1.04	
	무급가족종사자	2.18	13.01	47.50	27.89	8.27	1.16	
	실업자		22.46	25.40	34.33	17.27	0.53	
	비경제활동인구	0.88	17.74	38.74	31.96	9.99	0.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4	18.85	33.59	34.12	11.30	1.30	16,650 ***
	비정규직	0.84	19.49	34.92	31.25	12.27	1.2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0	14.93	36.91	34.57	12.19	0.70	243,802 ***
	중도적	0.97	20.83	35.11	30.62	11.56	0.91	
	진보적	0.93	17.71	34.74	33.12	11.85	1.66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나는 사람들이 성공의 증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8〉 물질주의: (4)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1.39	13.08	31.46	37.76	15.56	0.76	
성별	남성	1.43	13.69	31.48	36.38	15.99	1.02	79.844
	여성	1.35	12.45	31.44	39.17	15.12	0.48	***
연령대	20대 이하	1.34	9.17	30.68	40.31	17.40	1.11	515.791
	30대	0.95	13.60	32.94	34.73	16.90	0.88	
	40대	1.61	14.01	31.33	36.84	15.48	0.73	
	50대	0.69	14.25	32.72	35.65	16.07	0.62	
	60대	1.47	14.19	32.53	38.55	12.95	0.31	
	70대	3.46	13.41	25.33	44.67	12.22	0.90	
지역	수도권	1.62	15.75	33.60	34.91	13.43	0.70	515.356
	비수도권	1.15	10.40	29.31	40.62	17.70	0.81	***
	대도시	1.29	12.77	29.31	38.51	17.30	0.82	322.397
	중소도시	1.60	14.12	33.35	37.14	13.09	0.70	
	농어촌	0.69	8.70	31.50	37.57	20.84	0.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1	11.24	32.72	39.43	11.20		882.869
	중하층	0.93	10.16	31.08	41.22	15.80	0.82	
	중간층	1.14	15.82	32.00	34.62	15.69	0.74	
	중상층(상층)	0.97	9.76	27.88	41.50	18.47	1.4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6	12.01	27.21	39.74	18.15	1.54	1,131.355
	200만 원대	1.00	9.80	32.12	40.16	16.54	0.37	
	300만 원대	2.31	14.50	32.10	36.52	14.12	0.45	
	400만 원대	1.47	20.21	39.31	30.52	8.09	0.40	
	500만 원 이상	0.67	21.39	32.25	30.25	14.21	1.23	
학력	중졸 이하	1.62	15.15	32.50	38.81	11.59	0.32	216.776
	고졸	1.57	12.14	30.63	40.18	14.98	0.50	
	대졸 이상	1.20	13.32	31.85	35.68	16.90	1.0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3	13.36	32.92	35.19	15.75	1.05	275.64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9	11.97	28.78	42.09	15.43	0.34	
	고용주·자영자	0.66	12.33	30.61	38.60	17.10	0.69	
	무급가족종사자	0.78	14.68	28.55	46.26	9.73		
	실업자	0.99	11.19	24.59	40.69	22.54		
	비경제활동인구	1.36	13.59	31.16	39.22	14.13	0.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5	12.89	33.31	34.90	16.09	1.06	109.084
	비정규직	1.41	13.74	28.44	41.51	14.45	0.45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6	11.74	32.07	39.36	15.25	0.51	405.020
	중도적	0.99	15.47	32.78	35.82	13.90	1.04	
	진보적	2.21	10.98	29.12	39.01	18.09	0.59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79〉 물질주의: (5)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3.48	22.79	33.58	29.17	10.32	0.66	
성별	남성	3.38	23.56	34.09	28.59	9.70	0.67	36.479
	여성	3.58	21.99	33.06	29.76	10.96	0.65	***
연령대	20대 이하	2.22	19.05	28.71	37.07	12.22	0.73	693.567
	30대	3.77	19.20	37.84	27.59	10.91	0.68	
	40대	3.43	23.67	33.23	29.33	9.59	0.76	
	50대	3.69	22.64	36.68	25.85	10.48	0.67	
	60대	4.51	26.43	32.96	26.90	8.51	0.69	
	70대	3.41	30.35	29.48	27.10	9.53	0.13	
지역	수도권	3.68	23.18	35.57	26.92	10.17	0.47	151.324
	비수도권	3.27	22.39	31.59	31.43	10.48	0.84	***
	대도시	3.58	23.21	31.48	29.52	11.60	0.62	406.919
	중소도시	3.19	22.86	36.73	28.23	8.49	0.51	
	농어촌	4.59	20.27	26.26	32.79	14.37	1.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6	26.78	32.05	24.14	11.67	0.20	452.042
	중하층	4.01	22.27	30.24	32.95	10.16	0.37	
	중간층	3.02	23.01	35.64	27.72	9.86	0.76	
	중상층(상층)	2.22	19.10	37.31	26.24	13.13	1.9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63	23.09	31.50	29.25	11.64	0.89	986.883
	200만 원대	2.45	19.83	31.13	34.45	11.50	0.63	
	300만 원대	4.21	24.66	36.78	24.08	10.05	0.22	
	400만 원대	5.48	30.38	34.59	22.50	6.71	0.34	
	500만 원 이상	3.63	22.10	43.65	24.61	4.35	1.65	
학력	중졸 이하	4.01	28.40	30.72	26.52	9.69	0.66	128.810
	고졸	3.45	22.80	32.73	29.86	10.58	0.58	
	대졸 이상	3.38	21.51	34.87	29.25	10.27	0.7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2	20.46	36.36	30.02	9.79	0.55	592.39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6	21.84	30.08	28.76	13.43	0.72	
	고용주·자영자	5.21	21.85	32.85	29.14	9.83	1.12	
	무급가족종사자	5.28	19.96	31.24	32.60	10.91		
	실업자	1.76	16.60	34.77	40.18	6.69		
	비경제활동인구	2.65	28.66	30.66	26.95	10.51	0.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3	20.63	35.70	30.57	9.74	0.53	104.188
	비정규직	4.65	21.01	33.48	27.28	12.81	0.77	***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6	23.41	34.05	28.50	10.74	0.52	300.683
	중도적	3.03	23.15	36.27	26.87	9.89	0.78	
	진보적	4.71	21.74	29.49	32.90	10.55	0.61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0〉 물질주의: (6)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95	14.24	34.65	34.05	15.01	1.09	
성별	남성	0.94	13.75	34.87	34.02	15.58	0.82	45.302
	여성	0.96	14.75	34.42	34.08	14.43	1.37	***
연령대	20대 이하	1.83	13.06	34.09	34.54	14.96	1.52	318.611
	30대	0.80	14.14	37.50	31.29	14.93	1.34	
	40대	0.51	15.18	35.26	33.70	14.63	0.73	
	50대	0.83	14.77	34.26	33.44	15.25	1.45	
	60대	1.24	11.92	33.50	36.31	16.37	0.66	
	70대	0.23	17.57	31.37	37.22	13.23	0.38	
지역	수도권	1.05	14.58	34.93	33.99	14.11	1.33	52.816
	비수도권	0.85	13.90	34.36	34.11	15.91	0.85	***
	대도시	0.98	12.81	31.47	38.07	15.53	1.13	455.642
	중소도시	1.03	15.65	37.69	31.17	13.54	0.93	
	농어촌	0.39	13.47	33.33	30.26	20.73	1.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9	7.78	32.46	38.81	16.89	2.07	432.856
	중하층	0.96	13.25	36.02	34.93	13.63	1.20	
	중간층	0.79	16.32	34.61	31.69	15.70	0.89	
	중상층(상층)	0.94	11.31	30.33	41.76	14.80	0.8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87	13.13	36.24	33.67	15.35	0.74	691.101
	200만 원대	0.82	11.92	33.00	36.89	16.55	0.81	
	300만 원대	1.59	17.50	33.09	32.78	13.10	1.95	
	400만 원대	0.55	20.96	32.00	33.15	12.12	1.22	
	500만 원 이상	0.54	12.48	45.59	25.26	14.98	1.15	
학력	중졸 이하	1.36	16.97	31.81	33.51	15.39	0.96	83.326
	고졸	0.82	13.62	34.77	35.43	14.45	0.91	
	대졸 이상	0.96	14.11	35.20	33.13	15.35	1.2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9	14.69	33.96	34.19	14.88	1.40	395.68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3	12.03	35.11	32.90	17.59	1.15	
	고용주·자영자	0.76	11.29	32.62	35.77	18.56	1.00	
	무급가족종사자	3.38	13.88	38.53	29.53	14.68		
	실업자	0.45	13.55	39.23	34.03	12.21	0.53	
	비경제활동인구	0.94	16.62	36.66	33.35	11.74	0.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0	14.15	33.62	34.56	15.33	1.44	21,047
	비정규직	1.14	14.29	35.93	32.00	15.57	1.07	***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3	13.23	30.70	38.53	16.05	0.55	368.888
	중도적	1.02	15.12	38.13	30.99	13.79	0.94	
	진보적	0.88	13.94	33.36	34.29	15.76	1.77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5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81〉 물질주의: (7)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매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34	9.65	26.03	38.94	22.76	2.27	
성별	남성	0.25	10.04	25.24	39.34	22.67	2.46	34.564 ****
	여성	0.43	9.26	26.85	38.54	22.85	2.08	
연령대	20대 이하	0.32	5.07	26.39	44.71	22.45	1.05	662.080 ****
	30대	0.25	10.05	25.87	39.50	21.24	3.08	
	40대	0.50	12.17	27.01	35.75	22.91	1.66	
	50대	0.32	10.62	26.98	38.84	20.80	2.43	
	60대	0.31	8.46	24.34	40.46	23.89	2.55	
	70대	0.26	12.47	23.91	30.43	29.10	3.83	
지역	수도권	0.17	11.39	26.19	38.64	21.00	2.60	243.320 ****
	비수도권	0.51	7.90	25.88	39.25	24.52	1.94	
	대도시	0.29	7.76	23.16	40.00	26.80	2.00	727.560 ****
	중소도시	0.42	11.85	29.08	38.04	18.24	2.36	
	농어촌	0.13	6.68	23.21	38.74	28.09	3.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4	9.21	27.16	38.41	22.23	2.45	515.613 ****
	중하층	0.28	7.58	22.70	40.70	26.06	2.70	
	중간층	0.26	11.45	28.56	37.74	20.04	1.95	
	중상층(상층)	1.01	7.43	23.07	39.46	26.71	2.3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0	10.67	24.12	37.11	24.79	3.02	1,278.749 ****
	200만 원대	0.16	6.38	24.41	42.71	24.77	1.57	
	300만 원대	0.74	8.39	26.21	41.20	21.45	2.00	
	400만 원대	0.51	16.57	33.31	29.55	17.15	2.90	
	500만 원 이상		18.43	32.35	30.72	15.25	3.26	
학력	중졸 이하	0.22	13.85	24.39	31.43	27.11	3.00	292.701 ****
	고졸	0.26	8.62	25.74	41.89	21.45	2.04	
	대졸 이상	0.43	9.49	26.63	38.39	22.77	2.2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6	9.13	26.59	38.68	23.23	2.01	284.07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5	9.84	25.87	40.71	21.09	2.34	
	고용주·자영자	0.50	8.28	23.22	40.65	24.21	3.15	
	무급가족종사자		18.15	26.06	35.91	18.55	1.33	
	실업자		10.27	22.79	30.99	35.95		
	비경제활동인구	0.30	10.89	27.36	38.09	21.08	2.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4	9.09	26.39	38.80	23.34	2.04	13,463 ****
	비정규직	0.26	9.82	26.66	39.89	21.19	2.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9	9.24	25.36	40.95	22.29	1.67	714.287 ****
	중도적	0.30	12.02	29.67	35.74	20.47	1.80	
	진보적	0.25	6.77	21.65	41.56	26.30	3.46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매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2〉 물질주의: (8) 나는 물건들을 포함해서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46	10.36	30.88	39.63	17.95	0.72	
성별	남성	0.49	11.25	29.48	39.54	18.37	0.87	76.865
	여성	0.43	9.45	32.31	39.72	17.52	0.57	***
연령대	20대 이하	0.09	7.27	29.47	43.94	18.81	0.43	533.966
	30대	0.99	9.94	32.60	40.86	14.87	0.74	
	40대	0.67	13.16	30.71	36.30	18.24	0.91	
	50대	0.51	12.20	30.84	36.78	18.62	1.05	
	60대	0.07	9.45	30.40	43.05	16.80	0.23	
	70대	0.18	8.29	31.70	36.70	22.26	0.87	
지역	수도권	0.46	11.85	29.07	39.95	17.94	0.73	135.290
	비수도권	0.46	8.86	32.70	39.31	17.96	0.71	***
	대도시	0.48	8.12	28.37	41.86	20.11	1.06	473.838
	중소도시	0.40	12.53	32.66	38.29	15.76	0.35	
	농어촌	0.66	9.25	33.40	36.02	19.55	1.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4	7.67	30.29	46.24	15.20	0.46	541.689
	중하층	0.34	7.06	30.33	42.22	19.65	0.39	
	중간층	0.56	12.57	31.76	36.84	17.39	0.88	
	중상층(상층)	0.65	14.05	27.77	39.44	16.61	1.4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25	8.67	32.07	38.55	19.42	1.04	1,319.581
	200만 원대	0.18	7.70	28.55	43.96	19.12	0.49	
	300만 원대	1.28	11.01	31.85	40.22	15.33	0.32	
	400만 원대	0.66	14.48	34.82	30.72	18.32	1.00	
	500만 원 이상		23.93	30.85	30.01	13.62	1.59	
학력	중졸 이하	0.45	10.79	35.45	34.99	17.44	0.87	338.631
	고졸	0.23	8.28	33.02	41.53	16.22	0.71	
	대졸 이상	0.63	11.84	28.22	39.23	19.38	0.6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7	11.04	30.76	38.73	18.20	0.81	259.93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1	7.81	30.09	43.06	17.87	0.77	
	고용주·자영자	0.47	9.79	28.98	40.56	19.17	1.04	
	무급가족종사자	0.73	13.97	39.06	39.39	6.86		
	실업자		13.16	26.51	51.59	8.03	0.71	
	비경제활동인구	0.47	10.19	32.52	38.47	18.01	0.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50	11.23	30.40	39.07	18.04	0.76	53.578
	비정규직	0.32	7.91	31.37	41.04	18.43	0.93	***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5	9.05	28.48	41.57	19.61	0.84	433.399
	중도적	0.43	13.23	32.67	36.46	16.37	0.84	
	진보적	0.50	7.57	30.55	42.27	18.66	0.45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나는 물건들을 포함해서 내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5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83〉 물질주의: (9)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 중요한 전부는 아니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69	11.60	30.33	38.49	17.17	1.72	
성별	남성	0.62	11.41	31.25	37.00	18.18	1.55	72.856 ***
	여성	0.77	11.80	29.38	40.03	16.14	1.88	
연령대	20대 이하	0.14	10.16	25.68	42.16	19.08	2.78	709.196 ***
	30대	0.46	11.94	31.09	37.65	17.24	1.61	
	40대	1.03	12.66	32.06	35.83	16.62	1.80	
	50대	0.29	11.94	32.74	36.69	16.97	1.37	
	60대	0.40	9.69	32.64	39.33	16.71	1.23	
	70대	3.07	13.98	24.66	41.69	15.47	1.13	
지역	수도권	0.75	12.37	32.09	36.63	16.71	1.46	124.890 ***
	비수도권	0.63	10.83	28.56	40.36	17.64	1.98	
	대도시	0.31	10.98	27.61	42.61	17.44	1.05	711.332 ***
	중소도시	1.13	12.81	33.43	34.73	16.03	1.86	
	농어촌	0.12	7.81	26.30	39.24	22.30	4.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71	10.69	24.92	43.62	17.04	3.01	457.357 ***
	중하층	1.00	9.42	28.75	40.58	18.40	1.85	
	중간층	0.48	13.76	31.74	36.19	16.20	1.64	
	중상층(상층)	0.66	7.71	34.25	39.03	18.26	0.1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0	10.69	29.13	39.04	17.50	2.35	692.776 ***
	200만 원대	0.23	9.48	29.69	42.44	16.71	1.46	
	300만 원대	0.55	13.08	30.22	37.64	17.28	1.23	
	400만 원대	1.03	14.57	33.32	33.82	15.17	2.09	
	500만 원 이상	0.86	18.18	34.93	23.71	20.61	1.71	
학력	중졸 이하	2.45	13.03	29.20	38.41	15.02	1.88	293.243 ***
	고졸	0.38	11.23	30.05	39.83	17.05	1.46	
	대졸 이상	0.53	11.56	30.79	37.49	17.75	1.8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7	11.50	31.34	37.70	17.12	1.85	357.86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4	12.66	26.54	41.48	18.06	0.91	
	고용주·자영자	0.75	11.21	27.64	39.01	19.56	1.84	
	무급가족종사자		6.23	41.27	37.35	13.86	1.28	
	실업자		3.02	43.05	33.37	20.56		
	비경제활동인구	1.28	12.49	30.55	38.66	15.16	1.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5	11.65	30.97	38.35	17.02	1.57	15.373 ***
	비정규직	0.45	11.96	28.75	38.63	18.20	2.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1	9.67	29.11	43.53	15.95	1.24	541.227 ***
	중도적	0.50	14.09	32.70	35.40	15.87	1.44	
	진보적	1.11	9.89	28.15	38.30	20.02	2.52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내게 중요한 전부는 아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4〉 물질주의: (10)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에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3.00	26.83	31.99	27.61	10.22	0.34	
성별	남성	3.30	29.30	30.58	26.77	9.65	0.40	164.363 ***
	여성	2.70	24.31	33.44	28.47	10.81	0.28	
연령대	20대 이하	2.27	24.29	31.56	29.02	12.67	0.19	306.752 ***
	30대	2.95	25.62	32.39	28.14	10.57	0.32	
	40대	2.36	30.38	28.72	27.53	10.60	0.42	
	50대	2.99	27.18	33.98	26.70	8.74	0.42	
	60대	4.35	25.46	32.31	28.80	8.66	0.42	
	70대	3.88	27.97	34.48	23.80	9.67	0.20	
지역	수도권	2.83	27.51	33.04	26.23	10.08	0.30	56.852 ***
	비수도권	3.17	26.15	30.94	28.99	10.37	0.38	
	대도시	2.75	24.40	32.13	29.04	11.15	0.54	226.116 ***
	중소도시	3.05	28.60	32.54	26.50	9.20	0.11	
	농어촌	4.00	29.00	28.17	26.78	11.43	0.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0	24.14	30.43	24.85	14.18		330.471 ***
	중하층	2.85	27.88	31.83	28.30	8.92	0.23	
	중간층	2.64	26.58	32.69	27.42	10.30	0.36	
	중상층(상층)	2.50	26.42	29.40	28.63	11.87	1.1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29	24.76	32.65	27.76	10.85	0.70	690.774 ***
	200만 원대	2.72	24.22	30.97	29.82	11.98	0.30	
	300만 원대	3.39	33.27	31.12	23.78	8.35	0.09	
	400만 원대	2.80	33.16	28.62	28.74	6.37	0.30	
	500만 원 이상	2.47	20.96	42.00	25.53	9.04		
학력	중졸 이하	3.26	26.10	36.98	23.16	10.41	0.09	158.153 ***
	고졸	2.93	27.78	31.20	28.88	8.94	0.26	
	대졸 이상	2.99	26.27	31.47	27.64	11.16	0.4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8	25.53	32.88	28.48	10.19	0.25	374.06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7	26.83	27.59	26.82	14.16	0.32	
	고용주·자영자	3.64	27.88	29.89	27.35	10.37	0.87	
	무급가족종사자	5.18	23.22	35.88	28.49	7.23		
	실업자	2.22	36.74	28.25	30.34	2.45		
	비경제활동인구	2.46	28.12	33.74	26.33	9.18	0.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7	25.48	32.40	28.99	10.51	0.25	127.425 ***
	비정규직	4.91	26.70	30.21	25.57	12.30	0.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9	27.16	31.84	27.12	10.62	0.37	136.312 ***
	중도적	2.21	26.73	33.53	27.08	10.12	0.34	
	진보적	4.18	26.68	30.03	28.77	10.03	0.32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에 소비하는 것을 좋아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5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85〉 물질주의: (11)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이 즐겁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1.41	12.17	31.17	40.07	14.17	1.00	
성별	남성	1.12	14.34	32.92	38.02	12.67	0.92	344.340 ***
	여성	1.71	9.96	29.38	42.16	15.71	1.09	
연령대	20대 이하	0.90	7.20	25.21	48.83	16.54	1.32	982.102 ***
	30대	1.03	10.86	28.91	40.44	17.27	1.50	
	40대	0.88	13.87	32.12	39.06	13.13	0.94	
	50대	1.30	13.18	34.85	35.80	13.99	0.89	
	60대	2.42	15.17	34.15	36.03	11.46	0.77	
	70대	3.13	14.00	32.34	40.23	10.18	0.13	
지역	수도권	1.01	13.52	30.70	40.35	13.77	0.65	169.171 ***
	비수도권	1.82	10.82	31.64	39.79	14.58	1.35	
	대도시	1.56	10.96	29.56	40.73	16.35	0.84	383.890 ***
	중소도시	1.27	13.37	32.54	39.76	12.31	0.76	
	농어촌	1.51	11.51	31.50	38.46	13.80	3.2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02	14.92	30.47	41.91	9.50	0.18	349.988 ***
	중하층	1.58	10.98	29.56	42.48	14.71	0.69	
	중간층	1.10	12.99	32.52	37.75	14.32	1.32	
	중상층(상층)	0.96	9.01	30.24	42.85	15.72	1.2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18	12.76	32.26	39.88	12.07	0.84	622.184 ***
	200만 원대	0.99	9.84	29.59	42.89	15.69	1.00	
	300만 원대	1.82	12.16	29.92	39.26	15.54	1.31	
	400만 원대	0.61	17.80	29.72	38.82	12.11	0.94	
	500만 원 이상	0.50	15.39	41.21	29.62	12.47	0.80	
학력	중졸 이하	2.28	15.55	33.30	36.90	11.58	0.39	298.773 ***
	고졸	1.55	12.39	32.72	39.63	12.42	1.30	
	대졸 이상	1.11	11.25	29.52	41.11	16.09	0.9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8	11.57	31.71	39.96	14.61	0.87	269.74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9	14.41	27.47	39.60	15.14	0.79	
	고용주·자영자	1.25	13.49	32.26	37.45	14.54	1.01	
	무급가족종사자	1.45	16.69	32.29	37.90	11.66		
	실업자	0.99	20.12	28.30	43.08	5.77	1.74	
	비경제활동인구	1.30	10.58	31.06	42.35	13.35	1.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6	11.44	31.21	40.35	14.74	0.90	46,909 ***
	비정규직	2.04	14.23	29.95	38.46	14.62	0.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6	13.03	33.18	40.00	11.87	0.45	517,140 ***
	중도적	1.31	14.32	32.11	37.74	13.46	1.06	
	진보적	1.50	8.49	28.12	43.31	17.17	1.42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무언가를 구매한 것이 즐겁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6〉 물질주의: (12) 고가의 사치품을 좋아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8.67	32.38	30.19	20.81	7.59	0.35	
성별	남성	9.54	34.86	29.90	18.96	6.42	0.32	265.684
	여성	7.79	29.84	30.48	22.71	8.79	0.39	***
연령대	20대 이하	7.08	30.73	27.55	26.07	8.27	0.29	518.038
	30대	6.43	32.19	30.88	20.46	9.35	0.70	
	40대	9.05	34.51	30.25	18.91	7.05	0.23	
	50대	8.57	29.78	34.25	20.02	6.95	0.42	
	60대	11.25	33.69	28.99	18.52	7.26	0.29	
	70대	11.74	35.37	26.37	20.66	5.86		
지역	수도권	6.65	33.57	32.04	20.29	7.20	0.25	288.866
	비수도권	10.71	31.18	28.33	21.34	7.98	0.46	***
	대도시	9.63	32.42	27.31	21.89	8.19	0.55	611.232
	중소도시	7.14	33.02	33.21	20.37	6.23	0.03	
	농어촌	12.58	28.50	27.49	17.94	12.29	1.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64	40.83	25.60	15.64	7.29		542.315
	중하층	9.74	31.67	27.31	23.74	7.54		
	중간층	8.10	31.03	32.97	19.77	7.57	0.56	
	중상층(상층)	5.10	36.38	29.54	19.48	8.42	1.0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31	31.89	26.95	22.36	9.08	0.39	540.366
	200만 원대	9.00	30.40	30.31	22.04	7.88	0.38	
	300만 원대	7.86	35.92	30.71	17.92	7.40	0.19	
	400만 원대	9.73	37.78	29.29	18.61	3.79	0.80	
	500만 원 이상	5.64	27.09	41.54	19.99	5.73		
학력	중졸 이하	11.15	34.18	28.56	19.81	5.84	0.47	104.681
	고졸	8.77	31.82	29.40	22.00	7.68	0.32	
	대졸 이상	8.05	32.39	31.15	20.14	7.92	0.3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95	32.46	31.90	20.24	7.05	0.40	486.7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23	27.70	29.90	21.52	9.65		
	고용주·자영자	11.68	29.15	28.66	21.71	8.48	0.32	
	무급가족종사자	10.13	29.84	29.89	24.55	5.60		
	실업자	16.91	28.29	27.13	21.92	5.75		
	비경제활동인구	6.13	36.99	28.52	20.58	7.29	0.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97	32.72	31.01	20.53	7.37	0.40	84.525
	비정규직	10.46	27.91	33.17	20.32	8.09	0.06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13	33.27	28.72	20.98	6.64	0.25	278.763
	중도적	6.96	30.81	33.54	20.33	8.05	0.31	
	진보적	9.74	33.74	26.90	21.33	7.80	0.50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좋아하는’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5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87〉 물질주의: (13)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해 나는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67	16.26	38.03	32.74	11.64	0.65	
성별	남성	0.68	16.73	38.56	32.13	11.45	0.46	39,875
	여성	0.65	15.79	37.50	33.38	11.83	0.85	***
연령대	20대 이하	0.27	13.61	34.57	37.51	13.16	0.89	510,147
	30대	0.65	18.39	38.19	29.36	12.72	0.70	
	40대	1.62	16.27	41.23	30.14	10.06	0.68	
	50대	0.36	18.66	38.16	31.40	10.84	0.59	
	60대	0.65	13.05	38.39	35.56	11.95	0.41	
	70대	0.08	17.26	36.66	34.15	11.30	0.55	
지역	수도권	0.73	17.24	37.99	32.02	11.19	0.84	62,342
	비수도권	0.60	15.29	38.08	33.48	12.09	0.47	***
	대도시	0.81	15.37	35.71	34.24	13.10	0.77	297,049
	중소도시	0.62	16.82	40.51	31.60	10.10	0.35	
	농어촌	0.25	17.61	35.59	31.73	13.05	1.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7	18.07	30.50	37.12	11.50	1.44	260,889
	중하층	0.44	15.84	37.88	33.91	11.43	0.50	
	중간층	0.74	16.84	39.37	30.67	11.67	0.70	
	중상층(상층)	0.47	11.94	37.49	37.24	12.70	0.1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1	16.06	36.24	33.68	12.87	0.54	368,505
	200만 원대	0.31	13.92	38.51	34.73	11.91	0.62	
	300만 원대	1.27	20.02	37.01	29.95	10.86	0.89	
	400만 원대	0.88	16.18	43.98	28.73	9.54	0.69	
	500만 원 이상	0.67	18.17	37.97	32.16	10.54	0.49	
학력	중졸 이하	0.16	17.11	35.75	33.71	12.84	0.43	153,077
	고졸	0.45	16.02	40.31	32.46	10.25	0.52	
	대졸 이상	0.95	16.26	36.82	32.74	12.43	0.8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9	16.27	38.84	31.72	11.43	0.96	346,5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74	19.68	33.37	34.59	11.35	0.28	
	고용주·자영자	0.50	13.28	38.03	34.16	13.72	0.31	
	무급가족종사자		16.76	35.19	35.04	11.78	1.23	
	실업자		18.33	24.27	34.71	22.69		
	비경제활동인구	0.62	16.84	39.54	32.52	9.98	0.5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79	16.09	38.19	32.32	11.62	1.00	58,720
	비정규직	0.76	19.53	36.60	32.06	10.75	0.30	***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1	14.72	36.55	36.35	11.61	0.25	206,229
	중도적	0.64	17.79	39.45	30.54	10.84	0.73	
	진보적	0.83	15.53	37.40	32.59	12.76	0.89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해 나는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8〉 물질주의: (14) 나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1.41	17.37	38.74	31.25	11.00	0.23	
성별	남성	1.72	17.85	38.38	31.18	10.71	0.16	48.410
	여성	1.10	16.87	39.10	31.32	11.30	0.31	***
연령대	20대 이하	1.58	16.98	30.24	38.39	12.68	0.13	602.699
	30대	1.55	15.66	41.17	30.08	11.30	0.24	
	40대	1.13	19.21	38.20	29.63	11.51	0.32	
	50대	1.31	15.66	41.80	31.20	9.66	0.37	
	60대	1.65	16.81	40.20	31.48	9.79	0.07	
	70대	1.28	22.57	43.28	21.74	10.93	0.20	
지역	수도권	1.57	18.78	37.19	30.30	11.94	0.22	126.116
	비수도권	1.26	15.95	40.29	32.20	10.06	0.25	***
	대도시	1.79	16.01	35.03	32.67	14.16	0.34	596.981
	중소도시	1.12	18.76	41.58	30.50	7.96	0.08	
	농어촌	1.24	16.22	41.18	28.37	12.39	0.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04	19.63	39.99	26.17	8.16		996.978
	중하층	1.52	18.65	37.97	31.33	10.32	0.20	
	중간층	0.76	17.11	39.49	31.61	10.82	0.21	
	중상층(상층)	0.36	9.91	35.54	34.02	19.28	0.8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9	19.37	40.52	28.22	10.03	0.27	485.546
	200만 원대	1.14	15.22	34.84	35.73	12.81	0.26	
	300만 원대	1.81	18.43	41.25	29.32	8.96	0.23	
	400만 원대	1.77	16.31	42.14	29.62	9.94	0.22	
	500만 원 이상	0.51	19.28	40.76	26.76	12.68		
학력	중졸 이하	2.06	23.89	42.19	21.18	10.51	0.17	445.712
	고졸	1.22	17.74	39.24	32.24	9.36	0.20	
	대졸 이상	1.42	15.61	37.57	32.76	12.37	0.2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6	16.60	39.16	31.61	11.26	0.21	215.99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2	20.37	38.50	27.13	11.28	0.30	
	고용주·자영자	1.78	15.07	38.65	33.93	10.38	0.19	
	무급가족종사자	0.72	16.70	39.43	34.53	8.62		
	실업자	1.53	24.48	32.44	25.90	15.65		
	비경제활동인구	1.23	18.81	38.45	30.44	10.76	0.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1	16.35	38.74	31.87	11.62	0.21	96.337
	비정규직	2.00	20.35	39.97	27.24	10.15	0.29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0	19.38	39.42	28.98	11.15	0.07	207.611
	중도적	1.63	16.89	40.45	30.91	9.86	0.27	
	진보적	1.49	16.25	35.80	33.70	12.44	0.33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나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89〉 물질주의: (15)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1.77	15.17	33.55	37.17	11.77	0.57	
성별	남성	1.75	15.29	35.36	36.51	10.48	0.61	107.484 ****
	여성	1.78	15.04	31.71	37.86	13.09	0.53	
연령대	20대 이하	2.15	11.23	30.40	40.57	15.30	0.35	863.445 ****
	30대	2.10	11.29	37.27	37.16	11.00	1.18	
	40대	1.48	14.98	32.67	38.45	12.00	0.41	
	50대	1.59	16.57	33.92	35.27	11.85	0.80	
	60대	2.15	16.77	35.25	37.30	8.24	0.29	
	70대	0.71	26.08	30.78	31.23	11.12	0.08	
지역	수도권	2.70	17.83	33.89	34.56	10.66	0.37	547.278 ****
	비수도권	0.83	12.49	33.22	39.80	12.88	0.77	
	대도시	2.25	12.90	31.33	39.55	13.57	0.40	668.105 ****
	중소도시	1.52	18.17	35.88	34.32	9.50	0.62	
	농어촌	0.80	9.46	31.51	41.47	15.60	1.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6	18.45	30.79	38.71	8.70		351.391 ****
	중하층	2.14	12.63	33.38	39.97	11.28	0.61	
	중간층	1.43	16.52	33.61	35.11	12.72	0.61	
	중상층(상층)	0.51	14.38	37.32	36.36	10.69	0.7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2	16.82	31.61	38.09	11.26	0.80	925.936 ****
	200만 원대	1.06	11.12	32.52	40.88	14.22	0.20	
	300만 원대	2.68	16.12	34.54	34.97	10.88	0.81	
	400만 원대	3.26	21.88	36.25	29.21	8.41	0.99	
	500만 원 이상	2.19	19.08	40.13	30.62	7.53	0.45	
학력	중졸 이하	0.78	26.65	28.77	33.09	10.42	0.29	610.117 ****
	고졸	1.71	14.14	35.22	37.24	11.00	0.69	
	대졸 이상	2.04	13.36	33.36	38.05	12.66	0.5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8	14.06	33.10	38.68	11.96	0.73	325.93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9	17.86	28.54	39.86	11.20	0.06	
	고용주·자영자	2.06	12.90	33.68	37.23	13.30	0.83	
	무급가족종사자	2.36	17.80	33.88	34.33	11.63		
	실업자	0.73	15.42	39.96	30.95	12.94		
	비경제활동인구	1.79	17.50	36.01	33.83	10.48	0.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8	13.37	33.44	38.80	12.28	0.63	158.409 ****
	비정규직	2.27	19.24	28.42	39.22	10.35	0.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6	15.72	33.51	37.74	11.53	0.54	481.065 ****
	중도적	1.74	15.18	37.84	34.00	10.90	0.35	
	진보적	2.51	14.66	27.73	41.02	13.17	0.90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가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0〉 물질주의: (16) 더 좋은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3.24	25.43	37.21	24.68	9.12	0.31	
성별	남성	3.27	27.19	37.28	22.76	9.18	0.31	115,011
	여성	3.21	23.63	37.15	26.64	9.06	0.30	***
연령대	20대 이하	3.44	22.46	33.66	29.75	10.57	0.13	336,219
	30대	3.47	24.96	38.77	23.49	8.79	0.53	
	40대	2.38	27.99	36.69	22.64	9.85	0.44	
	50대	2.90	26.36	38.65	23.60	8.32	0.16	
	60대	3.67	23.69	39.26	24.40	8.52	0.46	
	70대	4.47	27.55	35.79	24.20	8.00		
지역	수도권	3.35	28.00	35.99	23.46	8.94	0.25	156,863
	비수도권	3.13	22.85	38.45	25.90	9.31	0.36	***
	대도시	3.41	23.73	36.30	25.29	10.88	0.39	387,450
	중소도시	3.12	27.54	37.73	24.54	6.94	0.12	
	농어촌	3.08	22.01	38.83	22.36	12.74	0.9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8	21.20	34.31	28.57	8.46	0.18	340,216
	중하층	2.65	26.11	36.83	25.43	8.59	0.40	
	중간층	3.10	26.12	38.17	23.07	9.32	0.23	
	중상층(상층)	2.68	21.69	35.39	28.43	11.24	0.5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12	22.53	37.50	25.70	10.56	0.58	576,408
	200만 원대	2.67	23.08	37.17	27.21	9.57	0.29	
	300만 원대	3.76	27.83	36.77	22.44	9.08	0.12	
	400만 원대	3.51	34.42	35.59	21.41	4.84	0.22	
	500만 원 이상	4.80	30.45	39.81	18.19	6.75		
학력	중졸 이하	4.10	25.39	39.11	25.03	6.16	0.21	98,787
	고졸	2.92	24.69	37.46	25.58	9.05	0.30	
	대졸 이상	3.29	26.01	36.60	23.91	9.85	0.3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5	24.64	37.83	24.62	9.38	0.37	361,11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0	22.95	33.76	31.93	7.92	0.43	
	고용주·자영자	3.92	24.73	37.47	23.22	10.41	0.26	
	무급가족종사자	2.90	16.46	42.48	31.39	6.77		
	실업자	3.11	37.67	29.74	15.35	14.13		
	비경제활동인구	3.05	28.37	37.43	22.84	8.10	0.2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5	24.68	37.94	24.76	9.41	0.36	85,933
	비정규직	3.98	23.19	34.29	29.93	8.15	0.46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9	24.57	38.50	26.06	8.46	0.42	202,502
	중도적	2.97	26.55	36.09	24.43	9.72	0.24	
	진보적	4.71	24.66	37.63	23.81	8.89	0.30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더 좋은 것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6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91〉 물질주의: (17)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1.91	15.19	34.22	36.55	11.51	0.61	
성별	남성	1.99	16.28	34.04	35.56	11.49	0.64	46,360 ****
	여성	1.83	14.08	34.40	37.56	11.53	0.59	
연령대	20대 이하	1.72	10.10	29.95	46.23	11.48	0.52	798,724 ****
	30대	2.95	15.03	30.43	37.32	13.17	1.09	
	40대	2.19	15.68	36.97	32.72	11.84	0.61	
	50대	1.61	17.11	35.77	34.22	11.12	0.18	
	60대	1.37	15.75	39.08	33.12	10.31	0.36	
	70대	1.18	19.76	32.57	34.80	10.33	1.36	
지역	수도권	2.52	16.94	34.12	35.94	10.14	0.34	287,359 ****
	비수도권	1.30	13.44	34.32	37.16	12.88	0.89	
	대도시	2.04	14.27	32.46	38.18	12.44	0.61	743,577 ****
	중소도시	1.87	16.51	36.34	35.63	9.43	0.21	
	농어촌	1.48	12.34	30.99	33.65	18.60	2.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9	17.97	29.03	38.25	10.25	1.31	385,035 ****
	중하층	1.86	12.95	31.69	40.61	12.40	0.48	
	중간층	1.77	16.47	36.50	33.83	10.84	0.59	
	중상층(상층)	1.72	13.97	36.24	33.93	13.41	0.7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3	15.71	32.47	37.20	12.54	1.06	1,178,134 ****
	200만 원대	1.29	11.56	31.73	41.57	13.40	0.46	
	300만 원대	2.55	16.61	36.94	33.98	9.52	0.41	
	400만 원대	4.76	20.09	38.17	28.67	7.52	0.79	
	500만 원 이상	3.09	22.22	40.97	24.99	8.60	0.13	
학력	중졸 이하	0.75	22.00	30.65	35.39	9.80	1.41	426,191 ****
	고졸	1.70	13.53	37.00	36.91	10.61	0.25	
	대졸 이상	2.34	14.92	32.90	36.54	12.58	0.7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7	14.58	33.70	38.04	11.65	0.55	238,60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9	16.90	31.09	37.93	11.68	0.20	
	고용주·자영자	2.65	15.20	33.26	35.58	12.35	0.96	
	무급가족종사자	2.36	8.24	45.76	32.74	10.89		
	실업자	3.02	15.25	29.85	40.51	11.37		
	비경제활동인구	1.95	16.07	36.62	34.00	10.62	0.7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4	14.70	32.84	38.53	11.85	0.53	20,768 ****
	비정규직	1.84	16.03	34.37	36.40	11.03	0.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9	16.01	36.00	34.49	11.70	0.61	485,983 ****
	중도적	1.82	16.25	36.97	33.34	10.99	0.62	
	진보적	2.67	13.03	28.89	42.75	12.05	0.61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2〉 물질주의: (18)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살 여력이 없을 때 힘들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2.30	18.60	38.15	32.31	8.21	0.43	
성별	남성	2.50	19.46	38.13	32.28	7.17	0.45	80.765
	여성	2.10	17.71	38.17	32.33	9.28	0.41	***
연령대	20대 이하	2.48	14.52	37.98	36.52	7.49	1.01	346.108
	30대	2.60	19.52	37.12	31.06	9.37	0.32	
	40대	2.38	20.48	37.30	30.95	8.54	0.36	
	50대	1.87	20.03	38.82	30.19	8.70	0.39	
	60대	2.81	17.72	37.67	34.62	6.95	0.23	
	70대	1.22	19.03	41.96	30.20	7.58		
지역	수도권	2.91	20.02	41.62	27.52	7.59	0.34	565.171
	비수도권	1.69	17.17	34.67	37.12	8.84	0.52	***
	대도시	3.23	16.45	35.12	35.53	9.12	0.55	580.434
	중소도시	1.40	20.96	40.92	29.25	7.28	0.19	
	농어촌	2.77	15.96	37.62	33.53	8.94	1.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81	15.02	31.20	36.81	11.16		684.729
	중하층	2.15	16.39	37.38	34.15	9.82	0.11	
	중간층	2.02	19.86	39.75	30.74	6.89	0.74	
	중상층(상층)	1.07	24.84	38.24	29.23	6.33	0.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90	16.28	35.75	35.13	10.41	0.53	1,091.434
	200만 원대	1.66	15.08	38.30	34.67	9.79	0.50	
	300만 원대	2.73	22.50	40.25	27.52	6.68	0.32	
	400만 원대	4.68	23.60	40.75	28.29	2.26	0.42	
	500만 원 이상	2.92	28.10	36.83	28.61	3.53		
학력	중졸 이하	1.41	20.91	36.48	31.24	9.54	0.42	90.998
	고졸	2.34	17.41	38.88	33.50	7.55	0.32	
	대졸 이상	2.47	18.98	37.98	31.64	8.42	0.5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8	17.92	39.07	32.38	7.80	0.66	389.323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6	16.58	33.44	34.08	12.91	0.23	
	고용주·자영자	2.74	19.95	35.29	32.44	9.23	0.35	
	무급가족종사자	3.41	13.05	46.25	29.12	8.17		
	실업자	0.45	17.31	35.06	41.93	5.25		
	비경제활동인구	2.03	20.16	40.19	30.99	6.41	0.2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3	17.79	38.37	32.97	8.06	0.49	54.495
	비정규직	2.18	17.28	36.83	31.87	11.00	0.84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0	15.76	38.87	35.06	8.34	0.37	209.208
	중도적	2.27	19.35	38.80	31.01	7.93	0.65	
	진보적	2.97	20.07	36.63	31.66	8.49	0.18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살 여력이 없을 때 힘들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3〉 비교성향: (1) 내가 살면서 이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1.73	17.08	32.44	38.80	9.70	0.26	
성별	남성	1.46	18.16	33.18	38.35	8.65	0.20	110.351 ***
	여성	2.00	15.97	31.68	39.25	10.77	0.32	
연령대	20대 이하	1.23	10.94	27.64	50.91	9.29		1,050.815 ***
	30대	2.40	17.14	34.48	33.82	11.47	0.69	
	40대	1.52	18.63	32.08	37.08	10.15	0.54	
	50대	1.75	16.36	32.67	37.69	11.53		
	60대	2.02	20.51	34.21	36.11	6.96	0.19	
	70대	1.33	22.35	35.80	34.45	6.06		
지역	수도권	1.53	20.48	34.34	35.16	8.37	0.12	587.107 ***
	비수도권	1.93	13.66	30.53	42.45	11.04	0.40	
	대도시	1.86	14.97	32.54	39.14	11.30	0.19	474.033 ***
	중소도시	1.56	19.76	32.97	37.74	7.80	0.17	
	농어촌	1.99	12.40	28.93	43.10	12.50	1.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8	18.67	33.54	36.87	6.15	0.79	693.602 ***
	중하층	2.05	13.96	31.90	43.12	8.82	0.15	
	중간층	1.18	18.43	33.35	36.88	9.87	0.29	
	중상층(상층)	1.59	21.23	27.05	32.90	17.2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3	14.87	28.87	43.09	10.31	0.52	1,368.892 ***
	200만 원대	1.10	14.07	29.90	43.73	10.97	0.23	
	300만 원대	2.22	20.81	33.34	35.48	8.07	0.09	
	400만 원대	1.00	22.42	41.49	26.76	8.12	0.21	
	500만 원 이상	2.21	23.48	45.55	21.21	7.55		
학력	중졸 이하	2.42	20.07	31.79	37.96	7.76		145.555 ***
	고졸	1.44	16.18	32.04	40.99	9.11	0.24	
	대졸 이상	1.79	17.08	32.89	37.32	10.59	0.3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3	17.10	32.81	38.01	10.33	0.32	227.32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7	16.58	28.45	41.71	10.51	0.28	
	고용주·자영자	2.29	18.66	31.72	37.60	9.59	0.15	
	무급가족종사자	0.55	16.02	30.61	46.90	5.92		
	실업자	0.53	16.42	21.12	52.88	9.04		
	비경제활동인구	1.69	16.19	34.77	38.47	8.61	0.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3	16.47	33.43	37.85	10.42	0.30	77.408 ***
	비정규직	1.95	18.69	27.40	41.45	10.17	0.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8	19.26	33.75	37.07	8.54	0.10	420.259 ***
	중도적	1.70	15.85	35.75	37.03	9.48	0.19	
	진보적	2.16	16.83	26.76	42.73	11.03	0.49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내가 살면서 이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4〉 비교성향: (2)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2.70	18.13	34.50	29.62	14.50	0.54	
성별	남성	2.83	19.48	35.78	28.26	13.16	0.50	144.800
	여성	2.58	16.76	33.20	31.01	15.88	0.58	***
연령대	20대 이하	2.08	12.96	32.27	35.41	16.91	0.37	529.675
	30대	3.42	19.91	30.95	30.13	14.88	0.72	
	40대	2.93	19.25	35.38	27.84	13.76	0.85	
	50대	2.20	17.27	36.49	28.34	15.11	0.59	
	60대	3.21	21.44	34.94	28.75	11.44	0.22	
	70대	2.39	19.35	39.06	24.84	14.10	0.25	
지역	수도권	3.44	21.57	34.71	27.90	12.04	0.35	597.749
	비수도권	1.97	14.68	34.29	31.34	16.98	0.74	***
	대도시	3.33	15.76	36.28	29.28	14.74	0.61	668.109
	중소도시	2.09	20.42	34.50	29.19	13.68	0.12	
	농어촌	3.05	17.05	25.59	33.74	18.00	2.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67	18.19	33.86	26.99	13.68	0.60	647.237
	중하층	3.21	14.95	31.96	33.51	16.08	0.28	
	중간층	1.78	19.75	36.31	27.84	13.67	0.65	
	중상층(상층)	2.43	22.47	34.80	25.73	13.53	1.0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5	17.13	32.19	30.06	17.38	0.69	730.467
	200만 원대	2.36	14.94	34.00	31.68	16.41	0.60	
	300만 원대	3.39	21.18	34.20	29.30	11.55	0.38	
	400만 원대	2.48	24.73	38.88	25.25	8.26	0.41	
	500만 원 이상	3.30	21.40	41.50	23.27	10.25	0.28	
학력	중졸 이하	3.13	18.63	35.63	27.88	14.36	0.38	61.054
	고졸	2.42	17.62	34.76	30.74	14.12	0.34	
	대졸 이상	2.82	18.41	34.05	29.15	14.83	0.7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7	18.82	34.55	28.61	14.67	0.77	192.26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2	17.98	31.20	30.89	15.71	0.31	
	고용주·자영자	3.42	15.62	35.26	30.40	14.94	0.36	
	무급가족종사자	2.06	17.42	36.79	31.20	11.81	0.72	
	실업자	2.30	16.95	43.21	26.70	10.85		
	비경제활동인구	1.98	18.91	34.59	30.39	13.77	0.3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7	18.71	34.33	28.72	14.96	0.71	23.628
	비정규직	3.64	18.53	32.59	30.03	14.59	0.62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3	19.38	37.11	26.87	14.28	0.43	374.680
	중도적	2.47	17.56	36.44	30.31	12.79	0.43	
	진보적	3.70	17.82	29.55	31.09	17.05	0.79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5〉 비교성향: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82	16.80	33.06	33.72	14.33	1.27	
성별	남성	0.91	16.77	32.11	33.51	15.55	1.15	63,969 ****
	여성	0.73	16.83	34.03	33.93	13.10	1.39	
연령대	20대 이하	0.32	16.28	31.55	37.89	12.75	1.21	265,301 ****
	30대	0.99	17.90	34.81	30.97	13.69	1.64	
	40대	1.42	16.41	34.59	32.78	13.72	1.08	
	50대	0.67	16.98	31.41	33.65	15.85	1.44	
	60대	0.86	15.45	31.89	33.85	16.88	1.07	
	70대	0.46	18.48	35.12	32.59	12.40	0.94	
지역	수도권	0.59	17.33	34.17	34.74	12.04	1.14	221,537 ****
	비수도권	1.06	16.27	31.95	32.69	16.64	1.39	
	대도시	0.47	13.15	31.07	39.49	14.59	1.24	826,091 ****
	중소도시	1.06	20.60	34.09	29.59	13.61	1.05	
	농어촌	1.27	13.56	37.18	28.21	17.16	2.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6	16.37	30.98	34.27	15.16	1.96	288,685 ****
	중하층	0.38	16.28	30.75	35.82	15.11	1.66	
	중간층	1.12	17.83	34.56	31.98	13.52	0.99	
	중상층(상층)	0.40	12.26	36.18	35.20	15.54	0.4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80	15.39	32.98	33.01	16.33	1.50	589,698 ****
	200만 원대	0.62	14.87	31.68	37.50	14.19	1.14	
	300만 원대	0.87	17.44	35.00	32.36	12.81	1.52	
	400만 원대	2.20	19.93	36.25	27.25	13.30	1.07	
	500만 원 이상	0.13	26.68	30.75	28.47	13.48	0.49	
학력	중졸 이하	0.64	16.82	36.03	29.49	15.31	1.71	181,124 ****
	고졸	0.93	15.93	33.34	36.04	13.05	0.71	
	대졸 이상	0.78	17.46	32.18	32.90	15.09	1.5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1	17.34	32.51	34.33	13.59	1.72	723,59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69	16.57	30.59	34.33	16.78	1.02	
	고용주·자영자	1.44	15.79	27.24	35.27	18.69	1.57	
	무급가족종사자	2.41	14.91	37.21	32.29	13.16		
	실업자		21.06	17.45	43.19	17.77	0.53	
	비경제활동인구	0.93	16.55	39.99	30.75	11.34	0.4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7	17.27	32.22	34.46	13.84	1.84	74,728 ****
	비정규직	1.10	16.94	31.90	33.94	15.31	0.8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0	15.24	30.61	38.22	14.48	0.84	289,761 ****
	중도적	1.03	18.37	33.75	32.79	12.90	1.16	
	진보적	0.74	16.02	34.27	31.02	16.17	1.78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6〉 비교성향: (4) 나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85	11.90	34.14	38.82	13.81	0.48	
성별	남성	0.81	13.16	34.22	38.05	13.35	0.40	75,292
	여성	0.88	10.61	34.06	39.61	14.29	0.55	***
연령대	20대 이하	0.38	8.81	26.78	45.44	18.20	0.39	845,623
	30대	0.90	10.96	34.43	38.98	14.02	0.71	
	40대	0.93	14.92	33.39	38.22	12.32	0.22	
	50대	0.83	13.16	37.72	34.64	13.00	0.65	
	60대	0.61	10.45	40.65	37.61	10.03	0.66	
	70대	1.98	12.82	31.14	37.99	16.07		
지역	수도권	0.59	14.67	33.72	37.92	12.82	0.28	373,494
	비수도권	1.10	9.12	34.56	39.74	14.81	0.67	***
	대도시	0.59	10.55	32.40	37.79	18.05	0.63	1,068,949
	중소도시	1.03	13.80	35.93	40.29	8.78	0.18	
	농어촌	1.13	7.92	32.70	35.71	21.13	1.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9	13.64	34.99	39.70	9.71	0.16	298,488
	중하층	0.53	10.59	34.90	40.72	12.87	0.39	
	중간층	0.96	13.10	33.59	37.23	14.61	0.52	
	중상층(상층)	0.55	7.61	33.36	39.95	17.59	0.9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2	11.32	33.24	39.30	14.78	0.75	1,140,120
	200만 원대	0.34	9.04	34.21	40.32	15.84	0.26	
	300만 원대	2.48	12.44	31.73	40.70	12.24	0.41	
	400만 원대	0.37	17.92	36.75	35.59	8.62	0.74	
	500만 원 이상		20.25	41.35	27.27	10.66	0.46	
학력	중졸 이하	0.18	13.03	38.26	36.08	11.98	0.46	244,033
	고졸	1.12	10.12	35.69	39.96	12.57	0.55	
	대졸 이상	0.79	13.00	32.03	38.58	15.17	0.4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4	12.63	32.45	38.72	14.77	0.38	379,37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8	11.03	31.91	42.12	13.14	0.12	
	고용주·자영자	0.61	9.59	38.75	37.41	12.94	0.70	
	무급가족종사자		15.32	41.05	36.60	7.03		
	실업자		3.53	30.09	46.89	19.49		
	비경제활동인구	0.41	12.88	34.51	38.35	13.16	0.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8	12.44	32.25	38.65	15.17	0.41	52,101
	비정규직	1.44	11.99	32.66	41.61	12.20	0.09	***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1	9.17	38.89	37.70	13.16	0.57	567,318
	중도적	0.84	14.30	35.38	36.36	12.62	0.50	
	진보적	1.15	11.02	28.27	43.18	16.02	0.36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나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7〉 비교성향: (5)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1.15	11.00	34.67	37.52	14.96	0.69	
성별	남성	1.32	11.76	34.25	37.40	14.59	0.68	37.825 ***
	여성	0.99	10.22	35.10	37.65	15.34	0.69	
연령대	20대 이하	1.49	6.93	28.24	43.01	19.92	0.42	703.445 ***
	30대	0.47	11.47	37.07	37.88	12.52	0.59	
	40대	1.78	11.69	34.34	35.94	14.96	1.29	
	50대	1.03	12.20	36.01	36.85	13.21	0.70	
	60대	1.37	11.71	36.81	35.86	13.58	0.67	
	70대	0.32	12.98	37.40	33.16	16.08	0.05	
지역	수도권	1.39	11.99	34.82	35.56	15.81	0.42	163.013 ***
	비수도권	0.92	10.00	34.52	39.49	14.11	0.96	
	대도시	1.56	9.14	32.64	37.97	17.85	0.85	676.098 ***
	중소도시	0.89	12.66	37.84	36.26	12.02	0.33	
	농어촌	0.64	10.89	26.88	42.46	17.20	1.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1	9.10	38.58	33.26	14.87	0.48	514.816 ***
	중하층	0.77	10.11	35.03	39.14	14.24	0.71	
	중간층	1.07	12.39	34.39	36.59	15.08	0.48	
	중상층(상층)	0.83	7.31	30.41	41.07	18.02	2.3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7	10.02	35.20	36.77	16.21	0.73	693.033 ***
	200만 원대	0.87	8.71	32.22	41.27	16.36	0.57	
	300만 원대	1.91	13.21	33.72	38.05	12.50	0.61	
	400만 원대	0.79	14.30	41.72	29.32	12.38	1.49	
	500만 원 이상	1.19	16.08	39.81	29.02	13.54	0.35	
학력	중졸 이하	0.24	14.84	32.51	37.20	14.63	0.59	151.420 ***
	고졸	1.24	9.95	36.12	37.39	14.78	0.52	
	대졸 이상	1.30	10.93	34.06	37.69	15.18	0.8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0	10.25	34.19	38.26	15.34	0.86	429.86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5	11.74	32.02	35.77	17.38	0.74	
	고용주·자영자	0.89	13.29	31.88	41.51	11.76	0.68	
	무급가족종사자	1.26	15.78	37.01	35.65	10.30		
	실업자		6.55	40.76	44.12	8.57		
	비경제활동인구	1.01	10.28	38.21	33.75	16.31	0.4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3	10.18	34.30	38.20	15.31	0.88	49.026 ***
	비정규직	1.97	11.66	32.12	36.50	17.06	0.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2	8.85	36.66	37.96	15.23	0.57	562.524 ***
	중도적	1.26	13.88	36.78	34.17	13.18	0.73	
	진보적	1.39	8.94	30.05	41.71	17.17	0.73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98〉 비교성향: (6) 내가 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다소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χ^2
전체		0.62	10.35	35.87	40.46	12.28	0.42	
성별	남성	0.61	11.11	35.72	40.98	11.13	0.45	73.670
	여성	0.64	9.58	36.03	39.92	13.46	0.38	***
연령대	20대 이하	0.38	6.64	29.02	50.07	13.66	0.22	720.000
	30대	0.77	11.96	38.08	36.69	11.80	0.70	
	40대	1.01	10.86	35.53	38.09	13.87	0.64	
	50대	0.43	11.84	35.43	41.02	10.95	0.33	
	60대	0.61	11.29	39.65	38.33	9.82	0.30	
	70대	0.40	8.49	41.42	35.49	14.07	0.13	
지역	수도권	0.63	12.13	36.54	39.57	10.83	0.30	224.548
	비수도권	0.62	8.57	35.19	41.35	13.74	0.53	***
	대도시	0.70	10.53	33.78	39.21	15.40	0.37	721.702
	중소도시	0.42	10.55	38.73	41.58	8.36	0.36	
	농어촌	1.38	8.36	30.10	40.32	18.88	0.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7	11.10	42.46	36.50	9.36		444.155
	중하층	0.93	8.54	34.81	43.30	12.01	0.40	
	중간층	0.44	12.21	35.63	39.04	12.17	0.51	
	중상층(상층)	0.43	4.89	35.48	40.95	17.98	0.2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87	8.00	37.69	41.54	11.66	0.26	1,119.810
	200만 원대	0.52	8.78	30.74	44.10	15.46	0.39	
	300만 원대	0.73	11.40	37.09	40.42	9.89	0.48	
	400만 원대	0.41	15.28	44.17	30.24	8.82	1.08	
	500만 원 이상	0.15	18.37	42.18	29.80	9.34	0.15	
학력	중졸 이하	0.60	10.12	41.76	37.01	10.33	0.18	124.414
	고졸	0.54	9.83	36.32	40.35	12.63	0.33	
	대졸 이상	0.69	10.80	34.20	41.32	12.45	0.5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9	10.52	34.72	42.19	11.59	0.49	412.43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65	11.76	36.77	38.54	11.97	0.31	
	고용주·자영자	0.97	11.00	34.36	39.59	13.33	0.76	
	무급가족종사자	3.45	8.56	49.73	33.57	4.68		
	실업자		2.56	32.60	43.62	21.22		
	비경제활동인구	0.43	9.56	37.91	39.06	12.92	0.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9	10.74	34.25	42.23	11.80	0.49	28.515
	비정규직	0.63	10.81	37.80	39.20	11.22	0.35	***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6	8.26	39.82	39.84	11.36	0.37	550.173
	중도적	0.57	12.64	37.45	37.98	11.06	0.30	
	진보적	0.93	9.07	30.24	44.39	14.76	0.62	

주 1) “(조사표 질문) 다음의 표현이 __님의 생각과 얼마만큼 맞는지 응답해 주십시오.”에서 ‘내가 궁금한 무언가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7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99〉 사회 신뢰

(단위: %)

구분		전혀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0	0.10	0.48	2.66	5.31	13.94	20.90	32.69	22.03	1.86	0.03		
성별	남성	0.01	0.13	0.54	2.59	5.25	14.59	19.80	32.98	22.27	1.81	0.03	52,503 ***	
	여성		0.06	0.41	2.73	5.38	13.27	22.03	32.40	21.78	1.92	0.03		
연령대	20대 이하	0.03	0.07	0.54	1.73	8.09	12.04	17.82	38.24	19.95	1.52	0.06	1,424,328 ***	
	30대		0.28	0.68	3.73	5.78	11.27	18.03	33.10	25.16	1.97			
	40대		0.10	0.59	2.53	4.32	14.68	21.96	29.17	24.34	2.30			
	50대		0.04	0.48	2.14	3.64	14.05	19.39	32.93	25.79	1.48			
	60대			0.21	3.71	5.23	16.86	20.82	34.31	17.28	1.54			
	70대		0.08	0.08	2.20	4.95	16.57	35.01	24.76	13.37	2.82			0.17
지역	수도권		0.05	0.38	2.62	6.21	11.00	20.46	32.43	25.75	1.11		746,177 ***	
	비수도권	0.01	0.15	0.58	2.70	4.42	16.89	21.35	32.95	18.28	2.62	0.05		
	대도시	0.01	0.06	0.15	2.19	3.97	13.01	21.84	34.61	22.92	1.25		487,259 ***	
	중소도시		0.15	0.66	2.78	6.75	14.51	20.19	31.00	21.50	2.42	0.03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13	4.35	3.88	15.34	20.26	32.66	20.49	1.75	0.17		
	하층	0.01	0.59	0.59	8.75	9.23	21.49	21.77	23.00	11.93	2.65	0.03	2,076,001 ***	
	중하층			0.43	2.58	5.28	16.11	24.77	32.64	16.88	1.30			
	중간층		0.05	0.49	1.91	5.18	11.09	18.40	33.35	27.36	2.12			
중상층(상층)	0.38		0.50	1.61	1.88	15.26	18.60	39.34	20.35	1.89	0.1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2	0.15	0.39	4.79	5.93	16.78	23.96	31.15	15.66	1.11	0.05	2,373,999 ***	
	200만 원대			0.58	2.06	5.48	14.75	21.36	35.63	18.87	1.27			
	300만 원대		0.12	0.63	2.01	5.25	12.50	20.67	32.45	22.43	3.87			
	400만 원대			0.21	0.86	5.09	9.60	16.63	28.16	36.75	2.70			
	500만 원 이상		0.46	0.13	1.99	2.53	8.55	12.75	29.33	43.56	0.70			
학력	중졸 이하	0.01	0.14	0.44	3.12	6.40	19.79	30.79	26.65	11.32	1.24	0.12	1,401,463 ***	
	고졸		0.13	0.30	3.12	4.53	16.01	22.27	33.31	18.44	1.88			
	대졸 이상		0.07	0.62	2.21	5.67	11.04	17.63	33.58	27.17	1.98	0.0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1	0.07	0.44	2.19	5.71	12.93	18.83	32.27	24.96	2.59	0.08	944,05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5	0.45	4.02	5.25	15.27	22.94	36.58	14.24	1.09			
	고용주·자영자		0.13	0.78	3.55	3.61	14.35	21.57	30.60	23.57	1.75			
	무급가족종사자			4.84	2.76	10.87	18.36	43.34	16.14	2.97				
	실업자			0.45	2.71	3.41	24.14	25.24	34.97	9.08				
	비경제활동인구		0.10	0.37	2.13	6.15	14.54	23.25	32.47	20.03	0.9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8	0.47	1.92	5.18	13.01	18.64	32.56	25.47	2.67		427,993 ***	
	비정규직	0.03	0.12	0.36	4.49	7.03	14.50	22.67	34.72	14.90	1.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2	0.09	0.21	3.58	4.96	18.71	23.59	31.35	15.85	1.55	0.10	1,124,547 ***	
	중도적		0.12	0.56	2.06	4.48	13.01	19.66	30.97	27.65	1.50			
	진보적		0.08	0.61	2.67	6.77	11.02	20.25	36.22	19.76	2.63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서는 우리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0〉 대인 신뢰

(단위: %)

구분		전혀 믿을 수 없다										매우 믿을 수 있다				χ^2
		0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1	0.07	0.66	2.63	4.31	16.71	24.53	29.36	18.67	3.04					
성별	남성	0.02	0.10	0.57	2.60	4.09	16.93	25.01	28.62	18.67	3.39			51,607 ***		
	여성		0.03	0.76	2.66	4.53	16.49	24.04	30.13	18.68	2.69					
연령대	20대 이하	0.06	0.09	0.62	2.15	5.56	15.32	25.45	30.08	17.71	3.02			662,988 ***		
	30대		0.16	1.19	3.10	3.78	16.01	20.58	29.69	22.67	2.81					
	40대		0.05	0.52	3.04	3.29	17.65	24.44	28.12	18.67	4.17					
	50대		0.04	0.41	2.34	3.45	15.68	23.58	29.83	21.66	3.01					
	60대		0.03	0.74	2.60	4.47	18.17	27.83	30.14	13.47	2.55					
	70대			0.50	2.45	6.98	18.99	27.61	27.59	14.06	1.82					
지역	수도권			0.47	3.07	4.04	14.48	22.93	29.62	21.86	3.52			516,791 ***		
	비수도권	0.02	0.13	0.86	2.19	4.57	18.95	26.13	29.11	15.47	2.57					
	대도시			0.44	3.05	3.17	14.80	24.65	31.59	20.37	1.95			562,450 ***		
	중소도시 농어촌	0.02	0.08	0.70	2.25	5.20	18.14	24.61	27.20	17.95	3.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3	0.12	0.97	8.75	8.46	24.04	25.94	21.68	7.76	2.26			2,081,081 ***		
	중하층		0.05	0.83	3.56	4.83	17.46	27.96	27.92	15.49	1.87					
	중간층		0.01	0.52	1.21	3.37	15.63	21.16	31.28	22.70	4.11					
	중상층(상층)		0.50	0.53	1.35	3.78	12.42	30.39	31.40	17.58	2.0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4	0.16	1.01	3.53	6.72	19.31	26.76	27.89	13.46	1.12			2,294,972 ***		
	200만 원대		0.04	0.24	2.30	4.15	18.11	27.34	28.97	16.10	2.75					
	300만 원대			0.98	2.60	3.58	15.68	24.51	26.64	22.76	3.25					
	400만 원대			0.78	1.33	2.26	13.70	14.13	35.92	24.91	6.98					
	500만 원 이상			0.11	0.51	2.71	0.76	6.18	14.05	37.20	32.08	6.39				
학력	중졸 이하		0.12	0.87	2.77	6.07	23.46	31.23	24.03	10.26	1.19			1,036,066 ***		
	고졸			0.73	3.14	4.45	17.62	25.89	29.68	15.95	2.54					
	대졸 이상	0.02	0.10	0.57	2.21	3.80	14.50	21.98	30.32	22.65	3.8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7	0.05	0.54	2.36	4.06	15.85	23.92	26.99	22.43	3.81			980,57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9	1.16	5.04	2.65	17.92	28.82	30.66	11.38	2.28					
	고용주·자영자			0.96	2.66	3.56	17.91	24.62	30.67	15.70	3.84					
	무급가족종사자			0.67	2.55	3.91	16.27	27.47	38.96	10.16						
	실업자			1.73	0.48	4.55	23.93	23.07	37.19	9.04						
	비경제활동인구			0.14	0.41	2.20	6.03	16.50	23.62	31.04	18.29	1.7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6	0.53	2.29	3.83	15.26	24.21	27.05	22.74	4.04			420,532 ***		
	비정규직		0.07	1.04	4.69	3.68	19.34	26.86	29.69	12.74	1.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3	0.12	0.48	3.60	5.14	19.85	27.98	27.73	12.80	2.30			873,055 ***		
	중도적		0.01	0.55	2.67	3.06	15.87	22.30	29.00	22.67	3.85					
	진보적		0.09	0.99	1.72	5.29	15.11	24.54	31.30	18.37	2.59					

주 1) "(조사표 질문) ____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7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01〉 단체 신뢰: (1) 언론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16.95	42.55	37.33	3.17	
성별	남성	18.07	44.41	35.05	2.47	189,339 ***
	여성	15.81	40.66	39.65	3.88	
연령대	20대 이하	10.90	44.02	42.03	3.05	924,301 ***
	30대	20.72	42.61	33.54	3.12	
	40대	21.95	43.04	31.90	3.12	
	50대	19.20	39.46	37.80	3.54	
	60대	15.75	44.78	35.91	3.57	
	70대	6.75	41.82	49.44	1.99	
지역	수도권	21.49	36.57	37.75	4.19	993,353 ***
	비수도권	12.40	48.56	36.90	2.14	
	대도시	15.96	43.21	38.58	2.25	
	중소도시	18.45	42.60	35.19	3.76	
	농어촌	13.39	39.04	43.19	4.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74	51.03	34.25	3.98	1,035,796 ***
	중하층	10.85	47.01	39.23	2.91	
	중간층	22.43	38.34	35.98	3.26	
	중상층(상층)	14.72	41.27	41.20	2.8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02	44.95	42.83	3.20	2,605,039 ***
	200만 원대	13.99	45.25	38.31	2.45	
	300만 원대	18.31	41.48	37.24	2.97	
	400만 원대	31.95	30.04	31.63	6.38	
	500만 원 이상	40.17	38.08	18.35	3.40	
학력	중졸 이하	10.33	42.57	43.16	3.94	364,049 ***
	고졸	14.92	44.17	37.94	2.98	
	대졸 이상	20.00	41.32	35.55	3.1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89	43.89	34.45	2.77	551,32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0	40.48	47.45	2.87	
	고용주·자영자	18.04	43.30	35.04	3.62	
	무급가족종사자	8.35	47.64	35.76	8.26	
	실업자	11.33	48.38	39.13	1.16	
	비경제활동인구	16.85	39.77	39.95	3.4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40	44.41	34.37	2.83	223,840 ***
	비정규직	12.82	39.55	44.97	2.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11	46.00	39.44	2.45	1,065,731 ***
	중도적	23.54	40.01	33.97	2.48	
	진보적	12.19	43.01	40.07	4.74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2〉 단체 신뢰: (2) 인터넷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14.67	37.47	41.78	6.08	
성별	남성	15.40	36.81	41.97	5.82	25,324 ***
	여성	13.93	38.15	41.58	6.35	
연령대	20대 이하	7.69	31.49	52.32	8.50	1,045,961 ***
	30대	15.30	36.83	39.92	7.95	
	40대	17.95	38.27	37.90	5.89	
	50대	16.66	36.20	42.09	5.05	
	60대	14.03	41.31	39.89	4.78	
	70대	16.91	46.35	34.55	2.19	
지역	수도권	21.46	34.72	37.25	6.58	1,609,520 ***
	비수도권	7.86	40.23	46.32	5.59	
	대도시	13.21	35.53	45.65	5.60	
	중소도시	16.54	39.60	37.55	6.31	
	농어촌	11.37	35.11	46.32	7.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16	36.49	36.28	6.07	706,200 ***
	중하층	8.78	40.61	43.89	6.71	
	중간층	17.76	35.36	41.40	5.48	
	중상층(상층)	14.48	38.13	40.00	7.3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84	43.47	39.43	6.26	4,023,897 ***
	200만 원대	7.81	40.21	46.59	5.39	
	300만 원대	14.66	32.43	46.04	6.86	
	400만 원대	30.99	26.59	33.70	8.73	
	500만 원 이상	45.63	28.95	22.06	3.36	
학력	중졸 이하	15.93	44.81	35.77	3.48	333,490 ***
	고졸	12.62	39.55	41.83	6.00	
	대졸 이상	15.95	34.23	43.09	6.7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73	37.24	42.88	6.16	180,25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69	35.10	45.20	6.01	
	고용주·자영자	15.99	39.16	38.66	6.19	
	무급가족종사자	9.93	39.08	44.36	6.63	
	실업자	5.91	40.38	51.62	2.08	
	비경제활동인구	16.68	37.37	39.85	6.1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21	36.82	43.76	6.21	17,275 ***
	비정규직	15.32	36.89	41.92	5.8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43	44.09	40.35	3.14	1,401,955 ***
	중도적	20.59	33.08	40.61	5.72	
	진보적	8.54	37.65	44.64	9.1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7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03〉 단체 신뢰: (3) 노동조합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14.61	45.09	35.69	4.61	
성별	남성	15.33	44.75	34.93	4.99	35,800 ***
	여성	13.88	45.43	36.46	4.23	
연령대	20대 이하	10.09	47.02	37.74	5.14	359,067 ***
	30대	15.67	42.64	37.40	4.29	
	40대	14.50	48.15	31.73	5.61	
	50대	16.10	43.58	35.72	4.60	
	60대	17.78	41.34	36.54	4.33	
	70대	13.26	48.98	35.51	2.25	
지역	수도권	18.45	42.04	34.85	4.66	511,302 ***
	비수도권	10.77	48.15	36.53	4.56	
	대도시	15.45	44.22	35.40	4.93	
	중소도시	13.52	46.51	35.81	4.16	
	농어촌	16.59	41.39	36.45	5.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59	51.35	30.85	4.21	558,478 ***
	중하층	9.85	47.25	38.75	4.15	
	중간층	18.10	42.65	34.24	5.02	
	중상층(상층)	14.36	44.95	36.28	4.4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92	47.39	36.51	5.17	1,679,156 ***
	200만 원대	11.71	43.87	39.41	5.01	
	300만 원대	14.73	46.10	35.65	3.51	
	400만 원대	20.24	43.01	30.58	6.16	
	500만 원 이상	36.96	42.30	19.06	1.69	
학력	중졸 이하	13.22	46.67	36.74	3.38	31,948 ***
	고졸	14.53	44.79	35.77	4.90	
	대졸 이상	14.99	44.96	35.38	4.6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19	44.95	35.50	5.36	398,69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89	47.13	39.52	5.46	
	고용주·자영자	19.04	43.65	33.24	4.08	
	무급가족종사자	15.59	51.16	27.49	5.76	
	실업자	10.36	54.59	33.31	1.74	
	비경제활동인구	15.15	44.56	36.92	3.3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25	44.57	35.81	5.36	100,242 ***
	비정규직	9.03	47.86	37.67	5.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71	47.49	34.22	3.58	773,482 ***
	중도적	17.97	46.43	31.62	3.98	
	진보적	9.94	41.14	42.54	6.3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4〉 단체 신뢰: (4) 경찰·검찰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15.93	44.98	34.04	5.05	
성별	남성	15.53	47.28	32.53	4.66	94,703 ***
	여성	16.35	42.63	35.58	5.44	
연령대	20대 이하	14.95	47.92	33.56	3.58	482,899 ***
	30대	16.82	48.68	30.32	4.18	
	40대	17.41	44.70	32.12	5.77	
	50대	14.22	47.03	32.85	5.90	
	60대	17.59	40.47	36.62	5.32	
	70대	14.03	34.27	45.94	5.75	
지역	수도권	17.09	48.53	29.55	4.83	400,965 ***
	비수도권	14.77	41.42	38.54	5.27	
	대도시	16.76	47.56	31.10	4.58	265,831 ***
	중소도시	14.95	44.49	35.26	5.30	
	농어촌	17.40	34.84	41.83	5.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00	42.87	33.66	4.47	142,634 ***
	중하층	15.29	43.41	36.15	5.14	
	중간층	16.56	46.22	32.30	4.92	
	중상층(상층)	10.96	46.29	36.59	6.1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51	38.82	41.51	7.16	1,463,067 ***
	200만 원대	16.54	42.43	35.29	5.74	
	300만 원대	15.55	47.87	32.88	3.69	
	400만 원대	17.45	58.96	21.74	1.86	
	500만 원 이상	25.14	55.75	17.73	1.38	
학력	중졸 이하	17.04	37.83	39.78	5.35	251,287 ***
	고졸	14.97	43.35	36.05	5.63	
	대졸 이상	16.42	47.83	31.22	4.5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72	47.13	31.62	4.53	660,89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46	33.19	46.86	7.49	
	고용주·자영자	17.88	43.13	33.20	5.79	
	무급가족종사자	12.24	40.05	42.68	5.02	
	실업자	4.98	54.72	40.31		
	비경제활동인구	15.45	47.22	32.64	4.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62	47.03	31.78	4.57	317,674 ***
	비정규직	13.69	36.45	43.12	6.7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66	40.96	38.36	5.02	227,896 ***
	중도적	15.82	48.51	31.24	4.44	
	진보적	16.33	43.70	34.07	5.9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7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05〉 단체 신뢰: (5) 사법부(법원)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17.53	40.77	35.90	5.79	
성별	남성	17.26	41.32	36.75	4.68	104.456 ***
	여성	17.81	40.22	35.04	6.93	
연령대	20대 이하	15.75	37.42	41.75	5.08	472.663 ***
	30대	19.52	44.17	32.34	3.97	
	40대	17.98	42.73	34.38	4.90	
	50대	17.19	40.88	34.20	7.73	
	60대	19.84	40.65	33.20	6.31	
	70대	12.97	36.16	43.25	7.62	
지역	수도권	18.91	40.29	34.08	6.73	148.301 ***
	비수도권	16.15	41.26	37.73	4.85	
	대도시	19.19	40.87	35.72	4.22	222.854 ***
	중소도시	15.74	41.23	35.87	7.16	
	농어촌	19.34	37.74	37.01	5.9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16	36.97	32.37	7.49	190.231 ***
	중하층	16.36	39.23	38.18	6.23	
	중간층	17.35	42.74	34.68	5.23	
	중상층(상층)	18.45	38.36	37.38	5.8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03	37.21	39.22	9.54	1,287.784 ***
	200만 원대	17.21	38.37	39.19	5.22	
	300만 원대	18.26	41.91	35.50	4.33	
	400만 원대	19.69	51.11	25.91	3.29	
	500만 원 이상	27.75	50.80	19.34	2.12	
학력	중졸 이하	14.23	39.42	39.33	7.02	117.608 ***
	고졸	19.00	39.69	35.01	6.30	
	대졸 이상	17.16	41.90	35.81	5.1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76	40.75	36.37	4.11	713.46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81	36.46	39.14	12.59	
	고용주·자영자	19.19	40.13	34.30	6.38	
	무급가족종사자	15.65	44.72	31.15	8.48	
	실업자	9.24	37.86	52.19	0.71	
	비경제활동인구	17.12	43.01	34.24	5.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49	40.54	36.70	4.28	311.050 ***
	비정규직	14.15	38.05	37.53	10.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57	36.39	39.20	6.84	284.885 ***
	중도적	16.41	45.10	32.97	5.52	
	진보적	19.03	38.71	37.01	5.24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6〉 단체 신뢰: (6) 행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15.29	42.58	37.44	4.69	
성별	남성	15.55	43.28	36.05	5.12	45,555 ***
	여성	15.03	41.88	38.86	4.24	
연령대	20대 이하	15.31	37.45	43.14	4.10	416,336 ***
	30대	18.47	42.31	35.18	4.04	
	40대	15.39	43.74	35.90	4.97	
	50대	14.34	44.84	35.05	5.76	
	60대	16.86	43.18	35.46	4.50	
	70대	7.90	44.95	42.84	4.31	
지역	수도권	17.46	42.31	35.37	4.86	79,060 ***
	비수도권	13.11	42.86	39.52	4.52	
	대도시	15.81	45.56	35.38	3.25	
	중소도시	14.23	40.89	39.01	5.87	
	농어촌	18.74	37.32	38.82	5.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46	45.16	37.74	4.63	252,441 ***
	중하층	12.62	42.02	41.05	4.31	
	중간층	17.55	42.33	35.21	4.91	
	중상층(상층)	15.47	44.46	35.02	5.0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31	42.87	41.38	5.44	1,336,309 ***
	200만 원대	14.44	38.27	41.70	5.59	
	300만 원대	16.15	44.87	35.51	3.47	
	400만 원대	22.12	49.23	24.71	3.94	
	500만 원 이상	27.73	49.21	21.46	1.60	
학력	중졸 이하	12.05	47.30	36.36	4.29	92,803 ***
	고졸	15.05	43.26	36.77	4.92	
	대졸 이상	16.20	41.01	38.19	4.5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11	41.92	39.00	3.97	583,27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84	36.27	43.99	7.90	
	고용주·자영자	17.52	43.17	34.14	5.17	
	무급가족종사자	16.68	35.47	43.42	4.42	
	실업자	3.04	32.70	59.36	4.90	
	비경제활동인구	16.06	47.12	32.55	4.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58	42.04	39.25	4.14	84,968 ***
	비정규직	14.21	37.09	42.14	6.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01	44.20	38.87	3.93	12,292 ***
	중도적	17.13	45.30	32.78	4.79	
	진보적	14.79	37.45	42.55	5.2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7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07〉 단체 신뢰: (7) 입법부(정당, 국회)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32.92	43.25	21.25	2.58	
성별	남성	34.08	42.59	20.95	2.38	29,725 ***
	여성	31.73	43.93	21.56	2.78	
연령대	20대 이하	31.29	43.84	22.05	2.82	413,165 ***
	30대	35.58	42.68	18.74	3.00	
	40대	36.83	40.29	19.64	3.24	
	50대	33.93	40.92	23.30	1.84	
	60대	29.22	49.06	19.14	2.58	
	70대	25.39	45.92	27.32	1.37	
지역	수도권	33.41	42.96	20.63	2.99	39,651 ***
	비수도권	32.42	43.54	21.88	2.16	
	대도시	35.68	44.96	17.19	2.17	380,621 ***
	중소도시	30.39	42.65	24.07	2.89	
	농어촌	33.38	38.12	25.66	2.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12	41.47	18.27	2.14	178,965 ***
	중하층	31.28	44.65	20.90	3.17	
	중간층	34.12	42.29	21.30	2.29	
	중상층(상층)	26.24	45.32	26.27	2.1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7.16	43.66	25.45	3.74	1,091,632 ***
	200만 원대	30.67	42.40	24.00	2.93	
	300만 원대	34.67	45.56	17.70	2.07	
	400만 원대	45.15	41.59	12.79	0.46	
	500만 원 이상	46.19	41.29	12.05	0.46	
학력	중졸 이하	25.93	44.94	26.78	2.34	276,988 ***
	고졸	31.47	43.92	22.43	2.18	
	대졸 이상	35.59	42.37	19.11	2.9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04	42.51	20.60	2.84	193,63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8.55	41.64	26.64	3.17	
	고용주·자영자	33.10	42.95	21.47	2.47	
	무급가족종사자	30.15	47.03	18.88	3.93	
	실업자	26.20	45.08	28.72		
	비경제활동인구	33.17	45.13	19.72	1.9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4.61	42.29	20.12	2.98	144,911 ***
	비정규직	27.91	42.54	26.90	2.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93	47.48	23.30	2.29	300,839 ***
	중도적	35.15	42.67	19.81	2.36	
	진보적	35.12	40.33	21.42	3.1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8〉 단체 신뢰: (8) 대기업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13.43	43.53	39.79	3.25	
성별	남성	15.45	43.00	38.82	2.73	176,594 ***
	여성	11.36	44.07	40.78	3.78	
연령대	20대 이하	8.43	40.14	47.34	4.09	591,440 ***
	30대	15.37	46.33	35.39	2.92	
	40대	16.44	42.59	37.50	3.46	
	50대	16.03	41.93	38.57	3.47	
	60대	12.25	46.17	39.00	2.58	
	70대	8.65	46.61	42.54	2.20	
지역	수도권	15.21	41.01	40.55	3.23	164,435 ***
	비수도권	11.64	46.06	39.03	3.26	
	대도시	13.12	44.82	38.38	3.68	
	중소도시	13.86	42.38	41.01	2.75	
	농어촌	12.54	43.57	40.00	3.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25	50.07	36.73	2.95	651,770 ***
	중하층	9.33	42.96	44.17	3.54	
	중간층	16.60	44.00	36.16	3.24	
	중상층(상층)	14.61	35.27	48.03	2.0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49	45.26	40.84	4.42	1,856,286 ***
	200만 원대	10.15	44.39	42.04	3.42	
	300만 원대	12.48	43.71	41.18	2.63	
	400만 원대	25.67	40.82	32.17	1.35	
	500만 원 이상	33.68	35.19	29.06	2.06	
학력	중졸 이하	9.44	47.47	40.17	2.92	188,062 ***
	고졸	12.46	44.86	38.79	3.89	
	대졸 이상	15.07	41.63	40.47	2.8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97	43.56	39.21	3.26	38,63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36	43.54	42.96	4.15	
	고용주·자영자	14.86	41.09	40.91	3.13	
	무급가족종사자	16.68	43.60	36.78	2.93	
	실업자	5.38	36.10	58.53		
	비경제활동인구	13.36	45.69	37.82	3.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58	43.60	39.43	3.39	17,229 ***
	비정규직	11.57	43.42	41.45	3.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9.97	46.79	40.61	2.63	477,195 ***
	중도적	17.40	42.15	37.19	3.26	
	진보적	11.05	42.55	42.64	3.7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09〉 단체 신뢰: (9) 시민운동단체(환경 단체, 여성 단체 등)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10.40	36.94	46.19	6.47	
성별	남성	11.78	36.50	45.78	5.95	97,858 ***
	여성	9.00	37.38	46.62	7.00	
연령대	20대 이하	6.44	34.10	53.08	6.38	520,623 ***
	30대	11.63	37.64	43.65	7.08	
	40대	11.20	39.78	43.60	5.43	
	50대	13.77	33.53	45.46	7.24	
	60대	9.99	39.81	45.31	4.89	
	70대	6.95	38.21	46.13	8.71	
지역	수도권	14.45	34.49	44.12	6.94	775,206 ***
	비수도권	6.34	39.39	48.28	5.99	
	대도시	11.36	35.31	47.19	6.14	
	중소도시	10.37	39.61	43.84	6.18	
	농어촌	5.83	29.91	54.53	9.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92	36.50	49.68	6.90	608,822 ***
	중하층	6.77	36.51	50.05	6.67	
	중간층	13.82	36.59	43.50	6.10	
	중상층(상층)	7.68	42.35	42.31	7.6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82	38.67	48.35	7.16	1,967,883 ***
	200만 원대	8.35	34.24	50.77	6.64	
	300만 원대	10.13	37.86	44.92	7.09	
	400만 원대	19.57	36.56	38.54	5.33	
	500만 원 이상	28.33	42.45	26.85	2.37	
학력	중졸 이하	5.66	41.57	45.56	7.20	267,861 ***
	고졸	9.31	36.41	46.97	7.30	
	대졸 이상	12.30	36.29	45.74	5.6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01	36.78	46.17	6.04	375,68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88	40.35	45.23	8.54	
	고용주·자영자	12.96	36.67	44.27	6.10	
	무급가족종사자	10.64	37.42	36.22	15.72	
	실업자	8.68	24.37	58.22	8.73	
	비경제활동인구	9.42	36.66	48.07	5.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60	36.40	47.06	5.94	96,944 ***
	비정규직	8.28	40.78	42.62	8.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84	39.12	44.89	6.16	1,170,980 ***
	중도적	14.55	38.05	43.26	4.14	
	진보적	5.24	33.49	51.35	9.9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0〉 단체 신뢰: (10) 자선단체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9.24	41.59	41.69	7.48	
성별	남성	9.18	43.23	41.67	5.92	166,268 ***
	여성	9.31	39.91	41.70	9.08	
연령대	20대 이하	5.56	43.55	42.01	8.88	714,238 ***
	30대	10.20	43.25	39.65	6.89	
	40대	10.93	42.62	41.02	5.43	
	50대	11.05	41.54	40.17	7.24	
	60대	10.96	37.54	45.86	5.64	
	70대	3.76	38.53	43.30	14.41	
지역	수도권	12.42	41.54	37.99	8.05	607,754 ***
	비수도권	6.06	41.64	45.40	6.91	
	대도시	10.67	40.41	42.52	6.40	
	중소도시	8.73	44.69	39.13	7.44	
	농어촌	4.98	29.90	52.00	13.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0	46.45	41.86	6.29	533,881 ***
	중하층	6.22	39.88	44.65	9.25	
	중간층	11.73	41.91	39.54	6.82	
	중상층(상층)	10.79	42.40	42.22	4.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71	39.39	44.34	10.56	1,778,903 ***
	200만 원대	7.54	39.21	45.76	7.50	
	300만 원대	9.88	42.61	41.93	5.58	
	400만 원대	15.99	44.21	33.81	5.99	
	500만 원 이상	21.52	56.43	18.77	3.28	
학력	중졸 이하	5.83	37.65	45.01	11.51	250,464 ***
	고졸	8.92	41.56	41.97	7.55	
	대졸 이상	10.26	42.50	40.72	6.5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8	43.61	40.94	6.77	308,65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04	42.51	43.64	7.81	
	고용주·자영자	12.29	41.84	39.48	6.39	
	무급가족종사자	7.76	38.43	43.84	9.98	
	실업자	5.43	33.31	49.55	11.71	
	비경제활동인구	9.72	38.04	43.23	9.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14	43.41	41.75	6.70	8,928 ***
	비정규직	8.32	43.40	40.48	7.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39	40.89	42.29	7.44	686,404 ***
	중도적	12.03	44.44	37.23	6.30	
	진보적	5.31	38.31	47.24	9.14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1〉 단체 신뢰: (11) 국세청

(단위: %)

구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χ^2
전체		9.25	40.65	46.36	3.74	
성별	남성	9.88	40.17	46.90	3.05	76,550 ***
	여성	8.61	41.14	45.82	4.44	
연령대	20대 이하	6.72	38.12	52.13	3.03	628,962 ***
	30대	9.48	43.63	44.41	2.48	
	40대	12.00	39.31	45.28	3.41	
	50대	9.97	42.24	43.43	4.36	
	60대	9.51	42.49	45.15	2.85	
	70대	5.47	35.89	49.89	8.74	
지역	수도권	13.18	40.81	41.65	4.35	935,349 ***
	비수도권	5.30	40.48	51.09	3.12	
	대도시	10.26	41.20	46.68	1.85	
	중소도시	8.12	40.94	45.26	5.68	
	농어촌	10.60	36.19	51.03	2.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99	38.73	44.81	5.47	335,005 ***
	중하층	6.45	41.04	48.11	4.40	
	중간층	11.17	40.93	44.88	3.02	
	중상층(상층)	7.41	38.70	50.24	3.6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15	37.14	51.53	6.17	2,323,767 ***
	200만 원대	7.30	39.24	49.98	3.48	
	300만 원대	8.58	44.33	44.26	2.83	
	400만 원대	17.73	44.77	36.36	1.14	
	500만 원 이상	26.86	45.12	26.17	1.85	
학력	중졸 이하	5.12	40.37	48.21	6.31	222,064 ***
	고졸	9.47	40.90	45.67	3.96	
	대졸 이상	10.01	40.52	46.48	2.9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08	41.21	46.32	2.39	627,42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39	33.10	55.54	5.98	
	고용주·자영자	9.58	44.41	42.93	3.08	
	무급가족종사자	4.17	47.69	43.32	4.81	
	실업자	2.49	35.35	52.15	10.02	
	비경제활동인구	9.89	39.87	44.95	5.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5	40.92	46.83	2.40	190,105 ***
	비정규직	7.11	35.71	51.98	5.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8.03	42.76	45.31	3.90	537,334 ***
	중도적	12.66	40.24	43.97	3.14	
	진보적	5.67	39.35	50.56	4.4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2〉 정치 영역 부패 인식 수준

(단위: %)

구분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부패가 매우 심하다		χ^2
		0	1	2	3	4	5	6		
전체		0.02	1.00	5.57	13.78	28.72	29.81	21.10		
성별	남성		0.85	6.10	13.80	28.71	29.36	21.18	40,956 ***	
	여성	0.04	1.16	5.03	13.76	28.73	30.27	21.03		
연령대	20대 이하		1.26	8.16	9.62	29.01	36.21	15.73	933,022 ***	
	30대	0.04	0.64	5.41	13.09	27.67	28.22	24.93		
	40대		1.27	4.24	12.58	29.49	27.96	24.45		
	50대	0.05	0.86	6.07	14.34	27.40	28.14	23.15		
	60대		0.66	5.23	16.30	30.29	28.55	18.97		
	70대		1.55	2.84	21.40	28.89	29.97	15.36		
지역	수도권		0.77	6.29	14.20	25.47	28.26	25.01	559,671 ***	
	비수도권	0.03	1.24	4.85	13.37	31.97	31.36	17.18		
	대도시	0.04	0.98	4.29	14.26	27.95	31.02	21.46	260,255 ***	
	중소도시		0.87	6.51	12.70	29.03	29.87	21.03		
	농어촌		1.88	6.67	17.57	30.76	23.38	19.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8	1.44	10.29	31.97	28.95	27.17	862,091 ***	
	중하층	0.03	1.18	5.79	15.70	27.14	33.37	16.78		
	중간층	0.02	1.06	5.86	13.21	28.31	27.06	24.49		
	중상층(상층)		0.61	7.03	12.18	36.22	33.02	10.9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95	5.34	17.59	35.12	26.04	14.96	3,465,680 ***	
	200만 원대	0.02	1.48	6.68	15.79	30.90	29.97	15.15		
	300만 원대	0.05	0.89	6.17	11.25	23.66	35.27	22.71		
	400만 원대		0.23	3.33	7.54	19.97	31.00	37.92		
	500만 원 이상			1.46	4.04	18.96	25.06	50.48		
학력	중졸 이하		0.62	4.29	19.97	34.93	24.12	16.06	36,307	
	고졸	0.02	1.48	6.07	14.79	27.29	30.48	19.86		
	대졸 이상	0.02	0.73	5.48	11.62	28.40	30.58	23.1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4	0.76	5.49	12.93	28.40	28.87	23.51	770,62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7	7.31	14.69	33.11	28.59	15.03		
	고용주·자영자		1.35	3.84	15.15	30.67	26.86	22.14		
	무급가족종사자		3.29	7.16	18.54	37.18	17.95	15.89		
	실업자		0.45	17.82	13.52	27.68	32.48	8.04		
	비경제활동인구		0.95	5.42	13.62	25.45	34.88	19.6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2	0.79	5.39	12.53	28.18	29.24	23.84	214,315 ***	
	비정규직	0.06	1.06	7.24	15.58	32.80	27.47	15.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	5.84	18.42	30.71	28.74	14.87	1,021,893 ***	
	중도적	0.02	0.81	4.59	13.27	26.13	28.28	26.90		
	진보적	0.03	0.89	6.68	10.40	30.50	32.84	18.65		

주 1) “(조사표 질문)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3〉 경제 영역 부패 인식 수준

(단위: %)

구분		부패가 전혀 심하지 않다						부패가 매우 심하다		χ^2
		0	1	2	3	4	5	6		
전체		0.11	2.06	8.40	22.86	29.58	25.09	11.90	121,776 ***	
성별	남성	0.08	2.30	7.73	23.98	29.82	23.49	12.60		
	여성	0.14	1.81	9.07	21.71	29.34	26.73	11.18		
연령대	20대 이하	0.53	1.29	8.80	21.63	27.91	32.75	7.08	1,152,376 ***	
	30대	0.09	1.91	7.41	21.55	29.84	23.89	15.32		
	40대		2.33	8.39	20.50	29.09	25.11	14.58		
	50대		2.41	9.09	23.11	28.04	22.26	15.10		
	60대		2.31	7.50	27.18	30.32	22.46	10.24		
	70대		2.09	9.45	25.78	36.39	22.53	3.76		
지역	수도권	0.21	2.14	7.98	19.78	29.37	22.85	17.67	1,464,339 ***	
	비수도권	0.02	1.98	8.81	25.95	29.80	27.34	6.10		
	대도시	0.26	2.76	7.24	21.87	28.86	26.98	12.04	350,615 ***	
	중소도시		1.53	8.93	22.70	30.47	24.21	12.15		
	농어촌		1.52	11.17	28.72	28.16	20.65	9.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5	5.53	6.58	20.09	19.21	30.91	17.15	1,454,836 ***	
	중하층	0.18	2.47	9.36	25.30	30.47	25.45	6.76		
	중간층	0.02	1.48	8.11	21.74	29.55	23.54	15.56		
	중상층(상층)		0.17	7.67	21.76	37.34	28.15	4.9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6	11.66	28.80	29.11	21.76	6.81	4,025,401 ***	
	200만 원대	0.17	2.50	9.90	25.10	30.71	25.46	6.16		
	300만 원대	0.25	2.06	5.58	19.65	29.85	28.54	14.07		
	400만 원대		1.34	3.01	13.25	28.01	26.17	28.21		
	500만 원 이상		1.32	3.29	10.03	26.44	23.91	35.01		
학력	중졸 이하		1.71	9.43	27.66	31.36	23.07	6.77	507,235 ***	
	고졸	0.02	2.04	9.78	24.29	27.65	25.92	10.31		
	대졸 이상	0.21	2.15	7.11	20.69	30.66	24.92	14.2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6	1.80	7.57	21.25	30.20	26.10	12.91	928,70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1	3.70	10.95	27.71	24.09	26.47	6.67		
	고용주·자영자		2.52	6.29	27.39	28.92	21.38	13.50		
	무급가족종사자		4.06	18.43	27.93	28.60	18.63	2.35		
	실업자		0.45	14.13	30.65	25.52	26.07	3.17		
	비경제활동인구		1.44	9.32	19.60	31.57	25.79	12.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5	1.87	7.68	20.44	30.20	26.38	13.27	372,200 ***	
	비정규직	0.38	3.07	9.89	28.88	25.39	25.52	6.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9	9.83	27.59	31.77	22.93	5.39	1,562,128 ***	
	중도적	0.27	1.78	7.18	20.71	26.74	24.88	18.45		
	진보적		2.07	8.80	21.64	31.54	27.29	8.66		

주 1) “(조사표 질문)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의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4〉 나에 대한 공정: (1) 능력(두뇌)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1.01	14.12	52.33	30.88	1.67	
성별	남성	1.08	14.81	53.40	28.93	1.77	80,594 ***
	여성	0.94	13.41	51.23	32.86	1.56	
연령대	20대 이하	1.58	17.69	47.26	32.79	0.67	828,152 ***
	30대	1.22	13.43	54.33	29.30	1.72	
	40대	0.67	15.71	53.60	29.01	1.01	
	50대	1.14	10.17	55.67	30.87	2.16	
	60대	0.93	13.54	55.68	28.74	1.11	
	70대		14.75	41.94	38.27	5.04	
지역	수도권	1.64	16.42	50.63	29.31	2.00	400,276 ***
	비수도권	0.39	11.80	54.03	32.45	1.33	
	대도시	0.25	12.12	55.18	31.62	0.83	815,667 ***
	중소도시	1.61	16.62	51.00	28.93	1.84	
	농어촌	1.43	9.95	45.54	38.18	4.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0	18.23	53.20	24.64	3.13	482,938 ***
	중하층	0.44	16.05	51.02	31.67	0.82	
	중간층	1.50	12.51	53.66	30.52	1.80	
	중상층(상층)	0.58	11.34	48.02	36.70	3.3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2	14.11	48.75	34.34	2.18	768,915 ***
	200만 원대	0.84	13.38	51.35	33.17	1.26	
	300만 원대	1.87	14.20	54.74	28.64	0.55	
	400만 원대	0.61	12.92	54.55	28.79	3.14	
	500만 원 이상	1.35	19.39	61.13	14.71	3.42	
학력	중졸 이하	0.12	12.30	51.36	33.02	3.21	227,640 ***
	고졸	0.87	14.22	54.02	29.99	0.90	
	대졸 이상	1.33	14.45	51.26	31.07	1.9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6	14.86	51.50	31.19	1.49	381,92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1	12.12	56.13	28.46	2.97	
	고용주·자영자	0.66	11.34	55.55	30.35	2.11	
	무급가족종사자		12.15	46.99	37.73	3.13	
	실업자	1.23	14.27	65.24	18.25	1.01	
	비경제활동인구	1.73	15.79	49.48	31.96	1.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3	14.44	51.84	31.52	1.56	75,204 ***
	비정규직	1.49	14.03	54.06	27.99	2.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6	14.30	50.44	32.22	2.38	787,736 ***
	중도적	0.44	12.10	58.53	27.27	1.66	
	진보적	2.12	16.72	45.50	34.62	1.04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 < 0.5$, ** $p < 0.01$, *** $p < 0.001$

〈부표 3-115〉 나에 대한 공정: (2) 일과 관련 기술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1.94	16.86	44.74	33.07	3.39	
성별	남성	2.27	16.85	46.01	31.51	3.37	70,142 ***
	여성	1.60	16.88	43.44	34.66	3.42	
연령대	20대 이하	2.43	18.80	42.46	31.86	4.45	359,258 ***
	30대	2.45	16.59	46.12	31.96	2.87	
	40대	2.06	17.40	45.92	32.07	2.56	
	50대	1.91	14.09	47.69	32.34	3.97	
	60대	1.53	19.42	42.32	34.18	2.56	
	70대	0.33	14.30	40.92	40.26	4.20	
지역	수도권	2.54	16.49	44.76	32.53	3.68	94,384 ***
	비수도권	1.34	17.23	44.72	33.60	3.11	
	대도시	1.10	14.90	44.09	37.69	2.22	686,930 ***
	중소도시	2.70	18.62	45.75	29.26	3.67	
	농어촌	1.84	16.75	42.25	31.47	7.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5	15.07	41.29	37.30	3.99	362,600 ***
	중하층	1.84	18.69	45.34	31.16	2.98	
	중간층	2.07	16.89	45.50	32.09	3.45	
	중상층(상층)	1.02	9.20	39.87	45.48	4.4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7	19.20	40.21	35.99	3.23	684,179 ***
	200만 원대	2.07	17.18	43.47	33.12	4.16	
	300만 원대	2.38	15.52	45.45	34.99	1.66	
	400만 원대	1.14	12.42	51.84	30.09	4.50	
	500만 원 이상	3.11	15.94	57.81	19.34	3.80	
학력	중졸 이하	1.12	18.80	40.28	36.79	3.01	338,624 ***
	고졸	1.53	19.01	44.60	32.64	2.22	
	대졸 이상	2.44	14.79	45.85	32.55	4.3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2	16.77	42.84	33.67	4.21	494,93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3	19.13	40.44	37.25	2.05	
	고용주·자영자	1.20	14.08	49.74	30.92	4.05	
	무급가족종사자	2.00	14.44	38.88	41.36	3.32	
	실업자	6.60	11.50	45.12	33.68	3.09	
	비경제활동인구	1.50	18.60	46.74	31.16	2.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1	16.27	43.54	34.09	4.29	168,711 ***
	비정규직	3.66	20.21	38.72	35.16	2.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0	19.05	42.67	33.21	3.57	501,457 ***
	중도적	1.47	14.60	50.25	30.74	2.94	
	진보적	2.97	18.03	39.03	36.12	3.85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6〉 나에 대한 공정: (3) 노력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2.60	24.84	42.07	27.71	2.78	
성별	남성	2.91	25.57	40.57	28.44	2.51	65,964 ***
	여성	2.28	24.10	43.61	26.97	3.05	
연령대	20대 이하	3.64	24.07	40.58	29.88	1.83	340,827 ***
	30대	3.15	24.65	42.88	26.54	2.79	
	40대	3.36	26.66	41.27	26.25	2.47	
	50대	2.69	25.32	40.49	27.85	3.65	
	60대	0.63	22.96	45.46	28.22	2.73	
	70대	0.53	24.72	43.51	27.77	3.48	
지역	수도권	2.53	24.78	41.77	28.59	2.33	42,873 ***
	비수도권	2.66	24.91	42.37	26.83	3.22	
	대도시	1.17	23.48	44.01	28.83	2.52	503,261 ***
	중소도시	3.59	25.64	40.92	27.46	2.39	
	농어촌	4.11	27.15	38.92	23.55	6.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9	25.08	40.01	29.75	0.97	64,940 ***
	중하층	2.30	27.44	41.34	27.02	1.91	
	중간층	2.79	23.97	43.56	26.53	3.15	
	중상층(상층)	0.86	17.55	37.00	38.00	6.6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4	24.53	43.51	27.44	3.08	488,303 ***
	200만 원대	2.85	23.37	41.47	29.70	2.61	
	300만 원대	3.00	26.40	39.10	29.19	2.31	
	400만 원대	1.17	28.68	42.97	23.59	3.60	
	500만 원 이상	6.28	24.31	47.77	18.72	2.93	
학력	중졸 이하	1.01	24.51	44.07	27.02	3.40	150,537 ***
	고졸	2.33	26.66	41.88	26.83	2.29	
	대졸 이상	3.16	23.53	41.76	28.54	3.0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40	23.56	41.47	29.09	2.48	321,63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7	27.58	40.56	27.89	2.40	
	고용주·자영자	1.28	26.96	42.73	25.45	3.57	
	무급가족종사자	0.61	23.97	42.49	27.54	5.40	
	실업자	8.01	18.41	46.10	25.18	2.30	
	비경제활동인구	2.36	24.89	43.05	26.96	2.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7	23.51	41.66	29.48	2.49	39,515 ***
	비정규직	3.65	26.90	40.16	26.90	2.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7	23.14	42.12	29.38	3.20	123,084 ***
	중도적	2.20	25.45	43.27	26.55	2.52	
	진보적	3.51	25.51	40.38	27.84	2.76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 < 0.5$, ** $p < 0.01$, *** $p < 0.001$

〈부표 3-117〉 나에 대한 공정: (4) 학력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1.77	19.39	50.38	26.65	1.81	
성별	남성	2.22	19.09	50.78	26.13	1.78	56,566 ***
	여성	1.31	19.70	49.96	27.18	1.85	
연령대	20대 이하	2.93	16.08	51.79	27.27	1.93	477,555 ***
	30대	1.81	23.03	47.83	25.82	1.51	
	40대	2.54	21.84	49.96	23.46	2.20	
	50대	1.40	19.06	51.30	26.35	1.89	
	60대	0.75	19.03	50.04	28.32	1.85	
	70대		14.48	51.95	32.54	1.03	
지역	수도권	3.13	20.41	47.86	26.76	1.85	513,011 ***
	비수도권	0.40	18.37	52.90	26.55	1.78	
	대도시	0.60	16.38	54.53	26.93	1.55	658,861 ***
	중소도시	3.04	21.95	46.84	26.34	1.82	
	농어촌	0.41	19.96	49.56	27.00	3.0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5	17.98	53.73	27.39	0.45	814,949 ***
	중하층	0.38	19.31	52.19	25.63	2.49	
	중간층	3.15	20.94	48.00	26.48	1.43	
	중상층(상층)	0.12	9.68	54.96	32.46	2.7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5	17.90	49.09	30.03	2.33	1,121,050 ***
	200만 원대	1.80	16.36	51.07	28.85	1.90	
	300만 원대	3.55	19.83	53.47	22.36	0.79	
	400만 원대	1.05	22.40	50.55	24.10	1.89	
	500만 원 이상	1.28	36.24	41.81	18.29	2.38	
학력	중졸 이하	0.56	17.34	52.08	28.35	1.67	351,834 ***
	고졸	0.92	19.13	51.03	27.89	1.04	
	대졸 이상	2.69	20.05	49.49	25.33	2.4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7	19.32	50.39	25.53	2.20	456,01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5	15.02	52.75	30.07	1.72	
	고용주·자영자	0.25	20.62	50.29	27.08	1.76	
	무급가족종사자	1.29	16.13	44.37	32.44	5.77	
	실업자	1.50	14.97	51.95	31.59		
	비경제활동인구	2.04	20.95	49.74	26.25	1.0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9	18.90	51.08	25.44	2.28	47,133 ***
	비정규직	1.76	17.27	50.04	29.38	1.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6	15.92	52.15	29.40	1.87	545,487 ***
	중도적	1.11	21.19	50.85	25.11	1.75	
	진보적	3.65	19.97	48.17	26.35	1.86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18〉 나에 대한 공정: (5) 경력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1.45	16.77	51.55	27.90	2.33	
성별	남성	1.56	17.04	52.96	26.10	2.35	70,582 ***
	여성	1.35	16.50	50.11	29.74	2.30	
연령대	20대 이하	1.50	13.83	51.92	30.29	2.45	289,255 ***
	30대	1.85	17.94	49.84	28.67	1.70	
	40대	1.98	17.46	49.87	28.49	2.19	
	50대	0.98	16.63	53.19	26.72	2.49	
	60대	1.68	15.80	55.01	25.30	2.20	
	70대		21.10	48.27	27.10	3.54	
지역	수도권	2.19	19.32	47.71	28.87	1.90	481,188 ***
	비수도권	0.71	14.21	55.40	26.92	2.75	
	대도시	0.54	14.02	51.30	32.01	2.12	810,522 ***
	중소도시	2.36	19.82	51.47	24.42	1.94	
	농어촌	0.88	13.30	53.24	27.03	5.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4	17.65	44.98	36.62	0.31	576,527 ***
	중하층	1.09	16.64	54.03	26.81	1.41	
	중간층	1.97	17.64	50.99	26.29	3.11	
	중상층(상층)	0.62	9.83	50.49	35.55	3.5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52	17.52	48.43	31.11	2.42	763,447 ***
	200만 원대	2.14	13.56	52.35	29.43	2.52	
	300만 원대	1.93	17.60	51.80	27.40	1.27	
	400만 원대	0.83	19.65	52.51	23.78	3.23	
	500만 원 이상	0.62	25.03	57.30	14.02	3.04	
학력	중졸 이하	0.23	21.29	52.82	24.12	1.54	334,292 ***
	고졸	1.00	15.55	54.36	27.17	1.92	
	대졸 이상	2.07	16.69	49.12	29.30	2.8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7	16.37	48.87	30.89	2.19	458,93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3	15.39	51.80	29.82	2.76	
	고용주·자영자	0.92	15.17	57.28	23.61	3.02	
	무급가족종사자	0.72	12.43	53.30	32.53	1.02	
	실업자		15.90	59.70	20.92	3.48	
	비경제활동인구	2.10	19.62	51.51	24.87	1.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5	15.46	49.46	31.39	2.14	55,317 ***
	비정규직	0.91	18.49	49.30	28.48	2.8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3	15.89	51.12	29.50	1.96	212,942 ***
	중도적	1.17	16.86	54.15	26.08	1.74	
	진보적	1.77	17.43	48.37	28.98	3.45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 < 0.5$, ** $p < 0.01$, *** $p < 0.001$

〈부표 3-119〉 타인에 대한 공정: (1) 능력(두뇌)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0.92	13.86	52.96	31.46	0.81	
성별	남성	0.75	13.54	53.88	30.96	0.87	28,460 ***
	여성	1.09	14.18	52.02	31.97	0.74	
연령대	20대 이하	0.81	17.46	50.34	31.01	0.37	493,189 ***
	30대	0.46	14.00	53.70	31.18	0.66	
	40대	1.70	12.52	54.08	31.07	0.64	
	50대	0.95	11.55	55.77	31.28	0.46	
	60대	1.01	12.65	53.99	31.02	1.32	
	70대		16.75	45.69	35.15	2.42	
지역	수도권	1.55	16.31	50.88	30.93	0.33	517,601 ***
	비수도권	0.28	11.40	55.05	31.99	1.28	
	대도시	0.19	11.85	55.66	31.84	0.46	1,238,942 ***
	중소도시	1.63	16.73	51.45	29.70	0.49	
	농어촌	0.48	7.63	48.01	39.53	4.3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0	16.46	52.37	30.37		308,548 ***
	중하층	0.78	12.58	52.74	33.20	0.71	
	중간층	1.15	14.62	54.12	29.25	0.86	
	중상층(상층)		11.69	46.07	40.35	1.9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0	14.30	48.06	35.61	1.73	1,110,325 ***
	200만 원대	0.72	12.72	51.78	34.18	0.60	
	300만 원대	1.06	14.22	55.58	28.80	0.35	
	400만 원대	0.52	13.43	61.79	23.82	0.44	
	500만 원 이상	4.38	17.73	58.94	18.73	0.21	
학력	중졸 이하	0.04	15.99	48.68	33.58	1.71	185,228 ***
	고졸	0.68	13.70	53.05	31.92	0.66	
	대졸 이상	1.29	13.50	53.86	30.63	0.7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9	12.61	52.81	32.90	0.49	630,96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8	13.20	54.17	31.87	0.38	
	고용주·자영자	0.52	9.70	55.22	32.82	1.73	
	무급가족종사자		14.56	53.77	29.71	1.95	
	실업자	2.05	10.82	58.59	26.30	2.24	
	비경제활동인구	0.93	19.58	50.68	28.09	0.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6	12.10	53.47	32.96	0.50	31,932 ***
	비정규직	1.28	14.72	51.77	31.88	0.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3	15.44	51.14	31.48	1.41	597,101 ***
	중도적	1.07	10.26	57.81	30.59	0.27	
	진보적	1.05	17.39	47.92	32.63	1.01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0〉 타인에 대한 공정: (2) 일과 관련 기술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1.50	19.35	44.53	31.53	3.10	
성별	남성	1.50	19.25	47.00	28.86	3.39	165,287 ***
	여성	1.49	19.44	42.00	34.26	2.80	
연령대	20대 이하	1.66	23.16	40.38	31.38	3.42	443,015 ***
	30대	1.23	19.14	47.32	30.04	2.27	
	40대	1.43	20.36	44.19	31.84	2.17	
	50대	1.71	17.55	48.11	29.01	3.63	
	60대	1.62	16.29	45.51	34.15	2.43	
	70대	1.12	18.84	37.91	35.92	6.20	
지역	수도권	1.81	19.83	45.76	29.78	2.82	97,965 ***
	비수도권	1.18	18.86	43.30	33.29	3.38	
	대도시	0.31	18.45	43.01	35.89	2.33	922,225 ***
	중소도시	2.50	20.16	46.33	28.21	2.80	
	농어촌	1.77	19.23	41.90	28.48	8.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1	19.43	39.19	35.24	4.64	329,943 ***
	중하층	1.55	19.50	42.22	33.38	3.35	
	중간층	1.60	19.38	47.70	28.92	2.41	
	중상층(상층)	0.47	18.22	38.84	37.30	5.1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58	18.20	42.19	34.41	4.63	1,060,721 ***
	200만 원대	1.58	19.53	40.67	34.56	3.66	
	300만 원대	1.73	21.60	45.18	29.61	1.89	
	400만 원대	1.13	17.74	56.90	22.94	1.28	
	500만 원 이상	4.32	17.88	56.57	21.02	0.21	
학력	중졸 이하	0.51	17.68	44.13	33.34	4.33	100,356 ***
	고졸	1.72	20.15	43.61	31.91	2.60	
	대졸 이상	1.55	19.11	45.32	30.84	3.2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0	20.11	43.98	31.89	2.81	500,05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2	18.38	45.69	30.76	3.94	
	고용주·자영자	1.13	13.75	49.37	31.10	4.64	
	무급가족종사자	1.23	19.71	42.29	33.03	3.74	
	실업자	6.16	25.93	38.20	25.45	4.25	
	비경제활동인구	2.17	22.07	41.99	31.75	2.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5	19.23	44.24	32.36	2.93	25,029 ***
	비정규직	1.07	21.55	44.51	29.54	3.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4	17.42	42.44	35.00	3.40	718,462 ***
	중도적	1.02	17.02	50.97	28.46	2.53	
	진보적	1.93	24.22	37.56	32.68	3.60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9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21〉 타인에 대한 공정: (3) 노력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3.61	22.82	44.28	26.87	2.42	
성별	남성	3.91	23.13	43.03	27.57	2.36	35,334 ***
	여성	3.30	22.51	45.55	26.16	2.48	
연령대	20대 이하	5.40	22.36	42.50	28.20	1.54	474,290 ***
	30대	4.42	22.25	48.48	22.21	2.63	
	40대	4.40	23.88	42.43	26.35	2.94	
	50대	3.30	22.53	44.80	27.10	2.27	
	60대	1.68	23.13	44.72	27.98	2.48	
	70대	0.21	22.66	41.65	32.59	2.90	
지역	수도권	4.03	20.78	46.76	26.39	2.03	183,942 ***
	비수도권	3.18	24.87	41.78	27.35	2.81	
	대도시	1.25	21.15	45.94	29.22	2.43	923,018 ***
	중소도시	5.71	24.32	43.57	24.67	1.73	
	농어촌	3.52	22.71	39.90	27.57	6.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2	30.38	37.38	26.16	2.36	407,276 ***
	중하층	2.80	24.64	42.97	27.94	1.65	
	중간층	4.35	21.07	46.20	25.54	2.83	
	중상층(상층)	2.08	17.67	44.61	32.21	3.4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8	23.95	41.69	30.09	2.68	723,878 ***
	200만 원대	4.09	21.26	41.74	29.82	3.08	
	300만 원대	4.30	23.54	46.37	23.74	2.05	
	400만 원대	4.91	24.16	50.45	19.55	0.94	
	500만 원 이상	5.01	23.00	53.58	17.57	0.85	
학력	중졸 이하	1.03	23.29	44.13	28.62	2.93	356,127 ***
	고졸	2.97	25.78	42.27	27.16	1.82	
	대졸 이상	4.68	20.46	45.84	26.26	2.7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33	22.44	43.47	27.45	2.31	325,10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8	25.69	41.16	27.96	3.11	
	고용주·자영자	1.74	21.02	46.34	27.56	3.34	
	무급가족종사자	4.58	21.43	40.39	29.33	4.28	
	실업자	8.01	22.04	45.18	24.00	0.77	
	비경제활동인구	4.00	23.77	45.77	24.85	1.6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58	22.31	44.64	27.12	2.34	87,265 ***
	비정규직	4.90	25.40	37.95	28.90	2.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1	23.30	43.14	28.00	2.64	338,457 ***
	중도적	2.76	23.49	47.12	24.86	1.77	
	진보적	5.38	21.49	41.39	28.63	3.11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2〉 타인에 대한 공정: (4) 학력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1.93	19.82	49.12	27.10	2.03	
성별	남성	2.26	20.61	48.64	26.77	1.72	60.810 ***
	여성	1.59	19.02	49.61	27.44	2.35	
연령대	20대 이하	2.94	17.82	49.64	27.87	1.73	409,794 ***
	30대	2.45	23.45	48.39	24.02	1.69	
	40대	2.36	20.78	49.27	24.71	2.88	
	50대	1.16	19.65	48.48	28.71	2.01	
	60대	1.28	16.96	52.94	27.28	1.54	
	70대	0.62	19.71	44.05	33.35	2.27	
지역	수도권	2.96	21.51	45.72	27.62	2.19	398,399 ***
	비수도권	0.89	18.13	52.53	26.58	1.87	
	대도시	0.49	17.02	51.33	28.88	2.28	829,925 ***
	중소도시	3.38	23.32	46.83	24.71	1.77	
	농어촌	0.91	14.05	51.02	31.78	2.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8	17.34	48.25	32.14	1.39	535,584 ***
	중하층	0.79	19.82	50.64	26.36	2.40	
	중간층	3.01	20.83	48.92	25.35	1.89	
	중상층(상층)	0.94	15.12	43.66	38.36	1.9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6	18.29	46.54	32.23	2.27	825,603 ***
	200만 원대	1.94	17.14	51.18	27.05	2.68	
	300만 원대	3.52	21.19	48.92	24.83	1.53	
	400만 원대	1.39	24.13	52.03	21.52	0.92	
	500만 원 이상	2.50	30.45	44.81	21.70	0.54	
학력	중졸 이하	0.52	19.22	48.36	29.65	2.25	192,276 ***
	고졸	1.34	19.43	50.03	27.60	1.59	
	대졸 이상	2.69	20.26	48.59	26.14	2.3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2	18.34	49.35	26.96	2.33	540,64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3	18.14	48.48	30.61	2.24	
	고용주·자영자	0.52	18.71	51.68	27.41	1.68	
	무급가족종사자		15.27	46.39	38.34		
	실업자	0.45	22.31	58.11	18.13	1.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1.79	24.23	46.76	25.37	1.85	19,221 ***
	정규직	2.35	18.42	49.66	27.25	2.33	
	비정규직	3.18	17.93	47.69	28.92	2.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5	16.99	49.26	30.11	2.19	428,577 ***
	중도적	0.99	20.64	50.66	25.89	1.82	
	진보적	3.63	21.19	46.89	26.12	2.17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39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23〉 타인에 대한 공정: (5) 경력

(단위: %)

구분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χ^2
전체		0.94	18.01	52.79	26.41	1.84	
성별	남성	1.14	19.19	52.30	25.37	1.99	74,333 ***
	여성	0.74	16.80	53.30	27.47	1.69	
연령대	20대 이하	1.29	15.10	54.32	27.37	1.91	238,346 ***
	30대	0.62	20.37	51.52	25.81	1.67	
	40대	1.42	19.65	51.46	25.59	1.89	
	50대	0.53	18.55	53.92	24.91	2.09	
	60대	0.60	18.39	52.69	26.50	1.82	
	70대	1.31	13.48	52.76	31.08	1.37	
지역	수도권	1.38	20.41	51.29	26.22	0.70	526,520 ***
	비수도권	0.50	15.61	54.30	26.60	2.98	
	대도시	0.26	14.04	53.56	30.40	1.72	984,089 ***
	중소도시	1.56	22.05	52.20	22.84	1.34	
	농어촌	0.83	15.00	52.30	26.61	5.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8	18.18	45.90	34.71	0.73	444,230 ***
	중하층	1.11	16.16	54.98	26.68	1.07	
	중간층	0.99	19.76	52.70	24.16	2.38	
	중상층(상층)	0.23	14.27	50.11	32.30	3.0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69	16.30	52.42	28.43	2.16	760,037 ***
	200만 원대	1.08	15.12	52.24	29.85	1.72	
	300만 원대	1.02	19.25	54.26	22.81	2.67	
	400만 원대	0.21	24.05	54.68	20.36	0.70	
	500만 원 이상	1.86	28.70	50.30	18.93	0.21	
학력	중졸 이하	0.25	15.04	58.81	24.18	1.73	114,667 ***
	고졸	1.06	18.12	53.02	26.13	1.68	
	대졸 이상	1.01	18.60	51.27	27.13	1.9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9	18.31	50.25	28.77	1.67	382,27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4	15.41	52.43	29.03	2.78	
	고용주·자영자	0.63	16.23	54.33	26.78	2.03	
	무급가족종사자	0.61	12.90	64.59	20.15	1.75	
	실업자	0.45	26.78	50.94	21.30	0.53	
	비경제활동인구	1.39	19.74	55.71	21.47	1.6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3	17.47	50.50	29.34	1.66	50,708 ***
	비정규직	0.35	18.70	51.18	27.19	2.5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5	16.66	51.77	29.32	1.50	448,252 ***
	중도적	0.59	19.86	55.18	23.19	1.17	
	진보적	1.59	16.68	50.42	28.25	3.06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나라에서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는 대우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불공정 또는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4〉 사회인식: (1)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9.67	36.88	35.05	17.38	1.02	
성별	남성	10.25	36.51	35.34	16.88	1.02	23,416 ***
	여성	9.08	37.26	34.75	17.89	1.02	
연령대	20대 이하	7.63	38.91	33.27	19.03	1.16	247,390 ***
	30대	10.39	35.79	35.98	16.71	1.14	
	40대	11.33	35.84	34.46	17.22	1.15	
	50대	9.74	36.16	34.46	18.83	0.82	
	60대	9.83	39.02	33.30	16.77	1.08	
	70대	8.21	35.28	42.93	13.01	0.57	
지역	수도권	11.26	36.23	33.33	17.76	1.43	218,494 ***
	비수도권	8.08	37.53	36.79	16.99	0.61	
	대도시	9.40	32.96	35.84	20.54	1.26	514,873 ***
	중소도시	10.11	41.00	34.30	13.90	0.69	
	농어촌	8.55	33.17	35.38	21.20	1.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28	38.38	23.64	17.35	2.35	530,757 ***
	중하층	8.88	35.62	36.36	17.94	1.20	
	중간층	9.18	37.82	35.48	16.74	0.79	
	중상층(상층)	7.46	34.59	38.34	19.34	0.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8.77	34.59	37.32	18.14	1.18	727,596 ***
	200만 원대	6.68	37.46	37.16	18.07	0.63	
	300만 원대	12.71	36.20	32.36	17.18	1.55	
	400만 원대	10.97	39.17	31.53	17.48	0.85	
	500만 원 이상	18.25	41.72	27.77	11.18	1.07	
학력	중졸 이하	8.04	36.66	40.48	14.33	0.49	124,546 ***
	고졸	10.12	36.09	34.62	18.28	0.89	
	대졸 이상	9.70	37.52	34.16	17.37	1.2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8	36.36	34.87	17.84	1.05	382,60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94	32.43	32.89	22.54	2.20	
	고용주·자영자	11.74	35.99	35.70	15.89	0.67	
	무급가족종사자	8.94	31.83	41.32	15.47	2.44	
	실업자	11.57	38.95	40.70	8.50	0.28	
	비경제활동인구	7.60	40.60	35.05	16.07	0.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87	35.65	35.26	18.10	1.12	39,647 ***
	비정규직	9.96	35.48	32.09	20.74	1.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10	37.24	34.53	16.21	0.92	79,543 ***
	중도적	9.31	35.41	36.05	18.16	1.07	
	진보적	8.91	38.57	34.16	17.33	1.04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5〉 사회인식: (2) 우리나라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20.71	42.33	25.67	10.55	0.75	
성별	남성	21.58	42.88	25.00	9.87	0.67	47,740 ***
	여성	19.82	41.76	26.35	11.23	0.83	
연령대	20대 이하	21.55	45.20	20.10	12.19	0.96	332,069 ***
	30대	21.26	41.25	26.36	10.30	0.83	
	40대	22.08	41.22	25.46	10.66	0.58	
	50대	20.44	42.73	26.61	9.35	0.87	
	60대	19.43	44.22	26.09	9.57	0.69	
	70대	17.35	36.68	33.75	11.87	0.34	
지역	수도권	21.38	44.59	25.79	7.66	0.59	402,394 ***
	비수도권	20.04	40.06	25.55	13.45	0.91	
	대도시	20.92	43.27	23.41	11.65	0.74	191,608 ***
	중소도시	20.66	41.99	27.18	9.62	0.55	
	농어촌	19.91	39.51	28.40	10.24	1.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20	42.82	21.09	8.30	0.59	207,153 ***
	중하층	20.00	43.43	25.59	10.33	0.66	
	중간층	20.81	41.74	25.58	11.06	0.80	
	중상층(상층)	16.02	40.38	32.08	10.42	1.0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45	38.98	28.89	12.58	1.10	581,216 ***
	200만 원대	19.52	42.33	25.18	12.20	0.77	
	300만 원대	23.30	45.79	22.11	8.41	0.40	
	400만 원대	24.14	42.01	24.58	8.58	0.70	
	500만 원 이상	23.50	44.98	28.21	2.88	0.43	
학력	중졸 이하	17.56	37.93	34.24	9.48	0.78	241,126 ***
	고졸	21.37	41.71	25.91	10.32	0.70	
	대졸 이상	20.92	43.79	23.55	10.96	0.7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79	43.69	23.65	10.97	0.91	187,27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49	40.18	26.24	10.24	0.84	
	고용주·자영자	20.14	43.99	26.04	9.34	0.49	
	무급가족종사자	14.31	43.70	31.04	10.95		
	실업자	23.02	33.39	26.30	15.71	1.58	
	비경제활동인구	20.55	39.97	28.39	10.47	0.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35	43.45	23.93	11.34	0.94	43,134 ***
	비정규직	23.52	41.69	24.83	9.20	0.7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32	46.36	24.84	10.07	0.41	444,335 ***
	중도적	18.53	40.90	28.64	10.93	1.00	
	진보적	25.79	40.73	22.33	10.44	0.7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6〉 사회인식: (3)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21.62	38.42	27.82	11.52	0.62	
성별	남성	22.71	38.43	27.21	11.09	0.57	37,062 ***
	여성	20.52	38.40	28.46	11.96	0.66	
연령대	20대 이하	24.07	37.41	26.48	11.31	0.73	272,349 ***
	30대	23.01	39.20	28.03	9.47	0.29	
	40대	21.91	38.64	27.18	11.16	1.12	
	50대	19.73	38.40	29.06	12.40	0.41	
	60대	17.63	40.85	28.54	12.14	0.83	
	70대	24.36	34.18	27.57	13.88		
지역	수도권	24.24	39.50	24.62	11.31	0.34	352,560 ***
	비수도권	19.00	37.33	31.04	11.72	0.90	
	대도시	21.86	38.90	26.80	11.87	0.57	120,086 ***
	중소도시	21.76	38.19	28.03	11.54	0.48	
	농어촌	19.67	37.23	31.83	9.60	1.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87	36.32	26.36	11.25	0.18	152,405 ***
	중하층	21.72	40.55	25.83	11.30	0.59	
	중간층	21.11	37.32	29.63	11.28	0.66	
	중상층(상층)	20.04	37.97	26.29	14.79	0.9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9.10	36.19	29.75	14.30	0.66	759,898 ***
	200만 원대	21.52	37.20	28.10	12.33	0.85	
	300만 원대	25.58	38.38	24.38	11.15	0.51	
	400만 원대	19.65	40.10	34.96	5.03	0.26	
	500만 원 이상	22.23	51.48	20.48	5.81		
학력	중졸 이하	19.45	38.50	30.15	11.49	0.41	177,924 ***
	고졸	20.95	35.81	30.24	12.38	0.63	
	대졸 이상	22.63	40.38	25.46	10.87	0.6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45	38.51	26.71	11.54	0.78	233,94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99	32.35	28.10	12.85	0.71	
	고용주·자영자	19.76	41.37	27.46	10.81	0.59	
	무급가족종사자	13.72	39.57	30.42	15.56	0.73	
	실업자	27.06	32.26	29.33	11.35		
	비경제활동인구	19.89	38.91	29.72	11.15	0.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14	39.06	26.33	11.66	0.80	98,647 ***
	비정규직	26.20	31.92	29.01	12.21	0.6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96	38.30	27.98	12.11	0.65	779,561 ***
	중도적	16.58	39.21	30.84	12.85	0.52	
	진보적	29.11	37.43	23.57	9.18	0.7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7〉 사회인식: (4)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0.68	38.72	37.24	12.61	0.75	
성별	남성	11.54	39.64	36.92	10.97	0.93	147,971 ***
	여성	9.81	37.77	37.56	14.29	0.56	
연령대	20대 이하	15.69	35.32	36.74	11.19	1.06	584,998 ***
	30대	12.31	37.95	35.24	13.79	0.72	
	40대	10.99	40.88	37.11	10.62	0.40	
	50대	8.81	39.60	36.76	13.73	1.09	
	60대	7.18	39.51	37.61	14.90	0.80	
	70대	6.38	39.00	43.38	11.23		
지역	수도권	13.29	39.32	34.31	12.63	0.45	415,067 ***
	비수도권	8.06	38.11	40.18	12.60	1.05	
	대도시	9.48	35.05	41.76	13.43	0.28	505,497 ***
	중소도시	11.95	41.13	33.98	12.02	0.92	
	농어촌	9.57	43.44	33.04	11.85	2.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09	44.84	32.53	8.84	1.70	256,818 ***
	중하층	10.71	37.74	38.40	12.68	0.48	
	중간층	11.10	38.55	36.57	12.94	0.85	
	중상층(상층)	5.78	37.96	41.78	14.20	0.2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31	39.30	36.59	15.51	1.29	726,970 ***
	200만 원대	10.15	35.74	39.27	13.98	0.86	
	300만 원대	12.88	41.60	34.63	10.58	0.31	
	400만 원대	14.46	40.94	36.40	8.08	0.12	
	500만 원 이상	14.97	40.76	37.88	6.15	0.24	
학력	중졸 이하	5.61	42.49	37.64	14.00	0.27	427,956 ***
	고졸	9.04	37.43	38.12	14.33	1.08	
	대졸 이상	13.08	38.84	36.48	10.99	0.6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67	36.17	38.68	12.59	0.89	335,25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77	36.54	34.78	15.15	1.77	
	고용주·자영자	9.07	42.41	36.24	11.63	0.64	
	무급가족종사자	8.45	40.82	41.65	9.08		
	실업자	16.66	35.99	34.11	12.71	0.53	
	비경제활동인구	9.43	41.56	36.26	12.54	0.2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58	35.75	38.99	12.75	0.93	42,193 ***
	비정규직	12.03	37.77	34.64	14.10	1.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7.46	37.97	42.81	11.12	0.64	616,353 ***
	중도적	9.49	38.59	37.52	13.41	0.99	
	진보적	15.15	39.55	31.96	12.84	0.5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8〉 사회인식: (5)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22.99	36.50	29.00	10.97	0.54	
성별	남성	23.00	38.08	28.34	9.91	0.65	89,895 ***
	여성	22.98	34.87	29.67	12.05	0.41	
연령대	20대 이하	27.26	33.49	27.74	11.00	0.52	280,571 ***
	30대	24.66	36.24	28.37	10.36	0.36	
	40대	23.04	37.56	28.62	10.52	0.26	
	50대	20.00	38.88	29.47	10.97	0.68	
	60대	21.37	34.53	32.43	11.19	0.48	
	70대	20.31	38.59	26.83	12.92	1.34	
지역	수도권	20.77	39.15	29.04	10.72	0.32	207,182 ***
	비수도권	25.23	33.84	28.96	11.23	0.75	
	대도시	19.75	36.34	31.34	11.80	0.77	290,175 ***
	중소도시	25.61	36.31	27.65	10.16	0.27	
	농어촌	24.46	38.34	24.93	11.41	0.8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88	37.26	22.83	10.73	1.31	208,344 ***
	중하층	23.32	37.40	29.04	10.07	0.17	
	중간층	21.89	36.16	29.87	11.40	0.67	
	중상층(상층)	23.88	33.38	29.49	12.72	0.5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2.55	32.84	29.14	14.64	0.83	886,963 ***
	200만 원대	23.32	32.41	31.83	11.82	0.64	
	300만 원대	25.02	40.47	26.45	7.84	0.22	
	400만 원대	18.67	44.67	28.08	8.15	0.43	
	500만 원 이상	22.23	49.97	22.29	5.51		
학력	중졸 이하	19.11	35.58	31.88	12.36	1.06	142,090 ***
	고졸	22.30	38.59	27.96	10.61	0.53	
	대졸 이상	24.40	35.10	29.14	10.93	0.4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41	35.25	29.96	10.99	0.39	263,02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95	32.53	30.16	14.16	1.20	
	고용주·자영자	21.96	40.00	27.58	9.75	0.71	
	무급가족종사자	19.59	35.16	29.62	14.99	0.64	
	실업자	31.82	27.37	34.93	5.59	0.29	
	비경제활동인구	23.17	38.48	27.44	10.51	0.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46	34.56	30.31	11.26	0.41	34,560 ***
	비정규직	22.11	35.30	29.00	12.65	0.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81	36.07	28.22	11.19	0.71	421,356 ***
	중도적	18.96	37.28	32.51	10.82	0.43	
	진보적	27.80	35.80	24.89	10.98	0.5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29〉 사회인식: (6)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하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2.54	40.79	37.11	9.36	0.19	
성별	남성	12.90	41.90	35.41	9.50	0.30	74,653 ***
	여성	12.18	39.67	38.85	9.22	0.08	
연령대	20대 이하	15.92	43.84	30.39	9.56	0.28	462,339 ***
	30대	12.92	42.77	35.29	8.90	0.12	
	40대	13.26	40.13	36.43	10.10	0.09	
	50대	10.85	39.85	40.19	8.78	0.33	
	60대	10.28	38.28	39.80	11.49	0.15	
	70대	10.81	38.33	44.88	5.88	0.10	
지역	수도권	10.92	44.73	36.44	7.86	0.05	393,169 ***
	비수도권	14.17	36.85	37.78	10.87	0.33	
	대도시	9.23	38.97	41.57	10.14	0.09	876,604 ***
	중소도시	14.07	43.12	34.12	8.60	0.09	
	농어촌	20.51	36.73	31.67	9.79	1.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20	44.99	29.18	11.64		219,223 ***
	중하층	10.85	40.13	38.46	10.44	0.12	
	중간층	13.15	40.81	37.49	8.30	0.24	
	중상층(상층)	14.85	39.20	36.44	9.10	0.4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39	37.56	38.88	12.94	0.22	921,000 ***
	200만 원대	12.20	37.34	39.75	10.49	0.23	
	300만 원대	15.17	44.74	33.52	6.46	0.11	
	400만 원대	12.18	45.39	36.57	5.85		
	500만 원 이상	15.03	53.89	27.79	2.92	0.37	
학력	중졸 이하	10.23	38.93	41.13	9.64	0.08	104,916 ***
	고졸	12.56	39.59	38.62	9.06	0.17	
	대졸 이상	13.05	42.13	35.05	9.53	0.2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61	41.02	36.19	9.91	0.26	425,00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37	34.16	35.89	15.47	0.11	
	고용주·자영자	12.07	41.53	39.18	6.90	0.32	
	무급가족종사자	10.85	41.92	38.63	8.59		
	실업자	18.82	41.88	26.79	12.52		
	비경제활동인구	11.75	42.52	38.25	7.45	0.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98	41.10	36.59	10.06	0.28	149,860 ***
	비정규직	16.00	35.36	34.71	13.84	0.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7	43.60	37.11	8.61	0.21	451,213 ***
	중도적	10.36	41.08	39.08	9.25	0.23	
	진보적	17.36	37.93	34.40	10.18	0.1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0〉 정부의 역할: (1) 소득 격차 줄이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2.72	42.42	33.64	10.77	0.45	
성별	남성	13.25	43.34	32.46	10.56	0.39	40,268 ***
	여성	12.19	41.47	34.85	10.98	0.51	
연령대	20대 이하	10.84	45.49	30.85	11.20	1.61	470,387 ***
	30대	14.52	41.99	33.49	9.83	0.18	
	40대	14.43	41.92	33.06	10.36	0.23	
	50대	12.68	42.03	33.62	11.49	0.18	
	60대	10.49	43.49	35.30	10.50	0.22	
	70대	12.98	36.89	38.61	11.43	0.08	
지역	수도권	16.77	45.92	28.94	8.13	0.24	1,234,935 ***
	비수도권	8.66	38.90	38.37	13.41	0.65	
	대도시	8.50	39.45	39.58	11.74	0.72	1,085,357 ***
	중소도시	16.67	45.52	28.22	9.37	0.22	
	농어촌	11.48	39.70	34.63	13.80	0.3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68	48.24	26.69	4.39		962,880 ***
	중하층	9.09	45.93	33.63	11.07	0.28	
	중간층	14.52	39.74	34.36	10.97	0.40	
	중상층(상층)	8.79	37.49	36.43	15.08	2.2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68	39.92	37.38	11.81	0.21	1,140,630 ***
	200만 원대	10.04	40.97	35.55	12.98	0.45	
	300만 원대	17.51	41.09	32.30	8.69	0.40	
	400만 원대	15.31	48.93	28.95	6.60	0.21	
	500만 원 이상	16.97	55.64	19.11	6.50	1.79	
학력	중졸 이하	12.24	36.65	40.54	10.42	0.15	209,336 ***
	고졸	11.31	43.13	33.56	11.64	0.36	
	대졸 이상	13.91	43.18	32.15	10.18	0.5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32	43.90	32.03	11.45	0.31	449,34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49	41.39	36.38	11.08	0.66	
	고용주·자영자	15.04	38.27	36.14	10.36	0.20	
	무급가족종사자	9.54	32.30	41.63	16.53		
	실업자	15.70	54.44	10.96	18.90		
	비경제활동인구	12.77	43.22	34.34	8.82	0.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58	43.55	32.55	11.98	0.33	38,071 ***
	비정규직	13.19	43.01	33.82	9.46	0.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12	42.57	35.03	10.51	0.76	218,197 ***
	중도적	12.17	40.70	35.09	11.65	0.39	
	진보적	14.88	44.63	30.45	9.78	0.25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1〉 정부의 역할: (2)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11.05	36.81	34.81	15.94	1.39	
성별	남성	12.70	36.50	34.52	14.81	1.47	142,359 ***
	여성	9.36	37.13	35.10	17.10	1.31	
연령대	20대 이하	11.33	34.52	34.07	18.02	2.06	466,653 ***
	30대	11.57	41.86	31.32	14.82	0.43	
	40대	14.49	34.99	35.22	13.85	1.46	
	50대	10.52	35.76	37.00	15.16	1.56	
	60대	8.97	37.10	35.80	16.74	1.39	
	70대	6.00	37.61	35.66	19.36	1.38	
지역	수도권	14.86	39.68	31.21	13.72	0.53	1,143,286 ***
	비수도권	7.22	33.93	38.42	18.17	2.26	
	대도시	7.08	32.32	38.98	20.17	1.45	1,371,339 ***
	중소도시	14.68	41.23	31.33	11.65	1.12	
	농어촌	10.31	34.26	33.66	19.09	2.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04	42.50	25.69	18.65	0.11	524,666 ***
	중하층	8.56	37.70	36.03	16.41	1.30	
	중간층	12.93	36.43	34.29	14.72	1.62	
	중상층(상층)	7.41	28.33	43.03	19.56	1.6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91	37.93	35.06	18.46	1.63	1,160,087 ***
	200만 원대	8.74	34.67	38.05	17.08	1.46	
	300만 원대	14.51	36.13	32.31	15.52	1.54	
	400만 원대	16.72	43.34	28.86	10.65	0.42	
	500만 원 이상	21.49	37.83	31.64	8.14	0.91	
학력	중졸 이하	5.41	37.47	38.67	17.54	0.92	351,550 ***
	고졸	10.01	36.34	34.71	17.72	1.23	
	대졸 이상	13.10	37.03	34.02	14.23	1.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94	36.80	33.42	16.48	1.37	326,09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98	38.19	35.90	17.02	1.91	
	고용주·자영자	11.95	32.91	37.40	15.77	1.96	
	무급가족종사자	6.71	32.38	43.72	16.57	0.62	
	실업자	15.31	45.22	26.01	9.99	3.48	
	비경제활동인구	10.54	38.94	34.84	14.95	0.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34	36.53	33.99	16.80	1.34	23,391 ***
	비정규직	9.94	38.75	33.56	15.87	1.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6.83	37.82	34.89	18.95	1.51	580,586 ***
	중도적	10.56	36.52	37.29	14.25	1.38	
	진보적	15.41	36.32	31.34	15.61	1.3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2〉 정부의 역할: (3)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전체		4.25	23.00	41.43	22.90	8.42	
성별	남성	4.64	22.57	40.00	22.44	10.36	232,750 ***
	여성	3.86	23.45	42.90	23.37	6.43	
연령대	20대 이하	5.89	20.26	43.59	23.61	6.64	569,459 ***
	30대	2.84	24.07	40.51	21.99	10.58	
	40대	4.70	22.34	38.67	23.17	11.12	
	50대	3.66	22.82	39.77	24.43	9.31	
	60대	3.93	23.52	45.00	20.99	6.56	
	70대	4.61	27.88	43.11	22.15	2.26	
지역	수도권	4.14	23.88	37.78	20.36	13.83	1,712,693 ***
	비수도권	4.37	22.12	45.09	25.44	2.98	
	대도시	2.02	20.77	47.92	23.34	5.95	1,286,961 ***
	중소도시	6.12	24.98	35.43	21.98	11.49	
	농어촌	4.85	23.01	42.89	25.87	3.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32	33.19	30.72	21.78	4.99	1,845,247 ***
	중하층	3.07	24.24	45.06	24.82	2.80	
	중간층	4.44	20.77	39.53	22.16	13.11	
	중상층(상층)	3.11	21.54	49.39	19.67	6.3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6	25.60	42.05	24.70	3.59	2,423,127 ***
	200만 원대	3.30	22.94	45.40	23.11	5.25	
	300만 원대	6.48	19.63	39.66	23.73	10.50	
	400만 원대	4.08	17.65	36.09	21.21	20.98	
	500만 원 이상	3.50	30.59	29.89	14.35	21.67	
학력	중졸 이하	3.81	29.29	42.87	21.15	2.89	605,872 ***
	고졸	4.99	23.17	42.04	23.50	6.31	
	대졸 이상	3.79	21.46	40.64	22.83	11.2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46	21.39	41.67	23.15	9.33	411,94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30	28.70	38.29	23.23	4.49	
	고용주·자영자	4.41	24.21	41.24	22.09	8.05	
	무급가족종사자		31.59	37.46	29.49	1.45	
	실업자	4.69	13.64	41.58	34.28	5.81	
	비경제활동인구	3.60	22.57	42.75	21.76	9.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53	21.54	42.16	23.30	8.48	72,647 ***
	비정규직	4.91	26.69	37.45	22.74	8.20	
이념적 성향	보수적	4.57	25.95	44.34	22.00	3.14	701,961 ***
	중도적	3.70	21.96	40.51	22.33	11.51	
	진보적	4.73	21.84	40.14	24.46	8.8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 의견에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3〉 건강 불안: (1) 전염병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9.70	36.76	34.79	15.70	3.05	
성별	남성	9.40	33.91	37.22	16.92	2.54	245,361 ***
	여성	10.01	39.66	32.30	14.46	3.57	
연령대	20대 이하	12.42	33.53	35.03	15.19	3.83	340,287 ***
	30대	9.25	38.03	35.58	14.56	2.58	
	40대	8.83	36.66	34.63	17.10	2.78	
	50대	8.48	35.56	36.79	16.44	2.73	
	60대	10.35	41.62	31.51	14.55	1.96	
	70대	8.74	35.74	33.74	16.07	5.72	
지역	수도권	6.47	35.06	38.21	16.59	3.68	692,235 ***
	비수도권	12.94	38.46	31.36	14.81	2.43	
	대도시	7.88	36.92	38.02	14.73	2.45	712,142 ***
	중소도시	9.67	37.19	33.86	15.56	3.73	
	농어촌	19.02	33.49	23.84	21.41	2.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72	32.44	32.56	23.15	1.14	867,997 ***
	중하층	7.36	42.22	31.45	16.45	2.52	
	중간층	11.38	34.44	37.19	13.92	3.07	
	중상층(상층)	8.08	30.69	36.70	16.56	7.9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78	37.48	31.19	20.67	2.88	1,200,898 ***
	200만 원대	10.34	37.95	31.54	17.90	2.27	
	300만 원대	11.72	38.25	35.62	10.41	4.00	
	400만 원대	8.48	33.04	45.06	9.65	3.76	
	500만 원 이상	9.03	27.63	50.50	8.73	4.10	
학력	중졸 이하	10.46	33.68	36.40	15.91	3.55	133,166 ***
	고졸	9.42	37.21	33.43	17.56	2.39	
	대졸 이상	9.75	37.11	35.46	14.24	3.4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52	36.31	35.40	16.21	2.56	320,45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24	39.15	28.21	19.14	2.25	
	고용주·자영자	7.78	36.30	36.03	16.46	3.44	
	무급가족종사자	6.30	43.01	35.21	13.34	2.14	
	실업자	7.60	42.47	28.42	15.88	5.63	
	비경제활동인구	11.17	36.11	35.88	12.92	3.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24	36.57	35.61	16.14	2.44	97,487 ***
	비정규직	11.75	37.72	29.08	18.74	2.7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98	41.52	30.63	15.12	2.75	909,803 ***
	중도적	8.05	33.90	41.86	14.14	2.04	
	진보적	11.72	36.48	28.77	18.34	4.6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건강’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4〉 건강 불안: (2) 먹거리 문제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5.79	35.21	32.85	14.50	1.65	
성별	남성	13.78	33.97	35.23	15.56	1.46	241,549 ***
	여성	17.84	36.49	30.41	13.41	1.85	
연령대	20대 이하	17.68	33.40	28.49	17.09	3.34	599,136 ***
	30대	14.97	38.01	34.57	11.65	0.79	
	40대	14.21	34.50	34.70	15.11	1.49	
	50대	14.85	32.90	37.05	13.09	2.10	
	60대	18.37	36.46	30.06	14.14	0.98	
	70대	14.95	38.52	28.76	17.51	0.27	
지역	수도권	13.37	31.42	37.44	15.72	2.06	674,262 ***
	비수도권	18.22	39.02	28.24	13.27	1.25	
	대도시	16.28	36.14	32.49	13.39	1.71	288,846 ***
	중소도시	14.15	33.95	34.57	15.72	1.61	
	농어촌	22.60	37.74	24.86	13.16	1.6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58	35.96	30.46	14.45	1.55	381,342 ***
	중하층	15.29	36.25	31.00	16.36	1.10	
	중간층	15.66	35.21	34.64	12.87	1.62	
	중상층(상층)	17.30	28.91	31.72	17.17	4.9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83	36.48	30.83	18.91	0.95	1,008,055 ***
	200만 원대	16.55	38.72	28.34	14.48	1.91	
	300만 원대	18.05	33.04	34.94	12.26	1.70	
	400만 원대	17.61	29.17	42.12	9.70	1.40	
	500만 원 이상	13.77	25.82	46.64	10.63	3.15	
학력	중졸 이하	13.91	37.92	30.33	17.33	0.52	243,728 ***
	고졸	17.51	35.57	30.48	15.00	1.44	
	대졸 이상	14.90	34.34	35.22	13.48	2.0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13	36.14	32.81	14.44	1.48	240,26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20	32.27	29.74	18.24	2.54	
	고용주·자영자	15.91	32.27	34.99	15.20	1.62	
	무급가족종사자	9.93	36.06	37.44	16.56		
	실업자	20.36	30.30	30.95	14.86	3.52	
	비경제활동인구	16.44	37.18	32.43	12.33	1.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35	35.94	33.04	14.08	1.58	80,942 ***
	비정규직	16.07	33.70	29.66	18.57	2.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90	38.24	29.60	12.72	1.54	550,682 ***
	중도적	13.67	32.42	38.34	14.33	1.23	
	진보적	16.83	36.37	28.19	16.29	2.3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건강’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5〉 건강 불안: (3) 정신건강 문제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7.99	36.80	29.43	13.49	2.29	
성별	남성	17.17	37.38	29.09	14.16	2.20	36.874 ***
	여성	18.82	36.22	29.78	12.80	2.39	
연령대	20대 이하	21.83	35.06	24.75	15.15	3.20	438.380 ***
	30대	17.40	36.36	30.39	12.65	3.20	
	40대	15.43	37.43	30.82	14.39	1.93	
	50대	15.82	36.43	33.38	12.60	1.76	
	60대	20.94	39.36	26.93	11.27	1.50	
	70대	17.17	36.45	28.86	15.54	1.98	
지역	수도권	16.62	32.92	31.84	14.78	3.83	775.723 ***
	비수도권	19.36	40.70	27.01	12.19	0.75	
	대도시	20.31	35.08	28.79	13.44	2.39	20.46
	중소도시	15.03	37.88	31.06	13.75	2.29	19.02
	농어촌	23.16	39.33	23.40	12.25	1.85	21.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31	37.54	22.75	12.47	3.93	17.61
	중하층	19.35	36.88	28.52	13.34	1.91	17.60
	중간층	16.45	37.59	30.98	12.98	2.00	16.61
	중상층(상층)	16.31	29.55	30.22	19.32	4.61	20.4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37	36.61	30.82	15.36	1.84	27.93
	200만 원대	18.36	38.09	27.45	13.75	2.36	28.80
	300만 원대	19.73	34.36	29.45	14.56	1.90	14.79
	400만 원대	20.94	33.52	34.93	8.16	2.44	26.15
	500만 원 이상	16.99	42.29	27.69	8.34	4.70	21.45
학력	중졸 이하	14.89	41.47	28.92	13.19	1.52	18.57
	고졸	19.61	36.56	29.45	12.72	1.65	26.19
	대졸 이상	17.45	35.93	29.52	14.14	2.96	23.5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78	37.15	28.82	13.78	2.47	19.7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41	32.72	32.76	14.38	2.73	21.00
	고용주·자영자	16.23	38.32	29.55	13.15	2.76	16.61
	무급가족종사자	13.24	42.77	30.91	12.58	0.49	20.18
	실업자	17.38	32.72	25.84	24.06		21.08
	비경제활동인구	20.27	36.61	29.13	12.28	1.71	22.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52	37.48	28.79	14.00	2.21	18.04
	비정규직	18.31	32.60	32.04	13.56	3.49	14.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91	40.98	26.39	13.36	1.35	20.90
	중도적	15.89	37.90	32.50	11.77	1.94	18.81
	진보적	20.92	31.64	27.89	15.95	3.61	17.2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건강’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6〉 건강 불안: (4) 성인병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20.46	39.05	26.88	12.54	1.08	
성별	남성	19.02	39.43	26.68	14.18	0.69	196,567 ***
	여성	21.92	38.66	27.08	10.86	1.48	
연령대	20대 이하	17.61	31.01	31.48	18.06	1.84	1,214,337 ***
	30대	17.60	39.87	27.97	13.37	1.20	
	40대	16.61	40.79	30.75	10.95	0.90	
	50대	20.46	41.61	26.07	10.73	1.14	
	60대	27.93	42.27	19.59	9.49	0.71	
	70대	28.80	38.74	19.99	12.33	0.13	
지역	수도권	14.79	37.81	29.78	16.15	1.48	1,293,680 ***
	비수도권	26.15	40.30	23.97	8.91	0.68	
	대도시	21.45	37.99	27.19	12.22	1.15	217,474 ***
	중소도시	18.57	39.58	27.48	13.46	0.91	
	농어촌	26.19	41.36	21.91	8.87	1.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56	38.28	23.39	13.96	0.81	354,59 ***
	중하층	19.70	40.55	27.81	10.96	0.99	
	중간층	21.00	38.93	26.79	12.31	0.97	
	중상층(상층)	16.61	33.06	26.78	20.86	2.6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18	40.87	23.34	14.09	1.51	503,434 ***
	200만 원대	21.08	35.50	29.83	12.67	0.92	
	300만 원대	22.70	38.10	25.44	12.86	0.90	
	400만 원대	18.04	48.00	23.63	9.45	0.88	
	500만 원 이상	14.28	42.77	33.12	8.75	1.07	
학력	중졸 이하	26.25	43.28	22.46	7.55	0.46	315,956 ***
	고졸	20.90	38.78	26.18	13.14	1.00	
	대졸 이상	18.81	38.31	28.40	13.20	1.2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29	38.49	29.49	13.86	0.87	514,26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89	38.32	24.45	14.16	1.18	
	고용주·자영자	22.78	40.87	23.90	11.45	0.99	
	무급가족종사자	19.49	43.02	32.35	5.14		
	실업자	17.68	32.33	27.74	22.24		
	비경제활동인구	24.11	39.15	24.91	10.20	1.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98	38.90	29.32	13.92	0.87	75,871
	비정규직	21.89	37.05	26.06	13.90	1.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42	42.55	22.53	11.05	0.45	698,953 ***
	중도적	17.85	41.21	29.02	11.08	0.85	
	진보적	21.41	33.03	27.77	15.84	1.95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건강’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7〉 건강 불안: (5) 대기오염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24.59	39.21	26.30	9.02	0.88	
성별	남성	22.62	38.79	26.62	10.80	1.18	260,988 ***
	여성	26.61	39.64	25.97	7.19	0.58	
연령대	20대 이하	26.90	34.84	27.29	8.89	2.08	385,585 ***
	30대	27.25	39.20	23.77	9.41	0.38	
	40대	24.55	39.57	26.93	8.27	0.68	
	50대	23.05	39.31	25.97	10.87	0.80	
	60대	22.91	42.13	26.26	8.26	0.44	
	70대	20.83	42.52	28.86	6.97	0.83	
지역	수도권	20.77	39.42	27.52	10.94	1.35	545,720 ***
	비수도권	28.44	39.00	25.07	7.08	0.41	
	대도시	24.03	40.84	24.46	9.63	1.03	196,500 ***
	중소도시	24.08	37.75	28.34	8.98	0.86	
	농어촌	30.34	39.32	23.91	6.17	0.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16	39.15	24.70	6.24	1.75	535,300 ***
	중하층	26.24	38.43	24.12	10.75	0.47	
	중간층	23.45	39.55	28.41	7.89	0.70	
	중상층(상층)	20.48	40.80	23.56	11.72	3.4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69	37.60	28.57	11.68	1.46	772,860 ***
	200만 원대	24.82	39.91	24.47	10.01	0.78	
	300만 원대	28.49	40.51	24.53	6.29	0.18	
	400만 원대	31.07	34.63	27.64	6.41	0.25	
	500만 원 이상	18.12	43.47	31.09	5.09	2.23	
학력	중졸 이하	20.30	39.43	32.92	6.63	0.72	217,493 ***
	고졸	25.30	40.43	23.69	9.78	0.80	
	대졸 이상	25.02	38.23	26.79	8.97	0.9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75	39.72	26.29	8.51	0.74	497,04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95	33.93	24.38	13.50	2.23	
	고용주·자영자	21.47	37.93	29.64	10.60	0.36	
	무급가족종사자	22.94	42.59	26.91	7.56		
	실업자	28.97	41.12	15.31	14.59		
	비경제활동인구	25.90	41.12	25.26	6.65	1.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11	39.24	26.77	8.12	0.76	253,903 ***
	비정규직	24.56	36.66	23.26	13.67	1.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85	40.03	25.11	8.95	1.06	215,702 ***
	중도적	23.76	36.84	29.09	9.14	1.17	
	진보적	25.52	41.73	23.51	8.90	0.34	

주 1) “(조사표질문) __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건강’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8〉 생애주기 불안: (1) 노후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7.23	38.35	33.57	10.23	0.61	
성별	남성	16.58	36.83	35.27	10.76	0.56	86,147 ***
	여성	17.90	39.91	31.83	9.69	0.67	
연령대	20대 이하	16.33	31.74	36.59	14.61	0.73	1,037,583 ***
	30대	13.40	38.88	38.63	8.55	0.54	
	40대	16.84	38.18	35.43	9.21	0.34	
	50대	15.19	41.27	34.21	8.36	0.98	
	60대	22.69	42.86	25.15	8.51	0.79	
	70대	23.72	36.92	25.02	14.34		
지역	수도권	13.63	37.31	36.13	12.12	0.80	573,379 ***
	비수도권	20.85	39.39	31.00	8.34	0.43	
	대도시	16.15	40.16	33.12	9.90	0.67	621,497 ***
	중소도시	16.01	36.57	35.24	11.61	0.58	
	농어촌	29.62	39.37	26.38	4.07	0.5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28	40.89	22.79	8.03		1,694,788 ***
	중하층	19.48	41.64	29.92	8.58	0.38	
	중간층	15.19	36.22	37.82	10.32	0.44	
	중상층(상층)	8.00	34.24	33.10	20.80	3.8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55	41.23	27.50	11.95	0.77	433,767 ***
	200만 원대	16.74	39.92	34.11	8.75	0.48	
	300만 원대	17.18	33.99	37.63	10.88	0.32	
	400만 원대	16.74	34.48	37.44	10.69	0.66	
	500만 원 이상	15.63	37.16	36.62	9.02	1.57	
학력	중졸 이하	23.33	40.99	27.02	8.48	0.18	536,095 ***
	고졸	18.98	40.32	29.96	10.15	0.59	
	대졸 이상	14.53	36.26	37.80	10.69	0.7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35	36.75	36.83	10.69	0.37	655,19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45	40.43	27.39	10.74	0.98	
	고용주·자영자	18.81	40.81	31.88	7.74	0.76	
	무급가족종사자	17.37	44.70	29.89	8.04		
	실업자	13.29	15.48	42.07	29.16		
	비경제활동인구	18.35	39.44	31.28	10.07	0.8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94	36.33	37.65	10.84	0.23	415,865 ***
	비정규직	20.67	40.98	26.78	10.27	1.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08	39.19	28.22	9.49	1.01	655,026 ***
	중도적	16.23	35.37	38.17	9.50	0.73	
	진보적	14.35	41.69	31.98	11.88	0.10	

주 1) “(조사표 질문) _넘겨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생애주기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39〉 생애주기 불안: (2) 가족 해체 및 약화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0.31	34.96	37.97	14.32	2.45	
성별	남성	9.67	32.55	39.67	15.18	2.93	181,853 ***
	여성	10.96	37.42	36.23	13.44	1.95	
연령대	20대 이하	11.18	29.92	36.49	18.48	3.92	973,666 ***
	30대	9.93	30.71	41.93	13.83	3.60	
	40대	8.80	33.56	42.25	13.28	2.12	
	50대	9.86	34.49	41.10	12.58	1.97	
	60대	12.73	42.70	29.53	13.62	1.43	
	70대	9.68	45.86	29.62	14.30	0.54	
지역	수도권	9.75	32.85	36.33	17.42	3.65	618,746 ***
	비수도권	10.86	37.08	39.61	11.20	1.24	
	대도시	11.13	37.32	35.69	13.18	2.67	898,294 ***
	중소도시	8.24	31.12	42.44	15.78	2.42	
	농어촌	17.92	44.86	24.04	11.73	1.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88	41.08	27.24	16.20	1.60	1,220,327 ***
	중하층	10.09	38.67	36.52	12.18	2.54	
	중간층	10.30	32.80	41.03	14.23	1.65	
	중상층(상층)	7.30	24.69	34.95	24.03	9.0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16	41.14	33.80	14.39	1.51	522,944 ***
	200만 원대	11.56	34.31	37.07	14.86	2.20	
	300만 원대	9.65	32.49	41.86	13.19	2.81	
	400만 원대	8.76	30.82	41.07	15.73	3.62	
	500만 원 이상	11.99	27.52	42.92	12.80	4.78	
학력	중졸 이하	11.38	46.39	28.35	12.98	0.91	637,144 ***
	고졸	10.85	37.24	36.70	13.17	2.04	
	대졸 이상	9.65	30.65	41.10	15.49	3.1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4	31.26	40.99	15.40	2.51	577,66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44	37.49	37.03	12.96	1.08	
	고용주·자영자	11.21	34.56	37.25	14.82	2.16	
	무급가족종사자	10.20	36.57	43.80	8.02	1.41	
	실업자	6.67	38.12	33.66	10.65	10.90	
	비경제활동인구	10.23	40.59	33.25	13.23	2.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54	31.53	41.36	15.14	2.43	79,765 ***
	비정규직	12.06	35.33	36.70	14.27	1.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95	43.61	29.73	13.59	1.12	1,106,828 ***
	중도적	8.54	33.56	42.03	14.12	1.76	
	진보적	11.27	29.27	39.66	15.24	4.56	

주 1) “(조사표 질문) _님께서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생애주기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0〉 생애주기 불안: (3) 저출산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3.78	39.29	35.07	11.12	0.75	
성별	남성	13.88	38.58	35.16	11.26	1.12	83,550 ***
	여성	13.67	40.02	34.97	10.97	0.37	
연령대	20대 이하	12.43	39.76	34.27	11.47	2.07	403,739 ***
	30대	13.34	39.14	35.98	11.14	0.40	
	40대	13.63	36.11	38.79	11.13	0.33	
	50대	13.18	39.34	35.99	10.88	0.61	
	60대	15.98	41.15	30.48	11.78	0.60	
	70대	15.58	42.82	31.69	9.69	0.21	
지역	수도권	11.31	40.37	34.57	12.68	1.06	344,038 ***
	비수도권	16.25	38.20	35.56	9.55	0.44	
	대도시	14.88	37.64	35.54	11.23	0.71	721,145 ***
	중소도시	10.66	40.58	36.08	11.89	0.80	
	농어촌	25.93	40.26	26.99	6.19	0.6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55	46.64	32.42	10.30	0.09	360,973 ***
	중하층	14.67	40.66	33.62	10.19	0.86	
	중간층	14.17	37.41	36.64	11.20	0.58	
	중상층(상층)	9.91	37.75	33.80	16.27	2.2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75	39.75	33.80	13.01	0.70	265,071 ***
	200만 원대	14.27	39.86	33.84	11.13	0.90	
	300만 원대	15.74	37.82	36.13	9.77	0.54	
	400만 원대	10.06	37.50	42.83	9.35	0.26	
	500만 원 이상	13.77	41.27	33.40	10.12	1.44	
학력	중졸 이하	14.40	42.31	35.98	6.88	0.44	187,752 ***
	고졸	13.48	39.91	33.03	12.90	0.68	
	대졸 이상	13.86	38.14	36.41	10.72	0.8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0	38.78	35.54	11.67	0.81	707,91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68	40.11	30.39	14.13	0.69	
	고용주·자영자	16.68	37.26	35.50	10.02	0.54	
	무급가족종사자	16.27	34.89	38.23	10.34	0.26	
	실업자	14.26	43.53	26.07	7.67	8.47	
	비경제활동인구	12.11	41.42	36.17	9.90	0.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00	38.68	36.40	11.06	0.86	157,569 ***
	비정규직	15.00	40.14	28.77	15.54	0.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38	44.10	27.86	11.38	0.29	494,523 ***
	중도적	12.47	36.07	38.96	11.50	1.01	
	진보적	13.28	39.47	36.09	10.36	0.80	

주 1) “(조사표 질문) _넌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생애주기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1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41〉 생애주기 불안: (4) 고령화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9.80	41.40	29.02	9.41	0.37	
성별	남성	18.86	42.58	28.17	10.06	0.33	64,426 ***
	여성	20.76	40.20	29.89	8.74	0.41	
연령대	20대 이하	19.71	38.33	29.05	12.83	0.09	709,080 ***
	30대	17.06	41.79	28.61	11.91	0.62	
	40대	17.70	41.25	32.64	8.06	0.35	
	50대	17.71	44.44	30.23	7.41	0.21	
	60대	23.73	43.02	25.39	7.09	0.77	
	70대	29.09	37.29	24.55	8.90	0.18	
지역	수도권	17.76	40.45	31.02	10.55	0.23	232,714 ***
	비수도권	21.85	42.36	27.02	8.27	0.51	
	대도시	22.25	39.93	28.37	9.17	0.29	722,823 ***
	중소도시	15.55	42.76	31.53	9.79	0.37	
	농어촌	31.62	41.05	18.11	8.46	0.7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28	40.95	25.22	8.43	0.12	411,087 ***
	중하층	21.70	43.28	25.55	9.16	0.32	
	중간층	18.39	40.28	31.72	9.29	0.32	
	중상층(상층)	14.11	40.52	31.25	12.78	1.3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68	40.89	26.57	11.40	0.46	318,980 ***
	200만 원대	18.96	43.31	27.66	9.78	0.28	
	300만 원대	21.87	39.44	30.03	8.23	0.43	
	400만 원대	17.72	41.19	33.30	7.52	0.27	
	500만 원 이상	17.17	39.36	37.27	5.76	0.44	
학력	중졸 이하	24.61	41.65	25.76	7.66	0.32	112,126 ***
	고졸	19.87	41.53	28.93	9.28	0.38	
	대졸 이상	18.66	41.25	29.83	9.90	0.3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67	41.28	30.40	9.38	0.27	340,27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75	42.03	24.75	12.06	0.41	
	고용주·자영자	22.09	41.24	28.56	7.51	0.59	
	무급가족종사자	26.70	38.50	27.00	7.80		
	실업자	16.31	31.64	26.93	24.67	0.45	
	비경제활동인구	19.48	42.23	28.94	8.96	0.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40	40.73	31.20	9.38	0.29	127,882 ***
	비정규직	21.14	43.64	23.42	11.47	0.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58	43.33	25.81	7.61	0.68	330,917 ***
	중도적	18.05	39.77	32.37	9.67	0.13	
	진보적	19.75	41.93	27.27	10.63	0.41	

주 1) “(조사표 질문) _님께서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생애주기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2〉 사회생활 불안: (1) 범죄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7.75	41.04	29.87	10.40	0.93	
성별	남성	15.88	40.54	31.17	11.11	1.31	194,563 ***
	여성	19.68	41.55	28.54	9.68	0.55	
연령대	20대 이하	22.50	37.55	26.12	12.39	1.44	59,593 ***
	30대	17.29	41.74	29.88	10.39	0.70	
	40대	18.09	42.22	31.58	7.36	0.75	
	50대	16.59	38.57	33.82	10.54	0.49	
	60대	16.67	44.98	27.55	9.52	1.27	
	70대	12.38	43.51	28.22	14.61	1.28	
지역	수도권	14.74	37.91	31.88	13.96	1.51	1,020,376 ***
	비수도권	20.78	44.18	27.86	6.83	0.36	
	대도시	18.14	39.31	31.05	10.56	0.94	442,162 ***
	중소도시	15.90	42.24	29.68	11.40	0.78	
	농어촌	26.35	42.90	25.02	3.94	1.7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32	40.36	26.40	12.77	2.15	492,373 ***
	중하층	17.16	44.06	28.65	9.60	0.53	
	중간층	18.20	38.99	31.86	10.29	0.66	
	중상층(상층)	16.81	41.53	25.22	12.71	3.7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67	41.11	30.39	13.68	1.14	774,034 ***
	200만 원대	18.92	42.60	27.57	10.39	0.52	
	300만 원대	19.83	42.90	29.63	6.91	0.73	
	400만 원대	19.84	33.64	36.74	9.23	0.54	
	500만 원 이상	18.15	36.02	32.24	10.13	3.46	
학력	중졸 이하	14.12	43.56	29.17	11.70	1.45	136,207 ***
	고졸	17.91	41.90	28.67	10.94	0.58	
	대졸 이상	18.45	39.81	30.94	9.70	1.0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67	41.46	31.07	9.30	0.50	281,00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87	42.14	25.90	14.80	1.30	
	고용주·자영자	18.21	39.27	30.88	10.03	1.60	
	무급가족종사자	20.45	46.58	24.19	8.05	0.72	
	실업자	20.71	44.04	28.65	6.14	0.45	
	비경제활동인구	18.02	40.53	29.10	11.23	1.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86	42.13	31.70	8.93	0.38	292,026 ***
	비정규직	18.80	39.88	25.01	14.82	1.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93	42.12	26.49	10.86	1.61	434,763 ***
	중도적	14.72	40.07	34.06	10.40	0.74	
	진보적	20.87	41.41	27.11	10.01	0.60	

주 1) “(조사표 질문) _넘겨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사회생활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1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43〉 사회생활 불안: (2) 산업재해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3.25	41.25	34.50	10.24	0.75	
성별	남성	12.10	41.16	35.28	10.65	0.81	58,587 ***
	여성	14.43	41.34	33.70	9.83	0.69	
연령대	20대 이하	14.73	39.96	31.84	12.23	1.24	403,908 ***
	30대	13.06	41.53	35.51	9.83	0.07	
	40대	12.29	41.58	36.52	8.71	0.90	
	50대	10.10	43.35	34.17	11.51	0.87	
	60대	15.95	42.13	31.44	9.59	0.89	
	70대	15.85	35.95	39.50	8.45	0.25	
지역	수도권	12.46	37.72	34.74	13.97	1.11	779,430 ***
	비수도권	14.05	44.79	34.26	6.50	0.39	
	대도시	13.68	40.62	34.73	9.97	1.01	248,974 ***
	중소도시	11.90	41.05	35.52	10.96	0.57	
	농어촌	18.79	45.57	27.59	7.53	0.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48	35.11	37.58	10.83	1.00	463,947 ***
	중하층	12.12	42.77	34.03	10.57	0.51	
	중간층	13.66	41.61	35.06	9.08	0.58	
	중상층(상층)	13.51	37.74	29.05	16.67	3.0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40	39.74	35.26	11.89	0.72	377,297 ***
	200만 원대	11.61	42.24	35.33	10.18	0.64	
	300만 원대	16.70	42.02	32.92	8.09	0.27	
	400만 원대	14.75	40.34	33.26	10.59	1.06	
	500만 원 이상	12.86	40.56	33.57	10.43	2.58	
학력	중졸 이하	14.67	40.93	35.32	8.56	0.51	153,962 ***
	고졸	13.87	41.74	31.92	11.36	1.11	
	대졸 이상	12.46	40.95	36.28	9.77	0.5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25	42.52	35.47	9.33	0.43	343,92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07	35.78	36.49	13.49	1.17	
	고용주·자영자	13.15	41.02	34.58	10.22	1.02	
	무급가족종사자	9.75	55.78	28.85	5.62		
	실업자	13.12	38.09	40.32	5.96	2.51	
	비경제활동인구	15.49	40.58	31.90	11.12	0.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08	42.28	36.11	9.22	0.31	172,279 ***
	비정규직	13.42	37.97	34.25	12.96	1.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73	42.04	30.96	9.56	0.70	505,338 ***
	중도적	9.81	40.38	38.45	10.92	0.44	
	진보적	11.27	29.27	39.66	15.24	4.56	

주 1) “(조사표 질문) _님께서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사회생활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4〉 경제생활 불안: (1) 실업 및 빈곤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6.61	41.78	32.18	8.65	0.78	
성별	남성	17.11	42.07	32.08	8.38	0.37	100,171 ***
	여성	16.11	41.49	32.28	8.92	1.19	
연령대	20대 이하	18.49	43.23	29.12	7.61	1.54	517,326 ***
	30대	15.80	42.25	33.88	7.47	0.60	
	40대	16.78	39.57	33.95	9.30	0.39	
	50대	14.65	41.95	34.80	8.12	0.47	
	60대	19.87	42.89	28.27	7.66	1.31	
	70대	12.97	40.60	31.34	14.84	0.25	
지역	수도권	14.57	39.16	34.62	10.51	1.14	484,356 ***
	비수도권	18.66	44.42	29.73	6.78	0.42	
	대도시	15.85	41.32	32.13	9.72	0.97	205,976 ***
	중소도시	16.70	41.05	33.40	8.21	0.64	
	농어촌	19.96	48.25	25.48	5.71	0.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23	46.06	21.13	10.53	0.05	875,498 ***
	중하층	17.28	45.74	28.84	7.44	0.70	
	중간층	16.27	39.19	35.51	8.34	0.70	
	중상층(상층)	9.13	35.73	37.41	15.08	2.6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62	43.05	30.18	11.82	1.33	821,816 ***
	200만 원대	16.84	43.67	30.43	8.62	0.44	
	300만 원대	20.35	40.23	33.37	5.89	0.17	
	400만 원대	16.84	35.63	41.23	5.86	0.44	
	500만 원 이상	15.08	39.38	34.10	8.64	2.81	
학력	중졸 이하	13.72	43.52	31.52	11.06	0.18	224,098 ***
	고졸	19.06	40.89	30.91	8.62	0.52	
	대졸 이상	15.40	42.07	33.29	8.13	1.1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37	43.17	32.54	8.45	0.46	289,23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97	35.96	31.16	10.64	1.26	
	고용주·자영자	16.67	42.71	32.47	7.07	1.08	
	무급가족종사자	9.42	45.50	35.50	9.58		
	실업자	20.62	46.51	20.47	11.94	0.45	
	비경제활동인구	17.25	40.51	32.17	9.07	1.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19	43.02	33.01	8.32	0.46	155,931 ***
	비정규직	20.37	37.97	29.98	10.57	1.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56	44.94	26.89	10.86	0.75	376,058 ***
	중도적	16.61	39.01	36.16	7.23	1.00	
	진보적	16.67	42.81	31.39	8.64	0.50	

주 1) “(조사표 질문) _넘겨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경제생활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5〉 경제생활 불안: (2) 주택 및 전세 가격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2.52	40.76	35.20	11.02	0.49	
성별	남성	12.80	39.19	37.33	10.43	0.24	151,599 ***
	여성	12.23	42.37	33.02	11.63	0.75	
연령대	20대 이하	14.42	41.02	31.42	12.76	0.39	547,364 ***
	30대	13.27	42.13	35.87	8.12	0.61	
	40대	11.52	43.41	36.10	8.52	0.45	
	50대	10.35	39.06	39.10	10.98	0.51	
	60대	14.67	40.12	33.31	11.30	0.60	
	70대	10.76	36.34	33.53	19.00	0.36	
지역	수도권	13.32	38.94	35.29	12.16	0.29	140,030 ***
	비수도권	11.71	42.60	35.11	9.88	0.70	
	대도시	11.89	41.56	34.09	12.20	0.26	177,003 ***
	중소도시	12.28	40.27	36.72	10.10	0.62	
	농어촌	16.98	39.60	32.12	10.34	0.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54	40.00	25.97	15.25	0.24	640,858 ***
	중하층	12.52	41.42	34.73	11.04	0.29	
	중간층	11.86	40.99	37.28	9.41	0.45	
	중상층(상층)	10.42	36.53	32.66	18.22	2.1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70	37.99	34.24	16.44	0.64	748,929 ***
	200만 원대	12.75	43.27	32.58	10.78	0.61	
	300만 원대	13.62	42.39	37.36	6.38	0.25	
	400만 원대	13.36	39.07	40.00	7.57		
	500만 원 이상	13.80	35.08	40.26	10.17	0.69	
학력	중졸 이하	8.27	39.95	35.91	15.54	0.33	270,677 ***
	고졸	13.94	41.15	32.91	11.57	0.43	
	대졸 이상	12.40	40.66	36.78	9.59	0.5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66	41.31	36.53	9.14	0.36	417,00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80	38.24	32.31	16.30	0.36	
	고용주·자영자	14.77	39.64	35.03	10.28	0.29	
	무급가족종사자	3.27	41.84	37.96	16.67	0.26	
	실업자	5.66	44.16	35.68	13.04	1.47	
	비경제활동인구	11.54	41.41	33.90	12.25	0.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99	41.26	37.10	9.27	0.38	172,884 ***
	비정규직	14.91	39.03	31.42	14.36	0.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83	42.18	32.77	11.77	0.45	108,512 ***
	중도적	13.19	39.86	36.73	9.77	0.44	
	진보적	11.33	40.76	35.24	12.07	0.61	

주 1) “(조사표 질문) _님께서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경제생활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6〉 경제생활 불안: (3) 금융 불안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0.40	42.93	36.86	9.04	0.76	
성별	남성	9.99	44.14	36.05	8.95	0.87	37,007 ***
	여성	10.83	41.70	37.69	9.14	0.64	
연령대	20대 이하	11.88	42.96	34.62	8.68	1.85	342,803 ***
	30대	10.53	42.78	38.43	7.74	0.52	
	40대	9.64	45.52	36.06	8.12	0.66	
	50대	9.38	40.15	39.51	10.49	0.46	
	60대	10.94	45.10	34.85	8.58	0.53	
	70대	10.33	40.08	37.32	12.02	0.25	
지역	수도권	8.77	42.81	36.40	11.20	0.83	324,139 ***
	비수도권	12.04	43.06	37.32	6.89	0.69	
	대도시	10.82	43.69	35.09	9.33	1.08	431,993 ***
	중소도시	8.58	42.90	38.89	9.20	0.44	
	농어촌	18.66	39.35	34.26	6.75	0.9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95	44.63	34.71	10.15	0.55	922,214 ***
	중하층	9.87	44.31	35.74	9.64	0.45	
	중간층	10.80	42.55	38.37	7.85	0.43	
	중상층(상층)	10.79	36.60	33.80	13.69	5.1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24	39.05	39.14	13.78	0.79	983,797 ***
	200만 원대	12.30	43.55	35.22	8.38	0.56	
	300만 원대	10.89	46.63	36.44	5.76	0.28	
	400만 원대	9.76	44.96	36.61	8.05	0.61	
	500만 원 이상	11.70	40.56	38.53	5.82	3.39	
학력	중졸 이하	11.16	37.43	42.34	8.60	0.48	160,059 ***
	고졸	10.41	44.00	34.50	10.34	0.75	
	대졸 이상	10.23	43.36	37.43	8.16	0.8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11	43.59	38.13	7.83	0.33	609,92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03	38.66	39.27	10.32	0.71	
	고용주·자영자	11.30	44.61	34.51	8.80	0.79	
	무급가족종사자	6.11	42.66	45.14	5.66	0.44	
	실업자	9.38	37.48	22.97	24.46	5.71	
	비경제활동인구	10.38	42.64	35.49	10.23	1.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18	43.64	38.22	7.60	0.36	63,580 ***
	비정규직	10.61	39.58	38.72	10.53	0.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2	43.98	34.94	9.42	0.84	214,222 ***
	중도적	8.86	42.50	39.91	8.24	0.49	
	진보적	12.16	42.61	34.38	9.81	1.05	

주 1) “(조사표 질문) _넘겨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경제생활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1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47〉 경제생활 불안: (4) 경기침체 및 저성장

(단위: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전체		18.75	43.96	29.32	7.75	0.22	
성별	남성	19.08	44.88	28.14	7.77	0.13	46,519 ***
	여성	18.42	43.02	30.53	7.73	0.31	
연령대	20대 이하	22.23	41.66	26.70	9.25	0.16	314,753 ***
	30대	17.72	45.87	30.14	6.11	0.16	
	40대	19.66	43.17	30.02	6.97	0.18	
	50대	17.71	44.16	30.22	7.67	0.24	
	60대	18.24	47.50	26.90	7.08	0.28	
	70대	14.67	40.11	33.66	11.21	0.35	
지역	수도권	16.11	44.02	29.66	10.10	0.11	472,067 ***
	비수도권	21.41	43.90	28.98	5.39	0.32	
	대도시	18.99	40.89	30.91	9.11	0.10	497,052 ***
	중소도시	16.94	46.29	29.69	6.81	0.27	
	농어촌	27.87	46.13	19.24	6.30	0.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91	39.66	21.59	8.62	0.21	595,912 ***
	중하층	20.88	44.15	27.76	7.02	0.18	
	중간층	15.77	45.38	30.99	7.66	0.20	
	중상층(상층)	17.09	37.23	33.87	11.25	0.5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6.58	40.61	31.15	11.20	0.45	609,884 ***
	200만 원대	19.75	45.04	27.59	7.50	0.13	
	300만 원대	21.33	47.16	26.86	4.58	0.08	
	400만 원대	19.19	42.68	32.40	5.60	0.13	
	500만 원 이상	13.25	42.78	35.30	8.35	0.31	
학력	중졸 이하	17.51	42.19	32.43	7.45	0.42	65,374 ***
	고졸	19.76	44.48	27.69	7.84	0.23	
	대졸 이상	18.26	43.96	29.87	7.76	0.1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99	44.23	29.11	7.45	0.22	350,26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21	40.22	26.76	9.43	0.38	
	고용주·자영자	20.00	44.75	28.46	6.66	0.14	
	무급가족종사자	14.15	40.45	38.71	5.25	1.44	
	실업자	26.59	33.49	27.40	11.59	0.93	
	비경제활동인구	15.39	45.32	30.88	8.34	0.0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28	43.91	29.53	7.09	0.20	88,186 ***
	비정규직	21.39	42.12	25.92	10.16	0.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24	43.79	26.74	9.00	0.22	279,631 ***
	중도적	17.48	41.44	32.78	8.07	0.23	
	진보적	19.19	47.55	26.86	6.22	0.18	

주 1) “(조사표 질문) _님께서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혹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중 ‘경제생활 관련’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8〉 희망 시간 사용: (1) 하루에 2~3시간

(단위: %)

구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χ^2
전체		55.22	6.53	4.38	11.67	6.21	1.38	13.17	1.15	0.28	
성별	남성	55.19	8.46	5.26	7.31	7.10	1.51	13.66	1.17	0.35	1,079.525 ***
	여성	55.25	4.55	3.49	16.14	5.30	1.25	12.66	1.14	0.21	
연령대	20대 이하	55.11	6.49	13.89	5.32	1.27	0.76	16.80	0.36		3,586.031 ***
	30대	56.57	6.97	3.60	10.54	9.30	1.17	10.79	0.77	0.30	
	40대	56.48	6.85	2.61	13.45	7.78	0.96	10.30	1.15	0.43	
	50대	57.54	6.31	2.10	12.42	5.94	2.12	12.42	0.79	0.36	
	60대	50.31	6.13	1.16	16.09	7.94	2.02	14.50	1.44	0.40	
	70대	52.47	6.20	0.83	14.10	4.33	1.23	16.65	4.08	0.12	
지역	수도권	56.71	7.56	4.92	12.50	5.75	1.18	9.96	1.14	0.28	486.190 ***
	비수도권	53.72	5.49	3.85	10.85	6.67	1.58	16.39	1.17	0.28	
	대도시	57.76	5.99	3.65	11.40	5.46	1.36	13.00	1.21	0.17	405.672 ***
	중소도시 농어촌	54.48 46.67	6.43 9.81	5.40 2.30	11.16 16.01	6.61 7.74	1.34 1.67	12.94 15.31	1.29 0.09	0.36 0.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3.49	4.75	1.60	11.69	5.11	0.79	11.28	1.29		801.987 ***
	중하층	54.76	4.56	4.22	11.40	5.98	1.58	16.25	0.91	0.34	
	중간층	55.75	7.96	4.31	11.60	6.06	1.21	11.44	1.41	0.27	
	중상층(상층)	43.87	8.06	9.08	13.66	9.84	2.33	12.37	0.36	0.4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5.45	5.39	2.14	13.67	5.25	1.07	15.68	1.03	0.32	1,072.436 ***
	200만 원대	56.31	5.18	4.51	11.09	6.30	1.67	13.94	0.92	0.08	
	300만 원대	50.79	8.90	6.94	11.89	6.41	1.13	12.01	1.47	0.45	
	400만 원대	60.68	7.16	6.21	9.70	4.41	1.40	8.03	2.08	0.33	
	500만 원 이상	55.17	10.07	2.12	8.98	11.10	1.75	9.39	0.77	0.64	
학력	중졸 이하	51.19	6.37	0.73	14.41	4.57	1.47	18.97	1.89	0.40	762.572 ***
	고졸	55.04	5.40	3.89	13.47	5.93	2.09	12.69	1.30	0.20	
	대졸 이상	56.27	7.43	5.58	9.69	6.79	0.82	12.23	0.87	0.3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7.37	7.40	4.64	9.74	6.12	0.97	12.27	1.26	0.24	1,238.02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88	6.39	4.06	15.81	6.39	2.02	12.05	1.18	0.23	
	고용주·자영자	55.09	10.41	1.76	10.47	6.48	1.18	13.20	0.86	0.55	
	무급가족종사자	50.00	6.38	1.45	26.51	2.34	0.67	12.65			
	실업자	42.66	6.43	5.65	10.50	10.12	2.05	21.14	1.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6.96	7.34	4.70	10.00	6.07	1.04	12.31	1.33	0.26	206.796 ***
	비정규직	54.33	6.78	4.00	13.69	6.50	1.59	11.97	0.96	0.18	
이념적 성향	보수적	52.23	6.17	1.91	13.70	7.47	1.72	15.70	0.89	0.21	722.057 ***
	중도적	56.30	7.03	3.76	12.15	5.86	1.24	12.14	1.22	0.30	
	진보적	56.38	6.16	7.41	9.25	5.57	1.28	12.34	1.30	0.32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 다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49〉 희망 시간 사용: (2) 일주일에 하루

(단위: %)

구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χ^2
전체		27.94	5.96	5.64	20.98	11.53	3.97	22.58	1.13	0.28	
성별	남성	28.53	6.68	6.44	16.62	11.90	3.13	24.78	1.64	0.28	738.761 ***
	여성	27.33	5.23	4.81	25.43	11.15	4.82	20.33	0.62	0.27	
연령대	20대 이하	27.70	3.13	13.47	13.19	6.10	4.27	31.71	0.23	0.19	2721.958 ***
	30대	26.16	7.65	3.30	23.75	13.60	2.97	21.23	0.83	0.52	
	40대	29.21	6.58	4.35	23.41	16.08	3.13	16.12	1.01	0.10	
	50대	28.29	5.72	4.53	23.27	10.59	3.57	21.52	2.13	0.38	
	60대	26.84	6.07	2.70	22.09	13.26	4.73	22.58	1.49	0.24	
	70대	30.24	7.49	4.46	18.62	7.41	7.06	23.62	0.94	0.16	
지역	수도권	25.19	8.59	5.87	24.06	11.89	4.91	17.81	1.46	0.22	1,347.765 ***
	비수도권	30.70	3.32	5.40	17.88	11.18	3.01	27.37	0.81	0.33	
	대도시	25.57	6.12	4.92	21.79	12.72	4.05	23.22	1.46	0.13	451.302 ***
	중소도시	31.13	5.78	6.30	20.15	9.79	4.17	21.33	0.96	0.38	
	농어촌	21.71	6.17	5.45	21.53	15.45	2.36	26.45	0.48	0.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4.56	5.02	2.57	26.35	14.07	1.66	24.55	1.04	0.18	828.771 ***
	중하층	27.95	3.88	3.94	21.17	11.15	4.49	25.85	1.41	0.15	
	중간층	28.31	7.13	7.54	19.66	11.58	4.13	20.25	1.05	0.36	
	중상층(상층)	29.05	9.15	3.65	23.64	10.22	2.70	20.76	0.44	0.4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7.99	4.29	3.70	20.16	12.16	3.75	26.85	0.83	0.26	1,322.011 ***
	200만 원대	26.53	4.69	5.81	21.05	13.92	3.33	23.21	1.21	0.25	
	300만 원대	29.70	6.08	6.26	21.91	7.89	4.53	22.19	1.35	0.09	
	400만 원대	28.18	11.99	8.01	21.33	9.58	3.64	15.49	0.66	1.12	
	500만 원 이상	29.64	11.25	7.20	20.35	9.95	6.91	12.91	1.80		
학력	중졸 이하	26.07	7.34	5.34	20.72	7.62	6.51	24.96	1.00	0.43	392.994 ***
	고졸	29.31	4.15	5.11	21.89	11.50	3.69	23.12	1.07	0.15	
	대졸 이상	27.31	7.03	6.10	20.34	12.44	3.60	21.63	1.21	0.3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40	6.75	5.00	19.78	12.86	3.02	20.96	1.10	0.14	1,163.55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5.15	6.58	5.18	24.17	10.02	4.43	22.66	1.27	0.55	
	고용주·자영자	26.65	9.08	4.65	18.33	11.46	3.25	24.36	1.48	0.73	
	무급가족종사자	35.64	4.19	4.40	28.45	7.03	3.20	17.10			
	실업자	27.13	2.03	10.13	12.55	8.39	4.11	33.62	2.05		
	비경제활동인구	25.11	2.34	7.54	23.70	10.31	6.06	23.92	0.90	0.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27	6.72	4.86	19.62	13.10	3.07	21.09	1.12	0.15	365.326 ***
	비정규직	26.66	6.68	5.58	23.73	9.87	3.96	21.90	1.19	0.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79	6.00	3.03	21.76	12.56	4.29	24.27	1.17	0.13	315.690 ***
	중도적	27.82	6.65	6.34	20.81	11.23	3.61	21.88	1.24	0.43	
	진보적	29.12	4.99	6.96	20.52	11.04	4.18	22.05	0.96	0.19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 다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50〉 희망 시간 사용: (3) 한 달에 일주일

(단위: %)

구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χ^2
전체		14.54	3.90	3.86	12.43	15.74	5.15	41.56	2.32	0.48	
성별	남성	14.89	4.39	3.98	10.38	14.78	4.64	44.49	1.92	0.53	338,096
	여성	14.18	3.40	3.75	14.52	16.72	5.68	38.57	2.74	0.44	***
연령대	20대 이하	12.66	2.46	7.57	10.20	7.45	5.52	51.61	1.83	0.70	1,919,139 ***
	30대	12.72	3.38	4.54	15.26	20.80	3.59	37.41	1.95	0.36	
	40대	15.79	4.29	3.70	13.33	20.43	4.12	35.80	2.16	0.39	
	50대	16.34	4.72	2.97	10.89	14.36	5.60	42.92	1.82	0.36	
	60대	15.38	3.86	1.43	13.61	14.85	5.55	42.22	2.46	0.65	
	70대	13.57	5.30	1.22	10.88	16.89	8.35	37.71	5.56	0.52	
지역	수도권	15.21	4.48	3.75	13.89	15.86	6.23	36.83	3.71	0.05	945,074
	비수도권	13.88	3.32	3.97	10.96	15.63	4.08	46.31	0.93	0.92	***
	대도시	14.31	4.48	3.24	11.53	16.30	5.14	41.56	3.08	0.34	426,191 ***
	중소도시	15.06	3.72	4.53	13.69	15.51	5.39	39.70	1.91	0.50	
	농어촌	12.74	2.04	3.18	9.78	14.28	3.86	52.16	0.86	1.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18	3.43	1.43	13.21	18.39	3.56	44.67	3.05	0.08	581,605 ***
	중하층	13.65	3.63	2.80	12.26	14.86	4.80	45.19	2.62	0.20	
	중간층	16.08	4.24	4.85	12.53	15.27	5.40	39.00	2.01	0.61	
	중상층(상층)	10.31	3.28	4.84	11.61	20.90	7.06	38.27	2.27	1.4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88	3.59	2.53	12.11	14.78	5.02	44.81	3.71	0.58	1,604,269 ***
	200만 원대	12.95	2.96	4.06	11.22	17.75	3.80	44.81	2.04	0.42	
	300만 원대	15.25	3.13	4.51	12.40	14.34	5.68	41.88	2.14	0.68	
	400만 원대	15.69	8.50	3.46	16.61	13.90	8.10	32.63	0.72	0.39	
	500만 원 이상	25.90	6.70	6.47	14.99	15.30	7.62	21.90	1.13		
학력	중졸 이하	11.42	5.54	1.55	12.38	12.31	5.56	45.69	4.70	0.85	470,253 ***
	고졸	15.42	3.08	3.85	12.35	15.51	5.09	42.85	1.64	0.20	
	대졸 이상	14.58	4.16	4.39	12.50	16.70	5.11	39.64	2.30	0.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90	4.55	3.71	12.51	16.98	4.12	40.49	2.31	0.44	1,299,85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4	3.05	3.28	14.80	12.97	6.46	47.78	1.85	0.56	
	고용주·자영자	16.93	4.61	1.39	12.08	16.13	4.28	42.66	0.89	1.04	
	무급가족종사자	17.22	2.91	5.36	18.67	18.17	2.24	34.87		0.57	
	실업자	36.02		4.33	4.46	5.46	8.53	37.86	2.88	0.45	
	비경제활동인구	12.95	2.87	6.07	11.56	14.82	7.14	40.76	3.73	0.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04	4.46	3.80	12.28	16.91	4.17	40.54	2.41	0.39	297,728
	비정규직	10.01	3.65	3.09	15.02	14.02	5.80	46.07	1.63	0.70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16	4.24	1.97	12.54	15.73	6.37	43.18	2.40	0.42	4261,08 ***
	중도적	16.09	4.74	4.96	12.65	15.33	4.42	39.09	2.12	0.59	
	진보적	13.64	2.46	4.03	12.02	16.31	5.09	43.52	2.52	0.3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 다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2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51〉 희망 시간 사용: (4) 일 년에 한 달

(단위: %)

구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χ^2
전체		13.80	4.30	3.64	5.44	11.30	5.26	52.20	2.96	1.08	
성별	남성	13.62	5.11	4.07	5.14	11.19	5.81	50.56	3.52	0.99	187,619 ***
	여성	13.99	3.48	3.21	5.76	11.42	4.70	53.87	2.39	1.18	
연령대	20대 이하	11.31	3.63	6.88	2.77	6.95	6.98	56.68	3.72	1.07	1,397,788 ***
	30대	15.13	2.85	3.83	6.02	13.93	4.27	50.22	3.22	0.53	
	40대	13.10	5.61	3.49	6.14	12.32	4.93	50.72	2.41	1.27	
	50대	13.56	4.05	3.67	7.14	9.26	4.99	54.11	2.24	0.99	
	60대	13.36	6.31	1.21	6.23	12.37	4.88	51.46	3.07	1.12	
	70대	19.50	2.82	0.75	2.80	16.02	5.71	46.69	3.71	2.00	
지역	수도권	13.60	4.25	3.74	6.29	11.30	6.05	51.24	3.36	0.17	456,140 ***
	비수도권	14.01	4.35	3.55	4.59	11.31	4.47	53.16	2.57	2.00	
	대도시	14.99	2.59	2.90	4.42	11.64	5.02	54.99	2.93	0.52	581,924 ***
	중소도시	12.65	5.77	4.35	6.38	10.82	5.73	49.60	3.20	1.51	
	농어촌	14.40	4.59	3.36	5.25	12.36	3.80	52.91	1.80	1.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99	5.68	2.58	4.23	12.68	4.05	56.89	2.26	0.64	395,060 ***
	중하층	14.30	4.53	2.60	4.30	11.30	5.07	54.17	2.82	0.91	
	중간층	13.80	4.06	4.45	6.48	11.22	5.73	50.05	3.16	1.05	
	중상층(상층)	14.51	3.34	4.27	4.95	10.37	4.08	52.64	3.07	2.7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37	4.33	2.66	4.70	12.81	4.93	53.14	2.64	1.42	1,596,380 ***
	200만 원대	11.91	4.34	2.85	4.22	11.54	4.47	56.38	3.31	0.97	
	300만 원대	13.71	4.46	4.23	5.07	9.67	5.14	53.16	3.46	1.12	
	400만 원대	11.55	3.90	6.52	11.14	9.48	8.78	45.70	2.14	0.79	
	500만 원 이상	28.85	4.00	6.25	8.76	11.60	6.70	31.32	1.87	0.65	
학력	중졸 이하	15.69	4.27	2.21	3.03	15.34	5.53	48.31	3.65	1.97	389,315 ***
	고졸	12.80	5.04	3.26	6.32	10.31	5.25	53.98	2.33	0.70	
	대졸 이상	14.14	3.74	4.26	5.31	11.15	5.21	51.72	3.29	1.1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12	3.98	3.55	5.81	11.59	4.58	52.72	2.99	0.67	1,230,87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59	4.28	0.37	5.30	11.43	6.70	56.62	4.34	1.36	
	고용주·자영자	14.74	4.96	2.61	5.23	12.17	4.17	52.76	0.88	2.49	
	무급가족종사자	15.53	7.19	4.37	7.51	11.51	1.58	52.30			
	실업자	23.90	15.86	4.02	2.20	8.09	6.98	33.14	5.10	0.71	
	비경제활동인구	13.63	3.55	5.89	5.03	10.27	6.85	50.05	3.95	0.7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36	4.08	3.50	5.61	11.43	4.57	52.90	2.93	0.64	361,044 ***
	비정규직	9.79	3.90	1.19	6.05	11.99	6.28	55.24	4.23	1.3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67	5.29	1.63	4.87	12.81	5.39	52.65	2.76	0.94	580,591 ***
	중도적	14.80	4.29	4.50	7.13	10.82	5.46	49.53	2.34	1.11	
	진보적	12.55	3.45	4.24	3.64	10.64	4.87	55.45	4.00	1.17	

주 1) “(조사표 질문) ___님께 다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52〉 또래 대비 사회활동 참여 정도

(단위: %)

구분		또래보다 훨씬 적음	또래보다 다소 적음	또래들과 비슷함	또래보다 다소 많음	또래보다 훨씬 많음	χ^2
전체		2.74	23.64	65.26	8.12	0.24	
성별	남성	2.69	21.23	66.61	9.25	0.22	183,410 ***
	여성	2.80	26.10	63.88	6.96	0.25	
연령대	20대 이하	1.71	20.89	68.73	8.48	0.19	987,321 ***
	30대	2.54	20.75	70.01	6.37	0.33	
	40대	2.04	22.00	66.70	8.90	0.36	
	50대	1.94	20.86	67.63	9.44	0.13	
	60대	4.17	30.47	56.47	8.62	0.27	
	70대	6.60	34.55	53.78	5.02	0.05	
지역	수도권	2.26	25.00	62.87	9.75	0.12	266,370 ***
	비수도권	3.23	22.27	67.66	6.48	0.36	
	대도시	1.81	23.49	67.21	7.37	0.12	216,951 ***
	중소도시	3.35	24.25	63.05	8.97	0.38	
	농어촌	4.00	20.91	68.04	7.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60	41.52	46.16	2.37	0.35	4,628,457 ***
	중하층	3.35	33.38	58.28	4.99		
	중간층	1.46	15.06	74.45	8.72	0.30	
	중상층(상층)	1.27	16.63	54.53	26.73	0.8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94	31.93	57.00	4.81	0.32	1,597,023 ***
	200만 원대	1.85	23.19	65.52	9.34	0.11	
	300만 원대	1.17	20.68	68.49	9.25	0.39	
	400만 원대	1.88	16.70	72.32	9.09		
	500만 원 이상	1.20	12.07	76.75	9.59	0.40	
학력	중졸 이하	8.17	32.76	54.52	4.27	0.28	1,273,840 ***
	고졸	2.74	26.51	62.33	8.24	0.19	
	대졸 이상	1.52	19.40	69.92	8.90	0.2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5	20.02	70.21	8.16	0.16	1,112,09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0	38.22	52.12	5.77		
	고용주·자영자	2.91	23.72	62.99	10.02	0.37	
	무급가족종사자	5.41	26.67	60.80	6.39	0.72	
	실업자	9.10	30.14	53.27	6.28	1.21	
	비경제활동인구	3.93	23.38	64.53	7.88	0.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9	19.49	70.66	8.19	0.17	742,386 ***
	비정규직	3.26	36.06	54.52	6.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5.03	30.78	55.34	8.76	0.10	1,000,778 ***
	중도적	1.92	21.86	69.47	6.42	0.33	
	진보적	1.87	19.80	68.23	9.88	0.23	

주 1) “(조사표 질문) 귀하 또래와 비교할 때, 귀하는 사회활동(친목 모임, 취미 동호회, 각종 클럽 활동 등)에 얼마나 자주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2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53〉 단체 참여: (1) 정당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0.21	2.36	3.44	93.99	
성별	남성	0.19	2.89	4.68	92.24	255.644 ***
	여성	0.23	1.81	2.17	95.79	
연령대	20대 이하		1.30	1.50	97.21	596.216 ***
	30대	0.30	1.32	2.79	95.59	
	40대	0.39	1.78	3.66	94.16	
	50대	0.11	4.61	5.83	89.46	
	60대	0.16	2.63	3.73	93.48	
	70대	0.39	2.21	2.09	95.31	
지역	수도권	0.28	1.99	3.03	94.69	56.350 ***
	비수도권	0.14	2.72	3.85	93.29	
	대도시	0.21	2.59	2.26	94.94	165.197 ***
	중소도시	0.25	2.05	4.18	93.52	
	농어촌		2.95	5.17	91.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4	2.26	96.81	176.374 ***
	중하층	0.22	2.44	3.36	93.98	
	중간층	0.26	2.13	3.56	94.05	
	중상층(상층)		5.29	4.37	90.3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6	2.52	3.14	94.29	156.881 ***
	200만 원대	0.21	2.62	3.72	93.45	
	300만 원대	0.14	2.17	2.54	95.16	
	400만 원대	0.50	1.19	3.60	94.71	
	500만 원 이상	0.67	2.40	5.67	91.26	
학력	중졸 이하	0.19	1.55	3.49	94.77	25.372 ***
	고졸	0.19	2.62	3.71	93.48	
	대졸 이상	0.23	2.34	3.22	94.2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7	1.85	3.20	94.68	534.15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2	2.84	3.62	93.41	
	고용주·자영자	0.12	4.47	6.38	89.03	
	무급가족종사자		4.07	0.91	95.02	
	실업자		3.30	1.42	95.28	
	비경제활동인구	0.23	1.35	1.93	96.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9	1.93	2.99	94.80	58.523 ***
	비정규직	0.09	2.38	4.21	93.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9	2.97	3.73	93.01	37.093 ***
	중도적	0.16	2.12	3.46	94.26	
	진보적	0.21	2.14	3.16	94.4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54〉 단체 참여: (2) 시민운동단체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0.31	1.01	3.66	95.02	
성별	남성	0.48	0.92	4.32	94.28	97,926 ***
	여성	0.13	1.10	2.98	95.79	
연령대	20대 이하		0.67	4.63	94.70	320,310 ***
	30대		1.38	2.53	96.09	
	40대	0.82	1.12	3.54	94.53	
	50대	0.57	1.26	4.86	93.31	
	60대	0.19	0.61	3.57	95.63	
	70대		0.77	1.37	97.86	
지역	수도권	0.35	0.86	3.93	94.87	18,933 ***
	비수도권	0.27	1.16	3.39	95.18	
	대도시	0.41	1.20	2.18	96.21	320,092 ***
	중소도시	0.18	0.98	5.21	93.62	
	농어촌	0.55	0.19	2.24	97.0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7	3.28	96.04	71,299 ***
	중하층	0.15	1.23	4.15	94.46	
	중간층	0.43	0.94	3.31	95.32	
	중상층(상층)	0.56	0.78	4.16	94.5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12	0.92	4.19	94.77	146,543 ***
	200만 원대	0.30	1.45	3.92	94.32	
	300만 원대	0.31	0.78	3.36	95.55	
	400만 원대	0.79	0.47	3.08	95.66	
	500만 원 이상	0.47	0.34	1.81	97.39	
학력	중졸 이하		0.30	2.69	97.01	118,038 ***
	고졸	0.28	1.13	4.62	93.97	
	대졸 이상	0.40	1.08	3.14	95.3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46	0.97	3.34	95.23	191,80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0	1.12	5.67	92.92	
	고용주·자영자	0.38	1.50	4.67	93.45	
	무급가족종사자		0.57	0.78	98.65	
	실업자		1.58	2.37	96.05	
	비경제활동인구	0.03	0.67	2.92	96.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9	0.97	3.35	95.18	72,612 ***
	비정규직	0.24	1.07	5.14	93.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4	0.72	3.38	95.66	69,735 ***
	중도적	0.40	0.86	4.15	94.58	
	진보적	0.24	1.47	3.23	95.0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2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55〉 단체 참여: (3)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0.23	2.10	5.27	92.41	
성별	남성	0.32	2.86	6.07	90.75	196.961 ***
	여성	0.13	1.32	4.44	94.11	
연령대	20대 이하	0.14	2.50	6.86	90.50	415.976 ***
	30대	0.31	2.48	6.03	91.18	
	40대	0.31	1.97	6.10	91.62	
	50대	0.27	3.15	5.57	91.02	
	60대	0.19	0.99	2.88	95.95	
	70대		0.05	1.63	98.32	
지역	수도권	0.08	2.10	6.21	91.61	114.610 ***
	비수도권	0.38	2.09	4.32	93.21	
	대도시	0.27	1.84	5.06	92.83	66.940 ***
	중소도시	0.23	2.39	5.79	91.60	
	농어촌		1.73	3.33	94.9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8	4.58	94.94	184.035 ***
	중하층	0.17	1.85	4.28	93.69	
	중간층	0.33	2.49	5.63	91.55	
	중상층(상층)		2.27	8.49	89.2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27	1.34	3.87	94.52	324.897 ***
	200만 원대	0.36	2.59	6.37	90.68	
	300만 원대		2.61	5.55	91.84	
	400만 원대		1.35	7.34	91.31	
	500만 원 이상	0.34	1.70	1.20	96.76	
학력	중졸 이하		0.47	2.86	96.67	269.961 ***
	고졸	0.23	1.84	4.32	93.61	
	대졸 이상	0.27	2.66	6.53	90.5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9	3.15	7.38	89.08	717.70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1	0.41	6.53	92.94	
	고용주·자영자	0.15	2.13	3.81	93.91	
	무급가족종사자		1.66	5.58	92.76	
	실업자		2.53	0.48	96.99	
	비경제활동인구	0.07	0.88	2.21	96.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2	3.00	7.59	88.99	581.717 ***
	비정규직	0.09	1.46	6.06	92.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15	2.02	3.43	94.40	251.350 ***
	중도적	0.16	2.92	5.86	91.06	
	진보적	0.38	1.04	6.06	92.5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56〉 단체 참여: (4) 종교단체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4.88	9.28	8.21	77.63	
성별	남성	2.90	7.74	7.98	81.38	528.565 ***
	여성	6.91	10.86	8.44	73.79	
연령대	20대 이하	2.09	6.42	7.73	83.76	952.252 ***
	30대	3.66	6.87	7.01	82.45	
	40대	3.33	9.42	8.41	78.84	
	50대	6.17	10.63	8.36	74.84	
	60대	6.58	10.69	10.13	72.60	
	70대	11.10	14.47	7.53	66.90	
지역	수도권	5.80	10.59	8.94	74.67	221.503 ***
	비수도권	3.97	7.97	7.47	80.59	
	대도시	3.59	10.61	8.14	77.66	226.592 ***
	중소도시	6.06	8.78	8.37	76.79	
	농어촌	4.69	5.47	7.61	82.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57	6.11	10.56	77.77	303.175 ***
	중하층	4.33	9.10	7.85	78.73	
	중간층	4.67	9.09	8.10	78.14	
	중상층(상층)	8.59	15.47	8.14	67.8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18	11.36	9.99	72.48	425.345 ***
	200만 원대	3.47	8.78	8.66	79.09	
	300만 원대	5.49	6.96	7.75	79.80	
	400만 원대	4.97	9.18	4.27	81.58	
	500만 원 이상	5.51	11.27	5.36	77.87	
학력	중졸 이하	10.23	10.37	8.32	71.09	463.003 ***
	고졸	5.14	10.42	8.19	76.25	
	대졸 이상	3.48	8.17	8.19	80.1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1	6.80	7.91	82.18	893.51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76	11.73	8.07	74.44	
	고용주·자영자	4.04	9.68	10.59	75.69	
	무급가족종사자	5.52	7.83	14.44	72.21	
	실업자	3.99	16.57	1.43	78.01	
	비경제활동인구	8.36	12.14	7.00	72.4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5	6.75	7.78	82.51	528.198 ***
	비정규직	5.70	10.83	8.44	75.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6.07	11.56	9.86	72.51	307.909 ***
	중도적	3.77	8.46	8.45	79.32	
	진보적	5.36	8.41	6.42	79.8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2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57〉 단체 참여: (5) 문화단체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6.25	18.47	15.16	60.12	
성별	남성	7.86	20.63	15.73	55.77	425.332 ***
	여성	4.60	16.26	14.58	64.56	
연령대	20대 이하	8.21	23.85	12.71	55.24	1,116.536 ***
	30대	6.78	17.69	16.74	58.78	
	40대	6.92	19.24	17.73	56.10	
	50대	6.65	17.37	18.10	57.88	
	60대	4.31	17.57	13.81	64.31	
	70대	1.67	10.87	6.07	81.39	
지역	수도권	7.83	17.85	16.52	57.79	263.693 ***
	비수도권	4.66	19.09	13.79	62.46	
	대도시	5.05	19.57	15.67	59.71	181.067 ***
	중소도시	7.56	17.76	15.28	59.39	
	농어촌	4.84	16.98	11.91	66.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4	8.63	6.27	79.76	2,484.309 ***
	중하층	3.84	15.70	12.29	68.17	
	중간층	6.33	20.67	17.94	55.05	
	중상층(상층)	19.35	27.88	19.54	33.2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88	11.94	12.31	71.87	1,282.561 ***
	200만 원대	5.57	19.90	16.16	58.37	
	300만 원대	8.80	25.10	14.07	52.03	
	400만 원대	7.69	17.96	17.35	57.00	
	500만 원 이상	9.39	16.14	21.30	53.17	
학력	중졸 이하	2.09	9.86	9.00	79.04	980.078 ***
	고졸	5.72	18.43	14.47	61.38	
	대졸 이상	7.60	20.44	17.07	54.8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60	20.25	16.14	56.01	496.38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02	15.77	14.61	65.61	
	고용주·자영자	6.41	18.33	17.71	57.56	
	무급가족종사자	3.17	11.90	14.89	70.03	
	실업자	2.62	11.98	13.48	71.92	
	비경제활동인구	5.06	17.33	11.86	65.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77	20.28	16.28	55.67	294.859 ***
	비정규직	4.24	16.62	14.49	64.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4.73	15.65	13.48	66.15	1,021.464 ***
	중도적	4.79	16.89	19.34	58.98	
	진보적	9.58	23.11	10.93	56.3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58〉 단체 참여: (6) 동창모임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13.42	39.11	22.11	25.37	
성별	남성	14.46	41.82	22.11	21.61	349.243 ***
	여성	12.35	36.34	22.10	29.21	
연령대	20대 이하	11.72	41.35	19.22	27.72	305.829 ***
	30대	14.03	39.48	26.51	19.99	
	40대	17.57	40.65	24.35	17.43	
	50대	14.53	43.12	22.51	19.84	
	60대	11.34	41.58	19.26	27.81	
	70대	6.75	15.51	17.70	60.04	
지역	수도권	13.53	37.76	26.54	22.16	558.215 ***
	비수도권	13.30	40.46	17.65	28.59	
	대도시	11.04	37.89	22.84	28.23	507.819 ***
	중소도시	16.49	38.97	22.11	22.43	
	농어촌	7.88	46.04	18.38	27.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22	29.09	23.42	39.27	894.396 ***
	중하층	12.49	37.85	20.09	29.57	
	중간층	14.11	40.83	23.40	21.66	
	중상층(상층)	19.11	44.45	21.34	15.1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46	31.66	19.60	39.28	2,048.917 ***
	200만 원대	14.24	45.38	21.69	18.69	
	300만 원대	16.58	42.39	20.66	20.37	
	400만 원대	16.78	31.52	28.38	23.31	
	500만 원 이상	10.17	33.58	30.45	25.80	
학력	중졸 이하	4.23	23.62	15.58	56.57	2,941.718 ***
	고졸	13.46	40.05	22.01	24.47	
	대졸 이상	15.45	41.88	23.65	19.0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38	42.21	22.09	19.32	1,525,16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59	36.64	26.77	28.99	
	고용주·자영자	16.76	40.31	20.84	22.08	
	무급가족종사자	6.91	41.37	20.27	31.45	
	실업자	12.97	22.61	25.92	38.49	
	비경제활동인구	8.52	34.43	21.00	36.0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37	42.21	22.22	19.19	775.622 ***
	비정규직	9.49	37.82	25.35	27.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46	36.48	20.75	32.31	1,073,961 ***
	중도적	11.83	36.88	25.92	25.36	
	진보적	18.18	44.46	18.08	19.2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59〉 단체 참여: (7) 향우회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1.87	8.90	12.64	76.59	
성별	남성	2.76	11.82	13.71	71.71	751,764 ***
	여성	0.97	5.92	11.54	81.57	
연령대	20대 이하	0.33	2.69	7.99	88.99	1,941,709 ***
	30대	0.93	5.26	11.06	82.75	
	40대	1.61	8.73	14.47	75.19	
	50대	2.97	13.30	17.61	66.12	
	60대	4.04	14.10	13.55	68.31	
	70대	1.37	10.55	7.80	80.27	
지역	수도권	1.66	7.95	15.46	74.93	328,188 ***
	비수도권	2.09	9.85	9.81	78.25	
	대도시	1.95	7.05	11.39	79.61	359,483 ***
	중소도시	1.65	9.38	13.62	75.35	
	농어촌	2.77	15.45	13.33	68.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1	5.16	7.90	85.83	662,029 ***
	중하층	2.21	9.35	8.62	79.82	
	중간층	1.66	8.82	15.32	74.20	
	중상층(상층)	2.63	11.50	18.98	66.8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1	10.41	10.74	76.24	517,182 ***
	200만 원대	1.71	9.79	11.18	77.32	
	300만 원대	1.31	6.27	14.41	78.00	
	400만 원대	2.82	6.29	13.35	77.53	
	500만 원 이상	0.47	9.69	21.43	68.41	
학력	중졸 이하	1.62	10.96	9.56	77.87	250,795 ***
	고졸	2.48	10.55	12.75	74.22	
	대졸 이상	1.47	7.18	13.25	78.1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0	7.47	12.37	78.46	936,87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4	9.25	11.48	77.83	
	고용주·자영자	3.89	14.93	14.48	66.71	
	무급가족종사자	2.58	17.11	16.47	63.85	
	실업자	0.79	15.51	7.56	76.14	
	비경제활동인구	0.92	5.96	12.28	80.8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7	7.59	12.19	78.56	112,281 ***
	비정규직	1.59	8.51	12.26	77.6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8	11.88	12.35	73.39	466,814 ***
	중도적	1.48	8.60	15.12	74.79	
	진보적	1.97	6.69	9.50	81.85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60〉 단체 참여: (8) 친목단체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14.98	36.87	17.93	30.21	
성별	남성	14.85	34.85	19.40	30.90	105.215 ***
	여성	15.12	38.95	16.43	29.50	
연령대	20대 이하	8.37	30.14	15.72	45.76	1,617.239 ***
	30대	16.04	32.08	18.28	33.61	
	40대	17.70	36.31	19.40	26.59	
	50대	17.58	40.55	19.79	22.08	
	60대	15.79	40.27	16.94	27.01	
	70대	12.82	47.97	15.68	23.54	
지역	수도권	11.26	30.31	22.78	35.65	1,822.627 ***
	비수도권	18.72	43.46	13.07	24.75	
	대도시	13.56	36.47	20.33	29.63	290.350 ***
	중소도시	16.40	35.67	16.25	31.69	
	농어촌	14.07	45.78	15.44	24.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21	29.55	16.66	40.58	289.508 ***
	중하층	16.51	37.16	16.19	30.14	
	중간층	13.89	37.90	19.27	28.94	
	중상층(상층)	17.35	36.18	18.48	27.9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5.06	40.83	16.98	27.13	579.778 ***
	200만 원대	15.90	36.81	15.77	31.52	
	300만 원대	14.00	37.46	17.34	31.19	
	400만 원대	17.04	26.83	22.61	33.53	
	500만 원 이상	10.18	32.97	29.13	27.73	
학력	중졸 이하	14.22	39.60	15.31	30.87	323.695 ***
	고졸	16.73	39.88	16.96	26.42	
	대졸 이상	13.82	33.97	19.26	32.9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62	37.55	18.23	30.60	808.09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06	29.47	23.97	33.49	
	고용주·자영자	21.06	40.01	17.71	21.22	
	무급가족종사자	19.06	40.20	13.18	27.56	
	실업자	7.48	29.41	14.45	48.67	
	비경제활동인구	13.96	36.67	15.54	33.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59	37.43	18.12	30.85	246.722 ***
	비정규직	13.26	31.57	23.10	32.0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16	41.73	17.48	26.62	510.574 ***
	중도적	13.05	34.07	20.96	31.92	
	진보적	18.34	36.43	14.20	31.0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3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61〉 단체 참여: (9) 인터넷 커뮤니티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5.13	13.39	16.16	65.32	
성별	남성	5.23	13.77	17.57	63.42	81,330 ***
	여성	5.03	13.00	14.71	67.26	
연령대	20대 이하	15.23	25.14	18.56	41.06	7,357,138 ***
	30대	7.09	21.11	21.53	50.27	
	40대	3.78	11.39	23.94	60.88	
	50대	1.04	10.22	12.24	76.50	
	60대	0.76	3.25	7.09	88.90	
	70대		1.89	6.45	91.66	
지역	수도권	6.56	12.88	19.01	61.55	473,074 ***
	비수도권	3.70	13.90	13.29	69.11	
	대도시	3.71	12.13	15.94	68.22	571,070 ***
	중소도시	6.33	14.85	17.99	60.84	
	농어촌	5.48	11.46	6.84	76.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51	10.00	6.64	79.85	662,679 ***
	중하층	5.58	13.04	13.30	68.08	
	중간층	5.25	13.60	19.34	61.81	
	중상층(상층)	3.81	17.66	18.09	60.4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86	8.65	10.94	76.55	1,080,003 ***
	200만 원대	5.92	14.36	17.17	62.55	
	300만 원대	5.78	18.14	17.19	58.89	
	400만 원대	6.30	11.71	19.37	62.62	
	500만 원 이상	2.31	13.92	23.51	60.27	
학력	중졸 이하	0.57	2.24	4.22	92.97	2,970,723 ***
	고졸	5.01	10.01	13.66	71.32	
	대졸 이상	6.25	18.48	20.74	54.5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40	16.04	19.42	58.14	1,222,75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6	15.65	13.06	68.12	
	고용주·자영자	1.91	10.21	14.00	73.88	
	무급가족종사자	3.58	3.46	12.75	80.21	
	실업자	16.61	7.67	21.19	54.53	
	비경제활동인구	5.48	10.99	13.07	70.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20	16.26	19.59	57.95	791,708 ***
	비정규직	4.48	15.05	13.86	66.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6	8.64	9.85	79.94	2,023,682 ***
	중도적	4.90	12.66	18.28	64.16	
	진보적	8.58	18.56	18.80	54.0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62〉 단체 참여: (10) 기타 모임 및 단체

(단위: %)

구분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 있지 않다	χ^2
전체		5.38	19.31	14.66	60.66	
성별	남성	5.22	20.16	14.93	59.70	26,286 ***
	여성	5.54	18.44	14.38	61.64	
연령대	20대 이하	7.69	23.26	13.34	55.71	738,269 ***
	30대	6.79	21.32	16.66	55.23	
	40대	4.83	18.13	16.13	60.90	
	50대	5.66	19.29	15.15	59.90	
	60대	3.24	18.36	11.66	66.74	
	70대	1.68	11.02	13.76	73.54	
지역	수도권	4.22	16.62	15.69	63.47	343,921 ***
	비수도권	6.54	22.01	13.62	57.83	
	대도시	3.73	15.31	12.49	68.47	857,064 ***
	중소도시	6.71	22.65	16.59	54.06	
	농어촌	6.07	20.46	14.55	58.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6	18.23	12.47	65.35	271,198 ***
	중하층	5.20	17.93	14.88	61.99	
	중간층	5.40	19.22	14.81	60.57	
	중상층(상층)	7.77	28.54	14.90	48.8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11	17.20	15.38	63.31	810,710 ***
	200만 원대	6.91	16.83	14.68	61.58	
	300만 원대	5.79	22.90	12.61	58.70	
	400만 원대	4.18	15.64	16.07	64.11	
	500만 원 이상	2.23	34.47	16.23	47.08	
학력	중졸 이하	4.11	15.43	12.24	68.22	138,717 ***
	고졸	5.85	19.23	14.87	60.04	
	대졸 이상	5.30	20.24	15.04	59.4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85	18.87	15.00	60.28	706,42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00	12.86	17.61	64.52	
	고용주·자영자	5.98	23.08	14.92	56.01	
	무급가족종사자	6.77	36.89	19.84	36.50	
	실업자	11.50	12.26	26.79	49.45	
	비경제활동인구	3.78	19.24	11.51	65.4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81	18.17	15.01	61.00	119,474 ***
	비정규직	5.29	16.34	17.03	61.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5	16.60	15.45	64.29	540,408 ***
	중도적	4.97	18.26	16.89	59.89	
	진보적	7.45	23.13	10.91	58.5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거나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3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63〉 사회적 지지: (1) 감기에 심하게 걸려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단위:%)

구분		친척	직장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전체		38.42	2.60	32.83	13.76	0.29	3.51	8.59	
성별	남성	40.19	3.02	34.57	8.73	0.38	4.12	8.99	944.110 ***
	여성	36.62	2.17	31.05	18.90	0.20	2.88	8.18	
연령대	20대 이하	39.87	1.79	44.89	2.03	0.33	1.90	9.19	4,694.783 ***
	30대	40.20	4.37	34.19	8.46		4.52	8.25	
	40대	39.11	3.76	34.22	10.25	0.15	5.01	7.51	
	50대	35.01	1.64	32.83	16.25	0.15	4.57	9.54	
	60대	42.33	1.69	24.22	20.60	0.26	2.15	8.75	
	70대	31.45	1.82	15.39	40.81	1.56	1.02	7.95	
지역	수도권	38.08	3.32	34.77	11.25	0.17	4.75	7.65	567.289 ***
	비수도권	38.76	1.87	30.87	16.28	0.41	2.27	9.53	
	대도시	37.54	2.28	35.75	12.13	0.22	3.28	8.81	1,168.524 ***
	중소도시	41.29	3.11	30.63	12.33	0.38	4.15	8.12	
	농어촌	26.58	1.28	30.69	30.05	0.17	1.03	10.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35	3.54	23.31	15.19	2.13	3.34	13.15	1,638.646 ***
	중하층	39.27	2.80	27.86	17.31	0.13	1.93	10.70	
	중간층	38.10	2.34	36.44	11.96	0.09	4.88	6.19	
	중상층(상층)	35.28	2.38	42.73	7.08	0.52	1.61	10.4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3.71	1.91	27.31	24.79	0.82	1.60	9.86	3,863.483 ***
	200만 원대	42.85	2.07	32.72	10.92	0.13	2.03	9.28	
	300만 원대	44.07	1.90	35.13	7.35	0.12	4.36	7.07	
	400만 원대	33.51	2.98	42.27	7.14		6.79	7.30	
	500만 원 이상	21.47	9.77	35.57	14.79		12.05	6.35	
학력	중졸 이하	29.24	0.70	19.21	37.94	1.63	1.26	10.02	4,182.589 ***
	고졸	38.15	2.21	31.32	16.81	0.12	2.63	8.77	
	대졸 이상	40.70	3.33	37.05	5.99	0.12	4.69	8.1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07	4.16	36.15	5.93	0.06	3.67	7.96	2,922.69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7.92	2.15	26.78	15.32	0.98	1.87	14.97	
	고용주·자영자	37.10	2.16	29.80	16.71	0.53	4.50	9.21	
	무급가족종사자	30.52	1.62	26.49	32.93	0.50		7.93	
	실업자	32.50		37.11	15.06	0.95	5.83	8.55	
	비경제활동인구	33.88	0.51	31.79	23.72	0.19	3.30	6.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12	4.16	36.07	5.63	0.06	3.83	8.12	2,345.693 ***
	비정규직	38.64	2.56	29.01	14.27	0.77	1.76	12.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04	2.01	29.41	19.67	0.41	1.79	10.67	1,145.318 ***
	중도적	37.01	2.81	35.84	11.09	0.27	5.80	7.18	
	진보적	42.44	2.83	31.72	12.22	0.22	1.89	8.68	

주 1) “(조사표 질문) __ 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64〉 사회적 지지: (2) 큰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단위:%)

구분		친척	직장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전체		38.60	3.27	32.54	4.88	0.20	5.86	14.65	
성별	남성	36.00	3.86	34.71	3.53	0.39	7.06	14.45	520.828
	여성	41.27	2.66	30.33	6.26	0.00	4.64	14.85	***
연령대	20대 이하	33.55	4.57	41.43	1.22		2.31	16.91	3,038.324
	30대	41.78	2.44	34.71	2.20		7.46	11.40	
	40대	37.38	4.71	33.63	3.19	0.22	8.66	12.20	
	50대	37.71	3.48	28.73	5.72	0.54	9.00	14.82	
	60대	44.33	1.96	26.53	7.16	0.12	3.13	16.77	
	70대	38.01	0.47	25.93	16.47	0.29	0.55	18.28	
지역	수도권	36.89	3.09	34.88	4.96	0.20	8.00	11.98	629.463
	비수도권	40.32	3.45	30.19	4.80	0.20	3.72	17.32	***
	대도시	37.21	3.65	35.44	3.60	0.17	4.20	15.73	775.911
	중소도시	39.81	3.01	30.54	5.16	0.21	8.09	13.18	
	농어촌	38.71	2.83	29.38	9.71	0.25	1.56	17.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58	2.24	22.58	4.91	0.18	1.21	30.30	2,565.223
	중하층	42.09	3.57	26.43	6.23	0.10	2.80	18.78	
	중간층	36.56	3.24	36.70	4.38	0.26	9.09	9.78	
	중상층(상층)	35.84	3.11	44.80	1.53	0.30	2.90	11.5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79	2.87	26.88	9.35	0.17	1.00	18.94	4,883.738
	200만 원대	41.91	4.08	32.21	3.60	0.17	2.56	15.48	
	300만 원대	35.01	3.30	41.82	1.69	0.16	6.89	11.13	
	400만 원대	31.07	1.89	35.47	4.95		19.27	7.35	
	500만 원 이상	33.04	2.13	23.80	4.30	0.84	22.20	13.69	
학력	중졸 이하	36.73	1.60	22.66	16.28	0.22	1.31	21.20	2,586.440
	고졸	41.03	3.11	31.11	5.11	0.14	3.98	15.52	
	대졸 이상	37.17	3.76	35.86	2.13	0.24	8.33	12.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76	5.35	34.96	2.37	0.21	6.45	12.91	1,728.41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0.46	3.62	28.23	6.15		2.05	19.49	
	고용주·자영자	36.03	2.19	32.30	6.72	0.52	7.84	14.40	
	무급가족종사자	54.10		20.92	14.65			10.34	
	실업자	38.16		21.41	8.75		2.71	28.97	
	비경제활동인구	40.17	0.54	31.63	6.63	0.06	5.57	15.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79	5.57	35.23	2.35	0.22	6.73	13.10	1,288.560
	비정규직	42.94	3.32	28.79	5.39		2.07	17.49	***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96	2.13	30.28	6.46	0.35	1.91	20.91	2,350.315
	중도적	38.88	3.32	29.69	4.19	0.19	11.37	12.36	
	진보적	38.79	4.20	38.44	4.43	0.08	1.81	12.2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3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65〉 사회적 지지: (3) 우울, 스트레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

(단위:%)

구분		친척	직장동료	친구	이웃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전체		11.65	5.92	65.54	9.93	0.40	2.92	3.65	
성별	남성	12.21	6.67	67.48	6.25	0.59	3.42	3.37	738,327 ***
	여성	11.07	5.14	63.56	13.68	0.20	2.40	3.94	
연령대	20대 이하	9.56	4.31	80.51	1.71	0.38	0.89	2.64	4,594,907 ***
	30대	9.42	7.27	68.83	6.23	0.09	4.67	3.49	
	40대	10.95	9.53	65.60	6.04	0.22	4.24	3.42	
	50대	11.90	5.49	63.13	11.25	0.32	4.16	3.75	
	60대	17.90	3.65	57.40	15.37	0.16	1.22	4.30	
	70대	10.99	2.90	46.07	32.13	2.13	0.39	5.37	
지역	수도권	9.35	6.94	65.50	10.34	0.43	4.97	2.48	1,025,460 ***
	비수도권	13.96	4.89	65.59	9.51	0.37	0.86	4.83	
	대도시	11.36	5.77	67.37	8.50	0.38	2.70	3.92	636,232 ***
	중소도시	11.80	5.69	65.82	10.11	0.36	3.57	2.65	
	농어촌	12.22	7.95	54.81	16.06	0.72	0.30	7.9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60	6.96	51.98	14.91	1.51	1.35	4.69	1,920,142 ***
	중하층	13.46	7.24	61.49	12.67	0.34	0.29	4.49	
	중간층	9.66	5.03	69.86	7.70	0.24	5.08	2.44	
	중상층(상층)	9.08	4.47	69.99	6.53	0.59	2.13	7.2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62	5.58	55.33	18.00	0.78	0.71	4.98	3,987,963 ***
	200만 원대	11.22	6.64	70.18	7.18	0.19	0.79	3.81	
	300만 원대	11.31	5.24	72.47	4.70	0.43	3.44	2.41	
	400만 원대	7.86	3.17	70.40	7.41	0.12	8.53	2.50	
	500만 원 이상	8.39	8.91	52.29	12.95	0.33	14.18	2.95	
학력	중졸 이하	13.75	3.43	42.57	30.63	1.78	0.66	7.17	4,063,229 ***
	고졸	12.35	5.16	65.30	11.42	0.26	2.02	3.49	
	대졸 이상	10.64	7.05	70.91	4.12	0.19	4.11	2.9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14	9.61	69.16	3.61	0.20	2.94	3.34	3,084,41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89	5.99	60.83	11.11	1.21	1.25	5.72	
	고용주·자영자	13.65	4.17	61.54	12.54	0.52	4.10	3.48	
	무급가족종사자	26.30	0.84	51.47	19.95			1.44	
	실업자	14.91	2.77	64.64	10.17	0.45	3.91	3.15	
	비경제활동인구	8.92	1.00	64.95	18.25	0.35	2.87	3.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61	9.76	68.61	3.49	0.21	3.01	3.32	2,419,277 ***
	비정규직	11.82	6.28	64.36	9.90	0.95	1.39	5.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58	4.86	61.23	14.61	0.65	0.46	4.62	1,806,488 ***
	중도적	10.99	6.66	63.95	7.80	0.33	6.24	4.04	
	진보적	10.85	5.84	71.51	8.72	0.27	0.54	2.2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66〉 사회적 자본: (1) 우리 지역주민은 서로 돕고 산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06	29.52	62.09	7.32	
성별	남성	1.08	29.56	63.11	6.26	72,120 ***
	여성	1.05	29.49	61.06	8.40	
연령대	20대 이하	2.00	35.79	56.52	5.69	621,183 ***
	30대	0.90	32.19	61.09	5.82	
	40대	1.20	29.71	62.71	6.38	
	50대	0.96	25.32	65.98	7.74	
	60대	0.52	28.17	60.03	11.28	
	70대	0.27	22.58	68.86	8.30	
지역	수도권	1.14	28.62	62.76	7.49	1,614,681 ***
	비수도권	0.99	30.44	61.43	7.14	
	대도시	1.41	31.90	62.07	4.63	
	중소도시 농어촌	0.84 0.59	29.92 15.37	62.22 61.48	7.01 22.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5	43.23	47.17	7.25	984,515 ***
	중하층	1.10	34.35	57.83	6.72	
	중간층	0.66	23.77	67.90	7.68	
	중상층(상층)	2.46	31.82	57.97	7.7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73	29.56	61.18	8.53	321,014 ***
	200만 원대	1.78	31.01	60.36	6.85	
	300만 원대	0.50	31.03	62.62	5.85	
	400만 원대	0.95	22.07	68.55	8.42	
	500만 원 이상	0.35	26.24	65.13	8.28	
학력	중졸 이하	0.20	25.84	63.19	10.78	222,456 ***
	고졸	1.11	29.92	60.78	8.18	
	대졸 이상	1.23	30.05	62.85	5.88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6	32.11	60.98	5.65	587,54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0	34.63	58.25	5.52	
	고용주·자영자	0.32	23.13	65.65	10.90	
	무급가족종사자	2.02	23.77	61.21	13.00	
	실업자	2.51	31.08	63.27	3.14	
	비경제활동인구	0.87	27.69	63.13	8.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5	32.12	61.16	5.58	27,620 ***
	비정규직	1.88	34.06	58.26	5.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8	31.49	60.08	6.96	157,245 ***
	중도적	0.80	28.26	64.60	6.33	
	진보적	1.06	29.52	60.44	8.9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3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67〉 사회적 자본: (2) 우리 지역사회 이웃을 신뢰한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09	29.63	56.32	12.96	
성별	남성	0.88	31.50	54.86	12.76	83.337 ***
	여성	1.29	27.72	57.81	13.17	
연령대	20대 이하	0.91	35.07	53.39	10.63	614,508 ***
	30대	0.90	31.03	55.79	12.27	
	40대	1.06	33.26	54.41	11.27	
	50대	0.93	25.29	60.38	13.40	
	60대	1.38	26.61	52.90	19.11	
	70대	1.79	22.13	64.33	11.75	
지역	수도권	1.75	28.00	59.06	11.18	364,524 ***
	비수도권	0.42	31.27	53.57	14.75	
	대도시	1.76	31.92	54.07	12.25	1,064,266 ***
	중소도시	0.59	28.81	59.75	10.85	
	농어촌	0.53	22.78	48.11	28.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6	41.88	44.77	11.39	562,975 ***
	중하층	1.70	31.19	54.17	12.95	
	중간층	0.43	26.47	59.64	13.45	
	중상층(상층)	1.81	31.07	55.95	11.1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18	32.94	51.61	14.27	509,462 ***
	200만 원대	0.63	30.69	54.76	13.93	
	300만 원대	1.53	29.68	59.42	9.38	
	400만 원대	1.26	21.51	65.53	11.69	
	500만 원 이상	1.62	21.36	61.60	15.42	
학력	중졸 이하	1.87	24.59	56.94	16.60	291,703 ***
	고졸	1.02	30.99	53.21	14.77	
	대졸 이상	0.96	29.73	58.55	10.7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9	32.92	54.57	11.22	566,15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7	30.90	53.86	14.87	
	고용주·자영자	0.22	23.65	59.17	16.97	
	무급가족종사자		25.32	54.27	20.41	
	실업자		31.59	64.05	4.36	
	비경제활동인구	1.79	27.71	58.16	12.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9	32.30	55.33	11.08	72,637 ***
	비정규직	0.57	33.29	51.59	14.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9	33.07	52.00	13.54	138,410 ***
	중도적	1.05	28.84	57.26	12.85	
	진보적	0.87	27.68	58.83	12.6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68〉 사회적 자본: (3)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59	34.53	51.87	10.01	
성별	남성	3.86	35.77	51.31	9.06	67,951 ***
	여성	3.32	33.25	52.45	10.98	
연령대	20대 이하	5.96	36.98	48.33	8.72	564,719 ***
	30대	3.00	35.44	53.36	8.20	
	40대	3.78	35.44	50.98	9.80	
	50대	2.41	32.31	55.19	10.08	
	60대	4.20	37.20	46.32	12.28	
	70대	1.10	25.84	60.10	12.96	
지역	수도권	3.76	34.76	52.61	8.87	62,258 ***
	비수도권	3.43	34.29	51.14	11.15	
	대도시	3.66	38.82	48.51	9.02	397,618 ***
	중소도시 농어촌	3.73 2.54	32.37 25.23	53.88 57.38	10.03 14.8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1	43.44	47.62	5.83	317,726 ***
	중하층	3.32	35.41	49.87	11.40	
	중간층	3.56	32.10	54.57	9.77	
	중상층(상층)	5.84	37.84	46.92	9.3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6	34.90	49.96	12.58	447,609 ***
	200만 원대	3.89	36.88	49.24	9.99	
	300만 원대	4.65	34.21	52.71	8.44	
	400만 원대	3.59	29.92	56.78	9.71	
	500만 원 이상	2.76	27.26	64.59	5.40	
학력	중졸 이하	2.74	31.54	53.07	12.66	140,927 ***
	고졸	3.68	33.40	51.80	11.13	
	대졸 이상	3.73	36.06	51.66	8.5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56	35.34	51.59	9.51	537,376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1	39.00	43.47	14.82	
	고용주·자영자	3.08	33.13	54.31	9.48	
	무급가족종사자	3.57	33.13	44.41	18.88	
	실업자	13.45	40.49	43.04	3.01	
	비경제활동인구	3.84	31.93	55.19	9.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22	34.65	52.42	9.71	168,191 ***
	비정규직	3.98	40.39	42.58	13.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17	36.39	50.12	10.32	231,467 ***
	중도적	3.09	34.42	54.29	8.20	
	진보적	4.66	33.03	50.10	12.2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4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69〉 사회적 자본: (4) 지역사회 문제 공동 대처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표현한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40	40.47	46.25	8.87	
성별	남성	4.25	42.69	44.60	8.45	86,740 ***
	여성	4.55	38.21	47.94	9.30	
연령대	20대 이하	5.78	40.92	46.74	6.56	520,088 ***
	30대	4.62	43.68	42.73	8.97	
	40대	5.68	40.41	43.28	10.63	
	50대	3.47	41.68	44.96	9.88	
	60대	3.72	39.69	48.37	8.22	
	70대	1.30	31.30	59.23	8.17	
지역	수도권	4.69	40.88	45.17	9.27	27,402 ***
	비수도권	4.11	40.07	47.34	8.48	
	대도시	4.36	40.95	45.48	9.21	267,737 ***
	중소도시 농어촌	4.57 3.59	41.29 33.46	46.68 47.70	7.46 15.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7	41.73	44.92	8.28	101,940 ***
	중하층	4.38	37.90	48.19	9.53	
	중간층	4.15	42.03	44.97	8.85	
	중상층(상층)	5.56	40.70	47.44	6.3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95	37.33	48.95	9.77	260,443 ***
	200만 원대	4.20	40.46	45.92	9.42	
	300만 원대	6.28	40.38	45.25	8.08	
	400만 원대	3.54	44.41	44.42	7.63	
	500만 원 이상	2.47	47.95	43.07	6.50	
학력	중졸 이하	3.23	34.27	53.92	8.58	225,221 ***
	고졸	4.27	38.71	47.68	9.34	
	대졸 이상	4.76	43.21	43.44	8.5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49	42.50	44.19	8.83	296,90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51	37.39	50.30	8.79	
	고용주·자영자	2.90	40.70	46.05	10.35	
	무급가족종사자	1.98	28.43	60.09	9.50	
	실업자	7.19	46.91	43.89	2.01	
	비경제활동인구	5.73	38.42	47.60	8.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6	41.92	44.73	9.08	14,431 ***
	비정규직	4.44	40.28	47.28	8.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3.72	39.85	47.97	8.46	241,598 ***
	중도적	4.01	44.02	43.75	8.22	
	진보적	5.53	36.18	48.17	10.1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70〉 사회적 자본: (5)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사회단체는 상호 협력한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57	41.49	44.57	9.38	
성별	남성	4.62	42.97	44.61	7.80	135,462 ***
	여성	4.51	39.98	44.52	10.99	
연령대	20대 이하	4.80	41.00	44.82	9.38	114,307 ***
	30대	4.29	43.40	44.04	8.27	
	40대	4.06	43.41	44.29	8.24	
	50대	3.99	40.32	45.48	10.21	
	60대	5.67	40.10	44.63	9.61	
	70대	5.37	39.26	43.40	11.97	
지역	수도권	5.00	41.91	42.90	10.19	73,806 ***
	비수도권	4.13	41.07	46.23	8.56	
	대도시	4.29	42.52	43.79	9.40	185,731 ***
	중소도시 농어촌	5.01 3.47	41.95 33.67	44.47 49.03	8.57 13.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85	41.83	41.40	11.91	139,862 ***
	중하층	4.97	41.05	44.35	9.63	
	중간층	4.51	41.31	45.78	8.40	
	중상층(상층)	2.50	44.80	40.18	12.5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45	39.65	44.35	11.54	324,974 ***
	200만 원대	5.09	39.20	45.73	9.98	
	300만 원대	5.16	45.59	41.92	7.33	
	400만 원대	3.74	44.25	45.84	6.18	
	500만 원 이상	1.39	44.74	45.67	8.21	
학력	중졸 이하	6.29	35.71	44.87	13.14	226,830 ***
	고졸	5.17	40.64	44.68	9.50	
	대졸 이상	3.72	43.44	44.41	8.4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1	42.33	44.55	8.41	336,197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32	34.09	47.73	13.86	
	고용주·자영자	3.44	43.33	43.72	9.51	
	무급가족종사자		39.09	44.13	16.78	
	실업자	2.98	45.21	47.52	4.28	
	비경제활동인구	5.64	41.72	43.73	8.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0	42.61	44.73	8.47	174,851 ***
	비정규직	6.05	34.94	46.51	12.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4.96	41.43	43.29	10.32	244,460 ***
	중도적	3.42	44.23	44.41	7.95	
	진보적	5.79	37.80	45.90	10.5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4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71〉 사회적 자본: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78	35.19	51.45	9.58	
성별	남성	3.87	36.55	50.48	9.10	40,970 ***
	여성	3.69	33.80	52.45	10.06	
연령대	20대 이하	6.28	36.34	47.54	9.84	331,862 ***
	30대	3.58	35.37	53.01	8.04	
	40대	4.24	32.55	52.69	10.52	
	50대	2.77	35.02	52.44	9.78	
	60대	2.65	37.65	48.94	10.76	
	70대	2.12	34.77	55.69	7.42	
지역	수도권	4.48	32.83	51.10	11.59	295,962 ***
	비수도권	3.08	37.56	51.81	7.56	
	대도시	3.38	37.48	49.68	9.47	233,664 ***
	중소도시 농어촌	4.36 2.46	34.36 28.42	52.43 54.84	8.85 14.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8	32.62	53.28	9.72	138,539 ***
	중하층	3.54	36.51	48.71	11.24	
	중간층	3.89	34.36	53.32	8.43	
	중상층(상층)	3.49	37.60	49.55	9.3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6	35.60	51.59	9.96	254,524 ***
	200만 원대	3.81	36.83	50.28	9.08	
	300만 원대	4.93	35.72	48.98	10.37	
	400만 원대	4.11	28.52	55.86	11.50	
	500만 원 이상	3.18	31.62	59.28	5.92	
학력	중졸 이하	2.72	35.80	51.41	10.07	157,992 ***
	고졸	2.78	37.23	50.23	9.75	
	대졸 이상	4.78	33.50	52.39	9.3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8	35.32	51.01	8.90	477,34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9	33.66	48.12	15.23	
	고용주·자영자	1.54	34.03	54.35	10.08	
	무급가족종사자	1.62	41.83	45.46	11.09	
	실업자	10.47	31.66	45.49	12.38	
	비경제활동인구	3.71	36.19	52.32	7.7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1	35.05	51.45	9.09	170,984 ***
	비정규직	4.54	34.86	47.32	13.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4	36.71	52.46	8.59	436,137 ***
	중도적	3.42	35.95	52.70	7.93	
	진보적	5.62	32.82	48.86	12.7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72〉 사회적 자본: (7) 지역 갈등 및 문제를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47	42.02	46.31	7.20	
성별	남성	4.67	41.50	47.00	6.83	18,965 ***
	여성	4.26	42.55	45.62	7.58	
연령대	20대 이하	4.31	46.79	41.07	7.83	319,272 ***
	30대	2.88	43.00	47.70	6.42	
	40대	5.50	41.16	45.97	7.38	
	50대	4.90	36.02	51.62	7.46	
	60대	4.55	42.99	46.08	6.38	
	70대	4.48	44.75	42.93	7.85	
지역	수도권	4.91	40.83	47.03	7.23	37,179 ***
	비수도권	4.02	43.21	45.59	7.17	
	대도시	4.09	43.83	45.68	6.40	263,934 ***
	중소도시 농어촌	5.25 1.90	40.93 39.06	46.81 46.66	7.00 12.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75	42.75	42.91	10.58	148,799 ***
	중하층	3.99	43.31	45.82	6.88	
	중간층	4.86	40.84	47.73	6.58	
	중상층(상층)	4.81	43.34	42.20	9.6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80	40.69	46.93	8.58	303,500 ***
	200만 원대	4.92	43.74	43.12	8.22	
	300만 원대	5.13	43.03	46.50	5.34	
	400만 원대	4.01	39.01	52.58	4.39	
	500만 원 이상	3.12	38.55	52.62	5.71	
학력	중졸 이하	4.17	39.45	48.15	8.23	48,566 ***
	고졸	4.79	41.90	45.54	7.77	
	대졸 이상	4.28	42.69	46.49	6.5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6	41.82	47.14	6.48	412,00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89	39.52	45.21	11.37	
	고용주·자영자	3.03	41.24	48.50	7.23	
	무급가족종사자	3.23	31.31	54.37	11.08	
	실업자	7.47	62.36	22.00	8.17	
	비경제활동인구	5.51	43.59	44.51	6.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77	41.89	47.61	6.73	140,464 ***
	비정규직	6.53	39.78	44.15	9.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3	44.21	43.69	7.27	173,931 ***
	중도적	3.56	40.97	49.16	6.31	
	진보적	5.37	41.53	44.73	8.3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4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73〉 사회적 자본: (8)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34	37.35	51.50	6.80	
성별	남성	4.52	38.57	50.73	6.17	49,454 ***
	여성	4.16	36.10	52.29	7.45	
연령대	20대 이하	7.76	35.50	51.54	5.20	628,548 ***
	30대	2.96	42.56	47.10	7.38	
	40대	4.94	35.76	51.58	7.72	
	50대	3.91	38.08	51.27	6.75	
	60대	3.37	39.09	50.59	6.94	
	70대	1.17	29.34	62.72	6.78	
지역	수도권	4.88	35.65	52.77	6.70	73,096 ***
	비수도권	3.81	39.06	50.23	6.90	
	대도시	3.43	38.73	51.35	6.50	297,466 ***
	중소도시 농어촌	5.37 3.09	36.20 36.98	52.32 47.65	6.11 12.2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53	41.97	51.40	3.10	218,784 ***
	중하층	3.39	37.46	52.39	6.76	
	중간층	5.22	36.69	51.16	6.93	
	중상층(상층)	3.68	36.35	49.57	10.3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34	37.01	52.23	7.42	314,236 ***
	200만 원대	4.47	37.46	51.93	6.14	
	300만 원대	6.89	39.02	48.01	6.07	
	400만 원대	2.64	36.24	53.33	7.78	
	500만 원 이상	1.86	34.33	54.82	8.99	
학력	중졸 이하	2.77	32.39	58.50	6.34	199,611 ***
	고졸	3.44	38.48	51.22	6.86	
	대졸 이상	5.39	37.61	50.14	6.8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33	37.41	51.13	6.13	303,66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2	39.94	50.89	6.15	
	고용주·자영자	2.24	38.96	50.77	8.04	
	무급가족종사자	2.70	39.08	46.90	11.33	
	실업자	10.08	42.45	41.56	5.91	
	비경제활동인구	4.44	34.55	53.89	7.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92	36.81	52.01	6.25	108,730 ***
	비정규직	4.81	41.29	48.13	5.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7	38.82	51.87	6.53	305,224 ***
	중도적	3.81	39.34	50.34	6.51	
	진보적	6.45	33.33	52.77	7.45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74〉 사회적 자본: (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진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48	39.10	50.50	5.92	
성별	남성	4.17	40.87	49.37	5.59	61,993 ***
	여성	4.80	37.28	51.65	6.26	
연령대	20대 이하	7.31	40.41	46.85	5.43	343,208 ***
	30대	3.73	37.92	52.89	5.46	
	40대	5.25	39.73	48.69	6.34	
	50대	2.82	38.88	53.02	5.29	
	60대	3.98	39.44	48.91	7.67	
	70대	3.02	37.15	54.35	5.48	
지역	수도권	5.66	37.09	50.26	6.99	253,102 ***
	비수도권	3.29	41.12	50.74	4.85	
	대도시	4.09	40.62	50.29	5.00	262,806 ***
	중소도시 농어촌	5.12 2.81	39.10 31.47	49.80 55.55	5.98 10.1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7	40.32	49.98	6.73	152,702 ***
	중하층	4.01	40.34	48.60	7.05	
	중간층	5.16	38.48	51.30	5.06	
	중상층(상층)	3.54	35.86	55.04	5.5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71	41.19	49.59	6.52	248,639 ***
	200만 원대	5.46	37.41	51.12	6.01	
	300만 원대	5.94	40.26	48.26	5.54	
	400만 원대	3.01	37.14	54.10	5.75	
	500만 원 이상	3.38	39.04	53.04	4.54	
학력	중졸 이하	4.27	40.66	47.91	7.15	51,660 ***
	고졸	4.05	40.12	50.02	5.81	
	대졸 이상	4.85	37.97	51.46	5.7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64	39.78	50.25	5.33	7,485,58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50	35.76	54.50	6.25	
	고용주·자영자	2.16	39.80	51.08	6.97	
	무급가족종사자	4.47	39.37	47.57	8.59	
	실업자	9.79	39.24	47.46	3.51	
	비경제활동인구	6.00	38.73	49.22	6.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85	39.62	50.95	5.58	77,492 ***
	비정규직	6.23	37.12	51.38	5.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49	41.62	49.33	5.56	249,460 ***
	중도적	4.01	40.66	50.10	5.23	
	진보적	5.99	34.75	52.07	7.1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4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75〉 사회적 자본: (10)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잘 대응하고 있다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23	41.64	51.31	3.82	
성별	남성	3.35	42.62	50.12	3.90	24,138 ***
	여성	3.10	40.63	52.53	3.74	
연령대	20대 이하	4.15	40.37	50.57	4.91	248,039 ***
	30대	2.88	43.89	50.60	2.63	
	40대	4.60	41.23	49.76	4.42	
	50대	2.10	40.78	53.17	3.95	
	60대	2.98	39.81	53.83	3.38	
	70대	1.91	45.94	49.14	3.01	
지역	수도권	2.68	39.77	53.56	4.00	118,005 ***
	비수도권	3.78	43.51	49.06	3.65	
	대도시	3.13	40.03	52.57	4.27	627,547 ***
	중소도시 농어촌	3.63 1.43	43.95 36.57	50.12 51.77	2.30 10.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95	40.32	51.75	5.98	236,928 ***
	중하층	2.67	44.73	49.74	2.86	
	중간층	3.64	40.26	51.75	4.35	
	중상층(상층)	4.58	37.33	55.75	2.3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2	40.48	52.28	4.42	185,836 ***
	200만 원대	3.24	40.97	51.71	4.08	
	300만 원대	4.35	44.99	47.13	3.53	
	400만 원대	3.06	41.65	52.77	2.52	
	500만 원 이상	1.55	39.29	56.46	2.71	
학력	중졸 이하	2.99	43.64	49.44	3.93	37,417 ***
	고졸	2.82	42.33	51.28	3.58	
	대졸 이상	3.60	40.65	51.76	3.9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66	41.19	50.65	4.50	436,97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4	37.91	54.40	4.66	
	고용주·자영자	1.57	42.35	52.77	3.30	
	무급가족종사자	3.50	32.72	60.87	2.91	
	실업자	10.27	62.19	24.03	3.51	
	비경제활동인구	3.32	42.94	51.04	2.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9	41.00	51.06	4.75	133,752 ***
	비정규직	4.64	39.20	52.33	3.8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9	42.43	51.97	3.02	164,027 ***
	중도적	3.03	41.79	51.93	3.25	
	진보적	4.07	40.72	49.89	5.3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76〉 소속감: (1) 자립적인 개인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0.71	17.45	68.29	13.55	
성별	남성	0.51	15.53	69.11	14.86	171,123 ***
	여성	0.91	19.42	67.46	12.21	
연령대	20대 이하	1.00	10.86	71.17	16.96	479,360 ***
	30대	0.73	16.40	68.34	14.52	
	40대	0.77	18.00	69.62	11.61	
	50대	0.62	18.63	67.04	13.72	
	60대	0.68	22.30	65.60	11.41	
	70대	0.16	21.29	66.55	12.00	
지역	수도권	0.69	16.34	68.56	14.40	52,284 ***
	비수도권	0.73	18.56	68.02	12.69	
	대도시	1.15	18.13	69.39	11.33	636,386 ***
	중소도시 농어촌	0.37 0.44	17.59 13.25	68.48 61.69	13.56 24.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8	27.78	60.84	9.20	912,760 ***
	중하층	0.61	21.20	65.28	12.91	
	중간층	0.53	13.06	72.55	13.85	
	중상층(상층)	0.85	18.94	60.52	19.6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76	20.68	67.08	11.48	483,710 ***
	200만 원대	0.73	18.44	69.09	11.74	
	300만 원대	0.67	15.92	68.04	15.36	
	400만 원대	0.18	11.20	71.14	17.48	
	500만 원 이상	1.21	12.31	65.85	20.63	
학력	중졸 이하	0.27	25.37	64.30	10.06	463,818 ***
	고졸	0.80	19.46	67.15	12.59	
	대졸 이상	0.75	14.13	70.06	15.0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5	15.89	70.30	12.97	479,85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0	20.67	63.97	14.26	
	고용주·자영자	0.13	15.20	65.47	19.21	
	무급가족종사자	1.29	24.30	65.09	9.31	
	실업자		21.60	66.64	11.76	
	비경제활동인구	0.73	19.84	68.88	10.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0	16.16	69.92	13.01	70,521 ***
	비정규직	0.87	18.80	66.49	13.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9	21.57	66.90	10.94	371,266 ***
	중도적	0.81	16.21	70.44	12.55	
	진보적	0.68	15.53	66.59	17.2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4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77〉 소속감: (2) 소속 읍·면·동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45	29.81	51.52	16.22	
성별	남성	2.01	30.19	51.72	16.08	36,584 ***
	여성	2.91	29.43	51.31	16.35	
연령대	20대 이하	2.01	35.61	47.19	15.19	465,793 ***
	30대	2.17	29.87	53.94	14.01	
	40대	2.40	29.41	53.11	15.07	
	50대	2.91	29.20	52.41	15.47	
	60대	3.07	29.84	47.87	19.21	
	70대	1.94	19.45	56.16	22.44	
지역	수도권	3.21	26.15	56.08	14.56	521,289 ***
	비수도권	1.70	33.49	46.93	17.88	
	대도시	3.59	32.52	51.31	12.57	834,785 ***
	중소도시 농어촌	1.50 2.17	27.83 27.48	53.45 41.53	17.22 28.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1	33.93	44.29	19.47	392,182 ***
	중하층	3.37	32.14	48.27	16.21	
	중간층	1.66	27.08	55.38	15.88	
	중상층(상층)	3.86	33.49	47.71	14.9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8	31.69	48.07	17.86	424,648 ***
	200만 원대	2.39	33.18	49.23	15.20	
	300만 원대	2.72	27.15	54.44	15.69	
	400만 원대	1.65	25.02	58.53	14.80	
	500만 원 이상	3.28	18.72	59.19	18.81	
학력	중졸 이하	3.00	26.06	46.77	24.17	487,527 ***
	고졸	2.76	32.32	47.74	17.17	
	대졸 이상	2.10	28.75	55.46	13.6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4	31.42	52.49	13.65	625,79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4	37.65	40.77	19.75	
	고용주·자영자	1.63	26.53	51.54	20.30	
	무급가족종사자	4.91	28.31	48.83	17.95	
	실업자	8.61	26.46	53.21	11.71	
	비경제활동인구	2.83	26.27	54.39	16.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3	31.01	52.74	13.82	400,290 ***
	비정규직	1.98	37.62	42.47	17.9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8	32.36	46.86	17.80	206,329 ***
	중도적	2.52	28.48	54.60	14.39	
	진보적	1.90	29.39	51.39	17.3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78〉 소속감: (3) 소속 시·군·구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95	33.52	54.16	10.38	
성별	남성	2.27	34.02	54.32	9.38	66,039 ***
	여성	1.62	33.00	53.99	11.39	
연령대	20대 이하	2.45	34.32	53.16	10.07	118,864 ***
	30대	2.15	34.01	54.57	9.28	
	40대	2.08	33.87	53.93	10.12	
	50대	1.30	32.34	55.74	10.61	
	60대	1.43	34.85	53.47	10.26	
	70대	2.66	30.46	53.28	13.61	
지역	수도권	1.81	33.34	55.39	9.46	49,520 ***
	비수도권	2.09	33.70	52.92	11.29	
	대도시	2.35	37.31	51.19	9.15	626,777 ***
	중소도시	1.65	31.10	57.55	9.70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68	28.16	49.77	20.38	546,650 ***
	하층	5.19	35.74	50.94	8.13	
	중하층	1.56	33.82	54.94	9.68	
	중간층	1.26	32.62	55.40	10.7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중상층(상층)	5.42	36.13	44.37	14.07	223,764 ***
	200만 원 미만	2.13	33.34	52.85	11.68	
	200만 원대	1.93	36.06	52.59	9.42	
	300만 원대	1.57	31.73	56.11	10.59	
	400만 원대	0.78	29.64	58.91	10.67	
학력	500만 원 이상	4.04	30.92	55.54	9.50	89,277 ***
	중졸 이하	2.75	31.02	52.57	13.66	
	고졸	1.91	34.14	53.77	10.19	
경제활동 참여상태	대졸 이상	1.80	33.61	54.81	9.78	261,986 ***
	상용직 임금근로자	1.97	34.85	54.44	8.7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36	34.95	52.90	9.78	
	고용주·자영자	1.06	32.00	54.94	12.00	
	무급가족종사자	2.33	28.02	53.48	16.17	
	실업자		45.67	47.33	7.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2.48	31.27	54.04	12.20	150,686 ***
	정규직	1.83	34.66	54.62	8.89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2.73	35.54	52.67	9.06	51,585 ***
	보수적	2.49	33.69	53.72	10.10	
	중도적	1.70	33.38	55.16	9.76	
	진보적	1.81	33.55	53.17	11.4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50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79〉 소속감: (4) 소속 시·도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19	35.35	51.29	11.18	
성별	남성	2.18	36.93	50.41	10.48	54,570 ***
	여성	2.19	33.74	52.18	11.89	
연령대	20대 이하	1.52	31.78	55.44	11.26	230,462 ***
	30대	2.29	37.77	49.28	10.66	
	40대	2.63	36.36	50.11	10.90	
	50대	2.55	36.69	49.92	10.85	
	60대	1.80	35.89	52.67	9.64	
	70대	2.15	31.36	50.24	16.25	
지역	수도권	2.04	36.88	49.01	12.08	103,211 ***
	비수도권	2.33	33.82	53.57	10.27	
	대도시	2.74	35.00	49.11	13.16	411,039 ***
	중소도시 농어촌	1.54 3.10	35.83 34.45	54.09 46.28	8.54 16.1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6	40.20	45.83	11.61	102,140 ***
	중하층	2.59	33.22	52.55	11.64	
	중간층	1.82	36.12	51.14	10.93	
	중상층(상층)	2.66	35.05	52.18	10.1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3	34.99	49.75	12.93	285,708 ***
	200만 원대	1.87	33.73	52.73	11.67	
	300만 원대	1.72	34.76	53.32	10.20	
	400만 원대	3.07	37.25	51.01	8.66	
	500만 원 이상	3.62	44.93	43.50	7.95	
학력	중졸 이하	2.73	33.23	48.62	15.43	123,797 ***
	고졸	1.92	35.28	51.51	11.30	
	대졸 이상	2.27	35.89	51.72	10.13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5	35.83	52.13	9.59	257,59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97	31.85	52.07	15.11	
	고용주·자영자	1.22	37.56	50.38	10.84	
	무급가족종사자	1.40	33.50	52.31	12.78	
	실업자	2.25	39.13	47.41	11.21	
	비경제활동인구	2.99	34.26	50.23	12.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41	35.63	52.44	9.52	127,084 ***
	비정규직	1.41	33.31	51.11	14.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4	34.81	49.64	12.71	348,958 ***
	중도적	1.77	38.92	50.53	8.77	
	진보적	2.18	30.95	53.76	13.11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0〉 소속감: (5) 대한민국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77	30.00	54.72	12.52	
성별	남성	2.71	31.38	53.35	12.56	42,157 ***
	여성	2.83	28.58	56.12	12.47	
연령대	20대 이하	3.39	30.32	50.13	16.16	367,349 ***
	30대	3.89	32.02	52.37	11.72	
	40대	2.14	31.19	55.19	11.48	
	50대	2.08	28.04	57.93	11.95	
	60대	2.61	32.51	54.24	10.64	
	70대	2.54	22.62	61.44	13.41	
지역	수도권	3.64	30.34	52.13	13.88	228,610 ***
	비수도권	1.89	29.65	57.31	11.15	
	대도시	2.69	30.26	55.02	12.03	122,527 ***
	중소도시 농어촌	2.91 2.38	30.62 25.17	54.46 54.62	12.01 17.8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75	27.24	60.51	10.51	122,586 ***
	중하층	2.65	31.50	52.63	13.22	
	중간층	2.89	29.56	55.60	11.95	
	중상층(상층)	3.70	28.72	52.14	15.4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7	29.24	56.48	12.41	223,536 ***
	200만 원대	3.22	30.15	52.86	13.77	
	300만 원대	3.69	27.59	56.59	12.13	
	400만 원대	1.77	32.54	55.18	10.51	
	500만 원 이상	2.23	36.26	51.60	9.92	
학력	중졸 이하	2.89	26.19	59.64	11.27	88,265 ***
	고졸	2.31	30.93	53.46	13.30	
	대졸 이상	3.09	30.14	54.56	12.2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4	30.31	54.37	12.37	152,56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5	29.09	55.06	13.70	
	고용주·자영자	2.16	28.36	57.09	12.39	
	무급가족종사자	2.00	41.07	44.74	12.19	
	실업자	1.51	41.10	52.91	4.48	
	비경제활동인구	3.29	29.58	54.27	12.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5	29.62	54.71	12.72	13,885 ***
	비정규직	2.29	31.55	53.84	12.3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3	28.24	56.11	13.31	397,295 ***
	중도적	2.42	33.43	54.47	9.69	
	진보적	3.63	26.85	53.83	15.6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5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81〉 소속감: (6) 전 지구

(단위: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72	39.91	50.72	4.65	
성별	남성	4.82	41.14	49.53	4.51	30,675 ***
	여성	4.62	38.65	51.94	4.79	
연령대	20대 이하	5.08	37.56	51.84	5.52	244,322 ***
	30대	5.32	41.31	49.07	4.30	
	40대	3.61	38.48	53.03	4.88	
	50대	4.80	38.20	52.29	4.70	
	60대	4.01	46.97	45.26	3.76	
	70대	6.39	37.35	51.89	4.37	
지역	수도권	2.96	35.15	57.03	4.86	837,092 ***
	비수도권	6.49	44.68	44.39	4.44	
	대도시	4.88	40.29	50.67	4.15	947,685 ***
	중소도시	4.04	38.94	53.47	3.55	
	농어촌	7.78	43.47	35.35	13.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4	43.67	47.53	3.66	363,230 ***
	중하층	3.68	42.31	50.58	3.42	
	중간층	4.91	37.43	52.43	5.22	
	중상층(상층)	8.24	41.71	42.18	7.88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76	42.13	47.82	5.28	348,429 ***
	200만 원대	5.09	41.95	48.88	4.08	
	300만 원대	4.21	40.30	51.48	4.01	
	400만 원대	4.35	32.65	57.28	5.73	
	500만 원 이상	4.63	28.38	61.15	5.84	
학력	중졸 이하	5.74	41.36	48.56	4.34	187,387 ***
	고졸	4.22	42.95	47.55	5.27	
	대졸 이상	4.88	37.26	53.62	4.2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37	40.26	51.36	4.02	290,99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59	39.07	50.48	4.86	
	고용주·자영자	4.82	39.38	49.79	6.01	
	무급가족종사자	3.26	52.49	37.36	6.88	
	실업자		53.67	34.92	11.41	
	비경제활동인구	5.31	38.33	52.20	4.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00	39.30	52.66	4.04	124,008 ***
	비정규직	6.48	42.37	46.57	4.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2	41.65	49.20	4.34	115,515 ***
	중도적	3.97	40.47	51.41	4.15	
	진보적	5.66	37.62	51.11	5.6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 내용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2〉 자원봉사 횟수

(단위:%)

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6~7번	1년에 한두 번	전혀 안 했다	χ^2
전체		1.78	2.34	3.49	14.97	77.42	
성별	남성	1.32	1.48	1.99	14.59	80.62	519,002 ***
	여성	2.24	3.23	5.02	15.36	74.14	
연령대	20대 이하	2.62	2.40	3.58	19.60	71.80	633,291 ***
	30대	1.30	1.79	2.99	12.59	81.33	
	40대	1.05	1.69	2.68	16.06	78.52	
	50대	2.60	2.88	3.53	13.11	77.87	
	60대	1.49	3.16	3.21	17.10	75.04	
	70대	1.13	2.20	6.68	8.19	81.80	
지역	수도권	2.13	2.26	3.30	15.61	76.70	49,612 ***
	비수도권	1.42	2.43	3.68	14.34	78.14	
	대도시	2.40	2.60	3.02	11.48	80.50	423,558 ***
	중소도시	1.17	2.10	4.07	17.68	74.98	
	농어촌	2.06	2.45	2.57	17.12	75.8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6	2.27	1.93	8.46	86.68	1,083,007 ***
	중하층	1.36	2.51	3.01	11.54	81.58	
	중간층	2.04	2.13	3.60	16.42	75.81	
	중상층(상층)	3.30	3.21	6.96	29.70	56.8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06	2.67	3.99	9.43	82.85	1,127,986 ***
	200만 원대	1.53	2.13	2.69	13.45	80.19	
	300만 원대	2.94	2.33	3.67	18.13	72.92	
	400만 원대	1.44	2.83	3.12	19.58	73.03	
	500만 원 이상	2.67	1.67	5.77	28.90	60.99	
학력	중졸 이하	0.93	1.82	6.19	9.91	81.16	291,369 ***
	고졸	2.23	2.81	3.48	15.07	76.41	
	대졸 이상	1.62	2.11	2.89	16.04	77.34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9	1.29	2.13	14.73	80.67	799,58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0	2.49	2.77	15.17	77.47	
	고용주·자영자	1.85	2.93	2.90	15.84	76.47	
	무급가족종사자	1.70	2.97	6.91	17.36	71.06	
	실업자		1.01	2.44	23.17	73.37	
	비경제활동인구	2.76	3.80	6.52	14.05	72.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4	1.35	2.15	14.19	81.06	503,017 ***
	비정규직	1.74	2.03	2.56	16.76	76.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4	2.16	4.52	13.17	78.42	191,527 ***
	중도적	1.75	2.10	2.66	14.39	79.10	
	진보적	1.85	2.85	3.72	17.35	74.24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5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83〉 사회단체 및 기관에 기부 횟수

(단위:%)

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6~7번	'년에 한두 번	전혀 안 했다	χ^2
전체		0.31	1.80	4.99	21.01	71.90	
성별	남성	0.28	1.64	4.79	19.06	74.23	118,257 ***
	여성	0.33	1.96	5.19	23.00	69.52	
연령대	20대 이하	0.25	0.44	3.72	21.91	73.69	351,207 ***
	30대	0.27	2.32	6.07	21.47	69.87	
	40대	0.15	1.78	5.70	22.04	70.33	
	50대	0.57	2.31	5.50	18.70	72.92	
	60대	0.38	2.66	5.13	19.26	72.57	
	70대	0.09	0.92	2.29	24.38	72.32	
지역	수도권	0.36	1.40	6.28	25.23	66.72	684,987 ***
	비수도권	0.25	2.19	3.70	16.77	77.09	
	대도시	0.47	2.09	4.45	17.85	75.14	364,490 ***
	중소도시 농어촌	0.14 0.41	1.39 2.64	5.87 2.69	23.77 21.14	68.82 73.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67	4.04	8.05	87.24	1,561,623 ***
	중하층	0.37	1.63	5.27	16.56	76.16	
	중간층	0.35	2.09	4.03	23.93	69.61	
	중상층(상층)		1.80	11.91	37.43	48.8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36	1.21	2.37	15.04	81.03	2,300,788 ***
	200만 원대	0.11	1.85	3.52	18.74	75.78	
	300만 원대	0.67	1.94	5.61	26.34	65.44	
	400만 원대		1.71	8.07	28.50	61.71	
	500만 원 이상	0.47	3.44	17.19	30.25	48.66	
학력	중졸 이하	0.28	1.97	2.87	15.43	79.46	458,675 ***
	고졸	0.47	1.41	4.77	18.21	75.14	
	대졸 이상	0.19	2.05	5.63	24.40	67.7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5	1.41	4.75	21.11	72.58	378,311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6	1.45	3.52	15.49	79.38	
	고용주·자영자	0.35	3.23	4.89	21.86	69.66	
	무급가족종사자	0.46	2.93	9.83	19.88	66.91	
	실업자		0.48	2.37	23.93	73.22	
	비경제활동인구	0.62	1.59	5.93	22.45	69.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14	1.50	4.60	21.48	72.28	249,091 ***
	비정규직	0.19	1.14	4.27	15.50	78.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3	1.83	4.91	18.35	74.59	165,042 ***
	중도적	0.30	1.68	4.67	20.28	73.07	
	진보적	0.29	1.93	5.50	24.34	67.93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4〉 정치 참여: (1)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단위:%)

구분		지난 1년간 한 적 있다	더 오래전에 한 적 있다	한 적 없지만 향후 의향 있다	한 적 없고 향후 의향 없다	χ^2
전체		52.87	8.55	7.28	31.30	
성별	남성	58.23	7.14	6.62	28.01	500,103 ***
	여성	47.39	10.00	7.95	34.66	
연령대	20대 이하	55.31	6.04	11.13	27.51	566,131 ***
	30대	55.83	8.61	6.18	29.38	
	40대	51.24	10.98	7.10	30.68	
	50대	51.00	9.38	6.78	32.83	
	60대	53.02	9.30	5.82	31.87	
	70대	49.59	4.72	5.42	40.27	
지역	수도권	54.29	7.87	5.99	31.84	136,505 ***
	비수도권	51.44	9.23	8.57	30.75	
	대도시	55.62	9.19	6.35	28.84	188,849 ***
	중소도시	50.47	7.96	7.76	33.81	
	농어촌	52.72	8.73	9.19	29.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8.63	5.27	6.59	29.51	751,721 ***
	중하층	57.27	9.58	6.57	26.57	
	중간층	48.33	8.10	7.20	36.38	
	중상층(상층)	57.52	10.47	12.39	19.62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2.46	7.12	7.53	32.90	337,776 ***
	200만 원대	54.72	9.68	8.20	27.41	
	300만 원대	53.50	7.31	7.14	32.06	
	400만 원대	48.39	9.47	5.21	36.93	
	500만 원 이상	48.30	10.68	4.42	36.59	
학력	중졸 이하	44.86	7.10	8.17	39.86	452,226 ***
	고졸	50.60	11.03	7.78	30.59	
	대졸 이상	56.41	6.99	6.69	29.91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4.21	8.16	7.30	30.34	425,35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62	10.04	9.37	28.97	
	고용주·자영자	57.78	8.87	5.65	27.70	
	무급가족종사자	58.43	10.94	7.19	23.44	
	실업자	63.62	3.55	8.27	24.56	
	비경제활동인구	46.35	8.53	7.50	37.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4.49	7.88	7.35	30.28	94,939 ***
	비정규직	51.29	10.51	8.75	29.46	
이념적 성향	보수적	54.65	9.55	6.63	29.17	1,138,746 ***
	중도적	44.55	8.48	8.16	38.81	
	진보적	62.68	7.78	6.64	22.9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56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85〉 정치 참여: (2) SNS 등에 의견 올리기

(단위:%)

구분		지난 1년간 한 적 있다	더 오래전에 한 적 있다	한 적 없지만 향후 의향 있다	한 적 없고 향후 의향 없다	χ^2
전체		7.36	7.83	9.10	75.71	
성별	남성	9.23	7.78	9.54	73.45	238,293 ***
	여성	5.45	7.87	8.66	78.02	
연령대	20대 이하	15.60	11.54	12.24	60.61	3,484,374 ***
	30대	11.49	13.48	8.21	66.81	
	40대	6.59	8.22	11.86	73.33	
	50대	4.02	5.34	9.91	80.73	
	60대	1.69	3.08	5.45	89.78	
	70대	0.71	1.30	1.95	96.05	
지역	수도권	8.33	8.78	9.72	73.17	154,069 ***
	비수도권	6.39	6.87	8.49	78.26	
	대도시	6.67	7.84	7.14	78.35	432,037 ***
	중소도시	7.66	8.73	11.26	72.35	
	농어촌	9.10	2.64	6.76	81.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8	2.73	4.97	88.92	759,048 ***
	중하층	5.85	7.30	8.99	77.86	
	중간층	8.44	8.22	9.17	74.16	
	중상층(상층)	11.75	13.54	14.07	60.64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56	6.94	6.96	82.54	620,567 ***
	200만 원대	7.57	7.33	10.48	74.61	
	300만 원대	10.29	9.07	9.49	71.16	
	400만 원대	10.16	10.34	9.09	70.41	
	500만 원 이상	8.29	6.86	8.76	76.10	
학력	중졸 이하	1.88	2.27	4.44	91.41	1,068,847 ***
	고졸	7.20	5.98	8.91	77.90	
	대졸 이상	8.72	10.48	10.30	70.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18	9.90	9.61	71.31	645,50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5	5.46	8.72	79.07	
	고용주·자영자	4.66	4.55	9.29	81.50	
	무급가족종사자	1.00	2.75	8.82	87.42	
	실업자	10.84	9.72	15.90	63.54	
	비경제활동인구	6.55	7.71	7.84	77.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06	9.39	9.49	72.05	311,395 ***
	비정규직	7.64	8.01	9.29	75.0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41	5.21	7.33	84.04	1,488,768 ***
	중도적	5.28	7.97	10.07	76.68	
	진보적	13.68	9.92	9.35	67.0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6〉 정치 참여: (3) 정부와 언론에 의견 제시

(단위:%)

구분		지난 1년간 한 적 있다	더 오래전에 한 적 있다	한 적 없지만 향후 의향 있다	한 적 없고 향후 의향 없다	χ^2
전체		3.23	4.66	13.86	78.25	
성별	남성	3.86	5.47	14.67	76.00	158,839 ***
	여성	2.60	3.82	13.03	80.55	
연령대	20대 이하	3.74	4.28	16.72	75.26	791,281 ***
	30대	4.47	6.81	16.20	72.51	
	40대	4.22	5.48	14.23	76.06	
	50대	3.35	4.60	14.00	78.05	
	60대	1.05	3.19	10.63	85.12	
	70대	0.67	1.66	7.13	90.54	
지역	수도권	4.15	5.41	15.05	75.40	242,799 ***
	비수도권	2.32	3.90	12.68	81.11	
	대도시	1.68	3.98	11.27	83.07	698,933 ***
	중소도시	4.33	5.74	16.64	73.29	
	농어촌	4.79	1.91	11.10	82.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85	0.63	13.47	85.04	820,743 ***
	중하층	2.76	3.74	10.83	82.67	
	중간층	3.59	5.26	14.99	76.17	
	중상층(상층)	5.88	9.59	21.70	62.8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96	3.63	11.19	83.22	441,546 ***
	200만 원대	3.66	4.71	14.14	77.50	
	300만 원대	3.68	5.65	12.44	78.24	
	400만 원대	4.15	5.86	18.85	71.14	
	500만 원 이상	3.32	3.74	20.75	72.20	
학력	중졸 이하	0.92	2.45	10.01	86.63	434,425 ***
	고졸	3.29	3.52	13.12	80.07	
	대졸 이상	3.71	6.02	15.30	74.9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54	5.24	14.60	76.63	297,51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40	3.38	13.52	78.70	
	고용주·자영자	2.43	5.37	12.80	79.40	
	무급가족종사자	0.61	5.65	7.32	86.42	
	실업자	10.39	0.29	16.78	72.54	
	비경제활동인구	2.54	3.80	13.76	79.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5	4.78	14.12	77.45	67,143 ***
	비정규직	3.87	5.20	15.27	75.6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7	3.52	10.46	83.74	343,922 ***
	중도적	2.93	4.74	15.21	77.11	
	진보적	4.50	5.53	15.01	74.97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58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87〉 정치 참여: (4) 불매 운동 참여

(단위:%)

구분		지난 1년간 한 적 있다	더 오래전에 한 적 있다	한 적 없지만 향후 의향 있다	한 적 없고 향후 의향 없다	χ^2
전체		2.73	8.04	21.57	67.66	
성별	남성	2.16	7.67	21.91	68.26	62,986 ***
	여성	3.32	8.42	21.23	67.04	
연령대	20대 이하	5.25	7.05	26.87	60.83	1,257,079 ***
	30대	4.29	10.34	25.39	59.98	
	40대	2.78	10.29	19.96	66.97	
	50대	1.34	8.63	20.65	69.38	
	60대	0.59	5.46	16.64	77.31	
	70대	1.01	2.98	16.78	79.24	
지역	수도권	2.08	7.01	24.33	66.58	272,891 ***
	비수도권	3.39	9.07	18.81	68.74	
	대도시	1.91	7.54	17.64	72.92	730,572 ***
	중소도시	3.14	9.03	26.01	61.81	
	농어촌	4.54	4.90	16.11	74.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9	5.42	18.79	74.20	1,108,767 ***
	중하층	1.80	7.62	21.38	69.20	
	중간층	3.36	7.00	21.04	68.59	
	중상층(상층)	4.15	21.18	29.94	44.7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45	6.82	17.27	74.46	595,646 ***
	200만 원대	2.82	8.84	22.09	66.26	
	300만 원대	3.03	8.34	21.14	67.48	
	400만 원대	5.51	9.04	27.44	58.02	
	500만 원 이상	2.72	6.20	29.28	61.81	
학력	중졸 이하	0.57	5.63	16.50	77.30	316,059 ***
	고졸	2.96	8.38	20.50	68.17	
	대졸 이상	3.05	8.32	23.54	65.0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6	8.99	23.03	65.72	559,283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22	6.14	21.52	66.12	
	고용주·자영자	1.02	8.52	17.86	72.60	
	무급가족종사자	1.25	5.42	14.95	78.38	
	실업자	7.46	2.17	23.82	66.55	
	비경제활동인구	3.19	7.28	22.03	67.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7	8.88	22.55	66.20	209,542 ***
	비정규직	5.05	7.10	23.34	64.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4	7.15	15.72	75.59	516,733 ***
	중도적	3.02	8.14	22.78	66.05	
	진보적	3.38	8.67	25.07	62.88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8〉 투표 경험: (1) 2016년 총선거

(단위:%)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χ^2
전체		76.67	18.78	2.97	1.58	
성별	남성	78.99	17.07	2.38	1.55	146,023
	여성	74.29	20.52	3.58	1.60	***
연령대	20대 이하	48.99	37.49	4.91	8.61	6,202,961
	30대	75.48	22.01	2.52		
	40대	80.90	16.58	2.52		
	50대	85.53	12.16	2.31		
	60대	86.36	10.83	2.80		
	70대	90.47	6.76	2.76		
지역	수도권	75.10	21.15	2.22	1.53	217,618
	비수도권	78.25	16.40	3.73	1.62	***
	대도시	75.06	19.58	3.51	1.85	106,332
	중소도시	77.36	18.63	2.49	1.52	
	농어촌	80.83	15.61	3.02	0.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4.44	22.00	2.48	1.08	253,388
	중하층	73.47	21.88	3.27	1.37	
	중간층	78.97	16.53	2.90	1.60	
	중상층(상층)	78.60	15.84	2.53	3.0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6.47	17.58	4.92	1.04	650,459
	200만 원대	74.15	21.64	2.92	1.30	
	300만 원대	76.52	19.69	1.90	1.89	
	400만 원대	80.16	14.47	1.64	3.73	
	500만 원 이상	87.08	10.67	0.82	1.44	
학력	중졸 이하	83.89	11.20	3.35	1.56	596,821
	고졸	75.07	18.50	3.46	2.97	
	대졸 이상	76.26	20.70	2.52	0.5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6.23	21.26	2.26	0.25	2,159,38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8.09	26.00	4.13	1.77	
	고용주·자영자	88.98	8.60	2.42		
	무급가족종사자	83.53	14.24	0.78	1.45	
	실업자	73.95	26.05			
	비경제활동인구	71.73	18.59	4.53	5.1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7.07	20.57	2.10	0.27	935,774
	비정규직	67.18	27.18	4.24	1.40	***
이념적 성향	보수적	82.14	14.96	2.52	0.39	433,994
	중도적	76.40	18.80	3.20	1.60	
	진보적	72.23	22.11	3.07	2.5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십니까?: 2016년 총선거”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89〉 투표 경험: (2)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단위:%)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χ^2
전체		86.78	10.57	1.36	1.29	
성별	남성	88.57	9.43	0.89	1.11	148,501
	여성	84.94	11.74	1.85	1.48	***
연령대	20대 이하	69.71	20.47	2.76	7.07	3,879,613
	30대	88.53	10.48	1.00		
	40대	88.69	10.22	1.09		
	50대	92.34	7.09	0.57		
	60대	93.59	4.86	1.55		
	70대	89.98	8.64	1.39		
지역	수도권	85.29	11.85	1.47	1.39	81,897
	비수도권	88.27	9.28	1.25	1.20	***
	대도시	86.04	10.68	1.86	1.43	125,667
	중소도시	86.68	10.88	1.16	1.27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91.01	8.24		0.75	***
	하층	79.95	17.40	1.57	1.08	300,233
	중하층	86.40	11.38	1.26	0.97	
	중간층	88.25	9.06	1.35	1.33	
	중상층(상층)	85.58	9.72	1.73	2.9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87.09	10.22	2.17	0.52	327,104
	200만 원대	84.91	12.35	1.23	1.50	
	300만 원대	87.47	10.03	0.95	1.54	
	400만 원대	86.74	9.96	1.28	2.02	
	500만 원 이상	93.50	4.75	0.31	1.44	
학력	중졸 이하	86.26	10.45	1.50	1.79	229,062
	고졸	85.56	10.64	1.61	2.19	
	대졸 이상	87.82	10.54	1.14	0.5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7.36	11.45	0.83	0.36	1,576,97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1.09	15.92	2.23	0.75	
	고용주·자영자	94.12	4.75	1.13		
	무급가족종사자	83.88	13.89	2.23		
	실업자	81.46	18.54			
	비경제활동인구	83.24	10.28	2.15	4.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7.22	11.56	0.83	0.39	534,779
	비정규직	82.86	14.62	1.93	0.59	***
이념적 성향	보수적	87.61	10.84	0.90	0.65	216,294
	중도적	86.93	10.73	1.46	0.88	
	진보적	85.83	10.11	1.64	2.4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2017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0〉 투표 경험: (3) 2018년 지방선거

(단위:%)

구분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χ^2
전체		73.64	23.67	2.18	0.51	
성별	남성	75.90	21.81	1.91	0.38	119,256 ***
	여성	71.33	25.56	2.46	0.64	
연령대	20대 이하	51.81	41.63	3.78	2.78	3,380,913 ***
	30대	70.09	28.05	1.86		
	40대	79.11	18.90	1.99		
	50대	79.23	19.20	1.57		
	60대	82.44	15.58	1.98		
	70대	86.34	11.91	1.75		
지역	수도권	70.18	26.80	2.52	0.49	262,182 ***
	비수도권	77.11	20.52	1.84	0.52	
	대도시	72.69	23.28	3.24	0.79	245,062 ***
	중소도시 농어촌	73.75 77.81	24.40 21.42	1.50 0.76	0.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2.34	25.86	1.27	0.53	555,226 ***
	중하층	68.80	28.82	1.76	0.62	
	중간층	76.95	20.49	2.17	0.39	
	중상층(상층)	75.45	18.18	5.57	0.80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4.24	22.09	3.37	0.30	679,893 ***
	200만 원대	69.64	27.37	2.23	0.76	
	300만 원대	73.30	24.68	1.30	0.72	
	400만 원대	77.85	21.35	0.80		
	500만 원 이상	88.53	9.58	1.89		
학력	중졸 이하	78.76	17.40	2.05	1.79	393,028 ***
	고졸	72.83	24.32	2.05	0.80	
	대졸 이상	73.10	24.58	2.3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1.53	26.60	1.87	0.40	1,114,60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2.48	24.77	2.34		
	고용주·자영자	84.18	13.99	1.83		
	무급가족종사자	77.53	21.69	0.78		
	실업자	71.15	28.10	0.75		
	비경제활동인구	70.09	24.86	3.13	1.9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1.82	26.36	1.83	0.32	375,122 ***
	비정규직	71.36	25.93	2.4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8.29	20.12	1.59	0.39	380,473 ***
	중도적	73.92	23.25	2.43		
	진보적	69.17	27.35	2.36	1.1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1〉 주관적 소득계층

(단위: %)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χ^2
전체		7.82	34.96	50.57	6.27	0.39	
성별	남성	8.40	35.40	49.71	6.05	0.44	186,967 ***
	여성	7.23	34.51	51.45	6.48	0.33	
연령대	20대 이하	6.49	32.52	54.13	6.11	0.75	1,822,462 ***
	30대	5.65	35.99	53.24	4.79	0.33	
	40대	5.46	33.22	54.72	6.39	0.22	
	50대	4.84	31.45	56.21	6.91	0.59	
	60대	12.99	38.63	39.94	8.29	0.16	
	70대	19.29	44.54	31.87	4.30		
지역	수도권	7.74	32.83	51.77	7.02	0.64	538,653 ***
	비수도권	7.90	37.10	49.36	5.51	0.13	
	대도시	6.56	36.42	49.89	6.29	0.84	366,114 ***
	중소도시	8.61	34.44	50.31	6.58	0.06	
	농어촌	9.66	30.52	55.48	4.33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16	47.06	31.93	2.79	0.06	893,340 ***
	200만 원대	6.02	39.35	49.36	5.20	0.08	
	300만 원대	1.93	26.57	62.67	8.68	0.16	
	400만 원대	1.59	14.03	73.49	9.94	0.96	
	500만 원 이상	3.82	17.21	62.39	13.31	3.27	
학력	중졸 이하	22.62	44.97	29.77	2.63		417,476 ***
	고졸	9.34	40.01	45.35	5.19	0.10	
	대졸 이상	3.32	28.85	59.23	7.90	0.6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95	32.29	56.40	5.22	0.14	555,27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72	40.58	33.63	2.91	0.16	
	고용주·자영자	5.71	35.10	50.04	8.66	0.49	
	무급가족종사자	9.01	41.61	37.74	10.40	1.24	
	실업자	14.07	54.28	27.41	4.24		
	비경제활동인구	6.01	35.73	49.80	7.65	0.8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72	32.46	56.36	5.30	0.15	324,132 ***
	비정규직	19.87	38.27	38.59	3.14	0.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92	40.32	39.32	6.49	0.95	226,518 ***
	중도적	6.51	30.46	57.46	5.33	0.24	
	진보적	5.13	36.40	51.03	7.34	0.09	

주 1) “(조사표 질문)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__님 택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2〉 사회 이동: 15세 무렵에 비해 계층 변화

(단위: %)

구분		매우 낮아졌다	약간 낮아졌다	떨어지지도 높아지지도 않았다	약간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χ^2
전체		1.37	17.54	44.46	33.58	3.04	
성별	남성	1.84	16.97	43.09	34.64	3.46	130,620 ***
	여성	0.90	18.12	45.86	32.51	2.61	
연령대	20대 이하	1.08	16.44	51.66	30.37	0.44	1,576,917 ***
	30대	0.61	17.19	48.02	33.32	0.87	
	40대	0.81	15.94	41.13	39.65	2.46	
	50대	1.08	15.19	40.95	37.76	5.02	
	60대	3.49	19.53	41.11	29.96	5.91	
	70대	2.01	26.84	43.79	22.59	4.77	
지역	수도권	1.49	23.34	38.08	34.82	2.27	1,283,852 ***
	비수도권	1.26	11.71	50.87	32.34	3.82	
	대도시	0.67	15.81	46.28	34.12	3.12	367,352 ***
	중소도시	1.85	19.93	42.56	33.08	2.58	
	농어촌	2.22	12.66	46.11	33.72	5.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02	42.77	29.09	20.20	0.91	5,704,523 ***
	중하층	1.65	26.23	47.19	22.78	2.14	
	중간층	0.24	9.29	46.37	40.80	3.31	
	중상층(상층)	1.91	4.90	33.68	51.22	8.29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02	25.96	45.07	23.19	2.76	3,403,409 ***
	200만 원대	0.84	19.37	49.84	27.65	2.30	
	300만 원대	0.49	10.37	43.53	43.12	2.49	
	400만 원대	1.40	6.28	29.07	56.60	6.65	
	500만 원 이상	0.60	11.69	35.56	46.91	5.24	
학력	중졸 이하	2.69	26.19	43.78	23.13	4.21	1,178,776 ***
	고졸	2.16	19.10	47.19	28.48	3.08	
	대졸 이상	0.48	14.40	42.54	39.83	2.75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1	16.54	44.95	35.95	1.94	2,196,728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62	25.30	45.40	23.58	1.10	
	고용주·자영자	0.97	15.29	40.94	36.31	6.50	
	무급가족종사자		18.23	42.17	36.75	2.85	
	실업자	13.58	41.90	28.08	16.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1.06	16.25	46.87	32.29	3.52	520,940 ***
	정규직	0.58	16.58	45.44	35.66	1.74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3.87	23.33	43.75	27.12	1.93	1,063,408 ***
	보수적	3.27	22.29	41.18	28.26	5.00	
	중도적	0.68	14.47	45.61	37.34	1.90	
	진보적	0.65	17.55	45.77	33.13	2.89	

주 1) “(조사표 질문) __님은 15세 무렵에 비해 현재 계층이 낮아졌다고 또는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46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표 3-193〉 지난 10년간 생활수준 변화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χ^2
전체		1.17	36.39	50.58	11.41	0.46	
성별	남성	1.32	38.39	48.12	11.74	0.43	110,985 ***
	여성	1.01	34.34	53.10	11.07	0.49	
연령대	20대 이하	0.88	37.34	52.38	9.26	0.14	1,288,910 ***
	30대	1.05	40.29	50.53	7.95	0.19	
	40대	0.85	40.20	48.66	9.83	0.48	
	50대	1.72	41.20	44.97	11.76	0.34	
	60대	1.26	29.94	52.92	15.10	0.79	
	70대	1.24	16.32	61.18	19.88	1.39	
지역	수도권	1.68	39.68	45.16	13.36	0.13	63,977 ***
	비수도권	0.65	33.08	56.02	9.46	0.79	
	대도시	1.14	37.44	50.95	10.22	0.24	264,300 ***
	중소도시	1.28	36.68	49.61	12.01	0.43	
	농어촌	0.66	29.44	54.24	13.95	1.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03	53.31	31.17	2.49	5,917,218 ***
	중하층	0.36	22.69	58.57	17.67	0.70	
	중간층	1.36	47.09	46.42	5.10	0.03	
	중상층(상층)	5.25	54.47	37.01	3.27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22	20.89	59.75	17.88	1.26	3,907,606 ***
	200만 원대	0.71	33.46	54.57	11.12	0.15	
	300만 원대	1.54	45.05	46.93	6.39	0.08	
	400만 원대	3.89	62.16	27.64	5.69	0.63	
	500만 원 이상	2.66	52.33	34.22	10.79		
학력	중졸 이하	0.35	16.38	64.79	17.15	1.33	2,412,359 ***
	고졸	0.77	30.14	53.13	15.30	0.67	
	대졸 이상	1.65	45.65	45.44	7.16	0.10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6	41.28	49.11	8.43	0.13	1,420,0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1	22.11	56.27	20.31	1.20	
	고용주·자영자	1.85	37.73	49.06	11.09	0.27	
	무급가족종사자	0.73	22.60	59.54	15.67	1.45	
	실업자		23.91	43.22	29.83	3.05	
	비경제활동인구	1.39	34.26	51.76	11.93	0.6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1	41.49	48.96	8.31	0.14	811,470 ***
	비정규직	0.15	25.51	55.23	18.16	0.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7	27.76	53.20	17.42	0.84	937,929 ***
	중도적	1.08	40.23	49.84	8.46	0.39	
	진보적	1.62	38.71	49.29	10.16	0.21	

주 1) “(조사표 질문)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4〉 향후 10년 이내 생활수준 변화 기대

(단위: %)

구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χ^2
전체		2.17	38.63	48.29	10.56	0.35	
성별	남성	2.55	40.21	47.33	9.62	0.29	103,742 ***
	여성	1.78	37.01	49.28	11.51	0.41	
연령대	20대 이하	3.82	50.30	37.60	8.28	0.19 4,155,902 ***	
	30대	1.99	52.40	38.72	6.71		
	40대	3.42	43.62	44.04	8.92		
	50대	1.81	36.67	51.18	10.24		
	60대	0.17	20.15	62.21	16.38		
	70대	0.34	9.42	70.50	18.16		
지역	수도권	3.35	41.59	42.49	12.36	0.22	799,593 ***
	비수도권	0.99	35.66	54.13	8.74	0.48	
	대도시	1.63	40.67	49.13	8.18	0.39	375,147 ***
	중소도시	2.86	37.80	46.50	12.59	0.25	
	농어촌	0.98	33.14	54.27	10.93	0.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5	17.87	43.20	35.56	3.11	5,395,982 ***
	중하층	0.54	28.72	56.99	13.44	0.30	
	중간층	3.41	47.52	43.78	5.29		
	중상층(상층)	3.61	47.50	42.92	5.9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50	22.21	60.15	16.09	1.04	3,749,550 ***
	200만 원대	0.99	40.16	50.03	8.68	0.14	
	300만 원대	2.98	47.83	43.00	6.07	0.11	
	400만 원대	6.75	56.31	28.39	8.55		
	500만 원 이상	6.65	42.71	34.91	15.74		
학력	중졸 이하	0.28	12.54	65.78	19.69	1.71	4,370,307 ***
	고졸	1.34	29.04	56.53	12.78	0.32	
	대졸 이상	3.23	51.82	38.08	6.80	0.07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25	46.27	42.15	9.11	0.22	1,405,25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4	26.17	52.43	19.29	0.87	
	고용주·자영자	1.92	34.23	53.48	10.03	0.33	
	무급가족종사자		23.33	66.10	10.57		
	실업자	0.61	17.72	67.67	14.00		
	비경제활동인구	2.86	35.55	51.50	9.67	0.4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9	46.51	42.51	8.66	0.24	704,358 ***
	비정규직	1.96	29.69	49.12	18.54	0.6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7	25.82	57.96	14.93	0.82	1,565,780 ***
	중도적	2.60	42.31	45.90	8.98	0.21	
	진보적	3.08	44.86	43.08	8.87	0.12	

주 1) “(조사표 질문) 앞으로 10년 이내 귀하의 생활수준은 얼마만큼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5〉 우리 사회에서 노력에 따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단위: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χ^2
전체		1.02	43.31	43.05	9.04	3.58	
성별	남성	1.23	44.23	42.93	8.85	2.76	108,492 ****
	여성	0.80	42.38	43.17	9.24	4.41	
연령대	20대 이하	0.13	47.69	43.37	6.18	2.64	1,062,522 ****
	30대	1.19	50.04	38.59	7.52	2.65	
	40대	1.30	45.71	41.73	8.70	2.55	
	50대	1.35	43.82	42.37	8.92	3.53	
	60대	0.92	33.99	47.31	12.42	5.35	
	70대	1.26	28.89	49.10	13.70	7.04	
지역	수도권	0.96	41.09	43.37	11.71	2.87	434,585 ****
	비수도권	1.08	45.55	42.72	6.37	4.28	
	대도시	0.74	46.09	42.89	6.71	3.57	508,378 ****
	중소도시 농어촌	0.91 3.07	41.44 40.03	43.39 41.89	11.15 8.76	3.12 6.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20	20.24	50.75	24.20	4.61	2,947,050 ****
	중하층	0.23	34.44	50.80	11.18	3.35	
	중간층	1.48	51.61	37.32	5.79	3.79	
	중상층(상층)	2.58	53.94	36.82	4.71	1.95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91	31.77	50.27	13.02	4.04	1,918,017 ****
	200만 원대	0.57	41.14	47.23	7.73	3.33	
	300만 원대	0.71	53.52	33.66	7.55	4.55	
	400만 원대	3.53	58.03	29.15	7.04	2.25	
	500만 원 이상	1.59	49.27	39.35	7.97	1.81	
학력	중졸 이하	0.73	30.30	48.72	15.96	4.29	1,465,115 ****
	고졸	0.83	36.67	47.04	10.84	4.62	
	대졸 이상	1.23	51.30	38.72	6.12	2.62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9	47.69	40.90	7.93	2.60	949,84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56	28.19	51.01	14.24	6.01	
	고용주·자영자	1.95	40.98	44.33	9.62	3.12	
	무급가족종사자	3.48	38.36	51.62	3.58	2.96	
	실업자	2.55	31.97	49.15	11.82	4.52	
	비경제활동인구	0.50	44.49	41.67	8.68	4.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2	48.70	40.73	7.23	2.52	827,797 ****
	비정규직	0.83	29.12	49.41	15.11	5.52	
이념적 성향	보수적	0.90	38.03	47.72	8.52	4.82	474,738 ****
	중도적	1.40	46.22	42.17	7.40	2.82	
	진보적	0.61	43.98	40.14	11.75	3.52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6〉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단위: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χ^2
전체		2.93	50.35	34.01	5.68	7.04	
성별	남성	3.19	50.19	33.48	6.37	6.78	52,840 ***
	여성	2.66	50.52	34.55	4.97	7.30	
연령대	20대 이하	2.58	48.93	34.55	4.41	9.53	602,134 ***
	30대	3.40	53.27	30.46	5.16	7.71	
	40대	2.78	52.85	33.10	6.30	4.97	
	50대	3.32	54.24	31.75	3.83	6.87	
	60대	2.69	43.71	38.89	7.70	7.02	
	70대	2.50	43.30	39.54	9.07	5.60	
지역	수도권	2.09	45.96	37.64	7.23	7.07	595,501 ***
	비수도권	3.77	54.75	30.35	4.12	7.00	
	대도시	3.25	55.11	31.22	3.92	6.50	621,165 ***
	중소도시	2.07	46.87	36.96	6.84	7.25	
	농어촌	6.19	46.19	31.20	7.92	8.5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3	31.76	41.53	15.74	9.34	2,412,310 ***
	중하층	1.56	43.00	40.89	6.87	7.68	
	중간층	3.25	58.03	29.04	3.51	6.18	
	중상층(상층)	9.16	52.48	26.78	4.07	7.51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6	43.96	38.88	9.32	5.28	1,067,715 ***
	200만 원대	3.35	48.01	36.27	4.77	7.60	
	300만 원대	2.46	56.43	27.74	4.59	8.78	
	400만 원대	2.65	62.54	26.37	1.80	6.64	
	500만 원 이상	3.83	53.30	32.10	4.84	5.93	
학력	중졸 이하	2.03	42.73	40.78	10.50	3.97	668,075 ***
	고졸	2.45	47.72	35.48	6.18	8.18	
	대졸 이상	3.49	54.07	31.36	4.21	6.86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6	51.59	33.71	5.83	5.62	471,38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2	43.19	39.65	8.96	5.98	
	고용주·자영자	3.26	49.22	34.19	5.14	8.19	
	무급가족종사자	2.64	52.02	37.47	4.24	3.63	
	실업자	3.12	40.54	36.40	10.42	9.52	
	비경제활동인구	2.40	52.41	31.63	4.24	9.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0	52.37	33.47	5.54	5.52	209,246 ***
	비정규직	2.94	42.48	39.15	9.21	6.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8	46.23	39.85	6.23	5.71	500,891 ***
	중도적	2.27	52.63	32.73	4.72	7.66	
	진보적	4.67	50.85	30.62	6.50	7.36	

주 1) “(조사표 질문) __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부표 3-197〉 이념적 성향

(단위: %)

구분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χ^2
전체		2.63	24.44	42.12	28.10	2.70	
성별	남성	3.16	23.74	41.72	27.97	3.41	133,797 ***
	여성	2.10	25.16	42.53	28.24	1.98	
연령대	20대 이하	0.36	9.30	38.80	46.74	4.80	9,209,958 ***
	30대	0.73	8.81	48.01	37.45	5.00	
	40대	0.51	17.60	52.36	27.36	2.17	
	50대	2.11	30.89	46.44	19.05	1.52	
	60대	6.25	46.66	32.26	13.86	0.97	
	70대	11.68	52.00	18.92	16.87	0.53	
지역	수도권	1.59	23.62	44.14	28.46	2.19	265,495 ***
	비수도권	3.68	25.27	40.09	27.74	3.22	
	대도시	1.60	27.44	40.78	28.01	2.17	452,016 ***
	중소도시	3.05	21.31	43.63	29.06	2.95	
	농어촌	5.46	27.16	40.23	23.17	3.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62	36.11	35.07	16.40	3.80	1,608,821 ***
	중하층	2.73	28.50	36.69	29.01	3.06	
	중간층	1.49	19.57	47.85	28.95	2.14	
	중상층(상층)	3.79	26.49	35.28	30.67	3.76	
균등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99	34.92	35.01	21.26	1.82	2,973,127 ***
	200만 원대	0.81	23.56	40.75	31.82	3.07	
	300만 원대	0.96	15.98	44.25	34.53	4.27	
	400만 원대	2.41	18.98	51.52	25.58	1.52	
	500만 원 이상	1.15	21.88	58.31	17.86	0.80	
학력	중졸 이하	11.66	45.05	26.26	16.37	0.66	4,805,482 ***
	고졸	2.09	31.28	41.20	23.28	2.14	
	대졸 이상	1.01	14.59	46.39	34.43	3.59	
경제활동 참여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97	17.44	44.95	32.96	3.68	1,805,97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3	28.76	39.39	26.03	1.89	
	고용주·자영자	3.25	33.20	41.91	19.67	1.97	
	무급가족종사자	8.83	38.02	35.23	15.89	2.02	
	실업자	9.27	25.65	36.53	26.42	2.13	
	비경제활동인구	3.84	27.87	39.08	27.32	1.8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88	16.69	45.64	32.97	3.83	644,321 ***
	비정규직	3.59	28.75	38.39	27.48	1.80	

주 1) “(조사표 질문) __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2)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 p<0.5, ** p<0.01, *** p<0.001

- 3-2. 위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귀하의 행복 점수는 어떠한가요?
- 3-3. 위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해당 점수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추가 질문> 3-4. 행복과 불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추가 질문> 3-5. 행복 점수를 표시하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떠올리셨습니까? 지금, 오늘, 요즘, 1주, 1달, 1년, 평생?
- <추가 질문> 3-6. 그렇다면, '요즘' 얼마나 자주 행복하다고 또는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 <추가 질문> 3-7. 행복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즉,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까?

○ 4. [행복의 조건]

- 흔히 행복의 조건으로 가족배경, 가족관계, 건강, 일자리, 부와 소득, 교육 수준, 주거 수준과 환경,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등을 듭니다. 귀하에게는 행복 또는 불행과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 질문> 4-1. 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행복과 불행의 조건들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 질문> 4-2. 다르다면,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과 불행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 <추가 질문> 4-3. 부와 소득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 [행복의 맥락]

- 5-1. 귀하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또는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 <부연> 육하원칙, 즉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5-2. 귀하가 느끼는 행복을 몇 가지 차원 또는 요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 <추가 질문> 5-3. 삶의 질, 쾌락, 평안, 기쁨, 즐거움, 만족, 충족, 충만 등의 개념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추가 질문> 5-4. '소확행'에 대해 들어 보시거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5-5. 가족과 소속 집단, 지역사회, 국가는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6. [행복을 위한 길]

-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나, 우리, 사회, 국가, 세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 심층면접 질문지

- 그동안 행복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달라진 생각이 있습니까?
- 인생 곡선(Time Line)
 - 사물, 의미, 통찰 등을 탐색, 행복했던 시점과 불행했던 시점, 그에 대한 해석
- 가계도와 생태도
 - 가계도는 3대까지. 구성원들과 관계 탐색, 생태도는 친밀도(거리)와 중요도(크기)가 드러나도록 그림, 행복한 관계
- 일과표(Time table)
 - 일주일 단위의 일과표 작성
 - 행복한 공간과 시간, 활동
 - 즐거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
- 행복에 대한 공통 질문들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써 보십시오. 그리고 덜 중요한 순서대로 버리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도 됩니까?
 - 가족과 행복: 기러기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돈과 행복: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 공동체와 행복: 이웃, 마을, 동네, 지역사회, 국가, 세계는 귀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까?

472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귀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 시간, 관계, 활동은 무엇입니까?
- 귀하의 행복을 저해하는 공간, 시간, 관계, 활동은 무엇입니까?
- 가족과 지인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근에 귀하가 한 행동이 있습니까?
- 마지막으로, 다시 귀하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록 5.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동의서

연구 대상자용 설명문

- 면접 참여자용 -

연구 과제명: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연구 참여자 여러분,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미와 맥락,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됩니다.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 개발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정해식 연구책임자, 권지성·정선옥·김성아 공동연구자가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 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지인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여러분이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은 여러분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진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세운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은 후발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고성장의 이면에 짙은 그림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수년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율, 직장인 스트레스, 40대 과로사 등에 있

어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Helliwell, Layard, & Sachs,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95점으로 156개국 중에서 54위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인 사회발전의 지표로 사용되는 1인당 GDP로 측정되는 경제 발전 수준이 세계 29위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은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행복도는 지난 5년간 조사된 23개 OECD 국가 중 연속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안을 파악하고 사회정책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낀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고견은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역동의 한국 역사를 몸으로 체험한 주요 동년배(1997년생, 1984년생, 1971년생, 1958년생, 1945년생)를 성별에 따라 모시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수행하는 전문조사업체 OOOO의 추천을 받아 무작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3. 연구 방법

연구 참여는 집단면접(인터뷰)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집단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연구 참여자 여럿(총 5명 내외)과 연구자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성별에 따라 동년배가 함께하는 면접을 진행할 것입니다. 면접 시간은 2시간 안팎이 될 것입니다. 면접 장소는 집단별로 5명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면접에서는 행복의 의미, 조건, 심리적 역량 등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게 될 예정이고,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니 편안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담 내용을 녹음·녹화할 것이나, 해당 자료 및 녹음·녹화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일절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면접은 집단별로 1회가 실시될 것이며 정확한 자료 해석을 위해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하거나 심층면접을 여쭙 수 있습니다. 연구 절차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

간의 보관 기간을 거친 후 완전히 폐기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시는 분에게는 면접을 마친 후 감사의 의미로 5만 원의 사례비를 조사업체 0000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례비 지급을 위해 수집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은 사례비가 정상 지급된 후 폐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집단면접은 6~7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며, 집단별로 각 1회(2시간 안팎)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심층면접은 7~8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연구 참여 도중 중도 탈락

본 연구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 없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고, 동의 철회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 중간에 동의를 철회하고 싶으실 경우, 면접 중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면접이 종료된 이후 동의를 철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연구진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연구진 연락처는 설명문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 요소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겪을 특별한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접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이 떠오를 수 있고 그래서 심리적 불편감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성명 및 전화번호를, 그리고 사례비 지급을 위해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같은 일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것이나, 자료 수집 직후 모두 익명화하여 다룰 것이며,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일절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연구 참여자가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하심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는 추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

여러분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수집되는 모든 개인식별정보는 자료 수집 직후,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익명화 작업을 거쳐 다뤄질 것이며, 따라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일절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연구진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될 것이며,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비 지급을 위해 수집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은 사례비가 정상 지급된 후 폐기될 것이고, 연구 절차로 수집된 나머지 모든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의 보관 기간을 거친 후 완전히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중도 탈락하거나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녹음된 자료를 비롯하여 참여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 및 데이터는 모두 폐기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연락처(전화번호)를 수집하나, 연구 관련 중요 사항이 새로이 생기는 경우나, 연구 결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여러분의 응답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보고하지 않도록 해석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을 드리기 위해 서만 수집합니다. 또한 연구 자료에는 대상자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하여 그 번호만 나타나게 함으로써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통해 개인의 신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절 알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및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될 것이며, 연구자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연구 문의

여러분이 연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설명서에 기재된 연구책임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을 시 본 연구진이 알려 드릴 것입니다. 이 연구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한 조사나 감독 등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가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료 열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서 앞에 있는 연구진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에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에 연락하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 제 2019-27호

동 의 서

- 면접 참여자용 -

연구 제목: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1. 본인은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에 제공된 개인의 정보를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연구 관리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생명윤리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열람기관의 예: 보건당국, 연구기관 및 보건복지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4. 본인은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연구 참여에 스스로 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연구 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서명일:

.....

[다음 사항은 필요시 서명합니다.]

법정대리인 (필요시)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 대상자와의 관계:		
입회인 (필요시)	성명:	서명:	서명일:

부록 6. 한국인이 경험한 행복의 맥락과 패턴: FGI 범주화 분석 결과

□ 이하 질적 연구 범주화 분석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c)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질적 연구 인터뷰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1. 남성 집단 범주화 분석 결과

〈부표 6-1〉 남성 집단 범주화 분석 결과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가치관	행복 건강 재정 안정/여유 가족 배경 여가생활 시간 여유 즐거움 하고 싶은 일 사회적 관계 만족 성취 사회적 기여 품위를 유지하며 살기	환경(배경): 가정환경, 재정환경 사랑하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행복한 삶(여러 가지가 행복해야 함) 건강하게 도덕적으로 터불어 사는 것 돈,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즐거움, 행복함	가족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 경제적 자유 건강 경제적 풍요, 정신적 만족(건강, 대인관계) 행복을 향해서 가는 것: 만족감(달성, 성취감)	규범과 윤리에 위배되 지 않는 삶 (가족) 건강 (3) 즐거움 삶, 스트레스 없는 삶, 적당한 삶 돈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는 것 명예를 지키고 늙어서 후태 부리지 않고 온전 히 생을 마감하는 것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 하고 싶은 일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	건강 (4) 가족 (3) 행복 (1) 경제적 안정 (1) 내 삶을 잘 사는 것, 주변 이 되고 배플 수 있음 (1)	건강 (5) 가족관계 4) 돈(금전, 재산) (2)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 고 사는 것 (1) 진실, 성실, 배려, 사랑 을 실천하며 사는 것 (1)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과거와 현재 비교 (행복)	젊을 때는... 친구들과 놀기 취임, 일, 성취, 승진 돈, 내 집 마련 자녀들이 잘되는 것 행복을 생각할 여유 없음 나이 들어서는... 건강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님		<가치관을 갖게 된 배경> 부모의 이른 사망 한 지 앞을 모를 자영업 집안. 돈이 사랑을 움직인다는 생각 부모 건강이 보이고 건강의 중요성을 느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던 시간 여러 종교 공부		20~40대: 친구들과 노는 것, 남보다 더 잘하는 것, 취임, 승진, 내 집 마련, 자녀들이 잘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50대: 자녀들이 잘되는 것, 건강, 손자손녀 보는 기쁨 60대: 건강 조직생활의 흐름대로 살 아움, 자기 삶을 생각할 여유가 없음 (1) 젊을 때는 구체적인 만족, 나이 들고 보니 건강 같은 추상적인 것에 행복 (1)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음, 강박을 내려놓은 현재가 가장 행복 (1)	과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했음. 돈이 모든 것의 중심.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음. 현재: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느낀. 시대에 따라 행복의 개념/조건이 달라짐 무응답 (3)
종교와의 관련성	종교 없음: 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음, 무신론,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필요 없음, 거부감 종교인: 매우 중요, 생활에 영향, 힘들 때 의지, 종교만 있음, 중요하지 않음, 본인만의 종교가 있음	천주교-어느 정도 중요 (의지, 은순). 무교-필요 없음, 강제로 교회. 불교-중요하지 않음. 무교-전혀 중요하지 않음. 신은 없다. 천주교-중요하지 않음, 힘들 때 의지.			영양 없음 (2) 종교는 믿으면 안 됨 (1) 본인만의 종교가 있음 (1) 믿고 있지만 정기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음 (1) 불교를 알고 싶어서 공부했음. 불교 교리를 잘 사용하고 있음 (1) 배움에 대한 깨달음을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행복의 정의	가족 화목 건강 소통 살아 있음 성취감 자기만족, 삶에 만족하는 것 목망이 채워져 만족하는 순간 느끼는 감정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시공간과 활동 일상의 소소한 느낌 하고 싶은 것을 함 경제적 자유 나를 웃게 만드는 것 더불어 잘 사는 것 매일 즐거움이 연속되는 삶 걱정이 없음 평안한 상태, 마음의 평안 함께 사랑하는 것 늘 감사하는 삶 바른 가치관 실현	무교-신은 있다고 생각 하지만 중요하지 않음. 의무를 마치고 느끼는 감정, 풍요로움, 성취감 찾아가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기는 것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 무언가를 통해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마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하면서 큰 것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워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를 할 수 있는 것 나를 웃게 만드는 것들 (사람) 나 자신과 가족, 지인들 모두 더불어 잘 사는 것, 스스로 정한 삶의 만족 기준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 목망이 채워져 만족하는 순간 느끼는 감정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걱정 없는 상태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 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 나와 주변 모두가 함께 사랑하는 것 자기만족을 주는 기쁨을 느끼는 상태	연계 됨 (1) 건강 소통 내 중심으로 잘 살아왔다는 것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늘 감사하는 것 삶에 만족하는 것 마음먹기 달렸음. 현실에 만족해야 함. 건강을 지키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삶	나를 바로 알고 바른 가치관을 실현할 때 누리는 마음 가족 화목 건강 평안한 상태 마음의 평안 사랑을 나누는 것 지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매일 즐거움이 연속되는 삶
행복의 반대	불행 불충만(불충분), 우울, 질만, 끝, 불쾌, 불안, 걱정, 비교,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	불행 (2) 불충만(불충분) (1) 우울 (1) 절망 (1)	불행은 아예 생각하지 않음 불행 불쾌	불행 (4) 행복하기 위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 (1) 고통 (1)	불행 (5) 꿈이 없는 것(좌절, 포기) (1)	불행 (7명)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고통, 꿈이 없는 것, 좌절, 포기	끝 (1)	불안감, 걱정 비교 잘 모르겠음			
행복 점수	행복: 100점, 10점, 5점 중간: 보통 반대: 우울, 절망, 비움, 불충만(불충분), 불행, 불쾌, 불안 /각정, 비교, 고통, 안 행복, 꿈이 없는 것	우울 0, 행복 10 절망 2, 행복 10 끝 0, 행복 10 비움: 불충만(불충분) 3, 중간 4, 행복 3 불행 0, 중간 50, 행복 100 (2)	보통 50-행복 95 비교 0-행복 100 불안/걱정 30 이하-행복 70 이상 불행 0-행복 100 불쾌 0-행복 100 무응답 (1)	고통: -100점 (1) 불행: 0점 (3), 30 이하 (1), 40 이하, 노력이 필요한 상태 (1) 중간: 2~3 안 행복 (1), 41-69 중간 (1), 75 중간 (1) 행복: 100점 (3), 70점 이상 (1), 60 이상 (1), 10점	불행 0, 행복 100 (4) 불행 1, 행복 10 (1) 꿈이 없는 것 1, 행복 5 (1)	
상태와 조건	〈행복〉 재정 여유, 살아 있음, 가능성, 꿈을 이루, 걱정 없음, 하고 싶은 일을 함,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음, 성취, 만족(자기 만족, 욕망이 채워짐, 만족스러운 것이 다수, 삶에 만족),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음, 건강, 무사, 평온, 기쁘고 즐거운 상태, 〈보통〉 아무 일도 없음, 일반적인 삶 〈불행〉	우울: 빈곤하고 필요를 못 할 상태 절망: 절망 때문에 삶의 의지, 자존감 등이 떨어지지만 기화라고 생각할 수 있음 끝: 삶이 끝난 상태 불충만: 건강상태, 병역, 단기적 계획 불행: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행복: 금전적 시간적	불행: 비교(타인과의 비교, 타인의 것들을 신경 쓰는 것), 불안/걱정 (걱정거리들이 쌓인 초조한 상태), 불행(기본적인 의식주 불안상태), 불쾌(욕망이 채워지지 않음,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다수) 보통: 아무 일도 없는 상태 행복: 무언가 이루어지거나 느낀 상태 (1), 경제적 자유를 제공해 주는, 얻을 수 있는 상태 (1),	불행: 행복의 조건 10가지 모두 불만 / 근심, 걱정, 건강하지 않은 상태,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태 /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상태 / 행복하기 위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 / 고통: 심리적 불안감 / 자기 불만족 행복: 10가지 모두 만족, 보통 수준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불행: 건강하지 못함, 괴롭고 힘든 상태, 삶에 불만족한 상태, 꿈이 없는 것, 겪어 보지 않아 잘 모르겠음 보통: 일반적인 삶 (1) 행복: 건강함, 현실에 만족, 기쁘고 즐거운 상태, 삶에 만족스러운 상태, 자신의 꿈을 이루고 건강을 지키는 삶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행복의 반대 우울, 절망, 끝, 불충만, 비교, 불안, 걱정, 불쾌 빈곤, 풍요롭지 못함, 삶의 의지와 자존감 등이 떨어짐, 삶이 끝남, 건강하지 않음, 병역,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음,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음, 비교, 의식주 불안,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 불만족 상태가 다수, 행복의 조건 모두 불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함, 자기 불만족, 괴롭고 힘들, 삶에 불만족, 꿈이 없는 것	여유가 있는 상태 / 알 수 없음, 본인도 경험을 못 해 봄 / 살아가는 상태 / 가능성, 미래, 비전 /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상태 /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대부분 할 수 있음	걱정거리가 없는 지금 이 순간 (1), 경제적 풍요+정신적 만족 (1), 욕망이 채워짐, 만족스러운 것이 다수 (1)	상대, 건강, 금전(채정), 무사, 평온, 공연, 자기만족		
자기최도 점수	0-100 (16) 0-10 (6) -100-100 (1) 0-5 (1) 평균 7.1	0-10 (4) 0-100 (2)	0-100 (6)	0-100 (4) 0-10 (1) -100-100 (1)	0-100 (4) 0-10 (1) 0-5 (1)	
10점 척도		10 (1) 7 (1) 6.5 (1) 6 (2) 5 (1) 평균 6.75	10 (1) 9~10 (1) 9 (1) 8 (1) 7 (1) 5 (1) 평균 8.08	8 (2) 7.5 (1) 6~7 (1) 6 (2)	8점 (3) 7.5점 (1) 7점 (2)	9점 (2) 8점 (4) 7점 (1)
행복 점수 이유	긍정: 건강	시간 여유가 없어 하고 싶은 것이나 누리고 싶은	예전보다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음,	평균 7 행복의 조건 10가지 중 8개 충족 상태	평균 7.58 정: 건강함, 열심히 살아움, 할 일이 있고	평균 8.14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함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매우 만족, 편하게 살고 있음, 현실에 만족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음, 가족이 서로 사랑함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음, 열심히 살아움,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 할 일이 있음 충분한 소득 꿈을 위한 준비가 가능 의식주와 안전 충족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감 행복의 조건 대부분 충족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 부정: 시간 여유가 없어 하고 싶은 것을 못함. 스트레스 건강 문제로 계획이 어그려짐, 강건하지 못함 배우자가 없음 재정 부족 없어지지 않을 걱정 좌절감, 심리적 우울감 목표에 대한 달성도 부족 주변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함, 소소한 행복	것을 누리기에 어려움 공부할 때 스트레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만 나중을 생각하면서 함 매우 만족 건강 때문에 계획이 어그려짐 적당히 취미를 즐기고 있으나 돈이 부족함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조금 제한적(경제적인 부분 부족)	경제적 부분이 충분하진 않음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 없어지지 않을 걱정이 있음 정신적으로는 만족하며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함 꿈을 위한 준비가 가능한 상태, 의식주와 안전 충족	현 상황의 만족도가 보통 수준 이상이기 때문 하고 싶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음 행복의 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 평온한 상태로 보았을 때 좌절감, 심리적 우울감 있음 주변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함,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현재에 만족함, 잘 사는 것은 아니나 편하게 살고 있음, 현실에 만족함, 건강을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 불행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음. 부: 강건하지 못함, 완전히 극복하진 못하고 부족함, 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부족함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감 사별로 배우자가 없음 건강(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건강함,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음, 건강이 좋지 않음)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 남은 2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남은 2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행복 기간	현재	최근	사회생활 시작부터	현재 (5)		말년이 되면서 (1)
	최근 6개월 이내	작년 12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대 이후(6개월)	군대 제대부터 자아의식이 생겼을 때부터(중학교 이전) 20세부터 평생 1년 전부터	6개월 (1)		은퇴 후 지금까지 (4) 지난 10여 년 (2)
행복 조건	특정 생애단계(졸업, 스무 살, 사회생활 시작, 제대, 은퇴, 말년) 이후 지난 10여 년 평생					
	건강 가족관계 부와 소득 일 여가 사회적 관계 원하는 삶, 성취, 꿈, 방향성 배려와 이해 환경, 정보, 교육 수준	건강 (4) 부와 소득 (4) 사회적 관계 (3) 가족관계 (2) 일자리 (1) 여가생활 (1) 환경 (1) 숨 쉴 수 있는 조건, 움직일 수 있는 조건 (1) 정보 (1)	가족관계 (3) 건강 (3) 부와 소득 (3) 배우자 (1) 본인이 원하는 삶을 선택 (1) 대인관계 (1) 환경과 사회적 관계 (1) 교육 수준 (1)	가족관계 (3) 건강 (4) 부와 소득 (3) 일자리 (1) 여가생활/시간 (4) 성취도 (1) 가족배경 (1)	건강 (6) 가족 (5) 돈(부)와 소득, 경제적 뒷받침 (2) 일 (2) 여가 (2) 사회적 관계(친구) (2) 꿈 (1)	(가족) 건강 (5) 가족관계 (2) 사회적 관계 (1) 인생의 방향성 (1)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가짐 (1)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상 (1) 무응답 (1)
돈과 행복	“많으면 많을수록” “신순환 고리”: 돈-시간-하고 싶은 일 “여유 있게 살 정도” “먹고살 정도로 적당히” “각자의 한계점 내에서” “조금 부족해야”	조금은 부족해야 함 (월 300만~400만 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돈이 많으면 시간적 여유가 생김, 그 여유 안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음	자산: 집, 차,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편찮음 / 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 / 100여 원 / 돈에 크게 욕심이 없음 /	자산: 20억 원, 자가, 15억 원, 크게 욕심 없음 소득: 500만 원 (4), 개인소득 750만 원/가구소득 800만 원)	남이 평가했을 때 적당한 정도 신이 주는 범위 내에서 만족해야 함 어느 정도까지는 좋으나 각자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많이 필요하지 않음 (1) 어느 정도만 있으면 욕심 부릴 필요 없음 (1) 돈은 많으면 불행함 (1)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남이 평가했을 때 적당”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 “돈은 많으면 불행해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불행이 있을 것 같음. 먹고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음 연 5000만 원(일을 안 하는 상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여유 있게 살 정도, 본에 넘치는 돈은 두, 월 300만~400만 원(결혼 X)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많이 필요는 없음. 조금은 부족한 상태여야 함.	10억~20억 원(돈, 차 포함) / 10억 원(1인당) 소득: 1000만 원 (2), 500만 원 (1), 200만 원 (1), 혼자 있다면 150만 원 (1), 150만 원 (1)		불행해짐 어떤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겠지만, 많다고 행복한 건 보지 못했음(더 불행한 모습을 봄) 내 수준에 맞게 적당하게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함	무응답 (4)
행복한 순간	계획한 일이 성취될 때 스트레스가 풀릴 때 여가생활을 즐길 때 나만을 위한 여가생활을 가질 때 가족 구성원들이 잘되고 행복할 때,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때 만족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공유할 때 돈과 시간의 구속 없이	운동-사위-매주-성취감 헬링: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계획대로 실행될 때 여가를 느낄 때 만족할 때	아무 걱정 없이 가족과 여행을 즐길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은 것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급진적, 시간적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 설정한 목표가 충족됨	생각대로 흘러갈 때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고 즐거울 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여가생활을 가질 때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할 때 높은 직업적 만족감, 스트레스 없는 상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없는 상태 소확행(화분, 차 정비)	일정한 소득으로 건강한 삶 유지 현실 만족 매일 매순간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때 꿈을 이루었을 때	배우자의 기쁨 가족의 영광 가족의 건강 가족의 목표 달성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산 길의 방향이 올바름을 확인하고 보람을 느끼게 될 때 무응답 (3)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자유로울 때 걱정, 근심 없이 즐거울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없을 때 꿈을 이루었을 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정한 소득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때 매일 매순간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가는 길이 올바르게 보람을 느낄 때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하다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첫 휴가 때 해외여행-다른 언어로 대화,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힐링이 됨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 운전이 미숙한 친구를 가르쳐주고 보람을 느낄 때,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아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할 때 해외여행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 여행 다녀온 뒤에도 계속 여운이 남았음 친구가 선물해 준 호텔 뷔페권으로 와이프와 다녀왔을 때 결혼식 당일,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적당하게 술을 마실 때 아이 보기, 가족과		친구들과 당구 했을 때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 자녀가 제대하고 왔을 때 걱정이 없어짐 재미있었던 순간은 있지만 행복과는 다름 손주가 재롱을 부릴 때 특별하게 없음	평안한 시간 취미활동을 할 때 지인들을 만날 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성취감을 느낄 때 매일 매순간, 정해진 일정 속에서 느끼는 행복
최근 행복한 순간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성취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보람을 느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해외여행에서 다른 문화, 새로운 경험을 접했을 때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릴 때 아이 보기, 아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 가족 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의 선물로 호텔 뷔페에 다녀왔을 때, 손주가 재롱을 부릴 때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불행한 순간	나만의 자유 시간 투자 수익을 얻었을 때, 자격증을 났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녀가 제대하고 왔을 때 평안한 시간 취미활동을 할 때 매일 매순간, 정해진 일정 속에서 느끼는 행복		여행, 한 달에 한번 자유 시간 투자 수익률 120%를 찍었을 때, 자격증 났을 때			
	행복한 순간과 반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남의 강요를 받아 살아갈 때 계획이 어그러질 때, 생각대로 안 될 때, 원치 않는 상황을 겪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 미혹이나 욕망 때문에 실족하고 실패할 때 건강을 잃음, 주변 사람이 아를 때 일할 때 소득이 없을 때, 소득 이하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진다고 느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별 후 홀로 되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계획이 어그러질 때 일할 때 행복한 상황과 반대	행복한 순간과 반대 (3) 남의 강요를 받아 살아갈 때 (1) 원치 않는 상황을 겪을 때, 주변 사람이 아플 때 (1) 탈상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제약 조건의 해결이 어려운 상태 (1)	생각대로 안 될 때 소득이 없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행복한 순간과 반대 상황 (3)	소득 이하 건강을 잃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뒤처진다고 느낄 때	사별 후 홀로 되었을 때 (1) 미혹이나 욕망 때문에 실족하고 실패할 때 (1) 무응답 (5)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행복의 요소	신체적 행복-정서적 행복 물질적 요소-정신적 요소 심리적-상황적 마음의 가치 물질적, 정신적 불평의 제거, 안정감, 성취감 쉽게-적절한 노력-고도의 노력-기적적으로 이론 행복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자녀가 잘됨, 일, 여가, 먹는 것 등 세부 요소들	신체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 편안한 친구, 연인관계, 일자리, 건강 분류가 어려움, 무수히 많음 매슬로 피라미드,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 적절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 고도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 불가능한 일을 기적적으로 이론 행복(가정환경, 정보, 인맥, 직업, 학력, 거주지, 건강, 재산, 개인의 성격, 경험) 물질적 요소, 정신적 요소 모든 행복들이 수지에 따라 다를 뿐 동등하다고 생각함, 나머지 하나가 잘못되면 다 어그러짐	일의 성취감 행복한 감정 공유 심적, 상황적 마음의 가치 물질적, 정신적 불평(불만족)의 제거, 안정감, 성취감	10가지 행복 조건 주어진 환경(대한민국) 스포츠를 보면서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 가정, 사업, 인간관계 먹는 것, 여행, 취미 비자금 (1)	건강 (6) 가족관계 (2) 사회적 관계 (2) 자녀(취업, 결혼) (1) 일(소일거리) (2) 여가생활 (1) 비자금 (1)	가족의 건강, 가족 화목, 경제적 여유 (1) 무응답 (6)
행복의 매력	가족, 소속집단, 지역사회, 국가 등의 상위 매력 모두 영향을 미침	가족과 소속집단, 국가, 지역사회 등이 영향을 미침 가족과 소속집단,			국가는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 (4)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1)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가족과 소속집단은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가는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 지역사회와 국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모든 요소가 뺄 수 없는 부분임	지역사회가 영향을 미침. 국가는 본인의 행복을 빼어감(군 입대) 지역사회와 국가는 본인에게 해 주는 것이 없어서 영향은 없음, 가족과 소속집단은 혼자 살아갈 수 없음으로 중요하다고 느낌 가족, 소속집단, 지역사회, 국가 등이 영향을 미침 가족과 소속집단은 영향을 주나 지역사회와 국가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침. 가족, 소속집단, 지역사회, 국가 모두 비슷하게 영향을 미침	의료보험 보장범위 확대 법, 치안 강화 (2) 국민이 나라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명확하게 외망을 수 있도록 보여 줘야 함 출 더 정의로운 사회를	간접 금지, 선동 금지, 소득재분배 복지 향상, 노인복지 활성화, 빈부격차 없애는 것 복지(의료) 안정적이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함, 50대	환경 (1) 사회질서, 부조리 척결, 정의사회 구현 (1)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너무 많은 자산과 비례한 세금 (2) 민심이 있어야 함 (1) 정치 개혁 (2)	이념에 대한 통제 (1) 자녀 세대가 효도를 중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음. (1) 노인을 위한 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함-건강 (1)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가 가야 함 (1)
국가의 역할	치안 강화-범죄 예방 사회질서 인권 강화 부조리 척결 간접 금지, 선동 금지 감제 vs 누진제: 조세 정책 국민의 욕구 충족 국민의 복지 향상,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법이 강해야 함, 범죄자들을 격리 또는 징계,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한 반성 기간 연장 비도덕적인 부분(비리 등)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빅데이터를 통해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남성	1984년생 남성	1971년생 남성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정의로운 사회 실현 안정적이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50대 이후 평준화 건강보험 보장 확대 경도사상 노인복지 활성화 재분배, 평등, 양극화 감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방자치단체 삶의 질 향상 정치 개혁 미세먼지 해결 건전한 경쟁문화 조성 집단의 권리보다 개인의 권리 우선시 환경	국민의 욕구 충족에 힘써야 함. 정부 규모 확대,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이 분배, 소도시나 고령화된 도시에 의료원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삶의 질을 높여야 함 미세먼지 해결 비도덕적인 일들만 하지 않는다면 잘하고 있음	만들어야 함	이후 평준화,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질서, 균형, 실질적 평등, 상호협력 소득 분배의 불균형 해소, 인권 강화, 건전한 경쟁문화 조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집단의 권리보다 개인의 권리(인권) 우선시	1958년생 남성	1945년생 남성(7명) 무응답 (3)

2. 여성 집단 범주화 분석 결과

〈부표 6-2〉 여성 집단 범주화 분석 결과²¹⁾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가치관	행복(한 삶)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삶의 질 가족관계 건강 편안한 친구 좋아하는 것(일, 사람 등) 즐거움 찾기 돈과 명예 신앙 미련 없는 삶 살기 소확행 인격, 배려, 이해, 소통 돈 인간관계	행복한 삶을 사는 것 풍족한 삶의 질, 가족관계 가족, 건강(부모님), 행복, 친구(본인과 잘 맞는 편인 친구: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됨) 내가 좋아하는 것(일, 사람 등)을 찾아가고 실행하는 것 본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 본인의 행복감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	행복 건강, 가족(남편, 본인, 고양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나 자신, 가족, 돈과 명예 가족(원가족)결혼 후 배우자와 새로 형성해 가는 가족) 남편과 즐겁게 사는 것(행복해지기 위한 본인의 과업)	건강 신앙(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삶의 근간이 기독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미련 남는 일이 없게 살아가는 것 주어진 시간(인생)을 잘 쓰고 활용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건강(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여유(돈)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소소한 것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인격, 배려, 이해, 소통, 신뢰 가족: 가족과 행복한 삶. 자녀 질병 이후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지 않음. 자녀가 존재 자체로 중요하며 행복은 눈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됨 과거: 자녀/ 현재: 주어지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매일 행복한 것, 내가 먼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질(마음가짐이 가장 중요) 건강, 돈, 관계(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됨)	행복한 삶 즐거움, 건강(육체적/정신적), 인간관계의 원만함, 선한 실천 건강한 몸과 가정의 화목과 사랑이 있는(정리 많은) 삶 인간관계 건강(육체적/정신적), 가족의 화목 건강(육체적/정신적) 건강(육체적/정신적)(긴 장이 돈보다 중요), 행복

21) 의미단위 옆의 숫자는 유사하게 답한 사례 수를 뜻함.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종교와의 관련성	종교가 있는 경우 대체로 중요하다고 여김	전혀 중요하지 않음 (3) - 무교 중요하지 않음 (2) - 무교 매우 중요함 - 개신교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 무교 중요하지 않음 (3)(1명은 개신교) 중요함(개신교)	매우 중요함- 개신교 중요함 (3)- 개신교 중요하지 않음- 무교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무교	매우 중요함 (2) 중요함 (2) 중요하지 않음 (2) 불교 (1) / 개신교 (3) 천주교 (2)	매우 중요함 (4) 중요함 (2) 불교 (3) 개신교 (2) 천주교 (1)
행복의 정의	만족: 만족감. 만족감에서 나오는 긍정적 감정 편안: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락함 좋아하는 사람들과 혹은 혼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자유: 자유로운 상태 선택을 느끼고 내일을 기대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 마음속 사랑의 마음 건강: 건강 재미: 재미있게 사는 것 초월: 신앙의 가치로 사는 것 의미: 잘 살아 냄 / 삶에서 존재의 의미 찾기 여유로움 나눔: 나눔, 배려, 양보, 배풀기	만족: 충분한 만족감이나 만족감을 통해 나오는 긍정적인 감정(기쁨 등). 행복은 만족감. 무언가에 만족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일 삶의 원동력. 편안함: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락함. 편안함. 제일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행복하다고 느낌. 좋아하는 사람들과 혹은 혼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자유로운 상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걱정 없는 상태. 자유로움(움매이지 않은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하면서 지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가족, 친구 등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 건강(신체적 건강)하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개인적 시간/관계)을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 정의 내리기 어려움(평화롭고 만족스러울 때 행복감을 느낌) 건강하고 재미있게	주말(쉬는 날 / 즐거운 날 / 여유로움)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살아 있으니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이 잘 살아 있고 그 삶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건강한 삶(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부분이 균형 잡힘)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것	나에게 나눔이란 목적이 있는 것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상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현재를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함) 내 마음이 느끼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주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감이 없음) 물과 같은, 생명과 같은에서도 담는 그릇(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를	즐거움, 인생의 궁극적 목표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에게 베풀어 줄 때 인생 최대의 목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자신이 즐거운 것 가족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을 때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지금 이 순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즐거움 가족: 가족의 건강과 평온한 삶. 가족 간 이해와 배려.	순간의 설렘을 느끼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 두고두고 화자가 되면서 살아갈 힘이 되는 것. 행복한 느낌을 다시 깨낼 수 있는 그런 게 행복. 신선한 충격(설렘, 의외성)	사는 것			
행복의 반대	불행 행복으로 가는 과정 불만족 스트레스 우울/무기력 불건강 한숨, 후회, 절망, 슬픔	불행(4) 한숨(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항상 한숨을 쉬) 행복으로 달려가는 과정	불만족 불행 우울 스트레스	건강하지 않음(2) 불만족(2) 후회 우울한 상태(무기력함)	불행(3) 절망(2) 슬픔(1)	
행복 점수	불행: 0점 혹은 1점. 불안, 초조, 슬픔 행복: 10. 어떤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 심리적 경제적 여유, 안정, 건강, 기쁨, 즐거움	불행: 0, 행복: 10 불행: 1, 행복: 10 (어떤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 불행: 0(불안, 초조, 슬픔), 행복: 10(심리적 경제적 여유, 안정, 건강, 기쁨, 즐거움)				7~8(7~80점) 7(70점) (2) 8(80점) (3)
상태와 조건	<행복> 현재 삶이 만족스러움, 긍정적 사고, 도전,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 건강함, 평안, 만족한 상태, 즐거움 <행복 반대>		불만족: 20 ↓ -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만족스럽지 못함을 느껴 우울감을 동반하는 상태, 행복: 70! - 삶에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스러움	건강하지 않음 0 / 건강함 100 불만족 0 - 불안, 두려움, 짜증 / 만족 100 - 평안, 만족한 상태 후회 50 - 무모한 삶 / 후회하지 않음 95 -	불행 100/ 행복 100 불행(현재 삶이 고달픔) 0 / 행복(현재 삶이 만족스러움) 100 불행 -10 / 행복 10 절망 / 행복 10 슬픔 / 행복 99	행복하지 못한 상태/조건: 자녀 문제(예,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함), 건강 악화, 남편과의 관계 등(모두)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불만족, 우울감, 불행,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짜증, 무로한 삶, 무기력, 대인관계 기피, 사람에 불만족, 절망, 슬픔, 오늘도 내일도 기다려지지 않는 상태, 자녀 문제, 건강 악화, 남편과의 관계 문제	0~10 (5) -100 ~ +100 (1)	상대, 긍정적인 사고를 동반하는 상태. 불행, 스트레스: 마음이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 행복: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느끼는 상태	도전 우울한 상태(무기력, 대인관계 기피) 2~3 / 행복 10 건강하지 않음 0 / 건강함 100 불만족 0 - 사람에 불만족 / 만족 100 - 삶에 만족	절망(오늘도 내일도 기다려지지 않는 상태) -10 / 행복(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 10	
자기 척도 점수		0~10 (5) -100 ~ +100 (1)	0~100 (5) 1~10 (1)	0~100 (4) 50~95: 0은 없을 것 같음. 0이면 죽을 것 같음. 50 이하는 최악의 경우임 2~10: 0은 없음. 0은 존재적으로 무(無)인 상태	0~100 (2) -10~+10 (2) 2~10 1~100 *** 불행, 행복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점수를 매김	
10점 척도	10점 만점 기준, 최저 4, 최고 9.9점. 7, 8점대가 대다수.	8.5 8 7 (3) 6	(70점) 8.5~9(본인 척도: 85~90점) 8(80점) 4~5(40~50점)를 왔다 갔다 함 9(90점) 7.5(75점)	8(80점) 7(70점) 60점(처음에는 50점이라고 썼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7(현재는 7이지만, 가변적임) 7(70점) 7.5 (75점)	불행 점수 4(40점), 행복 점수 6(60점) 8.5(85점) 8 (2) 9.9(99점) 절망(불행의 정도) -2 / 행복(행복의 정도) +7	
행복 점수 이유	~가(이) 없어서 꺾이는 행복: ~"에는 안경,	<~가(이) 없어서 꺾이는 행복 점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결혼 후 구속받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이었던 적이	개인으로 하던 일(자원봉사)을 건강이	행복하지만 이루지 못한, 말하지 못하는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예측 가능, 경제적 여유, 소속 등이 포함됨 결혼 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미래(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 소확행 일을 쉬어 편안하지만 불안감도 있음 결혼 후 출산, 양육으로 인한 생활 변화 무난한 삶/무료한 삶 건강을 잃음 돌아보니 여유가 생김	뭘 얻어야 하는지 몰라서 8.5점, 알았다면 10점. 9월까지의 자유 시간임으로 행복하고, 만족, 10점을 주기에는 오늘 이 순간보다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서 낮게 줌 종강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이나, 불안정한 상태라서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함.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음 공무원시험에 실패했다는 주위의 시선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3점을 줌. 길이 아예 안 보이는 양기 때문에 7점. 일과 사람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함. 그러나 안정감, 소속감이 없어, 일을 통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고 나날 설렘할 일이 없다는 것에서 마이니스.	느낌-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남편과 상하에 다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이를 낳으라는 시부모의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 아님. 소소한 것에 만족과 행복을 느낌 현재 일을 쉬면서 편안한 마음이 80점, 불안한 마음 20점 본인의 행복 기대치가 클 수도 있으나, 현재 결혼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조금씩 본인이 결혼 전에 했던 것들을 해 나가고 있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중임 지금 현재 불안한 게 특별히 없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생활양식이 변한 것이 마이니스 요소(내	별로 없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현재 상황에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듯 오늘 기존 컨디션이 좋고 평안함 직장을 그만둔 현재가 좋으나 무료함. 쉼 없이 남은 인생을 더 살아가야 하는 현실 현재는 무난한 경우와 삶(특별히 불행의 조건 없음) 현 상태에 따라 점수를 줌. 육체적 건강 80점(건강함), 정신적 건강 70점, 물질적 건강 60점(실업상태) 그 전에는 만족을 못하고 앞만 바라봤는데 최근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됨. 행복에 대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됨 <앞으로의 행복 점수>	좋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상태 = 불행함 비교적 몸과 마음이 편한 편, 남편 상사 세끼 차리는 부분이 힘들 행복하지만 절망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자녀의 슬픔, 아픔 내일이기보다는 오늘만 같아라.	아쉬움, 미련이 있음. 보수적인 남편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낌,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음.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내가 원하는 꿈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고 싶은 곳을 다니고 있음(여행), 여행 갈 수 있게 해 주는 남편이 있어 감사함. 그러나 내 자녀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대학)에 대한 아쉬움이 마이니스 요소. 이전에는 80점도 되지 못했음,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진. 완전한 행복은 없음 현재 집이 기와집이 아님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지금 행복하면 행복〉 오늘까지 쉬어서 좋은 상태임. 오늘 남은 시간까지 100점까지 채워질 예정(영화 보기, 휴일을 앞두고 느끼는 여유 등으로)	폐턴대로 살지 못하는 것)	유지하도록 노력 점수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음 정제될 것 같음 올라가기를 희망함 점수가 올라갈 것		
행복 기간	지금 이 순간 오늘 임주일 6달 기준 최근 1년 4~5년 기준 5년 전 특정 시기 이후 ~ 현재		지금 이 순간 서른 이후 - 현재 (2) 요즘(임주일) 결혼 후 - 현재 아이 낳은 후 - 현재	오늘 6달 기준 4~5년 기준 최근 1년 〈지속 기간〉 행복의 잣대가 변함 사람에 따라 다름		12년 전 현재 63세(마내아들이 장기간 이후) - 현재 5년 전 - 현재 42년 전 - 현재
행복의 조건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것 건강 경제적 여유(부/소득) 부와 소득, 일자리 자기만족 성취감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역할/존재/기치 심리적 여유 마음가짐 여가생활 선택	가족관계 건강 부와 소득(경제적 여유) 인간관계 심리적 여유 시간적 여유 성취감 만족감/긍정적 감정 사회적 역할/기치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적 공간 권리 보장 긍정적인 마음의 기준	가족관계 건강 일자리 사회적 관계 소득(수입) 부 여가생활	가족관계 건강 일자리 전반적 환경 교육 수준 주거 수준 시간 여유, 여가생활 자기만족, 타인과의 비교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성취의 기쁨이 있는가?	건강(몸과 마음)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일(역할) 경제(소득과 부) 사회적 관계 불확실한 것이 최소화되는 것, 변화보다는 안정	가족의 건강 중용 포기할 것은 포기함 내려놓음, 기준을 낮춤 마음의 평화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주거 수준 불확실한 것 최소화 충용	마음가짐				
돈과 행복	시간이 돈보다 우선 돈은 절대적임 돈 때문에 불행하다는 경험을 함 경제적으로 기본은 있어야 함 돈과 행복은 비례 건강해야 돈이 내 것이 됨	<시간과 돈> 시간이 돈보다 우선 (2) 시간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음. 20대 현재를 바라봤을 때, 시간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함 경중을 따지기 어려움 (2)	돈이 가장 중요: 시간, 정신적 여유, 스트레스 관련 절대적인 것: 하고 싶은 것, 미래, 집. 최근 돈 때문에 불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 부동산으로 돈 번 친구 보면서 억울하고 배가 아픔. 내가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느낌. 부동산에 대한 관심, 주변 사람들과 비교, 페러야 될 수 없는 것	많을수록 좋음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필요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 좌우됨 물질만 가지고 행복을 느끼기엔 한계. 기본 충족이 되는 정도라면 편찮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고 봄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함, 돈이 너무 없으니까 마이너스, 주변이 괴롭고 경제적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음. 일정한 소득은 행복의 조건	가장 긴밀하고 중요한 부분, 행복과 돈은 비례함(모두) 돈은 (행복의) 최고의 조건은 아님. 수단임. 물질은 꼭 필요함 서로 믿는 화합이 제일 중요. 신뢰가 깨지면 돈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음 돈의 힘은 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님
	행복한 순간	만족감을 느낄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한 자리를 가질 때 자유로울 때 내 뜻대로 될 때 새로운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안정적인 일상 성취감을 느낄 때, 승진했을 때	내 삶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한 자리에 있을 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나의 뜻대로 됐을 때 낯선 곳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는 안정적인 루틴한 일상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노력하여 이뤄 냈을 때 타인이 웃을 때 아침에 5분간 명 페러면서 커피 마실	아무 일 없이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갈 때 편안한 상태 과거 연애 시절, 자녀가 유아기였을 때 영유아를 돌보면서 느끼지는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가족 간에 소통이 되었을 때, 일이	나눔(섬김)을 실천할 때 자녀의 결혼 날짜가 정해진 후 가족끼리 3박4일 판으로 여행 갔을 때 가족이 화목할 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는데 자녀가 잘 자라났을 때 주변 상황이 모두
						자녀가 부모에게 잘할 때 자녀 키울 때 남편이 잠시 세끼 나가서 먹을 때 해외여행 갔을 때 매일 아침 남편이랑 하이파이브할 때,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때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최근 행복한 순간	무탈할 때 과거 연애 시절 자녀가 어릴 때 건강할 때 화목한 가족: 가족 간 소통이 잘될 때 나눔을 실천할 때 잘 자란 자녀 소소한 행복 가족이 잘될 때: 부모에게 잘할 때, 자녀 키울 때,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때, 자녀들의 대학 진학, 결혼, 임신과 출산	기말고사, 기대하고 있던 과목의 성적을 보고 성취감과 만족감 일, 시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는 일상의 한 순간을 혼자 또는 가족, 지인들과 여유 있게 보낼 때 좋아하는 장소를 갔을 때, 여행 가서 여행지만의 느낌을 받을 때. 별생각 없이 먹었던	때 강아지가 산책 후 기절한 듯이 자는 것을 볼 때	즐거울 때 삶의 여유가 있을 때(출근 안 하는 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을 때) <행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여행 / 평안 / 연애 / 커피 향 맡을 때, 커피 원두가 신선할 때 / 아이의 웃음, 논동자 / 여유로움, 뿌듯함 (만족감), 충만함	무탈할 때, 친정 부모님 모두 살이 찌시고 형제들도 건강할 때 명절을 함께 보내던 때 소소한 행복(아침에 주변이 다 평안한 상태에서 클레식을 틀어 놓고 커피를 마실 때) 바쁘게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승진했을 때(여성이 승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 냈을 때)	아들, 딸 대학 갔을 때, 장가, 시집갔을 때. 아들, 딸 시구 모두 건강하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외동딸이 임신했을 때, 외동딸이 늦게 시집갔을 때
최근 행복한 순간	기대가 채워진 순간 예상하지 못한 선물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어떤 일이 마무리되고 여유와 자유를 느끼는 순간 걱정거리 없을 때 친구와 마음 터놓은 대화 가족 간 소통 삶의 여유	기말고사, 기대하고 있던 과목의 성적을 보고 성취감과 만족감 일, 시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는 일상의 한 순간을 혼자 또는 가족, 지인들과 여유 있게 보낼 때 좋아하는 장소를 갔을 때, 여행 가서 여행지만의 느낌을 받을 때. 별생각 없이 먹었던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 걱정거리 없을 때 최근에 없음 친구와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했을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가족 간에 소통이 되었을 때, 일이 즐거울 때 삶의 여유가 있을 때(출근 안 하는 날 늘어지게 자고		손녀딸이 만들어 준 어버이날 카네이션 선물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케이크가 너무 맛있었을 때		일어났을 때)		
불행한 순간	나: 끌려가는 인생, 나태한 내 모습, 타인과 비교, 불우한 노년을 상상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가족: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줄 때 가족, 친구, 건강, 일자리 등을 잃을 때 몸이 아플 때 일자리가 없을 때, 사회 내 존재를 못 찾을 때 목표했던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임해야 할 때 가족, 친구, 건강, 일자리 등을 잃을 때 나의 뜻대로 안 됐을 때 아무것도 사회에 나가 기여하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	부와 소득, 나태한 내 모습 타인과 비교했을 때(본인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타인이 나에게 상처 되는 말을 했을 때	없음 두려움, 불안, 자책 특별히 없음 독거노인이 되는 상상, 몸이 아플 때 건강하지 않을 때 구직활동의 어려움 목표했던 일이 성취되지 않을 때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이 내 일상에 부담을 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재어할 능력이 없을 때, 한계를 느낄 때 소통의 벽을 느낄 때	소득과 건강, 환경이 따라주지 못할 때 뜻대로 안 되는 자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속 썩일 때 딸린 동생 많은 만발의 고달픔 남편과 사별했을 때
	복합적임 물질적(경제적) 심리적 요소 일상의 기본 좋음 → 성취감 → 베푼 감정 스스로 노력해서 얻음 주변 여건으로 얻어지는 행복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복합적이어서 분류 할 수 없음 물질적 요소, 심리적 요소 3단계로 나뉨 -1단계: 일상에서 느끼는 기본 좋음, 즐거움 -2단계: 내가 무언가 능동적으로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3단계: 좋아하는 것을	나 스스로 노력/투자하여 얻는 행복 주변 상황/조건들로 인해 얻어지는 행복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음 건강, 가족관계, 일 1) 경제적 행복, 2) 사회적(관계적) 행복, 3) 정신적 행복	건강, 경제적 안정, 사회활동(일, 봉사, 종교), 관계(가족, 친구 등) 소통, 안정, 인정받는 것	건강 돈 화합 시간 가정의 평안 욕심내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는 것
행복의 요소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소통과 인정 화합 시간 육신내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는 것	이뤄 냈을 때 느끼는 변찬 감정				
행복의 맥락 (가족, 소속집단, 지역사회, 국가)	가족, 소속집단, 지역사회, 국가 등의 상위 맥락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가 있으므로 개인 생활이 유지된다고 생각함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소소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함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100%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모든 것이 조직적인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함. 가장 기초/기반이 되는 요 관계(친구, 가족, 이웃 등)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행복감이 큰 것 같음. 가족이 가장 많은 영향(가족 구성원 간 소통이 가장 중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선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함.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가가 평장히 중요. 대인관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함	가족은 나의 행복에 100% 기여. 소속집단은 70% 기여함 신앙이나 가족, 사회, 본인의 자유 등이 모두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음 행복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가족관계 형성이 잘된다면 지역 및 사회 소속 간 인간관계 형성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음 가족, 소속집단, 지역사회, 국가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 개인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불우한 가정환경, 강압적 직장 분위기, 자유로운 소통이 불가능한 국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함. 행복은 스스로 마음대로 느끼는 것 영향을 미치는 순서: 1) 가족과 소속집단, 2) 국가, 3) 지역사회	국가가 있으므로 개인의 생활이 유지된다고 생각함 국가, 사회가 현재 잘되어 있다고 생각함. 더 바랄 것이 없음. 복지가 이 정도면 좋은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함, 여기서 더 바라면 욕심이라고 생각함 (2)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행복을 위한 길	본인: 좋아하는 일과 만족감을 주는 일 찾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 노력, 긍정적 마음가짐 갖기, 행복을 위해 노력하기, 일을 미루지 않기, 과도한 경쟁이나 비교하지 않기, 현재의 삶을 인정하기, 각자의 삶을 인정하기, 내가 행복해야 가족, 사회 등 행복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에 만족하기, 자녀의 앞가림, 자기희생을 통해 가족, 사회 국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	내가 좋아하는 일과 만족감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긍정적인 마음가짐, 하고 싶은 일 열심히 찾기 현재 마음가짐 유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좋아하는 것 찾기 등)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 것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사회와 개인이 노력할 일: 과도한 경쟁이나 비교하지 않기. 각자의 삶을 인정하기	경우 개인이 불행해질 수 있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간이 되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함 본인: 내가 먼저 행복, 우리: 가정이 행복(부모의 역할), 사회: 기회의 평등, 세계: 전쟁, 인종차별 철폐 본인이 먼저 건강해지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재와 교육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세상과 지구환경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본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에 만족하는 자세 갖기, 사회: 소통 가능한 공동체	소화행 실천(매일), 매일 감사한 마음, 우리: 좋은 관계, 사회: 계층 간 갈등 해소, 세계: 평화 당장 죽더라도 자녀가 앞가림을 잘한다면 괜찮을 것 같음. 서로 배려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고 함께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가져야 함.	자신보다 더욱 큰 것을 위해 헌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을 지켜야 함. 개인의 인생을 희생하더라도 사회, 국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 가정교육이 중요함
	가족: 서로 배려하기, 부모의 역할 중요 사회: 기회의 평등, 소통 가능한 공동체,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 기여하고 각자 책임을 지어야 함 세계: 전쟁, 인종차별 철폐	가족이 서로 배려하기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국가의 역할	기본권: 인간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법적 보장, 다양성 존중 지향성: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 중시,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전문성: 세심히 살펴는 정책,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전문성 있는 정책	최소한의 경제/기준선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남을 수 있는 법적 보장 필요(국민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법 과정이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함 안전보장: 치안 강화, 강력 범죄에 대한 법 강화, 안심 귀가서비스 보완 필요 체계적인 정책수립(예: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 필요) 세분화된 (단계별로) 기준 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그 기준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함.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함). 위라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	다양성 존중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서 상생과 화합을 중심으로 실현되며, 청년수당처럼 허튼 곳에 쓰이는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복지 서비스 확대(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음. 소득이 많지 않다라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많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음) 표를 의식하는 정책보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전문성 있는 정책 강력한 법치국가(치안 강화, 법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만들기 복지, 노후보장 개인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안전한 사회), 실질적 혜택 폭이 넓은 사회복지정책 수립(일-가정 양립, 여성의 노동권보장)(예, 육아/보육 환경) 환경오염 및 지구환경의 진강을 위한 노력 실패 파악 후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	복지제도 연금제도 확충 및 강화 평화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국민이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꽃대를 세워 줘야 함 국가 나름의 방향을 가지고 거시적인 틀로서 정책을 해 나가는 것(예, 인구정책, 군사정책 등)	출산정책, 국가 부채 걱정, 미세먼지, 북한 대치, 재벌정책, 탈원전 등 관심 많음 /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 노인 일자리는 넘쳐 남, 젊은 사람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함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필요(초미세먼지) 반공 대책/북한 대책(경제적 원조에 반대함)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마련 불가안정화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기	“지금” 현재				지금: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겠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님.	현재가 가장 행복함,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음, 내가 해야 할 일 과업들을 끝낸 상태
주변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자신감이 넘치고 걱정이 없는 친구 늘 밝고 웃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걱정이 없고 긍정적인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친오빠 상황에 따라 달라짐 행복한 일상을 즐기는 사람 스스로에 만족하는 사람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가정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 남편 복이 있는 사람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함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행복해 보여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1997년생 답변 (1984년생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음) 〈친구〉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넘침. 보면 본인까지 행복해짐. 평소에 걱정 없이 쓸데없는 생각 안 함. 후회도 잘 안 하는 편.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넘침(가족관계에서 오는 자신감 - 긍정적 영향, 사랑을 많이 받음) 걱정이 없음(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걱정이 없어 보임). 친구의 SNS에도 항상 누구보다 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음. 가족관계도 좋음(주말마다 함께 놀러 다님) 〈엄마〉 자식, 미래 등 걱정이 없어 보임. 긍정의 기준이 넓은 분임. 작은 것에도 기뻐하심.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하심 /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좋아하는 일 계속하고 계심 /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면서 밝은 에너지를 풍기고 계심 〈친오빠〉 제대하고 휴학 중인데,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있음(자유로움)	공원에 돛자리 깔아 놓고 옆에 반려견과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오름 자기만족(불행한 조건이 많아도 본인이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함) 타인이 행복해 보인다고 느낀 적은 없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행복한 걸까?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공감함 아이를 키우면서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가정이 부러움 얼굴 표정 행복해 보이는 사람:	타인에게 베풀기를 실천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여진(물리적/정신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봉사를 통해 본인이 만족을 느끼는 사람 남편 복 있는 사람(남편이 아내가 여행 가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모습 등)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함. 다 나름의 속사정이 있음 불행한 여진에서 조금씩 벗어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의적으로(자기	내가 보기에 행복해 보여도 속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 인상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 얼굴이 밝음(웃는 표정)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있음	〈일정하지 않음〉 어릴 때 보면 부모님도 행복해 보이고 친구도 행복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음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우리 세대 vs 다른 세대	세대 간 공통점: 안정감 추구 요즘 세대: 세로움에 도전함, 부부 중심의 생활, 요즘 세대의 삶이 걱정되는 위 세대, 자기 자신이 중요함 위 세대에 바라는 점: 신경 끄길 바람 위 세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함 가족에 올인하는 방식이 다름 다름: 위 세대는 희생과 헌신, 봉사, 배려	본인이 부모님 연령대가 되면 안정감을 추구할 것 같음.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세로움, 도전할 부분을 찾는 것 같음 부모님 세대, 본인 세대 모두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생각 함.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예전 세대 : 안정감 vs 요즘 세대 : 세로움, 도전 요즘 세대는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고 싶은 것은 시도라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 요즘에는 본인의 직업을 하나만 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음. 부업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음 예전 세대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됨 (예: 일을 그만둔다고	(위 세대가) 개인 생활에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람	가족을 지탱하는 힘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나 요즘은 더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 요즘 애들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함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삶이 풍요로워짐 결혼, 임신에 대한 부분 모두 본인이 결정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음. 명확한 본인의 생각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나 요즘 대체로 들리는 이야기는 애매하고 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가족에게 올인하는 방식이 다름 요즘은 자아가 중요함. 우리는 전체적인 행복의 추구. 지금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 추구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소확행	의미의 의미: 원래 있던 말인데 줄임말로 유행함, 소소하다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만들어진 단어 그 덕에 일상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낌 다양한 장면에서 소확행을 느낌 (유형: 혼자 남은 시간에 커피 마시며 여유 있고 평안한 상태, 반려동물이나 남편과 같이 있거나 산책하거나 놀러갈 때, 우연히 길 가다가 상쾌한 바람을 맞을 때, 날씨가 좋을 때, 습관/계획을 지켰을 때, 맛있는 것 먹을 때, 돈 쓸 때, 손자녀의 관심과 인정 공감 안 됨: 본인의 정서/상황에 따라 다름, 그 이면은 씁쓸함, 두계획 등, 현실을 부정하고	했을 때) 20대의 불안함으로 기본적인 안정감 추구 원래 있던 건데, 줄임말을 많이 쓰게 되면서 쓰는 단어라고 생각함(옛날과 차이가 없음) 이 단어를 통해,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많아진 것 SNS를 보면 소소한 것이 아닌데, 소소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음. 본인의 소확행: 일 끝나고 맥주 한잔할 때 SNS 같은 남에게 보여 주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함 편안함을 많이 느낌	고양이를 바라볼 때, 남편과 밖에서 데이트를 할 때, 공장에 놀러갈 때 아침에 커피 마실 때, 길 가다가 상쾌한 바람을 맞을 때, 날씨가 좋을 때, 커피 마시면서 산책했을 때, 습관/계획을 지켰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음식을 바로 먹으러 갈 때 소비는 확실한 행복 남편 출근 후, 아이 등원시키고 들어와서 라디오 틀고 커피 마실 때	실제 삶에서 소확행을 느끼고 있음. 그 자체가 즐거움(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먹는 것 등) 20대의 기준으로 본인의 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함 공감이 안 됨.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했지만 그때뿐이었음.) 하루 안에서 소확행을 찾는다면 그날 하루가 즐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 낼 힘이 생긴. 그러나 본인의 정서/상황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함 세대가 변하면서 나타난 단어. 소소한 데서 행복을	기생충을 보면서 소확행의 이면(씁쓸함, 두계획 등)에 대한 생각을 함 이해가 감 소확행의 이면이 마음 아플, 요즘 아이들의 절망적인 부분, 현실의 씁쓸함, 스스로 위로하는 것들	손자녀의 관심과 인정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위로하기 위해 만든 말, 20대가 본인 만족을 위해 만들어 놓은 단어			느끼는 편이라,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공감이 됨		
가족 (배우자, 자녀)과 행복의 관계	가족의 영향은 지대함 가화만사성 가족의 일은 여성에게 “숙제” 같은 일 자녀 때문에 살아온 인생 가족, 특히 자녀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가족을 위한 회생과 헌신 현모양처로서 삶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 성격이 정해지는 시기에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중요성이 물론 크지만,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음. 본인의 어머니가 가정환경이 어려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 내심 중요하다고 생각함 (2) 중요성이 큼. 특히 10대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20대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10대는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 시간이 많음 유년기부터 20대 초반까지 가정환경이 인생에 오래 영향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원가족이 더 중요한 영향. 가화만사성: 가족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한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가족이 무탈하면 행복함 아이를 낳으면 목표로 하는 행복 점수(90점)가 깨질 것 같음	가족 간 소통, 가족의 인정과 사랑을 느끼면 행복감이 커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힘이 생김. 이혼(자녀가 4살 때), 헤어진 남편의 모습이 아이에게 보일 때 끔찍하게 싫음(아이에 대한 애정 없이 책임감으로 키움) 남편이 50이 넘어서면서 집에 일찍 들어옴. 그게 귀찮기도 함.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대화가 맞춰 주면서 대화할 때 행복함	가족의 일은 여성에게 ‘숙제’ 같은 일 자녀 때문에 살아온 가족, 특히 자녀의 삶에서 찾았던 행복. 자녀들이 잘되었을 때 제일 행복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슬펐음.	가족을 위한 회생과 헌신: 나를 희생하여 가족을 지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우리 정도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회나 국가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현모양처(가족 중심, 자녀 양육, 헌신/회생)로서의 삶(모두) 〈가족 속에서 나〉 “나만 잘하면 모든 게 편안하다”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까진다고 생각함. 가정환경이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인을 통해 느낀				
비교와 행복의 관련성	비교는 행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줌 비교는 행복을 깎음 비교하면 행복이 달라남 비교하면 힘든 상황이 만들어짐 비교해 봤자 변하는 게 없음 비교가 행복감을 줄 수도 있음 힘들지 않은 사람 없음 → 속절없는 비교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함. 그래서 괜찮아짐.	타인과 비교는 행복을 느끼는 것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줌 (5) 타인과의 비교가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줄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예: 공무원 공부 할 때, 공부한 시간을 짊어 기록하는데 해야 할 양을 다 했음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반대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했을 때는 행복감을 줌)	인생은 원래 불공평 - 비교를 해 봤자 변하는 게 없음 - 비교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아예 외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 없음. 비교를 잘 안 하게 됨. 주변 상황에도 관심이 없고 SNS도 안 함. SNS - 내 기준과 비교 - 스트레스 - 불행은 만들 비교하면 힘든 상황이 만들어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런 상황도 나에게 거름이 될 거라고 애를 쓰니까 괜찮아졌음. 결혼 전에는 직장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남편/시댁/집/ 아이 등으로 끝없이 비교를 함(당함).	비교가 내 행복을 깎음. 내 가족이 괜찮다 생각하는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부유하고 다들 돈 많고, 역시 돈 많으니까 다복하게 지내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내 행복이 깎였음.	행복은 눈앞에 있는 것이고, 비교하면 행복이 달라남	지킬과 하이드: 인생은 영극이고 이중 성격임 / 웃고 얘기해도 나중에 그 사람 속을 들어다보면 어두움. 이렇게 와서도 우리가 속의 우울한 얘기 못 하는 것이 이중 성격. 살아가면서 마인드컨트롤하게 됨 친석꾼은 천 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

구분	전체 통합	1997년생 여성(6명)	1984년생 여성(6명)	1971년생 여성(6명)	1958년생 여성(6명)	1945년생 여성(6명)
			본인의 행복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함.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시선을 다르게 보려고 노력함.			
행복과 마음가짐	행복에서 마음가짐이 중요함.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야 가능함 행복은 선택임 행복은 의지이고 노력임 행복은 세뇌의 결과 채널도 하고 최면도 걸면서 만든 행복 기준을 낮추면 드러나는 행복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함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가능. 다양한 경험을 해 봐야 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명상을 함으로써 자기만족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자지만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더 성장시킴.	행복은 의지이고 노력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행복해지는 상황 자체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함. /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시선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음.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행복은 자기만족.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 스스로 힘을 돋워 주면서 행복을 찾을 행복은 세뇌의 결과: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면 그런 환경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음. 행복은 노력해야 얻어짐. 최근 1년간 그래서 지금 출발.	OO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니 행복함: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해야 하고 정답이 없음. 이래도 저래도 행복하게 보자는 식으로 사니까 편안함. 행복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이 마음에 따라 달라짐	채널도 하고 최면도 걸고: 어릴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음. 내 기준을 낮추면 마음이 편해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마음을 비우면 편해짐 다 운명임 (2): 속상한 일 있을 때, 내가 받아야 할 거 받아야 빨리 소멸되는 거라고 생각함

부록 7.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질문지

□ 인터뷰 질문(국문)

- 어떤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어떤 종류의 것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좌절시킵니까?
- 당신이 말해 준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행복에 있어서 당신의 삶에서 ____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얼마나 ____를 가지고(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가지고(누리고) 있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느끼니까? 건강, 가족, 사회적 지위, 직업, 혹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 당신의 직업, 일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소득, 사회적 지위 또는 다른 어떤 금액 때문입니까? 당신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스스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의 일과 삶이 얼마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력, 가족 및 이동성 측면에서 특정한 삶의 모습을 선택할 때,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끼십니까? 만약 그러한 삶의 선택에 있어 자유가 제약된다고 느껴진다면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삶의 선택에 있어 당신이 결정을 내릴 자유가 꽤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에 관하여 당신의 경험에 기초한 사례를 들어 줄 수 있습니까?
- 당신의 생각 혹은 의견이 타인, 지역사회 혹은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웃, 지역사회, 주 또는 국가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연결성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이웃, 지역사

회, 주 또는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무엇으로부터 받습니까? 소셜 미디어, 지역사회 참여, 또는 친구 및 가족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혹은 그 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입니까?

- 당신은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받으며 지지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정부가 그러한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은 이곳의 사회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아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국가를 고려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이곳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당신 세대의 행복을 다른 세대의 행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인의 판단, 평가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다면 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년 후에 당신의 삶과 사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함에도 열린 가능성을 두고 도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까?

□ Interview Questions(english)

- What sort of things in your life make you happy? What sort of things make you angry or frustrated?
- After all you've told me, it seems that ____ is most important in your life in terms of happiness. Can you elaborate it? How much ____ do you think you have in your life? If it is much, can you think of anything that made it possible? If it is not much, why not?
- What kinds of stress do you get in daily lives? Is it about your health, family, social position, career, or what?
- Are you happy with your career? If so, is it because of amount of your income, social position or what else? Where do you position yourself in terms of your standard of living? Do you think it is well enough to support your life?
- How balanced do you think your work and life are?
- How free do you think you are to choose to a particular kind of life over another in terms of career, family, and mobilities? If such freedom is constrained in your life, what do you think makes the limit? If you think that you are quite free to make decisions, what you do think makes it possible? Can you take examples of your experiences in both cases?
- How much do you think your thoughts/opinions could affect other people, your community or country? Do you feel eligible to address your opinion in public?
- How much do you feel connected to your neighborhood, community, state or your country? How much do you think the connectivity matters to your life? What makes you feel connected, social media,

community involvement, or face-to-face meetings with friends and family, or what else?

- How much do you feel secure, protected or supported? How do you think the government influences such security, or do you count personal efforts more important? What could make it different?
- Have you ever considered moving to another country because you were not satisfied with the social system here? If so, to which country and why? If you have not thought about moving, what do you like about the social system here?
- How would you compare your generation's happiness with other ones? What would make the differences if any?
- How much do you care about other people's judgements? Do you they affect your happiness? If so, how much, and why? If not, why not?
- Can you picture your life or your society after ten years? How do they look? How much do you think they're predictable? Would you be happy because they are predictable? or would you be happy even if they are not predictable but you can challenge and achieve more in open possibilities?

부록 8. 선진 복지국가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동의서

IRB No. 1908/002-008

유효기간: 2020년 7월 29일

Instructions and Agreement for Research Participants

Title of Research : Qualitative Research on Meanings of Happiness in Developed Countries

Research Administrator : prof. Youngsub Chun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study of life happiness. You are ask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because you are a young person or an elderly person living in Norway or Denmark who is scheduled to be interviewed in this study. A researcher, named Youngsub Chun(+82 2-880-6382)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performs this research will explain the study to you. This study will be conducted only for those who voluntarily participate, and it is important for you to understand why this study is carried out before deciding to participate and what the research is related to. Please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and let him know if you would participate, and if necessary, discuss it with your family or friends. If you have any questions, the researcher will explain in detail.

1. Why is this study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find out what aspects of life are critical in one's happiness and (2) to draw out implications why people in Korea despite economic prosperity feel unhappiness.

2. How many people participate?

Approximately 20 people from 2 countries (Norway and Denmark) will participate.

3. What happens if I participate in the study?

In this study, individual interviews will be held one to one for 1-2 hours per meeting. One or two interviews per participant are scheduled to be conducted. In case if you feel uncomfortable having conversation in English, an interpreter who can translate your words into English may be existent during the interview. If additional interviews are required, they will proceed with proper procedures under your agreement.



IRB No. 1908/002-008

유효기간: 2020년 7월 29일

If you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e following process will proceed.
 You will be asked questions about what in your life makes you happy or unhappy which are prepared in advance. You will be asked questions such as about your career, family and personal relationship, important life choices and your achievements or your involvement in local community and et cetera. You may be asked additional follow-up questions if there are more that could contribute to this research. The interview will be conducted at the location you want.

4. How long is the interview?

It will take about 1-2 hour per interview.

5. Can I stop the interview?

Yes, you can leave at any time without any disadvantages during your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If you want to stop participating in the study, please tell the researcher or research administrator immediately.

6. Are there any side effects or risks?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no physical or material side effects because it is condu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reflected in anonymously, so there is no psychological risk factor. However, if the researcher's question causes unpleasant emotions, please contact the researcher immediately.

7. Do participants benefit from participating in this study?

There is no direct benefit for the participants. Though,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contribute to more deepened understanding of diverse aspects of life happiness.

8. If I do not participate in this study, is it disadvantageous?

You are f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ere is no disadvantage to you if you do not participate in this study.

9. Is the confidentiality of all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Professor Youngsub Chun(+82 2-880-6382)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ill be in charge of confidentiality. Personal information that this research collects is: your name, age, sex, and the district



IRB No. 1908/002-008

유효기간: 2020년 7월 29일

you are currently living. Such information will only be reached by involved researchers (Youngsub Chun, Kwon Seok Man, Haeran Shin, Seokho Kim, Bong Joo Lee, Suhong Chae, Sok Chul Hong, Yerin Jin, Seojeong Gu, Jisu Yu), and stored and locked in the research administrator(Youngsub Chun)'s computer. If you agree to participate and sign the consent form, it will be stored for 3 years abide by the relevant legislations and then be discarded permanently. Research data without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stored as long as possible abide by the guidelines regarding research ethics provid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e, all researchers,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e confidentiality of all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is study. When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s study is disclosed to the society or the society, your name and other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used. However, if the law requires it, your personal information may be provided. In addition, the monitoring staff will check the research results to verify the confidentiality, without violating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By signing this instruction form, you acknowledge that you have been aware of this beforehand.

10. Will I be paid for participating in this study?

Yes. You will be paid 50USD for your time.

11. What should I do if I have a question about research?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study or if you have problems in the middle of your study, please contact the research administrator.

Name : Youngsub Chun

Phone Number: +82 2-880-6382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our rights as a research participant at any time, please contact the following SNU Institutional Review Board.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 IRB)

Phone Number: +82 2-880-5153



IRB No. 1908/002-008

유효기간: 2020년 7월 29일

Agreement (For participant)

1. I read this instruction and discussed it with researcher.
2. I have heard about the risks and benefits and have received answers to my questions.
3. I voluntarily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4. I agree to collect and process information about myself obtained in this study to the extent permitted by current legislation and bioethics review rules.
5. I agree that the related Researchers and SNU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can check the information that I will give during conducting surveys.
6. I can cancel m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at any time and I know that this decision will not affect me in any way.
7. I agree that the information collected for this research may be used for other possible research of the research administrator and other researchers.
I agree ☐ I disagree ☐
8. My signature means that I have received a copy of this agreement form and I will keep a copy until I finish participating in the study.
9. I agree with recording the interview if necessary.
I agree ☐ I disagree ☐
10. I am aware of the fact that the data about my name, sex, age, residential information will be collected, and agree about their usage.
I agree ☐ I disagree ☐

_____	_____	_____
Research Participant	Sign	Date(Year/Month/Date)
_____	_____	_____
Researcher in Charge	Sign	Date(Year/Month/Date)
_____	_____	_____
Research Administrator	Sign	Date(Year/Month/Date)



IRB No. 1908/002-008

유효기간: 2020년 7월 29일

Agreement (For researchers)

1. I read this instruction and discussed it with researcher.
2. I have heard about the risks and benefits and have received answers to my questions.
3. I voluntarily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4. I agree to collect and process information about myself obtained in this study to the extent permitted by current legislation and bioethics review rules.
5. I agree that the related Researchers and SNU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can check the information that I will give during conducting surveys.
6. I can cancel my participation in this study at any time and I know that this decision will not affect me in any way.
7. I agree that the information collected for this research may be used for other possible research of the research administrator and other researchers.
I agree ☐ I disagree ☐
8. My signature means that I have received a copy of this agreement form and I will keep a copy until I finish participating in the study.
9. I agree with recording the interview if necessary.
I agree ☐ I disagree ☐
10. I am aware of the fact that the data about my name, sex, age, residential information will be collected, and agree about their usage.
I agree ☐ I disagree ☐

_____	_____	_____
Research Participant	Sign	Date(Year/Month/Date)
_____	_____	_____
Researcher in Charge	Sign	Date(Year/Month/Date)
_____	_____	_____
Research Administrator	Sign	Date(Year/Month/Date)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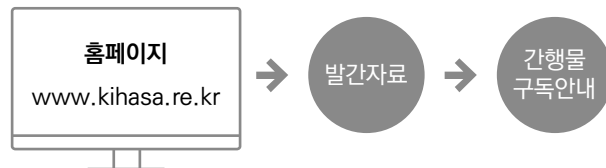
회원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